

발간 등록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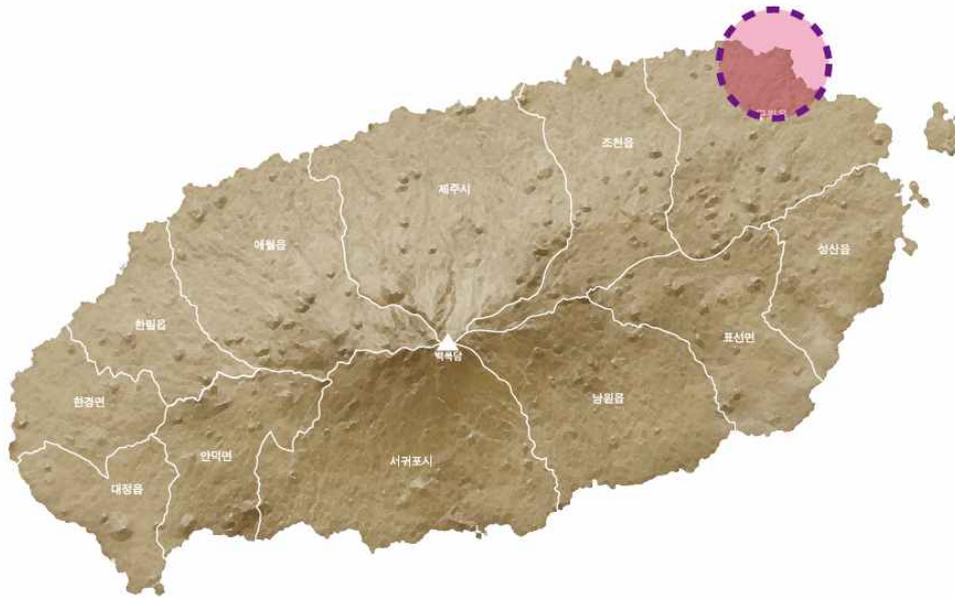
79-6500000-000476-01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구좌읍 한동리

구술: 오문봉 오태봉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보향

12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원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2

-구좌읍 한동리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사업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9
2. 제보자 일생	21
3. 밭일	43
4. 들일	142
5. 바다일	168
6. 의생활	187
7. 식생활	200
8. 주생활	264
9. 신앙	304
10. 세시풍속	310
11. 놀이	338
12. 통과의례	369
13. 민간요법	427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 ·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ᄃ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헛구나’처럼 ‘ㄴ’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	■	■	■	■	■
표준어 대역					■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팻’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II. 구술 자료

(@1: 김보향, @2: 김순자, #1: 오문봉, #2: 오태봉)

1. 조사 마을

101001 @2 한동리 설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한동리 설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101001 #1 한동¹⁾에 설촌은 지금부터 한 칠백 년 전에, 이디 조씨가 이제 와서 이제 뭐인가 설촌을 했다고, 그 조씨가 제일 먼저 살았다고 허주, 조씨가. 게 가지고서 그 조씨를 조씨 뭐인가 그 밧덜이 조개뿔²⁾이니 조씨가 그렇게 하고, 또한 알 동네는 좌씨, 좌씨가 것도 한 육백 년 거의 땀져, 거기도. 좌씨가 와 가지고서 좌 계장을 저기 뭐인가, 좌 계장은 뭐인가 허문 좌씨가 경영하는 목장. 목장을 좌 계장을 설치해 가지고서 저 국가에 막 진상도 허고, 말, 마쉬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씨하고 좌씨가 제일 뭐인가 오래, 제일 먼저 제주도에 왔고 그다음엔 광김³⁾이 왔어. 광산 김씨가. 광산 김씨가 와 가지고서 여기를 안 살아 가지고서 저 뭐인가 저 웃드르⁴⁾에 저 웃굴왓⁵⁾이엔 헌 디 그디서 살다가 지금 이 부락에 와서 지금 제일 광김이 아주 역사가 조씨, 좌씨 그다음 광김이. 설촌에 이디 광김이 막 성허고.(한동에 설촌은 지금부터 한 칠백 년 전에, 여기 조씨가 이제 와서 이제 뭐인가 설촌을 했다고, 그 조씨가 제일 먼저 살았다고 하지, 조씨가. 그래 가지고서 그 조씨를 조씨 뭐인가 그 밧들이 ‘조개뿔’이니 조씨가 그렇게 하고, 또한 아랫동네는 좌씨, 좌씨가 것도 한 육백 년 거의 땀져, 거기도. 좌씨가 와 가지고서 좌 계장을 저기 뭐인가, 좌 계장은 뭐인가 하면 좌씨가 경영하는 목장. 목장을 좌 계장을 설치해 가지고서 저 국가에 마구 진상도 하고, 말, 마소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씨하고 좌씨가 제일 뭐인가 오래, 제일 먼저 제주도에 왔고 그다음엔 ‘광김’이 왔어. 광산 김씨가. 광산 김씨가 와 가지고서 여기를 안 살아 가지고서 저 뭐인가 저 ‘웃드르’에 저 ‘웃굴왓’이라고 하는 데 거기서 살다가 지금 이 부락에 와서 지금 제일 ‘광김’이 아주 역사가 조씨, 좌씨 그다음 ‘광김’이. 설촌에 여긴 ‘광김’이 아주 성하고.)

101002 @2 그러면 지금 성씨, 지금 성씨덜은 어떻 돼마씨?(그러면 지금 성씨, 지금 성씨들은 어떻게 돼요?)

1) ‘한동’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한동리를 말한다.

2) ‘조개뿔’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3) ‘광김’은 제보자가 광산 김씨를 줄여서 부르는 표현이다.

4)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5) ‘웃굴왓’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101002 #1 지금 성씨는 여기 여러 성이 살주. 이거 뭐인가 뭐 이씨도 살고 뭐이 김씨, 광산 김씨, 김해 김씨. 또 다시 우리 오, 구니 오씨, 또 뭐 고씨도 있고 제주 부씨도 있고 만야. 송씨도 있고 많주. 하여튼.(지금 성씨는 여기 여러 성이 살지. 이거 뭐인가 뭐 이씨도 살고 뭐 김씨, 광산 김씨, 김해 김씨. 또 다시 우리 오, 구니 오씨, 또 뭐 고씨도 있고 제주 부씨도 있고 많야. 송씨도 있고 많지. 하여튼.)

101002 @2 예, 가장 많은 성씨는 뭐마씨?(예, 가장 많은 성씨는 뭐예요?)

101002 #1 많은 성씨는 하여튼 김씨 돼주, 김해 김씨, 경주 김씨 합치면 김씨가 제일 많주게.(많은 성씨는 하여튼 김씨 되지, 김해 김씨, 경주 김씨 합치면 김씨가 제일 많지.)

101002 @2 예, 알았수다.(예, 알겠습니다.)

101002 #1 그다음 고씨.(그다음 고씨.)

101003 @2 예. 마을 어른들은 어떤 일을 주로 행 산 거라마씨?(예. 마을 어른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해서 산 거예요?)

101003 #1 이 우리 한동은, 한동은 원래는 토질이 상당히 그 저 박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비료도 엇기 때문에 곡식이 안 됐어. 일로부터 행원으로부터 저디는 질왓⁶⁾이라고 해. 질왓이라는 건 건 무슨 말인가 허른 땅이 거 출흙 밧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됐어, 옛날로부터. 계난 한동으로부터는 땅이 뜬 땅, 뜬 땅이라. 뭐이라 화산에 토, 회토. 거 막 불치 닳은 흙이기 때문에 잘 뭐인가 안 돼기 때문에 옛날은 여기서 상당히 생활이, 한동은 행원, 월정보단 막 곤란했지. 경해서 질 처음에는 그 따비란 게 있어, 따비.(이 우리 한동은, 한동은 원래는 토질이 상당히 그 저 박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비료도 없기 때문에 곡식이 안 됐어. 여기로부터 행원으로부터 저기는 '질왓'이라고 해. '질왓'이라는 건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거 찰흙 밧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됐어, 옛날로부터. 그러니까 한동으로부터는 땅이 뜬 땅, 뜬 땅이야. 뭐야 화산에 토, 회토. 거 아주 재 같은 흙이기 때문에 잘 뭐인가 안 되기 때문에 옛날은 여기서 상당히 생활이, 한동은 행원, 월정보단 아주 곤란했지. 그래서 쥬 처음에는 그 따비란 게 있어, 따비.)

101003 @2 따비, 예.(따비, 예.)

101003 #1 따비란 건 저 보지 안헤실 거라. 사람이 사람으로 이거 거 따비 있고 거 뭐인가 쥬 고지 두 개 메와 가지고 사람으로 이제 거 둘리가 혼 조로 해 가지고서 거 테왓밧 잇잔허여?(따비란 건 저 보지 았았을 거야. 사람이 사람으로 이거 거 따비 있고 거 뭐인가 쇠 꼬치 두 개 메워 가지고 사람으로 이제 거 둘이 한 조로 해 가지고서 거 떼밭 잇잖아?)

101003 @2 예, 예.(예, 예.)

101003 #1 테왓밧, 새왓, 옛날에 새, 새를 해서 이제 집을, 초가집 헛기 때문에 그런 새를 새왓, 출왓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이겨야 돼. 그 쥬로 못 가니까 그때는 쥬로 못 가니까 그 따비로 그 생밧을 그 뭐인가 이겨 가지고서 경 해서 그것을 쥬

6) '질왓'은 돌맹이가 없고 맨 흙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한다.

밭이라, 쉰 밭 갈아근에 조 허고 그 그루에 믫물허고 그렇게 허면서 생활을 허다가 이제 이 평지는 소로 쟁기로 이제 밭 갈지이.(떼밭, 새밭, 옛날에 띠, 띠를 해서 이제 집을, 초가집 했기 때문에 그런 띠를 새밭, 꿀밭을 갔다가 이제 그것을 이겨야 돼. 그 소로 못 가니까 그때는 소로 못 가니까 그 따비로 그 생밭을 그 뭐인가 이겨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쉰 밭이야, 쉰 밭 갈아서 조 하고 그 그루에 메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평지는 소로 쟁기로 이제 밭 갈지.)

101003 @2 예.(예.)

101003 #1 계난 그 쉰 밭이엔 현 건 테왁밭, 그 뭐인가 새왁 같은 건 그건 따비로 갈았고, 따비로 갈았고 또 이 평지는 소로 갈아 가지고서 농사를 지었어. 옛날엔 무슨 농사를 주로 했는고 허니, 뭐인가 조, 보리, 또 콩, 메밀, 또 산두 주로 이거를, 이거를 주로 했주게. 이거를 주로 허다가 지금 뭐인가 요새에는 이제 경운기가 나고 이제 허니까 사람이 좀 편리해졌지. 편리해지니까 이제는 그 우리는 과거에는 상당히 식량에 쪼달려서 우리가 막 배불리 밥을 못 먹었거든.(그러니까 그 쉰 밭이라고 하는 건 떼밭, 그 뭐인가 새밭 같은 건 그건 따비로 갈았고, 따비로 갈았고 또 이 평지는 소로 갈아 가지고서 농사를 지었어. 옛날엔 무슨 농사를 주로 했는가 하니, 뭐인가 조, 보리, 또 콩, 메밀, 또 밭벼 주로 이거를, 이거를 주로 했지. 이거를 주로 하다가 지금 뭐인가 요새는 이제 경운기가 나고 이제 하니까 사람이 좀 편리해졌지. 편리해지니까 이제는 그 우리는 과거에는 상당히 식량에 쪼들려서 우리가 아주 배불리 밥을 못 먹었거든.)

101003 @ 예.(예.)

101003 #1 그런 후제 오일육혁명 후에, 오일육혁명 후에 말야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헌 후에 제주도를 이렇게 순찰해 보니까 말야 조, 보리 갈아근엔 제주돈 의식이 해결이 안 되게것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말야 이디 뭐인가 이 제주도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 뭐 잇냐 해 가지고서 말야 그것을 참모덜안티 거시기 현 거지. 그러니까 캐나다에 아니 호주, 호주 근방 남양 어디 딱슨 데에는 유채가 있었어.(그런 후에 오일육혁명 후에, 오일육혁명 후에 말야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헌 후에 제주도를 이렇게 순찰해 보니까 말야 조, 보리 갈아서 제주돈 의식이 해결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말야 여기 뭐인가 이 제주도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 뭐 잇냐 해 가지고 말야 그것을 참모들한테 거시기 한 거지. 그러니까 캐나다에 아니 호주, 호주 근방 남양 어디 따뜻한 데에는 유채가 있었어.)

101003 @ 예.(예.)

101003 #1 그걸 헤다가 여기에 보급을 막 시켰어요. 그걸 보급 시키니까 유채 그때 서 말 풀면은 보리, 아 저 나룩졸을 너 말을 받았어.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급속도로 이젠 농촌이 이제 성장을 뵈적에, 그때 새막을 뭐인가 사업이 막 정부에서 말야 막 일기 시작했거든. 그니까 이제 이 사름도, 나도 이제 새막을 지도자로 십 년 동안 현 거라. 계난 새막을 지도자 술선수범이 나사 가지고서 우리 농로도 포장해 주십시오. 또 다시 이제는 이 뭐인가 초가집도 계량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

면서 해 가지고 정비해서 말야 그 부락마다 가령 그 뭐인가 세멘트 같은 것을 말야, 한동에 백 포, 다 이 구좌에 백 포씩 다 준단 말야. 백 포씩 쥐 가지고 가장 성적이 좋은 디는 더 주고 그렇게 경쟁을 시킨 거여. 새마을 경쟁을. 그래서 아주 이제 근대화로 너넹히, 먹을 것이 너넹해지니까 유채, 유채 때문에 제주도를 살아간 거라. 그리고 남군⁷⁾에 간 보니까 이제는 남군에 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이 와 가지고 남군에 간 보니까 남군에 영 가다 보든 효돈⁸⁾이라는 게 있어, 저 하효⁹⁾에, 하효에 간 볼 적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미깡⁸⁾이 있었어. 산물¹¹⁾이라고.(그걸 해다가 여기에 보급을 마구 시켰어요. 그걸 보급 시키니까 유채 그때 세말 팔면 보리, 아 저 밭벼짚을 네 말을 받았어.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급속도로 이젠 농촌이 이제 성장을 될 적에, 그때 새마을 뭐인가 사업을 마구 정부에서 말야 마구 일기 시작했거든. 그니까 이제 이 사람도, 나도 이제 새마을 지도자로 십 년 동안 한 거야.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출신수범이 나서 가지고서 우리 농로도 포장해 주십시오. 또 다시 이제는 이 뭐이나 초가집도 계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해 가지고 정비해서 말야 그 부락마다 가령 그 뭐인가 시멘트 같은 것을 말야, 한동에 백 포, 다 이 구좌에 백 포씩 다 준단 말야. 백 포씩 쥐 가지고 가장 성적이 좋은 데는 더 주고 그렇게 경쟁을 시킨 거야. 새마을 경쟁을. 그래서 아주 이제 근대화로 너넹히, 먹을 것이 너넹해지니까 유채, 유채 때문에 제주도를 살아간 거야. 그리고 남군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남군에 가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이 와 가지고 남군에 가서 보니까 남군에 이렇게 가다 보면 효돈⁹⁾이라는 게 있어, 저 하효¹⁰⁾에 하효에 가서 볼 적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굴나무가 있었어. ‘산물’¹¹⁾나무라고.)

101003 @2 산물예?('산물'요?)

101003 #1 거 알아지지? 산물이엔 현 거.(거 알지? '산물'이라고 하는 거.)

101003 @1 예, 예.(예, 예.)

101003 #1 거 이제 감귤이 아니고 옛날 거.(거 이제 감귤이 아니고 옛날 거.)

101003 @1 예.(예.)

101003 #1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영 보니까 저거 뭐냐 허니까, 아, 저 것이 감귤입니다. 이씨 조선 때 진상을 해난 겁니다. 허니깐이 아, 그럼 이거, 이거 감귤을 해야지. 이거 이런 농서를 지영 돼겠느냐. 정의는 우리 한동더레보다도 더 못 해 가지고서 조, 보리가 잘 안 돼여. 거기는 주로 무엇을 했는고 허면은 피보리를 했어. 피보리. 피보리엔 현 거 저 아주 껍데기가 두꺼운 거.(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 뭐냐 하니까, 아, 저 것이 감귤입니다. 이씨 조선 때 진상을 했던 겁니다. 하니까 아, 그럼 이거, 이거 감귤을 해야지. 이거 이런 농사를

7) '남군'은 '남제주군'을 말한다.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8) '미깡'은 일본어 'みかん'으로 귤을 말한다.

9) '효돈'은 서귀포시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효돈동을 말한다.

10) '하효'는 서귀포시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하효동을 말한다.

11) '산물'은 귤 종류의 하나다.

지어서 되겠느냐. 정의는 우리 한동으로보다도 더 못 해 가지고서 조, 보리가 잘 안 돼. 거기는 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곶보리를 했어. 곶보리. 곶보리라고 하는 거 저 아주 껌테기가 두꺼운 거.)

101003 @1 예.(예.)

101003 #1 그 피보리를 허고 또 여름 곡식은 또 이제 고구마를 싱겼어. 고구마를 싱그는 그런 던디 간 보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 감귤이엔 허거든. 옛날 진상했었던. 그러면 이걸로 허면은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곶로 규슈¹²⁾ 지방으로 이 제주도도 그 어떻게 돼냐, 어떻게 돼냐 물으니까 규슈 지방하고 제주도가 기후가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미깡, 미깡은 일본말덜, 그 규슈 지방에 그 미깡이 잘 돼는데 그걸 뭐인가 수입해다가 농민에게 나눠 주라고 말야.(그 곶보리를 하고 또 여름 곡식은 또 이제 고구마를 심었어. 고구마를 심는 그런 텐데 가서 보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 감귤이라고 하거든. 옛날 진상했었던.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좋지 않니 해 가지고 곶로 규슈 지방으로 이 제주도도 그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규슈 지방하고 제주도가 기후가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곶, ‘미깡’은 일본말들, 그 규슈 지방에 그 곶이 잘 되는데 그걸 뭐인가 수입해다가 농민에게 나눠 주라고 말야.)

101003 @2 음.(음.)

101003 #1 그래서 나눠 주고 해 가지고 나눠 주고, 또 이 김종필이가 그디 간에 그 해안 부락에, 해안가에 영 보니까 뭐 한 몇 만 평 내분 땅이 있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거 농사를 내붙었느냐 허니까 농사가 안 돼서 이거 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종필이도 참 머리가 있는 사름이라. 이걸 살 수 없느냐 허니까 아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한 이백 원씩 해 가지고서 몇 만 평을 샀단 말이야. (그래서 나눠 주고 해 가지고 나눠 주고, 또 이 김종필이가 거기 가서 그 해안 부락에, 해안가에 이렇게 보니까 뭐 한 몇 만 평 내버린 땅이 있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거 농사를 내버렸느냐 하니까 농사가 안 돼서 이거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종필이도 참 머리가 있는 사름이야. 이걸 살 수 없느냐 하니까 아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한 이백 원씩 해 가지고서 몇 만 평을 샀다 말이야.)

101003 @1 음.(음.)

101003 #1 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젠 우리 이젠 제주도 남군만 아니라 북군¹³⁾도 막 이젠 보급했지. 그 감귤 뭐인가 국가에서 수입해다가, 건 공짜로 줘서, 여기. 경해서 이젠 게서 헐 때에 우리 일반 사름 농가를 받을 적에는 이년생을 주로 했는데, 김종필은 삼년생, 사년생을 해 가지고는 이제는 그 못 쓰는 밭에 개간해 가지고 거길 심었단 말이야. 그 서귀포 사름 책임자 두영. 케니까 이제는 그 스년생이니까 이젠 두 해 시민 육년생부턴 올기 시작헌단 말이야. 그딘 막 올기 시작허니까 남군은 말야 야 이런 말이야, 뭐인가 불모지도 돼는데 말이야 아이고 우린 안 텔 거 뭐

12) ‘규슈’는 일본의 지명으로 일본을 이루고 있는 섬 중 하나다. 4개의 큰 섬 중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13) ‘북군’은 ‘북제주군’을 말한다.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제주시로 통합되었다.

있냐. 기온이 북군보단 좋고 허니까 그래서 남군이 정말 그 감귤 붉이 일어나 가지고서, 소위 대학나무가 돼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저 길이 잇잔허이?(사 가지고 거기에서 이젠 우리 이젠 제주도 남군만 아니라 북군도 마구 이젠 보급했지. 그 감귤 뭐인가 국가에서 수입해다가, 건 공짜로 줬어, 여기. 그래서 이젠 그래서 할 때에 우리 일반 사람 농가를 받을 적에는 이년생을 주로 했는데, 김종필은 삼년생, 사년생을 해 가지고는 이제는 그 못 쓰는 밭에 개간해 가지고 거길 심었던 말이야. 그 서귀포 사람 책임자 두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년생이니까 이젠 두 해 있으면 육년생부턴 열기 시작한단 말이야. 거긴 마구 열기 시작하니까 남군은 말야, 야 이런 말이야, 뭐인가 불모지도 되는데 말이야. 아이고 우린 안 될 거 뭐 있냐. 기온이 북군보단 좋고 하니까 그래서 남군이 정말 그 감귤 붉이 일어나 가지고서, 소위 대학나무가 돼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길이 잇잖아?)

101003 @2 예.(예.)

101003 #1 저 길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저 ****를 낫다 말야. 삼십오 메다, 그때, 그때는 뭐인가 차가 당기는데 차가 영 **** 허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 말이야.<중략>(저 길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저 ****를 낫다 말야. 삼십오 미터, 그때, 그때는 뭐인가 차가 다니는데 차가 이렇게 ****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 말이야.)

101004 @2 케민 이 주변에 오름도 잇고 내, 바위, 굴 이런 유명한 것도 이신가 마씨?(그럼 이 주변에 오름도 잇고 내, 바위, 굴 이런 유명한 것도 있는가요?)

101004 #1 우리는 한동은 저 둔지봉¹⁴⁾, 둔지봉이 바로 한동, 한라산과 둔지봉의 정기를 받아서 우리 한동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래서 참 나가 아까도 얘기했주만은 그렇게 해서 조, 보리 뭘 허다가 지금은 경제 작물로 지금은 조, 보리 안 해. 이젠 메밀도 허지 안허고, 산두도 허지 안허고, 주로 뭘 허는고 허니 이제는 당근, 경제 작물 당근, 콩, 뭐인가 뭐인가 감자, 감자 그런 걸 주로 이제 이젠 허주. 옛날 건 다 없애 버리고.(우리는 한동은 저 ‘둔지봉’, ‘둔지봉’이 바로 한동, 한라산과 ‘둔지봉’의 정기를 받아서 우리 한동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래서 참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조, 보리 뭘 하다가 지금은 경제 작물로 지금은 조, 보리 안 해. 이젠 메밀도 하지 않고, 밭벼도 하지 않고, 주로 뭘 하는가 하니 이제는 당근, 경제 작물 당근, 콩, 뭐인가 뭐인가 고구마, 고구마 그런 걸 주로 이제 이젠 하지. 옛날 건 다 없애 버리고.)

101004 @2 예, 알았수다. 아까 둔지봉은 이 동네선 뭐렌 불렀수과?(예, 알겠습니다. 아까 ‘둔지봉’은 이 동네선 뭐라고 불렀습니까?)

101004 #1 건 둔지오름이엔 헛지. 둔지오름.(건 ‘둔지오름’이라고 헛지. ‘둔지오름’.)

101004 @2 둔지오름예. 둔지오름 잇고, 오름은 그 둔지오름 하나우파?(‘둔지오

14) ‘둔지봉’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둔지오름’이라고도 한다.

름'요. '둔지오름' 있고, 오름은 그 '둔지오름' 하나입니까?)

101004 #1 으, 둔지오름 하나뿐.(으, '둔지오름' 하나뿐.)

101004 @2 내도 잇수과? 이렇게 흐르는 내?(내도 있습니까? 이렇게 흐르는 내?)

101004 #1 아, 흐르는 내는 엇고.(아, 흐르는 내는 없고.)

101004 @2 내창 이런 거 엇수과?(내 이런 거 없습니까?)

101004 #1 내창 엇어.(내 없어.)

101004 @2 바위, 큰 돌 같은 거?(바위, 큰 돌 같은 거?)

101004 #1 큰 돌 같은 거 이제 다 없어졌는데, 저디 올라가든 왕돌거리¹⁵⁾라고 있어, 왕돌, 큰 돌 잇는 거리라고 해서 왕돌거리란 게 잇엇주. 저 아이네 집으로 약간 올라가면은 한 오십 메다만 가면은 큰 왕돌이 셔낫는디 걸 왕돌거리, 왕돌거리. (큰 돌 같은 거 이제 다 없어졌는데, 저기 올라가면 '왕돌거리'라고 있어, '왕돌', 큰 돌이 잇는 거리라고 해서 '왕돌거리'란 게 잇엇지. 저 이 아이네 집으로 약간 올라가면 한 오십 미터만 가면 큰 왕돌이 잇었는데 걸 '왕돌거리', '왕돌거리'.)

101004 @2 예, 왕돌거리예.(예, '왕돌거리'요.)

101004 #1 경허고 여기도 또 범이동산¹⁶⁾이라고 해 가지고 요기도 큰 돌이 셔낫는데 이 도로 거세기 허면서 말야 해 부니까 그건 없어져 버리고 이젠.(그리고 여기도 또 '범이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요기도 큰 돌이 잇었는데 이 도로 거시기 하면서 말야 해 버리니까 그건 없어져 버리고 이젠.)

101004 @2 예, 알앗수다. 굴도 잇수과?(예, 알겠습니다. 굴도 있습니까?)

101004 #1 굴은 엇고, 쪼그마헌 굴은 하나 잇는데 소년이굴¹⁷⁾이라는 게 그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 그때는 원족거치, 산보라고 했지. 산보 가면 그 굴에 강 이렇게 행 드람지 잡고 헤낫는데, 자그마헌 굴 하나 이신디 지금은 뭐 만이 내려 앓아 붙어실 거야.(굴은 없고, 조그마한 굴은 하나 잇는데 '소년이굴'이라는 게 그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에 그때는 원족같이, 산보라고 했지. 산보 가면 그 굴에 가서 이렇게 해서 다람쥐 잡고 했었는데, 자그마한 굴 하나 잇는데 지금은 뭐 많이 내려 앓아 버렸을 거야.)

101004 @2 그 굴 이름이 뭐마씨?(그 굴 이름이 뭐예요?)

101004 #1 소년이굴이라고.(소년이굴'이라고.)

101004 @ 소년이굴.(소년이굴')

101004 #3 나 이제 그 굴 찾아가도 못 허쿠다. 그 굴은 야파노니까 키에 아이덜 영 굽은베끼 일어서지 못허여. 굴이 야파노니까. 지금 찾아가도 못 허크라. 어린 때 멩겨나난.(나 이제 그 굴 찾아가도 못 하겠어요. 그 굴은 얄으니까 키에 아이들 이렇게 굽어서밖에 일어서지 못해. 굴이 얄으니까. 지금 찾아가도 못 하겠어. 어린 때

15) '왕돌거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이 하나다. '왕돌'은 커다란 돌로, 길 한 쪽에 커다란 돌이 놓여 있는 길을 말한다.

16) '범이동산'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17) '소년이굴'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잇었던 굴 이름이다.

다녔었어.)

101004 #1 또 한동에는 이 한동에는 또 이제 뭐인가 옛날에 망루가 있주게.(또 한동에는 이 한동에는 또 이제 뭐인가 옛날에 망루가 있지.)

101004 @2 망루.(망루.)

101004 #1 으, 배 거튼 거, 왜놈들이 만이 들어와서 왜적덜이 만이 침범하니까 이 망루를 바닷가에는 설치허고 요기도 저 높은 동산에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그거 만약 이상헌 것이 나타나민 헛불을 거기 썬단 말야. 헛불 전달, 전달, 전달해서 그런 망루가 있는데, 지금도 여긴 없어졌는데 바닷가엔 그냥, 그냥 있어.(으, 배 같은 거, 왜놈들이 많이 들어와서 왜적들이 많이 침범하니까 이 망루를 바닷가에는 설치하고 요기도 저 높은 동산에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그거 만약 이상헌 것이 나타나면 헛불을 거기 썬단 말야. 헛불 전달, 전달, 전달해서 그런 망루가 있는데, 지금도 여긴 없어졌는데 바닷가엔 그냥, 그냥 있어.)

101004 @2 그 망루를 뭐렌 불렀수과, 이 동네선?(그 망루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동네선?)

101004 #1 망동산¹⁸⁾, 망동산 해 가지고 그거 기자 그 지경을 망동산이라고 허주. 그 돌 쌓여진 거 그냥 있어.(‘망동산’, ‘망동산’ 해 가지고 그거 그저 그 지경을 ‘망동산’이라고 하지. 그 돌 쌓인 거 그냥 있어.)

101004 @2 그 망동산을 이 동네에서는 연디동산 이런 말은 안 했수과?(그 ‘망동산’을 이 동네에서는 ‘연디동산’ 이런 말은 안 했습니까?)

101004 #1 게메, 그거 연디동산¹⁹⁾이주, 그게 연디동산. 거기 불 피와서 연기, 연기. 연뒛동산.(글쎄, 그거 ‘연뒛동산’이지, 그게 ‘연디동산’. 거기 불 피워서 연기, 연기. ‘연뒛동산’.)

101005 @2 연뒛동산이렌 곶아나서예. 예, 알앗수다. 이 마을에는 다른 마을처럼 무슨 기관덜이 이신가마씨? 무슨 우체국이여, 농협이여?(‘연뒛동산’이라고 말했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른 마을처럼 무슨 기관들이 있나요? 무슨 우체국이야, 농협이야?)

101005 #1 아니, 그건 옛고 옛날에는 구좌엔, 우리 한동에 옛날 일제시대에 막 전에, 전에 이디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셔났는데.(아니, 그건 없고 옛날에는 구좌엔, 우리 한동에 옛날 일제시대에 아주 전에, 전에 여기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101005 @2 아, 원래?(아, 원래?)

101005 #1 원래. 이 구좌 처음에, 구좌 생길 적에 처음에, 처음에 저 알동네 저디 그 저 지금 스조합이라고 저디 밑에 동네 거기 읍사무소가 있어났는데, 옛날 사름덜은 말야 관허고 직간은 멀어야 좋다고[존다고] 해서이.(원래. 이 구좌 처음에 구좌 생길 적에 처음에, 처음에 아랫동네 저기 그 저 지금 사조합이라고 저기 밑에

18) ‘망동산’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19) ‘연디동산’은 제주도 해안가 언덕 위에 연대(煙臺)를 설치했던 동산을 말한다.

동네 거기 읍사무소가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말야 관하고 측간은 멀어야 좋다고 해서.)

101005 @2 예.(예.)

101005 #1 그래서 거 밀어 부니깐이 이제 그거 어디 갔나 허든 썰대²⁰⁾ 갔다가, 썰대 갔다가 스삼사건에 폭동 완 불질러 부니까 이제 세화리²¹⁾ 갔주게. 원래 한동에 잇다가.(그래서 거 밀어 버리니까 이제 그거 어디 갔나 하면 썰대 갔다가, 썰대 갔다가 사삼사건에 폭동 와서 불질러 버리니까 이제 세화리 갔지. 원래 한동에 잇다가.)

101005 @2 아.(아.)

101005 #3 계난 구좌가 한동이 중앙이주, 중앙이라. 동북²²⁾으로부터 종달²³⁾까지가 구좌가 중앙 부락이라. 계난 계난 우리 들은 말인디 구좌가 중앙이니까 옛날 면사무소랑 생긴 거라, 처음에. 이 밑에 동네에. 경허니까 옛날 이디 사름덜은 하르방덜은 양반 생활만 했거든 말야.(그러니까 구좌가 한동이 중앙이지, 중앙이야. 동북으로부터 종달까지가 구좌가 중앙 부락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들은 말인데 구좌가 중앙이니까 옛날 면사무소랑 생긴 거야, 처음에. 이 밑에 동네에. 그러니까 옛날 여기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은 양반 생활만 했거든 말이야.)

101006 @2 예, 그다음에 접덜도, 옛날 여기에 접덜?(예, 그다음에 계들도, 옛날 여기에 계들?)

101006 #1 접덜 만아났주. 접이란 건 뭐 물멧접²⁴⁾ 접이라고 해서 그 뭐인가 그 밧데 가서 막 돌도 일르고 또 이제 산담²⁵⁾ 거든 것도 옛, 그 옛날은 손수, 요샌 기술자덜이 허주만은 옛날은 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물멧접이 다 잇었어. 그니까 접이 뭐 여러 군데 잇었지. 그 하여튼 그 접 인원은 하여튼 열다섯 명으로 스무 명 그렇게 해 가지고 허는데 웃동네 여러 군데 접 잇어 가지고 그래서 그 접 일, 접 일 해 가지고서 산담허고 뭐 돌 일렁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러면 연말이 뒤편은 소를 그때 옛날 잡아근애가 그걸 이제 나뉘 공돈으로 해 가지고서 나뉘 계속허고 그렇게 했주. 쟁 접덜은 많았주게.(계들 많았었지. 계란 건 뭐 ‘물멧접’ 계라고 해서 뭐인가 그 밧데 가서 마구 돌도 뜨고 또 이제 ‘산담’ 같은 것도 옛, 그 옛날은 손수, 요샌 기술자들이 하지만 옛날은 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물멧접’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 계가 뭐 여러 군데 있었지. 그 하여튼 그 계 인원은 하여튼 열다섯 명으로 스무 명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윗동네 여러 군데 계 잇어 가지고 그래서 그 계 일, 계 일 해 가지고서 ‘산담’하고 뭐 돌 떠서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소를 그때 옛날 잡아서 그걸 이제 나뉘서 공돈으로 해 가지고서 나뉘서 계속하

20) ‘썰대’는 ‘썰대’로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썰대리를 말한다.

21) ‘세화리’는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22) ‘동북’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동북리를 말한다. 구좌읍의 맨 서쪽 마을이다.

23) ‘종달’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종달리를 말한다. 구좌읍의 맨 동쪽 마을이다.

24) ‘물메’는 돌 따위를 두들겨 쪼개는 데 쓰는 쇠로 된 큰 방망이로, 물멧덩이를 말한다. ‘물멧접’은 돌을 깨는 일 등을 서로 돕기 위한 계를 말한다. ‘물메접’, ‘물메제’라고도 한다.

25) ‘산담’은 무덤 주위를 타원형이나 장방형으로 에워 두른 담을 말한다.

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계들은 많았지.)

101006 @2 계문 접 이름은 어떤 접덜을?(그럼 계 이름은 어떤 계들을?)

101006 #1 화단지²⁶⁾도 있고. 화단제는 뭐이고 허면은 사람이 죽으면 화단을 씌 왕 가는 그런, 화단지, 그런 제도 있고 아까 얘기한 노동 제, 그 뭐인가 산담 거튼 거, 이런 질 거튼 거 담 보수하는 그런, 그런 걸 물메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화단지’도 있고. ‘화단지’는 뭐인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보장을 씌워서 가는 그런, ‘화단지’, 그런 제도 있고 아까 얘기한 노동 제, 그 뭐인가 ‘산담’ 같은 거, 이런 질 같은 거 담 보수하는 그런, 그런 걸 ‘물메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101006 @2 삼촌 아까 물메접?(삼촌 아까 ‘물메접’?)

101006 #1 으, 물메접. 거 물메란 건 뭐냐 허면 그 돌로 때리는 큰 것이 물메주 게. 돌 벌르는 거.(으, ‘물메접’. 거 물몽둥이란 건 뭐냐 하면 그 돌로 때리는 큰 것이 물몽둥이지. 돌 쪼개는 거.)

101006 @2 아, 돌 벌르는 물메.(아, 돌 쪼개는 물몽둥이.)

101006 #1 으, 물메.(으, 물몽둥이.)

101006 @2 그걸 물메렌 허는구나예?(그걸 물몽둥이라고 하는군요?)

101006 #1 으, 그걸 물메렌 한다.(으, 그걸 물몽둥이라고 한다.)

101006 @2 그 큰 거예?(그 큰 거요?)

101006 #1 으, 큰 거. 망치 닮은 큰 거. 그래서 물메제. 그건, 그건 주로 돌 ㄱ 튼 거 허는 걸 물메제라고 해.(으, 큰 거. 망치 닮은 큰 거. 그래서 ‘물메제’. 그건, 그건 주로 돌 같은 거 하는 걸 ‘물메제’라고 해.)

101006 @2 예, 물메접이고. 이 아까 화단지도 있고.(예, ‘물메접’이고. 이 아까 ‘화단지’도 있고.)

101006 #1 으.(으.)

101006 @2 뭐 동네에.(뭐 동네에.)

101006 #1 뭐 또 뭐인가 바당에 풍조가 바람을, 바람 세면은 셋놀²⁷⁾ 불어 나면 은 바당에 막 풍조가 막 허게 올라오주게. 계난 옛날은 비료가 엇기 때문에 그 듄 북을 해다가 몰라서 거세기 했거든. 그 듄북제²⁸⁾가 제가, 제가 있어. 소임이 있고 그 으뜸이 있고 해 가지고서. 계난 그 소임이, 소임이 그디서 뭔가 듄북을 올리면은 그 소임이 전부 다 전달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서 그 집에서 듄북행, 공동으로 해서 다 나누와. 들룬 다음엔 다 나누왕 각자가.(뭐 또 뭐인가 바다에 풍조가 바람을, 바람 세면 ‘셋놀’ 불고 나면 바다에 마구 풍조가 많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옛날은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 듄북을 해다가 말려서 거시기 했거든. 그 ‘듄북제’가 제가, 제가 있어. 소임이 있고 그 으뜸이 있고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소임이, 소임이

26) ‘화단’은 상여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로, ‘화단지’는 장례 때 이러한 ‘화단’을 마련하거나 둘러 쓰기 위한 계를 말한다.

27) ‘셋놀’은 동쪽에서 부는 셋바람에 이는 파도를 말한다. ‘셋+놀’의 구성으로 ‘놀’은 너울을 가리킨다.

28) ‘듄북제’는 거름으로 사용할 듄북의 채취 등을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한 계를 말한다.

거기서 뭔가 듬북을 올리면 그 소임이 전부 다 전달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서 그 계에서 듬북해서, 공동으로 해서 다 나눠. 말린 다음엔 다 나눠서 각자가.)

101007 @2 예. 그리고 이 마을은 풍속 같은 게 이신가마씀, 고유한 풍습?(예. 그리고 이 마을은 풍속 같은 게 있나요, 고유한 풍습?)

101007 #1 풍속 잊주게. 당, 이 당이 잊어노니까 뭐인가 그 당에 그 정초가 되면은 정월 열사흔날 그 대, 대제일이라고 해서 뭐 제주시에 잇는 사람덜토 막 오고 그랬지. 지금은 경 안 허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의탁할 것이 없잖아. 그래서 그것이 관습적으로 우리 저, 한동에 당 잇기 때문에 당에 와 가지고 그 뭐인가 제물 행 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 식구 뭐인가 다 이름 써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당에 와서 거 심방이 다 거 다 해주고 그렇게, 그런 풍속이. 겐데 지금도, 지금도 정초는, 정초엔 가 지금도.(풍속 있지. 당, 이 당이 있으니까 뭐인가 그 당에 그 정초가 되면 정월 열사흔날 그 대, 대제일이라고 해서 뭐 제주시에 잇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랬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의탁할 것이 없잖아. 그래서 그것이 관습적으로 우리 저, 한동에 당 잇기 때문에 당에 와 가지고 그 뭐인가 제물해서 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 식구 뭐인가 다 이름 써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당에 와서 거 무당이 다 거 다 해주고 그렇게, 그런 풍속이.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정초는, 정초엔 가 지금도.)

101007 @2 아, 지금도 가고예?(아, 지금도 가고요?)

101007 #1 그 전인 전부 다 떨어진 가에 없이 전부 다 참여해났는데 이제는 종교 믿는 사람덜은 안 가고 경 안헌 사람덜은 가고.(그 전엔 전부 다 빠진 가(家)에 없이 전부 다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종교 믿는 사람덜은 안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덜은 가고.)

101007 @2 그러면 그 당 이름은 무슨 당이우과?(그러면 그 당 이름은 무슨 당입니까?)

101007 #1 건 그냥 뭐인가, 당 이름이.(건 그냥 뭐인가, 당 이름이.)

101007 #3 당 이름 엇다.(당 이름 없다.)

101007 #1 당 이름이, 당이엔만 허주.(당 이름이, 당이라고만 하지.)

101007 @2 당, 본향당?(당, 본향당?)

101007 #1 본향당. 한동 본향당.(본향당. 한동 본향당.)

101007 @2 한동 본향당예?(한동 본향당요?)

101007 #1 게서 그 머세²⁹⁾는 당머세³⁰⁾, 당올레³¹⁾ 그렇게 해났지. 당머세, 가는 데는 당올레 그 길을.(그래서 그 ‘머세’는 ‘당머세’, ‘당올레’ 그렇게 해었지. ‘당머세’, 가는 데는 ‘당올레’ 그 길을.)

101007 @2 예, 예. 삼춘예, 당올레는 당 가는 길을 불를 때 아니과, 아까 당머센?(예, 예. 삼춘요, ‘당올레’는 당 가는 길을 부를 때 아닙니까, 아까 ‘당머세’는?)

29) ‘머세’는 돌이 영기정기 쌓이고 잡목이 우거진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30) ‘당머세’는 당에 가는 길에 돌과 잡목이 우거진 곳을 말한다.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31) ‘당올레’는 당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을 말한다.

101007 #1 당머센 그 주위에 그, 그 주위에 지경 이름을 당머세렌 허주.(‘당머세’는 그 주위에 그, 그 주위에 지경 이름을 ‘당머세’라고 하지.)

101007 @2 아, 당머세는.(아, ‘당머세’는.)

101007 #1 당이 잇는 디 당머세.(당이 잇는 데 ‘당머세’.)

101007 @2 케른 그 당 잇는데 큰 돌 잇수과?(그럼 그 당 잇는데 큰 돌 잇습니까?)

101007 #1 거 돌 잇주.(거 돌 잇지.)

101007 #3 거 돌 잇고 나무도.(거 돌 잇고 나무도.)

101007 #1 나무도 이제도 막 올창해.(나무도 이제도 아주 올창해.)

101007 @2 아, 나중에 그 돌을 한 번 사진 한 번 찍어야큰게예. 그 머세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과?(아, 나중에 그 돌을 한 번 사진 한 번 찍어야겠어요. 그 ‘머세’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1007 #1 머세란 것은 밧, 밧이 아 그 선덕³²)으로 웬 것을 머세라고 그래. 막 돌이 췌여진 걸 머세.(‘머세’란 것은 밧, 밧이 아 그 ‘선덕’으로 된 것을 ‘머세’라고 그래. 아주 돌이 췌인 걸 ‘머세’.)

101007 @2 그래서 아까 제가 돌 이시넨 물어본 게.(그래서 아까 제가 돌 잇냐고 물어본 게.)

101007 #1 어, 어.(어, 어.)

101007 @2 그러면 그렇게 돌 췌여진 것을 머세렌도 허고 설덕이렌도 허여마씨 아까?(그러면 그렇게 돌 췌인 것을 ‘머세’라고도 하고 ‘설덕’이라고도 해요, 아까?)

101007 #1 게난 그 머세는 사람이 갈아 먹을 수도 잇지만, 돌 서드력은 건 못 갈아 먹는 거지계.(그러니까 그 ‘머세’는 사람이 갈아 먹을 수도 잇지만, 돌 ‘서드력’은 건 못 갈아 먹는 거지.)

101007 @2 서드력은 못 갈아, 그냥 돌덩이로 이신 거라예?(‘서드력’은 못 갈아, 그냥 돌덩이로 잇는 거지요?)

101007 #1 으, 머세는 그 이제 가름팻³³)이 아니라 막 나쁜 밧을 머세렌 해. 막 돌 서꺼진 밧.(으, ‘머세’는 그 이제 ‘가름팻’이 아니라 아주 나쁜 밧을 ‘머세’라고 해. 아주 돌 췌인 밧.)

101007 @2 아, 돌 서꺼진 밧예?(아, 돌 췌인 밧요?)

101007 #1 으, 그런 것을 머세.(으, 그런 것을 ‘머세’.)

101007 @2 그러면은 여기 당은 하난가마씨?(그러면 여기 당은 하난가요?)

101007 #1 당은 아니, 두 군데 잇는데 한 군데는 저 그 뭐인가 저 뭐인가 피부병을 거세기 허는 이 수데기당³⁴)이라고 해, 수데기³⁵).(당은 아니, 두 군데 잇는데 한 군데는 그 뭐인가 저 뭐인가 피부병을 거시기 허는 이 ‘수데기당’이라고 해, ‘수

32) ‘선덕’은 돌이 영기정기 췌이고 잡초와 나무가 우거진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설덕’, ‘서드력’이라고도 한다.

33) ‘가름팻’은 마을 안쪽에 잇는 밧을 말한다. ‘거리팻’이라고도 한다.

34) ‘수데기당’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잇는 당 이름이다.

35) ‘수데기’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데기’.)

101007 #3 거 잊어지지 안헤신가마씨?(거 잊어지지 않았나요?)

101007 #1 수데기당이엔 현 디 잊어난디 거기는 피부병을 주로 거세기 하고.
(‘수데기당’이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는 피부병을 주로 거시기 하고.)

101007 @2 예, 피부병을 관장하고.(예, 피부병을 관장하고.)

101007 #1 그리고 또 우리 바당에는 당이 엇긴 엇는데, 용왕맛이를 막 가요, 해
녀들이 저 뭐인가 지금도, 지금도 정초 뒤편은 용왕맛이 거 하나의 풍속으로 이제
꺼지 유지되고 있주.(그리고 또 우리 바당에는 당이 없긴 없는데, 용왕맛이를 많이
가요, 해녀들이 저 뭐인가 지금도, 지금도 정초 되면 용왕맛이 거 하나의 풍속으로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지.)

101007 @2 예.(예.)

101007 #1 행원 거튼 디는 바다에 당이 잇는디 우리 한동 거튼 디는 당이 없어
도 용왕맛이로 가는 거주.(행원 같은 데는 바다에 당이 잇는데 우리 한동 같은 데는
당이 없어도 용왕맛이로 가는 거지.)

101008 @2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마을 특산물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이신
고예?(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마을 특산물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잇나요?)

101008 #1 특산물은 당근, 또 다시 감자, 콩, 무우 그거, 주로 그거.(특산물은 당
근, 또 다시 감자, 콩, 무 그거, 주로 그거.)

101009 @2 이 마을 자랑거리. 자랑할 만 한 거 좀 자랑해 봅서.(이 마을 자랑거
리. 자랑할 만 한 거 좀 자랑해 보세요.)

101009 #1 자랑은, 자랑거리는 이제는, 이제는 이 농촌사람덜도 열심히 사니깐
이 우리 늙은 사람덜은 일을 못 허주만은 전부 다 이제 트럭덜을 다 가져 가지고서
이 여기는 삼, 스천만 원씩 올려요. 삼, 스천만 원씩 올리니까 상당히 생활이 아주
이제 풍족해졌지, 이젠. 공무원 불렵지 안헤. 공무원 불렵지 안허여.(자랑은, 자랑거
리는 이제는, 이제는 이 농촌사람덜도 열심히 사니까 우리 늙은 사람들은 일을 못
하지만 전부 다 이제 트럭들을 다 가져 가지고서 이 여기는 삼, 사천만 원씩 올려
요. 삼, 사천만 원씩 올리니까 상당히 생활이 아주 이제 풍족해졌지, 이젠. 공무원
부렵지 않아. 공무원 부렵지 않아.)

2. 제보자 일생

102001 @1 원래가 부모님이 다 한동이시과?(원래가 부모님이 다 한동입니까?)

102001 #1 으, 조상이 다 제주도.(으, 조상이 다 제주도.)

102001 @1 케니까 한동?(그러니까 한동?)

102001 #1 으, 한동.(으, 한동.)

102003 @1 어무니도 한동?(어머니도 한동?)

102003 #1 어무니는 정의, 우리 어무니는 정의.(어머니는 정의, 우리 어머니는 정의.)

102003 @1 아, 정의. 정의에서 온 거예. 정의 어디마씨?(아, 정의. 정의에서 온 거요. 정의 어디요?)

102003 #1 표선리³⁶.(표선리.)

102001 @1 표선리에서. 표선리에서 온 거예. 삼촌이 태어남 자라온 애기덜 헤 줍서. 어떻 자랏수과?(표선리에서. 표선리에서 온 거요. 삼촌이 태어나서 자라온 애기들 해 주세요. 어떻게 자랏습니까?)

102001 @1 나가 어떻 태어남 살앗는고 허민이.(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살았는가 하면.)

102001 #1 나가 삼형젠디이 나가 두 번째 아덜로, 우리 삼형젠디이 나가 두 번째 아덜로 자라나 가지고 우리 자라날 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 자랏저. 일제시대기 때문에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서이 우린 그래도 먹엇주만은 우리 부모네덜은 말이야 즈식덜 위해서 정말 제때 밥을 못 먹어 봤주.(내가 삼형젠데 내가 두 번째 아들로, 우리 삼형젠데 내가 두 번째 아들로 자라나 가지고 우리 자라날 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 자랏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서 우린 그래도 먹엇지만 우리 부모네들은 말이야 자식들 위해서 정말 제때 밥을 못 먹어 봤지.)

102001 @1 음.(음.)

102001 #1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살앗저.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를, 이제는 초등학교한테 그때는 국민학교랏저. 국민학골, 우리 한동은 우리 구좌에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 그 당시에 섯는고 허니, 그 저 하도가 제일 오래 생기고이 그다음에 월정³⁷, 그다음에 김녕³⁸. 그다음에, 그 네 번째가 서화리³⁹ 국민학교 생겨, 생겼는데 그때는 우리 한동 사람은 주로 월정국민학교, 월정중앙국민학교 한동 사람은. 느네 아버지네 누구네 다 마찬가지로. 쟁 헨 다니면서 어렵게 정말 국민학교를 졸업 마럿지. 그래서 이 참에 또 다시 뭐인가 그 또 다시 터지지 안헤시냐? 그러난 우린 학교에 다닐 적에는 그 일본 놈덜이 그 뭐인가 차 잇잖아이, 일본 부인덜이 먹는 차를 헤 오라고 헤낫어. 이 자굴을 헤다가 학생덜이 강제로 막 헤 오렌 헨, 자굴이란 게 잇저.(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살앗어.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를, 이제는 초등학교한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 국민학골, 우리 한동은 우리 구좌에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어디 어디 그 당시에 있었는가 하니, 그 저 하도가 제일 오래 생기고 그다음에 월정, 그다음에 김녕. 그다음에, 그 네 번째가 서화리 국민학교 생겨, 생겼는데 그때는 우리 한동 사람은 주로 월정국민학교, 월정중앙국민학교 한동 사람은. 너희 아버지네 누구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어렵게 정말 국민학교를 졸업 말앗지. 그래서 이 참에 또 다시 뭐인가 그 또 다시 터

36) '표선리'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37) '월정'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월정리'를 말한다.

38) '김녕'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김녕리'를 말한다.

39) '서화리'는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서화리'를 말한다.

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린 학교에 다닐 적에는 그 일본 놈들이 그 뭐인가 차 있잖아, 일본 부인들이 먹는 차를 해 오라고 했었어. 이 차풀을 해다가 학생들이 강제로 많이 해 오라고 했어, 차풀이란 게 있어.)

102001 @1 자구리?('자구리'?)

102001 #1 자굴, 자굴.(차풀, 차풀.)

102001 @1 자굴?(차풀?)

102001 #1 으, 소 먹는 자굴 잊저게, 자굴.(으, 소 먹는 차풀 있지, 차풀.)

102001 @1 예.(예.)

102001 #1 그걸 해당 물류명 우린 막 바치명 했주. 바치명 학교에.(그걸 해다가 말리면서 우린 많이 바치면서 했지. 바치면서 학교에.)

102001 @1 예.(예.)

102001 #1 계난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서 일본 대동아전쟁 때, 2차대전이란 그때 보낸 거주. 또 우리는 2차대전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이 그때 우리가 육 흑년 뎀데이 근로봉사이, 만날 지게 정 다니명 노역만 했저.(그러니까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서 일본 대동아전쟁 때, 2차대전이니까 그때 보낸 거지. 또 우리는 2차대전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그때 우리가 육 흑년 뎀데이 근로봉사, 만날 지게 저서 다니면서 노역만 했어.)

102001 @1 어떤 일 했수과, 노역일?(어떤 일 했습니까, 노역일?)

102001 #1 그 학교에 강 막 운동장 메꾸고 뭐 허고. 그렇게 우리가 막. 경해서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허지 안헤시냐이. 경허난 이젠 한동에도 여유 있는 사람은, 재산 있는 사람은 그때 저 어디고 김녕중학교가 생겼저. 지금 고등학교보다 더헌 학교랏저. 그디 당기고 그디 못 당기는 사름은 그냥 놀앗주게. 그냥 놀앗는디.(그 학교에 가서 마구 운동장 메꾸고 뭐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주.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젠 한동에도 여유 있는 사람은, 재산 있는 사람은 그때 저 어디고 김녕중학교가 생겼어. 지금 고등학교보다 더헌 학교였어. 거기 다니고 거기 못 다니는 사름은 그냥 놀았지. 그냥 놀았는데.)

102001 @1 놀앗수과, 일했주.(놀았습니까, 일했지.)

102001 #1 그냥 집에서만 일허고 허는디 그때 이제 우리 한동에서 김녕중학교에 간 사름이 우리 동창에는 이디 저 뭐인가 세홍이 아방네이, 세홍이 아방허고 셋동네⁴⁰⁾ 누구네, 하여튼 몇 사름베끼 거기 저 웃동네 오면은 구봉이네, 덕중이네 그런 사름은 가고이 우리는 못 갔저. 그때 재산이 엇어 부난.(그냥 집에서만 일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동에서 김녕중학교에 간 사름이 우리 동창에는 여기 저 뭐인가 세홍이 아버지네, 세홍이 아버지하고 '셋동네' 누구네, 하여튼 몇 사름밖에 거기 저 윗동네 오면 구봉이네, 덕중이네 그런 사름은 가고 우리는 못 갔어. 그때 재산이 엇어 버리니까.)

40) '셋동네'는 마을에서 가운데 쪽 마을을 가리킨다.

102001 @1 어.(어.)

102001 #1 경허는 찰나에 행원에 일본 놈들이 사용하던 창고가 하나 있어, 부두에. 그디가 고등공민학교가 생겨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거기 다녔주게. 고등공민학교 웃동네 거의 다 다녔지. 그 김녕중학교 다니는 외에는. 거기 다니다가 육이오 나 부난 학교에 다니다가 그냥 학도병으로 그냥 나간.(그러는 찰나에 행원에 일본 놈들이 사용하던 창고가 하나 있어, 부두에. 거기가 고등공민학교가 생겨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거기 다녔지. 고등공민학교 웃동네 거의 다 다녔어. 그 김녕중학교 다니는 외에는. 거기 다니다가 육이오 나 버리니까 학교에 다니다가 그냥 학도병으로 그냥 나갔어.)

102001 @1 음. 그 고등공민학교가 생긴 게 언제라수과?(음. 그 고등공민학교가 생긴 게 언제였습니까?)

102001 #1 그것이 천구백사십, 사십칠 년쯤 될 거야.(그것이 천구백사십, 사십칠 년쯤 될 거야.)

102001 @1 그니까 사삼 일어나기 전이냐예?(그니까 사삼 일어나기 전이네요?)

102001 #1 으, 사삼 일어나기 조금 전에.(으, 사삼 일어나기 조금 전에.)

102001 @1 조금 전에예? 고등공민학교 생겼, 행원에?(조금 전에요? 고등공민학교 생겼어, 행원에?)

102001 #1 으, 행원에. 겐 것이 우리 갔다 오던 그대로 계속 됐언. 이디 창민이네도 다녀나신디 우린 졸업도 못 마트고 이젠 엇어져 뱃지, 그게.(으, 행원에. 그래서 것이 우리 갔다 오던 그대로 계속 되었어. 여기 창민이네도 다녔었는데 우린 졸업도 못 맡고 이젠 엇어져 버렸어, 그게.)

102001 @1 육이오 난 후에도 한참 잇어나수과? 사삼사건 나뉘 엇어져분 거 아니고?(육이오 난 후에도 한참 있었습니까? 사삼사건 나뉘면서 엇어져버린 거 아니고?)

102001 #1 육이오 후에도 거기 셔났지, 계속. 계속 잇단 중간에 엇어졌주. 그 사삼사건 후에도 계속 잇어나주.(육이오 후에도 거기 있었어, 계속. 계속 잇다가 중간에 엇어졌지. 그 사삼사건 후에도 계속 있었지.)

102001 @1 아.(아.)

102001 #1 거기 태석이가 교감 선생, 아니 저, 저 교련 선생 해났지. 김태석이 느네 쁘당.(거기 태석이가 교감 선생, 아니 저, 저 교련 선생 했었어. 김태석이 너희 쁘당.)

102001 @1 예, 고등공민학교예?(예, 고등공민학교요?)

102001 #1 으.(으.)

102001 @1 게고 형제분이 세 명마씨?(그러고 형제분이 세 명요?)

102001 #1 으. 형, 형이 하나 잇는데 형은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 가 가지고 저 천진, 천진서 그 뭐여 해군 뭐인가 징용당해서 배 타다가 죽은디 산디 몰르고, 또 우리 동생은 또 군인에 가 가지고 전사하고. 난 이제 두 번쨰디 독제 뱃지.(으.

형,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 가 가지고 저 천진, 천진서 그 뭐여 해군 뭐인가 징용당해서 배 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또 우리 동생은 또 군인에 가 가지고 전사하고. 난 이제 두 번째인데 독자 됐어.)

102001 @1 아이고, 아이고. 게른 거의 젊었을 때부터 혼자 지냈던 거다예?(아이고, 아이고. 그럼 거의 젊었을 때부터 혼자 지냈던 거네요?)

102001 #1 으.(으.)

102004 @1 어렸을 때는 어떤 놀이 허멍 놀아났수과?(어렸을 때는 어떤 놀이 하면서 놀았습니까?)

102004 #1 그때는 뭐 놀이 할 거 엇어 가지고이 요새 축구 잇지 안허냐이?(그때는 뭐 놀이 할 거 없어 가지고 요새 축구 잇지 않니?)

102004 @1 예.(예.)

102004 #1 축구들이 형겅으로 속에 막 무시거 몰아 가지고 공을 멘들양이 그걸 이제 축구허고 그걸로 해서 놀이행 놀곡이.(축구를 형겅으로 속에 마구 무엇 말아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축구하고 그걸로 해서 놀이해서 놀고.)

102001 @1 어.(어.)

102001 #1 또 다시 쪼개란 것이 잇지 안허냐?(또 다시 제기란 것이 잇지 않니?)

102001 @1 예, 예.(예, 예.)

102001 #1 그거 학교에 차곡이 자치기란 것이 잇저.(그거 학교에 차고 자치기란 것이 있어.)

102001 @1 예.(예.)

102001 #1 요만이 현 낭 해 가지고서 영 탁 처근에 올라가면 탁 때령 멀리가면 은 거세기.(요만큼 한 나무 해 가지고서 이렇게 탁 쳐서 올라가면 탁 때려서 멀리가면 거시기.)

102004 @1 예, 예.(예, 예.)

102004 #1 거 자치기 허멍 놀고, 또 다시 이제는 즈롱게 굴리는 거 잇지 안허냐이?(거 자치기 하면서 놀고, 또 다시 이제는 자전거 굴리는 거 잇지 않니?)

102004 @1 예, 예. 굴렁췌.(예, 예. 굴렁쇠.)

102004 #1 그거 휘경줄⁴¹⁾, 휘경줄 해 가지고서 그걸 뜯어다가 그걸 둥글허게 멘들아 가지고 그 굴렁췌 굴리고 그것이 다 전부라. 그걸 놀이라고 해.(그거 ‘휘경줄’, ‘휘경줄’ 해 가지고서 그걸 뜯어다가 그걸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그 굴렁쇠 굴리고 그것이 다 전부야. 그걸 놀이라고 해.)

102004 @1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노는 게 그런 거였잖아예?(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노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102004 #1 으, 다 그런 거.(으, 다 그런 거.)

102005 @1 공부할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일본 사람?(공부할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다 일본 사람?)

41) ‘휘경줄’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102005 #1 교장은 일본 사람이고, 교장은 일본 사람이고 선생들은 다 우리 한국 사람.(교장은 일본 사람이고, 교장은 일본 사람이고 선생들은 다 우리 한국 사람.)

102005 @1 아, 한국 사람. 아, 그럼 여기 제주도 사람들.(아, 한국 사람. 아, 그럼 여기 제주도 사람들.)

102005 #1 으, 우리 한동 사람도 혼 사람 셔났저. 승만이 족은아방이라고.(으, 우리 한동 사람도 한 사람 있었어. 승만이 작은아버지라고.)

102005 @1 계민 반은 몇 개나 뒤수과?(그럼 반은 몇 개나 뒤었습니까?)

102005 #1 반은 우리 헐 때는 뒤 일 개 반에 보통 일 개 반에 보통 오십팔 명 육십 명경 뒤났저. 일학년 육학년까지 쪽 허게.(반은 우리 할 때는 뒤 일 개 반에 보통 일 개 반에 보통 오십팔 명 육십 명경 되엇어. 일 학년 육 학년까지 쪽 하게.)

102005 @1 계난 쪽 허게는 잇어난예?(그러니까 쪽 하게 잇엇어요?)

102005 #1 으, 으. 쪽 허게는 잇어나고 오십팔 명에서 육십 명.(으, 으. 쪽 하게 잇엇고 오십팔 명에서 육십 명.)

102005 @1 계민 월정국민학교는 거기 다 모였수과? 한동에서도 가고 행원.(그럼 월정국민학교는 거기 다 모였습니까? 한동에서도 가고 행원.)

102005 #1 행원⁴²⁾에, 행원, 월정, 덕천에서도 오고 덕천에서도 왔주. 덕천.(행원에, 행원, 월정, 덕천서도 오고 덕천에서도 왔지. 덕천.)

102005 @1 아, 덕천에서도 오고.(아, 덕천에서도 오고.)

102005 #1 송당⁴³⁾서도 일부 오고.(송당에서도 일부 오고.)

102005 @1 계민 학교 가민 수업은 몇 시간이나 헛수과?(그럼 학교 가면 수업은 몇 시간이나 헛습니까?)

102005 #1 수업은 보통 그때는 아침에, 아침에 네 시간. 아침에 네 시간, 오후에 세 시간. 보통 일곱 시간 내지 으섯 시간 걸럿주.(수업은 보통 그때는 아침에, 아침에 네 시간. 아침에 네 시간, 오후에 세 시간. 보통 일곱 시간 내지 여섯 시간 걸럿지.)

102005 @1 계민 뺨⁴⁴⁾ 가났수과?(그럼 도시락 싸서 갔엇습니까?)

102005 #1 뺨도 썩 다녔주.(도시락 싸서 다녔지.)

102005 @1 하하하, 뺨도 썩.(하하하, 도시락 싸서.)

102005 #1 그때는 뺨도가 엇어 가지고이, 아레미⁴⁵⁾ 뺨도가 엇어 가지고이.(그때는 도시락이 엇어 가지고, 알루미늄 도시락이 엇어 가지고.)

102005 @1 예, 어떻 헛수과?(예, 어떻게 헛습니까?)

102005 #1 남, 나무로 만든 그 뒤인가 뺨끼⁴⁶⁾ 거튼 칠 맥영 영 허민이 뺨도 썩 장 영 올민 뺨끼 내가 나고 경 헤나세.(나무, 나무로 만든 뒤인가 페인트 같은 칠

42) '행원'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행원리'를 말한다.

43) '송당'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송당리'를 말한다.

44) '뺨또'는 일본어 'べんとう'로 도시락을 말한다.

45) '아레미'는 '알루미늄'을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46) '뺨끼'는 일본어 'ペンキ'로 페인트를 말한다.

먹여서 이렇게 하면 도시락 싸고 가서 이렇게 열민 페인트 냄새가 나고 그렇게 했
었어.)

102005 @1 아.(아.)

102005 #1 돈 잇는 사람은 그자 사근에, 뺨또 사근에 행 가고.(돈 잇는 사람은
그저 사서, 도시락 사서 해서 가고.)

102005 @1 뺨또에 뭐 쌍 가냏수과?(도시락에 뭐 싸서 갔었습니까?)

102005 #1 그때는 뭐, 뭐인가 지시 같은 거베끼 엇엇주. 마농지시나 뭐이나. 꺀
기나 뭐나 종류가 잇어서?(그때는 뭐, 뭐인가 지시 같은 거밖에 없엇지. 마늘장아찌
나 뭐나. 고기나 뭐나 종류가 잇엇어?)

102005 @1 밥은?(밥은?)

102005 #1 보리밥이주.(보리밥이지.)

102005 @1 보리밥예.(보리밥요.)

102005 #1 줍쌀허고 보리쌀 서텡.(줍쌀하고 보리쌀 섞어서.)

102005 @1 줍쌀이랑 보리쌀 서끈 거를 반반 서껏덴 행 다른 말로 곤는 건 엇수
과?(줍쌀과 보리쌀 섞은 거를 반반 섞었다고 해서 다른 말로 말하는 건 없습니까?)

102005 #1 거 반지기엔 허긴 현다. 반지기엔 허는데 보리쌀허고 줍쌀 서끈 건
반지기엔 안 허고 곤쌀허고 보리쌀 서껍 콩 서끈 건 반지기엔 현다.(거 반지기라고
하긴 한다. 반지기라고 하는데 보리쌀하고 줍쌀 섞은 건 반지기라고 안 하고 흰쌀
하고 보리쌀 섞어서 콩 섞은 건 반지기라고 한다.)

102005 @1 아, 곤쌀이 들어가야.(아, 흰쌀이 들어가야.)

102005 #1 곤쌀이 들어가야 반지기엔 허는 거.(흰쌀이 들어가야 반지기라고 하
는 거.)

102005 @1 그 국민학교 땡길 때 일제 때난 그때 막 여기에 공출도 막 헤나고
허지 안헛수과?(그 국민학교 다닐 때 일제 때니까 그때 마구 여기에 공출도 마구
헛엇고 하지 았았습니까?)

102005 #1 어, 공출도 헤났저. 공출도 그 가을 들면이, 여름, 여름엔 우리가 보
리를 헤 들일 거 아니가이? 겐 보리 헤 들이민, 가령 나가 가령 다섯 마다리 나가
수확헤시민, 다섯 마다리 수확헤시민 그걸 조사행 가근에 네 마다린 그냥 저디 강
제로 바치렌 허주게. 흔 마다리론 생활헛 수 엇지 안허냐이? 경허니까 어려와서 막
그걸 뭐인가 흐뵀 여유 잇는 사름은 곱짐도 막 헛저만은 그 토지가 곱인 사름덜은
그 제 수확이 안 나오거든 다섯 가마니 저디서 헛저만은 다섯 가마니 안 나오거든
그레 상당히 곱탕덜 먹엇지.(어, 공출도 헛엇지. 공출도 그 가을 들면, 여름, 여름엔
우리가 보리를 헤 들일 거 아니냐? 그래서 보리 헤 들이면, 가령 내가 가령 다섯
마대 내가 수확헛으면, 다섯 마대 수확헛으면 그걸 조사해서 가서 네 마대는 그냥
저기 강제로 바치라고 헛지. 한 마대론 생활할 수 없지 았니? 그러니까 어려워서
마구 그걸 뭐인가 조금 여유 잇는 사름은 숨기기도 많이 헛저만 그 토지가 곱은 사
람들은 그 제 수확이 안 나오거든 다섯 가마니 저기서 헛저만 다섯 가마니 안 나오

거든. 그래서 상당히 골탕들 먹었지.)

102005 @1 계민?(그럼?)

102005 #1 먹는 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제대로 수확을 아니 바치면은 그 할당된 수량을 안 바치면은 일본 놈들이 읍사무소 직원들이랑 와 가지고서이 풀렁 앓앙 이디 구쟁기, 그 저 구쟁기 딴 걸 이디 튀어난 거 있지 안허냐이? 그걸 영 바 쳐근에 벌사고 그렇게 헤낫저.(먹는 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제대로 수확을 안 바치면 그 할당된 수량을 안 바치면 일본 놈들이 읍사무소 직원들이랑 와 가지고서 끌어앉아서 여기 소라, 그 저 소라 딴 걸 여기 튀어난 거 있지 않니? 그걸 이렇게 받혀서 벌서고 그렇게 했었어.)

102005 @1 아, 구쟁기 뚜껑?(아, 소라 뚜껑?)

102005 #1 구쟁기 거.(소라 그거.)

102005 @1 뽀족뽀족헌 거?(뽀족뽀족한 거?)

102005 #1 뽀족뽀족헌 거. 그걸 무릎에 영 놔 가지고 그렇게덜 했어. 그렇게 허 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주게. 우리는 안 헛지만은 우리 부모네덜 다, 부모 세대 덜.(뽀족뽀족한 거. 그걸 무릎에 이렇게 놔 가지고 그렇게들 했어.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지. 우리는 안 헛지만 우리 부모네들 다, 부모 세대들.)

102005 @1 계민 공출하게 되면 만약 여기에 보리쌀 다섯 가마니가 난다 허는 건 보리 수확할 때 영 보러 읍니까, 시찰을?(그럼 공출하게 되면 만약 여기에 보리 쌀 다섯 가마니가 난다 하는 건 보리 수확할 때 이렇게 보러 읍니까, 시찰을?)

102005 #1 보레 텅기기도 텅기긴 허주만은 경 안 행 탁상으로 만이 허주게. 게 니까 그 수량이 안 나와. 좋은 밭 가진 사람은 수량이 나오는데. 게니까 좋은 밭을 기준으로 헛기 때문에 나쁜 밭 가진 사람은 못 따라가주게.(보러 다니기도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탁상으로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 수량이 안 나와. 좋은 밭 가진 사람은 수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좋은 밭을 기준으로 헛기 때문에 나쁜 밭 가진 사람은 못 따라가지.)

102005 @1 보리가 얼마만큼 열매 맺영 만이 나올 거다 적게 나올 거다 본 게 아니고, 느네는 몇 평이난 얼마 내라.(보리가 얼마만큼 열매 맺어서 많이 나올 거다 적게 나올 거다 본 게 아니고, 너희는 몇 평이니까 얼마 내라.)

102005 #1 날 것이다. 계난 표준으로 멧 군데 왕 보주. 한동이면 멧 군데 왕 좋은 밭디만 왕 본다 말야. 그걸 표준으로 헛기 때문에 굿은 밭 가진 사람덜은 못 내는 거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표준으로 멧 군데 와서 보지. 한동이면 멧 군데 와서 좋은 밭에만 와서 본다 말이야. 그걸 표준으로 헛기 때문에 굿은 밭 가진 사람들은 못 내는 거지.)

102005 @1 그럼, 공출해난 것은 보리만 공출했수과?(그럼, 공출했던 것은 보리만 공출했습니까?)

102005 #1 아니, 보리만 헌 것이 아니라 보리를 주로 만이 헛주. 보리허고 이제 또 이 조도 허긴 헛주게.(아니, 보리만 한 것이 아니라 보리를 주로 많이 헛지. 보

리하고 이제 이 조도 하긴 했지.)

102005 @1 조도 공출하고, 바당에서 잡는 건?(조도 공출하고 바다에서 잡는 건?)

102005 #1 바당에 것은, 바당에 것은 그때는 공출할 것이 뭐 었어노난 바당에 나오는 게 었주. 메역도 그때 안 나오니까 그걸 공출허지 안허고. 하여튼 그 보리허고 조 그걸 막 했주.(바다에 것은, 바다에 것은 그때는 공출할 것이 뭐 없으니까 바다에 나오는 게 없지. 미역도 그때 안 나오니까 그걸 공출하지 았고. 하여튼 그 보리하고 조 그걸 많이 했지.)

102005 @1 게고 학교 다닐 때 아까 일본군덜 먹을 거 뭐 그?(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아까 일본군들 먹을 거 뭐 그?)

102005 #1 으, 그것ㄴ라 일본말론 마네짜젠소라고 해 가지고 자굴을 해 가지고서 물려서, 그늘에서 물렁 우리가 학교에 거시기 했고, 또 겐노쇼꼬⁴⁷⁾라는 거 잊져. 겐노쇼꼬라는 건 우리말로 거 무신, 길가에 나는 풀인디 빨강 빨강허게 현디 그것도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바짜났져, 학교에.(으, 그것보고 일본말론 ‘마네짜젠소’라고 해 가지고 차풀을 해 가지고서 말려서, 그늘에서 말려서 우리가 학교에 거시기 했고, 또 이질풀이라는 거 있어. ‘겐노쇼꼬’라는 건 우리말로 거 무슨, 길가에 나는 풀인디 빨강 빨강게 하는데 그것도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바쳤었어, 학교에.)

102005 @1 건 차로 마실 거로?(건 차로 마실 거로?)

102005 #1 건 뭐인진 모르켜. 겐노쇼꼬엔, 일본말로 겐노쇼꼬, 겐노쇼꼬 했주.(건 뭐인지 모르겠어. 이질풀이라고, 일본말로 ‘겐노쇼꼬’, ‘겐노쇼꼬’ 했지.)

102005 @1 게민 이런 거 가져와라 했구나예?(그럼 이런 거 가져와 했군요?)

102005 #1 으, 그땐 그런 풀이이 신장로 고랑창에 이 포장 안 헐 땐 만이 나났져.(으, 그땐 그런 풀이 신장로 고랑창에 이 포장 안 할 땐 많이 나났어.)

102006 @1 아, 예. 그 사삼 관련 얘기 좀 해 줘서.(아, 예. 그 사삼 관련 얘기 좀 해 주세요.)

102006 #1 사삼, 사삼은이 사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고 허민이, 우리나라가 일천구백사십오 년에 해방이 났거든이. 해방이 났니까, 해방이 났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인덜이 망명가덜이, 혁명가덜이 뭐 만주, 만주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갖는데, 이 파가 주로 공산주의 주로 사상을 가졌져. 게난 우리 한동도 그 당시 스삼사건에 주동헌 사름이 전부 다 제주 사름덜토 그 주동자덜은 주로 일본 대학, 뭐 소련 대학 그때 나온 사름이고 우리 제주도에 잇는 농업학교가 농고가 그때는 제주대학이 없어부난 쥬 큰 것이랏져. 거기 졸업헌 학생이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거라. 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느냐,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항상 탄압을 받아났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막스란 사람이 이것을 공산주의 사상을 설파했는데, 이것을 볼 거 거트면 으덱 시간만 노동허면은 빈부귀천 었이 똑ㄴ치 산다 그랬거든. 그레 놓니까 전부 다 사상이 좋다고 해서 말야 다 그것에 호응웬

47) ‘겐노쇼꼬’는 일본어 ‘げんのじょうこ’로 이질풀을 말한다.

거라. 해 가지고서 해방이 딱 돼자마자 이제 공산, 공산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그, 그 주도자라. 공산당 허면은 말이 처음에는 허다가 어색허니까 남로당으로 돈 거라, 남로당. 박헌영이가 남쪽의 총 책임자인데 이 지령을 받아 가지고서 이 제주도에는 그 주도자가 누구냐 허면은 김달삼이 그다음에 이덕구, 조용구 이 세 사람이 아주 극렬분자라, 그 주동자라. 이 사름덜이 주동이 돼어서 일천구백사십오 년에 해방이 웨니까 사십육 년에 삼일운동 행사를 했어. 삼일운동 행사를 할 적에 이 좌익사상을 가진 사름덜이 주동이 돼 가지고서 일막 소진을 시켰단 말이야.(사삼, 사삼은 사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일천구백사십오 년에 해방이 됐거든. 해방이 되니까, 해방이 되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망명가들이, 혁명가들이 뭐 만주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갔는데, 이 파가 주로 공산주의 주로 사상을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 한동도 그 당시 사삼사건에 주동한 사람이 전부 다 제주 사름들도 그 주동자들은 주로 일본 대학, 뭐 소련 대학 그때 나온 사람이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농업학교가 농고가 그때는 제주대학이 없으니까 제일 큰 거였어. 거기 졸업한 학생이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거야. 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느냐, 우리 일본 사름들한테 항상 탄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막스란 사람이 이것을 공산주의 사상을 설파했는데, 이것을 볼 거 같으면 여덟 시간만 노동하면 빈부귀천 없이 똑같이 산다 그랬거든. 그래 놓으니까 전부 다 사상이 좋다고 해서 말야 다 그것에 호응된 거야. 해 가지고서 해방이 딱 되자마자 이제 공산, 공산 남한에는 박헌영이가 그, 그 주도자야. 공산당 하면 말이 처음에는 허다가 어색허니까 남로당으로 돈 거야, 남로당. 박헌영이가 남쪽의 총 책임자인데 이 지령을 받아 가지고서 이 제주도에는 그 주도자가 누구냐 하면 김달삼이 그다음에 이덕구, 조용구 이 세 사람이 아주 극렬분자야, 그 주동자야. 이 사름들이 주동이 돼어서 일천구백사십오 년에 해방이 되니까 사십육 년에 삼일운동 행사를 했어. 삼일운동 행사를 할 적에 이 좌익사상을 가진 사름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서 일막 소진을 시켰단 말이야.)

102006 @1 예, 삼촌은 어땜 해영 경찰을 시작헌 건 언제과?(예, 삼촌은 어떻게 해서 경찰을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102006 #1 그건 육이오, 육이오 잣다 와 가지고서 제대헌 완 보니 내가 여기에 오십삼 년, 오십 년도에 육이오가 일어났거든, 오십삼 년에 제대헌 완 보니깐이 폭도가 그냥 여기에 계속 잇단 말이야 스삼사건에. 경해서 할 수 엇이 이제는, 내가 오라보니까 공훼당 저디, 거 공훼당이엔 헛저. 거기에 경찰관이 으섯 사름이 파견돼 여 잇어. 계난 난 상해군인이라고, 군인 잣다 온 상해군인인난 저기서 나오렌도 허지 안허고, 목 지키렌 나오렌도 허지 안헛지만은 집이서 잘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집인 정문 내와불언. 계난 이디 오란 거세기 허다가 도무지 아부지도 목숨이 다 나가지, 어무닌 안 나갔는디 우리 집 할망네도 다 뒷동산에 그디 막수비가 셔났저 거기 나가고 켜 헐 수 엇이.(그건 육이오, 육이오 잣다 와 가지고서 제대해서 와서 보니 내가 여기에 오십삼 년, 오십 년도에 육이오가 일어났거든, 오십삼 년에 제대해

서 와서 보니까 폭도가 그냥 여기서 계속 있던 말이야 사삼사건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와보니까 공회당 저기, 거 공회당이라고 했어. 거기에 경찰관이 여섯 사람이 파견되어 있어. 그러니까 난 상해군인이라고, 군인 갔다 온 상해군인이니까 저기서 나오라고도 하지 않고, 목 지키라고 나오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잘 수가 없던 말이야, 우리 집엔 정문 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거시기 하다가 도무지 아버지도 목숨이 다 나가지, 어머니는 안 나갔는데 우리 집 할머니네도 다 뒷동산에 거기 막수비가 있었어. 거기 나가고 그래서 할 수 없어.)

102006 @1 군대는 몇 년도에 간 것과?(군대는 몇 년도에 간 겁니까?)

102006 #1 오십 년 팔월 삼십 일날.(오십 년 팔 월 삼십 일.)

102006 @1 그럼 사십팔 년도에 사삼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 한동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났수과?(그럼 사십팔 년도에 사삼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 한동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102006 #1 한동 이디는 어떻게신고 허면, 밤에는 그놈들이 와 가지고 막 휘젓고, 밤에는 그놈들이 왕 막 휘젓고 막 이렇게 허니까 상당히 거세기 허주. 그러니까 이던 우리 이실 때 성을 다 쌓져. 성을 돌을 노프게 성을 쌓 가지고 그 웃동네 길, 건 남문이엔 헌다이 그 남문.(한동 여기는 어떠했는가 하면, 밤에는 그놈들이 와 가지고 마구 휘젓고, 밤에는 그놈들이 와서 마구 휘젓고 마구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거시기 하지. 그러니까 여긴 우리 있을 때 성을 다 쌓았어. 성을 돌을 높게 성을 쌓아 가지고 그 윗동네 길, 건 남문이라고 한다, 그 남문.)

102006 @1 어느 쪽이 남문이과?(어느 쪽이 남문입니까?)

102006 #1 우리 집이, 그 저 우리가 길가에 잇지 안허여. 태균이네 집 가기 전이 그디 성 셔났져. 그걸 남문이엔 허주. 글로 문만, 글로 성을 그딘 안 쌓지. 겐 다 성 쌓아 가지고, 우리가 성 싸 두고 군인에 갖는데 삼 년 잇단 완 봐도 거세기. 게 난 스삼사건은 무슨 말이고 허니 스월 삼일날.(우리 집이, 그 저 우리가 길가에 잇지 않아. 태균이네 집 가기 전에 거기 성 있었어. 그걸 남문이라고 하지. 거기로 문만, 거기로 성을 거긴 안 쌓지. 그래서 다 성 쌓아 가지고, 우리가 성 쌓아 두고 군인에 갔는데 삼 년 잇다가 와서 봐도 거시기. 그러니까 사삼사건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월 삼일.)

102006 #1 예, 예.(예, 예.)

102006 @1 스월 삼일날 그 산에 잇는 그 좌익분자들이 지서와 그 뭐인가 구좌면 지서가 김녕허고 세화 잇어는디 지서허고 또 이 이장 집을 불질러 분 날이 그날게. 그것이 스월 삼일날 지서 습격허고 이장 집이 불태운 날이 스월 삼일날 스삼사건이라고.(사월 삼일 그 산에 잇는 그 좌익분자들이 지서와 그 뭐인가 구좌면 지서가 김녕하고 세화 잇었는데 지서하고 또 이 이장 집을 불질러 버린 날이 그날. 그것이 사월 삼일 지서 습격하고 이장 집에 불태운 날이 사월 삼일 사삼사건이라고.)

102006 @1 여기 한동은 계란 어느 집이 불타고 있어났수과, 이장 집?(여기 한동은 그러니까 어느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까, 이장 집?)

102006 #1 한동은 이장 집만 불탔저. 저 방추굴⁴⁸⁾ 이장이 셔났는데, 그 이장 집만 불나고. 한동은이 산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부니깐이 한동은 사람이 만이 안 죽었는디 이 행원 거튼 디는 뭐 부락 사름 뭐 혼 삼분의 일 죽어텐 해도 과언이 아니여, 산에 전부 다 가 부니까.(한동은 이장 집만 불탔어. 저 ‘방추굴’ 이장이 있었는데, 그 이장 집만 불나고. 한동은 산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버리니까 한동은 사람이 많이 안 죽었는데 이 행원 같은 데는 뭐 부락 사름 뭐 한 삼분의 일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산에 전부 다 가 버리니까.)

102006 @1 그 우리 하르부지네 돌아가실 때가 몇 사람이 그치 잡혀강 돌아가셨잖아예?(그 우리 할아버지네 돌아가실 때가 몇 사람이 같이 잡혀가서 돌아가셨잖아요?)

102006 #1 으. 느네 하르부지, 한동은 느네 하르부지도이 그 평대국민학교 선생이랏저. 느네 하르방이 이디 저 동문이 가시아방허고 그디 선생이랏는데, 선생이랏는데 그 느네 아방이나 이디 송태네 아방네나 한동에 주모자는 누게 이신고 허면 이찬이 형이라고 잇엇저. 이찬이 형. 이찬이 형 느네 잘 모를 거여. 영 돌아가는 가도⁴⁹⁾에 거기 잇엇고.(으. 너희 할아버지, 한동은 너희 할아버지도 그 평대국민학교 선생이엇어. 너희 할아버지가 여기 저 동문이 장인하고 거기 선생이엇는데, 선생이엇는데 그 너희 아버지나 여기 송태네 아버지나 한동에 주모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이찬이 형이라고 잇엇어. 이찬이 형. 이찬이 형 너희 잘 모를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커브에 거기 잇엇고.)

102006 @1 예, 예.(예, 예.)

102006 #1 그다음 두 번째가 느네 ○○○이라고.(그다음 두 번째가 너희 ○○○이라고.)

102006 @1 예, 예. 이름 만이 들어났수다.(예, 예.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102006 # ○○이 아방, 그디가 농업학교 나오난 그디가 뭐인가 주모자랏저. 그 사람도 주모자라도 스삼사건 그때 육지로 피해 부니깐이 그 동생만 죽고 각신 살아시네. 그 아덜도 살고. 계난 느네 하르방네도 한동에 유식층에 속해났거든. 계니까 누가 밀고했는고 허니 알동네 그 뭐인가 ○○○이라고 현 늬이 잇어났저, ○○○이. 그 당시에 김충희 도지사 바로 조칸데 거 셋동네⁵⁰⁾ 살면서 말야. 이 사람이 밀고해가지고 윗동네 사람을 다 밀고해 부난 느네 아바지허고.(○○이 아버지, 거기가 농업학교 나오니까 거기가 뭐인가 주모자엇어. 그 사람도 주모자라도 사삼사건 그때 육지로 피해 버리니까 그 동생만 죽고 각신 살았어. 그 아들도 살고.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네도 한동에 유식층에 속해났거든. 그러니까 누가 밀고했는가 하니 아랫동네 그 뭐인가 ○○○이라고 하는 늬이 잇엇어, ○○○이. 그 당시에 김충희 도지사 바로 조칸데 거 ‘셋동네’ 살면서 말이야. 이 사람이 밀고해가지고 윗동네 사람을 다 밀고해 버리니까 너희 아버지하고.)

48) ‘방추굴’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49) ‘가도’는 일본어 ‘かど’로 모퉁이를 말한다.

50) ‘셋동네’는 마을에서 가운데 쪽 마을을 가리킨다.

102006 @1 할아버지, 할아버지.(할아버지, 할아버지.)

102006 #1 으, 하르부지허고 송태옥이 아버지허고 또 혼 사름 저 조태경이 서이가 가 가지고서 그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 힘으로 모지레니까 군인이 왔주게. 십이연대가 와 가지고서 저기 월정에서 그 주둔했는데 월정에서 그냥 느네 아버지도 돌아갔주. 계난 그때 돌아갈 때에 이 태석이 아방이 그디 교장선생이랏저. 계난 미럿에 알아시민 살릴 수도 잇었을 텐데 갑자기 경 해 놓니깐이. 경해서 느네 아버지네가 그냥 송택이 아버지허고 그냥 서이가 돌아가지 안헤시냐, 아시날 강 뒷날 경허난. 겨난 그때 이젠 ○○○라고 잇저. ○○○이 형. ○○이 형이 그 거기도 뭐인가 덕천 사람인데 거기도 주동자랏주. 주동자랏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특별대안테 생포당한 거라. 생포당허니깐이 거디서 이젠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첩보를 쓴 거라.(으, 할아버지허고 송태옥이 아버지허고 또 한 사람 저 조태경이 셋이가 가지고서 그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 힘으로 모자라니까 군인이 왔지. 십이연대가 와 가지고서 저기 월정에서 그 주둔했는데 월정에서 그냥 너희 아버지도 돌아갔지. 그러니까 그때 돌아갈 때에 이 태석이 아버지가 거기 교장선생이었어.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해 놓으니깐. 그래서 너희 아버지네가 그냥 송택이 아버지허고 그냥 셋이 돌아가지 않았니, 전날 가서 뒷날 그랬으니깐. 그러니까 그때 이젠 ○○○라고 잇어. ○○○이 형. ○○이 형이 그 거기도 뭐인가 덕천 사람인데 거기도 주동자였지. 주동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특별대안테 생포당한 거야. 생포당하니까 거기서 이젠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첩보를 쓴 거야.)

102006 @1 음.(음.)

102006 #1 그때에 그 문옥이 아방, 느네 웨하르방허고 그 저 거기가 상당히 가근허다. 권당이여. 계난 ○○이 형이 느네 그 웨하르방안티 말야 큰일났수다. 이제 이거 정보가 영 들어왔는데 앞으로 십이 명 명단이 들어왔는데 뭐인가 그 지서로 가문 죽읍니다. 이쪽으로 왕, 군으로 왕 자수협서. 자수 안 허민 당장 죽읍니다. 느네 아버지 죽은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 계난 이제 느네 할아버님이 이제 겁날 거 아니냐? 이제 잡아간다 뭐 한다 뒤에서 막 거세기 허고, 열두 사름이 갖저. 윗동네 사름허고.(그때에 그 문옥이 아버지, 너희 외할아버지허고 그 저 거기가 상당히 친하다. 권당이야. 그러니까 ○○이 형이 너희 그 외할아버지한테 말야 큰일났습니다. 이제 이거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앞으로 십이 명 명단이 들어왔는데 뭐인가 그 지서로 가면 죽읍니다. 이쪽으로 와서, 군으로 와서 자수하세요. 자수 안 하면 당장 죽읍니다. 너희 아버지 죽은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 할아버님이 이제 겁날 거 아니냐? 이제 잡아간다 뭐 한다 뒤에서 마구 거시기 하고, 열두 사람이 갔어. 윗동네 사름하고.)

102006 @1 그 명단에 잇어난 사름?(그 명단에 잇었던 사름?)

102006 #1 으. 명단에 이신 사름. 경허난 살앗지 저 어디 가시민 자기네 전과 올릴려고 다 죽여볼 거지계, 지서라시민. 경해서 ○○이 형 때문에 그 열두 사름은

살아났져.(으. 명단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았지 저 어디 갔으면 자기네 전과 올리려고 다 죽여버릴 거지, 지서였으면. 그래서 ○○이 형 때문에 그 열두 사람은 살아났어.)

102006 @1 아, 명단에 올림 잇었던 사람예?(아, 명단에 올려 있었던 사람요?)

102006 #1 으, 명단에 잇어난 사람.(으, 명단에 있었던 사람.)

102006 @1 그럼 여기 와근에 직접 막 칼 찔리고, 다른 마을덜처럼, 막 칼 찔리고 그런 건 잇어났다예?(그럼 여기 와서 직접 마구 칼 찔리고, 다른 마을들처럼, 마구 칼 찔리고 그런 건 없었었네요?)

102006 #1 그런 거 셔났져. 여기 질 처음에 와 가지고이 폭도덜이 습격해 가지고서 이디 그 뭐인가 그 이디 한동 사름이 귀보엔 헌 사름이 아주 신첸 건장허다. 겐 그 사름이 왕왕왕 스삼사건 낭 막 왕왕왕 해 가니까 이건 뭐인고 영 나완, 나왔는데 아 그냥 폭도가 습격해 불언. 겐 심어가단 요 감낭굴⁵¹⁾이엔 헌 디 강 그디 곳 영간이 막 일로 ㅍ차 불고 일로 ㅍ차 불고 경해 가지고 그 사름만 그냥 찔러 죽였져. 그 사름은 찔러 죽고 우리 집 뒤에 그 저 영전이 어멍이라고 셔났져. 영전이 아방이 이디 나왔단 또 총 맞은 거라, 일로 영헨 총 맞안. 겐 살기는 살았는데도, 이제 살긴 살았는데도 거동을 못 해 가지고 혼 칠, 팔 개월 잇당 죽고, 글후제이 이제 김정직이 아방이라고 바로 요디, 요딘데 팔월 추석날이야. 행원 놈덜이 와 가지고, 저녁 때 오란 그냥 대창으로 막 죽여 불언. 그거 두 사람만, 폭도안티 두 사람만 허고 귀보엔 헌 사름허고 영전이 아방만 그 해 봤주, 이 부락에서. 그 외에는 해 본 사름이 었주.(그런 거 있었어. 여기 켈 처음에 와 가지고 폭도들이 습격해 가지고서 여기 그 뭐인가 그 여기 한동 사름이 귀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첸 건장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왕왕 사삼사건 나서 아주 왕왕왕 해 가니까 이건 뭐인가 이렇게 나왔어, 나왔는데 아 그냥 폭도가 습격해 버렸어. 그래서 잡아가다가 요 ‘감낭굴’이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 끌어가서 마구 일로 끊어 버리고 일로 끊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그냥 찔러 죽였어. 그 사람은 찔러서 죽고 우리 집 뒤에 그 저 영전이 어머니라고 있었어. 영전이 아버지 여기 나왔다가 또 총 맞은 거야, 일로 이렇게 총 맞았어. 그래서 살기는 살았는데도, 이제 살긴 살았는데도 거동을 못 해 가지고 한 칠, 팔 개월 있다 죽고 그 후에 이제 김정직이 아버지라고 바로 요기, 요긴데 팔월 추석날이야. 행원 놈들이 와 가지고, 저녁 때 와서 그냥 대창으로 마구 죽여 버렸어. 그거 두 사람만, 폭도한테 두 사람만 하고 귀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영전이 아버지만 그 해 봤지, 이 부락에서. 그 외에는 해 본 사람이 없지.)

102006 @1 식량 같은 거 뺏기거나?(식량 같은 거 뺏기거나?)

102006 #1 그건 만이 뺏겼주. 소도 만이 뺏기고.(그건 많이 뺏겼지. 소도 많이 뺏기고.)

102006 @1 아, 왕 가져가 불고.(아, 와서 가져가 버리고.)

102006 #1 으, 쉼덜 짐 시건에 식량덜 다 가져가 불고.(으, 소들 짐 실어서 식량

51) ‘감낭굴’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들 다 가져가 버리고.)

102006 @1 계남 스삼사건에 밤이덜 막 무서워헤나고?(그러니까 사삼사건에 밤에들 아주 무서워했었고?)

102006 #1 게메 그때는 성 쌓기 전이, 전인이 집이 못 자났저. 전부 다 그 스월 삼일날, 스월 삼일에 일어나니까 이 스월달이 막 추울 때여. 그때 밤에는. 계남이 우리도 그 집 뒤에 옴팡한 밧디 강 곱곡이 또 이제 막 으수룩헌 디만 다 곱앗주. 집에는 안 잤저.(글쎄 그때는 성 쌓기 전에, 전엔 집에 못 잤었어. 전부 다 그 사월 삼일날, 사월 삼일에 일어나니까 이 사월달이 아주 추울 때야. 그때 밤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집 뒤에 옴팡한 밧에 가서 숨고 또 이제 아주 으스스한 데만 다 숨었지. 집에는 안 잤어.)

102006 @ 아, 집에는 안 자고마씨.(아, 집에는 안 자고요.)

102006 #1 성 쌓 후이는 집이, 집에 잤지만은 남자덜은 다 성곽에 가야 돼여.(성 쌓은 후에는 집에, 집에 잤지만 남자들은 다 성곽에 가야 돼.)

102006 @1 보초도 사고 헛수과?(보초도 서고 했습니까?)

102006 #1 보초 샷주, 보초.(보초 썼지, 보초.)

102006 @1 보초 선마씨, 으.(보초 썼어요, 으.)

102006 #1 성 싸 가지고서 초소막에 다 만들었저. 초소막을 혼 백오십 메타에 하나씩 해 가지고. 밤에는, 이제 저녁 먹으면 밤에 강 보초 서민 아침이 네 시꺼지 그렇게 썼어.(성 쌓아 가지고서 초소막에 다 만들었어. 초소막을 한 백오십 미터에 하나씩 해 가지고. 밤에는, 이제 저녁 먹으면 밤에 가서 보초 서면 아침에 네 시까지 그렇게 썼어.)

102006 @1 아, 그럼 성 쌓기 전이는 밤이는?(아, 그럼 성 쌓기 전에는 밤에는?)

102006 #1 으, 집이 못 자고 다 숨었주.(으, 집에 못 자고 다 숨었지.)

102006 @1 그 올라강 곱앗당 내려왔당 허는 생활을 얼마나 헛수과?(그 올라가서 숨었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102006 #1 그것이 한 일 년 거의 뻗주.(그것이 한 일 년 거의 뻗지.)

102006 @1 아이고, 경 길게마씨.(아이고, 그렇게 길게요.)

102006 #1 으, 거의 일 년 뻗저.(으, 거이 일 년 뻗어.)

102006 @1 겐 왔다 갓당 허멍.(그래서 왔다 갔다가 하면서.)

102006 #1 계남 스월, 그것이 스십팔년 스월, 스월 삼일 일어나지 안헤시냐. 경 허난 그거 성 쌓 때도 일 년 걸려시난이.(그러니까 사월, 그것이 사십팔년 사월, 사월 삼일 일어나지 았았니. 그러니까 그거 성 쌓을 때도 일 년 걸렸으니까.)

102007 @1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쭙보기로 허고예, 결혼은 어떻 헛수과, 중매결혼이랏수과?(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쭙보기로 하고요,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매결혼이었습니까?)

102007 #1 그 당시엔 다 중매결혼이랏주.(그 당시엔 다 중매결혼이었지.)

102007 @1 중매결혼이 어떤 형태마씨? 어쨌든 다 동네난.(중매결혼이 어떤 형

태요? 어쨌든 다 동네니까.)

102007 #1 동네 사름이긴 동네 사름이난 동네 사름끼리덜 어떻게 해서. 나도 이 군대에서 부상당행 제주병원에 왔저. 육지 병원엔 부상자가 막 몰려놓니까 제주병원에 오니깐이 그때 우리 할망⁵²⁾허고 뭐인가 결혼 뭐인가 할 걸로 뵈다고 해 가지고서. 나도 그때는 상당히 뭐인가 그걸 걱정했저. 왜냐면 우리 집이, 그 처갓집인 부제고 우리 집인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사름이 굉장히 저 뭐인가 성격이 바로 남자 성격 닮아났저. 게난 아이고 난 이거 흠치 드세영 이 사름허고 결혼허지 아닐 걸로만 헛는데 어떻게 해서 침 결혼헛.(동네 사름이긴 동네 사름이니까 동네 사름들끼리 어떻게 해서. 나도 군대에서 부상당해서 제주병원에 왔어. 육지 병원엔 부상자가 많이 몰리니까 제주병원에 오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하고 뭐인가 결혼 뭐인가 할 걸로 뵈다고 해 가지고서. 나도 그때는 상당히 뭐인가 그걸 걱정했저. 왜냐면 우리 집이, 처갓집인 부자고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집의 사름이 굉장히 저 뭐인가 성격이 바로 남자 성격 닮았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난 이거 아주 드세서 이 사름하고 결혼하지 않을 걸로만 헛는데 어떻게 해서 침 결혼했어.)

102007 @1 아, 부제집이 딸이난 기가 죽어 가지고?(아, 부갓집이 딸이니까 기가 죽어 가지고?)

102007 #1 으, 나가 기가 죽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헛저.(으, 내가 기가 죽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헛어.)

102007 @1 중매 서는 사름을 뭐렌 헤마씨?(중매 서는 사름을 뭐라고 해요?)

102007 #1 중진애비.(중신아비.)

102007 @1 중진애비예?(중신아비요?)

102007 #1 으, 중진아비렌 헛주.(으, 중신아비라고 헛지.)

102007 @1 중진애비가 왕, 아 이 집이 딸 어떻허과, 헛 말을 거는 거 아니예?(중신아비가 와서, 아 이 집의 딸 어떠합니까, 해서 말을 거는 거 아니요?)

102007 #1 으.(으.)

102008 @1 경헛 사주도 봅니까?(그래서 사주도 봅니까?)

102008 #1 그땐 사주도 봤주만은, 뭐 대충덜 본 거주, 그때는.(그땐 사주도 봤지만, 뭐 대충들 본 거지, 그때는.)

102009 @1 겐, 혼수품은 뭐 헤낫수과, 그때는?(그래서, 혼수품은 뭐 헛었습니까, 그때는?)

102009 #1 혼수품이라는 건 그때는이 새각시гаа 이불 혼 채, 그 또 부모네안티 이불 혼 채, 또 궤 하나. 그거 허고 뭐 요강. 그거 웨에는 헛 거 엇다.(혼수품이라는 건 그때는 새색시가 이불 한 채, 그 또 부모네한테 이불 한 채, 또 궤 하나. 그거 하고 뭐 요강. 그거 웨에는 헛 거 엇다.)

102009 @1 이불 혼 채랑 궤 하나예?(이불 한 채랑 궤 하나요?)

102009 #1 으.(으.)

52) '할망'은 표준어의 '할머니'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 자신의 아내를 가리킨다.

102009 @1 결혼반지 같은 건 그때?(결혼반지 같은 건 그때?)

102009 #1 그런 거 었다. 그 반지 같은 건 이디 푸는 디도 었고 었어나시네.(그런 거 없다. 그 반지 같은 건 여기 푸는 데도 없고 없었어.)

112017 @1 잔치 헛수과?(잔치 헛습니까?)

112017 #1 잔치 허긴 헛저. 잔치도 집이서 식도 안 헿 그냥 허는 거 아니가?(잔치 하긴 헛어. 잔치도 집에서 식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아니냐?)

112017 @1 잔치허는 걸 어떻 헿나신디 곱아줍서.(잔치하는 걸 어떻게 헛었는지 말해주세요.)

112017 #1 잔치허는 건이, 그 뭐인가 사모관대 잇저, 옛날엔. 그 사모관대 써근에 물 탕, 신랑은 물 타근에 그 신부네 집이 가면은 그 집 마당에 그 뭐인가 노래⁵³⁾ 밧다.(잔치하는 건, 그 뭐인가 사모관대 잇어, 옛날엔. 그 사모관대 써서 말타서, 신랑은 말 타서 그 신부네 집에 가면 그 집 마당에 그 뭐인가 ‘노래미’를 깧다.)

112017 @1 노래미?(‘노래미’?)

112017 #1 으, 노래미 진진헌 노래미 헿 가지고 새로 예깧 거. 건 깨끗하게 허는 식으로 거 곱아근에 그거 헿근에 가근에 신랑 그디 강 처갓집이 강 신랑상 받고 헿 경 헿 오는 거. 겼 여자는 그 가메 타근에 오고.(으, ‘노래미’ 길디깧 ‘노래미’ 헿 가지고 띠로 엮은 거. 건 깨끗하게 하는 식으로 거 곱아서 그거 헿서 가서 신랑 거기 가서 처갓집에 가서 신랑상 받고 헿서 그렇게 헿서 오는 거. 그래서 여자는 그 가마 타서 오고.)

112017 @1 으, 으.(으, 으.)

112017 #1 곤지영 이렇게 막 허고.(곤지랑 이렇게 마구 하고.)

112017 @1 연지곤지 찍고예. 겼 며칠이나 잔치헛수과, 그때?(연지곤지 찍고요. 그래서 며칠이나 잔치헛습니까, 그때?)

112017 #1 그때는 보통 뭐인가 삼 일 현다 삼 일.(그때는 보통 뭐인가 삼 일 한다, 삼 일.)

112017 @1 삼 일.(삼 일.)

112017 #1 아시날, 이바지날 헿 가지고 나흘 뵐 거지. 게난 이바지날 전에, 내일 내일이 잔치면은 오늘, 삼 일 전에 도야지 잡아야 뵐지. 잡으면은 뒷날은 이바지날 이엔 헿 가지고 뒷날은 이제 도새길 다 삶양 썰어근에가 또 그 도야질 처갓집이 보내고. 경헿근에 게니까 처음에 도새기 삶는 날, 이바지날, 또 다시 결혼식날 헿 가지고 또 뒷날은 사돈잔치엔 헿났저. 경 스 일 동안 그뵐 경 헿났저, 옛날은.(전날, 이바지날 헿 가지고 나흘 뵐 거지. 그러니까 이바지날 전에, 내일 내일이 잔치면 오늘, 삼 일 전에 돼지 잡아야 뵐지. 잡으면 뒷날은 이바지날이라고 헿 가지고 뒷날은 이제 돼질 다 삶아서 썰어서 또 그 돼질 처갓집에 보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돼지 삶는 날, 이바지날, 또 다시 결혼식날 헿 가지고 또 뒷날은 사돈잔치라고 헛었

53) ‘노래미’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을 말한다. ‘노래미’, ‘노래미’라고도 한다.

어. 그렇게 사 일 동안 그땐 그렇게 했었어, 옛날은.)

112017 @1 케민 도야지 잡는 날은 도야지만 잡아?(그럼 돼지 잡는 날은 돼지만 잡아?)

112017 #1 응, 도야지 잡주.(응, 돼지 잡지.)

112017 @1 그다음에?(그다음에?)

112017 #1 뒷날은 이바지날이렌 해 가지고 그땐 일가족이 다 모여 가지고 그 도새기고길 다 썰어 가지고서이 혼 반씩 다 태우고 밥헿 맥이곡.(뒷날은 이바짓날이라고 해 가지고 그땐 일가족이 다 모여 가지고 그 돼지고길 다 썰어 가지고서 한 반씩 다 나누고 밥해서 먹이고.)

112017 @1 케민 그때는 친척들만 모영 밥헿 먹는 거?(그럼 그때는 친척들만 모여서 밥해서 먹는 거?)

112017 #1 아, 동네에서도 거의 온다.(아, 동네에서도 거의 온다.)

112017 @1 아, 이바지날도 오고?(아, 이바짓날도 오고?)

112017 #1 으, 이바지날도 동네, 가까운 동네. 우리 가울목⁵⁴이민 이 왕두거리⁵⁵ 우이 거의 다 온다. 췌북거리⁵⁶ 우이도.(으, 이바짓날도 동네, 가까운 동네. 우리 ‘가울목’이면 이 ‘왕두거리’ 위에 거의 다 온다. ‘췌북거리’ 위에도.)

112017 @1 케민 잔칫날은?(그럼 잔칫날은?)

112017 #1 잔칫날은 또 다 모이주, 동네 사름덜은.(잔칫날은 또 다 모이지, 동네 사람들은.)

112017 @1 다 모이고. 또 사돈잔치를 다음날 해마씨?(다 모이고. 또 사돈잔치를 다음날 해요?)

112017 #1 으, 다음날. 다음날은 일가 사름덜만 모인다.(으, 다음날. 다음날은 일가 사람들만 모인다.)

112017 @1 아, 일가 사름덜만예. 그냥 밥만 먹는 형태로?(아, 일가 사람들만요. 그냥 밥만 먹는 형태로?)

112017 #1 으.(으.)

112017 @1 그때 잔칫날 음식은, 삼촌 결혼할 땐 어떤 음식덜 해낫수과?(그때 잔칫날 음식은, 삼촌 결혼할 땐 어떤 음식들 했었습니까?)

112017 #1 그때도 마찬가지주. 아까 저 반지기밥⁵⁷이주. 반지기밥 해 가지고, 그 곤쌀 놓고 거시기 서꺼근에, 경허고 그 도야지고긴 으레 들어가는 거고. 도야지고기도 그때 어려와, 어려와 부난이 갈리를이 갈리를 어른만 주고 아인 갈리 안 췌져. 갈리엔 현 건 도새기고기 점 세 개 췌반에 놔근에 그디 갈리 하나, 하나 더 언 췌주게. 계난 아이는 갈리 빼 부는 거라.(그때도 마찬가지지. 아까 저 ‘반지기밥’이지. ‘반지기밥’ 해 가지고, 그 흰쌀 놓고 거시기 섞어서, 그리고 그 돼지고긴 으레

54) ‘가울목’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55) ‘왕두거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56) ‘췌북거리’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57)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으로, 보통 다른 두 종류의 쌀을 섞어 지은 밥을 말한다.

들어가는 거고. 돼지고기도 그때 어려워, 어려워 버리니까 갈비를 갈비를 어른만 주고 아인 갈비 안 줬어. 갈비라고 한 건 돼지고기 점 세 개 쟁반에 놔서 거기 갈비 하나, 하나 더 없었지. 그러니까 아이는 갈비 빼 버리는 거야.)

112017 @1 세 점만 할 거예요?(세 점만 할 거요?)

112017 #1 으, 세 점만.(으, 세 점만.)

112017 @1 도야지고기 잇고 반지기밥에 국은?(돼지고기 잇고 ‘반지기밥’에 국은?)

112017 #1 국은 그때은이 몀이라는 거 잇저.(국은 그때는 모자반이라는 거 잇어.)

112017 @1 예, 몀.(예, 모자반.)

112017 #1 몀에 도야지고기 삶아, 삶아난 돓 국물에 끌려근에 그건 국으로 사용혜세.(모자반에 돼지고기 삶아, 삶았던 돼지 국물에 끓여서 그건 국으로 사용했어.)

112017 @1 으, 국허고 또 반찬 뭐 잇어? 김치 헛고?(으, 국하고 또 반찬 뭐 잇어? 김치 헛고?)

112017 #1 그때는 김치란 게 엇엇저.(그때는 김치란 게 없었어.)

112017 @1 아, 김치 엇엇고.(아, 김치 없엇고.)

112017 #1 그때는 김치란 게 엇엇저.(그때는 김치란 게 없었어.)

112017 @1 도야지고기에 뭐 먹을 거 또 뭐 잇어?(돼지고기에 뭐 먹을 거 또 뭐 잇어?)

112017 #1 계난 도야지고기. 그거베끼 엇엇저. 그때는 뭐.(그러니까 돼지고기. 그거밖에 없었어. 그때는 뭐.)

112017 @1 떡도 엇고?(떡도 없고?)

112017 #1 아, 채소 거튼 건 잇엇저. 저 뭐인가.(아, 채소 같은 건 잇었어. 저 뭐인가.)

112017 @1 녹물 무친 거?(나물 무친 거?)

112017 #1 아, 녹물 썸 말고 거 콩, 콩지름 그런 거.(아, 나물 잎 말고 거 콩, 콩나물 그런 거.)

112017 @1 아, 콩지름. 콩지름예, 반찬행. 결혼식은 헛 거잖아예, 어쨌든예?(아, 콩나물. 콩나물요, 반찬 해서. 결혼식은 헛 거잖아요, 어쨌든요?)

102010 #1 아, 결혼식이란 게 그 사모관대 썸 갖다 오는 게 결혼식이주.(아, 결혼식이란 게 그 사모관대 썸서 갖다 오는 게 결혼식이지.)

102010 @1 영 마주성 절허고 그런 거 엇고?(이렇게 마주서서 절하고 그런 거 없고?)

102010 #1 그런 거 엇고.(그런 거 없고.)

102010 @1 사모관대 썸 갖다 오면 그게 결혼식인 거라?(사모관대 썸서 갖다 오면 그게 결혼식인 거야?)

102010 #1 으, 으.(으, 으.)

102010 @1 경허른 그때 사진도 못 찍었잖아예?(그럼 그때 사진도 못 찍었잖아요?)

102010 #1 사진사가 없었저. 그 당시엔 사진사가.(사진사가 없었어. 그 당시엔 사진사가.)

102011 @1 사진도 못 찍었던 거고. 겐 신혼살림은 어디 출렸수과?(사진도 못 찍었던 거고. 그래서 신혼살림은 어디 차렸습니까?)

102011 #1 신혼살림은 그자 집이서, 집에서 허다가 우리 집이 사름은 그 십이월 달에 결혼했는디이 그 십이월달 헛는데, 그 스월달 돼니깐이 그 육지, 그때는 해녀들이 육지 물질 간다.(신혼살림은 그저 집에서, 집에서 허다가 우리 집의 사름은 그 십이월에 결혼했는데 그 십이월 헛는데, 그 사월 되니까 그 육지, 그때는 해녀들이 육지 물질 간다.)

102011 @1 아.(아.)

102011 #1 겐 육지, 육지 가 버린 거라. 육지 가 부난 난 이젠, 가 부난 그 팔월 돼사 들어올 거주. 삼월달에 강 팔월달에. 게난 난 그 어간에 경찰관 시험 돼 가지고서 경찰 어디를 발령 받았는고 허니 성산포 발령 받으난에 우리 집사름이 완 성산포 나 사는 디.(그래서 육지, 육지 가 버린 거야. 육지 가 버리니까 난 이젠, 가 버리니까 그 팔월 돼야 들어올 거지. 삼월에 가서 팔월에. 그러니까 난 그 어간에 경찰관 시험 돼 가지고서 경찰 어디를 발령 받았는가 하니 성산포 발령 받으니까 우리 집사름이 와서 성산포 내가 사는 데.)

102011 @1 아, 좃으레 왔구나. 그 사이에 거기로 가 부난?(아, 좃으러 왔구나. 그 사이에 거기로 가 버리니까?)

102011 #1 으, 으. 겐.(으, 으. 그래서.)

102007 @1 결혼은 몇 살에 헛수과?(결혼은 몇 살에 헛습니까?)

102007 #1 난 스물두 살에 우리 집 사름은 스물네 살에. 나보단 두나 우랏주. (난 스물두 살에 우리 집 사름은 스물네 살에. 나보단 둘이나 위였지.)

102007 @1 아. 스물두 살에 허민 늦은 거 아니랏수과?(아. 스물두 살에 하면 늦은 거 아니었습니까?)

102007 #1 그때는 늦은 거였주. 그 당시에는 여저덜이 대부분 나가 많다. 혼 설이나 두 설 우인데 그거는 손우이라야 살림을 잘 산다 해 가지고서.(그때는 늦은 거였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다. 한 살이나 두 살 위인데 그거는 손위이라야 살림을 잘 산다 해 가지고서.)

102007 @1 아, 예. 삼월달에 물질 갔다 왕, 그 바깥디 강 물질허는 거는 무슨 물질?(아, 예. 삼월에 물질 갔다가 와서, 그 밖에 가서 물질하는 거는 무슨 물질?)

102007 #1 건, 웨방 물질⁵⁸이라고, 육지 물질이엔도 헛다.(건, ‘웨방 물질’이라고, ‘육지 물질’이라고도 한다.)

58) ‘웨방 물질’은 해녀들이 일정 시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지내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보자는 ‘육지 물질’이라고도 했다.

102007 @1 육지 물질, 웨방 물질예. 결혼행도 경 웨방 물질을 막 하영 갖수과?('육지 물질', '웨방 물질'요. 결혼해서도 그렇게 '웨방 물질'을 아주 많이 갖습니까?)

102007 #1 어, 갖주. 그뎨 돈이 어려우니까 그거 아니 갈 수가 엇주게.(어, 갖지. 그뎨 돈이 어려우니까 그거 아니 갈 수가 없지.)

102007 @1 웨방 물질은 어느 지경에?('웨방 물질'은 어느 지경에?)

102007 #1 그때는 우리 집사람도 저 어디고 저 대진⁵⁹이엔 헌 디 갖주. 저 삼팔선 바로 경계에.(그때는 우리 집사람도 저 어디고 저 대진이라고 하는 데 갖지. 저 삼팔선 바로 경계에.)

102007 @1 으. 몇 사람이 구미⁶⁰ 행?(으. 몇 사람이 조 해서?)

102007 #1 거, 그 모집을 온다. 경허민 우리 한동에서도 혼 칠 팔 명. 행원⁶¹, 월정⁶² 허민 혼 이십 명 거의 돼주, 거.(거, 그 모집을 온다. 그러면 우리 한동에서도 한 칠 팔 명. 행원, 월정 하면 한 이십 명 거의 됐지, 거.)

102007 @1 아, 경 하영 가낫수과?(아, 그렇게 많이 갖었습니까?)

102007 #1 경 하영 가는 거주. 겐 그디 가민 바다는 또 선주엔 헌 사람이 있어, 그 모집헌 사람이. 그디서 선주가 모집헨 가근에 거기 강 바다를 임대받주. 임대받아 가지고서 해녀들이 물건을 갖다가 그 선주안테 다 허면은 그 선주가 뜨면서 멧 할은 떼고 또 그 남은 것은 또 해녀 찍세고.(그렇게 많이 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면 바다는 또 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모집하는 사람이. 거기서 선주가 모집해 가서 거기 가서 바다를 임대받지. 임대받아 가지고서 해녀들이 물건을 갖다가 그 선주한테 다 하면 그 선주가 뜨면서 멧 할은 떼고 또 그 남은 것은 또 해녀 몫 이고.)

102007 @1 아, 경허명.(아, 그러면서.)

102007 #1 경해도 이디서 노동허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게 착취를 당해도 선주안테.(그래도 여기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게 착취를 당해도 선주한테.)

102007 @1 계민 그 선주는 한동 사람은 아니고?(그럼 그 선주는 한동 사람은 아니고?)

102007 #1 한동 사름 아니.(한동 사람 아니.)

102007 @1 계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그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

102007 #1 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주.(으,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지.)

102007 @1 거의 이 구좌 지역에서 데려간 것과?(거의 이 구좌 지역에서 데려간 겁니까?)

59) '대진'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를 말한다.

60) '구미'는 일본어 'くみ'로 조(組)를 말한다.

61) '행원'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행원리'를 말한다.

62) '월정'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월정리'를 말한다.

102007 #1 으, 구좌에서.(으, 구좌에서.)

102007 @1 하도가 해녀들이 좀 많아나지 안헛수과?(하도가 해녀들이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102007 #1 계, 하도⁶³)는 하도 구미가 딱로 잇고 한동은 한동 구미가 잇주.(그래, 하도는 하도 조가 따로 잇고 한동은 한동 조가 잇지.)

102007 @1 아.(아.)

102007 #1 만이 육지에, 일본도 막 가시네.(많이 육지에, 일본도 많이 갔어.)

102007 @1 아. 다 마을마다 구미가 다 잇어난 거?(아. 다 마을마다 조가 다 잇었던 거?)

102007 #1 으, 으.(으, 으.)

102007 @1 우리 어무니도 갖다 왔다는 얘길 들어신디.(우리 어머니도 갖다 왔다는 얘길 들었는데.)

102007 #1 계, 느네 어무니도 갖다 와실 거여.(그래, 너희 어머니도 갖다 왔을 거야.)

102012 @1 예, 갖다 왔다는 얘길 들어난마써. 아이덜은 어떻 웹수과? 자제분은?(예, 갖다 왔다는 얘길 들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제분은?)

102012 #1 자제분은 오남 이녀여.(자제분은 오남 이녀야.)

102012 @1 맨 우에가?(맨 위가?)

102012 #1 맨 우에가 아들. 그다음 딸 글로부터 아들.(맨 위가 아들. 그다음 딸 글로부터 아들.)

102012 @1 아들.(아들.)

102012 #1 아들 쪽 허다가 막둥인 또 딸.(아들 쪽 하다가 막둥인 또 딸.)

102012 @1 아이구게, 막둥이 딸 귀여워시쿠다. 겐 다들, 다들 다?(아이고, 막둥이 딸 귀여웠겠다. 그래서 다들, 다들 다?)

102012 #1 으, 다들 괜찮이 다 살암저. 다 집들 다 행 다 살암저.(으, 다들 괜찮게 다 살고 있어. 다 집들 다 해서 다 살고 있어.)

102012 @1 케민 이디 한동 사는 누구는 엇고?(그럼 여기 한동 사는 누구는 없고?)

102012 #1 다 시에, 시에 뭐인가 육남매, 아 저 오남매 살고 대구 하나 죽은 거 서울, 셋아덜은 또 대구 살고.(다 시에, 시에 뭐인가 육남매, 아 저 오남매 살고 대구 하나 작은 거 서울, 두 번째 아들은 또 대구 살고.)

102012 @1 케민 여기 밧덜은 어떻 험수과? 농사 안 짓고?(그럼 여기 밧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사 안 짓고?)

102012 #1 농사 다 세 쥐 불엇저.(농사 다 세 쥐 버렸어.)

102014 @1 아, 세 쥐 가지고. 그럼 결혼덜은 다 허고마써?(아, 세 쥐 가지고. 그럼 결혼들은 다 하고요?)

63) '하도'는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하도리'를 말한다.

102014 #1 으, 결혼덜 다 허고 이제 아기덜도 다 설러져, 이제.(으, 결혼들 다 하고 이제 아기들도 다 끝냈어, 이제.)

102015 @1 메뉴리들은, 메뉴리들은 다 제춧사람이과?(며느리들은, 며느리들은 다 제춧사람입니까?)

102015 #1 메뉴리, 메뉴리는 세 사람은 육지 사람이고 두 사람만 제춧사람. 큰 메뉴리허고 작은, 다섯째 메뉴리만 제춧사람.(며느리, 며느리는 세 사람은 육지 사람이고 두 사람만 제춧사람. 큰며느리하고 작은, 다섯째 며느리만 제춧사람.)

102015 @1 계민, 육지 사람은 아들덜 우에 올라가낫수과?(그럼, 육지 사람은 아들들 위에 올라갔었습니까?)

102015 #1 아니, 올라가지 안했는데도 다 어떻게.(아니, 올라가지 않았는데 다 어떻게.)

102015 @1 사위는마씨?(사위는요?)

102015 #1 하난 제춧사람이고 하난 육깃사람. 큰사원 제춧사람, 죽은사원 육깃사람.(하난 제춧사람이고 하난 육깃사람. 큰사원 제춧사람, 작은사원 육깃사람.)

102015 @1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3. 밭일

103001 @2 예전에 여기는 밭일덜 하영 헛잖아예. 옛날 헛던 밭일덜 제주도 말로 쪽 글아주민 뉘예.(예전에 여기는 밭일들 많이 헛잖아요. 옛날 헛던 밭일들 제주도 말로 쪽 말해주시면 돼요.)

103001 #1 으, 으.(으, 으.)

103001 @2 전체적으로 밭농사는 어떤 것덜 해서마씨, 예전에?(전체적으로 밭농사는 어떤 것들 해요, 예전에?)

103001 #1 예전에는 조, 보리, 또 콩은 약간 메주 그거, 그거 허고 저 산두, 산두는 육도라고 허지이.(예전에는 조, 보리, 또 콩은 약간 메주 그거, 그거 하고 저 밭벼, 밭벼는 육도라고 하지.)

103001 @2 예.(예.)

103001 #1 그거 허고 메밀, 메밀이 많이 헛지, 메밀.(그거 하고 메밀, 메밀이 많이 헛지, 메밀.)

103001 @2 메밀은 이 동네 말로 뉘렌 글앗수과?(메밀은 이 동네 말로 뉘라고 말했습니까?)

103001 #1 믱물게.(메밀.)

103001 @2 믱물예. 예, 알앗수다.(메밀요. 예, 알겠습니다.)

103001 #1 믱물이고 이 육도는 산뒤엔 허고 조, 조나 보리는 거 마찬가지로.(메밀이고 이 육도는 '산뒤'라고 하고 조, 조나 보리는 거 마찬가지로.)

보리농사

103002 @2 예. 이제는 보리농사부터 허주예.(예. 이제는 보리농사부터 하지요.)

103002 #1 보리농서 안 허여.(보리농사 안 해.)

103002 @2 아, 여기는 보리가 엇어예, 여기는 게믄 보리농서는 안 현 거라예?
(아, 여기는 보리가 없어요, 여기는 그럼 보리농사는 안 한 거지요?)

103002 #1 어. 거 보리농서 허면은 다른 거 뭐 당근이나 현 것만이 소득이 안
웨니까.(어. 거 보리농사 하면 다른 거 뭐 당근이나 하는 것만큼 소득이 안 되니까.)

103002 @2 아니. 옛날, 옛날?(아니. 옛날, 옛날?)

103002 #1 옛날엔 해낫주.(옛날엔 했었지.)

103002 @2 옛날 보리농서 현 거를 들어 보는 거예?(옛날 보리농사 한 거를 들
어 보는 거요?)

103002 #1 아.(아.)

103002 @2 여기는 농사렌 험니까, 농시렌 험니까, 용시렌 험니까?(여기는 ‘농
사’라고 합니까, ‘농시’라고 합니까, ‘용시’라고 합니까?)

103002 #1 용시엔 허주, 용시.(‘용시’라고 하지, ‘용시’.)

103002 @2 옛날 용시엔 헛지예?(옛날 ‘용시’라고 했지요?)

103002 #1 으, 용시.(으, ‘용시’.)

103002 @2 게믄 보리용시 한 번 지어 봅주. 게믄?(그럼 보리농사 한 번 지어
보지요. 그럼?)

103002 #1 보리용시.(보리농사.)

103002 @2 보리용시 짓젠 허면은 준비허는 게 뭐 뭐 잇어낫수와 옛날예?(보리
농사 지으려고 하면 준비하는 게 뭐 뭐 있었습니까, 옛날예?)

103003 #1 보리 갈젠 허면은 우선 걸름이 잇어야 웨고이.(보리 갈려고 하면 우
선 거름이 잇어야 되고.)

103003 @2 예.(예.)

103003 #1 그 뭐인가 걸름은 뭇을 사용했는가 허면은 아까 듬복은 아간인 그건
허는 것이고 통새 걸름 잇지 안허여이?(그 뭐인가 거름은 뭇을 사용했는가 하면 아
까 듬복은 아까는 그건 하는 것이고 돼지우리 거름 잇지 않아?)

103003 @2 예.(예.)

103003 #1 그 도야지 길루는디 통새허고 소걸름이 잇어. 소는 집집마다 옛날은
소를 질랐거든.(그 돼지 기르는데 돼지우리하고 소두엄이 잇어. 소는 집집마다 옛날
은 소를 길렀거든.)

103003 @2 예, 잠깐만예, 소엔 험니까, 쉼엔 험니까?(예, 잠깐만요, 소라고 합니
까, ‘쉼’라고 합니까?)

103003 #1 쉼엔 허주.(‘쉼’라고 하지.)

103003 @2 앞으론 쉼엔 곶아줍서예.(앞으로 ‘쉼’라고 말해주세요.)

103003 @1 옛날 말로 돌아줍서.(옛날 말로 말해주세요.)

103003 #1 췌겉름. 췌겉름허고 그 저 통시 도새기겉름 그겉로 해 가지고 췌로 다 시켜 강, 이제는 뭐 경운기도 있고 마차도 있어났주만은 옛날 마차도 옛일 적에는 전부 췌로 실러 날랐주.(쇠두엄. 쇠두엄하고 그 저 돼지우리 돼지거름 그겉로 해 가지고 소로 다 실어 가서, 이제는 뭐 경운기도 있고 마차도 있었지만 옛날 마차도 없을 적에는 전부 소로 실어 날랐지.)

103003 @2 예.(예.)

103003 #1 췌로 실러 날랑.(소로 실어 날라서.)

103003 @2 췌로 실러서예. 게문 그, 그 겉름 준비하는 과정은, 겉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마씨?(소로 실어서요. 그럼 그, 그 거름 준비하는 과정은, 거름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103003 #1 겉름은 소가 겨울에 저 뭐인가 겨울에 스 개월 막에 매거든이. 경허른 소가 나가 불민 봄인가 뭐인가 뭐인가 한식 돼면은, 그 청명, 청명 돼면은 뭐, 뭐 풀이 어느 정도 돋거든. 경허른 청명 넘으면은 소를 산으로 그냥 방목해 불어. 게면은 그 스 개월 동안 췌여진 걸 갖다가 그것을 내어 가지고서, 그걸 내영 3만히 내 불민 안 돼. 내여근에 뒤집영 영 해야만이 그것이 트주게. 헤영케 막 짐이 팡팡 나게. 건 터야 겉름이 되는 거라. 겐 그걸 트면은 거 파삭 몰르지. 막 몰라 불면은 옛날은 그 뭐인가 맥이란 게 있어, 맥.(거름은 소가 겨울에 저 뭐인가 겨울에 스 개월 막에 매거든. 그러면 소가 나가 버리면 봄인가 뭐인가 뭐인가 한식 되면, 그 청명, 청명 돼면은 뭐, 뭐 풀이 어느 정도 돋거든. 그러면 청명 넘으면 소를 산으로 그냥 방목해 버려. 그럼 그 스 개월 동안 췌인 걸 갖다가 그것을 내어 가지고서, 그걸 내서 가만히 내 버리면 안 돼. 내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트지. 하얗게 마구 짐이 팡팡 나. 건 터야 거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트면 거 바삭 마르지. 마구 말라 버리면 옛날은 그 뭐인가 떡이란 게 있어, 떡.)

103003 @2 예.(예.)

103003 #1 맥에 거 시켜서 다 그거 소에 시켜서 다 날라 갖주.(떡에 거 실어서 다 그거 소에 실어서 다 날라 갔지.)

103003 @2 예. 그 삼춘 아까 겉름 헐 때 낸덴 헛잖아예?(예. 그 삼춘 아까 거름 할 때 낸다고 했잖아요?)

103003 #1 으.(으.)

103003 @2 겉름 낼 때는 무신 겉로 냐어마씨?(거름 낼 때는 무슨 겉로 냐어요?)

103003 #1 거 췌스렁으로 해, 췌스렁. 그때도 췌스렁은 잇었어. 우리 거시기 헐 때도.(거 쇠스랑으로 해, 쇠스랑. 그때도 쇠스랑은 잇었어. 우리 거시기 할 때도.)

103003 @2 으, 겐 췌스렁으로 내면?(으, 그래서 쇠스랑으로 내면?)

103003 #1 췌스렁으로 그 뭐인가 췌겉름 낼 때는 췌스렁으로 낼 수가 잇어. 게난 그 뭐인가.(쇠스랑으로 그 뭐인가 쇠두엄 낼 때는 쇠스랑으로 낼 수가 없어. 그

러니까 그 뭐인가.)

103003 #3 굴체로.(삼태기.)

103003 #1 아니, 굴체가 아니고 그 뭐인가 단가 잇잖여, 그 뭐인가 것ㄴ라 옛날 뭐엔 헤낫저.(아니, 삼태기가 아니고 그 뭐인가 단이 잇잖아, 그 뭐인가 거보고 옛날 뭐라고 했었어.)

103003 #3 산태⁶⁴엔, 산태 멘들앙.(‘산태’라고, ‘산태’ 만들어서.)

103003 #1 아, 산태, 산태. 그 산태 헤 가지고서, 산태 헤 가지고서 그 이제 산태는 이렇게 나무를 영 영 헤 가지고서 요 가운데, 가운데 뭘 줄로 영 저 무신거 끈으로 할 거 거트민 이레 영 퍼 놓을 거 아냐이?(아, ‘산태’, ‘산태’. 그 ‘산태’ 헤 가지고서, ‘산태’ 헤 가지고서 그 이제 산태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헤 가지고서 요 가운데, 가운데 뭘 줄로 이렇게 저 무슨 끈으로 할 거 같으면 이리 이렇게 떠 놓을 거 아냐?)

103003 @2 예, 예.(예, 예.)

103003 #1 계난 굴체로 허민 대여섯 굴체 들어가지이.(그러니까 삼태기로 하면 대여섯 삼태기 들어가지.)

103003 @2 으.(으.)

103003 #1 경허민 둘리 들렁 내치곡 내치곡. 거 소걸름, 소 만이 매는 딴 소걸름이 엄청나게 만허여.(그러면 둘이 들어 내고 내고. 거 소두엄, 소 많이 매는 텐 소두엄이 엄청나게 많아.)

103003 #3 엄청나게 많지.(엄청나게 많지.)

103003 @2 그 쉼걸름예, 쉼걸름할 때 산태를 이렇게 허면 이 옆에 뭐 아까 무슨 걸 끈으로 해서마씨, 무슨 끈으로 헛수과?(그 쇠두엄요, 쇠두엄할 때 ‘산태’를 이렇게 하면 이 옆에 뭐 아까 무슨 걸 끈으로 했어요, 무슨 끈으로 했습니까?)

103003 #1 가운데 그 저 뭐인가 상, 상, 상자리 모양으로 남으로 예껏주게, 남으로.(가운데 그 저 뭐인가 상, 상, 살평상 모양으로 나무로 엮었지. 나무로.)

103003 @2 남으로 예경?(나무로 엮어서?)

103003 #3 가메기, 가마니로.(가마니, 가마니로.)

103003 #1 옛날에 가마니가 없으니까이.(옛날에 가마니가 없으니까.)

103003 @2 예.(예.)

103003 #1 영 예견, 남으로 예견 허다가 말제는 가마니 나오난 가마니로 헛주, 것ㄴ라 산태렌 헤.(이렇게 엮어서, 나무로 엮어서 하다가 말짜는 가마니 나오니까 가마니로 했지, 것보고 ‘산태’라고 헤.)

103003 @2 산태예. 그 산태는 하계 뉘면 그 이렇게 생긴 거 아니우과, 어쨌든 예, 이런 우리이. 이 낭은 저기 뭘로 멘들엇수과?(‘산태’예. 그 ‘산태’는 하계 되면 그 이렇게 생긴 거 아녓니까, 어쨌든요, 이런 우리. 이 나무는 저기 뭐로 만들엇습니까?)

64) ‘산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다.

103003 #1 건 아무 남이나 아무 남이라도. 것도 하여튼 남, 남 허젠 허든 상당히 거 것도 힘들어. 거 남도 하여튼 남도 거 선흘곳⁶⁵⁾이엔 헌 디 선흘곳 가게 헌 가면은 가시낭이라는 남들이 잇주게. 질긴 낭.(건 아무 나무나 아무 나무라도. 것도 하여튼 나무, 나무 하려고 하면 상당히 거 것도 힘들어. 거 나무도 하여튼 나무도 거 ‘선흘곳’이라고 하는 데 ‘선흘곳’ 가게 해서 가면은 가시나무라는 나무들이 있지. 질긴 나무.)

103003 @2 예, 예. 질긴 낭예.(예, 예. 질긴 나무요.)

103003 #3 여러 남으로 멘들앗주게. 가시낭으로 멘들지 안허고.(여러 나무로 만들었지. 가시나무로 만들지 않고.)

103003 #1 게메 그 가시남으로도, 하여튼 좋은 낭으로 택헨 멘들앗주. 쟁해야 오래 거주. 경 안허민 멧 년 안 강 썩엉 꺼꺼져 불주.(글쎄 그 가시나무로도, 하여튼 좋은 나무로 택해서 만들었지. 그래야 오래 가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안 가서 썩어서 꺾어져 버리지.)

103003 @2 예, 맞수다. 게난 그 걸름 허젠 허면 산태도 필요허고.(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름 하려고 하면 ‘산태도’ 필요허고.)

103003 #1 음, 쉼스렁 필요허고.(음, 쇠스랑 필요허고.)

103003 @2 쉼스렁도 필요허고예.(쇠스랑도 필요허고요.)

103003 #3 글체도 필요허지.(삼태기도 필요허지.)

103003 @2 그다음에 글체.(그다음에 삼태기.)

103003 #1 글체 건 도야지걸름 낼 땐 글체로 거.(삼태기 건 돼지거름 낼 땐 삼태기로 거.)

103003 @2 예, 예. 그 글체는 뭘로?(예, 예. 그 삼태기는 뭘로?)

103003 #1 대로, 대로.(대로, 대로.)

103003 #3 대나무.(대나무.)

103003 #1 대로.(대로.)

103003 #3 그 숲이 거는이 뭐냐 허면은 상동나무로 숲이 거는 허고 가운데 거는 대나무, 대나무 쪼개서이 가까서이 걸로 멘들앗지.(그 옆에 거는 뭐냐 하면 상동나무로 옆에 거는 하고 가운데 거는 대나무, 대나무 쪼개서 깎아서 걸로 만들었지.)

103003 @2 여기도 그러면은 그 글체 멘드는 어른덜이 잇어났수과?(여기도 그러면 그 삼태기 만드는 어른들이 있었습니까?)

103003 #1 어, 만이 잇어났저. 자급자족 해 가지고서 또 이제 산에 가 가지고 뭇인가 멀위 줄, 명줄이란 게 잇어. 명줄 헤다가 그거 허면은 그 뭇인가 대로 헌 거 보단 멧 배 오래 거주게.(어, 많이 있었지. 자급자족 해 가지고서 또 이제 산에 가 가지고 뭇인가 머루 줄, 멀꿀이란 게 잇어. 멀꿀 헤다가 그거 하면 그 뭇인가 대로 한 거보다 멧 배 오래 가지.)

65) ‘선흘곳’은 ‘선흘+곳’의 구성으로 선흘 지역에 있는 숲을 말한다. ‘선흘’은 제주시 조천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103003 #3 대로 헌 거, 예를 들면이 대로 헌 건 이 년 쓰면 건 오 년 써. 명줄로 멘든 거는.(대로 한 거, 예를 들면 대로 한 건 이 년 쓰면 건 오 년 써. 멸꼴로 만든 거는.)

103003 #1 명줄이엔 허주.(멸꼴이라고 하지.)

103003 @2 그러면 삼촌 잠깐만요. 대나무로 멘든 굴체는 무슨 굴체마씨?(그러면 삼촌 잠깐만요. 대나무로 만든 삼태기는 무슨 삼태기예요?)

103003 #1 아, 다 굴체 다.(아, 다 삼태기 다.)

103003 @2 그냥.(그냥.)

103003 #1 명줄 굴체 따로 있고 대나무 굴체 있고.(멸꼴 삼태기 따로 있고 대나무 삼태기 있고.)

103003 @2 계난 대나무 굴체 험니까, 대굴체 험니까?(그러니까 대나무 삼태기 험니까, 대 삼태기 험니까?)

103003 #1 대 굴체.(대 삼태기.)

103003 #3 굴체는 다 ㄴ트지 뭐.(삼태기는 다 같지 뭐.)

103003 #1 대굴체엔 허주.(대삼태기라고 하지.)

103003 @2 예, 예.(예, 예.)

103003 #1 대굴체엔 안 험 기자 굴체, 굴체 해서.(대삼태기라고 안 하고 그저 삼태기, 삼태기 했어.)

103004 @2 예, 알았수다. 그다음에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허영 갈아마씨? 언제 가는 것과, 보리는?(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갈아요? 언제 가는 겁니까, 보리는?)

103004 #1 보리는 뭐인가 시월달에 갈주, 시월달에. 시월달에 갈아 가지고서 그 뭐인가 그 망종 때엔, 망종 넘으면 보리 무조건 비어야 돼주.(보리는 뭐인가 시월에 갈지, 시월에. 시월에 갈아 가지고서 그 뭐인가 그 망종 때엔, 망종 넘으면 보리 무조건 베야 되지.)

103004 @2 예.(예.)

103004 #1 망종 넘으면은 보리가 삭아져 불영 비질 못허여.(망종 넘으면 보리가 삭아 버려서 베질 못해.)

103004 @2 예.(예.)

103004 #1 망종 전에 건 다 비어야 돼.(망종 전에 건 다 베야 돼.)

103005 @2 계문 그 보리 갈젠 허문 옛날에 걸름에 보리씨를 서경 헛져, 이런 말도 잇던게만은 여기도 헛수과?(그럼 그 보리 갈려고 하면 옛날에 거름에 보리씨를 섞어서 했어, 이런 말도 잇던데 여기도 헛수과?)

103005 #1 아, 여기도 경 헛주. 저 걸름 돛걸름에 막 마당에 내 놔 가지고서이 그 돛걸름을 쉼로 불리면서 그 보리씨를 막 이렇게 거시기 허여. 경해 가지고서 그 들에 시꺼당 낱 이걸 저 뭐인가 줍아낱이 줍아놔서 이렇게 갈면은 건 힘들어. 계난 수족이 만헌 사람은 그걸 허고 쟁 안헌 사람은 기자.(아, 여기도 그렇게 헛지. 저

거름 돼지거름에 마구 마당에 내 놔 가지고서 그 돼지거름을 소로 밟으면서 그 보리씨를 마구 이렇게 거시기 해. 그래 가지고서 그 들에 실어다 놔서 이걸 저 뭐인가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갈면 건 힘들어. 그러니까 수족이 많은 사람은 그걸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103005 @2 그다음에 이제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뿌린 거라마씨?(그다음에 이제 보리씨는 어떤 식으로 뿌린 거예요?)

103005 #1 손으로 그냥 뿌려, 손으로.(손으로 그냥 뿌려, 손으로.)

103005 @2 손으로 그냥 뿌려예. 게문 걸름 헨 거는 줍아냥 이렇게 뿌리고?(손으로 그냥 뿌려요. 그럼 거름 한 거는 집어넣어서 이렇게 뿌리고?)

103005 #1 어.(어.)

103005 @2 그렇지 않으면.(그렇지 않으면.)

103005 #1 손으로.(손으로.)

103006 @2 손으로 다 뿌려예. 보리 종류는 어떤 게 잇어나시고예?(손으로 다 뿌려요. 보리 종류는 어떤 게 있었나요?)

103006 #1 보리 종류는 우리 한동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행원, 월정은 일로 서러래 그 뭐인가 진흙땅이난에 보리가 잘 돼는데 우리는 보리가 안, 안 돼니깐에 여기는 걸, 여기는 피, 뭐인가 그 솔보리, 그 앓은베기보리⁶⁶⁾가 아니고 솔보리란 헛자 그 보리가 그 앓은베기만이 못 헛주. 게난 솔보리가 거 뭐인가 그 줄보리⁶⁷⁾라고 그렇게 헛주. 행원 거는 동글동글허고 그 뭐인가 질왓⁶⁸⁾디 것은.(보리 종류는 우리 한동은 아까 얘기했지만 행원, 월정은 일로 서쪽으로 그 뭐인가 진흙땅이니까 보리가 잘 되는데 우리는 보리가 안, 안 되니까 여기는 걸, 여기는 피, 뭐인가 그 쌀보리, 그 ‘앓은베기보리’가 아니고 쌀보리라고 해도 그 보리가 그 ‘앓은베기’만큼 못 헛지. 그러니까 쌀보리가 거 뭐인가 그 ‘줄보리’라고 그렇게 헛지. 행원 거는 동글동글하고 그 뭐인가 ‘질왓’에 것은.)

103006 @2 예.(예.)

103006 #1 거 음고, 우리 한동은 음지 안허고 소름소름해 가지고서.(거 여물고, 우리 한동은 여물지 않고 가름가름해 가지고서.)

103006 @2 아, 보리가 안 음은 거라예.(아, 보리가 안 여무는 거지요.)

103006 #3 월정이나 행원 건 앓은베기보리라고 허주.(월정이나 행원 건 ‘앓은베기보리’라고 하지.)

103006 @2 여기서 앓은베기보리를 헨 거라예?(여기서 ‘앓은베기보리’를 헨 거지요?)

103006 #1 아니, 우리 한동은 줄보리고.(아니, 우리 한동은 ‘줄보리’고.)

103006 @2 아, 여기는 줄보리고.(아, 여기는 ‘줄보리’고.)

103006 #1 저기 저레는 앓은베기보리. 우리 한동은 앓은베기보리가 안 돼여. 땅

66) ‘앓은베기보리’는 보리의 한 종류다.

67) ‘줄보리’는 보리의 한 종류다.

68) ‘질왓’은 돌맹이가 없고 맨 흙이 깔려 있는 밭을 말한다.

이 뜬 땅이라 부니까. 화산쇄토로 그냥, 한라산으로 재 불려온 땅이라 부니까.(저기 저리는 ‘앗은베기보리’. 우리 한동은 ‘앗은베기보리’가 안 돼. 땅이 뜬 땅이여 버리니까. 화산쇄토로 그냥, 한라산으로 재 불려온 땅이여 버리니까.)

103006 @2 예, 맞수다. 계민 여긴 겉보리는 안 갈아낫수과?(예, 맞습니다. 그럼 여긴 겉보리는 안 갈았었습니까?)

103006 #1 겉보리도 갈아낫주. 겉보리는 또 이제 우리 가름팻⁶⁹⁾보단 못 헛 밧디 겉보리를 갈았주게. 걸 팡보리⁷⁰⁾라고 그랬어. 겉보리⁷¹⁾라 팡보리.(겉보리도 갈았었지. 겉보리는 또 우리 ‘가름팻’보단 못 한 밧에 겉보리를 갈았지. 걸 ‘팡보리’라고 그랬어. 겉보리보고 ‘팡보리’.)

103006 @2 아, 겉보리, 팡보리예?(아, 겉보리, ‘팡보리’요?)

103006 #1 겉보리가 팡보리.(겉보리가 ‘팡보리’.)

103006 #3 그 맥주맥이엔 헛 것도 만이 갈았어.(그 맥주보리라고 하는 것도 많이 갈았어.)

103006 @2 예, 건 나중에.(예, 건 나중에.)

103006 #1 맥주맥은.(맥주보리는.)

103006 #3 계난 제주도 말로 허민 옛날 거는 주녕이보리라고 헛지. 토백이 말로는.(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하면 옛날 거는 ‘주녕이보리’라고 헛지. 토박이 말로는.)

103006 @2 예, 예.(예, 예.)

103006 #3 주녕이보리라고 헛어.(‘주녕이보리’라고 헛어.)

103006 @2 예, 예 잠깐예, 그럼 정리를 한 번 해 볼게예. 주녕이보리가 어떤 보리마씨?(예, 예 잠깐요, 그럼 정리를 한 번 해 볼게요. 맥주보리가 어떤 보리요?)

103006 #1 주녕이보리가 그것이 해방 후에 장려해 가지고서 그제 좀 수확이 만이 낫주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뭐인가 그 두 줄 반쪽허게 올라강 밧는 거. 계니까 주녕이, 주녕이 밧거치 돼 부난 주녕이보리 그렇게. 계난 그거 여기선 주녕이보리라 헛고 우리 표준에는 맥주맥이라고.(맥주보리가 그것이 해방 후에 장려해 가지고서 그제 좀 수확이 많이 낫지.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뭐인가 그 두 줄 반듯하게 올라가서 밧는 거. 그러니까 지네, 지네 밧같이 돼 버리니까 ‘주녕이보리’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여기선 ‘주녕이보리’라고 헛고 우리 표준에는 맥주보리라고.)

103006 @2 예, 알았수다. 계민 주녕이보리가 이제 맥주맥이고예. 줄보리하고 맥주맥은 어떻허과?(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녕이보리’가 이제 맥주보리고요. ‘줄보리’하고 맥주보리는 어떻습니까?)

103006 #1 줄보리는 기자 우리 토종 거고.(‘줄보리’는 그저 우리 토종 거고.)

103006 @2 토종 거고예?(토종 거고요?)

103006 #1 토종 거고, 팡, 그 뭐인가?(토종 거고, ‘팡’, 그 뭐인가?)

103006 @2 팡보리?(‘팡보리’?)

69) ‘가름팻’은 마을 안쪽에 있는 밧을 말한다.

70) ‘팡보리’는 보리의 한 종류다.

103006 #1 팥보리도 거 토종 거고.(‘팥보리’도 거 토종 거고.)

103006 @2 예. 아까 팥보리가 다른 말로 허면은?(예. 아까 ‘팥보리’가 다른 말로 하면?)

103006 #3 피보리.(겉보리.)

103006 @2 피보리.(겉보리.)

103006 #1 피보리 어.(겉보리 어.)

103006 @2 아, 팥보리가 피보리에?(아, ‘팥보리’가 겉보리요?)

103006 #1 어.(어.)

103006 @2 피보리에. 게문 보리 종류가 솔보리 있고.(겉보리요. 그럼 보리 종류가 쌀보리 있고.)

103006 #1 피보리.(겉보리.)

103006 @2 피보리 있고.(겉보리 있고.)

103006 #1 또 맥주맥 그거 허고 세 개.(또 맥주보리 그거 하고 세 개.)

103006 @2 아까 주냉이보리 이렇게 세 개가 잇는 거다예?(아까 맥주보리 이렇게 세 개가 잇는 거네요?)

103006 #1 으, 세 개.(으, 세 개.)

103007 @2 예, 알았수다. 옛날 여기도 게문 뜬 땅이라 부난 보리밭 블라시크라예?(예, 알겠습니다. 옛날 여기도 그럼 뜬 땅이여 버리니까 보리밭 밟았었겠네요?)

103007 #1 아, 보리밭, 보리밭도 막 블랏주덜.(아, 보리밭, 보리밭도 마구 밟았지.)

103007 @2 그 얘기 좀, 어떤 식으로 블랏는지 곱아 줘서.(그 얘기 좀, 어떤 식으로 밟았는지 말해 주세요.)

103007 #1 게난 보리밭, 보리밭을 사람이 그 뭐인가 블르고 또 다시 이제 저 그 일제시대부터 막 블르라고 막 장려를 했주, 그 보리밭을. 막 그 관에서.(그러니까 보리밭, 보리밭을 사람이 그 뭐인가 밟고 또 다시 이제 저 그 일제시대부터 막 밟으라고 아주 장려를 했지, 그 보리밭을. 아주 그 관에서.)

103007 @2 예.(예.)

103007 #1 땅이 막, 이제는 땅이, 날이 그 뭐인가 옛날만이 춥지 안허니까 땅이 안 곳는데 옛날은 땅이 막 곳아 불민 봄이 나민 이만큼 땅이 막 부각부각⁷¹⁾ 헤낫주게. 경헨에 식구 많은 사람은 블르고 경 안 현 사람은 기자 블리지 안해도 기자. 블린 게 훨씬 수확이 더 나주.(땅이 아주, 이제는 땅이, 날이 그 뭐인가 옛날만큼 춥지 않으니 땅이 안 곱았는데 옛날은 땅이 아주 곱아 버리면 봄이 되면 이만큼 땅이 아주 ‘부각부각’ 했었지, 그래서 식구 많은 사람은 밟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밟지 않아도 그저. 밟은 게 훨씬 수확이 더 나지.)

103007 @2 보리 블릴 때 무신 아이덜 연 띄우거나 이러진 안헛수과?(보리 밟을 때 무슨 아이들 연 띄우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71) ‘부각부각’은 땅이 얼었다 녹은 후 부풀어 오른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03007 #1 아니 그건 보리밭에서 연 띄운 것이 아니라 옛날 조크루⁷²⁾에서 막 연덜 띄워놔주덜.(아니 그건 보리밭에서 연 띄운 것이 아니라 옛날 ‘조크루’에서 많이 연들 띄웠었지.)

103007 @2 조크루에서. 아, 걸랑 나중에 물어보쿠다.(‘조크루’에서. 아, 거랑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03007 #1 연 만이 띄웠저, 옛날은.(연 많이 띄웠지, 옛날은.)

103007 @2 연 만이 띄완예, 삼촌도 연 하영 띄우고?(연 많이 띄웠지요, 삼촌도 연 많이 띄우고?)

103007 #1 아이고, 우리 하영 띄우고 우리 아덜네부터는 안 해놔주만은 우리 대까지는 굉장히 연 만이 띄워서.(아이고, 우리 많이 띄우고 우리 아덜네부터는 안 했었지만 우리 대까지는 굉장히 연 많이 띄웠어.)

103008 @2 아, 기구나예. 게민 보리밭 검질도 삼촌 메레 땡겨뽑디가?(아, 그렇군요. 그럼 보리밭 김도 삼촌 매러 다녀뽑디가?)

103008 #1 건 메야지 어떻허여.(건 매야지, 어떡해.)

103008 @2 멧 번 맵니까?(멧 번 맵니까?)

103008 #1 것도 두벌 매야 웨여, 두벌.(것도 두벌 매야 돼, 두벌.)

103008 @2 두벌?(두벌?)

103008 #1 아, 보리밭은 대충 혼불만 메긴 메는디 조거튼 거, 산디 같은 건 두벌, 세벌 매야 웨여. 그래 멧 때에는 동네끼리 뭐인가 수눌어서.(아, 보리밭은 대충 초벌만 매긴 매는데 조 같은 거, 밧벼 같은 건 두벌, 세벌 매야 돼. 그래 멧 때에는 동네끼리 뭐인가 품앗이해서.)

103008 @2 예.(예.)

103008 #1 오늘은 이 사람네 밧디 가근에 허곡 내일은 저 사람네 집이 가고. 경해야 능를을 올리지 경 안 허민 능를이 안 올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노는 날이 엇었지, 제주도 사람덜은.(오늘은 이 사람네 밧에 가서 하고 내일은 저 사람네 집에 가고. 그렇게 해야 능를을 올리지 그렇게 안 하면 능를이 안 오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노는 날이 없었지, 제주도 사람들은.)

103009 @2 예. 켜 그때 보리밭디는 어떤 검질덜 나신고예?(예. 그래서 그때 보리밭에는 어떤 김들 났나요?)

103009 #1 아, 보리밭디도 봄에 나는 검질 뭐 대우리도 잇고 뭐도 잇고 그렇고 그런 거 잇주게.(아, 보리밭도 봄에 나는 김 뭐 귀리도 잇고 뭐도 잇고 그렇고 그런 거 있지.)

103009 @2 아, 예.(아, 예.)

103009 #1 대우리엔 현 거 아이 메면 안 돼, 대우리가.(귀리라고 하는 거 안 매면 안 돼, 귀리가.)

103009 @2 검질 이름덜은 우리 여자 삼촌덜이 잘 알 거라예?(김 이름들은 우리

72) ‘조크루’는 조를 심어 기르고 거둔 자리를 말한다.

여자 삼촌들이 잘 알 거지요?)

103009 #1 여자 삼촌이 잘 알 거여. 계난 진풀이니 뭐이니 그런 거, 그런 거.(여자 삼촌이 잘 알 거야. 그러니까 박조가리나물이니 뭐이니 그런 거, 그런 거.)

103009 @2 거 튼내지는 대로 굴아 볶서케.(거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세요.)

103009 #1 게 진풀 거튼 거.(그래 박조가리나물 같은 거.)

103009 #3 사스레기⁷³⁾, 진풀.(‘사스레기’, 박조가리나물.)

103009 #1 독풀⁷⁴⁾이여 진풀 뭐 그런 거.(‘독풀’이며 박조가리나물 뭐 그런 거.)

103009 @2 사스레기, 독풀, 진풀 요즘도 이런 거 보입니까?(‘사스레기’, ‘독풀’, 박조가리나물 요즘도 이런 거 보입니까?)

103009 #1 그 으름에 제환지가 아주. 또 해바라기⁷⁵⁾, 제환지 때문에 굉장히. 봄엔 그거 안 나니까 저 보리밭엔.(그 여름에 바랭이가 아주. 또 ‘해바라기’, 바랭이 때문에 굉장히. 봄엔 그거 안 나니까 저 보리밭엔.)

103009 @2 아까 그 해바라기는 뭐파?(아까 그 ‘해바라기’는 뭐니까?)

103009 #1 그 해바라기라는 풀이 잇주게. 그거, 그 그 별명이 그 우리가 여기 해 바레는 거 해바라기라고 해 가지고서 상당히 그 아닌 게 아니라 빨리도 지피 들어가고 또 콩밭디, 조밭디, 산디왔디 아주 거 제환지허고 그렇게 만이 낮어.(그 ‘해바라기’라는 풀이 있지. 그거 그 그 별명이 그 우리가 여기 해 보는 거 ‘해바라기’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아닌 게 아니라 뿌리도 깊이 들어가고 또 콩밭에, 조밭에, 밭벼밭에 아주 거 바랭이하고 그렇게 많이 낮어.)

103009 @2 아, 해바라기하고예?(아, ‘해바라기’하고요?)

103009 #1 으.(으.)

103009 @2 해바라기 꽃 피는 거우과?(‘해바라기’ 꽃 피는 겁니까?)

103009 #1 것도 꽃 피주, 빨강케, 빨강케.(것도 꽃 피지, 빨강케, 빨강케.)

103009 @2 아.(아.)

103009 #1 아, 꽃은 안 피는데 열매가 빨간 거.(아, 꽃은 안 피는데 열매가 빨간 거.)

103009 @2 아, 열매가. 해바라기. 요즘도 보이는가마씨?(아, 열매가. ‘해바라기’. 요즘도 보이는가요?)

103009 #1 아, 요즘도 만이 잇주.(아, 요즘도 많이 있지.)

103009 @2 아.(아.)

103009 #1 지금도.(지금도.)

103009 @2 알앗수다. 나중에 봐 봐야 돼쿠다예. 저 검질메젠 허면은 뭐로 멧수과?(알겠습니다. 나중에 봐 봐야 되겠습니다. 저 김매려고 하면 뭐로 맵니까?)

103009 #1 گل쟁이로 메주, 무시거로.(호미로 매지, 무엇으로.)

103009 @2 گل쟁이로. گل쟁이도 종류가 으라 개 이신가마씨?(호미로. 호미도 중

73) ‘사스레기’는 풀 종류의 하나다.

74) ‘독풀’은 풀 종류의 하나다.

75) ‘해바라기’는 풀 종류의 하나다. 제보자는 ‘해바라기’라고도 했다.

류가 여러 개 있는가요?)

103009 #1 아니, 여러 개 없어.(아니, 여러 개 없어.)

103009 @2 아, 그냥 곶갱이.(아, 그냥 호미.)

103009 #1 옛날 곶갱이. 요새 육지서 들어온 곶갱이론 못 메. 영 거세기 해 부난. 그 땅 극지도 못하고 파이⁷⁶라, 그건. 건 논밭디만 메는 것이지. 게난 우리 제주도서 만드는 곶갱이라 돼여.(옛날 호미. 요새 육지에서 들어온 호미론 못 메. 이렇게 거시기 해 버리니까. 그 땅 굽지도 못하고 못써, 그건. 건 논밭에만 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만드는 호미라야 돼.)

103009 @2 여기서는 주로 곶갱이는 어디서?(여기서는 주로 호미는 어디서?)

103009 #1 여기도 곶갱이 허는 디가 셔낫주. 그 하르방이 이제 돌아, 돌아갓주만은 여기 곶갱이를 불미항이 여기 잇엇주게.(여기도 호미 하는 데가 있었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 돌아갓지만 여기 호미를 대장간이 여기 있었어.)

103009 @2 불미항이 잇엇어예. 게민 그 곶갱이도 베린덴 험니까?(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럼 그 호미도 베린다고 험니까?)

103009 #1 어, 곶갱이도 베리주. 다여 가민 베리고 새로, 새로 두들고.(어, 호미도 베리지. 닳아 가면 베리고 새로, 새로 두드리고.)

103009 #3 쉼스렁도 멘들고.(쇠스랑도 만들고.)

103009 @2 여기도 불미항에서 쉼스렁도 다 멘든 거라예?(여기도 대장간에서 쇠스랑도 다 만든 거지요?)

103009 #1 어. 거 부락마다 다 잇어주, 불미항.(어. 거 부락마다 다 있었지, 대장간.)

103009 @2 아, 그러면 이 동네 농사짓는 농기구들은 다 어디서?(아, 그러면 이 동네 농사짓는 농기구들은 다 어디서?)

103009 #1 으. 주로, 주로 다 여기 자급자족했주, 다.(으. 주로, 주로 다 여기 자급자족했지, 다.)

103010 @2 예. 그 보리 수확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옛날 헛수과?(예. 그 보리 수확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옛날 헛수과였습니까?)

103010 #1 보리를 이제 거 뭐인가 보리를 벨 거 아니라. 비어다가 이제는 집에 다 시꺼올 거 아니라. 쉼로 다 시꺼와 가지고 놀영 낫다근예가, 놀영 낫당 그 집에서 이제 날 존 날 훌터야 돼.(보리를 이제 거 뭐인가 보리를 벨 거 아니야. 베어다가 이제는 집에 다 실어올 거 아니야. 소로 다 실어와 가지고 가려 났다가, 가려 났다가 그 집에서 이제 날씨 좋은 날 훑어야 돼.)

103010 @2 예.(예.)

103011 #1 그걸 그 저 이렇게 클이 잇주게, 이렇게 해 가지고.(그걸 그 저 이렇게 틀이 있지, 이렇게 해 가지고.)

103011 @2 예, 클.(예, 틀.)

76) '파이'는 일본어 '敗'에서 온 말로 '못쓰다'의 의미다.

103011 #1 그걸 훑타근에가, 훑타근에가 다 훑타근에가 그걸 두드렸주.(그걸 훑아서, 훑아서 다 훑아서 그걸 두드렸지.)

103011 #3 그 도깨, 도깨 알아져, 도깨?(그 도리깨, 도리깨 알아, 도리깨?)

103011 @2 예.(예.)

103011 #1 도끼로 테작을 했주.(도리끼로 타작을 했지.)

103011 @2 그럼, 보리, 보리클이우과?(그럼, 보리, 보리그네입니까?)

103011 #1 으.(으.)

103011 @2 보리클로 훑튼 다음에 또 도끼로?(보리그네로 훑은 다음에 또 도리끼로?)

103011 #1 으, 도끼로 그걸.(으, 도리끼로 그걸.)

103011 #3 마당에 낱, 그걸 마당에 낱 두든 거라.(마당에 낱서, 그걸 마당에 낱서 두드린 거야.)

103011 @2 예.(예.)

103011 #1 경허민 그때도 수눌영 해야 돼여. 사람이 너이, 혼 서너이가 이서야 양쪽이 둘이, 둘이 상 이렇게 해야. 그 수눌영 해야.(그러면 그때도 품앗이해서 해야 돼. 사람이 넷, 한 서넛이 있어야 양쪽에 둘이, 둘이 서서 이렇게 해야. 그 품앗이해서 해야.)

103011 @2 그 도끼 이신 집은 엇이카마씨?(그 도리끼 있는 집은 없을까요?)

103011 #1 도끼 이신 집은.(도리끼 있는 집은.)

103010 @2 혼 번 훑아봅서예. 게든 보리를 비잖아예. 보리는 뭇로 비어마씨?(한 번 훑아보세요. 그럼 보리를 베잖아요. 보리는 뭇로 베요?)

103010 #1 호미로게.(낫으로.)

103010 @2 그 호미허고 바당에 호미허고 흐뭇 트나지 안헉니까?(그 낫하고 바당에 낫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103010 #1 아, 바당에 호미허고 틀려.(아, 바당에 낫하고 달라.)

103010 @2 그 호미를 다른 불르는 이름이 잇어신가마씨, 예전에?(그 호미를 다른 부르는 이름이 없었나요, 예전에?)

103010 #1 아니, 기자 호미엔 허주, 호미.(아니, 그저 낫이라고 하지, 낫.)

103010 @2 호미예?(낫이요?)

103010 #1 으, 호미, 글갱이.(으, 낫, 호미.)

103010 @2 예, 호미, 글갱이예.(예, 낫, 호미요.)

103010 #3 해변 쓰는 호미허고 이디 비는 호미허곤 틀리주게.(해변 쓰는 낫하고 여기 베는 낫하곤 다르지.)

103010 @2 예, 알앗수다. 그건 나중에 다시 혼 번 물으쿠다. 보리 비면 그다음에 무꺼야 헐 거 아니과?(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물겠습니다. 보리 베면 그다음 묶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10 #1 무끄주.(묶지.)

103010 @2 무끄젠 허민 뭐가 필요해마씨?(묶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103010 #1 계난 그 그 보리로 그자 무끄는 거라, 보리로.(그러니까 그 그 보리로 그저 묶는 거야, 보리로.)

103010 @2 아.(아.)

103010 #1 거 보리가 이거 영 보리를 꺾칭헌 걸로 해 가지고 영 해 가지고 여기 소독⁷⁷⁾ 아니라. 소독을 빙 허게 데와 가지고 꼬구려 가지고서 영 꼬구려 가지고 그걸로 보리짚을 무끄는 거라.(거 보리가 이거 이렇게 보리를 가지런한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소독’ 아니야. ‘소독’을 빙 하게 틀어 가지고 접어 가지고서 이렇게 접어 가지고 그걸로 보릿짚을 묶는 거야.)

103010 @2 아, 그러면은 보리 소독 있는 쪽으로 데올 거 아니과예?(아, 그러면 보리 ‘소독’ 있는 쪽으로 틀 거 아닙니까?)

103010 #1 으, 으.(으, 으.)

103010 @2 그 무끄는 거를 여기에서는 뭐렌 다른 말 안 험니까?(그 묶는 거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다른 말 안 함니까?)

103010 #1 다른 말 뭐?(다른 말 뭐?)

103010 @2 께니 뭐니 이런 말 안 험니까?(매끼니 뭐니 이런 말 안 함니까?)

103010 #1 그 께는 따로 허는 걸 께엔 허주.(그 매끼는 따로 하는 걸 매끼라고 하지.)

103010 @2 보리는 따로. 제께⁷⁸⁾ 이런 말은 안 써마씨?(보리는 따로. ‘제께’ 이런 말은 안 써요?)

103010 #1 거 제께로 허기 때문에 그 다른 뭐인가 께가 필요엿주게.(거 ‘제께’로 하기 때문에 그 다른 뭐인가 매끼가 필요없지.)

103010 @2 그냥 제께렌 말은 이 동네도 헛수과?(그냥 ‘제께’라는 말은 이 동네도 헛습니까?)

103010 #1 어.(어.)

103010 @2 계민 보리는 보리 제께예?(그럼 보리는 보리 ‘제께’요?)

103010 #1 으, 제께로 무끄는 거.(으, ‘제께’로 묶는 거.)

103010 @2 예, 예.(예, 예.)

103010 #3 가당 오당 군께⁷⁹⁾ 헨 무끄는 사름도 잇긴 잇는디 보통 보리로 헿 꼬 부려서 무끄주게.(가다가 오다가 ‘군께’ 해서 묶는 사름도 잇긴 잇는데 보통 보리로 해서 접어서 묶지.)

103010 @2 군께는 계민 뭘로 만들어마씨?(‘군께’는 그럼 뭐로 만들어요?)

103010 #1 새로, 새. 새 비여다가 새 비여다가 조 무끌 때나 콩 무끌 때나 이 막물 무끌 때나 이건 새 께로 해야 뉘.(띠로, 띠. 띠 베어다가 새 베어다가 조 묶을

77) ‘소독’은 짚이나 역새 따위의 속 줄기를 말한다.

78) ‘제께’는 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매끼를 그 곡식 줄기를 틀어 만든 것을 말한다.

79) ‘군께’는 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매끼를 말한다. ‘가외’의 의미의 접사 ‘군-’에 ‘매끼’를 의미하는 ‘께’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때나 콩 묶을 때나 이 메밀 묶을 때나 이건 띠 매끼로 해야 돼.)

103010 @2 새 께로?(띠 매끼로?)

103010 #1 으, 새 께로 안 허민 안 웨여.(으, 띠 매끼로 안 하면 안 돼.)

103010 @2 산두쪽으로는 안 헛수과?(밭벧짚으로는 안 헛습니까?)

103010 #1 산두는 산두쪽으로 무끄고.(밭벼는 밭벧짚으로 묶고.)

103010 @2 아, 산두는 산두쪽으로 무끄고.(아, 밭벼는 밭벧짚으로 묶고.)

103010 #1 산뒤쪽으로, 산뒤쪽으로 풀랑 안 웨. 콩 거튼 거 무끄젠 허민.(밭벧짚으로, 밭벧짚으로 짧아서 안 돼. 콩 같은 거 묶으려고 하면.)

103010 @2 아, 여기는 못이 크구나예?(아, 여기는 못이 크군요?)

103010 #1 으, 못이 크난. 계난 흔, 쉼 흔 바리에 세 못씩 계난 이만씩, 이만씩 허주게. 그걸 흔 짝에 세 개씩 세 개씩 으숫 못 헨 그것이 흔 바리라.(으, 못이 크니까. 그러니까 한, 소 한 마리에 세 못씩 그러니까 이만큼씩, 이만큼씩 하지. 그걸 한 짝에 세 개씩 세 개씩 여섯 못 해서 그것이 한 바리야.)

103010 @2 아, 콩은?(아, 콩은?)

103010 #1 콩이나 믫물이나.(콩이나 메밀이나.)

103023 @2 조나?(조나?)

103023 #1 거 조는 조는 주로 그냥 밭에서 만이 툃앗주, 그냥. 시꺼오질 안허여 근에.(거 조는 조는 주로 그냥 밭에서 많이 뜯었지, 그냥. 실어오지 않고.)

103023 @2 아.(아.)

103023 #1 밭디서 가근에가 거 툃는다는 거 제주도 사름덜 알 거 아니가?(밭에서 가서 거 뜯는다는 거 제주도 사람들 알 거 아니냐?)

103010 @2 예, 예. 그다음에 이거 놀기도 보리남 해근에 보리 비여근에 놀기도 허잖아예?(예, 예. 그다음에 이거 가리기도 보릿대 해서 보리 베어서 가리기도 하잖아요?)

103010 #1 어, 보리 비영 놀주게. 비 맞으면 안 웨니까.(어, 보리 베어서 가리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103010 @2 어떤 식으로?(어떤 식으로?)

103010 #1 그냥 동글랑허게 놀주. 동글랑허게 놀어.(그냥 동그랗게 가리지. 동그랗게 가려.)

103010 @2 동글랑허게예?(동그랗게요?)

103010 #1 동글랑허게.(동그랗게.)

103010 @2 놀영, 비 맞지 못허게예?(가려서, 비 맞지 못하게요?)

103010 #1 비 맞지 못허게. 경해 가지고서 그 우에는 보리로 이렇게 거시리⁸⁰⁾ 주. 보리가 거꾸로 영 허민 비가 영.(비 맞지 못하게. 그래 가지고서 그 위에는 보리로 이렇게 ‘거시리’지. 보리가 거꾸로 이렇게 하면 비가 이렇게.)

80) ‘거시리다’는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을 반대로 하여 나간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보리 가리를 만들 때 보리를 거꾸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103010 @2 예.(예.)

103010 #1 그걸 영 층 층 층 층 해 가지고서 그 비 안 들게 경해 가지고서.(그걸 이렇게 층 층 층 층 해 가지고서 그 비 안 들게 그래 가지고서.)

103010 @2 계민 보리를 거꾸로 영 허는 것을 거시린텐 헵니까, 여기서?(그럼 보리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을 ‘거시린’다고 합니까, 여기서?)

103010 #1 어, 어 거시린텐 허주.(어, 어 ‘거시린’다고 하지.)

103012 @2 예. 거시린텐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리쌀 옛날 장만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수과?(예. ‘거시린’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리쌀 옛날 장만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12 #1 보리쌀을 장만허젠 허면은 그것을 몰ㄴ레엔 현 것이 있어. 몰ㄴ레, 몰ㄴ레.(보리쌀을 장만하려고 하면 그것을 연자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연자매, 연자매.)

103012 @2 몰ㄴ레.(연자매.)

103012 #1 몰ㄴ레엔 현 것이 큰 돌 영 해근예. 사람으로 영 해영. 그디 가서 물 놓면서이.(연자매라고 하는 것이 큰 돌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물 넣으면서.)

103012 @2 예.(예.)

103012 #1 물 허트면서 그걸 영 허면은 그디 꺾데기가 벗겨질 거 아냐이?(물 섞으면서 그걸 이렇게 하면 거기 꺾데기가 벗겨질 거 아니니?)

103012 @2 예.(예.)

103012 #1 그거 벗겨지면은 집이 왕 마당에 명석에 넣어.(그거 벗겨지면 집에 와서 마당에 명석에 넣어.)

103012 @2 예.(예.)

103012 #1 명석에 넣어 가지고서 또 다시 이제는 이제 그 돌ㄴ레 잇잖여이?(명석에 넣어 가지고서 또 다시 이제는 이제 그 맷돌 잇잖아?)

103012 @2 예.(예.)

103012 #1 돌ㄴ레에 그걸 벌러야 웨여. 벌러야 그걸 경해근예 밥을 행 먹주.(맷돌에 그걸 쪼개야 돼. 쪼개야 그걸 그래서 밥을 해서 먹지.)

103012 @2 그 몰ㄴ레 허젠 허면 필요헌 도구들은 뭐가 이신고마씨?(그 연자매 하려고 하면 필요한 도구들은 뭐가 있나요?)

103012 #1 그 몰ㄴ레는 다 짜져, 짜져 잇기 때문에 영 둥글임만 허민. 맷돌이, 큰 맷돌이 가운디 빙빙 돌아가명 그걸 허는 거난에 게난 그 뭐인가 그 홀 때는 사람이, 사람이 필요허주게. 한 서너이 들어야 그걸 흐니깐이. 게니까 수늘영 대개 허고 중간에는 물 잇는 사람은 물 메왕.(그 연자매는 다 짜여, 짜여 잇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리기만 하면. 맷돌이, 큰 맷돌이 가운디 빙빙 돌아가면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인가 그 할 때는 사람이, 사람이 필요하지. 한 서넛 들어야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품앗이해서 대개 하고 중간에는 말 잇는 사람은 말 메워서.)

103012 #3 몰도 메웁고 소도 메웁고 같아. 예를 들어 옛날은이 잔치허젠 허민 보리밥을 헛거든. 쌀이 엇어놓니까. 계면은 동네 잔치허젠 허면은 마차 허는 몰이나 밧 가는 소나 소 메왕 같아. 소 메와서 그 저 그 방앗돌을 돌렸어.(말도 메우고 소도 메우고 같아. 예를 들어 옛날은 잔치하려고 하면 보리밥을 헛거든. 쌀이 없으니까. 그러면 동네 잔치하려고 하면 마차 하는 말이나 밧 가는 소나 소 메워서 같아. 소 메워서 그 저 그 맷돌을 돌렸어.)

103012 @2 예.(예.)

103012 #3 만이 허는 건이 사람이 힘이 들고이, 보통 너이가 들어가거든이, 너이 힘으로 안 돼니까 만이 가는 건이 소, 몰 메왕 돌렸지.(많이 하는 건 사람이 힘이 들고, 보통 넷이 들어가거든, 넷 힘으로 안 되니까 많이 가는 건 소, 말 메워서 돌렸지.)

103012 @2 예, 맞수다. 그렇게 허고 보리가 이제 돼면은 이제 몰리기도 해야 할 거 아니과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리가 이제 되면 이제 말리기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12 #1 계메, 계메. 나가 곧지 안헤냐게? 그, 그 뭐인가 몰ㄴ레에서 물, 물 주멍 그걸 해야 그거 꺾테기가. 게니까 그걸 헤다가 몰ㄴ레에 탁탁 굴아근에 허면은 집이서 마당에서 명석에 널영 몰류왕, 몰라야 거 돌ㄴ레에 벌러지주. 몰르지 안허민 안 벌러지주.(글쎄, 글쎄.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 그 뭐인가 연자매에서 물 물 주면서 그걸 해야 그거 꺾테기가. 그러니까 그걸 헤다가 연자매에 탁탁 갈아서 하면 집에서 마당에서 명석에 널어서 말려서, 말라야 거 맷돌에 쪼개지지. 마르지 않으면 안 쪼개지지.)

103012 @2 그 옛날에 몰리젠 허면 또 거기에 ㄴ시락덜도 이실 거고.(그 옛날에 말리려고 하면 또 거기에 까끄라기들도 있을 거고.)

103012 #1 아니, ㄴ시락은 엇어.(아니, 까끄라기는 없어.)

103012 @2 아, 거기는 ㄴ시락 엇입니까?(아, 거기는 까끄라기 없습니까?)

103012 #1 엇어.(없어.)

103012 @2 겐 불리진 안헤마씨?(그래서 불리진 않아요?)

103012 #1 아, 거 불리기도 허긴 허주. 뭐인가 가끔 ㄴ시락이라도, 그 꺾테기가 이시카 부텐 불림도 허고 굴아 낱도 체로 영 쳐근에가 그 굴아진 건 다 아, 아래 굴르고 ㄴ스락이고 뭐고 다 쳐지주게. 체로 치면.(아, 거 불리기도 하긴 하지. 뭐인가 가끔 까끄라기도, 그 꺾테기가 있을까 봐 불리기도 하고 같아 봐서도 체로 이렇게 쳐서 그 갈린 건 다 아, 아래 피고 까끄라기고 뭐고 다 쳐지지. 체로 치면.)

103012 @2 불림질 허제 허면 뭐 뭐 필요합니까?(불림질 하려고 하면 뭐 뭐 필요합니까?)

103012 #1 건 속박⁸¹⁾허고게 명석이지게.(건 ‘속박’하고 명석이지.)

81) ‘속박’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뜯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죤팍, 줌박, 손박, 솔박’이라고도 한다.

103012 @2 속박하고 명석만 이시민 웨마씨?(‘속박’하고 명석만 있으면 돼요?)

103012 #1 어.(어.)

103012 #3 얼맹이 있어, 큰 체. 그 얼맹이 쳐야주게.(어레미 있어, 큰 체. 그 어레미 쳐야지.)

103012 @2 예.(예.)

103012 #1 그 얼맹이 치는 건 보리테작할 때는 얼맹이로 치는 것이고 테작할 땐 얼맹이로. 보리테작이나 무시거 뭐 조 테작이나 뭐 얼맹이로 그 곡메길⁸²⁾ 쳐내는 것이고 곡메기.(그 어레미 치는 건 보리타작할 때는 어레미로 치는 것이고 타작할 땐 어레미로. 보리타작이나 무엇 뭐 조 타작이나 뭐 어레미로 그 깍질 쳐내는 것이고 깍지.)

103012 @2 예, 곡메기예?(예, 깍지요?)

103012 #1 기자 보리 곶양 무시거 혈 때는 얼맹이가 필요없는 거주. 대체, 대체 허고 거세기.(그저 보리 갈아서 무엇 할 때는 어레미가 필요없는 거지. 대체, 대체 하고 거시기.)

103012 @2 보리, 보리들 같은 경우에 운반할 때는 뭐에 낵 운반해서마씨?(보리, 보리들 같은 경우에 운반할 때는 뭐에 놔서 운반해요?)

103012 #1 ㄴ는구덕이라는 것이 있어.(‘ㄴ는구덕’이라는 것이 있어.)

103012 @2 예.(예.)

103012 #1 ㄴ는구덕⁸³⁾이란 것은 대로, 대로 거 만든 건데 대, 그 대구덕이 좀 혈면은 혈어 가면은 혈어 가면 옷 같은 거, 혼 옷 거튼 거 그거 쪼가리 해 가지고 부찌근예가 경허민 그거 막 오래 쓰주게.(‘ㄴ는구덕’이란 것은 대로, 대로 거 만든 건데 대, 그 대바구니 좀 혈면 혈어 가면 혈어 가면 옷 같은 거, 헛 옷 같은 거 그거 쪼가리 해 가지고 붙여서 그러면 그거 아주 오래 쓰지.)

103012 @2 예.(예.)

103012 #1 그것 ㄴ라 ㄴ는, 그것 ㄴ라.(그것보고 가는, 그것보고.)

103012 #3 ㄴ름구덕, ㄴ름구덕.(‘ㄴ름구덕’, ‘ㄴ름구덕’.)

103012 #1 ㄴ른구덕⁸⁴⁾.(‘ㄴ른구덕’.)

103012 #3 ㄴ른구덕이엔 허지.(‘ㄴ른구덕’이라고 하지.)

103012 @2 ㄴ른구덕예?(‘ㄴ른구덕’요?)

103012 #1 으.(으.)

103012 @2 예, 계난 ㄴ른구덕 있고, 아까 속박해근예.(예, 그러니까 ‘ㄴ른구덕’ 있고, 아까 ‘속박’해서.)

103012 #1 으, 속박, 체 거튼 거 있어야 돼지. 대체, 거름체⁸⁵⁾ 그런 거.(으, ‘속

82) ‘곡메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표준어 ‘깍지’에 해당하는 말이다.

83) ‘ㄴ는구덕’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짠 장방형 바구니를 말한다. ‘ㄴ는대구덕’, ‘ㄴ대구덕’이라고도 한다.

84) ‘ㄴ른구덕’은 혈어 쓸모없게 된 바구니에 종이나 형겼 따위를 발라 구멍이 나지 않게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ㄴ름구덕’이라고도 한다.

85) ‘거름체’는 체의 한 종류다. 체의 종류에는 크기에 따라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ㄴ는체’ 등이 있다

박', 체 같은 거 있어야 되지. 대체, '거름체' 그런 거.)

103012 @2 체 종류, 맨 큰 게 얼맹이.(체 종류, 맨 큰 게 어레미.)

103012 #1 얼맹이 그다음 대체, 그다음에 뭐인가 그 거름체.(어레미 그다음 대체, 그다음에 뭐인가 그 '거름체'.)

103012 @2 예.(예.)

103012 #1 그다음에 ㄴ는체⁸⁶). 또 그다음엔 맨 그 ㄴ레 치는 또 막 알아, ㄴ는 체엔 허주.(그다음에 'ㄴ는체'. 또 그다음엔 맨 그 가루 치는 또 마구 알아, 'ㄴ는체' 라고 하지.)

103012 @2 ㄴ는체, 예. 총체렌 말은 안 씩니까, 여기는?('ㄴ는체', 예. 총체라는 말은 안 씩니까, 여기는?)

103012 #1 건 총으로 만든 거주, 물총으로 다 멘든 거.(건 총으로 만든 거지, 말 총으로 다 만든 거.)

103012 @2 물총으로, ㄴ는체가?(말총으로, 'ㄴ는체'가?)

103012 #1 어. 대체는, 대체만 대로 만들고 뭐인가 ㄴ는체는 물총으로, 물총으로.(어. 대체는, 대체만 대로 만들고 뭐인가 'ㄴ는체'는 말총으로, 말총으로.)

103012 @2 계민 대체만 대로 만들고 거름체부턴 전부 물총으로?(그럼 대체만 대로 만들고 '거름체'부턴 전부 말총으로?)

103012 #3 아니, 얼맹이도 대로.(아니, 어레미도 대로.)

103012 #1 얼맹이도.(어레미도.)

103012 @2 얼맹이도 대로예.(어레미도 대로요.)

103012 #3 대체허고 얼맹인 대로 그다음엔 다 물총.(대체하고 어레민 대로 그다음엔 다 말총.)

103012 @2 예, 알았수다. 잠깐만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체고, 체를 치젠 허면 우리 명석으로 치젠 허민 명석도 모양 네모난 것도 잇고?(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체고, 체를 치려고 하면 명석으로 치려고 하면 명석도 모양 네모난 것도 잇고?)

103012 #1 ㄴ렛방석을 주로 그런 거 찻주, ㄴ렛방석. 그 저 돌ㄴ레에 보릴 ㄴ나 무신 ㄴ물을 거피나 또 보리 그 거시길 할 적에도 거시기 그 뭐인가 도릿방석이라고 ㄴ 동글랑헌 방석에 거기서 거 치고 뭐허고 허주.(멧방석을 주로 그런 거 찻지, 멧방석. 그 저 멧들에 보릴 같거나 무슨 메밀을 거피하거나 또 보리 그 거시길 할 적에도 거시기 그 뭐인가 도래방석이라고 ㄴ 동그란 방석이 거기서 거 치고 뭐하고 하지.)

103012 @2 예.(예.)

103012 #1 ㄴ렛방석이라 ㄴ렛방석.(멧방석이야 멧방석.)

103012 @2 ㄴ렛방석예?(멧방석요?)

103012 #1 어.(어.)

86) 'ㄴ는체'는 체의 한 종류다.

103012 @2 삼촌 아까 ㄴ렛방석을 도릿방석엔 헌 말을?(삼촌 아까 ㅁ방석을 도래방석이라고 하는 말을?)

103012 #1 아, ㄴ렛방석, ㄴ렛방석.(아, ㅁ방석, ㅁ방석.)

103013 @2 ㄴ렛방석. ㄴ레, 돌ㄴ레 낱 허니까 ㄴ렛방석이엔 헌 거 닳아예. 그다음에 보리쌀을 그처럼 헨 장만을 헌 거라예. 보리쌀로는 뭘 행 먹어신고예?(ㅁ방석. ㅁ돌, ㅁ돌 놔서 하니까 ㅁ방석이라고 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보리쌀을 것처럼 해서 장만을 한 거지요. 보리쌀로는 뭘 해서 먹었나요?)

103013 #1 밥을 주로 밥, 밥행 먹었주게.(밥을 주로 밥, 밥해서 먹었지.)

103013 @2 무신 밥마씨?(무슨 밥요?)

103013 #1 아, 보리밥게.(아, 보리밥.)

103013 @2 보리밥 해 먹고. 보리는, 쌀을 만들엉 보리 행 먹고 그다음에 보리 보강은 뭘 만들엇수과?(보리밥 해 먹고. 보리는, 쌀을 만들어서 보리 해서 먹고 그다음에 보리 볶아서는 뭘 만들엇습니까?)

103013 #1 그 보리 보강은 옛날, 옛날은이 오월 장마가 허면은 혼 들 동안 장마 졌주게.(그 보리 볶아서는 옛날, 옛날은 오월 장마가 하면 한 달 동안 장마 졌지.)

103013 @2 옛날에예?(옛날에요?)

103013 #1 옛날에. 경허면은 여저덜이 거 뭐인가 흘 거 엇으니까 개역 행 먹는다고 보리 보까근에가. 혼, 혼 ㅁ뽕 보끄면은 것도 글젠 허면은 정말 남편도 ㄴ치 영 글아줘야 돼고. 경 안 허면은 거시기 허여. 경헤근에 개역, 개역을 행 먹었주, 주로.(옛날에. 그러면 여자들이 거 뭐인가 할 거 없으니까 미숫가루 해서 먹는다고 보리 볶아서. 한, 한 ㅁ뽕 볶으면 것도 갈려고 하면 정말 남편도 같이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거시기 해. 그래서 미숫가루, 미숫가루를 해서 먹었지, 주로.)

103013 @2 그다음에 보리 ㄴ루 헐 때 보글 때는 뭘로 행 보까서마씨?(그다음에 보리 가루 할 때 볶을 때는 뭘로 해서 볶았어요?)

103013 #1 기자 그 옛날에는 무쇄숫이 잇엇어, 무쇄숫. 그것에서 보까서 솔에, 솔에서.(그저 그 옛날에는 무쇄솔이 잇엇어, 무쇄솔. 그것에서 볶아서 솔에, 솔에서.)

103013 @2 그 무쇄숫을 여기에서는 뭘렌 불러나신고마씨?(그 무쇄솔을 여기에서는 뭘라고 불렀었나요?)

103013 #1 거 무쇄숫이엔 경 헛주, 옛날에.(거 무쇄솔이라고 그렇게 했지, 옛날에.)

103013 @2 무쇄숫. 무신 가메숫 이런 말을 안 허고마씨?(무쇄솔. 무슨 가마솔 이런 말을 안 하고요?)

103013 #1 그 가마숫, 가메숫은 큰 거, 큰 거 가메숫이엔 해 가지고서 건 두말 때기⁸⁷⁾ 이상 쉰 걸 가메숫이렌 허고 보통 이제 그 무쇄숫은 경 큰 게 엇주게.(그

87) '두말때기'는 쌀 두 말 들이 솥을 말한다.

가마술, 가마술은 큰 거, 큰 거 가마술이라고 해 가지고서 건 ‘두말떼기’ 이상 된 걸 가마술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그 무쇠술은 그렇게 큰 게 없지.)

103013 @2 예.(예.)

103013 #1 가마술은 건 뭐인가 웨숏⁸⁸이엔 해 가지고서 그건 기자 쉼로 만든 거라부난 그냥 타불영 보끄질 못해.(가마술은 건 뭐인가 ‘웨숏’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건 그저 쇠로 만든 거여서 그냥 타버려서 볶질 못해.)

103013 @2 아.(아.)

103013 #1 무쇠술에만이 보끄는 거.(무쇠술에만 볶는 거.)

103013 @2 예, 예.(예, 예.)

103013 #1 그리고 또이 이 꿩가루 거튼 거 무신 거 보끌 때도 무쇠술 그 뭐인가 두쟁이 있어. 두쟁이 가리청 놔 가지고서 그 빙도 지지고 뭐 허고 그 그렇게 주로 그. 숯두쟁이 가리청 놔 가지고서.(그리고 또 이 깻가루 같은 거 무슨 거 볶을 때도 무쇠술 그 뭐인가 뚜껑 있어. 뚜껑 뒤집어 놔 가지고서 그 빙떡도 지지고 뭐 하고 그 그렇게 주로 그. 솔뚜껑 뒤집어 놔 가지고서.)

103013 @2 숯두쟁이 가리청예?(솔뚜껑 뒤집어서요?)

103013 #1 으.(으.)

103013 @2 케민 그 무쇠술에예?(그럼 그 무쇠술에요?)

103013 #1 경해 가지고 빙도 지지고 그디서 모든 걸 다 허여. 꿩도 소소한 거 보깡 먹곡.(그래 가지고 빙떡도 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 깨도 소소한 거 볶아서 먹고.)

103013 @2 예, 예.(예, 예.)

103013 #1 지짐도 지정 먹곡 다 그렇게.(부침개도 지져서 먹고 다 그렇게.)

103014 @2 예. 삼촌 경허고 이제 보리도 이렇게 곱아 나면 이 쌀 말앙예, 체덜 이실 거 아니과예, 거는?(예. 삼촌 그리고 이제 보리도 이렇게 곱고 나면 이 쌀 말고요, 겨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거는?)

103014 #1 건 도야지 줏주, 주로.(건 돼지 줏지, 주로.)

103014 @2 예.(예.)

103014 #1 거 건 보미체라고 해서 준준헌 영 거 무시거 껍데기 닳은 거 막 모다진 거 그것이 체로 치민 막 곱랏주게. 겐 그건 잘 먹질 못허여. 경허난 건 도야지 주로 줏주게. 도야지 체에 서깅.(거 건 등겨라고 해서 자잘한 이렇게 거 무엇 껍데기 같은 거 많이 모인 거 그것이 체로 치면 마구 곱였지. 그래서 잘 먹질 못해. 그러니까 건 돼지 주로 줏어. 돼지 겨에 섞어서.)

103014 @2 겐 보리도 보미체엔 험니까, 산뒤 말고도?(그래서 보리도 등겨라고 합니까, 발벼 말고도?)

103014 #1 아니, 산디에는 보미체엔 허주, 산디. 산디에는, 그 보미란 건 뭐인고 허니 산디에는 처음 우이가 좀 별경헌 거여이. 그것이 다 거 까까진 건 노랑허주게.

88) ‘웨숏’은 한 말들이 술을 말한다.

그 그거 노랑헌 건 보미. 그래서 거 보미엔 허주, 거 산뒤 곤 거 보미엔 허고.(아니, 밭벼에는 등겨라고 하지, 밭벼. 밭벼에는, 그 등겨란 건 뭐인가 하니 밭벼에는 처음 위가 좀 발간 거야. 그것이 다 거 깎인 건 노랑지. 그 그거 노란 건 등겨. 그래서 거 등겨라고 하지, 거 밭벼 간 거 등겨라고 하고.)

103014 @2 보리는 그냥 보리체에? 보리체도 하얀 가루가 생겨예?(보리는 그냥 보릿겨요? 보릿겨도 하얀 가루가 생겨요?)

103014 #1 으, 가루가 생기주.(으, 가루가 생기지.)

103014 @2 그건 무신 거렌 험니까?(그건 무슨 거라고 험니까?)

103014 #1 계난 그건 딱로 험 수가 없어. 그거 체니 무시거니 꺾테기니 거세기 신 걸 먹질 못해.(그러니까 그건 따로 할 수가 없어. 그거 겨니 무엇이니 꺾테기니 거시기 있는 걸 먹질 못해.)

103014 @2 보리 탈곡을 허고 나면 보리대렌 험니까, 보리낭이렌 험니까?(보리 탈곡을 하고 나면 ‘보리대’라고 험니까, ‘보리낭’이라고 험니까?)

103014 #1 보리적이엔 허주, 보리쩍.(보릿짚이라고 하지, 보릿짚.)

103014 @2 보리쩍 용도는 뭐우과?(보릿짚 용도는 뭘니까?)

103014 #1 보리쩍은 주로 거 걸름에 사용허주, 돼야지 통쇄에 그걸 주로 그거 들어가주. 계난 쇠걸름에는 조칩이 들어가고 보리칩은 통쇄에만 들어가주.(보릿짚은 주로 거 거름에 사용하지, 돼지 돼지우리에 그걸 주로 그거 들어가지. 그러니까 쇠 두엄에는 조짚이 들어가고 보릿짚은 돼지우리에만 들어가지.)

103027 @2 아, 그 조칩이 쇠걸름에는 조칩이 들어가마씨?(아, 그 조짚이 쇠두엄에는 조짚이 들어가요?)

103027 #1 어, 조칩허고 그 므물칩 거튼 거 영 들어가고.(어, 조짚하고 그 메밀 짚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고.)

103027 @2 아, 기구나예. 그다음에 보리 탈곡해 나면 아까 그 소독⁸⁹⁾?(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보리 탈곡하고 나면 아까 그 ‘소독’?)

103014 #1 으, 마스크.(으, 까끄라기.)

103014 @2 마스크.(까끄라기.)

103014 #1 마스크는 그건 뭐인가 그, 그 굴목⁹⁰⁾ 때엇주, 그 마스크. 굴목을 때여서.(까끄라기는 그건 뭐인가 그, 그 ‘굴목’ 뻗지, 그 까끄라기. ‘굴목’을 뻗어.)

103014 @2 예, 굴목을 때연예.(예, ‘굴목’을 뻗어요?)

103014 #1 굴목 때고 또 옛날에는 그 식량이 모지렌 뎀 못이란 거 좇어다가 그 마스크로 뻗은 구웁 먹엇주.(‘굴목’ 때고 또 옛날에는 그 식량이 모자란 뎀 무릇이란 거 주워다가 그 까끄라기로 무릇은 구워서 먹엇지.)

103014 @2 음.(음.)

103014 #1 흔 삼사일 동안 그디 그 향아리, 향아리 속에 뻗 놔 가지고 그 주워

89) ‘소독’은 짚이나 억새 따위의 속 줄기를 말한다.

90)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에 ㄴ스락 놔 가지고 그냥 불부청 내 불민 혼 메칠 동안 그거 사그라들 때까지 그거 고아지주.(한 삼사일 동안 거기 그 향, 향 속에 무릇 놔 가지고 그 주위에 까끄라기 놔 가지고 그냥 불붙여서 내 버리면 한 며칠 동안 그거 사그라들 때까지 그거 고아지지.)

103014 @2 겐 삼춘도 그거 못을 먹었구나예?(그래서 삼춘도 그거 무릇을 먹었군요?)

103014 #1 우리도 그거 먹어놔주. 우리 자식 때엔 안 먹었주만은 우리 세대엔 거 먹었어. 우리 부모넨 그렇게 못 견디게. 공출을 했기 때문에.(우리도 그거 먹었었지. 우리 자식 때엔 안 먹었지만 우리 세대엔 거 먹었어. 우리 부모넨 그렇게 못 견디게. 공출을 했기 때문에.)

103014 @2 예.(예.)

103014 #1 일본 놈덜이 우리가 그 뭐인가 예를 들어 나가 보리 열 말을 수확했다 할 거 같으면 으둡 말은 그냥 공출해 부난 두 말로 생활할 수가 엇주게. 그러니까 초근으로 생활했다 그거잖아.(일본 놈들이 우리가 그 뭐인가 예를 들어 내가 보리 열 말을 수확했다 할 거 같으면 여덟 말은 그냥 공출해 버리니까 두 말로 생활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초근으로 생활했다 그거잖아.)

103014 @2 예.(예.)

103014 #1 초근, 풀뿌리 낭뿌리 먹었다 그말이주, 초근.(초근, 풀뿌리 나무뿌리 먹었다 그 말이지, 초근.)

103014 @2 예, 맞수다. 그러니까 그 못 해 가지고는 못만 놔근에 먹었수과?(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릇 해 가지고는 무릇만 놔서 먹었습니까?)

103014 #1 그 바다에 가근에가 그 뭐인가 그 폐엔 험 게 있어. 그 검은 넓페란 게 있어. 그걸 놔야 조금 그 독헌 걸 조금 사그라정. 경해도 독허긴 독허여.(그 바다에 가서 그 뭐인가 꽤라고 하는 게 있어. 그 검은 넓페라는 게 있어. 그걸 놔야 조금 그 독한 걸 조금 사그라져서. 그래도 독하기 독해.)

103014 @2 아, 그런 식으로 험 구웁 먹었고예. 게난 그 ㄴ시락을 못 구울 때도 쓰고.(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워서 먹었고요. 그러니까 그 까끄라기를 무릇 구울 때도 쓰고.)

103014 #1 쓰고. 주로 이젠 그 온돌 굴묵.(쓰고. 주로 이젠 그 온돌 ‘굴묵’.)

103014 @2 굴묵 때는 디예?(‘굴묵’ 때는 데요?)

103014 #1 굴묵 때는 디.(‘굴묵’ 때는 데.)

103015 @2 아까 혹시 보리용시 허명근에 아이고, 나 이걸 절대 잊어볼지 못허켜 허는 거 이수과?(아까 혹시 보리농사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겠어 하는 거 있습니까?)

103015 #1 보리농서는 말야 제때에 비지 못허민 놉 빌영 비지 못허민 보리가 꺼꺼져 불주게. 꺼꺼져 불민 진짜 그거 못 비는 거, 사람 성가셔근에가.(보리농사는 말이야 제때에 베지 못하면 놉 빌려서 베지 못하면 보리가 꺾여 버려. 꺾여 버리면

진짜 그거 못 베는 거, 사람 성가셔서.)

103015 @2 아.(아.)

103015 #1 꼭지가 다 영 부러져 영 해불민. 계난 옛날에 보리 곱고⁹¹⁾ 삼 거룻⁹²⁾ 허주게. 계난 보리 곱고 삼 거룻 때는 말이야 그 뭐인가 사돈 봐도 밋구녕으로 절한다고 경허는 거주. 바로 뽕 절혈 새가 엇다 말이야. 그렇게 급허다. 보리 곱고 삼 거룻다고. 보리가 곱아 버리면은 진짜 거.(꼭지가 다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옛날에 보리 곱고 ‘삼 거룻다’고 하지. 그러니까 보리 곱고 ‘삼 거룻’ 때는 말이야 그 뭐인가 사돈 봐도 밋구멍으로 절한다고 그러는 거지. 바로 봐서 절할 새가 없다 말이야. 그렇게 급허다. 보리 곱고 ‘삼 거룻다’고. 보리가 곱아 버리면 진짜 거.)

103015 @2 잠깐만요, 보리 곱고.(잠깐만요, 보리 곱고.)

103015 #1 보리 곱고 삼 거룻다 허는 말이주.(보리 곱고 ‘삼 거룻다’ 하는 말이 지.)

103015 @2 삼 거, 삼 거룻다라는 말은 무신 말이과?(삼 거, ‘삼 거룻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3015 #1 아주 뭐 일거리가 너무 하부니까 뭐 거세기 여유가 엇다 허는 말이 주.(아주 뭐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뭐 거시기 여유가 없다 하는 말이지.)

103015 @2 아, 보리 곱고 삼 거룻다.(아, 보리 곱고 ‘삼 거룻다’.)

103015 #1 삼 거룻다 허는 말이 무신 말인가? 여기 옛날에 삼을 심어났거든. 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거세기 허면 그것도 막 차례로 해야 돼니까 그런.(‘삼 거룻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옛날에 삼을 심었었거든. 삼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거시기 하면 그것도 막 차례로 해야 되니까 그런.)

103015 @2 이것도 이렇게 가지런이 다.(이것도 이렇게 가지런히 다.)

103015 #1 그니까 보리 곱고 삼 거룻으니깐이 뭐 머리가 어지럽다 그런 뜻이 주.(그러니까 보리 곱고 ‘삼 거룻으니까’ 뭐 머리가 어지럽다 그런 뜻이지.)

106018 @2 이 한동에 삼을 심었수과?(이 한동에 삼을 심었습니까?)

106018 #1 삼을 주로 심어났주, 옛날에.(삼을 주로 심었었지, 옛날에.)

106018 @2 아, 삼도 심었어.(아, 삼도 심었어.)

106018 #1 삼도 심어 가지고서 그 삼을 뺏겨 가지고서 그 주로 쉼얏배도 허고.(삼도 심어 가지고서 그 삼을 뺏겨 가지고서 그 주로 참바도 하고.)

106018 @2 예.(예.)

106018 #1 그 저 뭐인가 저 물, 물 걸리는 그런 것도 허고 경했주. 집집마다는 아니 했주만은 삼을 만이, 만이 허민 그 뭐인가 우리가 옛날에는 쥼세기 삼을 때도 삼 헤 가지고서 놀 꼬고 그렇게.(그 저 뭐인가 저 말, 말 걸리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랬지. 집집마다는 아니 했지만 삼을 많이, 많이 하면 그 뭐인가 우리가 옛날에는 쥼

91) ‘보리 곱다’는 ‘보리가 곱다’의 뜻으로 보릿대가 부러져 아래로 숙이고 있다는 말이다.

92) ‘삼 거룻다’는 삼 농사를 할 때 삼 가닥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간 것을 말한다.

신 삼을 때도 삼 해 가지고서 놀 꼬고 그렇게.)

106018 @2 아, 이 동네는 삼을.(아, 이 동네는 삼을.)

106018 #1 삼도 해낫주.(삼도 했었지.)

106018 @2 예.(예.)

106018 #1 겐디 이제는 뭐인가 것ㄴ라 뭐인가 마약이엔 허주만은 그 당시엔.(그런데 이제는 뭐인가 것보고 뭐인가 마약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106018 @2 음, 대마예?(음, 대마요?)

106018 #1 대마.(대마.)

106018 @2 예, 알았수다.(예, 알겠습니다.)

조 농사

103016 @2 이제부터는 조용시 해 보쿠다예.(이제부터는 조농사 해 보겠습니다.)

103016 #1 으.(으.)

103016 @2 조용시 해젠 허면은 뭐, 뭐가 필요헤마씨?(조농사 하려고 하면 뭐, 뭐가 필요해요?)

103016 #1 거 우선 거 뭐인가 밧을 갈아야 돼주게이.(거 우선 거 뭐인가 밧을 갈아야 되지.)

103016 @2 예.(예.)

103016 #1 조크루를 이젠 갈아야 될 거 아니라이? 거 그 뭐인가 겨울 기냥 놀렸으니까.(조 그루를 이젠 갈아야 될 거 아니야? 거 그 뭐인가 겨울 그냥 놀렸으니 까.)

103016 @2 예.(예.)

103018 #1 그런 디도 허고 보리 그루도 갈아야 돼주게. 우선 갈아 가지고서, 갈아 가지고서 이제 조농서는 언제 허는고 허느니, 뭐인가 그, 그 아이고 그 그걸 잊어불어근예.(그런 데도 하고 보리 그루도 갈아야 되지. 우선 갈아 가지고서, 갈아 가지고서 이제 조농사는 언제 하는가 하느니, 뭐인가 그, 그 아이고 그 그걸 잊어버려서.)

103018 @2 예. 망종 끝나고.(예. 망종 끝나고.)

103018 #1 망종 끝나근예가.(망종 끝나서.)

103018 @2 유월절?(‘유월절’?)

103018 #1 이거 망종 끝나근예 요거 하지, 요거 하지.(이거 망종 끝나서 요거 하지, 요거 하지.)

103018 @2 하지.(하지.)

103018 #1 요거 하지에부터 요거, 요거 시작을 허주게.(요거 하지에서부터 요거, 요거 시작을 하지.)

103018 @2 예, 예.(예, 예.)

103018 #1 하지에부터 하지에부터 이거, 이거, 저 곳인 밧을, 곳인 밧을 여기서

는 사전이엔 허주.(하지에서부터 하지에서부터 이거, 이거, 저 곳은 밭을, 곳은 밭을 여기서는 사전이라고 하지.)

103018 @2 사전.(사전.)

103018 #1 사전은 하지에부떠 시작허고 이 조 가름팻⁹³⁾은 그 뭐인가 유월절⁹⁴⁾ 하여튼 스오일 전에, 스오일 전에 그렇게 허주게.(사전은 하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조 ‘가름팻’은 그 뭐인가 ‘유월절’ 하여튼 사오일 전에, 사오일 전에 그렇게 하지.)

103018 @2 예, 그때부터 가는 거라예, 게민 그 조 불르젠 허믄 준비허는 건 뭐 마씨?(예, 그때부터 가는 거지요, 그럼 그 조 밟으려고 하면 준비하는 건 뭐요?)

103020 #1 준비허는 데는 물을, 물, 그 뭐인가 물 임자안티 가근에 그 날짜를 맞춰야 돼여. 언제 불려⁹⁵⁾ 줍서 헨 그걸 맞춰야 돼고. 게믄 그 이제 그 뭐인가 마주, 임제안테, 마주 임제안테 담배를 사 가야 돼고, 또 다시 특별히 또 밥을, 그뎌 곤밥을 허고. 고기, 그 고기 구워야 돼여. 고기 구우면은 그 마주 임제가 것을 다 코술 허주게, 다.(준비하는 데는 말을, 말, 그 뭐인가 말 임자한테 가서 그 날짜를 맞춰야 돼. 언제 밟아 주세요 해서 그걸 맞춰야 되고. 그럼 그 이제 그 뭐인가 마주, 임자한테, 마주 임자한테 담배를 사 가야 되고, 또 다시 특별히 또 밥을, 그뎌 흰밥을 하고. 고기, 그 고기 구워야 돼. 고기 구우면 그 마주 임자가 것을 다 고살 하지, 다.)

103020 @2 아.(아.)

103020 #1 그래서 말도 밧 불리는 데 아무 지장 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 고서, 꼭 그렇게. 그렇게 허고 또 일반 사름도 밧 불리젠 허면은 놈을 빌어야 돼, 사름을.(그래서 말도 밧 밟는 데 아무 지장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꼭 그렇게. 그렇게 하고 또 일반 사람도 밧 밟으려고 하면 놈을 빌려야 돼, 사름을.)

103020 @2 예.(예.)

103020 #1 서너일 빌면 그때는 똑 그 뭐인가 거세기 저 뭐인가 콩으로 꼭 밥을 해. 빨경헌 콩 잇잖여이?(서너 명을 빌리면 그때는 똑 뭐인가 거시기 저 뭐인가 콩으로 꼭 밥을 해. 빨건 콩 잇잖아?)

103020 @2 예, 예.(예, 예.)

103020 #1 그걸 허고 거 보리쌀 낱, 저 보리쌀이영 곤쌀이영 서꺼 가지고서 거 밧 불리는 밥이라고 해 가지고서 빨경게 그 밥을 해야 돼.(그걸 하고 거 보리쌀 놔서, 저 보리쌀과 흰쌀과 섞어 가지고서 거 밧 밟는 밥이라고 해 가지고서 빨경게 그 밥을 해야 돼.)

103020 #3 특별허주, 그 밧 불리는 밥이렌 해 가지고.(특별하지, 그 밧 밟는 밥이라고 해 가지고.)

103020 @2 아까 그 고기 구웠덴 허지 안헛수과?(아까 그 고기 구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3) ‘가름팻’은 마을 안쪽에 있는 밭을 말한다.

94) ‘유월절’은 24절기 중 소서 전후를 말한다.

95) ‘불르다’는 표준어의 ‘밟다’에 대응하나 여기서의 ‘(조를) 같다’, ‘(조를) 파중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03020 #1 어.(어.)

103020 @2 무슨 꿩기를 구웠수과?(무슨 고기를 구웠습니까?)

103020 #1 갯것고기, 갯것고기.(바닷고기, 바닷고기.)

103020 @2 갯것고기, 뭐?(바닷고기, 뭐?)

103020 #3 바다 우럭.(바다 우럭.)

103020 #1 주로 우럭을, 다른 고기보단도 우럭이 켈 세엿주게.(주로 우럭을, 다른 고기보다도 우럭이 켈 꼽았지.)

103020 #3 보통 우럭, 밧 툄릴 때 꼭 그걸 구웠어. 우럭을.(보통 우럭, 밧 밧을 때 꼭 그걸 구웠어. 우럭을.)

103020 @2 그렇게 코시를 허는데 그 코시는 무신 코시엔 헛수과?(그렇게 고사를 하는데 그 고사는 무슨 고사라고 했습니까?)

103020 #1 그것은 우리가 허는 것이 아니라 마주가 허는 거주.(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가 하는 거지.)

103020 @2 예, 물 임제?(예, 말 임자?)

103020 #1 테우리, 물 임제가.(목동, 말 임자가.)

103020 @2 예.(예.)

103020 #1 물 임제가. 계난 그 그 뭐인가 그 므쉬를 담당허는 신, 신안테 허는 거주.(말 임자가. 그러니까 그 그 뭐인가 그 마소를 담당하는 신, 신한테 하는 거지.)

103020 @2 예, 맞수다. 그렇게 해서 저 물 임제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그다음 조 불리는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해마씨?(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말 임자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그다음 조 밧는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해요?)

103020 #1 조 불리는 순서는 그, 시간을 또 정허주게, 그 마주 임제가 아침이 허라, 거시기 허라. 그날 영 거시기 허는 사름을 영 보아 가지고서 그 질 잇는 데를 우선 해주주게. 질 잇는 덴, 옛날은 질 없는 디 막 안 밧도 잇주게.(조 밧는 순서는 그, 시간을 또 정하지, 그 마주 임자가 아침에 해라, 거시기 해라. 그날 이렇게 거시기 하는 사름을 이렇게 보아 가지고서 그 길 잇는 데를 우선 해주지. 길 없는 덴, 옛날은 길 없는 데 아주 안 밧도 있지.)

103020 @2 예.(예.)

103020 #1 계난 그런 덴 시간이 만이 걸리니까 질 잇는 밧디 우선 해 가지고서 마지막에 그 질 잇는 밧 강 허고 그렇게. 막 경쟁을 헛주. 마주덜토 만이 불려야 거 세기 허니까.(그러니까 그런 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길 잇는 밧에 우선 해 가지고서 마지막에 그 길 없는 밧 가서 하고 그렇게. 막 경쟁을 헛지. 마주들도 많이 밧아야 거시기 하니까.)

103017 @2 그러면은 그 조, 조 툄릴 때도 걸름은 헤신가마씨?(그러면 그 조, 조 밧을 때도 거름은 했나요?)

103017 #1 아니, 걸름은 안 해. 조 밧딘 걸름 안 헤여.(아니, 거름은 안 해. 조

밭에는 거름 안 해.)

103017 @2 조 밭던 걸름 안 허고예?(조 밭에는 거름 안 하고요?)

103017 #1 보리헐 때만 걸름허고.(보리할 때만 거름하고.)

103017 @2 예. 그러면 그 조 갈젠 허면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맨 처음에는?(예. 그러면 그 조 갈려고 하면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맨 처음에는?)

103018 #1 순서는 거 자기, 자기 밭이 좋으면은.(순서는 거 자기, 자기 밭이 좋으면.)

103018 @2 예.(예.)

103018 #1 좋은 밭, 토양이 일토⁹⁶), 이토, 삼토가 잇주.(좋은 밭, 토양이 일토, 이토, 삼토가 있지.)

103018 @2 예.(예.)

103018 #1 계난 일토쭙 췌 것은 그 유월절 삼일 전에, 이일 전에, 또 하루 넘영 허는 디도 있고. 그 이제 이런 신작로 거튼 던 물 앓지 안허여이?(그러니까 일토쭙 췌 것은 그 ‘유월절’ 삼일 전에, 이일 전에, 또 하루 넘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 이제 이런 신작로 같은 췌 물 고이지 않아?)

103018 @2 예.(예.)

103018 #1 물앗⁹⁷)은 그 유월절을 넘영 헛주. 왜냐면 유월절 절기에 물이 많이 와버리면은 거 희종될 수가 잇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나가, 나 밭이 혼 이등, 삼등 쭙 췌면은 혼 스오일 전에, 유월절 스오일 전에 이렇게.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해 가지서 허는 거.(‘물앗’은 그 ‘유월절’을 넘어서 헛지.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에 물이 많이 와버리면 희종될 수가 잇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내가, 내 밭이 한 이등, 삼등쭙 되면 한 사오일 전에, ‘유월절’ 사오일 전에 이렇게.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거.)

103018 @2 땅 토양에 따라서예?(땅 토양에 따라서요?)

103018 #1 으, 토양에 알맞게 그 시기를 맞추는 거.(으, 토양에 알맞게 그 시기를 맞추는 거.)

103020 @2 그러면 즈 불리젠 허면은 씨를 먼저 불리는 거우과, 밭을 먼저 가는 거우과?(그러면 조 밟으려고 하면 씨를 먼저 밟는 겁니까, 밭을 먼저 가는 겁니까?)

103020 #1 아니, 그 밭을 우선 갈아 놔 가지고서 물 혼불 불러.(아니, 그 밭을 우선 갈아 놔 가지고서 말 초벌 밟아.)

103020 @2 예.(예.)

103020 #1 물 혼불 불러난 다음에 씨 뿌려근에가 췌췌해야 그 저 췌니까.(말 초벌 밟은 다음에 씨 뿌려서 췌췌해야 그 저 췌니까.)

103020 @2 예.(예.)

103020 #1 물 혼불 불리면 췌췌헐 거 아니라. 경허면 씨 뿌려근에 또 다시 가불

96) 밭의 토질에 따라 일토, 이토, 삼토로 구분하고 있다. ‘일토’는 토질이 좋은 밭을 가리킨다.

97) ‘물앗’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잘 괴는 밭을 말한다.

름98)으로 두벌 불리주게.(말 초벌 밟으면 편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씨 뿌려서 또 다시 ‘가불름’으로 두벌 밟지.)

103020 @2 아, 두 번째 허는 거를 가불름이렌 험니까?(아, 두 번째 하는 거를 ‘가불름’이라고 합니까?)

103020 #1 어, 가불름이라.(어, ‘가불름’이야.)

103019 @2 씨 처음에 밭 가는 것은 뭐렌 험니까?(씨 처음에 밭 가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103019 #1 밭 가는 것은 건 무시거 그건 그냥 밭 가는 거.(밭 가는 것은 건 무엇 그건 그냥 밭 가는 거.)

103019 @1 밭 갈고 조, 물로 불린 다음에 그다음에 씨를 뿌려예?(밭 갈고 조, 말로 밟은 다음에 그다음에 씨를 뿌려요?)

103019 #1 으, 으.(으, 으.)

103019 @2 씨 뿌리는 사람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마씨?(씨 뿌리는 사람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103019 #1 아, 동네에서 잘 빼는 사름 불렁, 불렁도 허주게.(아, 동네에서 잘 뿌리는 사람 불려서, 불려서도 하지.)

103019 @1 경험 그 씨는, 줍씨는 뒤에 놔근에 해서마씨?(그래서 그 씨는, 조씨는 뒤에 놔서 했어요?)

103019 #1 씨 멜망텡이99)가 있어, 멜망텡이 영 메영 텡기는 걸 멜망텡이라 허주. 영 조금만 험 거 해 가지고 거 웃독지에 영 해근에 씨 빼는 거주게. 거 멜망텡이라 그래.(씨 ‘멜망텡이’가 있어, ‘멜망텡이’ 이렇게 메서 다니는 걸 ‘멜망텡이’라 하지. 이렇게 조금만 한 거 해 가지고 거 어갯죽지에 이렇게 해서 씨 빼는 거지. 거 ‘멜망텡이’라고 그래.)

103019 @1 멜망텡이에, 줍씨 낱?(‘멜망텡이’요, 조씨 넣어서?)

103019 #1 영 메영 허는 거. 보리씨도 마찬가지로 그건 다 멜망텡이에.(이렇게 메서 하는 거. 보리씨도 마찬가지로 그건 다 ‘멜망텡이’에.)

103019 @1 예, 알았수다. 멜망텡이에 행 간 다음에 그 믰쉬는 그때 멧 마리 정도 해근에? 밭 불리젠 허민.(예, 알겠습니다. ‘멜망텡이’에 해서 간 다음에 그 마소는 그때 멧 마리 정도 해서? 밭 밟으려고 하면.)

103019 #1 하여튼 스물 댓 웬 디도 잇고, 서른 웬 디도 잇고, 혼 열 댓 웬 디도 잇고 경허주. 그건 믰쉬 하여 허는 사름 죽영 허는 사름 이렇게 있으니까.(하여튼 스물 댓 된 데도 잇고, 서른 된 데도 잇고, 한 열 댓 된 데도 잇고 그렇지. 그건 마소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이렇게 있으니까.)

103020 @2 게니까 그 밭 믰쉬 해서 불린 때 어떤 식으로 행 불려지는 것과?(그러니까 그 밭 마소 해서 밟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밟는 겁니까?)

98) ‘가불름’은 줍씨를 파종하고 나서 두벌 밟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99) ‘멜망텡이’는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망태기를 말한다.

103020 #1 계란 그 물 임제가 앞이 사 가지고 월월¹⁰⁰⁾ 허면서 해 가면 주루룩 허게 물이 따라오주게. 게서 그 앞이 산 사름의 손놀림에 그 물이 다 그 스주헌 물이 앞이 서주게, 앞이. 또 이 물테우리 자기 주인은, 물은 영리헌 동물이니까 잘 안다 말이야. 월월 소리 나 가면 이것이 밧 불리는 걸 물도 알아 가지고서 뱅 뱅 뱅 뱅 그 사람이 명령에 따라, 소리에 따라 물도 움직이주게. 겐 뒤에 사름은 중간에 떨어지는 것만 일직선으로 영 영 몰아 주민 뉘는 거.(그러니까 그 말 임자가 앞에서 가지고 ‘월월’ 하면서 해 가면 주루룩하게 말이 따라오지. 그래서 그 앞에 선 사름의 손놀림에 그 말이 그 사주한 말이 앞에 서지, 앞에. 또 이 목동 자기 주인은, 말은 영리한 동물이니까 잘 안다 말이야. ‘월월’ 소리 나 가면 이것이 밧 밧는 걸 말도 알아 가지고서 뱅 뱅 뱅 뱅 그 사람이 명령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말도 움직이지. 그래서 뒤에 사름은 중간에 떨어지는 것만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몰아 주면 되는 거.)

103020 @2 그거는 이제 물로 불리는 거잖아예?(그거는 이제 말로 밧는 거잖아요?)

103020 #1 으.(으.)

103020 @2 물로 불리지 않고 물로 못 허는 밧들은 직접도 불라야 할 거 아니냐?(말로 밧지 않고 말로 못 하는 밧들은 직접도 밧아야 할 거 아닙니까?)

103020 #1 으, 삼, 삼태기라고 해 가지고서 걸 그것을 이거 동글랑헌, 동글랑헌 뉘인가 나무에, 나무에 흔 밧쭈 툐 나무에 그 구멍을 툐라 가지고서 거기 물 밧툐 거치 그 문짝 쪽쪽 거세기 헛주게. 경해서 그걸, 그걸 영 사람이 영 지여근에 남테¹⁰¹⁾를 그 물 대신 남테를 그렇게 헛주.(으, 삼, 삼태기라고 해 가지고서 걸 그것을 이거 동그란, 동그란 뉘인가 나무에, 나무에 한 밧쭈 된 나무에 그 구멍을 툐어 가지고서 거기 말 밧툐 같이 그 모두 쪽쪽 거시기 헛지. 그래서 그걸, 그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 ‘남테’를 그 말 대신 ‘남테’를 그렇게 헛지.)

103020 #3 남테라고 해서 그것을.(‘남테’라고 해서 그것을.)

103020 @2 남테는 사람이 정 허는 거예?(‘남테’는 사람이 저서 하는 거요?)

103020 #3 것도 이제 물, 물 현 마차 잇잖아, 마차 메와근에 꺾고 그 남테를.(것도 이제 말, 말 한 마차 잇잖아, 마차 메워서 끌고 그 ‘남테’를.)

103020 #1 물 이신 사람은 경허고 것도 엇이민 사름으로 다 꺾엇지.(말 잇는 사람은 그러고 것도 없으면 사람으로 다 꺾엇지.)

103020 #3 것도 못 허민 나무로 멘들양 꼬실기라고 낭가지 만들양 사람으로 꺾엇어. 계민 종자가 잘 안 나. 종자가 잘 안 나.(것도 못 하면 나무로 만들어서 꺾게 라고 나뉘가지 만들어서 사람으로 꺾엇어. 그럼 종자가 잘 안 나. 종자가 잘 안 나.)

103020 #1 조라는 것은 잘 불리지 안허민 종자가 잘 안 살양 나당도 다 쓰러져

100) ‘월월’은 소나 말을 멈추게 하거나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 달래는 소리이다.

101)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뉘가지를 돌아가면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밧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를 말한다.

불주.(조라는 것은 잘 밟지 않으면 종자가 잘 안 살아서 나다가도 다 쓰러져 버리지.)

103020 #3 예를 들어서 물로 불른 건이 구십 프로 난다 허민이 쫓은 건이 삼십 프로도 안 나. 계난 농서가 안 돼. 계난 또이 나무로이 쫓어도이 밧이 힘이 엇어서 자빠져 벼, 종자가.(예를 들어서 말로 밟은 건 구십 퍼센트 난다 하면 끈 것이 삼십 퍼센트도 안 나.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또 나무로 끌어도 밧에 힘이 없어서 자빠져 버려, 종자가.)

103020 @2 그러면 삼춘 조가 이제 남테로, 꼬슬퀴?(그러면 삼춘 조가 이제 ‘남테’로, 끄게?)

103020 #1 남, 남 꼬슬퀴는 잘 안 허고 남테 주로 헛주게.(나무, 나무 끄게는 잘 안 하고 ‘남테’ 주로 했지.)

103020 @2 아, 남테로예?(아, ‘남테’로요?)

103021 #1 물 아니민 남테. 그래서 이제 요것이 파종해 가지고서 혼 들 뉘면은 검질메기 시작해야 돼.(말 아니면 ‘남테’. 그래서 이제 요것이 파종해 가지고서 한 달 되면 김매기 시작해야 돼.)

103021 @2 예, 예.(예, 예.)

103021 #1 소까야 돼, 그것을.(숙아야 돼, 그것을.)

103021 @2 맨 처음에는예?(맨 처음에는요?)

103021 #1 초벌, 초벌 거 초벌 맨다고 초벌을 종자를 다 소까야 될 거 아니라 이?(초벌, 초벌 거 초벌 맨다고 초벌을 종자를 다 숙아야 될 거 아니니?)

103021 @2 예.(예.)

103021 #1 소깡 두벌 뉘 때 또 알쟁이¹⁰²⁾들을 다 소끄고 검질도 메고, 거 세벌까지 메야 돼.(숙아서 두벌 뉘 때 또 ‘알쟁이’들을 다 숙고 김도 매고, 거 세벌까지 매야 돼.)

103021 @2 세벌까지. 아까 알쟁이마씨?(세벌까지. 아까 ‘알쟁이’요?)

103021 #1 알쟁이. 조가 크는디 거 처진 거 잊지 안허여게.(‘알쟁이’. 조가 크는데 거 처진 거 잊지 않니?)

103021 @2 예.(예.)

103021 @1 그런 거 다 뽑아 베야. 경 안 허민 그것이 장애만 뉘주.(그런 거 다 뽑아 버려야.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장애만 되지.)

103022 #3 또 조에 조 닳은 거 ㄱ라지가 있어. ㄱ라지 것도 매 베야 뉘고.(또 조에 조 닳은 거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 것도 매 버려야 되고.)

103022 @2 ㄱ라지예?(가라지요?)

103022 #1 ㄱ라지허고 그 조가 처지는 거. 그 뉘인가 그 사람 거튼민 장애자 그런 건 다 뽑아 불어야지.(가라지하고 그 조가 처지는 거 뉘인가 그 사람 같으면 장애가 그런 건 다 뽑아 버려야지.)

102) ‘알쟁이’는 조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온전치 못한 것을 가리킨다.

103022 @2 그거를 아까 알쟁이렌 헛수과?(그거를 아까 ‘알쟁이’라고 했습니까?)

103022 #1 알쟁이를 잘 소까줘야.(‘알쟁이’를 잘 숙아줘야.)

103022 @2 알쟁이 잘 소꾸라 이렇게 굳는구나예, 말을?(‘알쟁이’ 잘 숙아라, 이렇게 말하는군요, 말을?)

103022 #1 으, 으.(으, 으.)

103022 @2 아니, 왜냐하면 알쟁이란 말을 처음 들어갔고, 오늘 한동 잘 왔수다.(아니, 왜냐하면 ‘알쟁이’란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오늘 한동 잘 왔습니다.)

103022 #1 거 처진 걸 그거.(거 처진 걸 그거.)

103022 @2 예, 예.(예, 예.)

103022 #1 그건 기형, 사람 거트민 기형아로 크지 못해영 어디 우이 고고리가 거 우이 거시기 땅가져 부는 수도 잇꼭 여러 가지 거 게염지가 그걸 거시기 해 불민 기형아가 돼주게. 그런 건 뽑아 불지 안허면은 조에 지장이 잇주, 커가는 데.(그건 기형, 사람 같으면 기형아로 크지 못해서 어디 위에 이삭이 거 위에 거시기 땅가져 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 개미가 그걸 거시기 해 버리면 기형아 되지. 그런 건 뽑아 버리지 않으면 조에 지장이 잇지, 커가는 데.)

103022 @2 계난 조킵질은 주로 조 소끄는 거군아예?(그러니까 조 김은 주로 조 슈는 거군요?)

103022 #1 으, 조 소끄고 두불 검질부터는 그 검질을 메야 돼여.(으, 조 슈고 두벌 김부터는 그 김을 매야 돼.)

103022 @2 어떤 검질 납니까?(어떤 김 납니까?)

103022 #1 여름 농사니까 주로 제한지히고 아까 그 해바레기¹⁰³⁾.(여름 농사니까 주로 바랭이하고 아까 그 ‘해바레기’.)

103022 @2 예.(예.)

103022 #1 이런 거 만이 낮어. 쏘개풀¹⁰⁴⁾이라는 것도, 아니 저 쏘개풀이 아니고 것ㄴ라 뭐엔 허느니? 것도 이름이.(이런 거 많이 낮어. ‘쏘개풀’이라는 것도, 아니 저 ‘쏘개풀’이 아니고 것보고 뭐라고 하니? 것도 이름이.)

103022 #3 뭐과?(뭇니까?)

103022 #1 거 헤영게 막 나는 풀 잇지 안 허냐게? 으름에.(거 헤영게 마구 나는 풀 잇지 않니? 여름에.)

103022 #3 저 거세기 논밭 풀 말이우과?(저 거시기 논밭 풀 말입니까?)

103022 #1 논밭풀 말고게.(논밭 풀 말고.)

103034 #3 거 콩밭디 나는 거 뭐?(거 콩밭에 나는 거 뭐?)

103034 #1 으, 으.(으, 으.)

103034 #3 거 콩밭디 나는 거 해바레기주 무시거과?(거 콩밭에 나는 거 ‘해바레기’지 무엇입니까?)

103) ‘해바레기’는 풀 종류의 하나다.

104) ‘쏘개풀’은 풀 종류의 하나다.

103034 #1 해바라기 말고게.(‘해바라기’ 말고.)

103034 #3 벌겋 거?(벌건 거?)

103034 #1 아니 헤여힌 거 잇잖여게. 과란 거게 막 와썩헨 허는 거.(아니, 허연 거 잇잖아. 과란 거 마구 와썩해서 하는 거.)

103034 @2 거 튼내 볍서예, 나중에 또 검질 이름 또 물어볼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또 김 이름 또 물어볼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103034 #1 그거 으름에 마 질 땀 막 만이 나주.(그거 여름에 장마 질 땀 많이 나지.)

103034 #3 거 콩이영 낭 막 크는 거 아니과게?(거 콩이랑 나서 마구 크는 거 아 됩니까?)

103034 #1 건 콩거치 막 크진 안허여. 막 아래만 하얗게 헤영.(건 콩같이 아주 크진 않아. 아주 아래만 하얗게 해서.)

103034 @2 하얀 꽃 피는 거예? 별꽃 피는 거예?(하얀 꽃 피는 거요? 별꽃 피는 거요?)

103034 #1 어. 그것은 지장은 엇긴 엇는데 그건 우터레 올라가지 안허니까. 해바레기허고 제환진 막 우터레 올라가는 거.(어. 그것은 지장은 없긴 없는데 그건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해바레기’하고 바랭인 마구 위로 올라가는 거.)

103034 @2 아, 예.(아, 예.)

103034 #3 제환지는 막 콩이영 그치 올라가 제환지풀은. 해바레기도 올라가지만은. 저 득베설.(바랭이는 마구 콩이랑 같이 올라가 바랭이는. ‘해바레기’도 올라가지만. 저 맨드라미.)

103034 #1 아, 저 득베설이여.(아, 저 맨드라미야.)

103034 #3 득베설이 남은 이만이 헤도이 씨가, 이 뿌리로부터 씨가이 그 득 장독의 고장 닳아서 득베설이엔 허여. 게난이 그것이 씨가 무지하게 만이 들리주게. (맨드라미가 나무는 이만큼 해도 씨가, 이 뿌리로부터 씨가 그 닳 수탉의 뺨 닳아서 ‘득베설’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것이 씨가 무지하게 많이 달리지.)

103034 @2 쏘개풀은 어떤 것과?(‘쏘개풀’은 어떤 겁니까?)

103034 #1 쏘개풀이 아니고 나 득베설을 쏘개풀이엔 헨 거라.(‘쏘개풀’이 아니고 내가 맨드라미를 ‘쏘개풀’이라고 한 거야.)

103034 @2 쏘개풀은 어떤 거?(‘쏘개풀’은 어떤 거?)

103034 #1 쏘개풀은 거 약재로도 사용허는 건디 그건 밋디 얼마 나지 안헤, 가끔만.(‘쏘개풀’은 거 약재로도 사용하는 건데 그건 밋에 얼마 나지 않아, 가끔만.)

103034 @2 아, 안 나고예. 다음에 삼촌 경허여근에 검질메고 허면은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과? 어떤 식으로?(아, 안 나고요. 다음에 삼촌 그래서 김매고 하면 수확을 해야 될 거 아 됩니까? 어떤 식으로?)

103023 #1 어, 수확은, 수확은 시월에 허는 거주게. 수확을 허는데 거 비여야 돼

주게.(어, 수확은, 수확은 시월에 하는 거지. 수확을 하는데 거 베어야 되지.)

103023 #3 시월 돼여 가민 구월 말에, 보통 구월 말에 허곡계.(시월 돼여 가면 구월 말에, 보통 구월 말에 하고.)

103023 #1 으, 구월 중순에부터 조는 허기 시작허주. 양력 구월 중순에.(으, 구월 중순에서부터 조는 하기 시작하지. 양력 구월 중순에.)

103023 @2 그러면 구월 중순에 조 수확허는디 그것도 보리 비는 호미로 다 비여신가마씨?(그러면 구월 중순에 조 수확하는데 그것도 보리 베는 낫으로 다 베었는가요?)

103023 #1 호미로 다 비여야지.(낫으로 다 베어야지.)

103023 #3 호미로 비영.(낫으로 베어서.)

103023 #1 호미로 비여근에가 밧디 놀주.(낫으로 베어서 밧에 가리지.)

103023 #3 계난, 계난 혼 이틀 이삼일 몰령. 밧디 그냥, 그 조는 무끄지 안허영이 그자 누는 거라, 그자. 그 안아 놔근에 그냥 놀엇당 계민 누는 사람 놀엇다근에 다른 거 다 해 뒤딩, 이젠 밧디서 고고리, 부지런히 안아 놓명 명석 깎양 안아 놓명이 호미로 다, 고고리 다 짤라 호미로.(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 이삼일 말려서. 밧에 그냥, 그 조는 묶지 않고 그저 가리는 거야, 그저. 그 안아 놔서 그냥 가렸다가 그럼 가리는 사람 가렸다가 다른 거 다 해 두고, 이젠 밧에서 이삭, 부지런히 안아 놓으면서 명석 깔아서 안아 놓으면서 낫으로 다, 이삭 다 짤라 낫으로.)

103023 @2 예.(예.)

103024 #1 그건 조, 조 툷넨 허주.(그건 조, 조 뜯는다고 하지.)

103024 #3 조 툷는 거라고 해.(조 뜯는 거라고 해.)

103024 @2 예, 알앗수다. 삼촌이 이제 그 말을 곱아줘봅서. 조 툷는 거 어떤 식으로?(예, 알겠습니다. 삼촌이 이제 그 말을 말해주세요. 조 뜯는 거 어떤 식으로?)

103024 #1 조 툷는 것은 호미, 거 조 툷는 거 이렇게 저 거 뭐인가 이것이 조코 고리 아니라? 계민 이레 영 막 이렇게 영 빨리빨리 영 영 이만이 영 심으면은, 이만이 영 심어지면은 그때 이제 이 호미로 영 딱 꼬차근에 맥에 놓고 맥에 놓고 경허는 거주. 경해근에가 맥이 ㄱ득으면은 남저는 집이 지어다 똥 또 다른 맥 앗앙 가곡.(조 뜯는 것은 낫, 거 조 뜯는 거 이렇게 저 거 뭐인가 이것이 조 이삭 아니야? 그러면 이리 이렇게 마구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잡으면, 이만큼 이렇게 잡으면 그때 이제 이 낫으로 이렇게 딱 끊어서 떡에 넣고 떡에 넣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떡이 가득하면 남자는 집에 지어다 두고 또 다른 떡 가지고 가고.)

103024 @2 예, 경 툷는 거는 집이 정 가야 되는 거라예. 경행 이제 정 가면 어떤 식으로 이제?(예, 그렇게 뜯은 거는 집에 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쳐서 가면 어떤 식으로 이제?)

103024 #1 겐 조를 다 툷아, 툷아오면은 다 툷아오면 이제 그걸 뭐인가 테작을 해야 돼지. 테작을 해야 돼는디 계난 그 소 잇는 사람은 수족이 만든 사름은 소로

또 불리고.(그래서 조를 다 뜯어, 뜯어오면 다 뜯어오면 이제 그걸 뭐인가 타작을 해야 되지.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소 있는 사람은 수족이 많은 사람은 소로 또 밟고.)

103024 #3 소로 마당에 낵 불리고.(소로 마당에 놔서 밟고.)

103024 #1 마당에, 마당에. 거 넣어놔근에 소로 허젠 허면은 소 오줌도 싸고 똥도 싸기 때문에.(마당에, 마당에. 거 넣어놔서 소로 하려고 하면 소 오줌도 싸고 똥도 싸기 때문에.)

103024 @2 예, 예.(예, 예.)

103024 #1 겐 사람이 필요해야 돼. 사람이 필요해근에가 서너이 식구가 만으면은 경도 허고. 경 안 허면은 도끼로, 마당에서 두드려야 돼. 그걸 다 두드려근에가 또 다시 이제 그 또 우이 뭐인가 우이 혼불 두드리면은 그 우이 그 곡메길 혼 도리에 모도와.(그래서 사람이 필요해야 돼. 사람이 필요해서 서넛 식구가 많으면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도리깨로, 마당에서 두드려야 돼. 그걸 다 두드려서 또 다시 이제 그 또 위에 뭐인가 위에 초벌 두드리면 그 위에 그 깍질 한 둘레에 모아.)

103024 @2 예.(예.)

103024 #1 곡메길 혼 도리에 모도와 가지고서 이제는 진국은 이쪽으로 헨 땡겨 놓고 따시 이젠 이 곡메길 그 진국 이 땡겨 분 그 우이 낵 또 테작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두드리면은 이제는 불려야 돼주.(깍질 한 둘레에 모아 가지고서 이제는 진국은 이쪽으로 해서 당겨 놓고 다시 이젠 이 깍질, 그 진국 이 당겨 버린 그 위에 놔서 또 타작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다 두드리면 이제는 불려야 되지.)

103024 @2 예.(예.)

103024 #3 불리기 전에 대체로 치는 거 아니과?(불리기 전에 대체로 치는 거 아닙니까?)

103024 #1 아, 게메.(아, 글썸.)

103024 #3 조풍뎡이¹⁰⁵⁾ 그 조풍뎡이 올때 그 조 담아져난 올땡 조풍뎡이라고 허주.(‘조풍뎡이’ 그 ‘조풍뎡이’ 열때 그 조 담졌던 열땡 ‘조풍뎡이’이라고 하지.)

103024 @2 예.(예.)

103024 #3 그걸이 그걸 할망덜이 그걸 브름에 불리는데 브름이 세민 안 돼주, 거는. 계난 브름에도 불리긴 불리는데 보통 다 대체로 찢어. 거는 다. 계난 그 조풍뎡이 뭐냐 허면이 그거는 돼야지 사료로 들어가는데 계난 조풍뎡이.(그걸 그걸 할머니들이 그걸 바람에 불리는데 바람이 세면 안 되지, 거는. 그러니까 바람에도 불리긴 불리는데 보통 다 대체로 찢어. 거는 다. 그러니까 그 ‘조풍뎡이’ 뭐냐 하면 그거는 돼지 사료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조풍뎡이’.)

103024 #1 조풍뎡이 쉼 만이 찢주.(‘조풍뎡이’ 소 많이 찢지.)

103024 #3 계난 돼야지 건 슬지지 안허여. 조풍뎡이 만이 주난. 전부 돼야지 집

105) ‘조풍뎡이’는 조에서 벗겨 낸 걸썸질 따위를 말한다.

집마다 돼야지 다 시니까.(그러니까 돼지 건 살찌지 않아. ‘조풍뎡이’ 많이 주니까. 전부 돼지 집집마다 돼지 다 있으니까.)

103024 @2 예.(예.)

103025 #3 그 보리 마나 조 마나 헤면은 조도 이제 멧돌에 강 골아왔기 때문에 그 조 건 채는 돼야지 주민 잘 먹지. 건 고급이지.(그 보리 같거나 조 같거나 하면 조도 이제 멧돌에 가서 갈아왔기 때문에 그 조 건 채는 돼지 주면 잘 먹지. 건 고급이지.)

103025 @2 예.(예.)

103025 #3 거 말째 조 꺾테기 벗긴 거. 것도 다 멧돌에 강 골았거든.(거 말째 조 꺾테기 벗긴 거. 것도 다 멧돌에 가서 갈았거든.)

103024 @2 그 조풍뎡이 먹으면 안 슬지고, 그 조풍뎡이 말고 조 헤난 거는 뭐 렌 험니까?(그 ‘조풍뎡이’ 먹으면 안 살찌고, 그 ‘조풍뎡이’ 말고 조 했던 거는 뭐라고 합니까?)

103024 #1 거 각메기¹⁰⁶엔 허주, 각메기.(거 ‘각메기’라고 하지, 깍지.)

103024 @2 조 각메기는.(조 깍지는.)

103024 #1 조 각메기는 건 소가 잘 먹어. 거 뭐인가 그 큰 맥에 담양 낫다가 소 앞이 놓민 소가 그렇게 잘 먹어.(조 깍지는 건 소가 잘 먹어. 거 뭐인가 그 큰 맥에 담아 낫다가 소 앞에 놓으면 소가 그렇게 잘 먹어.)

103024 @2 그렇게 하고 옛날에 그 덩드렁마께도 이용했지예?(그렇게 하고 옛날에 그 ‘덩드렁마께’도 이용했지요?)

103024 #1 그거 주로 덩드렁마께¹⁰⁷ 집집마다 셔. 왜냐면은 신 삼을 때도 산뒤 째를 덩드렁마께로 두드려야 되고 베 할 때도 거 덩드렁마께로 거 뭐인가 산디 째 될 다 두드려야 되고.(그거 주로 ‘덩드렁마께’ 집집마다 있어. 왜냐하면 신 삼을 때도 밭벗째을 ‘덩드렁마께’로 두드려야 되고 베 할 때도 거 ‘덩드렁마께’로 거 뭐인가 밭벗째 될 다 두드려야 되고.)

103024 @2 그 저 뭐는 그 조 할 때는 안 험마씨?(그 저 뭐는 그 조 할 때는 안 해요?)

103024 #1 조 할 때는.(조 할 때는.)

103025 @2 그거 하영 뭐 할 때는 안 험구나예. 그다음에 이제 좁쌀은 아까처럼 이제 몰 마레?(그거 많이 뭐 할 때는 안 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좁쌀은 아까처럼 이제 연자매?)

103025 #1 으. 몰 마레도 가고 이제 정미소 나난 주로 정미소 갖주.(으. 연자매도 가고 이제 정미소 나니까 주로 정미소 갖지.)

103025 #3 정미소 남 시작허난 정미소주.(정미소 나기 시작하니까 정미소지.)

106) ‘각메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를 말한다. 표준어 ‘깍지’에 해당하는 말이다. 제보자는 ‘곡메기’라고도 말했다.

107) ‘덩드렁마께’는 째이나 대 따위를 두들기는 방망이다. ‘덩드렁’이라는 돌 위에 째 따위를 놓고 두드리거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다.

103025 #1 정미소 나기 전에는 물그레에 허긴 헛는데, 물그레에 허민 만이 못아져 불고 경허주게.(정미소 나기 전에는 연자매에 하긴 했는데, 연자매에 하면 많이 버리고 그렇지.)

103025 @2 에, 경허난 집에서 돌그레에 낵 영 거퍼시켜예? 그거 말고 그 좁쌀로는 주로 뭐 헛수과?(에, 그러니까 집에서 맏돌에 낵서 이렇게 거피해요? 그거 말고 그 좁쌀로는 주로 뭐 헛습니까?)

103026 #1 주로 밥을 해 먹엇주. 주로 밥을 허는 데 그 모인좁쌀¹⁰⁸⁾은 막 살락허¹⁰⁹⁾주게. 살락해도 조팍은 먹으면 그렇게 시장기가 안 나.(주로 밥을 해 먹엇지. 주로 밥을 하는 데 그 메좁쌀은 아주 ‘살락하지’. ‘살락해도’ 조팍은 먹으면 그렇게 시장기가 안 나.)

103026 @2 음.(음.)

103026 #1 보리밥은 먹으면 한 시간 후에는 밥 생각이 나는데 조팍은 그렇게 먹으면 몸이 실허여서 시장기가 안 나. 그렇게 조팍은 든든해낵주게.(보리밥은 먹으면 한 시간 후에는 밥 생각이 나는데 조팍은 그렇게 먹으면 몸이 실허서 시장기가 안 나. 그렇게 조팍은 든든했엇지.)

103026 @2 그렇게 좁쌀로는 조팍도 허고 그다음에 또?(그렇게 좁쌀로는 조팍도 하고 그다음에 또?)

103026 #1 조팍도 그 무시거, 조팍도 허고.(조팍도 그 무엇, 조팍도 하고.)

103026 @2 떡은 안 헛수과?(떡은 안 헛습니까?)

103026 #1 그 친떡도 헤영 먹엇주. 그 그를 거시기 해 가지고 조친떡이라고 해 가지고.(그 시루떡도 해서 먹엇지. 그 가를 거시기 해 가지고 조시루떡이라고 해 가지고.)

103026 @2 아, 조친떡이라 해서 먹고예, 예. 친떡도 해서 먹고.(아, 조시루떡이라 해서 먹고요, 예. 시루떡도 해서 먹고.)

103026 #1 친떡도 허고.(시루떡도 하고.)

103026 @2 옛날 술도 허지 안헛수과?(옛날 술도 하지 않았습니까?)

103026 #1 아, 조론 술을 안 헛지.(아, 조론 술을 안 헛지.)

103026 @2 오메기¹¹⁰⁾?(‘오메기’?)

103026 #3 아니, 찹쌀 조가 잇엇어. 흐린조라고 찹쌀 조가.(아니, 찹쌀 조가 잇엇어. 차조라고 찹쌀 조가.)

103026 #1 흐린조로 해서 그 뭐인가 주로 여기선 그 뭐인가, 그.(차조로 해서 그 뭐인가 주로 여기선 그 뭐인가, 그.)

103026 @2 술예?(술요?)

103026 #1 술을.(술을.)

108) ‘모인좁쌀’은 좁쌀의 한 종류로, ‘메좁쌀’을 말한다.

109) ‘살락허다’는 조팍이 찰기가 없이 고슬고슬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10)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오메기떡’이라고도 한다.

103026 @2 예, 오메기술?(예, ‘오메기술’?)

103026 #1 으, 오메기술¹¹¹⁾. 게서 건 청주라고 그래, 청주. 청주로 그렇게 행.
(으, ‘오메기술’. 그래서 건 청주라고 그래, 청주. 청주로 그렇게 해서.)

103026 @2 예, 예.(예, 예.)

103026 #1 만이 먹었주.(많이 먹었지.)

103026 @2 예. 감주 같은 것도 다 그런 거로 허는 거 아니라예?(예. 감주 같은
것도 다 그런 거로 허는 거 아닌가요?)

103013 #1 감주는 저 거시기, 골 감주라고 저 건 보리, 피보리.(감주는 저 거시
기, 엇기름 감주라고 저 건 보리, 걸보리.)

103013 @2 아.(아.)

103013 #1 피보리 놓아근에가 요만큼 나는 거 그걸 골아근에 그걸 해야 감주가
돼는 거.(걸보리 넣어서 요만큼 나는 거 그걸 갈아서 그걸 해야 감주가 되는 거.)

103013 @2 음.(음.)

103013 #1 피보리가 들어가지 안허민 안 돼는 거.(걸보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103013 @2 아.(아.)

103013 #1 맥주허는 데도 꼭 피보리가 들어가는 거.(맥주하는 데도 꼭 걸보리가
들어가는 거.)

103013 @2 예, 피보리가. 게난 그 지금 피보리가 요즘 말허민 맥주?(예, 걸보리
가. 그러니까 그 지금 걸보리가 요즘 말하면 맥주?)

103013 #1 맥주맥이 아니라.(맥주맥이 아니야.)

103013 @2 아닌 거.(아닌 거.)

103013 #1 피보리란 건 술보리보다 아주 그거 뭐인가 밧이, 밧이, 밧이 굿인 디
가는 거주. 게난 그것이 막 팡보리라 해 가지고 팡보리라 해 가지고 꺾테기도 두껍
고. 쟈데 그것은 물 놓면은 골 그것이 최고지.(걸보리란 건 쌀보리보다 아주 그거
뭐인가 밧이, 밧이, 밧이 굿은 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마구 ‘팡보리’라 해
가지고 ‘팡보리’라 해 가지고 꺾테기도 두껍고. 그런데 그것은 물 넣으면 엇기름 그
것이 최고지.)

103013 @2 예.(예.)

103013 #1 그거 들어가야 모든 감주도 돼고 그 뭐인가 모든 것이 다 발효가 다
돼여. 술 허는 데도 그것이 들어가야 돼여.(그거 들어가야 모든 감주도 되고 그 뭐
인가 모든 것이 다 발효가 다 돼. 술 하는 데도 그것이 들어가야 돼.)

103028 @2 예, 예. 그다음에 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신고예?(예, 예. 그다음
에 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103028 #1 흐린조허고 모인조 거 두 개베끼 엇어.(차조하고 메조 거 두 개밖에
없어.)

111) ‘오메기술’은 좁쌀가루로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술을 말한다.

103028 @2 흐린조허고 모인조. 그래도 흐린조도 으라 가지 개발시리여 뭐 이런 말도 들어봄디가?(차조하고 메조. 그래도 차조도 여러 가지 ‘개발시리’여 뭐 이런 말도 들어봄디까?)

103028 #1 게메 흐린조도 우리 한동에는 뭐, 이 행원 근방에는 그 뭐인가 그 노린 모인조도 셔낫는디 우리 한동 거튼 데는 그 검은 흐린조베끼 아니 같아낫주.(글쎄, 차조도 우리 한동에는 뭐, 이 행원 근방에는 그 뭐인가 그 노란 메조도 있었던 데 우리 한동 같은 데는 그 검은 차조밖에 안 같았었지.)

103028 @2 예, 검은 흐린조예?(예, 검은 차조요?)

103028 #1 좋은 빛은 노린 흐린조가 돼는데.(좋은 빛은 노란 차조가 되는데.)

103028 @2 그럼 모인조허고 흐린조?(그럼 메조하고 차조?)

103028 #1 으.(으.)

103028 @2 두 가지예?(두 가지요?)

103028 #3 두 가지, 두 가지.(두 가지, 두 가지.)

103028 @2 예.(예.)

103028 #3 몰라, 제주도는 거 전부 두 가지라. 지금 거트면 찹쌀이나 마찬가지로, 흐린조가.(몰라, 제주도는 거 전부 두 가지야. 지금 같으면 찹쌀이나 마찬가지로, 차조가.)

103027 @2 예. 그다음에 조침으로는 뭐 헨마씨?(예. 그다음에 조짚으로는 뭐 했어요?)

103027 #1 조침은 주로 소, 소 맥이꼭 그 먹다 남은 것은 그 깔아줬주게. 소 뒤에 깔아주면 그게 걸름.(조짚은 주로 소, 소 먹이고 그 먹다 남은 것은 그 깔아줬지. 소 뒤에 깔아주면 그게 거름.)

103027 @2 게난 그 소 먹다 남은 나머지에, 먹당 남은 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안 험니까? 뭐렌 헛수과?(그러니까 그 소 먹다 남은 나머지요, 먹다가 남은 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3027 #1 그, 그건 돼치¹¹²⁾엔 허주. 돼, 돼치, 쉼 먹단.(그, 그건 ‘돼치’라고 하지. ‘돼’, ‘돼치’, 소 먹다가.)

103027 @2 돼치예, 쉼 돼치?(‘돼치’요, 소 ‘돼치’?)

103027 #1 으, 쉼 돼치엔 헨 그건 주로 소 똥 눅는데 거 깔아줬주, 쉼 돼치.(으, 소 ‘돼치’라고 해서 그건 주로 소 똥 눅는데 거 깔아줬지, 소 ‘돼치’.)

103027 @2 쉼 돼치예. 그 말을 들었던 거 같아서예.(소 ‘돼치’요. 그 말을 들었던 같아서요.)

103027 #1 쉼 돼치. 먹당 남은 거.(소 ‘돼치’. 먹다가 남은 거.)

103027 @2 삼촌 아까 이제 조침은 밧디서 다 툇앗짚우과양?(삼촌 아까 이제 조짚은 밧에서 다 뜯었잖습니까?)

103027 #1 으.(으.)

112) ‘돼치’는 마소가 먹다 남은 풀의 찌꺼기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테치’, ‘뒤치’라고도 한다.

103027 @2 그 조침을 집에 가정 오젠 허면 일 하영 헤알 거 아니과, 것도?(그 조침을 집에 가져서 오려고 하면 일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것도?)

103027 #1 게메, 그 조침을 여저는 툇고 남저는 그 조침을 무끄고 그리해서 툇아 놓는 거 맥더레 남저는 담아놓고 게 가지고서 그날 밤, 그날 당일 다 무꺼야 뉼주게. 무꺼근에가 기냥 거기 늘어놋당, 늘어놋당 조 다 헤난 다음에 거 시꺼오고 경헛주게.(글쎄, 그 조침을 여자는 뜯고 남자는 그 조침을 묶고 그리해서 뜯어 놓는 거 맥에 남자는 담아놓고 그래 가지고서 그날 밤, 그날 당일 다 묶어야 되지. 묶어서 그냥 거기 가렸다가, 가렸다가 조 다 하고 난 다음에 거 실어오고 그랬지.)

103027 @2 그 예전에야 뭐 다 쉼로 질메 메왕 시꺼온 거 아니라마씨?(그 예전에는 뭐 다 소로 길마 메워서 실어온 거 아닌가요?)

103027 #1 으, 다 쉼로, 쉼로.(으, 다 소로, 소로.)

103027 @2 겐 멧 개씩 시꺼와마씨?(그래서 몇 개씩 실어와요?)

103027 #1 아이, 그건 거 조침을 그거 세 돌, 혼 짝에 그 뭐인가 세 칸씩 시끄는 건다이.(아이, 그런 거 조침을 그거 세 돌, 한 짝에 그 뭐인가 세 칸씩 싣는 건데.)

103027 @2 예.(예.)

103027 #1 혼 도롬¹¹³⁾, 두 도롬, 세 도롬 헤 가지고서 그 앞, 그 혼 밧데 앞에 조가 또 쉼 헨 게 네 못씩, 다섯 못씩 헨 시끄주게. 게민 다섯 못, 네 못, 다섯 못 허민 열세 못, 주로 열다섯 개 혼 짝에 열다섯 못. 이짝에 열다섯 못, 겐 서른 못. 서른 못 헤 가지고서 혼 바리. 경 쉼로 시꺼오고 허주.(한 ‘도롬’, 두 ‘도롬’, 세 ‘도롬’ 헤 가지고서 그 앞, 그 한 군데 앞에 조가 또 소 하는 게 네 못씩, 다섯 못씩 해서 싣지. 그럼 다섯 못, 네 못, 다섯 못 하면 열세 못, 주로 열다섯 개 한 쪽에 열다섯 못. 이쪽에 열다섯 못, 그래서 서른 못. 서른 못 헤 가지고서 한 바리. 그렇게 소로 실어오고 하지.)

103027 @2 서른 못이 이제 혼 바리에? 삼촌 아까 혼 도롬, 두 도롬 헛덴 허는데 그 혼 도롬 헨 거는 뭐우과?(서른 못이 이제 한 바리요? 삼촌 아까 한 ‘도롬’, 두 ‘도롬’ 했다고 하는데 그 한 ‘도롬’ 하는 거는 뭡니까?)

103027 #1 그건 그.(그건 그.)

103027 @2 질메 헐 때?(길마 할 때?)

103027 #1 거 질메에이 그 세 군데를 영 부뜨리 메는 거.(거 길마에 그 세 군데를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

103027 @2 음.(음.)

103027 #1 그거 영 세 곤데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열다섯 개 뉼 거 아니라이?(그거 이렇게 세 군데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열다섯 개 뉼 거 아니야?)

103027 @2 예.(예.)

103027 #1 그렇게 이짝엔 경, 그렇게 세 도롬으로 경 시끄는 거고 걸름 시끌 뉼

113) ‘도롬’은 길마에 짐을 멜 때 한쪽에 멜 수 있는 한 묶음의 단위를 말한다.

그냥 그 착부찌¹¹⁴)라 해 가지고서 그냥 착 걸어 가지고 영 혼 밧디로만 영 부뜨리 메는디 이거 거시긴 세 도름으로 허주.(그렇게 이쪽엔 그렇게, 그렇게 세 ‘도름’으로 그렇게 신는 거고 거름 실을 땐 그냥 그 ‘착부찌’라 해 가지고서 그냥 착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로만 이렇게 붙들어 매는데 이거 거시긴 세 ‘도름’으로 하지.)

103027 @2 아, 예. 계난 이렇게 댜 거를 세 개 한다고 해서 세 도름 이렇게 헌 거라?(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를 세 개 한다고 해서 세 ‘도름’ 이렇게 한 거야?)

103027 #1 으.(으.)

103027 @2 아까 계른 거름힐 때는 이렇게 헌 거를 착 부찢덴 험니까?(아까 그림 거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를 짝 붙인다고 합니까?)

103027 #1 어. 착 부찌는 거, 그건 그, 그건 그 공쟁이¹¹⁵) 걸어근에 헌덴 허는 거주. 그건 그 쉼스렁, 아니 저 쉼얏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영 뉘 거 아니라? (어. 짝 붙이는 거, 그건 그, 그건 그 ‘공쟁이’ 걸어서 한다고 하는 거지. 그건 쇠스랑, 아니 저 참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03027 @2 예, 예.(예, 예.)

103027 #1 여기에 걸어근에가 우이로 영 보기만 영.(여기에 걸어서 위로 이렇게 보기만 이렇게.)

103028 @2 계난 착부지를 두 개 험 걸어서, 걸영 허는 거로구나예. 착부지에 허고. 이 조 불릴 때에 아까처럼 보리 힐 때도 ㄱ스락 때문에 고생헛주만은 조 힐 때 제일 힘들거나 잊어불지 못헌 거?(그러니까 ‘착부지’를 두 개 해서 걸어서, 걸어서 하는 거로군요. ‘착부지’에 하고. 이 조 밟을 때에 아까처럼 보리 할 때도 까끄라기 때문에 고생헛지만 조 할 때 제일 힘들거나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103015 #1 아니, 조 힐 때 힘들지 아니혀. 조 힐 땐 힘들지 안헌데, 이 보리는 그 ㄱ스락이 이디 허면은 막 몸이 ㄱ릅고이 밤에 잠을 못 자. 그때는 뭐이 모옥탕도 엇을 때이 엇을 때라놓니까 그냥 은물에 해도 막 ㄱ릅주게. 아, 이거 보리는 성가신 거 이거.(아니, 조 할 때 힘들지 않아. 조 할 땐 힘들지 않은데, 이 보리는 그 까끄라기 여기 하면 아주 몸이 가렵고 밤에 잠을 못 자. 그때는 뭐 목옥탕도 없을 때 없을 때이니까 그냥 찬물에 해도 아주 가렵지. 아, 이거 보리는 성가신 거 이거.)

103015 @2 아, 보리는 성가신 거예. 예, 알앗수다.(아, 보리는 성가신 거요. 예, 알겠습시다.)

103028 #1 조는 아주 양반이주, 이거.(조는 아주 양반이지, 이거.)

103028 @2 검질메는 것만 잘허민 뉘쿠다예?(김매는 것만 잘하면 되겠네요?)

103028 #1 으, 검질메는 거. 조는 세불을 메야 뉘여. 그 세불까지.(으, 김매는 거. 조는 세벌 매야 돼. 그 세벌까지.)

114) ‘착부찌’는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떡서리를 말한다. ‘착부지’라고도 한다.

115) ‘공쟁이’는 나무나 쇠붙이의 끝을 구부려서 무언가를 걸게 만든 물건 또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103028 @2 예, 알았수다.(예, 알겠습니다.)

콩 농사

103029 @2 콩농사 허젠 허면은 뭘 준비해야 뵈 거우과?(콩농사 하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뵈 겁니까?)

103029 #1 우선 종자를 준비해야 뵈주, 종자. 종자를 준비해야 뵈고 밭 어디 갈 거 정해야 할 거 아니라이?(우선 종자를 준비해야 되지, 종자. 종자를 준비해야 되고 밭 어디 갈 거 정해야 할 거 아냐?)

103029 @2 예.(예.)

103030 #1 콩, 콩은 주로 이제, 이제는 그전에는 주로 유월절¹¹⁶⁾ 혼 오륙일 전에 했는데 이제는 뭘 유월절이 뭘 필요가 없어. 유월 시, 이십 일만 뵈면은 콩 막 파종허기 시작해. 이제 콩덜은.(콩, 콩은 주로 이제, 이제는 그전에는 주로 ‘유월절’ 한 오륙일 전에 했는데 이제는 뭘 ‘유월절’이 뭘 필요가 없어. 유월 시, 이십 일만 되면 콩 마구 파종허기 시작해. 이제 콩들은.)

103030 @2 이제 콩덜은. 옛날은마씨?(이제 콩들은. 옛날은요?)

103030 #1 옛날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 스오일 전에 헤낫주게. 유월절 넘어도 허고 헤낫는다 이제 콩은 일찍 허는 게 좋아.(옛날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 사오일 전에 했었지. ‘유월절’ 넘어서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콩은 일찍 하는 게 좋아.)

103031 @2 콩밭도 거름 헤신가마씨?(콩밭도 거름 했나요?)

103031 #1 아니, 거름 안 허여. 비론 허주, 비료.(아니, 거름 안 해. 비론 하지, 비료.)

103031 @2 요즘 허는 거 말앙 옛날, 옛날.(요즘 하는 거 말고 옛날, 옛날.)

103031 #1 옛날은 거 안 헤나고. 옛날은 경 안 헤도 콩 잘 뵈낫주. 비료 안 헤도.(옛날은 거 안 했었고. 옛날은 그렇게 안 헤도 콩 잘 뵈었지. 비료 안 헤도.)

103032 @2 콩씨는 어떤 식으로 빼는 거우과?(콩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겁니까?)

103032 #1 것도 영 손으로 빼여.(것도 이렇게 손으로 뿌려.)

103032 @2 손으로 빼예. 콩밭도 검질 하영 메여낫지예?(손으로 뿌려요. 콩밭도 검 많이 매었지요?)

103032 #1 콩밭도, 콩밭도 혼불, 혼불은 잘 메야 뵈. 아이 메영 내 부는 사람도 잇긴 잇는데. 경허면은 콩이 잘 안 뵈주게. 그 막 풀에 즈들려근에가.(콩밭도, 콩밭도 초벌, 초벌은 잘 매야 뵈. 안 매서 내 버리는 사람도 잇긴 잇는데. 그러면 콩이 잘 안 되지. 그 아주 풀에 시달려서.)

103033 @2 음. 콩밭에는 어떤 걸름들이 나마씨?(음, 콩밭에는 어떤 김들이 나요?)

116) ‘유월절’은 24절기 중 소서 전후를 말한다.

103033 #1 걸름?(거름?)

103033 @2 아니, 검질들?(아니, 김들?)

103033 #1 아, 검질들. 아까 헛 거 뭐 만이 난다. 제환지가 주로, 제환지가 만이 나주. 제환지, 해바래기 아까 그 뭐인가 득베슬 거튼 거 그런 거.(아, 김들. 아까 헛 거 뭐 많이 난다. 바랭이 주로, 바랭이가 많이 나지. 바랭이, '해바래기' 아까 그 뭐인가 민드래미 같은 거 그런 거.)

103033 @2 예, 득베슬 거튼 거예?(예, 맨드래미 같은 거요?)

103033 #1 제환지가 주로 만이 나주.(바랭이가 주로 많이 나지.)

103033 @2 제환지예. 제환지도 종류가 으라 개우과?(바랭이요. 바랭이도 종류가 여러 개입니까?)

103033 #1 아니, 으라 개 아니.(아니, 여러 개 아니.)

103033 @2 제환지는 그냥 제환지밖에 없고예. 그 콩은 수확허젠 허면은 어떤 식으로 헛수과?(바랭이는 그냥 바랭이밖에 없고요. 그 콩은 수확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35 #1 계난 요새는 그 뭐인가 예초기로 다 그거 콩허고 거 비는데 그 전이 는 다 이 글쟁이로 다 꺼깐 헛주, 글쟁이로.(그러니까 요새는 그 뭐인가 예초기로 다 그거 콩허고 거 베는데 그 전에는 다 이 호미로 다 꺾어서 했지, 호미로.)

103035 @2 아, 그거는 호미로 안 헤영 글쟁이로 꺾어마씨?(아, 그거는 낫으로 안 하고 호미로 꺾어요?)

103035 #1 옛날은 글쟁이로 허다가 이제는 하영 허게 돼니까 계난 호미로 이제 그렇게 꺼꺼주. 중간에야 호미로. 옛날 처음에 할 적에 글쟁이로 다 꺼꺼났는데.(옛날은 호미로 허다가 이제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낫으로 이제 그렇게 꺾었지. 중간에야 낫으로. 옛날 처음에 할 적에 호미로 다 꺾었었는데.)

103035 @2 아, 글쟁이로예?(아, 호미로요?)

103035 #1 으, 겐 헛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허게 돼니까 이제는 호미로 꺼끄고, 또 이제는 젊은 사름덜이 예초기 집집마다 다 잇저, 다 잇어 놓니까. 그 예초기로 상당히 저 예초기론 비기가 쉬웁나.(으,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는 낫으로 꺾고, 또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예초기 집집마다 다 잇어, 다 잇어 놓으니까. 그 예초기로 상당히 저 예초기론 베기가 쉬워.)

103035 @2 기구나예. 계민 콩 꺼깁 오면 거 물러근에 어떻게 헛니까?(그렇군요. 그럼 콩 꺾어서 오면 거 말려서 어떻게 합니까?)

103035 #1 콩 꺼꺼, 콩 꺼꺼 오면은 것도 그 이제는 뭐인가 그 전에는 소소허게 할 적에는 집이서 오랑 아까 그 도끼로 다 태작을 허는디 지금은 밧디서 직접 이제 그 뭐인가 태작기로 기자, 트랙타에 전부 태작기가 메여 잇주. 계난 밧디 강 꺾으민 혼 이틀만 물류민 밧디로 강 태작해 붙어.(콩 꺾어, 콩 꺾어 오면 것도 그 이제는 뭐인가 그 전에는 소소허게 할 적에는 집에서 와서 아까 그 도리끼로 다 태작을 하는데 지금은 밧에서 직접 이제 그 뭐인가 태작기로 그저, 트랙터에 전부 태작기가

메워 있지. 그러니까 밭에 가서 꺾으면 한 이틀만 말리면 밭으로 가서 타작해 버려.)

103035 @2 이제는. 옛날에는 집이 오랑 허면은 아까처럼 도끼질?(이제는. 옛날에는 집에 와서 하면 아까처럼 도끼질?)

103035 #1 으, 도끼로. 그때는 소소하게 할 때. 그때는 장콩만 헐라고 거 돈, 돈으로 경제 작물로 그땐 안 허연.(으, 도끼로. 그때는 소소하게 할 때. 그때는 장콩만 하려고 거 돈, 돈으로 경제 작물로 그땐 안 했어.)

103035 @2 예.(예.)

103035 #1 장콩 해 가지고 메주에 장 담양 먹젠 약간 헐는디 이제는 정부에서 수매해 가니까 대리점으로 막 해 가지고 콩이 한동에도 주로 콩 많이 허주.(장콩 해 가지고 메주에 장 담가서 먹으려고 약간 헐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수매해 가니까 대리점으로 많이 해 가지고 콩이 한동에도 주로 콩 많이 하지.)

103035 @2 예전에 그 장콩헐던 허면 종류도 장콩이렌 헐수과, 뭐렌 헐수과?(예전에 그 장콩했다고 하면 종류도 장콩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3035 #1 옛날 장콩은 이제 거 씨 저 불었주, 옛날 그 옛날 재래 장콩은.(옛날 장콩은 이제 거 씨 저 버렸지, 옛날 그 옛날 재래 장콩은.)

103035 @2 예.(예.)

103035 #1 그것이 맛이 좋고 경 해났주.(그것이 맛이 좋고 그렇게 했었지.)

103035 @2 이제 씨 저 불어서예?(이제 씨 저 버렸어요?)

103035 #1 으, 씨 저 불언.(으, 씨 저 버렸어.)

103036 @2 그 콩으로는 주로 뭘 행 먹어신고예?(그 콩으로는 주로 뭘 해서 먹었나요?)

103036 #1 콩은 주로 저 뭐인가 그 주름 놔 가지고서 주름 놔 가지고서 으름에 좀 승기도 행 먹고.(콩은 주로 저 뭐인가 그 콩나물 놔 가지고서 콩나물 놔 가지고서 여름에 좀 푸성귀도 해서 먹고.)

103036 @2 예.(예.)

103036 #1 체서 때에는 꼭 그걸 뭐인가 헤영 거세기.(체사 때에는 꼭 그걸 뭐인가 해서 거시기.)

103036 @2 콩주름예?(콩나물요?)

103036 #1 게고 또 뭐인가 콩은 곱아 가지고서 콩죽이 그렇게 맛이 있어.(그리고 또 뭐인가 콩을 곱아 가지고서 콩죽이 그렇게 맛이 있어.)

103036 @2 으음.(으음.)

103036 #1 콩죽, 밥맛, 심심할 때는 밥맛 엇고 밥맛, 입맛이 엇은 때는 또 이제 그 콩죽을 썬 먹고 또 이제 비 온 때 이런 때는 콩죽을 썬면 그렇게 맛이 좋아, 콩죽이.(콩죽, 밥맛, 심심할 때는 밥맛 없고 밥맛, 입맛이 없을 때는 또 이제 그 콩죽을 썬서 먹고 또 이제 비 올 때 이런 때는 콩죽을 썬면 그렇게 맛이 좋아, 콩죽이.)

103036 @2 콩죽을 어떤 식으로 썬신고예?(콩죽은 어떤 식으로 썬나요?)

103036 #1 콩을 그 뭐인가 맏돌에, 맏돌에 막 그를 곱아.(콩을 그 뭐인가 맏돌에 마구 가를 갈아.)

103036 @2 예.(예.)

103036 #1 경혜 가지고서 그 뭐인가 그 보리쌀이나 그 뭐인가 좁쌀이나 미룻에 막 풀어질 정도 돼면은 콩가루를 그레 영 놔근에 썬면은 부끄지도 안허고. 경 안허면 마딱 부껴 불주. 콩죽은 흐쌀 허민 콩죽 부끄듯이.(그레 가지고서 그 뭐인가 그 보리쌀이나 그 뭐인가 좁쌀이나 미리 마구 풀어질 정도 되면 콩가루를 그리 이렇게 넣어서 썬면 끓어오르지도 았고. 그렇게 안 하면 모두 끓어올라 버리지. 콩죽은 조금하면 콩죽 끓어오르듯이.)

103036 @2 예, 예 콩죽 부끄듯이.(예, 예 콩죽 끓어오르듯이.)

103036 #1 콩죽 부끄듯이. 잘못, 불을 세게 허면은 마딱 부껴불어. 계난 상당히 정성 들영 해야 돼. 부끄지 안허게.(콩죽 끓어오르듯이. 잘못, 불을 세게 하면 모두 끓어올라버려. 그러니까 상당히 정성 들여서 해야 돼. 끓어오르지 았게.)

103036 @2 경허고 여기 둬비덜도 헤실 거고예?(그리고 여기 두부들도 했을 거고요?)

103036 #1 으, 옛날엔 둬비를 만이 동네마다 헨덜, 헨덜 먹엇주. 겐디 요새는 옛날 사름덜 엇어 부난 경 안 헤근에 손쉽게 이제 마트에 강 혼 모 사다근에. 주로 옛날엔 다 팔월 추석이 돼나 이제 설 돼젠 허민 이제 동네에서 다 둬비를 헤 가지고서 그렇게 맛있게 헿 먹엇주.(으, 옛날엔 두부를 많이 동네마다 헤서들, 헤서들 먹엇지. 그런데 요새는 옛날 사름들 엇어 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손쉽게 이제 마트에 가서 한 모 사다가. 주로 옛날엔 다 팔월 추석이 되거나 이제 설 되려고 하면 이제 동네에서 다 두부를 헤 가지고서 그렇게 맛있게 헤서 먹엇지.)

103036 @2 그 둬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헤근에?(그 두부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헤서?)

103036 #1 둬비 헿 때는 콩을 막 곱 거 아니냐이? 콩을 곱아근에 그 곱아 가지고서 그 아까 그 콩을 막 딸려. 딸려 가지고서, 딸려 가지고서 막 딸려지면은 그 물을 뭐인가 이제 무슨 거 베 헤영, 베 영 찰리에 그레 비우면은 그 비지는 그 우에, 우에.(두부 할 때는 콩을 마구 갈 거 아니니? 콩을 갈아서 그 갈아 가지고서 그 아까 그 콩을 마구 달여. 달여 가지고서, 달여 가지고서 마구 달여지면 그 물을 뭐인가 이제 무슨 거 베 헤서, 베 이렇게 자루에 그리 부으면 그 비지는 그 위에, 위에.)

103036 @2 남아 잇어예?(남아 잇지요?)

103036 #1 우에 남아 잇고, 아래 아래 그 물만 떨어지거든 그 물만. 물만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절기¹¹⁷⁾ 시작허여이.(위에 남아 잇고, 아래 아래 그 물만 떨어지거든 그 물만. 물만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엉기기 시작

117) '절다'는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것을 말한다. 표준어의 '엉기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해.)

103036 @2 예.(예.)

103036 #1 그것이 얼리기 시작하거든. 그디 돔베나 놔 가지고 그디 지들루주게. 경허면은 거 절어가면서 물은 이레 딱로 빠지고 그 듬탕허게¹¹⁸⁾ 그 뭐인가 두부 모가 얼린 것 거치 땅땅허주게.(그것이 얼리기 시작하거든. 거기 도마나 놔 가지고 거기 지지르지. 그러면 거 영겨가면서 물은 이리 따로 빠지고 그 ‘듬탕하게’ 그 뭐인가 두부 모가 얼린 것 같이 딱딱하지.)

103036 @2 음. 그걸 절린덴 험니까?(음, 그걸 ‘절린다’고 합니까?)

103036 #1 으.(으.)

103036 @2 절러예. 그다음에 콩ㄴ를 갖고도 이것저것 하영 해서예?(영겨요. 그다음에 콩가를 가지고도 이것저것 많이 했지요?)

103036 #1 콩ㄴ룬 콩죽 썬 먹엄베긴 다른 건 뭐 허는 거 었고. (콩가룬 콩죽 썬서 먹기밖에 다른 건 뭐 하는 거 없고.)

103036 @1 콩국?(콩국?)

103036 #1 뭐 콩국은.(뭐 콩국은.)

103036 @2 삼촌은 콩국을 별로 안 좋아햐구나?(삼촌은 콩국을 별로 안 좋아하느냐?)

103036 #1 으.(으.)

103036 @1, 2 하하하.(하하하.)

103036 #1 게난 콩죽덜 만이덜 행 먹주. 헤다근에 이제 그 뭐인가 어디 저 떡집이 가근에 ㄴ루 헤다근에.(그러니까 콩죽들 많이들 해서 먹지. 헤다가 이제 그 뭐인가 어디 저 떡집에 가서 가루 헤다가.)

103036 @2 예. 삼촌은 콩죽을 좋아햐구나예?(예. 삼촌은 콩죽을 좋아하는군요?)

103036 #1 으, 우린 콩죽을 좋아허고 콩국은.(으, 우리 콩죽을 좋아하고 콩국은.)

103036 @1, 2 하하하.(하하하.)

103036 #1 헤주지 안헤부난 한 번씩이라도 헤 쥐낫주만은 이제 뭐 었어 부난.(헤주지 았으니까 한 번씩이라도 헤 쫘엇지만 이제 뭐 었어 버리니까.)

103037 @2 예. 맞수다. 콩도 이제 콩 태작헤 나면 그 나머지는 이제, 콩찍이렌 험니까? 뭐렌 험니까?(예. 맞습니다. 콩도 이제 콩 타작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이제, 콩짚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3037 #1 콩짚, 콩짚.(콩짚, 콩짚.)

103037 @2 그 콩짚으로는 뭘 헤마씨?(그 콩짚으로는 뭘 헤요?)

103037 #1 콩짚으로는 옛날은 그냥 밧디 다 걸름을 행 그냥 집이 그건 시꺼오지 안헤영 밧디 내베낫는데.(콩짚으로는 옛날은 그냥 밧에 다 거름을 해서 그냥 집에 그건 실어오지 았고 밧에 내버렸었는데.)

118) ‘듬탕허다’는 두붓물이 영겨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37 @2 예.(예.)

103037 #1 요새는, 그 콩짚은 그 소가 만이 잘 먹주게. 계난 요새는 밧디로 오라근에 목장허는 사름이 오랑 밧디서 오랑, 기계로 오랑 거 포장을 헤여.(요새는, 그 콩짚은 그 소가 많이 잘 먹지. 그러니까 요새는 밧으로 와서 목장하는 사람이 와서 밧에서 와서, 기계로 와서 거 포장을 해.)

103037 @2 예.(예.)

103037 #1 하양현.(하얀.)

103037 @2 예.(예.)

103037 #1 뽕 동글랑허게 헤영 겐 다 그거, 다 거 사 가주.(빙 동그랗게 해서 그래서 다 그거, 다 거 사 가지.)

103037 @2 옛날에는 그 콩짚.(옛날에는 그 콩짚.)

103037 #1 콩짚은 거 집이 시꺼다가 소를 쫓주. 소가 잘 먹어. 계난 콩짚은 소 먹고 쟈쟈현 깍지 잇잖아. 깍지 난 건 기자 밧디 허꺼 내 불민 걸름 돼게끔 그런 식으로.(콩짚은 거 집에 실어다가 소를 쫓지. 소가 잘 먹어. 그러니까 콩짚은 소 먹고 자잘한 깍지 잇잖아. 깍지 난 건 그저 밧에 섞어 내 버리면 거름 돼게끔 그런 식으로.)

103037 @2 걸름 돼게끔예. 그러면 콩도 종류가 으라 가지라낫수과, 옛날에?(거름 돼게끔요. 그러면 콩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까, 여름에?)

103037 #1 중간에는 뭐인가 중간엔 정부에서 장려허는 것도 콩이 혼 세 가지 돼낫주. 굵은 콩도 있고 또 이제 작은 콩도 있고 알이 굵은 콩도 작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나무가 진 거 조생, 만생 그렇게 있고. 경허다가 이제는 전부 다 이젠, 이제는이 거시기 콩으로, 뭐인가 주름, 저 콩나물 콩으로.(중간에는 뭐인가 중간엔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도 콩이 한 세 가지 됐었지. 굵은 콩도 있고 또 이제 작은 콩도 있고 알이 굵은 콩도 작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나무가 긴 거 조생, 만생 그렇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는 전부 다 이젠, 이제는 거시기 콩으로, 뭐인가 나물, 저 콩나물 콩으로.)

103037 @2 예. 콩나물 콩예?(예. 콩나물 콩요?)

103037 #1 콩나물 콩으로. 알이 거 쟈쟈현 거 그걸 허고 잇주.(콩나물 콩으로. 알이 자잘한 거 그걸 하고 있지.)

103037 @2 옛날에는 그냥 장콩.(옛날에는 그냥 장콩.)

103037 #1 그거 이제 풍산콩¹¹⁹⁾이라 허는가, 것도 잘 모르켜.(그거 이제 ‘풍산콩’이라 하는가, 것도 잘 모르겠어.)

103037 @2 아, 풍산콩예. 그 콩농사 허멍 뭐 잊어불지 못 허거나 이런 것도 이신가마씨?(아, ‘풍산콩’요. 그 콩농사 하면서 뭐 잊어버리지 못 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103038 #1 콩농사 허고 잊어부리는 거, 잊어부리는 거 그런 건 었는다.(콩농사

119) ‘풍산콩’은 콩의 한 종류다.

하고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런 건 없는데.)

103038 @2 예. 옛날에 왜 콩도 따로 콩밭디 하나 헤갓고 전부 가는 것도 잊주만은 듬성듬성헤근에 조팏디 콩을 갈거나 이러지는 안헛수과?(예. 옛날에 왜 콩도 따로 콩밭에 하나 해서 전부 가는 것도 있지만 듬성듬성해서 조밭에 콩을 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103030 #1 그러진 안허고 옛날은 콩을 어떤 식으로 갈아났는고 허니 그 웨골로 니벳떼기¹²⁰)로 영 갈아. 초벌로 그자 니벳떼기로 영 갈아 가지고서 그 병텅이를 탁탁 얹어지주. 계난 얹어진 디 영 구녁이 영 생길 거 아니라. 걸 곰베로 그걸 마무리헛어, 곰베로.(그러진 앓고 옛날은 콩을 어떤 식으로 갈았었는가 하니 그 외골로 ‘니벳떼기’로 이렇게 갈아. 초벌로 그저 ‘니벳떼기’로 이렇게 갈아 가지고 그 덩어리를 탁탁 얹어지지. 그러니까 얹어진 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걸 곰방메로 그걸 마무리 헛어, 곰방메로.)

103030 @2 곰베로예?(곰방메로요?)

103030 #1 옛날 경운기 나기 전에. 곰베로 이렇게 해 가지고선 그 콩밭디 허는 건 곰베. 거 마무리 허는 거.(옛날 경운기 나기 전에 곰방메로 이렇게 해 가지고선 그 콩밭에 하는 건 곰방메. 거 마무리 하는 거.)

103030 @2 마무리 허는 거 곰베고?(마무리 하는 거 곰방메이고?)

103030 #1 계난 이렇게 겨난 병텅이가 이렇게 더퍼진, 더퍼, 잘 더퍼지는데 이것이 가리쳐질 때도 잊주게.(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덮인, 덮어, 잘 덮이는데 이것이 뒤집힐 때도 있지.)

103030 @2 예, 예.(예, 예.)

103030 #1 가리쳐진 거 가만이 내불민 이거 풀이 그냥 살아. 계난 이 곰베로 이걸 풀 갖다가 이렇게 톱 잇는 디로 톱톱 두드리멍 영 묻어 버리면은 검질을 거 안메주. 그렇게 해낫주. 거 이제는 검질메야 돼여, 이제는. 경운기로 간 건.(뒤집힌 거 가만히 내버리면 이거 풀이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 곰방메로 이걸 풀 가져다가 이렇게 톱 잇는 데로 톱톱 두드리면서 이렇게 묻어 버리면 김을 거 안매지. 그렇게 했었지. 거 이제는 김매야 돼, 이제는. 경운기로 간 건.)

103030 @2 경운기로 간 거는. 계난 옛날은 콩 갈 때는.(경운기로 간 거는. 그러니까 옛날은 콩 갈 때는.)

103030 #1 곰베.(곰방메.)

103030 @2 곰베로 해서.(곰방메로 해서.)

103030 #1 니벳떼기 파니로 혼불에 그냥 갈아 혼불에.(‘니벳떼기’ 이랑으로 초벌에 그냥 갈아, 초벌에.)

103030 @2 아, 니벳떼기로 헨예. 삼춘 그러면 우리가 밧을 갈 때 혼벳떼기 있고 두벳떼기 있고 이렇게 허잖아예?(아, ‘니벳떼기’로 했어요. 삼춘 그러면 우리가

120) ‘니벳떼기’는 발갈이 방법의 하나로 한 이랑을 만들 때 쟁기를 한 번 가면서 한편으로 흙을 갈아 얹고 돌아오면서 다시 다른 한편을 갈아 마주 덮어 이랑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보통 제주어로는 ‘두벳떼기’, ‘양벳떼기’라고 하는데 제보자는 ‘니벳떼기’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니’는 일본어로 ‘이(二)’의 의미다.

밭을 갈 때 ‘흔벳떼기’ 있고 ‘두벳떼기’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103030 #1 어, 어.(어, 어.)

103030 @2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 줘 봅서.(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103030 #1 계난 보통 두, 보통은 그 웨벳떼기¹²¹)가 잇고이.(그러니까 보통 두, 보통은 그 ‘웨벳떼기’가 잇고.)

103030 @2 예. 한 번 그냥 간 거예?(예, 한 번 그냥 간 거요?)

103030 #1 으. 흔 번 가난 따시 영 오민 이것이 흔 판, 우리말로 흔 파니가, 흔 파니가.(으. 한 번 가니까 다시 이렇게 오면 이것이 한 판, 우리말로 한 이랑이, 한 이랑이.)

103030 @2 흔 파니예?(한 이랑요?)

103030 #1 거 니벳떼기라는 것은 뭐인가 이거 네 번을, 일로 두 번 어프고 양쪽으로 영 어프고. 기자 영 가는 건 일로 영, 일로 허민 일로 영 조근 조근 조근 갈아가는 건데 니벳떼기는 일로 이거 두 번 일로 어프고 따시 이 일로 오랑 이레 두 번 어프고 양쪽으로 영 가는 거.(거 ‘니벳떼기’라는 것은 뭐인가 이거 네 번을, 일로 두 번 엷고 양쪽으로 이렇게 엷고. 그저 이렇게 가는 건 일로 이렇게, 일로 하면 일로 이렇게 차근 차근 차근 갈아가는 건데 ‘니벳떼기’는 일로 이거 두 번 일로 엷고 다시 이 일로 와서 이리 두 번 엷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103030 @2 계난 콩 갈 때는 니벳떼기 헨 갈았수과?(그러니까 콩 갈 때는 ‘니벳떼기’ 해서 갈았습니까?)

103030 #1 옛날엔 그렇게 헤낫지.(옛날엔 그렇게 했었지.)

103030 @2 아, 옛날엔.(아, 옛날엔.)

103030 #1 이제는 그렇지 안허여.(이제는 그렇지 않아.)

103030 @2 그냥 보리 갈고 이럴 때는 다 흔벳떼기로만 가는 거 아니라예?(그냥 보리 갈고 이럴 때는 다 ‘흔벳떼기’로만 가는 거 아니지요?)

103030 #1 으.(으.)

103030 @2 계문 예전에 그 감자 씨 묻젠 허면은 그때도 니벳떼기 헨 거우과?(그럼 예전에 그 고구마 씨 묻으려고 하면 그때도 ‘니벳떼기’ 한 겁니까?)

103030 #1 감저씨 같은 거 헨 적에는 감저 씨 그 종자를 놓을[놀] 때 그건.(고구마씨 같은 거 할 적에는 고구마 씨 그 종자를 놓을 때 그건.)

103030 @2 니벳떼기보다 더 해야 허켜예?(‘니벳떼기’보다 더 해야 하겠네요?)

103030 #1 그건 니벳떼기 아니라 웨골로, 웨골 헤 가지고 고랑에 그 감저 놔근에가 그 종자 낱 그 줄이 크면은 거세기 헨주. 거 고랑에 툽툽 영 놔근에.(그건 ‘니벳떼기’ 아니라 외골로, 외골 헤 가지고 고랑에 그 고구마 놔서 그 종자 놔서 그 줄이 크면 거시기 헨지. 거 고랑에 툽툽 이렇게 놔서.)

121) ‘웨벳떼기’는 밭갈이 방법의 하나로 이랑을 쟁기로 한 번 갈아서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흔벳떼기’라고도 한다.

103019 @2 아, 그냥 왜골로. 경허고 삼춘 콩은 영 헛주만은 아까 못 물어본 거 조 농사할 때 좁씨들은 어떤 식으로 보관을 헛수과, 옛날에?(아, 그냥 왜골로. 그리고 삼춘 콩은 이렇게 했지만 아까 못 물어본 거 조 농사할 때 조씨들은 어떤 식으로 보관을 헛수과, 옛날에?)

103019 #1 좁씨는 옛날에 뭐인가 그 고고리로 그냥 돌아메는 집도 잇긴 잇는데, 거기 그냥 씨를 해 가지고 좁씨 거튼 것은 그 뭐인가 그 조그만 등덜팽¹²²⁾ 거튼 거 그런 것이 있어났어, 옛날은.(조씨는 옛날에 뭐인가 그 이삭으로 그냥 돌아메는 집도 잇긴 잇는데, 거기 그냥 씨를 해 가지고 조씨 같은 것은 그 뭐인가 그 조그만 ‘등덜팽’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었지, 옛날은.)

103019 @2 예.(예.)

103019 #1 그런 팽에 보관해놔주게.(그런 병에 보관했었지.)

103019 @2 아.(아.)

103019 #1 벤질돼지 안허고 쥐 안 먹곡.(변질되지 않고 쥐 안 먹고.)

103019 @2 아.(아.)

103019 #1 잘 물류와근에.(잘 말려서.)

103019 @2 아까 무슨 팽마씨?(아까 무슨 병요?)

103019 #1 그 등덜팽이라고 그런 팽덜 있어났주.(그 ‘등덜팽’이라고 그런 병들 있었지.)

103019 @2 등덜팽.(‘등덜팽’.)

103019 #1 옛날 그 뭐인가 그 대정에서 만드는 그런 사기 팽 잇잖아게.(옛날 그 뭐인가 그 대정에서 만드는 그런 사기 병 잇잖아.)

103019 @2 예, 예.(예, 예.)

103019 #1 그런 것에 주로 보관해놔주.(그런 것에 주로 보관했었지.)

103019 @2 그걸 여기에서는 무슨 팽이렌 해서마씨?(그걸 여기에서는 무슨 병이라고 해요?)

103019 #1 그거, 등덜팽이엔도 허고.(그거, ‘등덜팽’이라고도 하고.)

103019 @2 등덜팽. 등절팽, 등덜팽. 혹시 씨부게기¹²³⁾ 헤갓고 저 새로 만들진 안 헛수과? 허벅 모양으로?(‘등덜팽’, ‘등절팽’, ‘등덜팽’. 혹시 ‘씨부게기’ 해 가지고 저 새로 만들진 않았습니까? 허벅 모양으로?)

103019 #1 아니, 게메 그 작은 허벅 거치 웬 거주게. 그 등덜팽이엔 현 게.(아니, 글썸 그 작은 허벅 같이 된 거지. 그 ‘등덜팽’이라고 하는 게.)

103019 @2 등덜팽이엔 현 게, 아.(‘등덜팽’이라고 하는 게, 아.)

103019 #1 등덜팽이엔 현 게 배가 불락허고 그 꼭지가 쪽 허게 올라와근에 거 세기 우이는 거시기 물허벅¹²⁴⁾ 식으로 웬 거주, 그게.(‘등덜팽’이라고 하는 게 배가

122) ‘등덜팽’은 진흙으로 만든 두 되들이의 병을 말한다.

123) ‘씨부게기’는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에 넣고 등그스름하게 엮어 올리되 아가리를 주먹으로 두나들 정도로 줄이고 목이 있게 만든 아주 작은 먹으로, 씨를 보관하는데 사용했다.

124) ‘물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쓰는 허벅이다.

블록하고 그 쪽지가 쪽 하게 올라와서 거시기 위에는 거시기 ‘물허벅’ 식으로 된 거지, 그계.)

103019 @2 예, 요런 모양으로 헤갓고.(예, 요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103019 #1 으.(으.)

103019 @2 아, 그런 거에 보관했구나예?(아, 그런 거에 보관했군요?)

103019 #1 으. 그런 거에 주로.(으. 그런 거에 주로.)

103019 @2 따로 씨부게기 만들거나 그러진 았고예?(따로 ‘씨부게기’ 만들거나 그러진 았고요?)

103019 #1 으, 그러진 았고.(으, 그러진 았고.)

103019 @2 아, 예. 알았수다.(아, 예. 알겠습니다.)

밭벼 농사

103039 @2 산두는 어떤 식으로 했수과?(밭벼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39 #1 산두, 산두도 여기 만이 갈아낫주게, 옛날은.(밭벼, 밭벼도 여기 많이 갈았었지, 옛날은.)

103039 @2 예.(예.)

103039 #1 그걸 갈아야만이 기제사 때 그 곤밥을 행 먹게 되니까.(그걸 갈아야만 기제사 때 그 흰밥을 해서 먹게 되니까.)

103039 @2 예, 그건 언제 어떤 식으로 준비행 갈았수과?(예, 그건 언제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갈았습니까?)

103040 #1 건 산두는 언제 가는고 허니, 뒤인가 하지, ㄴ만 시라, 망중에 솔거리계¹²⁵⁾ 헛는디 그 망중 전이 갈았주, 이거 산두는.(건 밭벼는 언제 가는가 하니, 뒤인가 하지, 가만 있어, 망중에 ‘솔거리계’ 했는데 그 망중 전에 갈았지, 이거 밭벼는.)

103040 @2 예.(예.)

103040 #1 산두는 그 소만 잇잖아이?(밭벼는 그 소만 잇잖아?)

103040 @2 예, 소만.(예, 소만.)

103040 #1 소만 넘으면은 제일 일찍 갈았주.(소만 넘으면 제일 일찍 갈았지.)

103040 @2 아, 산두가.(아, 밭벼가.)

103040 #1 으, 으. 케민 스월 중순 뒤면은 산두가 갈기 시작헤근에가 산두가 나기가 한 십 일, 십 일 거의 이상 걸리주게.(으, 으. 그럼 사월 중순 되면 밭벼가 갈기 시작해서 밭벼가 나기가 한 십 일, 십 일 거의 이상 걸리지.)

103040 @2 아.(아.)

103040 #1 이 망중에 솔거리다 허는 것은 그 뒤인가 종자가 그 밭화뒤 가지고서 그 뒤인가.(이 망중에 ‘솔거리다’ 하는 것은 그 뒤인가 종자가 그 밭화뒤 가지고

125) ‘솔거리다’는 외가닥으로 돌아난 곡식의 싹이 점차 자라나면서 두세 가닥으로 그 이파리가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리다’라고도 한다.

그 뭐인가.)

103040 @2 짹이.(짹이.)

103040 #1 이삭 거린다 해 가지고.(이삭 ‘거린다’ 해 가지고.)

103040 @2 예.(예.)

103040 #1 망중에 술거린다. 제일 일찍 갈았주.(망중에 ‘술거린다’. 제일 일찍 갈았지.)

103040 @2 삼촌 아까 망중에 술거린다 헛잖아예. 산뒤도 술거린덴 허고 조도 술거린덴?(삼촌 아까 망중에 ‘술거린다’ 헛잖아요. 발벼도 ‘술거린다’고 하고 조도 ‘술거린다’고?)

103040 #1 아니, 조는 아니. 조는, 조는 처서에, 처서에 막 익넌 허는 거주.(아니, 조는 아니. 조는, 조는 처서에, 처서에 아주 익는다고 하는 거지.)

103040 @2 아까 술거린덴 허는 말은 무슨 말이과?(아까 ‘술거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3040 #1 그 산뒤가 뭐인가 산뒤가 나오라 가지고 술거치 이렇게 거린다 말이 주게.(그 발벼가 뭐인가 발벼가 나와 가지고 술같이 이렇게 ‘거린다’ 말이지.)

103040 @2 아.(아.)

103040 #1 술, 술이 이거 머리거치 이렇게.(술, 술이 이거 머리같이 이렇게.)

103040 @2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아지쿠다. 그 고고리 나오기 시작한 거를.(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삭 나오기 시작한 거를.)

103040 #1 아니 고고리 나오는 게 아니고.(아니 고고리 나오는 게 아니고.)

103040 @2 짹.(짹.)

103040 #1 짹, 짹.(짹, 짹.)

103040 @2 아, 짹 나오는 거를 술거린다 허는 거라예?(아, 짹 나오는 거를 ‘술거린다’ 하는 거지요?)

103040 #1 어.(어.)

103040 @2 아, 조 할 때는 그런 말 안 해마씨?(아, 조 할 때는 그런 말 안 해요?)

103040 #1 안 해.(안 해.)

103040 @2 뭐 침 나왔저, 뭐 헛저, 이런 말?(뭐 침 나왔어, 뭐 헛어, 이런 말?)

103040 #1 그런 말 아니.(그런 말 아니.)

103040 @2 게민 술거리면 그렇게 해서.(그럼 ‘술거리’면 그렇게 해서.)

103040 #1 술거리, 술거리, 술거리근에가 그렇게, 그렇게 뭐인가 파종을 해 가지 고서 옛날에는 물, 우마를 다 방돈¹²⁶⁾해낫주게.(‘술거리’, ‘술거리’, ‘술거리서’ 그렇게, 그렇게 뭐인가 파종을 해서 옛날에는 말, 우마를 다 방돈했었지.)

103040 @2 예.(예.)

103040 #1 방돈해난 방돈허니간이 이것이 술거련. 이 뭐인가 이 하지가, 하지가

126) ‘방돈’은 돼지를 놓아기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제보자가 마소를 놓아기르는 것을 ‘방목’이라 하였다.

오월 중순 돼 가면은 몰덜을 이제는, 이제 그 이젠 산뒤가 나기 시작허민 몰 거튼 거 방돈헤영 제멋대로 낵 내부는 건디 이젠 관리를 해야 돼주. 산뒤가 나기 시작허면은. 그래서 그 몰은 또 뭐인가 몰 임제가 ㄴ꾸주게.(방돈했던 방돈하니까 이것이 ‘술거렸어’. 이 뭐인가 이 하지가, 하지가 오월 중순 돼 가면 말들은 이제는, 이제 그 이젠 발벼가 나기 시작하면 말 같은 거 방돈해서 제멋대로 낵서 내버리는 건디 이젠 관리를 해야 되지. 발벼가 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말은 또 뭐인가 말 임자가 가꾸지.)

103040 @2 예.(예.)

103040 #1 낮에 간 허다가 목장에 가 가지고 가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허는 거.(낮에 가서 하다가 목장에 가 가지고 가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103040 @2 게른 산뒤 갈면은 술거리기 전까진 그 밭디 그냥 내부는 겨우과?(그럼 발벼 갈면 ‘술거리기’ 전까진 그 밭에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103040 #1 으, 으. 몰 그냥 ㄴ쉬 그냥 막 내불주.(으, 으. 말 그냥 마소 그냥 마구 내버리지.)

103040 @2 아, 블라지게.(아, 밟히게.)

103040 #1 막 블리고 막 ㄴ 둥글고 게민 튼튼헤지주.(마구 밟고 마구 누워서 둥글고 그럼 튼튼헤지.)

103040 @2 그렇게 허는 거를 방돈했던 허는구나예?(그렇게 하는 거를 방돈했다고 하는군요?)

103040 #1 으, 방돈허는 건 제멋대로 풀영 내부는 거.(으, 방돈하는 건 제멋대로 풀어서 내버리는 거.)

103040 @2 풀어 내부는 거예? 예, 게난 그 ㄴ꾸레 산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ㄴ두는 것도 방돈했던 허는구나예?(풀어 내버리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 가꾸러 산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ㄴ두는 것도 방돈했다고 하는군요?)

103040 #1 으. 그냥 풀영 내부는 거.(으. 그냥 풀어서 내버리는 거.)

103040 @2 풀영 내부는 거를예? 으, 그런 식으로. 산뒤도 블린덴 험니까?(풀어서 내버리는 거를요? 으, 그런 식으로. 발벼도 밟는다고 합니까?)

103040 #1 아니 산뒤는 아니 블리는 거.(아니, 발벼는 안 밟는 거.)

103041 @2 아, 블린덴 안 허고 그런 식으로만 허는 거라예. 그다음에 산뒤도 걸름을 헤신가마씨?(아, 밟는다고 안 하고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발벼도 거름을 했었나요?)

103041 #1 아니, 걸름도 허지 안허고.(아니, 거름도 하지 않고.)

103041 @2 걸름도 안 허고예.(거름도 안 하고요.)

103041 #1 옛날엔 걸름이 어디 셔서. 보리베낀 걸름 헤어나진 안헛주게.(옛날엔 거름이 어디 있어. 보리밖에 거름 하지 않았지.)

103041 @2 아, 보리 걸름. 보리헛 걸름이 다 ㄴ는 거구나.(아, 보리 거름. 보리해서 거름이 다 되는 거구나.)

103041 #1 으, 으.(으, 으.)

103040 @2 그 산뒤 씨는 어떻게 갈았수과? 밧을 갈앙 허는 것과? 미리 헤 갖고 허는 것과?(그 밧벼 씨는 어떻게 갈았습니까? 밧을 갈아서 하는 겁니까? 미리 헤 갖고 하는 겁니까?)

103040 #1 아니, 거 산뒤는 뭐인가 그, 그 초불을 밧을 갈아야 돼여, 초불을. 초 불 갈아근에가. 초불 갈앙, 갈레 가근에 거 씨를 뿌렁 두불 갈앙 내부는 거.(아니, 거 밧벼는 뭐인가 그, 그 초벌을 밧을 갈아야 돼, 초벌을. 초벌 갈아서. 초벌 갈아서, 갈러 가서 거 씨를 뿌려서 두벌 갈아서 내버리는 거.)

103040 @2 계난 미리 변헨 낫다근에.(그러니까 미리 애벌같이해 낫다가.)

103040 #1 으. 변헨 낫당 그 밧을 변해야주, 초불 밧을.(으. 애벌같이해 낫다가, 그 밧을 애벌같이해야지, 초벌 밧을.)

103040 @2 계난 산뒤는 어느 그르에 가는 거우과, 보통?(그러니까 밧벼는 어느 그루에 가는 겁니까, 보통?)

103040 #1 산뒤는 보통 이제 뭐인가 그 저 믱물 그르에 갈았주.(밧벼는 보통 이제 뭐인가 그 저 메밀 그루에 갈았지.)

103040 @2 아, 믱물 그르에. 계문 믱물 현 다음에?(아, 메밀 그루에. 그럼 메밀 한 다음에?)

103040 #1 산뒤.(밧벼.)

103040 @2 저 밧을 변헨 놔두는 거군아예?(저 밧을 애벌같이해서 놔두는 거군요?)

103040 #1 으.(으.)

103042 @2 예, 예. 경헨 두불 갈 때 씨 빼여근에 이제 허는 거예?(예, 예. 그래서 두벌 갈 때 씨 뿌려서 이제 하는 거요?)

103042 #1 으.(으.)

103042 @2 그것도 아까 멩텅이 헤근에 빼여예?(그것도 아까 떡서리 해서 뿌려요?)

103042 #1 으, 으.(으, 으.)

103043 @2 저기 산뒤밧도 검질메신가마씨?(저기 밧벼밭도 김맷나요?)

103043 #1 산뒤밧도 그거 두불꺼지 메야 돼여, 그거.(밧벼밭도 그거 두벌까지 메야 돼, 그거.)

103044 @2 어떤 검질멧수과?(어떤 김맷습니까?)

103044 #1 거기도 제환지가, 주로 제환지주. 으름이 나는 그 제환지. 그거허고 아까 그 해바레기¹²⁷⁾ 그거.(거기도 바랭이가, 주로 바랭이지. 여름에 나는 그 바랭이. 그거하고 아까 그 ‘해바레기’ 그거.)

103044 @2 해바레기가 어떤 건고?(‘해바레기’가 어떤 건고?)

103044 @1 그 빨간 열매가 동글동글.(그 빨간 열매가 동글동글.)

127) ‘해바레기’는 풀 종류의 하나다.

103044 #1 으, 으. 그 우터레 막 올라가는 거.(으, 으. 그 위로 마구 올라가는 거.)

103044 @1 예, 예.(예, 예.)

103044 #1 썸도 넓지 안허여. 썸도 그냥 요 정도 올라가면서. 케난 올라가면서 그냥 빨강게 그냥 막 쟈쟈한 것덜.(있도 넓지 않아. 있도 그냥 요 정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그냥 빨강게 그냥 아주 자잘한 것들.)

103044 @2 예, 예. 여뀌, 여뀌구나, 표준어로. 여뀌렌 말은 여기서 안 들어 봤수과?(예, 예. 여뀌, 여뀌구나, 표준어로. 여뀌라는 말은 여기서 안 들어 봤습니까?)

103044 #1 아니.(아니.)

103044 @2 알아지쿠다. 이파리 이만큼허고 빨간 걸로 해 가지고.(알겠습니다. 잎 이만큼하고 빨간 걸로 해 가지고.)

103044 #1 빨간 거 쪽 허게 그냥.(빨간 거 쪽 하게 그냥.)

103044 @2 예, 예.(예, 예.)

103044 #1 쪽 허게만 올라가. 가쟁이도 안 벌리고.(쪽 하게만 올라가. 가지도 안 벌리고.)

103044 @2 예, 맞수다, 맞수다. 잎이 빨강허는 거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잎이 빨간 거요?)

103044 #1 으, 으. 거 씨가 막 쟈쟈한 거. 썸썸 방울보다도 더 쟈쟈한 거.(으, 으. 거 씨가 아주 자잘한 거. 썸썸 방울보다도 더 자잘한 거.)

103045 @2 건디 빨강헌디 해바레기엔 글앗수다예?(그런데 빨간데 ‘해바레기’라고 말했네요?)

103045 #1 으.(으.)

103045 @2 그다음에 이 산뒤는 어떤 식으로 수확을 허는 거우과?(그다음에 이 밭벼는 어떤 식으로 수확을 하는 겁니까?)

103045 #1 산디는 그 익으민 비여야 뉘주, 거. 익으민 비어근에가 것도 이제 주로 이제 태작을 했주. 태작을.(밭벼는 그 익으면 베야 되지, 거. 익으면 베어서 것도 이제 주로 이제 타작을 했지. 타작을.)

103045 @2 예, 태작을예?(예, 타작을요?)

103045 #1 태작 안 한 때는 그자 못차 그 못을 준준허게 무꺼 가지고서 못차 쪽 허게 마당에 놔 가지고서 이거, 이거 꼭지를 이레 가게 놔 가지고서 이제는 두드렸주게.(타작 안 한 때는 그저 못째 그 못을 자잘하게 묶어 가지고 못째 쪽 하게 마당에 놔 가지고 이거, 이거 꼭지를 이리 가게 놔 가지고서 이제는 두드렸지.)

103045 @2 아, 것도 도끼로예?(아, 것도 도리끼로요?)

103045 #1 으, 도끼로. 초창기에는 그랬주. 이제 태작기 나기 전에는.(으, 도리끼로. 초창기에는 그랬지. 이제 타작기 나기 전에는.)

103045 @2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허고 산뒤클로 이렇게.(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밭벼그네로 이렇게.)

103045 #1 산뒤클로 홀트진 안허고 조, 저 보리베긴.(밭벼그네로 훑진 않고 조, 저 보리밖엔.)

103046 @2 아, 보리만예. 여기는 산뒤클은 안 췌구나예?(아, 보리만요. 여기는 밭벼그네는 안 췌군요?)

103046 #1 으, 산뒤클은 안 쓰고.(으, 밭벼그네는 안 쓰고.)

103046 @2 게난 산뒤쌀은 뭐 허는 디 먹어신고마씨?(그러니까 밭벼쌀은 뭐 하는 데 먹었나요?)

103046 #1 산뒤쌀은 생일 때나 부모네 생일 때나 그 기제사 때베긴 평소는 못 먹지.(밭벼쌀은 생일 때나 부모네 생일 때나 그 기제사 때밖엔 평소는 못 먹지.)

103046 @2 예.(예.)

103046 #1 또 그거 밥 못, 어린아이가 아파근에 밥 못 먹영 헐 적에는 또 그거 해근에 지름 놔 가지고서, 그 부모네가 몸이 막 고단할 거 아니라?(또 그거 밥 못, 어린아이가 아파서 밥 못 먹어서 할 적에는 또 그거 해서 기름 놔 가지고서, 그 부모네가 몸이 아주 고단할 거 아니야?)

103046 @2 예.(예.)

103046 #1 경허면은 그 지름 낱 밥헿 먹으면은 싹 옛날은 풀어젓주.(그러면은 그 기름 넣어서 밥해 먹으면 싹 옛날은 풀어젓지.)

103046 @2 그 지름 낱 헿 밥을 무슨 밥이렌 헿수과?(그 기름 놔서 한 밥을 무슨 밥이라고 헿습니까?)

103046 #1 거 지름밥이주.(거 기름밥이지.)

103046 @2 여기서 지름밥, 지름밥 헿서예?(여기서 기름밥, 기름밥 헿어요?)

103046 #1 으.(으.)

103046 @2 무슨 지름 낱수과?(무슨 기름 넣었습니까?)

103046 #1 춤지름, 춤지름이주. 춤지름베끼 그 약이, 약 되는 게 엇어.(참기름, 참기름이지. 참기름밖에 그 약이, 약 되는 게 엇어.)

103046 @2 예, 그래서 지름밥을 헿서 맥인 거라예?(예, 그래서 기름밥을 헿서 먹인 거지요?)

103046 #1 으.(으.)

103046 @2 예, 그다음에 그렇게 헿 밥을 무슨 밥이렌 헿수과, 곤밥?(예, 그다음에 그렇게 한 밥을 무슨 밥이라고 헿습니까, 흰밥?)

103046 #1 곤밥, 춤지름밥이엔 허민 곤밥이주. 다른 밥엔 춤지름 못 놓거든. 게민 춤지름밥이엔 허민 곤밥에 춤지름 놓은[논] 것을.(흰밥, 참기름밥이라고 하면 흰밥이지. 다른 밥엔 참기름 못 놓거든. 그럼 참기름밥이라고 하면 흰밥에 참기름 넣은 것.)

103046 @2 예, 맞수다. 그다음에 산뒤로도 옛날은 떡덜도 다 산뒤쌀로 헿 거 아니라예?(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밭벼로도 옛날은 떡덜도 다 밭벼쌀로 한 거 아닌가요?)

103046 #1 산뒤쌀로 허는 떡이 그 뭐인가 송편하고 절편 잇잖아이? 그걸 산뒤 쌀로 헛주.(밭벼쌀로 하는 떡이 그 뭐인가 송편하고 절편 잇잖아? 그걸 밭벼쌀로 헛지.)

103046 @2 아, 송편하고.(아, 송편하고.)

103046 #1 젤, 절편.(젤, 절편.)

103046 @2 삼촌, 송편은 어떤 식으로 멘든 거 송편이우과?(삼촌, 송편은 어떤 식으로 만든 거 송편입니까?)

103046 #1 송편은 들식이주. 이렇게 해 가지고 들, 반들, 반달.(송편은 달식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달, 반달, 반달.)

103046 @2 예, 이거를 여기서는 송편이렌?(예, 이거를 여기서는 송편이라고?)

103046 #1 어, 송편하고 동글락현 건 절편이엔 허고.(어, 송편하고 동그란 건 절편이라고 하고.)

103046 @2 이 송편을 솔벤이렌 말은 안 험디가?(이 송편을 솔편이란 말은 안 험디가?)

103046 #1 아, 솔벤¹²⁸이, 솔벤이렌 허주. 이딴말로 솔벤, 솔벤.(아, 솔편이, 솔편이라고 하지. 여긔말로 솔편, 솔편.)

103046 @2 솔벤예?(솔편요?)

103046 #1 게난 표준말로 송편이주.(그러니까 표준말로 송편이지.)

103046 @2 예, 예, 예. 게난 혹시 이 동네는 솔벤을 송편이렌 곱암시카부덴.(예,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이 동네는 솔편을 송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봐.)

103046 #1 아니, 안 곱아. 솔벤이엔 허주.(아니, 안 말해. 솔편이라고 하지.)

103046 @2 솔벤예?(솔편요?)

103046 #1 절벤, 솔벤.(절편, 솔편.)

103046 @2 게른 솔벤, 절벤은 동글락현 거예?(그럼 솔편, 절편은 동그란 거요?)

103046 #1 동글락현 거.(동그란 거.)

103046 @2 두 개 부쩍수과, 안 부쩍수과?(두 개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103046 #1 두 개 부쩍 집도 잇고 안 부쩍 집도 잇어. 게난 거기 저 뭐인가 저 꽃무늬 또 잇주게.(두 개 붙인 집도 있고 안 붙인 집도 잇어. 그러니까 거기 저 뭐인가 저 꽃무늬 또 잇지.)

103046 @2 예, 절벤 본으로 이렇게 허는 거 아니라예?(예, 절편 떡살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103046 #1 으, 으.(으, 으.)

103046 @2 겐 그런 식으로 허고. 게고 네모난 떡은 안 만들안마씨?(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네모난 떡은 안 만들었어요?)

103046 #1 네모난 떡은 것도 만들앗주, 거 뭐인가?(네모난 떡은 것도 만들었지, 거 뭐인가?)

128) '솔벤'은 쌀가루를 반죽하여 반월형으로 만들어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103046 #3 상웨떡.(상화떡.)

103046 #1 그 밀도 상웨떡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집에는 거 뭐인가 시리떡을, 거 시리떡을 치는데.(그 밀도 상화떡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집에는 거 뭐인가 시루떡을, 거 시루떡을 찌는데.)

103046 @2 예.(예.)

103046 #1 줍쌀, 줍쌀 밑에 혼 징 놓고 그 곤쌀 헌 거 우이.(줍쌀, 줍쌀 밑에 혼 징 놓고 그 흰쌀 한 거 위에.)

103046 @2 예.(예.)

103046 #1 우이 놔근에 곤친떡¹²⁹이라고 그걸 이제.(위에 놔서 ‘곤친떡’이라고 그걸 이제.)

103046 @2 그거는 곤친떡예?(그거는 ‘곤친떡’요?)

103046 #1 으, 곤친떡.(으, ‘곤친떡’.)

103046 @2 아.(아.)

103046 #1 게난 이 아래 건 메파 버리는 거지.(그러니까 이 아래 건 메워 버리는 거지.)

103046 @2 예, 예, 예.(예, 예. 예.)

103046 #1 그 절약하기 위해서.(그 절약하기 위해서.)

103046 @2 으, 게난 반착씩 반착씩 낱 허는 거라예?(으, 그러니까 반쪽씩 반쪽씩 놔서 하는 거지요?)

103046 #1 으, 경헌 것도 있고 또 여유 이신 디는 곤친떡 따로 허는 디도 있고.(으,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유 있는 데는 ‘곤친떡’ 따로 하는 데도 있고.)

103046 @2 그때 곤친떡이라는 거는 그대로 곤쌀로만 헌 거는 곤친떡이런 헌 거라예?(그때 ‘곤친떡’이라는 거는 그대로 흰쌀로만 하는 거는 ‘곤친떡’이라고 하는 거지요?)

103046 #1 으.(으.)

103046 @2 보통은 조친떡¹³⁰ 헛구나예?(보통은 ‘조친떡’ 했군요?)

103046 #1 으, 조친떡.(으, ‘조친떡’.)

103046 @2 아, 제에 올리는 거. 게민 제에 올리는 거를 아까 이제 밀 상웨라고 했는데 상웨 말고는 이 산뒤쌀로 네모나게 안 만들안?(아, 제에 올리는 거. 그럼 제에 올리는 거를 아까 이제 밀 상화라고 했는데 상화 말고는 이 밭벼쌀로 네모나게 안 만들었어?)

103046 #1 그건 안 만들고.(그건 안 만들고.)

103046 @2 은절미 이런 말 안 헛수과, 여기는?(인절미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여기는?)

103046 #1 은절미도 아, 그것도 허기는, 그 당시는 옛날에 은절미가 경 잘 안

129) ‘곤친떡’은 흰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130) ‘조친떡’은 줍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해. 그 뭐인가 그 기름떡은 헛주, 기름떡.(인절미도 아, 그것도 하기는, 그 당시는 옛날에 인절미가 그렇게 잘 안 해. 그 뭐인가 그 기름떡은 했지, 기름떡.)

103046 @2 기름떡.(기름떡.)

103046 #1 동글랑헌 거 기름에 지저근에.(동그란 거 기름에 지저서.)

103046 @2 예, 예.(예, 예.)

103046 #1 그거 허고 또 옛날에 과줄이란 것도 잇었주.(그거 하고 또 옛날에 과줄이란 것도 잇었지.)

103046 @2 예, 예.(예, 예.)

103046 #1 이 밀가루 나기 전에. 밀가루는 이제 해방 후에사 뭐.(이 밀가루 나기 전에. 밀가루는 이제 해방 후에야 뭐.)

103046 @2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3046 #1 미국에서 들어오난 헛주만. 게난 그 뭐인가 재래, 재래 우리밀로도 상화떡을 헛주.(미국에서 들어오니까 했지만. 그러니까 그 뭐인가 재래, 재래 우리밀로도 상화떡을 했지.)

103046 @2 예.(예.)

103046 #1 상화떡을 허고 또 이 과줄이라는 게 잇어.(상화떡을 하고 또 과줄이라는 게 잇어.)

103046 @2 예.(예.)

103046 #1 지금도이 서귀포서 막 푸는 모양인데. 그것도 우리 여기서 흐는 사람이 잇어났어. 과질이, 전문으로.(지금도 서귀포에서 많이 파는 모양인데. 그것도 우리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잇었어. 과줄이, 전문으로.)

103046 @2 아, 한동에도예?(아, 한동에도요?)

103046 #1 으, 한동에. 요디 살단 할망이 헤낫는다. 겐 과질도 행 올리고 헤낫주.(으, 한동에. 요기 살던 할머니가 했었는데. 그래서 과줄도 해서 올리고 했었지.)

103046 @2 그 과질은 언제 해근에 올린 것과?(그 과줄은 언제 해서 올린 겁니까?)

103046 #1 거 제사 때.(거 제사 때.)

103046 @2 제사 때 과질을 해서예?(제사 때 과줄을 했어요?)

103046 #1 으, 과질을. 제사 때 허고 또 다시 이제 멩일 때도 허고.(으, 과줄을. 제사 때 하고 또 다시 이제 멩일 때도 하고.)

103046 @2 멩일 때도 허고. 게민 과질 허게 돼민 과질은 무신 거로 멘들안마씨?(멩일 때도 하고. 그럼 과줄 하게 되면 과줄은 무슨 거로 만들었어요?)

103046 #1 과질 그것이, 그 재료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거.(과줄 그것이, 그 재료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거.)

103046 @2 모르는데 멘 바깳디는 산뒤 틱와근에?(모르는데 맨 밖에는 밭벼 튀겨서?)

103046 #1 으. 그디 부쨌근에가.(으. 거기 붙여서.)

103046 @2 그디 부짱 헛잖아예?(거기 붙여서 헛잖아요?)

103046 #1 으.(으.)

103047 @2 예, 예. 그런 거 할 때도 산뒤 허고. 산뒤찍은 주로 어떤 데 썬수과?(예, 예. 그런 거 할 때도 받벼 하고. 받벼짚은 주로 어떤 데 썬습니까?)

103047 #1 산뒤짚은 멍석을, 저 멍석을 줄아야 돼고.(받벼짚은 멍석을, 저 멍석을 걸어야 되고.)

103047 @2 예.(예.)

103047 #1 맥, 맥도 줄아야 돼고.(떡, 떡도 걸어야 되고.)

103047 @2 예.(예.)

103047 #1 또 이제 그 짚세기를 뒤인가 초신을 삼아 신어야 돼고.(또 이제 그 짚신을 뒤인가 짚신을 삼아 신어야 되고.)

103047 @2 예, 짚세기도 허고예?(예, 짚신도 하고요?)

103047 #1 게고 이 산뒤짚으로 행 베도, 베.(그리고 이 받벼짚으로 해서 참바도, 참바.)

103047 @2 베예. 베는 드린덴 험니까?(참바요. 참바는 드린다고 험니까?)

103047 #1 베는 드리는, 드리는 건 물 허는 거. 물이나 쉼 허는 거는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참바는 드리는, 드리는 건 말 하는 거. 말이나 소 하는 거는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

103047 @2 예.(예.)

103047 #1 이젠 물허벅 거튼 거, 지는 것은 거 드리면 이디가 막 곱아지주게. 이디가 아파 딱딱해 부난.(이젠 물허벅 같은 거, 지는 것은 거 드리면 여기가 마구 갈려. 여기가 아파 딱딱해 버려서.)

103047 @2 예.(예.)

103047 #1 게난 거 산뒤짚을 좀 잘 뒤인가 정성 들영 허면은 안 곱아지주게. 이디가 아프질 안허여. 부각부각¹³¹⁾ 헤영.(그러니까 거 받벼짚을 좀 잘 뒤인가 정성 들여서 하면 안 갈리지. 여기가 아프질 않아. ‘부각부각’ 해서.)

103047 @2 아, 그러면 그건 산뒤찍으로 허는 건 뭘 헌덴 험니까, 끈덴 험니까?(아, 그러면 그건 받벼짚으로 하는 건 뭘 한다고 험니까, 끈다고 험니까?)

103047 #1 으, 으. 산뒤찍을 꼬아근에 베.(으, 으. 받벼짚은 꼬아서 참바.)

103047 @2 베 허는 거고.(참바 하는 거고.)

103047 #1 경허고 또이 산뒤짚으로 주로이 이제 당주, 당아. 머리 당듯이 그렇게 납작허게. 경허면은 이디가 거시기, 거시기 저 녁적허니까 이디가 한결힐 거 아니라?(그리고 또 받벼짚으로 주로 이제 땅지, 땅아. 머리 땅듯이 그렇게 납작허게. 그러면 여기가 거시기, 거시기 저 납작하니까 여기가 한가할 거 아니야?)

103047 @2 게민 그 베 짜는 거를 것도 당는덴 험니까?(그럼 참바 짜는 거를 것

131) ‘부각부각’은 무엇이 부풀어 오른 모습을 나타낸 말로, 여기서는 받벼짚을 꼬아 만든 참바가 폭신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도 땅는다고 합니까?)

103047 #1 으, 으.(으, 으.)

103047 @2 베 닿아근에 만든덴 헤예?(참바 땅아서 만든다고 해요?)

103047 #1 으, 베 닿앙.(으, 참바 땅아서.)

103047 @2 그거는 무슨 베 험니까?(그거는 무슨 참바 합니까?)

103047 #1 건 뒤 대개 물, 물허벅¹³²⁾을 그걸로 만이 헛주.(그래서 뒤 대개 물, ‘물허벅’을 그걸 많이 헛지.)

103047 @2 아, 머리 닿는 것처럼.(아, 머리 닿는 것처럼.)

103047 #1 으. 머리 닿는 것처럼 경 헤 가지고.(으. 머리 닿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103047 @2 예, 예. 그다음에 경허고 삼촌이 산디 하영 갈아났수과?(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 삼촌이 밭벼 많이 갈았었습니까?)

103047 #1 하영 갈아났주. 여긴 막 하영덜 갈아났어.(많이 갈았었지. 여긴 아주 많이들 갈았었어.)

103047 @2 아, 산디 이 동넨 하영 갈았구나예?(아, 밭벼 이 동넨 많이 갈았군요?)

103047 #1 으, 산뒤 믱물이 최고 막 만이 갈아났주. 조보단도.(으, 밭벼 메밀이 최고 아주 많이 갈았었지. 조보단도.)

103048 @2 조보단도. 그믄 그 산뒤 농서헛 때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 같은 것도 이시크라예?(조보단도. 그럼 그 밭벼 농사할 때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 같은 것도 있겠네요?)

103048 #1 추억 같은 것은 산뒤가 하도 귀헤노니까 그 뭐인가 그 밥 먹기 실프, 아팜 헤난 때도 그거 헤근에 먹고. 어디 일허당 고단허면은 집이 할망¹³³⁾이 지름밥 해주면 몸이 화끈하게 풀리고. 그게 최고 보약이랏주, 제주도에선.(추억 같은 것은 밭벼가 너무 귀하니까 그 뭐인가 그 밥 먹기 싫어, 아파서 헛던 때도 그거 해서 먹고. 어디 일하다가 고단하면 집의 할머니가 기름밥 해주면 몸이 화끈하게 풀리고. 그게 최고 보약이었지, 제주도에선.)

103048 @2 옛날에예. 아. 게난 이것도 동네마다 트나예?(옛날에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동네마다 다르지요?)

103048 @1 기름 내는 날 먹어난 거 기억남수다. 기름 내는 날은 지름밥을.(기름 내는 날 먹었던 거 기억납니다. 기름 내는 날은 기름밥을.)

103048 #1 으, 지름밥 헛 먹엇주.(으, 기름밥 해서 먹엇지.)

고구마 농사

103049 @1 오늘은 감저 농서, 감저 농서 헤난 거 물어보쿠다.(오늘은 고구마 농

132) ‘물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쓰는 허벅이다.

133) ‘할망’은 표준어로 ‘할머니’다. 여기서는 아내를 가리킨다.

사, 고구마 농사 했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103049 #1 으, 감저.(으, 고구마.)

103049 @1 감저 농사 짓젠 허면은 뭐부터 준비헙니까?(고구마 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부터 준비헙니까?)

103049 #1 우선 밭을 초벌 갈아야지, 감저 놓을[놀] 걸.(우선 밭을 초벌 갈아야지, 고구마 놓을 걸.)

103049 @1 감저 놓을[놀] 거예?(고구마 놓을 거요?)

103049 #1 초벌 갈고 그 뭐인가 감저를 모종을 놔야 웬다. 그 종자를.(초벌 갈고 그 뭐인가 고구마 모종을 놔야 된다. 그 종자를.)

103049 @1 예, 예.(예, 예.)

103049 #1 종자를 감저 놓기 전에 그것이 혼 양력 3월 말일 경에 저 감저를 갖 다근에 종자 감저를, 씨 감저를 영 놔야 돼주게. 게난 그 감자 순이 커야 그걸 비여 근에가 그 고구마, 여기 보통 감저, 감저 헨 게 고구마를 말헌다.(종자를 고구마 놓기 전에 그것이 한 양력 3월 말일 경에 저 고구마를 갖다가 종자 고구마를, 씨 고구마를 이렇게 놔야 되지. 그러니까 그 고구마 순이 커야 그걸 베여서 그 고구마, 여기 보통 ‘감저’, ‘감저’ 하는 게 고구마를 말한다.)

103049 @1 예.(예.)

103049 #1 게난 주로 이제사 지슬감저, 저 거시기 감저엔 헨 거 허는디 옛날은 저런 거 안 해낫주게. 옛날엔 고구마만 해서. 그것이라 감저, 감저엔 헛주.(그러니까 주로 이제야 감자, 저 거시기 감자라고 하는 거 하는데 옛날은 저런 거 안 했었지. 옛날엔 고구마만 했어. 그것보고 ‘감저’, ‘감저’라고 했지.)

103049 @1 고구마를예?(고구마를요?)

103049 #1 으. 게난 고구마렌 씨야 웰 거 아니가, 그던?(으. 그러니까 고구마라고 씨야 될 거 아니냐, 거긴?)

103049 @1 게난 3월 말에?(그러니까 3월 말에?)

103049 #1 3월 말 경에 종자를 놔 가지고 그걸 키와 가지고.(3월 말 경에 종자를 놔 가지고 그걸 키워 가지고.)

103049 @1 예.(예.)

103050 #1 유월, 양력 유월달에 그걸 파종을 헛저.(유월, 양력 유월에 그걸 파종을 헛저.)

103050 @1 아, 유월달에 파종을 해?(아, 유월에 파종을 해?)

103050 #1 으. 감저는 놓넨 헨다. 그 줄 해다가.(으. 고구마는 놓는다고 한다. 그 줄 해다가.)

103050 @1 줄 해다가.(줄 해다가.)

103050 #1 으, 줄 해당 그차근에가 밧디 파종을.(으, 줄 해당 끊어서 밭에 파종을.)

103050 @1 게난 모종 심는 거부터 감저 줄 놓는 것까지 쪽 곱아줍서. 모종 심

젠 허면은?(그러니까 모종 심는 거부터 고구마 줄 놓는 것까지 쪽 말해주세요. 모종 심으려고 하면?)

103051 #1 모종을 심젠 허면은이 거기 걸름도 만이 놓아야 돼이. 쉼걸름도, 쉼 걸름 놔도 돼고 돛걸름 놔도 돼고 그렇게 걸름덜 만이 놔 가지고이 경해야 종자가 감저를 모종 놓면은 그 뭐인가 순이 막 만이 난다. 잘 나고 막 질게.(모종을 심으려고 하면 거기 거름도 많이 놓아야 돼. 쇠두엄도, 쇠두엄 놔도 되고 돼지거름 놔도 되고 그렇게 거름들 많이 놔 가지고 그래야 종자가 고구마를 모종 놓으면 그 뭐인가 순이 아주 많이 난다. 잘 나고 아주 길게.)

103051 @1 걸름 놔사예?(거름 놔야요?)

103051 #1 으. 걸름 안 놓민 안 크주게, 종자가.(으. 거름 안 놓으면 안 크지, 종자가.)

103051 @1 으.(으.)

103052 #1 줄이.(줄이.)

103052 @1 으, 줄이. 유월달에 밭 갈 때는?(으, 줄이. 유월에 밭 갈 때는?)

103052 #1 게니까 혼 유월 혼 초순에 초벌 갈았다근에가 게난 약을 쳐야 돼. 요새 제초제이. 옛날엔 제초제 벗어나부난 제초제 안 쳤주만은.(그러니까 한 유월 한 초순에 초벌 갈았다가 그러니까 약을 쳐야 돼. 요새 제초제. 옛날엔 제초제가 없으니까 제초제 안 쳤지만.)

103052 @1 게난 옛날 걸로, 지금 거 말고.(그러니까 옛날 걸로, 지금 거 말고.)

103052 #1 으, 게메. 초벌을, 거 유월 초에 초벌을 갈아 가지고서이 갈아 가지고서 또 다시 감저 놓젠 허민 두벌을 갈아야 돼. 감저 놓을[놀] 때 또다시 갈아 가지고 이제 그 감저 놓는 거, 줄 비어다가.(으, 글썸. 초벌을, 거 유월 초에 초벌을 갈아 가지고서 갈아 가지고서 또 다시 고구마 놓으려고 하면 두벌을 갈아야 돼. 고구마 놓을 때 또다시 갈아 가지고 이제 그 고구마 놓는 거, 줄 베어다가.)

103052 @1 게민 초순 때 먼저 밭을.(그럼 초순 때 먼저 밭을.)

103052 #1 으, 초벌 같고.(으, 초벌 같고.)

103052 @1 갈아 놔서.(갈아 놔서.)

103052 #1 갈아 놔서 또 줄을 다 키워 줄을 비어당 놓젠 허면은 놓는[노는] 삼일, 이틀 전에 밭을 또 갈아야 돼. 경해근에 두벌 가는 거지 밭을.(갈아 놔서 또 줄을 다 키워서 줄을 베어다가 놓으려고 하면 놓는 삼일, 이틀 전에 밭을 또 갈아야 돼. 그래서 두벌 가는 거지 밭을.)

103052 @1 으.(으.)

103052 #1 초벌 같고 감저 저 뭐인가 심을, 싱글 때 그 또 갈아근에가 놓는 거 감저 줄을.(초벌 같고 고구마 저 뭐인가 심을, 심을 때 그 또 갈아서 놓는 거 고구마 줄을.)

103051 @1 게민 감저 밭디 거름 놓을[놀] 때.(그럼 고구마 밭에 거름 놓을 때.)

103051 #1 감저 거름은 안 낫져, 거름은. 감저 종자 헐 때만.(고구마 거름은 안

왔지, 거름은. 고구마 종자 할 때만.)

103051 @1 아, 종자 헐 때만.(아, 종자 할 때만.)

103051 #1 감저 씨 놓을[놀] 때만 감저 씨 놓을[놀] 때만 거름을 해 가지고서 그, 그 저 감저 순을 만이 키울라고 거름을 낫저. 기자 밧디는이 걸름을 잘 안 낫저. 그 감저 밧디 놓을[놀] 걸름이 엇어.(고구마 씨 놓을 때만 고구마 씨 놓을 때만 거름을 해 가지고서 그, 그 저 고구마 순을 많이 키우려고 거름을 낫어. 그저 밧에는 거름을 잘 안 낫어. 그 고구마 밧에 놓을 거름이 없어.)

103051 @1 엇어.(없어.)

103051 #1 옛날은 조, 보리 거튼 거 뭐 그거 허젠 허민.(옛날은 조, 보리 같은 거 뭐 그거 하려고 하면.)

103051 @1 예. 감저 밧디 감저 놓을 때, 줄 놓을 때?(예. 고구마 밧에 고구마 놓을 때, 줄 놓을 때?)

103051 #1 으. 감저 씨, 종자 놓을 때 그때는 걸름을 만이 낫, 췌걸름이나 돛걸름이나.(으. 고구마 씨, 종자 놓을 때 그때는 거름을 많이 낫, 쇠두엄이나 돼지거름이나.)

103051 @1 아, 췌걸름이나 돛걸름이나. 뿌렁 밧 가는 거마씨? 아니면 밧 갈아 낱 걸름을 놓는 거?(아, 쇠두엄이나 돼지거름이나. 뿌려서 밧 가는 거요? 아니면 밧 갈아 낫서 거름을 놓는 거?)

103051 #1 아니, 밧 갈아 낱 걸름을 그 고랑더레.(아니, 밧 갈아 낫서 거름을 그 고랑에.)

103051 @1 예.(예.)

103051 #1 고랑더레 걸름을 낫나근에가 흑 영 묻영 감저 쪽 허게 낱 영 더뜨는 거.(고랑에 거름을 놓고나서 흑 이렇게 묻어서 고구마 쪽 하게 낫서 이렇게 덮는 거.)

103051 @1 아, 걸름 낱?(아, 거름 낫?)

103051 #1 으.(으.)

103051 @1 감자 낱 더퍼 부는 거라예?(고구마 낫서 덮어 버리는 거지요?)

103051 #1 으, 으.(으, 으.)

103052 @1 예. 경 줄 비어당 심을 때는 어떻 헤마씨?(예. 그렇게 줄 베어다가 심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3052 #1 계난 그 줄, 그것을 밧에 강 놓젠 허면은 종자를, 줄을 비어다근에가 이.(그러니까 그 줄, 그것을 밧에 가서 놓으려고 하면 종자를, 줄을 베어다가.)

103052 @1 으.(으.)

103052 #1 그 지영 가야 돼여. 지영 가야 돼고. 지게로 지영 갈 수도 잇고 뭐, 보통 지영 다녔주, 지영. 옛날 그 감저 줄을 췌로 시경 텅기지 아니헌 게 감저줄을 췌가 막 먹젠 허주. 지게로 지여근에 밧에 강 그 줄을 막 질면은이 그걸로 혼 뽐, 혼 뽐 정도씩 행 끊어 가지고서 파니, 우터레 쪽 허게 놓나.(그 지고 가야 돼. 지고

가야 되고. 지게로 저서 갈 수도 있고 뭐, 보통 지고 다녔지, 저서. 옛날 그 고구마 줄을 소로 실어서 다니지 않은 게 고구마줄을 소가 마구 먹으려고 하지. 지게로 지어서 밭에 가서 그 줄을 아주 길면 그걸로 한 뺨, 한 뺨 정도씩 해서 끊어 가지고 이랑, 위로 쪽 하게 놓아.)

103052 @1 우이를 파니렌 험니까?(위를 ‘파니’라고 합니까?)

103052 #1 으, 우이를 파니엔.(으, 위를 ‘파니’라고.)

103052 @1 우이를 파니렌 허고.(위를 이랑이라고 하고.)

103052 #1 그 고랑진 걸 그 고랑이엔 허고.(그 고랑진 걸 그 고랑이라고 하고.)

103052 @1 고랑이엔 허고 우이를 파니렌 허고.(고랑이라고 하고 위를 이랑이라고 하고.)

103052 #1 으, 파니.(으, 이랑.)

103052 @1 밭 갈양 파니 우에.(밭 갈아서 이랑 위에.)

103052 #1 파니, 우에 것을.(이랑, 위에 것을.)

103052 @1 아, 간격은 얼마나 헤?(아, 간격은 얼마나 헤?)

103052 #1 간격은 아무튼 간격은 바짝 부짱 놓는다.(간격은 아무튼 간격은 바짝 붙여서 놓는다.)

103052 @1 바짝 부짱.(바짝 붙여서.)

103052 #1 혼 오 센치나 십 센치 떨어질 정도로 헤근에 쪽 허게 다 심어간다. 감저 줄을 다 심는 거.(한 오 센치나 십 센치 떨어질 정도로 해서 쪽 하게 다 심어간다. 고구마 줄을 다 심는 거.)

103053 @1 감저 밧디 검질뻘니까?(고구마 밭에 김뻘니까?)

103053 #1 으?

103053 @1 몇 번이나?(몇 번이나?)

103053 #1 혼 번 정도 맨다.(한 번 정도 맨다.)

103053 @1 스끄는 건 엇고예?(슈는 건 없고요?)

103053 #1 감저는 스끄는 거 엇고.(고구마는 슈는 거 없고.)

103055 @1 고구마 수확할 때 어떻 허는지 알아줍서.(고구마 수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103055 #1 고구마 수확할 때 그것이 팔월 말에 수확하는데 그 팔월 말 내지 구월 초순에. 양력으로 구월 초순에.(고구마 수확할 때 그것이 팔월 말에 수확하는데 그 팔월 말 내지 구월 초순에. 양력으로 구월 초순에.)

103055 @1 예, 예.(예, 예.)

103055 #1 게난 그거 허젠 허민 감저 줄이 막 옛날 감저 줄은이 밧을 다 더퍼진다.(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고구마 줄이 아주 옛날 고구마 줄은 밧을 다 덮인다.)

103055 @1 으.(으.)

103055 #1 다 더퍼지기 때문에 우선 감저 줄을 비어나야 된다. 감저 파기 전에.

내일 감저 파게 돼민 오늘은 감저 줄을 걷어야 돼여.(다 덮이기 때문에 우선 고구마 줄을 베어줘야 된다. 고구마 파기 전에. 내일 고구마 파게 되면 오늘은 고구마 줄을 걷어야 돼.)

103055 @1 으.(으.)

103055 #1 감저 줄을 다 호미로이 뽕 돌글랑허게 그치면서 말야, 그렇게 다 걷어야 된다. 감저 줄을 걷은 다음에 게서 감저를 파는 거라, 글쟁이로.(고구마 줄을 다 호미로 빙 동그랗게 끊으면서 말야, 그렇게 다 걷어야 된다. 고구마 줄을 걷은 다음에, 그래서 고구마를 파는 거야, 호미로.)

103055 @1 글쟁이로. 수눌영, 수눌영덜 험니까?(호미로. 품앗이해서, 품앗이들 합니까?)

103055 #1 아, 수눌영도 허고 이녁 식구 이신 사름은 이녁만도 허고 그런다. 수눌영덜 허주 동네 사름들 혼 두세 사름씩.(아, 품앗이해서도 하고 자기 식구 있는 사름은 자기만도 하고 그런다. 품앗이해서들 하지 동네 사름들 한 두세 사름씩.)

103055 @1 줄 먼저 베여 낵?(줄 먼저 베어 놔서?)

103055 #1 으, 줄 다 걷어 낵.(으, 줄 다 걷어 놔서.)

103055 @1 줄 걷어 낵.(줄 걷어 놔서.)

103055 #1 으, 줄 걷는덴 험다.(으, 줄 걷는다고 한다.)

103055 @1 줄 걷는 거는 뭐로 허고?(줄 걷는 거는 뭐로 하고?)

103055 #1 호미로 걷는 거.(낵으로 걷는 거.)

103055 @1 호미.(낵.)

103055 #1 손으로 영 험. 게난 또이 쉼스랑 잊지 안허냐이?(손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또 쇠스랑 잊지 않니?)

103055 @1 예, 예.(예, 예.)

103055 #1 쉼스랑으로 혼 사름이 땡기는 양 걸음도 허고 경험다.(쇠스랑으로 한 사름이 당기는 양 걸기도 하고 그런다.)

103055 @1 예. 경험 팔 때는 글쟁이로?(예. 그렇게 팔 때는 호미로?)

103055 #1 으, 글쟁이로. 파니 우이 앗앙 글쟁이로. 파니 우이 앗앙. 혼 사름이 혼 파니씩 앗아 가지고.(으, 호미로. 이랑 위에 앗아서 호미로. 이랑 위에 앗아서. 한 사름이 한 이랑씩 앗아 가지고.)

103056 @1 으, 혼 파니씩 앗아 가지고. 그 감자 파시민 이제 감저 놀 놀 거 아니과?(으, 한 이랑씩 앗아 가지고. 그 고구마 파면 이제 고구마 가리 가릴 거 아넵니까?)

103056 #1 으, 감저 놀.(으, 고구마 가리.)

103056 @1 어떻 험니까?(어떻게 합니까?)

103056 #1 게난 그때에 이제 종자허고이 그 겨울에, 겨울에 썬 먹을 거 집이 헤당 놀 눈다. 놀 누는 건이 땅을 파근에 땅을 막 지프게 파 가지고이 게서 그 조침을 엠에 빙 허게 판 디, 동그렁허게 팔 거 아니가이?(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종자하

고 그 겨울에, 겨울에 썬 먹을 거 집에 해다가 가리 가린다. 가리 가리는 건 땅을 파서 땅을 아주 깊게 파 가지고 그래서 그 조짚을 옆에 빙 하게 판 데, 동그랗게 팔 거 아니냐?)

103056 @1 예.(예.)

103056 #1 동그랗게 파면은 흑 에엄더레 영 조칩 같은 거 쪽 허게 거 흑 들어가지 못허게이.(동그랗게 파면 흙 옆으로 이렇게 조짚 같은 거 쪽 하게 거 흑 들어가지 못하게.)

103056 @1 예.(예.)

103056 #1 짝 페우라 가지고서 그 가운데에 감절 막 놀 거 아니가이? 감절 막 담아.(짝 퍼 가지고서 그 가운데에 고구말 마구 놓을 거 아니냐? 고구말 마구 담아.)

103056 @1 조칩 밑에도 깔고?(조짚 밑에도 깔고?)

103056 #1 으, 밑에도 깔고 밑에도 깔고 윗이 흑 들어가지 못허게 쪽 허게 빵 돌아가명 세와 놔 가지고서 가운데 감저 놔 가지고 윗으로 흑을 이렇게 더퍼서 동그랗게 산식으로 동그랗게 봉분식으로 해 가지고서 위에는 그 느람쥐란 게 있저, 느람쥐.(으, 밑에도 깔고 밑에도 깔고 옆에 흙 들어가지 못하게 쪽 하게 빵 돌아가면서 세워 놔 가지고서 가운데 고구마 놔 가지고 윗으로 흑을 이렇게 덮어서 동그랗게 산식으로 동그랗게 봉분식으로 해 가지고서 위에는 그 이엉이란 게 있어, 이엉.)

103056 @1 느람쥐, 예.(이엉, 예.)

103056 #1 으. 느람쥐에 해 가지고서 겨울에는 느람쥐에 주쟁일 해 가지고서 비 방지행 건 겨울에 뒤인가 이제 떡곡 새해 봄에 종자허고 그 남은 것은 전부 다 절간¹³⁴을 헛주, 절간.(으. 이엉에 해 가지고서 겨울에는 이엉에 주저리 해 가지고서 비 방지해서 건 겨울에 뒤인가 이제 떡고 새해 봄에 종자하고 그 남은 것은 전부 다 절간고구마를 헛지, 절간고구마.)

103057 @1 절간한다는 게 뭐과?(절간한다는 게 뭡니까?)

103057 #1 감저를 썰어 가지고서이 바쳐주, 바쳐서. 국가에서 다 수매행 간.(고구마를 썰어 가지고서 바쳤지, 바쳤어. 국가에서 다 수매해서 갔어.)

103057 @1 그럼 뺏데기 만들었다는 거?(그럼 절간고구마를 만들었다는 거?)

103057 #1 으, 뺏데기.(으, 절간고구마.)

103057 @1 만들양 팔앗던 거잖아예?(만들어서 팔앗던 거잖아요?)

103057 #1 으, 뺏데기.(으, 절간고구마.)

103057 @1 감자 뺏데기 만드는 건 수확할 때 감자 갈명 널영 뺏데기 만드는 거 아니?(고구마 절간고구마 만드는 건 수확할 때 고구마 갈면서 널어서 절간고구마를 만드는 거 아니?)

103057 #1 겨울 밧데서 헛저, 밧데서. 그 저 뺏데기 허는 건 밧데서, 그 저 기계

134) '절간'은 '절간고구마'를 말한다.

가 있져. 감저 ㄴ는, 뺏테기 허는 기계.(겨울 밭에서 했어, 밭에서. 그 저 절간고구마 하는 건 밭에서, 그 저 기계가 있어. 고구마 가는, 절간고구마 하는 기계.)

103057 @1 예.(예.)

103057 #1 그걸로 해 가지고서 밭데, 펜펜헌 밭은 밭데 놓고 여유 잇는 사람은 집이 오랑 집 가까운 디 왕 썰엿 넣고 그추룩 헛져.(그걸로 해 가지고서 밭에, 편편한 밭은 밭에 가리고 여유 잇는 사람은 집에 와서 집 가까운 데 와서 썰어서 넣고 그처럼 했지.)

103057 @1 계난 놀 놀어놔 그 뺏테기 헨 먹기도 허고예?(그러니까 가리 가려놔다가 그 절간고구마 해서 먹기도 하고요?)

103057 #1 으, 아니 이 뺏테긴 그냥 바치는 거.(으, 아니 이 절간고구마 그냥 바치는 거.)

103057 @1 바치는 거?(바치는 거?)

103057 #1 으, 계난 놀 누는 건 겨울에 청 먹고 남은 거 봄에 종자로 씨 감저로 허는 거.(으, 그러니까 가리 가리는 건 겨울에 찌서 먹고 남은 거 봄에 종자로 씨 고구마로 하는 거.)

103057 @1 계민 겨울에 거 먹젠 허민 어떻 꺼내여?(그럼 겨울에 거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꺼내?)

103057 #1 아, 계난 그 우에이 이렇게 조침으로 영 못아시네이. 글로이 사람 손 들어가게 뺑 허게 짜 잇져.(아,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조침으로 이렇게 모았네. 그리로 사람 손 들어가게 뺑 하게 짜 있어.)

103057 @1 예.(예.)

103057 #1 주둥이 거치 영 멘들아 낱.(주둥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놔서.)

103057 @1 계민 그 손 들어가는 부분을 뭐렌 겁니까?(그럼 그 손 들어가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103057 #1 거, 거 뭐인가 구덩이 주둥이.(거, 거 뭐인가 구덩이 주둥이.)

103057 @1 주둥이렌 해?(주둥이라고 해?)

103057 #1 어, 어.(어, 어.)

103057 @1 구덩이, 구덩이 감저 구덩이?(구덩이, 구덩이 고구마 구덩이?)

103057 #1 으, 감저 구덩이.(으, 고구마 구덩이.)

103057 @1 감저 구덩이렌 헐 거예?(고구마 구덩이라고 할 거요?)

103057 #1 감저 구덩이, 감저 구덩이 주쟁일 씨우는 디 그걸 확. 감저 구덩이엔 허민 쯤다.(고구마 구덩이, 고구마 구덩이 주저리 씨우는 데 그걸 확. 고구마 구덩이라고 하면 쯤다.)

103057 @1 계민 어쨌든 먹고 씨도 해당 남으면 절간고구마를?(그럼 어쨌든 먹고 씨도 하다가 남으면 절간고구마를?)

103057 #1 아, 절간고구마는 미리 다 허는 거. 절간고구마는 그 가을에 해야만 잘 돌르거든. 가을에 뺏이 잘 나니까.(아, 절간고구마는 미리 다 하는 거. 절간고구

마는 그 가을에 해야만 잘 마르거든. 가을에 벌이 잘 나니까.)

103057 @1 예, 예.(예, 예.)

103057 #1 겐 전량 해 가지고 전부 이제는 수매해 갖져, 정부에서. 계난 그걸로 돈을 만이 용돈을 썼지.(그래서 전량 해 가지고 전부 이제는 수매해 갖져,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많이 용돈을 썼지.)

103057 @1 게민 뺏데기는 밧디 다 넣어?(그럼 절간고구마는 밧에 다 넣어?)

103057 #1 으. 넣엉 다 거뒤당 들랑 다 가마니에 담양 낫당 판매할 적에는 공동으로 강 판매허는 거, 조합으로 다 받아낫주.(으. 넣어서 다 거뒤다가 말려서 다 가마니에 담아서 낫다가 판매할 적에는 공동으로 가서 판매하는 거, 조합으로 다 받았었지.)

103057 @1 겐 삼촌네 집도 감저 막 하영 헛수과?(그래서 삼촌네 집도 고구마 아주 많이 헛습니까?)

103057 #1 으, 그때는 만이 해세. 경 안 허민 돈 날 디가 엇주게. 집집마다 건 감자덜 만이 헛저.(으, 그때는 많이 헛어. 그렇게 안 하면 돈 나올 데가 없지. 집집마다 건 고구마들 많이 헛어.)

103059 @1 만이 해서마씨? 감저 농서지으멍 기억나는 거 혹시 잇수과?(많이 헛어요? 고구마 농사지으면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103059 #1 아니, 뭐 기억나는 건, 집집마다 다 허는 거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아니, 뭐 기억나는 건, 집집마다 다 하는 거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기타 농사

103060 @1 예. 수박 농사 헛수과? 수박 농사?(예. 수박 농사 헛습니까? 수박 농사?)

103060 #1 수박 농사도 요 중간에 만이 해낫저. 이 상종이네 누구네도 만이 거 세기, 영길이네 수박덜 만이 낫난. 저디로 느네 봉효네도 다 수박 낫낫저.(수박 농사도 요 중간에 많이 헛었어. 이 상종이네 누구네도 많이 거시기, 영길이네 수박들 많이 낫았어. 저기로 너희 봉효네도 다 수박 낫았어.)

103060 @1 예, 예.(예, 예.)

103060 #1 상숙이 아방네 막 해 가지고 막 서귀포까지 가 가지고 풀고 해낫저.(상숙이 아버지네 많이 해 가지고 마구 서귀포까지 가 가지고 팔고 헛었어.)

103060 @1 수박 농서지을 때 어떻 허는지 글아줍서.(수박 농사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103060 #1 저 수박은. 수박도 지금으로부터 나는 거, 지금이 한 오월 경, 스월 말일에 저거 놓기 시작한다. 오월 초로구나, 오월 초.(저 수박은. 수박도 지금으로부터 나는 거, 지금이 한 오월 경, 사월 말일에 저거 놓기 시작한다. 오월 초로구나. 오월 초.)

103060 @1 양력예?(양력요?)

103060 #1 으, 양력. 오월 초 해 가지고서 수박 놔 가지고서 수박을 놓을[놓] 때는 비료를 많이 놔야 돼. 그때는 옛날은 이제 거치 뭐 비료가 많이 었어 부난 그 똥 좇어다가 수박은 똥 좇어다가 그걸 다 슬아 가지고서 새로 많이 놓고. 경 안 허민 똥도 그자 놓고 그렇게 했지.(으, 양력. 오월 초 해 가지고서 수박 놔 가지고서 수박을 놓을 때는 비료를 많이 놔야 돼. 그때는 옛날은 이제 같이 뭐 비료가 많이 었어 버리니까 그 똥 주워다가 수박은 똥 주워다가 그걸 다 살라가지고 새로 많이 놓고. 그렇게 안 하면 똥도 그저 놓고 그렇게 했어.)

103060 @1 아, 똥 슬양 새로 해여?(아, 똥 살라서 새로 해서?)

103060 #1 으, 또 이 소결름도 놓고 똥결름도 놓고.(으, 또 이 소두엄도 놓고 돼지거름도 놓고.)

103060 @1 으, 으.(으, 으.)

103060 #1 경혜근애가, 경헨 구덩이, 수박을 놓젠 허민 구덩일 파야 돼.(그래서, 그래서 구덩이, 수박을 놓으려고 하면 구덩일 파야 돼.)

103060 @1 예, 예.(예, 예.)

103060 #1 동글랑, 동글랑허게 이 앞쪽에 구덩일 팡 그 똥비, 걸름을 놔 가지고 이 그 걸름 우터래 흙을 더플 거 아니냐?(동글, 동글게 이 앞쪽에 구덩일 파서 그 똥비, 거름을 놔 가지고 그 거름 위로 흙을 덮을 거 아니니?)

103060 @1 예.(예.)

103060 #1 그 우에 저 수박씨를 파종해 가지고서 그 나면은 걸 소까 줘야 돼. 거 일정허게끔이.(그 위에 저 수박씨를 파종해 가지고서 그 나면 걸 속아 줘야 돼. 거 일정허게끔.)

103060 @1 아.(아.)

103060 #1 게니까 혼 못에 세 개 정도 영 념긴다, 보통. 보통 세 개.(그러니까 한 못에 세 개 정도 이렇게 념긴다, 보통. 보통 세 개.)

103060 @1 그럼 수박 싱글 때도 파니 잇곡?(그럼 수박 심을 때도 이랑 잇고?)

103060 #1 아니, 그건 파니 었다. 건 그것은 밧 똥똥허게 갈아 가지고서 밧을 쉼로 갈 거 아니냐? 똥똥허게 갈아 가지고서 구덩이에만 구덩이는 혼 밧 간격에 혼 나씩 파 가지고서 쪽 허게.(아니, 그건 이랑 었다. 건 그것은 밧 똥똥허게 갈아 가지고서 밧을 소로 갈 거 아니니? 똥똥허게 갈아 가지고서 구덩이에만 구덩이는 한 밧 간격에 하나씩 파 가지고서 쪽 허게.)

103060 @1 걸름 낱.(거름 놔서.)

103060 #1 걸름 놔 가지고 수박 심어 가지고서 저것이 칠팔월 똥면은 똥인가 커 갈 거 아니라이? 커 가민 옆으로 나는 순들은 잘라주고 길게 번어 가게. 경혜야 수박이 힘차게 올주게.(거름 놔 가지고서 수박 심어 가지고서 저것이 칠팔월 되면 똥인가 커 갈 거 아니니? 커 가면 옆으로 나는 순들은 잘라주고 길게 번어 가게. 그래야 수박이 힘차게 열지.)

103060 @1 아, 게민 검질메는 김에 소끄는 것도 하고?(아, 그럼 김매는 김에 슈

는 것도 하고?)

103060 #1 으, 검질도 메고.(으, 김도 매고.)

103060 @1 메고 소끄는 것도 하고 줄.(매고 슈는 것도 하고 줄.)

103060 #1 줄 질게 나가 가민 옆으로 난 가지틀이 쳐줘야.(줄 길게 나가 가면 옆으로 난 가지틀 쳐줘야.)

103060 @1 가지도 치고, 손 만이 거구나?(가지도 치고 손 많이 거구나?)

103060 #1 으, 손 만이 간다. 밧디 살다시피 한다.(으, 손 많이 간다. 밧에 살다시피 한다.)

103060 @1 아, 살다시피 헛수과? 경헨 열민 따는 거예. 참웨는마씨, 참웨?(아, 살다시피 했습니까? 그래서 열면 따는 거요. 참외는요, 참외?)

103061 #1 참웨도 그때 같이 한다. 수박과 꺾치.(참외도 그때 같이 한다. 수박과 같이.)

103061 @1 꺾튼?(같은?)

103061 #1 으, 꺾튼 시기에.(으, 같은 시기에.)

103061 @1 참웨는 어떻 씨 뿌렁 어떻?(참외는 어떻게 씨 뿌려서 어떻게?)

103061 #1 참웨도 똑꺾트다. 수박 놓은 거 같이 구덩이 파 가지고서이.(참외도 똑같다. 수박 놓는 거 같이 구덩이 파 가지고서.)

103061 @1 으, 으.(으, 으.)

103061 #1 구덩에 파 가지고 거기 걸름 놔 가지고 씨 놔서 이제 씨가 나면은 거기 적당히 흔 못에 두 개 내지 세 개 헨 다른 건 다 뽑아 버리고. 게고이 약도 잘 쳐, 쳐 줘야 돼. 베렁이도 잘 잡아 줘야 되고.(구덩이 파 가지고 거기 거름 놔 가지고 씨 놔서 이제 씨가 나면 거기 적당히 한 못에 두 개 내지 세 개 해서 다른 건 다 뽑아 버리고. 그리고 약도 잘 쳐, 쳐 줘야 돼. 벌레도 잘 잡아 줘야 되고.)

103061 @1 아.(아.)

103061 #1 경 안 허민 그것이 똑 뭐 허게 그런 그 까망헌 그 늠아헨기는 프리 님은 거 있어. 그것이 다 쫄라 먹어 불주게.(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똑 뭐 하게 그런 그 까만 그 날아다니는 파리 님은 거 있어. 그것이 다 잘라 먹어 버리지.)

103061 @1 아.(아.)

103061 #1 게난 처음에 그걸 잡아주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잡아주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

103061 @1 약 칠 때 아니라도 그냥 손으로 영 보멍 구덩이 이시민 잡아 불고? (약 칠 때 아니라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보면서 구덩이 있으면 잡아 버리고?)

103061 #1 으. 수박은 수박은 경 안헌데 이 참웨는 그런 것이 만이 그거, 그런 충이 인다.(으. 수박은 수박은 그렇지 않은데 이 참외는 그런 것이 많이 그거, 그런 충이 인다.)

103061 @1 그럼 수확허는 시기는 같은 거다예?(그럼 수확하는 시기는 같은 거 네요?)

103061 #1 으, 똑 비슷하다. 줌웨가 조금 일르, 일르게 한다. 줌웨가 흔 십오일 정도 수박보다 흔 흔 들 정도주. 줌 일찍. 수박은 줌 늦게 하고.(으, 똑 비슷하다. 참외가 조금 이르, 이르게 한다. 참외가 한 십오일 정도 수박보다 한 한 달 정도지. 줌 일찍. 수박은 줌 늦게 하고.)

103061 @1 게민 참웨나 수박은 무슨 그르에 험니까? 뭐 농사지어난 후에?(그럼 참외나 수박은 무슨 그루에 합니까? 뭐 농사지어난 후에?)

103061 #1 게난 거 겨울에 거 허젠 허면 겨울에 아무 농서도 안 헤영 그냥 내 불엇다근에.(그러니까 거 겨울에 거 하려고 하면 겨울에 아무 농사도 안 해서 그냥 내버렸다가.)

103061 @1 예.(예.)

103061 #1 내불엇당 밧 초불 갈아근에가 허는 거. 겨울에 농서지면 안 돼니까. (내버렸다가 밧 초벌 갈아서 하는 거. 겨울에 농사지으면 안 되니까.)

103061 @1 게니까 겨울 동안에 초불은 갈양 나뉘야 되는 거예?(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초벌은 갈아서 나뉘야 되는 거요?)

103061 #1 으. 봄 나면 초불 갈양 낫당.(으. 봄 되면 초벌 갈아 났다가.)

103062 @1 고추는마씨, 고추?(고추는요, 고추?)

103062 #1 고추는 뭐 별도로 안 해, 고추는이.(고추는 뭐 별도로 안 해, 고추는.)

103062 @1 먹을 것들은?(먹을 것들은?)

103062 #1 먹을 것만 우영에 줌 싱것주, 우영에. 건 그냥 씨 빼여근에이 쉘스렁으로 그냥 영 좃양 내부리면 그거 반찬용으로. 다 우영에만 헛저 밧에 거튼 거 안 하고.(먹을 것만 터알에 줌 심엇지, 터알에. 건 그냥 씨 뿌려서 쇠스랑으로 그냥 이렇게 쪼아서 내버리면 그거 반찬용으로. 다 터알에만 했어, 밧에 같은 거 안 하고.)

103062 @1 안 하고. 저기 집이 먹을 것만?(안 하고. 저기 집에 먹을 것만?)

103062 #1 으, 먹을 것만.(으, 먹을 것만.)

103062 @1 모종해 가지고 따로 안 헛수과?(모종해 가지고 따로 안 헛습니까?)

103062 #1 으, 으.(으, 으.)

103062 @1 씨 뿌렁?(씨 뿌려서?)

103062 #1 씨 뿌렸주. 모종으로 행 읍겨 심진 안헤낫저. 그냥 씨 뿌렁. (씨 뿌렸지. 모종으로 해서 읍겨 심진 았았어. 그냥 씨 뿌려서.)

103062 @1 그런 디도 거름도 하고 험니까?(그런 데도 거름도 하고 합니까?)

103062 #1 거름은 그런 디꺼지 안 헤낫저.(거름은 그런 데까지 안 헛었어.)

103062 @1 안 해예.(안 해요.)

103062 #1 안 헤낫저. 대개 우영에, 집 았은 우영 거튼 디 허니까.(안 헛었어. 대개 터알에, 집 았은 터알 같은 데 하니까.)

103063 @1 예. 배추도 헤낫수과?(예. 배추도 헛었습니까?)

103063 #1 배추 거튼 거 안 헤낫저. 먹을 배추, 승키 배춘 헤낫주게.(배추 같은

거 안 했었어. 먹을 배추, 푸성귀 배춘 했었지.)

103063 @1 먹을 배추.(먹을 배추.)

103063 #1 것도, 것도 우영에.(것도, 것도 터알에.)

103063 @1 우영에.(터알에)

103063 #1 우영에 씨 빼여근에 쉼스렁으로 좇앙 내부리면 그것이 자라면은 툇아 먹고. 겐 옛날은 그걸로 김장은 못 담아났저.(터알에 씨 뿌려서 쇠스랑으로 쪼아서 내버리면 그것이 자라면 뜯어 먹고. 그래서 옛날은 그걸로 김장은 못 담갔었어.)

103063 @1 김장 담지는 못허고.(김장 담그지는 못하고.)

103063 #1 으, 김장 담지 못허고. 김장 담는 배추는 보통 이제 그때 함덕¹³⁵⁾, 주로 함덕이 만이 했는데, 건 장에 가 사당 배추 허는 거 따로 허고 집에서 송기로 먹는 건 그자 우지, 우지왓, 우지왓이엔 한다. 우영팻디 심어근에가.(으, 김장 담그지 못하고. 김장 담그는 배추는 보통 이제 그때 함덕, 주로 함덕에 많이 했는데, 건 장에 가서 사다가 배추 하는 거 따로 하고 집에서 푸성귀로 먹는 건 그저 ‘우지’, ‘우지왓’, ‘우지왓’이라고 한다. 터알에 심어서.)

103063 @1 우영팻을 아까 뭐렌 헛수과?(터알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03063 #1 우지왓이엔도 한다, 우지왓.(‘우지왓’이라고도 한다, ‘우지왓’.)

103063 @1 아, 우지왓.(아, 터알.)

103063 #1 우지왓이엔 헨 건 집 안에 잇는 것을 우지왓이엔 걸 우영이엔도 허고.(‘우지왓’이라고 하는 건 집 안에 잇는 것을 ‘우지왓’이라고 걸 ‘우영’이라고도 하고.)

103063 @1 아, 우지왓이렌도 허고 우영이엔도 허고예?(아, ‘우지왓’이라고도 하고 ‘우영’이라고도 하고요?)

103063 #1 우영이엔도 허고.(‘우영’이라고도 하고.)

103063 @1 예, 김치렌 곶아났수과 옛날말로.(예, 김치라고 말했었습니까, 옛날 말로.)

103063 #1 짐치, 짐치, 짐치엔 헛주.(‘짐치’, ‘짐치’, ‘짐치’라고 했지.)

103063 @1 짐치예. 어쨌든.(김치요. 어쨌든.)

103063 #1 김치엔도 허고 짐치엔도 허고 그거 ㄴ튼 말.(김치라고도 하고 ‘짐치’라고도 하고 그거 같은 말.)

103063 @1 짐치는, 짐치해 먹을 배추는 못 허고.(김치는, 김치해 먹을 배추는 못 하고.)

103063 #1 으.(으.)

103063 @1 예, 함덕 배추 사당 허고.(예, 함덕 배추 사다가 하고.)

103063 #1 함덕 배추 사당.(함덕 배추 사다가.)

103064 @1 무수는마씨? 무우는?(무는요? 무는?)

103064 #1 무우, 무수도 무우는 이제는 헤도 여기는 안 뉘서 옛날엔 송당¹³⁶⁾

135) ‘함덕’은 조천읍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함덕리’를 말한다.

무수, 송당에서 무수가 만이 나니까 송당 무수 플레 오면 사 먹어놔주. 원래 한동 근방은 집집마다 무수를 안 갈아놔져.(무, 무도 무는 이제는 해도 여기는 안 돼서 옛날엔 송당 무, 송당에서 무가 많이 나니까 송당 무 팔러 오면 사 먹었었지. 원래 한동 근방은 집집마다 무를 안 갈았었어.)

103064 @1 으.(으.)

103064 #1 지금은 갈긴 갈지만은 옛날 그때는 안 갈아놔져.(지금은 갈긴 갈지만 옛날 그때는 안 갈았었어.)

103064 @1 게도 배추처럼, 송키처럼 우영빳디 먹을 건 안 갈아놔수과?(그래도 배추처럼, 푸성귀처럼 터알에 먹을 건 안 갈았었습니까?)

103064 #1 먹을 건 약간 헛주, 갈았주게. 먹을 건. 그때는 송당, 송당, 송당 무수엔 해놔주. 송당에서는 잘 돼니까.(먹을 건 약간 헛지, 갈았었지. 먹을 건. 그때는 송당, 송당, 송당 무라고 했었지. 송당에서는 잘 되니까.)

103064 @1 무수가 송당에서 잘 되는 거과?(무가 송당에서 잘 되는 겁니까?)

103064 #1 옛날은 송당에서가.(옛날은 송당에서가.)

103066 @1 혹시 피 농사도 짓어놔수과?(혹시 피 농사도 지었습니까?)

103066 #1 제주돈, 우리 이 해안에는 피가 안 돼었저. 피는이 송당 저 우이 산간 부락에만 헛주.(제도돈, 우리 이 해안에는 피가 안 되었어. 피는 송당 저 위에 산간 부락에만 헛지.)

103066 @1 산간 부락에만예?(산간 부락에만요?)

103066 #1 으, 으.(으, 으.)

103067 @1 믰물, 믰물 농사허는 거 곶아 줍서. 믰물 농사허젠 허민 뉘 준비해야 돼마씨?(메일, 메밀 농사하는 거 말해 주세요. 메밀 농사하려고 하면 뉘 준비해야 돼요?)

103067 #1 거 불치를 준비해야 돼. 불치.(거 재를 준비해야 돼. 재.)

103067 @1 불치예?(재요?)

103067 #1 계난 믰물 농사할 적에는이, 일 년 동안에 이제 그 저 부엌 잇잖어나이? 옛날 그거 뉘인가 솟강알엔 정지엔 해연.(그러니까 메밀 농사할 적에는, 일 년 동안에 이제 그 저 부엌 잇잖아? 옛날 그거 뉘인가 아궁이라고 부엌이라고 했어.)

103067 @1 예.(예.)

103067 #1 정지에 솟에서이 일 년 동안에 그 불치, 찻을 밥을 헐 때 사용허거든. 그걸 불치를 몬아근에가 불치가 막 모여가면은 곶체로 가근에 그 저 뉘인가 불치막¹³⁷⁾이라는 게 딱로 셋저게. 불치 데미는 디. 그 불치 데미는 디 그디 강 쌓양 낫다가 그 믰물 허젠 허면은 그것이 이제 혼 오일 전에, 오일 내지 일주일 전에 믰물을 파종헌다. 파종허면은 그, 믰물 파종허기 전에 그 불치들이 전부 믰물빳디 시꺼가야 돼여, 쉼로. 그때는 마차 같은 게 엇어 부난 쉼로 다 시꺼가근에가 그걸 믰

136) '송당'은 구좌읍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송당리'를 말한다.

137) '불치막'은 타고 남은 재를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물 갈 때는 쉼로 시꺼다근에 그디 저 밧디 거 놀영 놔둔다. 밧디 영 뭐 판판하게 헤영 막 놀어 가지고 것도 흑을 썩와야 웨여.(부엌에 술에서 일 년 동안에 그 재, 짚을 밥을 할 때 사용하거든. 그걸 재를 모아서 재가 아주 모여가면 삼태기로 가서 그 저 뭐인가 ‘불치막’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 재 쌓는 데. 그 재 쌓는 데 거기 가서 쌓아 놔다가 그 메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한 오일 전에, 오일 내지 일주일 전에 메밀을 파종한다. 파종하면 그, 메밀 파종하기 전에 그 재를 전부 메밀밭에 실어가야 돼, 소로. 그때는 마차 같은 게 없어 버리니까 소로 다 실어가서 그걸 메밀 갈 때는 소로 실어다가 거기 저 밧에 저 가려 놔둔다. 밧에 이렇게 뭐 판판하게 해서 마구 가려 가지고 것도 흑을 썩와야 돼.)

103067 @1 불치 눈 거예?(재 가린 거요?)

103067 #1 으. 불치 눈 것에 흑 썩와근에. 그걸 미룻에 시꺼간다. 그걸 헉기 전에 그 뭐인가 므물 파종하기 전에 헉 십오 일 전에 강 밧디 강 놀영 낫당.(으. 재 가린 것에 흑 썩워서. 그걸 미리 실어간다. 그걸 하기 전에 그 뭐인가 메밀 파종하기 전에 한 십오 일 전에 가서 밧에 가서 가려 놔다가.)

103067 @1 누는 건, 눌처럼 막 크게 누는 건 아니고?(가리는 건, 가리처럼 아주 크게 가리는 건 아니고?)

103067 #1 아니. 산, 보통 산보단 조금 좋게, 그 양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많이 시꺼 가면은 놀이 크고. 또 그 놀이 헉 군데만 허지 않고 헉 두어 군데 해 가지고 마직마직허¹³⁸게 해 가지고서 놀 놀엇당 그 므물을 갈 적에는 그 뭐 쉼 쟁기, 소허고 쟁기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라. 그거 장만해야 웨고, 게민 그 놀을 전부 헤싸 가지고 헤싸 가지고서 므물 씨를 그 불치에다가 서끈다.(아니. 산, 보통 산보단 조금 좋게, 그 양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많이 실어 가면 가리가 크고. 또 그 가리가 한 군데만 하지 않고 한 두어 군데 해 가지고 알맞게 해 가지고서 가리 가렸다가 그 메밀을 갈 적에는 그 뭐 소 쟁기, 소허고 쟁기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장만해야 되고, 그럼 그 가리를 전부 허물어 가지고 허물어 가지고서 메밀 씨를 그 재에다가 섞는다.)

103067 @1 아.(아.)

103067 #1 그 불치에다 서꺼 가지고서이 저, 저 출구덕¹³⁹이라 해 출구덕, 출구덕.(그 재에다 섞어 가지고서 저, 저 ‘출구덕’이라 해, ‘출구덕’, ‘출구덕’.)

103067 @1 예.(예.)

103067 #1 출구덕에 그 불치를 이제, 이제 담아 가지고서 어깨에 메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줍아 놓는 거. 줍아 놓는 거.(‘출구덕’에 그 재를 이제, 이제 담아 가지고서 어깨에 메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 놓는 거. 집어 놓는 거.)

103067 @1 아, 씨를 불치에 서깁.(아, 씨를 재에 섞어서.)

103067 #1 으, 서껴서 이렇게 줍아 놓는 거.(으, 섞어서 이렇게 집어 놓는 거.)

138) ‘마직마직허다’는 이런 저런 일의 정도나 무엇의 양이 알맞다는 의미다.
139) ‘출구덕’은 대바구니의 하나로 나물이나 해산물 등을 채취할 때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103067 @1 줍아 놓는 거?(줍어 놓는 거?)

103067 #1 줍아 놔근에 줍아 놔근에, 쪽 허게 줍아 놔근에가 다 줍아 놀 거 아니냐? 밧 가는 대로 줍아 낱 다 줍아 놓면은 낸중에 그 줍아 논 자리를 갔다가, 이제 고랑에만 줍아 놀 거 아니라, 고랑에만.(줍어 놔서 줍어 놔서, 쪽 허게 줍어 놔서 다 줍어 놓을 거 아니냐? 밧 가는 대로 줍어 놔서 다 줍어 놓으면 나중에 그 줍어 놓은 자리를 갔다가, 이제 고랑에만 줍어 놓을 거 아니야, 고랑에만)

103067 @1 예.(예.)

103067 #1 고랑에만 줍아 낱 다 줍아 낱 밧 다 갈민 다 줍아 놀 거 아니냐? 게민 꼬슬게로 불치가 메짜지게 그 끄어 부는 거라.(고랑에만 줍어 놔서 다 줍어 놓아서 밧 다 갈면 다 줍어 놓을 거 아니냐? 그럼 끄게로 재가 메워지게 그 끌어 버리는 거야.)

103067 @1 게민 밧 갈 때도 영 고랑은 잇게 가는 거다예?(그럼 밧 갈 때도 이렇게 고랑은 잇게 가는 거네요?)

103067 #1 으. 골 친텐 현다. 골 쳐.(으, 골 켜다고 한다. 골 켜.)

103067 @1 골 쳐예, 게민 골 간격은 얼마나 험니까?(골 켜요, 그럼 골 간격은 얼마나 험니까?)

103067 #1 흐 뻐, 흐 줄에 흐 십 센치 될 건가? 십 센치 십오 센치 정도.(한 뻐, 한 줄에 한 십 센치 될 건가? 십 센치, 십오 센치 정도.)

103067 @1 경혜 가지고 골 행 골 잇는 자리에.(그래 가지고 골 해서 골 잇는 자리에.)

103067 #1 고랑에 골러레만 줍아 놔 가지고서 낸중에는 꼬슬귀. 꼬슬귀란 것은 나무로 거시길 만든다. 꼬슬귀.(고랑에 골로만 줍어 놔 가지고서 나중에 끄게. 끄게란 것은 나무로 거시길 만든다. 끄게.)

103067 @1 꼬슬귀렌 험니까, 꼬슬귀렌 험니까?('꼬슬귀'라고 험니까, '꼬슬귀'라고 험니까?)

103067 #1 꼬슬귀.(‘꼬슬귀’.)

103067 @1 꼬슬귀 만드는 건 무슨 나무로 헤마씨?(끄게 만드는 건 무슨 나무로 해요?)

103067 #1 거 꼬슬귀 만드는 건 나무가 좋은[존] 거라 웨여. 그 나무가 거 뭐산디.(거 끄게 만드는 건 나무가 좋은 거여야 돼. 그 나무가 뭐인지.)

103067 @1 거 나중에 또 물어보쿠다.(거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103067 #1 ㄱ만 셔 보라, 이디 강 한 번 물어보켜.(가만 있어 봐, 여기 가서 한번 물어볼게.)

103067 @1 안 물어 봐도 될 건디.(안 물어 봐도 될 건데.)

103067 #1 꼬슬귀 거튼 건 깨팡낭이라고 깨팡낭은 썩이 무성허지 안허고 막 가지가이 막 거세기 현 거난 잘 부셔지주게.(끄게 같은 건 쥐똥나무이라고 쥐똥나무은 잎이 무성하지 앓고 아주 마구 가지가 마구 거시기 한 거니까 잘 부셔지지.)

103067 @1 아, 깨팡낭마씨?(아, 쥐똥나무요?)

103067 #1 깨팡낭. 깨팡낭으로 꼬슬귀 해 가지고서 다 줍아 놓은[논] 다음에 거
끗어 불민 돼.(쥐똥나무. 쥐똥나무으로 끄게 해 가지고서 다 집어 놓은 다음에 거
끌어 버리면 돼.)

103067 @1 꼬슬귀로예?(끄게로요?)

103067 #1 으, 건 처서 전후에 건 한다. 처서.(으, 건 처서 전후에 건 한다. 처
서.)

103067 @1 가는 걸 처서 전후에?(가는 걸 처서 전후에?)

103067 #1 아니, 아니. 파종하는 거.(아니, 아니. 파종하는 거.)

103067 @1 아, 파종하는 거예?(아, 파종하는 거요?)

103067 #1 갈아 낱 처서가 가까와 가면은 아까 불치로 걸름을 한다. 불치를 시
꺼당 놔 가지고 밭 가는 날에 그 불치를 다 헤쳐 가지고서 그디 씨 뿌렁 골고루 허
게 손으로 다 거시기 허야 돼주게. 손으로 다 이렇게 다 씨를 골라 놔 가지고 그걸
출구덕에 메영 이렇게 줍아 놓는 거.(갈아 놔서 처서가 가까워 가면 아까 재로 거름
은 한다. 재를 실어다가 놔 가지고 밭 가는 날에 그 재를 다 헤쳐 가지고서 거기
씨 뿌려서 골고루 하게 손으로 다 거시기 해야 되지. 손으로 다 이렇게 다 씨를 골
라 놔 가지고 그걸 ‘출구덕’에 메서 이렇게 집어 놓는 거.)

103067 @1 케민 밭 갈 때는 남자가 갈 거 아니예?(그럼 밭 갈 때는 남자가 갈
거 아니요?)

103067 #1 남자가 갈주.(남자가 갈지.)

103067 @1 케민 줍아 놓는 건 여자가 허여?(그럼 집어 놓는 건 여자가 해?)

103067 #1 으. 남자도 한다, 줍아 놓는 거. 여저덜 헐 때는이 막 좇게 해 부난이
여저덜 못 허니까이 놉덜 빌영 한다. 수눌영.(으. 남자도 한다, 집어 놓는 거. 여자
들 할 때는 아주 좇게 해 버리니까 여자들 못 하나까 놉들 빌려서 한다. 품앗이해
서.)

103067 @1 아, 수눌영. 아까 불치 쉼로 행 시꺼간텐 헛잖아예?(아, 품앗이해서.
아까 재 소로 해서 실어간다고 헛잖아요?)

103067 #1 으, 시꺼갈 땀이.(으, 실어갈 땀.)

103067 @1 예.(예.)

103067 #1 불치 멩텅이, 불치 맥이엔 헛 게 잇저.(재 먹서리가, 재 먹이라고 하
는 게 있어.)

103067 @1 예.(예.)

103067 #1 맥에 담아근에가 혼쪽에 맥 하나씩 양쪽에 해 가지고 두 개, 혼 바리
에 두 개. 두 개씩, 게난 그계 혼 사름이, 혼 사름이 힘겹게 질 만이씩 그, 그 맥에
담나. 두 사람 짐을 거, 두 사람 짐을 쉼에 시꺼가는 거주.(떡에 담아서 한쪽에 떡
하나씩 양쪽에 해 가지고 두 개, 한 바리에 두 개. 두 개씩, 그러니까 그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힘겹게 질 만큼씩 그, 그 떡에 담아. 두 사람 짐을 거, 두 사람 짐을

소에 실어가는 거지.)

103067 @1 케민 지난번에 거름 날릴 때도 맥에 담아 가는데 불치 맥이랑 돛걸름 맥이랑 따로 쏘니까?(그럼 지난번에 거름 나를 때도 맥에 담아 가는데 재 맥이랑 돼지거름 맥이랑 따로 쏘니까?)

103067 #1 돛걸름 맥, 돛걸름은이 그거이 질 작나, 그건 막 작은 거고.(돼지거름 맥, 돼지거름은 그거 쉘 작아, 그건 아주 작은 거고.)

103067 @1 작은 거고.(작은 거고.)

103067 #1 불치나 쉘걸름은 좀 큰 거.(재나 쇠두엄은 좀 큰 거.)

103067 @1 아, 큰 거고. 돛걸름은 무거워 부난.(아, 큰 거고. 돼지거름은 무거워 버리니까.)

103067 #1 으, 무거워 부난. 조그마헌다, 조그만.(으, 무거워 버리니까. 조그마한 다, 조그마한.)

103067 @1 어쨌든 용도는, 용도는.(어쨌든 용도는, 용도는.)

103067 #1 틀리다.(다르다.)

103067 @1 달리, 달리 쓰는 거라예?(달리, 달리 쓰는 거지요?)

103067 #1 으, 달리 쓴다.(으, 달리 쓴다.)

103067 @1 이거는 불치 맥이렌 헨 쓰고예?(이거는 재 맥이라고 해서 쓰고요?)

103067 #1 으, 불치 맥이렌 따로 잇주.(으, 재 맥이라고 따로 잇지.)

103067 @1 그리고 므물밭디 검질맵니까?(그리고 메밀밭에 김맵니까?)

103067 #1 므물밭디 검질 안 맨다.(메밀밭에 검질 안 맨다.)

103067 @1 안 메여마씨. 그냥 뿌렁 내부는 거라?(안 매요. 그냥 뿌려서 내버리는 거야?)

103067 #1 므물은 저거 해 가지고 두 달, 두 달 내지 석 달이민 되는 거난 쟁장히 저거 빨리 되는 거주게.(메밀은 저거 해 가지고 두 달, 두 달 내지 석 달이민 되는 거니까 쟁장히 저거 빨리 되는 거지.)

103067 @1 아, 경 빨리 자라? 그럼 언제, 아까 처서?(아, 그렇게 빨리 자라? 그럼 언제, 아까 처서?)

103067 #1 처서, 처서가 저것이 칠월 한 양력 칠월 칠일쯤 처서가 돼주. 경허민 저것이 구월 말, 말 돼민 저것이 먹는 거난 두 달 반 돼민 먹는 거난.(처서, 처서가 저것이 칠월 한 양력 칠월 칠일쯤 처서가 되지. 그럼 저것이 구월 말, 말 되면 저것이 먹는 거니까 두 달 반 되면 먹는 거니까.)

103067 @1 아.(아.)

103067 #1 상당히 빨리 먹는 거라. 게난 풀 멜 새가 없어.(상당히 빨리 먹는 거야. 그러니까 풀 멜 새가 없어.)

103067 @1 하하하.(하하하.)

103067 #1 풀 멜 새가 없어.(풀 멜 새가 없어.)

103067 @1 씨 뿌렁 놔두민 금방 므물 돼 부는 거예, 예. 그럼 수확하는 거 글

아 줘서. 수확허젠 허민?(씨 뿌려서 놔두면 금방 메밀 돼 버리는 거요, 예. 그럼 수확하는 거 말해 주세요. 수확하려고 하면?)

103067 #1 수확할 때는 수확허는 것도 호미로 전부 비여야 된다. 수확할 때도 만이 현 사름은 놉덜 빌영 가고 또 경 하영 안 할 땐 수눌영도 허고. 큰 밭 할 적에는 으라 명 가야 되니까 그렇게 놉 빌영 가고.(수확할 때는 수확하는 것도 낮으로 전부 베야 된다. 수확할 때도 많이 하는 사람은 놉들 빌려서 가고 또 그렇게 많이 안 할 땐 품앗이해서도 하고. 큰 밭 할 적에는 여러 명 가야 되니까 그렇게 놉 빌려서 가고.)

103067 @1 놉 빌영 비여 낱 무경?(놉 빌려서 베어 놔서 묶어?)

103067 #1 어. 비여 놔근에가 밭에서 두드러놔져. 밭에서.(어. 베어 놔서 밭에서 두드렸었어. 밭에서.)

103067 @1 아, 밭디서. 어쨌든 모다야 될 거 아니?(아, 밭에서. 어쨌든 모아야 될 거 아니?)

103067 #1 으, 개난 그 테작을 허젠 허면은이 그 테작허기 현 삼 일 전에 강이 그 비여 놓은[논] 걸, 쪼그만씩 비여 놔겨든이. 그걸 이제 그 뭐인가 ‘놏’¹⁴⁰⁾, ‘놏’ 일 른다고 한다. ‘놏’ 일러.(으, 그러니까 그 타작을 하려고 하면 그 타작하기 한 삼 일 전에 가서 그 베어 놓은 걸, 쪼그만씩 베어 놔겨든. 그걸 이제 그 뭐인가 ‘놏’, ‘놏’ 일으킨다고 한다. ‘놏’ 일으켜.)

103067 @1 ‘놏’ 일러?(‘놏’ 일으켜?)

103067 #1 으, ‘놏’ 일러. ‘놏’ 일러 놔당. 왜 ‘놏’을 일르는데 허니 땅에 딱 부떠, 부 떠 걸 갖다가 그걸이 이렇게 저 뒤집어근에가 서너네 군데 걸 현 아름씩, 현 아름씩 안게끔 모다 놔. ‘놏’ 일러, 그것모다 ‘놏’ 일러 모다 놔근에가 그 두드리레 갈 적에는 그 밭에서 두드리니까. 그 날르는 사름은 날름만 허고 거 두드리는 사름은 두드림만 허고.(으, ‘놏’ 일으켜. ‘놏’ 일으켜 놔다가. 왜 ‘놏’을 일으키는가 하니 땅에 딱 붙어, 붙은 걸 갖다가 그걸 이렇게 저 뒤집어서 서너네 군데 걸 한 아름씩, 한 아름씩 안게끔 모아 놔. ‘놏’ 일으켜서, 그것보고 ‘놏’ 일으켜서 모아 놔서 그 두드리레 갈 적에는 그 밭에서 두드리니까. 그 나르는 사름은 나르기만 하고 거 두드리는 사름은 두드리기만 하고.)

103067 @1 예, 기민.(예, 그럼.)

103067 #1 거 집이서도 쪼그만, 쪼그만허게 현 사름은 집이 왕도 두드리고 시꺼 강.(거 집에서 쪼그만, 쪼그마하게 하는 사름은 집에 와서도 두드리고 실어 가서.)

103067 @1 기민 비여근에 밭디 그냥 놔두는 거라예?(그럼 베어서 밭에 그냥 놔두는 거지요?)

103067 #1 으, 막 물르게.(으, 잘 마르게.)

103067 @1 겐 삼 일 지나사.(그래서 삼 일 지나야.)

103067 #1 아니, 삼 일 더 헤사 현 일주일, 열흘 이상 물려사 한다.(아니, 삼 일

140) ‘놏’은 곡식을 베어 쪼금씩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더 해야 한 일주일, 열흘 이상 말려야 한다.)

103067 @1 아고, 비 와 불민 어떻게?(아고, 비 와 버리면 어떡해?)

103067 #1 비 맞아도 어떻 안허여 믱물은.(비 맞아도 어떻게 앓아, 메밀은.)

103067 @1 비 맞아도 어떻 안헙니까?(비 맞아도 어떻게 앓습니까?)

103067 #1 비 맞으면 더 까맣게 잘 익고 믱물이 속히 몰르메. 비 맞아 나야.(비 맞으면 더 까맣게 잘 익고 메밀이 속히 말라. 비 맞아 나야.)

103067 @1 아, 경헨 비 맞으면 놀러진 걸 일으켜 세우멍.(아, 그렇게 비 맞으면서 놀린 걸 일으켜 세우면서.)

103067 #1 으, 그거ㄴ라 낫 일른다 허는 거.(으, 그것보고 ‘낫’ 일으킨다 하는 거.)

103067 @1 예, 낫 일르는 거예?(예, ‘낫’ 일으키는 거요?)

103067 #1 으. 낫을 일러 낱.(으. ‘낫’을 일으켜 놔서.)

103067 @1 케민 그런 걸 낫이렌 허는 거과?(그럼 그런 걸 ‘낫’이라고 하는 겁니까?)

103067 #1 으, 그 하나하날 혼 낫, 두 낫 한다 그걸 비여 낱, 비여 낱 모다 논 걸 ‘낫’이주게. 그걸 낫이엔 한다.(으, 그 하나하날 한 ‘낫’, 두 ‘낫’ 한다 그걸 베어 놔서, 베어 놔서 모아 놓은 걸 ‘낫’이지. 그걸 ‘낫’이라고 한다.)

103067 @1 예.(예.)

103067 #1 그거 무꾼 걸 혼 못 두 못 허지만 이젠 낫이엔 한다. 낫을 일러근에 영 뒤집어 놓는 걸 낫 일른다 허주게. 낫 일러 낱 두드리주.(그거 묶은 걸 한 못 두 못 하지만 이젠 ‘낫’이라고 한다. ‘낫’을 일으켜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걸 ‘낫’ 일으킨다 하지. ‘낫’ 일으켜 놓고 두드리지.)

103067 @1 두드리는 거예. 두드릴 때는 어떻 두드리는 거?(두드리는 거요. 두드릴 때는 어떻게 두드리는 거?)

103067 #1 거 도끼로 두드린다.(거 도리끼로 두드린다.)

103067 @1 영 모아 낱 모양 가져 낱 두드리는 거예?(이렇게 모아 놔서 모아서 가져 놔서 두드리는 거요?)

103067 #1 으. 도끼로 두드려근에가 그걸 이제 두드린 다음에 이젠 낭뎡이를 다, 케니까 혼 번에 다 못 두드린다. 케니까 혼 마당에 헤, 헤 나면은, 혼 마당에 헤 나면은 그, 그 믱물집을 문딱 거 쳐 내뎡, 내뎡 다 정리해 놓앙 따시 걸 따시 날라 당 마당에 걸 테작허는 디 깔앙, 깔아근에가 그냥 또 허고 또 허고. 혼 대여섯 마당 깎지 한다.(으. 도리끼로 두드려서 그걸 이제 두드린 다음에 이젠 대를 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못 두드린다. 그러니까 한 마당에 헤, 하고 나면, 한 마당에 하고 나면 그, 그 메밀집을 모두 거 쳐 내뎡, 내뎡고 다 정리해 놓아서 다시 걸 다시 날라 다가 마당에 걸 타작하는 데 깔아서, 깔아서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한 대여섯 마당 까지 한다.)

103067 @1 아, 대여섯 마당까지.(아, 대여섯 마당까지.)

103067 #1 큰 밧은.(큰 밧은.)

103067 @1 큰 밧은예. 그민 이제.(큰 밧은요. 그럼 이제.)

103067 #1 경해서 다 두드리면은 이제는, 그때는 브름이 잘 난다. 그럼 그것을 브름에 불려야 돼여, 그걸.(그래서 다 두드리면 이제는, 그때는 바람이 잘 난다. 그럼 그것을 바람에 불려야 돼, 그걸.)

103067 @1 아, 아.(아, 아.)

103067 #1 브름에 브름에 불리기 전에 그 뭐인가 얼멩이로 다 친다. 그거 다, 다 두드려 나민 그 짝을 다 당겨 가지고 손으로 다 당겨 가지고서 얼멩이로 쳐 가지고이, 얼멩이 아래로 느린 건 브름에 불려근에가 거 다 불리면은 췌에 시경오는 거. 그거 거 뭐인가 맥에 담아 가지고서.(바람에 바람에 불리기 전에 그 뭐인가 어레미로 다 친다. 그거 다, 다 두들고 나면 그 짝을 다 당겨 가지고 손으로 다 당겨 가지고서 어레미로 쳐 가지고 어레미 아래로 내린 건 바람에 불려서 거 다 불리면 소에 실어오는 거. 그거 거 뭐인가 맥에 담아 가지고서.)

103067 @1 맥에 담양 췌에 시경와예?(맥에 담아서 소에 실어와요?)

103067 #1 으, 췌에 시경와.(으, 소에 실어와.)

103067 @1 경헨 장만허는 건?(그러해서 장만하는 건?)

103067 #1 장만은, 장만은 들류왕, 들류와근에 거 삼스일은 들류와야 돼. 날 좋은 날은 들류와 가지고, 옛날에는 저 돌궤 잇잖허냐이?(장만은, 장만은 말려서, 말려서 거 삼사일은 말려야 돼. 날 좋은 날은 말려 가지고, 옛날에는 저 멧돌 잇잖아?)

103067 @1 예, 예.(예, 예.)

103067 #1 이어도 궤레, 쪼그만헌 궤레 그것에 거퍼근에가, 건퍼근에 보통 집이서 먹었는데 양이 많은 건 그때 거 정미소가 잇엇저, 옛날에도.(이어도 멧돌, 쪼그마한 멧돌 그것에 거피해서, 거피해서 보통 집에서 먹었는데 양이 많은 건 그때 거 정미소가 잇엇어, 옛날에도.)

103067 @1 예.(예.)

103067 #1 거 뭐인가 기궤방이 잇엇저, 정미소가 기궤방, 기궤방 헨.(거 뭐인가 정미소가 잇엇어, 정미소가 ‘기궤방’, ‘기궤방’, ‘기궤방’ 했어.)

103067 @1 기궤방 엇일 때는?(정미소 없을 때는?)

103067 #1 기궤방 엇일 땐 기자 멧돌로만 곶아 가지고.(정미소 없을 땐 그저 멧돌로만 곶아 가지고.)

103067 @1 멧돌에 곶아. 그 멧돌은, 큰 거는 들궤레엔 허고?(멧돌에 곶아. 그 멧돌은 큰 거는 연자매라고 하고?)

103067 #1 으. 그 들궤레엔 허민 저건 다 까져 불언 안 돼고.(으, 그 연자매라고 하면 저건 다 까져 버려서 안 되고.)

103067 @1 까지고예?(까지고요?)

103067 #1 으, 까정 안 돼니까 그냥 멧돌에만.(으, 까져서 안 되니까 그냥 멧돌

에만.)

103067 @1 그걸 정ㄹ레옰 헛니까 멏돌을?(그걸 ‘정ㄹ레’라고 합니까, 멏돌을?)

103067 #1 쟁ㄹ레옰도 헛고.(‘쟁ㄹ레’라고도 하고.)

103067 @1 쟁ㄹ레?(멏돌?)

103067 #1 어, 그자 기자 멏돌ㄹ레옰 헛다.(어, 그저 그저 멏돌이라고 헛다.)

103067 @1 아, 멏돌ㄹ레옰 헛예?(아, 멏돌이라고 헛요?)

103067 #1 쟁ㄹ레옰 헛는 사름도 옰고.(‘쟁ㄹ레’라고 하는 사름도 옰고.)

103067 @1 으. 쟁ㄹ레옰 헛는 사름도 옰고. 게민 ㄹ물은 주로 뉼 헛 먹읍니까?
(으. 멏돌이라고 하는 사름도 옰고. 그럼 메밀은 주로 뉼 헛서 먹읍니까?)

103067 #1 으. ㄹ물은 주로, 그 ㄹ루는 주로 범벅을 헛 먹고 옛날옰이.(으. 메밀은 주로, 그 가루는 주로 범벅을 헛서 먹고 옛날옰.)

103067 @1 예.(예.)

103067 #1 범벅이란 거 옰저. 고구마, 감저 쉼엿 낱 범벅헛 먹고.(범벅이란 거 옰어. 고구마, 고구마 쉼어 뉼서 범벅 헛서 먹고.)

103067 @1 으.(으.)

103067 #1 또 이제 ㄹ물즈베기, ㄹ물국수라고 ㄹ물쯔베기 그것도 헛 먹고.(또 이제 메밀수제비, 메밀국수라고 메밀수제비 그것도 헛서 먹고.)

103067 @1 으, ㄹ물즈베기.(으, 메밀수제비.)

103067 #1 으, ㄹ물즈베기옰 헛다, ㄹ물즈베기. 지금 우리가 국수 헛는 걸 즈베기, 즈베기 헛다.(으, ‘ㄹ물즈베기’라고 헛다, 메밀수제비. 지금 우리가 국수 하는 걸 ‘즈베기’, ‘쯔베기’ 헛다.)

103067 @1 예, 예.(예, 예.)

103067 #1 게난 ㄹ물즈베기도 칼국수 옰고 기자 즈얗 거려 놓는 거. 거 수제비 국수도 헛엿 먹곡 수제비.(그러니까 메밀수제비도 칼국수 옰고 그저 집어서 떠 놓는 거. 거 수제비 국수도 헛서 먹고 수제비.)

103067 @1 예, 수제비 국수도 헛 먹고예, 또?(예, 수제비 국수도 헛 먹고요, 또?)

103067 #1 또 그 외에는 용도가 옰다. 겐 겐 제서 댄이 묵을 헛야 뉼고. 주로 묵 헛는 거주.(또 그 외에는 용도가 옰다. 그래서 그래서 제사 댄 묵을 헛야 되고. 주로 묵 하는 거주.)

103067 @1 빙떡헛 먹고?(빙떡헛서 먹고?)

103067 #1 으, 빙떡헛 먹고.(으, 빙떡헛서 먹고.)

103067 @1 죽, 죽, ㄹ물죽?(죽, 죽, 메밀죽?)

103067 #1 ㄹ물죽도 ㄹ물죽도 만이 헛 먹나. 웨냐면 옛날옰 감기가 만이 와났거 든이. 거 ㄹ물죽에 또 거 세우리헛고 꽤마농 거튼 거 뉼근에가이 쉼, 쉼 먹엿. 감기 때 쉼 먹엿 뉼나 나민 그때는 것도 겐 헛났저.(메밀죽도 메밀죽도 많이 헛 먹어. 왜냐하면 옛날옰 감기가 많이 왔었거든. 거 메밀죽에 또 거 부추하고 파 같은 거 뉼

서 썬서, 썬서 먹어. 감기 때 썬서 먹어서 땀나고 나면 그때는 것도 그렇게 했었어.)

103067 @1 감기 걸렸을 때?(감기 걸렸을 때?)

103067 #1 으, 그거 그거 농촌에서 그거 비상약으로 사용했저.(으, 그거 그거 농촌에서 비상약으로 사용했어.)

103068 @1 예. 거 옛날에 담배도 농사해냈지예?(예. 거 옛날에 담배도 농사했었지요?)

103068 #1 으, 담배도 농사했저. 담배 농서는 중간에 저 뭐인가 새마을사업 저 소득 사업으로 정부에서 장려해 가지고서 그거 해냈저. 한동에도 만이 해냈저. 느네 아버지도 만이 해냈저.(으, 담배도 농사했어. 담배 농사는 중간에 저 뭐인가 새마을사업 저 소득 사업으로 정부에서 장려해 가지고서 그거 했었어. 한동에도 많이 했었어. 너희 아버지도 많이 했었어.)

103068 @1 아버지 해난 건 생각 안 나고 어렸을 때 웨할아버지 집 앞이, 앞에 그 담배 밭 해난 거.(아버지 했던 건 생각 안 나고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 앞에, 앞에 그 담배 밭 했던 거.)

103068 #1 으, 담배행 막 넣어, 줄로 영 넣어 논 거.(으, 담배해서 많이 넣어, 줄로 이렇게 넣어 놓은 거.)

103068 @1 예, 넣어난 거.(예, 넣었던 거.)

103068 #1 집집마다 막 헛저. 그때는이 그것이 막 갑이 만이 쫓주게.(집집마다 많이 했어. 그때는 그것이 아주 값이 많이 쫓지.)

103068 @1 예, 게민 담배 농사짓는 거 어떻 해냈수과?(예, 그럼 담배 농사짓는 거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68 #1 담배 농사짓는 것은이, 그때가 담배를 나도 하도 오래돼 가난 잊어버려서.(담배 농사짓는 것은, 그때가 담배를 나도 너무 오래돼 가니까 잊어버렸어.)

103068 @1 생각나는 것만 골라 줘서.(생각나는 것만 말해 주세요.)

103068 #1 게난 담배를 것도 이거를 종자를 놔 가지고이, 담배도 종자를 놔 가지고이 걸 담배를 이제 그 종자를 키워 가지고 밭디 싱것저, 그거.(그러니까 담배를 것도 이거를 종자를 놔 가지고, 담배도 종자를 놔 가지고 걸 담배를 이제 그 종자를 키워 가지고 밭에 심었어, 그거.)

103068 @1 으.(으.)

103068 #1 밭디 싱거 가지고서 그걸 막 여름 내냥 거 잘 여름엔이 막 더운 때 그걸 또 누렁해 가민 익어 가민 툃아야 돼여. 밭디 가근에가.(밭에 심어 가지고서 그걸 아주 여름 내내 거 잘 여름엔 아주 더운 때 그걸 또 누레 가면 익어 가면 뜯어야 돼. 밭에 가서.)

103068 @1 그른 가는 게 언제마씨?(그럼 가는 게 언제요?)

103068 #1 가는 게 저것이, 예 또 하여튼 유월 초일 거여, 유월 초. 유월 초에 해 가지고서 칠월 내지 팔월까지 저거, 저거이 탄다. 흔꺼번에 따는 것이 아니라 그

거 밑으로부터 누렇게 익어 가민 익어 가야 따니까 그 익은 것만.(가는 게 저것이, 에 또 하여튼 유월 초일 거야, 유월 초. 유월 초에 해 가지고서 칠월 내지 팔월까지 저거, 저거 탄다. 한꺼번에 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밑으로부터 누렇게 익어 가면 익어 가야 따니까 그 익은 것만.)

103068 @1 예.(예.)

103068 #1 영 숙성된 것만.(이렇게 숙성된 것만.)

103068 @1 으, 영 올라와 가민 이파리가 영 뒤편 밑에서부터 누렇게 변하난 그거 밑에서부터 영 땅?(으, 이렇게 올라와 가면 잎이 이렇게 되면 밑에서부터 누렇게 변하니까 그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따서?)

103068 #1 으, 땅 올라가.(으, 따서 올라가.)

103068 @1 땅 올라가는 거예?(따서 올라가는 거요?)

103068 #1 으.(으.)

103068 @1 그민 이거 담배도 대개 빨리 컴수다예?(그럼 이거 담배도 아주 빨리 크네요?)

103068 #1 으, 그거 빨리 크다. 빨리 크는디 저걸 딸 땐 흔 유월경에 싱그면은 저것이 칠, 팔월 상당히 겨울엔, 아 여름에 막 더우니까 빨리 크다. 경혜 가지고서 저걸 툇아다가 전부 다 뭐인가 새끼로 예긴다. 그 산뒤쪽으로 거 예껴 가지고서 흔 줄씩 흔 줄씩 예껴 가지고서 걸 그늘에서 돌아땡 물려야 뒤편.(으, 그거 빨리 크다. 빨리 크는데 저걸 딸 땐 한 유월경에 심으면 저것이 칠, 팔월 상당히 겨울엔, 아 여름에 아주 더우니까 빨리 크다. 그래 가지고서 저걸 뜯어다가 전부 다 뭐인가 새끼로 엮는다. 그 밭뽕으로 거 엮어 가지고서 한 줄씩 한 줄씩 엮어 가지고서 걸 그늘에서 달아매서 말려야 돼.)

103068 @1 아.(아.)

103068 #1 그늘에서. 경혜야 빗갈이 나지 뼉디서 허민 하양해 불민 안 뒤편.(그늘에서. 그래야 빗갈이 나지 뼉에서 하면 하애 버리면 안 돼.)

103068 @1 음.(음.)

103068 #1 그늘에서 창고에 돌아메근에가 물류왕. 또 시월에서 십일월 뒤편 판매가 잇저, 그걸. 바찌, 바찌라고 경헨 판매행 그걸로 용돈을 많이 거시기 했지.(그늘에서 창고에 달아매서 말려서. 또 시월에서 십일월 되면 판매가 있어, 그걸. 바찌, 바찌라고 그래서 판매해서 그걸로 용돈을 많이 거시기 했지.)

103068 @1 바찐뎨 허는 거예?(바친다고 하는 거요?)

103068 #1 으, 판매, 판매.(으, 판매, 판매.)

103068 @1 이파리 돌리민 그 이파리차 그대로?(있 말리면 그 잎째 그대로?)

103068 #1 이파리, 이파리 허민이 이파릴 또시 그 줄에다 그 저 새끼로 파 가지고 줄에다 현 걸이 전부 다 빠 가지고서이 그 열 개씩 흔, 흔 도로무씩 무꾼다이.(있, 잎 하면 잎을 또 그 줄에다 그 저 새끼로 파 가지고 줄에다 한 걸 전부 다 빠 가지고 그 열 개씩 한, 한 두름씩 묶는다.)

103068 @1 예, 예.(예, 예.)

103068 #1 열 개 내지 열다섯 개씩.(열 개 내지 열다섯 개씩.)

103068 @1 이파리 열 개?(열 열 개?)

103068 #1 이파리 모당 해 가지고 무꺼 가지고이 그걸 접 진텐¹⁴¹⁾ 한다. 그걸 요렇게 무꺼 짓을 갖다가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 해서 한 접이라. 열 개에, 열 개에, 열 개씩 한 접씩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잎을 모아서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그걸 ‘접 진다’고 한다. 그걸 요렇게 묶은 짓을 갖다가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 해서 한 접이야. 열 개에, 열 개에, 열 개씩 한 접씩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

103068 @1 아. 그럼 열 개씩 무꺼 게 한 접이면.(아. 그럼 열 개씩 묶은 게 한 접이면.)

103068 #1 아니, 다섯 개, 다섯 개 허민 그것이 한 접 아니가이?(아니, 다섯 개, 다섯 개 하면 그것이 한 접 아니냐?)

103068 @1 으.(으.)

103068 #1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판매할 땐 경허는 거.(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판매할 땐 그러는 거.)

103068 @1 아, 판매할 때. 게난 부비지는 안 헤낫구나?(아, 판매할 때. 그러니까 비비지 안 했었구나?)

103068 #1 으.(으.)

103003 @2 보리 농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뭐가 이신고마씨? 갈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보리 농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뭐가 있는가요? 갈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103003 #1 거 도구 특별히 무시거 헛 거 엇어. 그냥 걸름 끼는 거.(거 도구 특별히 무엇 한 거 없어. 그냥 거름 끼는 거.)

103003 @2 예.(예.)

103003 #1 걸름을, 걸름을 깔아야 그 밭을 영 갈양 고랑에 걸름을 깔양. 우선 밭을 갈아야 돼지. 거 조크르 등탄다¹⁴²⁾고 그랬어 등탄다고.(거름을, 거름을 깔아야 그 밭을 이렇게 갈아서 고랑에 거름을 깔아서. 우선 밭을 갈아야 돼지. 거 조 그루 ‘등탄다’고 그랬어, ‘등탄다’고.)

103004 @2 조크를 등탄다. 이거는 무슨 말인거마씨?(조 그루 ‘등탄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요?)

103004 #1 거는 흙 이렇게 생밭¹⁴³⁾ 돼게시리 이렇게 그릇만 굻주, 그릇만 굻어.(거는 흙 이렇게 ‘생밭’ 돼게끔 이렇게 금만 굻지, 금만 그어.)

103004 @2 예.(예.)

103004 #1 이게 가운데 생밭에, 생밭이고 이거 고랑 영. 그걸 등탄다고 그래 등탄다.(이게 가운데 ‘생밭’에, ‘생밭’에 ‘생밭’이고 이거 고랑 이렇게. 그걸 ‘등탄다’고

141) ‘접 지다’는 채소나 과일 따위를 일정한 개수로 묶는 것을 말한다.

142) ‘등탄다’는 농사지를 때 씨를 뿌리기 전에 거름을 깔기 위해 고랑을 내어 밭을 가는 것을 말한다.

143) ‘생밭’은 한 번도 일구어 보지 않은 들판의 밭을 말한다.

그래 ‘등탄다’.)

103004 @2 예.(예.)

103004 #1 보리 갈 적에 등타는 거.(보리 갈 적에 ‘등타’는 거.)

103004 @2 예.(예.)

103004 #1 조크르에 보릴 가니까. 갱 등타, 처음에 등타야 돼고 췌 그 밧 갈을 때 등타야 돼고 그다음은 그 걸름을 그 고랑에 다 깔아야 돼주게.(조 그루에 보릴 가니까. 그래서 ‘등타’, 처음에 ‘등타’야 되고 소 그 밧 갈 때 ‘등타’야 되고 그다음은 그 거름을 그 고랑에 다 깔아야 되지.)

103004 @2 예, 예, 예.(예, 예, 예.)

103004 #1 그다음에는 이젠 씨 빼어근에 이젠 갈민 되는 거.(그다음에는 이젠 씨 뿌려서 이젠 갈면 되는 거.)

103004 @2 예. 삼촌 이제 조크르 등탄다 허는 거는 이제 걸름 깔젠 허는 거군 아예?(예. 삼촌 이제 조 그루 ‘등탄다’ 하는 거는 이제 거름 깔려고 하는 거군요?)

103004 #1 으. 걸름 깔젠 허는 거.(으. 거름 깔려고 하는 거.)

103003 @2 걸름 운반허젠 허민 뭐 뭐 필요해마씨?(거름 운반하려고 하면 뭐 뭐 필요해요?)

103003 #1 맥허고.(떡하고.)

103003 @2 맥허고.(떡하고.)

103003 #1 뭐인가 그, 사람 지게, 지게허고 췌 시끄젠 맥허고 그 맥에 담을 거 이. 또 췌얏배도 필요허고.(뭐인가 그, 사람 지게, 지게하고 소 실으려고 떡하고 그 맥에 담을 거. 또 참바도 필요하고.)

103003 @2 췌얏배도 필요허고.(참바도 필요하고.)

103003 #1 어, 췌 질메, 췌얏배.(어, 소 길마, 참바.)

103003 @2 췌 질메 행예. 게문 예전에는 걸름을 양쪽 맥해근에 두 개를?(소 길마 해요. 그럼 예전에는 거름을 양쪽 맥 해서 두 개를?)

103003 #1 으, 두 개를.(으, 두 개를.)

103003 @2 헨 거잖아예. 그뎨 그냥 돛가래착이여 돛걸름착 이런 말은 안 헤수 과?(한 거잖아요. 그뎨 그냥 ‘돛가래착’이여 ‘돛걸름착’ 이런 말은 안 했습니까?)

103003 #1 아, 돛걸름착¹⁴⁴⁾이엔 헛주게 돛갈름착. 돛갈름착은이 돛갈름착 죽아야 돼고. 건 물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췌걸름 시끄는 건 막 커야 돼고.(아, ‘돛걸름착’이라고 했지, ‘돛갈름착’. ‘돛갈름착’은 ‘돛갈름착’ 작아야 되고. 건 물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쇠두엄 싣는 건 아주 커야 되고.)

103003 @2 아.(아.)

103003 #1 혼 섬짜리라야 웨어.(한 섬짜리여야 돼.)

103003 @2 아, 게난 췌걸름 시끄는 거는 맥에 헤 갖고 혼 섬짜리 헤 갖고 실르고. 돛걸름은.(아, 그러니까 쇠두엄 싣는 거는 맥에 헤 가지고 한 섬짜리 헤 가지고

144) ‘돛걸름착’은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먹서리를 말한다. 제보자는 ‘돛갈름착’이라고도 하였다.

실고. 돼지거름은.)

103003 #1 어. 뚫걸름은 그거 죽은, 거 뚫걸름 허는 뉘인가 멩텅이가 잇주. 작은 거 작은 거 멩텅이렌 해 가지고 잇어.(어. 돼지거름은 그거 작은, 거 돼지거름 하는 뉘인가 망태기가 있지. 작은 거 작은 거 망태기라고 해 가지고 잇어.)

103003 @2 예, 멩텅이 그거는?(예, 망태기 그거는?)

103003 #1 뚫걸름.(돼지거름.)

103003 @2 뚫걸름착이렌 험니까?('뚫거름착'이라고 합니까?)

103003 #1 뚫걸름은 물이 차 부난 무거웁주게. 게난 쉼걸름은 막 몰라 부니깐이 게난 그 큰 거로 열 말들이 이상, 혼 섬들이라야 그 그 시끄곡.(돼지거름은 물이 차 버리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쇠두엄은 아주 말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큰 거로 열 말들이 이상, 한 섬들이여야 그 그 실고.)

103003 @2 으. 게문 이제 맥 이런 식으로 헤근에 쉼 질메 메왕 가는 거 아니라 예? 겐 양쪽에 하나씩?(으. 그럼 이제 떡 이런 식으로 해서 소 길마 메워서 가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103003 #1 으, 양쪽에 하나씩?(으, 양쪽에 하나씩?)

103003 @2 그것도 혼 바리 험니까, 옛날에?(그것도 한 바리 합니까, 옛날에?)

103003 #1 으, 것도 혼 바리엔 허주.(으, 것도 한 바라라고 하지.)

103003 @2 예, 게문 쉼걸름은 맥에 시경 혼 바리.(예, 그럼 쇠두엄 떡에 한 바리.)

103003 #1 어.(어.)

103003 @2 뚫걸름은 뚫가래착에 양쪽 시경 혼 바리.(돼지거름은 '뚫가래착'에 양쪽 실어서 한 바리.)

103003 #1 어, 혼 바리.(어, 한 바리)

103003 @2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깎 때는 손으로 그냥 깎 아마씨?(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깔 때는 손으로 그냥 깔아요?)

103003 #1 어, 손으로. 손으로.(어, 손으로. 손으로.)

103003 @2 아, 손으로예. 그럼 뚫걸름만 헛수과, 아까 듬북 걸름은 안 헛수과? (아, 손으로요. 그럼 돼지거름만 했습니까, 아까 듬북 거름은 안 했습니까?)

103003 #1 듬북도 헛주.(듬북도 했지.)

103003 @2 듬북도 보리힐 때도 헤마씨?(듬북도 보리힐 때도 해요?)

103003 #1 듬북도 보리힐 때도 허는 거. 보리 안 허민 필요가 없는 거지, 거.(듬북도 보리힐 때도 하는 거. 보리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 거.)

103003 @2 아, 예. 듬북은 듬북 걸름, 그거는 어떤 식으로 듬북 걸름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아, 예. 듬북은 듬북 거름, 그거는 어떤 식으로 듬북 거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3003 #1 것도 아까 등탄 디 가근에 고랑에만 깎는 거, 듬북도.(것도 아까 '등탄' 데 가서 고랑에만 까는 거, 듬북도.)

103003 #3 듬복은 고랑에만 깔주, 고랑에만.(듬복은 고랑에만 깔지, 고랑에만.)

103003 #1 게난 이거 쉼걸름 거튼 건 영 손으로 허터도 뉘긴 뉘주만은 듬복은 고랑으로 안 깔민 밧 갈 때에 걸렁 그냥 막 나와 불주게.(그러니까 이거 쇠두엄 같은 건 이렇게 손으로 섞어도 되긴 되지만 듬복은 고랑으로 안 깔면 밧 갈 때에 걸려서 그냥 마구 나와 버리지.)

103003 @2 예, 예.(예, 예.)

103003 #1 게난 꼭 그거 땅 속에 잘 들어가게끔.(그러니까 꼭 그거 땅 속에 잘 들어가게끔.)

103005 @2 그런 식으로 하고예. 씨 빼는 거는 손으로 그냥?(그런 식으로 하고요. 씨 뿌리는 거는 손으로 그냥?)

103005 #1 으, 손으로. 모든 거 다 손으로 그냥.(으, 손으로. 모든 거 다 손으로 그냥.)

103005 @2 씨 빼젠 허민 그 씨 놓는?(씨 뿌리려고 하면 그 씨 놓는?)

103005 #1 멩, 멩텅이란 게 있어. 그 씨 멩텅이, 씨 멩텅이.(멩, 망태기란 게 있어. 그 씨 망태기, 씨 망태기.)

103005 @2 씨 멩텅이?(씨 망태기?)

103005 #1 어, 씨 멩텅이.(아, 씨 망태기.)

103005 #3 씨 빼는 멩텅이가 만들앙 잇주, 다 허허허.(씨 뿌리는 망태기가 만들어서 있지, 다 허허허.)

103005 @2 거는 뉘로 멘들앗수과?(거는 뉘로 만들었습니까?)

103005 #1 거는 저 산디짚, 산디짚으로 늘은 그 늘은 밧닐¹⁴⁵로 헤근예.(거는 저 밧뉘짚, 밧뉘짚으로 날은 그 날은 ‘밧닐’로 해서.)

103005 @2 아, 늘은 밧닐로 헤서예?(아, 날은 ‘밧닐’로 했어요?)

103005 #1 으.(으.)

103005 @2 아까 밧닐이엔 헐 때 미¹⁴⁶가 뉘우과?(아까 ‘밧닐’이라고 할 때 ‘미’가 뉘니까?)

103005 #1 미가 저 미뉘쟁이라고 잇지 안허냐?(‘미’가 저 억새꽃이라고 잇지 않나?)

103005 #3 억새, 억새. 억새라. 꽃 피기 전이.(억새, 억새. 억새야. 꽃 피기 전에.)

103005 #1 억새 그걸 꽃 피기 전에 부룩¹⁴⁷이 영 사민 그걸 빠, 그 미 빠 온덴 허주.(억새 그걸 꽃 피기 전에 ‘부룩’이 이렇게 서면 그걸 빠, 그 ‘미’ 빠 온다고 하지.)

103005 @2 예.(예.)

145) ‘밧닐’은 억새꽃으로 만든 날을 말한다.

146)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147) ‘부룩’은 수수, 벼 따위 식물의 이삭이 채 나오기 전에 껍질에 쌓여 불룩하게 된 것을 말한다. ‘부레기’, ‘부룩기’라고도 한다.

103005 #1 그걸 빼다가 집이서 물류와 가지고서 물류민.(그걸 빼다가 집에서 말려 가지고서 마르면.)

103005 #3 억새꽃 빼 두고.(억새꽃 빼 두고.)

103005 #1 그 꽃을 빼 볼 거 아니라, 물류민. 그거 꼭 퍼지민 그걸 해 불민, 빠 불민 그걸로 이제 낫다가 노 파서 신도 삼고 쉼얏배도 허고 물 지는 허벽 뗏도 허고 다 그렇게 했주.(그 꽃을 빼 버릴 거 아니야, 마르면. 그거 꼭 퍼지면 그걸 해 버리면, 빼 버리면 그걸로 이제 낫다가 노 파서 신도 삼고 참바도 하고 물 지는 허벽 뗏도 하고 다 그렇게 했지.)

103004 @2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예. 그다음에 갈젠 허민 뒤로 갈았수과?(예,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갈려고 하면 뒤로 갈았습니까?)

103004 #1 쉼로 갈주, 쉼로.(소로 갈지, 소로.)

103004 @2 쉼로예. 게민 쉼로 갈젠 허민 필요헌 게 뭐 뭐 있어마썸?(소로요. 그럼 소로 갈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 뭐 있어요?)

103004 #1 쟁기가 필요허주, 쟁기.(쟁기가 필요하지, 쟁기.)

103004 @2 쟁기.(쟁기.)

103004 #1 어. 쉼 갈젠 허민 쉼 명에.(어. 소 갈려고 하면 소 명에.)

103004 @2 예, 명에.(예, 명에.)

103004 #1 으, 명에, 그 쟁기 또 이제 거 뭐인가 가린석이란 게.(으, 명에, 그 쟁기 또 이제 거 뭐인가 고삐란 게.)

103004 @2 가린석?(고삐?)

103004 #1 으, 거 쉼 이레 갖당 저레 갖당 허는 거.(으, 거 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

103004 @2 쉼 게민 빨에 이렇게 허는 거우과?(소 그럼 빨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103004 #1 어 어.(어 어.)

103004 @2 가린석. 가린석은 양쪽에 잇는 거우과?(고삐. 고삐는 양쪽에 잇는 겁니까?)

103004 #1 어 어 양쪽에 잇는 거.(어 어 양쪽에 잇는 거.)

103004 @2 한줄은 뭐우과?(봇줄은 뭐니까?)

103004 #1 한줄은 쉼가 이렇게 명에에 부튼 거주. 그걸 이렇게 땡길 거주.(봇줄은 소가 이렇게 명에에 붙은 거지. 그걸 이렇게 당길 거지.)

103004 @2 아, 한줄은.(아, 봇줄은.)

103004 #1 한줄은 명에 메와근에 그걸 땡기는 거.(봇줄은 명에 메워서 그걸 당기는 거.)

103004 @2 예, 게민 명에가 필요허고.(예, 그럼 명에 필요하고.)

103004 # 한줄 필요허고 그다음에는 뒤에 거, 무시거엔 허느니, 거?(봇줄 필요하 고 그다음에는 뒤에 거, 무엇이라고 하니, 거?)

- 103004 #3 어?(어?)
- 103004 #1 그 한줄 뒤에 쟁기에 메우는 거.(그 붓줄 뒤에 쟁기에 메우는 거.)
- 103004 #3 아, 오리목¹⁴⁸⁾ 말허는 거. 오릿목입주게.(아, ‘오리목’ 말하는 거. ‘오리목’이지.)
- 103004 #1 아, 오리목, 오리목.(아, ‘오리목’, ‘오리목’.)
- 103004 @2 오리목 한줄 다음에 오리목 뒤에 이렇게.(‘오리목’ 붓줄 다음에 ‘오리목’ 뒤에 이렇게.)
- 103004 #1 그거 오리목이 쟁기에 이렇게 헤영.(그거 ‘오리목’이 쟁기에 이렇게 해서.)
- 103004 #3 장기에 거 부튼 것이 영 돌아진 것이 오리목이라.(쟁기에 거 붙은 것이 이렇게 달린 것이 ‘오리목’이야.)
- 103004 @2 예, 예. 게믄 쟁기 험니까, 잠대 험니까, 여기선?(예, 예. 그럼 쟁기 험니까, ‘잠대’ 험니까, 여기선?)
- 103004 #1 잠대엔 허지, 잠대.(‘잠대’라고 하지, ‘잠대’.)
- 103004 #3 여기선 잠대.(여기선 ‘잠대’.)
- 103004 @2 예. 옛날말로 막 튼내 줘야 돼예. 잠대. 삼춘 여기 혹시 보리 갈면 보리 간 다음에 골 갈았수과?(예. 옛날말로 마구 생각해 줘야 돼요. 쟁기. 삼춘 여기 혹시 보리 갈면 보리 간 다음 골 갈았습니까?)
- 103004 #1 아이 같아서.(아니 같았어.)
- 103004 @2 여기는 안 갈앙 한 번 갈앙?(여기는 안 같아서 한 번 같아서?)
- 103004 #3 뭘 안 갈아?(뭘 안 갈아?)
- 103004 @2 골, 골.(골, 골.)
- 103004 #1 아, 게메 보리 씨 빼 낭 갈아야지.(아, 그럼 보리 씨 뿌리고 나서 갈아야지.)
- 103004 @2 아니, 싹 난 다음에.(아니, 싹 난 다음에.)
- 103004 #1 아니, 난 다음에 안 해서.(아니, 난 다음에 안 했어.)
- 103004 @2 난 다음에 안 헤예. 게믄?(난 다음에 안 해요. 그럼?)
- 103004 #1 건, 건 수돗 블린덴 경 헛주만은 옛날에 경 안 돼여.(건, 건 북 밟는 다고 그렇게 했지만 옛날에 그렇게 안 돼.)
- 103004 @2 음. 여기는 수돗을 안 올렸구나예. 예 알앗수다. 그렇게 해서 허믄 게믄 잠대도 혼 종류베끼 엇이켜예, 이 동넨예?(음. 여기는 북을 안 올렸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럼 잠대도 한 종류밖에 없겠네요, 이 동넨요?)
- 103004 #1 으, 잠대도 혼 종류베긴 엇어.(으, 쟁기도 한 종류밖에 없어.)
- 103004 @2 그다음에 잠대 허젠 허민 밧 갈젠 허민 필요헌 도구덜이 잇지 안 허과? 아까 벧도 잇텐 허고 삼춘.(그다음에 쟁기 하려고 하면 밧 갈려고 하면 필요헌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벧도 있다고 하고 삼춘.)

148) ‘오리목’은 붓줄 끝에 매인 나무와 쟁기의 성에 사이에 잇대어 붙잡아 매는 줄이다.

103004 #1 아, 게메 뱃 보섭게.(아, 글썸 뱃 보습.)
103004 @2 뱃허고 보섭.(뱃하고 보습.)
103004 #1 보섭.(보습.)
103004 #3 아, 거 잡대 다 부텃주, 뱃이고 보섭이고.(아, 거 쟁기 다 붙었지, 뱃이고 보습이고.)
103004 @2 예.(예.)
103004 #3 다 무쇠로 멘든 건디.(다 무쇠로 만든 건데.)
103004 @2 게민 뱃허고 보섭도 전부 이 동네 아까 불미항에서.(그럼 뱃하고 보섭도 전부 이 동네 아까 대장간에서.)
103004 #1 아이, 그건 엇어.(아니, 그건 없어.)
103004 #3 건 이 동네 엇어서.(건 이 동네 없었어.)
103004 #1 이 동네 없어 가지고 주로이 대정서 이디 만이 멘들영 왕 풀주. 대정.(이 동네 없어 가지고 주로 대정에서 여기 많이 만들어서 와서 팔지. 대정.)
103004 #3 어.(어.)
103004 @2 아.(아.)
103004 # 대정.(대정.)
103004 @2 아, 대정에서.(아, 대정에서.)
103004 #3 어, 뱃 보섭은.(어, 뱃 보습은.)
103004 #1 뱃 보섭은.(뱃 보습은.)
103004 #3 잡대는 이 동네에서 나무로 해서 멘드는 사람도 잇엇주만은이.(쟁기는 이 동네에서 나무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103004 @2 예.(예.)
103004 #3 옛날에 그 뱃 보섭은 그 공장이 제주도서 멧 밧디 엇어서.(옛날에 그 뱃 보습은 그 공장이 제주도에서 멧 군데 없었어.)
103004 @2 예.(예.)
103004 #3 게난 주로 우리 듣기론이.(그러니까 주로 우리 듣기론.)
103004 #1 시장에 강 사야주.(시장에 가서 사야지.)
103004 #3 안덕면 덕수리가이 큰 저기, 안덕면 덕수리에서.(안덕면 덕수리가 큰 저기, 안덕면 덕수리에서.)
103004 #1 대정에서 만이 이디 오랑 풀앗주.(대정에서 많이 여기 와서 팔았지.)
103004 @2 삼촌도 직접 쟁기 멘들아 뽕디가?(삼촌도 직접 쟁기 만들어 뽕디까?)
103004 #1 아니, 건 목수 아니민 못 멘들아.(아니, 건 목수 아니면 못 만들어.)
103004 @2 아, 직접은 안 허고예?(아, 직접은 안 하고요?)
103004 #3 잡대는이 목쉬 아니민 못 멘들아. 어 저 지게허고.(쟁기는 목수 아니면 못 만들어, 어 저 지게하고.)
103004 @2 예, 지게허고.(예, 지게하고.)

103004 #3 계난 잠대 궁기는이 바른 궁기가 하나도 없어. 지게도이 계난 헤나지 안헌 사름은 못 해.(그러니까 쟁기 구멍은 바른 구멍이 하나도 없어. 지게도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해.)

103004 @2 이 동네 계른 잠대 멘들아난 사람은 엇구나예?(이 동네 그럼 쟁기 만들었던 사람은 없군요?)

103004 #1 혼 두어 사름 목수덜은 다 목수덜은 다 해.(한 두어 사름 목수들은 다 목수들은 다 해.)

103004 @2 아, 이제 이수과? 그 어른덜도?(아, 이제 있습니까? 그 어른덜도?)

103004 #1 아, 다 돌아갓주만은.(아, 다 돌아갓지만.)

103004 #3 다 돌아가 부난 엇어.(다 돌아가 버리니까 없어.)

103004 #1 거 쟁기 만드는 걸 쟁기 서끈¹⁴⁹텐 허주.(거 쟁기 만드는 걸 쟁기 ‘서끈다’고 하지.)

103004 @2 쟁기 서끈텐예?(쟁기 ‘서끈다’고요?)

103004 #1 으, 쟁기 서끈다.(으, 쟁기 ‘서끈다’.)

103004 @2 예, 계난 그 쟁기 서끄는 사람이 잇어야 되는 건디예?(예, 그러니까 쟁기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디요?)

103004 #1 예, 엇다.(예, 없다.)

103004 @2 그건 엇수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견 갈 때, 갈 때였잖아예?(그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견 갈 때, 갈 때였잖아요?)

103004 #1 으.(으.)

103010 @2 그다음에 빌 때 허젠 허면은?(그다음에 벨 때 하려고 하면?)

103010 #1 호미가 필요허고.(낫이 필요하고.)

103010 @2 호미가 필요허고. 만약에 호미가 이제 무껴 불 거 아니우과?(낫이 필요하고. 만약에 낫이 이제 무더 버릴 거 아닙니까?)

103010 #1 게 곁아야지게.(그래 곁아야지.)

103010 @2 예, 곁젠 허민 또 뭐가 필요험니까?(예, 갈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103010 #1 신들게.(숫돌.)

103010 #3 신들로 곁아야주, 곁아야.(숫돌로 곁아야지, 곁아야.)

103010 @2 신돌예. 신들로 곁고.(숫돌요. 숫돌로 곁고.)

103010 #1 건 곁아야. 하루 혼 번은, 두 번은 곁아야 돼주. 낮에 허고. 열두 시에 혼 번 곁고 세 시에쭈 혼 번 곁고.(건 곁아야. 하루 한 번은, 두 번은 곁아야 되지. 낮에 하고. 열두 시에 한 번 곁고 세 시쭈 한 번 곁고.)

103010 @2 예. 그다음에 신돌이 필요헌 거고 무끄젠 허민 아까 보리?(예. 그다음에 숫돌이 필요한 거고 묶으려고 하면 아까 보리?)

103010 #1 으.(으.)

149) ‘서끄다’는 나무를 깎아 무엇을 만드는 것으로, 제보자는 쟁기를 만드는 것을 ‘쟁기 서끈다’라고 하였다.

103010 @2 그 그냥 보리 제끼로 해서.(그 그냥 보리 ‘제끼’로 해서.)
 103010 #1 제끼¹⁵⁰로 해서.(‘제끼’로 해서.)
 103010 @2 무끄고 그다음에 늘어근에 이젠 비 맞지 말젠 해 갖고 더꺼야.(뭉고 그다음에 가렸다가 이제 비 맞지 말라고 해 가지고 덮어야.)
 103010 #1 겐 느람지, 느람지를 더껏주.(그래서 이엉, 이엉 덮었지.)
 103010 #3 새, 새로 헌 걸 느람쥐라고이. 이런 집이서 새 비어다가 겨울에 물려서 그거로 역블로 멘드는 거라. 게난 옛날은 가빠도 뭐 없었거든. 뭐 없으니까 다 겨울이나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조나 다 그걸로 더껏지게.(띠, 띠로 한 걸 이엉이라고. 이런 집에서 띠 베어다가 겨울에 말려서 그걸로 일부러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은 가빠도 뭐 없었거든. 뭐 없으니까 다 겨울이나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조나 다 그걸로 덮었지.)
 103010 @2 예, 느람쥐.(예, 이엉.)
 103010 #3 저 집 이는 새로.(저 집 이는 띠로.)
 103010 #1 새로 멘든, 예긴 거주.(새로 만든, 엮은 거지.)
 103010 @2 예, 새로 예긴 거. 그다음에 느람쥐 우에 더끄는 거는 뭐렌 해수과?(예, 새로 엮은 거. 그다음에 이엉 위에 덮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103010 #1 거 주쟁이.(거 주저리.)
 103010 @2 주쟁이.(주저리.)
 103010 #3 느람쥐 우이 가운데 그거를 게메 주쟁이라, 주쟁이 허허허.(이엉 위에 가운데 그거를 그래 주저리야, 주저리 허허허.)
 103010 #1 주쟁이 거는 다 사람마다 다 만들 수 잇는 거.(주저리 거는 다 사람마다 다 만들 수 잇는 거.)
 103010 @2 아. 주쟁이는 만드는 거예?(아, 주저리는 만드는 거요?)
 103010 #1 건디 새로 해야 돼.(건데 띠로 해야 돼.)
 103011 @2 예, 주쟁이도 새로 헤어서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타작할 때 필요헌 게 아까?(예, 주저리도 띠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타작할 때 필요한 게 아까?)
 103011 #1 도께.(도리께.)
 103011 @2 도께. 도께 필요허고 그다음에 도께는 뭐에 놔근에 헌 거라마씨?(도리께. 도리께 필요허고 그다음에 도리께는 뭐에 놔서 한 거지요?)
 103011 #1 거 마당에, 마당에 거 다 퍼 놔서 게난 그걸 뭐 그스라기 어디 가지 못허게 그 지지개를 다 쳐. 지직이란 거.(거 마당에, 마당에 거 다 퍼 놔서 그러니까 그걸 뭐 까끄라기 어디 가지 못허게 그 기직을 다 쳐. 기직이란 거.)
 103011 @2 지직.(기직.)
 103011 #1 지직 거 빙 허게 돌아가면서. 거 뭐인가 곡식 거튼 거 어디.(기직 거 빙 하게 돌아가면서. 거 뭐인가 곡식 같은 거 어디.)

150) ‘제끼’는 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매끼를 그 곡식 줄기를 틀어 만든 것을 말한다.

103011 @2 튀지 못하게.(튀지 못하게.)

103011 #1 튀지 못하게. 경 다 행 도끼로 태작하는 거.(튀지 못하게. 그렇게 다 해서 도리끼로 태작하는 거.)

103011 @2 그럼 맨땅에서 흰 거라마쌌.(그럼 맨땅에서 하는 거예요?)

103011 #1 맨땅에서.(맨땅에서.)

103011 @2 아, 명석 끈 거 아니고.(아, 명석 끈 거 아니고.)

103011 #1 아니, 명석 안 갈아.(아니, 명석 안 갈아.)

103011 @2 아하, 마당 옛날에야 마당에 다 흑 아니과?(아하, 마당 옛날에야 마당에 다 흑 아닙니까?)

103011 #1 흑이주게. 계란 명석이영 안 갈양 헛주게. 명석 안 갈양 그냥.(흑이지. 그러니까 명석이랑 안 갈아서 했지. 명석 안 갈아서 그냥.)

103011 @2 그걸 이제 다 흰 거라예. 삼촌 아까 지직은 뭘로 만듭니까?(그걸 이제 다 한 거지요. 삼촌 아까 지직은 뭘로 만듭니까?)

103011 #1 지직은 지직은 것도 여러 가지로 만들주. 지직이란 건 에 또 뭐인가 그거 아까 역새 잊지 안혀여?(지직은 지직은 것도 여러 가지로 만들지. 지직이란 건 에 또 뭐인가 그거 아까 역새 잊지 않아?)

103011 @2 예, 예.(예, 예.)

103011 #1 그런 것도 비어다가 그 익은 거 비어다가도 만들고 뭘 또 이 새로도 만들고 또 이 조침으로도 만들고 혀엿주게. 조침으로.(그런 것도 베어다가 그 익은 거 베어다가 만들고 뭘 또 이 때로도 만들고 또 이 조짚으로도 만들고 했지. 조짚으로.)

103011 @2 조침으로예?(조짚으로요?)

103011 #1 어.(어.)

103011 @2 그러면 그 지직은 만들면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과?(그러면 그 지직은 만들면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103011 #3 아, 예를 들어서.(아, 예를 들어서.)

103011 #1 그 초석 봐나서, 초석?(그 초석 봤었어, 초석?)

103011 @2 예, 예.(예, 예.)

103011 #1 거 그런 식으로 돼주게, 그런 식으로. 길게 짜민 막 길게도 짤 수 있고. 또 흔 흔 댕자씩 헤근에 영 부쩌근에 지직 영 칠 때는 경헐 수도 있고.(거 그런 식으로 되지, 그런 식으로. 길게 짜면 아주 길게도 짤 수 있고. 또 한 한 댕자씩 해서 이렇게 붙여서 지직 이렇게 칠 때는 그럴 수도 있고.)

103011 @2 그럼 지직의 용도는 주로 그런 용도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써났수과?(그럼 지직의 용도는 주로 그런 용도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썼었습니까?)

103011 #1 다른 용도는 엇고 그런 디로 주로 만이, 만이 쓰고 또 이제 그 옛날엔 그 뭐인가 그 산모가 있으면은 것도 바깥디 지직을 쳐낫주, 또.(다른 용도는 없고 그런 테로 주로 많이, 많이 쓰고 또 이제 그 옛날엔 그 뭐인가 그 산모가 있으

면 것도 밖에 기적을 쳤었지, 또.)

103011 @2 아.(아.)

103011 #1 그 무시거 몸 비린¹⁵¹⁾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시기 허카부덴.(그 무엇 몸 ‘비린’ 사람이 들어오면 거시기 할까 봐.)

103011 @2 그 지직을 어디에, 올레에 치는 거라마씨?(그 기적을 어디에, ‘올레’에 치는 거예요?)

103011 #1 아니 아니, 창문. 난간 창문에 영 치고 또 이제 상이 나도 지직을 영 임시 쳤다가 거 가져 두고 상 싱그고 경허는 거주.(아니 아니, 창문. 난간 창문에 이렇게 치고 또 이제 상이 나도 기적을 이렇게 임시 쳤다가 거 가져 두고 상 차리고 그러는 거지.)

103011 @2 아, 상났을 때.(아, 초상났을 때.)

103011 #3 거 초상날 때도 쳐나지 안헤수과?(거 초상날 때도 쳤었지 않습니까?)

103011 #1 게메, 초상날 때.(그래, 초상날 때.)

103011 @2 케민, 초상날 때도 방 앞에 치는 거?(그럼, 초상날 때도 방 앞에 치는 거?)

103011 #1 아니 아니, 방 앞 그 그 방 바깥, 바깥 잇지 안허냐? 난간, 난간.(아니 아니, 방 앞 그 그 방 바깥, 바깥 잇지 않니? 난간, 난간.)

103011 @2 난간.(난간.)

103011 #1 난간 창문. 창문.(난간 창문. 창문)

103011 @2 창문 앞에, 무똥에.(창문 앞에, 문 앞에.)

103011 #1 으. 창문 무똥¹⁵²⁾에.(으. 창문 앞에.)

103011 @2 아, 창 무똥에 허는 거라예. 방 못 보게.(아, 창 앞에 하는 거지요. 방 못 보게.)

103011 #1 으. 못 보게.(으. 못 보게.)

103011 @2 아. 게난 곡석 도끼질할 때도 튀지 말렌 치고 그다음에 산모 있을 때.(아. 그러니까 곡석 도끼질할 때도 튀지 말라고 치고 그다음에 산모 있을 때.)

103011 #1 것도 치, 그때도 쳤고.(것도 치, 그때도 쳤고.)

103011 @2 애기 낳고 이럴 때도 이제 치고.(애기 낳고 그럴 때도 이제 치고.)

103011 #1 어. 거 몸 비린 사름 다니면은 산모가 막 거 등얼허주¹⁵³⁾게. 거 우리가 저 미신이라고 허주만은이 옛날에는 여기 종기가 많이 나났어. 사람이 이 어린아이덜이 종기.(어. 거 몸 ‘비린’ 사람 다니면 산모가 아주 거 ‘등얼허주’. 거 우리가 저 미신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 종기가 많이 났었어. 사람이 이 어린아이들이 종기.)

103011 @2 예, 예.(예, 예.)

103011 #1 종기가 많이 낫는데 게 이 종기가 많이 낫는데 그 영장이 날 거 아

151) ‘비리다’는 꺼림칙한 송장이나 마소 등 동물이 죽은 것을 보고 몸이 더러워진 것을 말한다.

152) ‘무똥’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여기서는 ‘문 앞’을 가리킨다.

153) ‘등얼허다’는 심신상에 큰 고통을 받아서 회복이 안 되고 시달린다는 의미로 쓰였다.

니냐이? 영장이 나면은 뭐인가 양웨라고 있어, 양웨.(종기가 많이 났는데 그래 이
종기가 많이 났는데 그 초상이 날 거 아니니? 초상이 나면 뭐인가 양하라고 있어,
양하.)

103011 @2 예. 양웨.(예. 양하.)

103011 #1 양웨를 헤다가 거 채와 주던가 또 이제 그렇게 방세¹⁵⁴)를 헤여. 경
허면 그런 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거 안 채와근에 피부병이 피부병이 잇은 사
람이 영장 그 몸 비린 사람 보면은 막 헤싸지고 말야, 거세기 헤났어. 경헤 가지고
그 저 땡유자¹⁵⁵)낭허고 양웨 헤 가지고서 그 방세를 했지.(양하를 헤다가 거 채워
주던가 또 이제 그렇게 ‘방세’를 해. 그러면 그런 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거 안
채워서 피부병이 피부병이 잇는 사람이 송장 그 몸 ‘비린’ 사람 보면 마구 헤어지고
말야, 거시기 했었어. 그래 가지고 그 저 유자나무하고 양하 헤 가지고서 그 ‘방세’
를 했지.)

103012 @2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작을 하고예, 아까 얘기한 타작헌 거를, 타
작헌 거를 이제 쌀로 만들젠 허면은?(예,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작을 하고요, 아까 얘
기한 타작한 거를, 타작한 거를 이제 쌀로 만들려고 하면?)

103012 #1 거 불려야 돼. 그 다.(거 불려야 돼. 그 다.)

103012 @2 불린 다음에.(불린 다음에.)

103012 #1 어.(어.)

103012 #3 브름으로 불려야 돼, 브름으로.(바람으로 불려야 돼, 바람으로.)

103012 #1 바람이 바람, 바람 거 췌게 나는 날 불려야 돼. 그 날 못 불릴 수도
잇어. 계난 그걸 깨끗이 불려 가지고서 맥에 담양 놔다가.(바람이 바람, 바람 거 췌
게 나는 날 불려야 돼. 그 날 못 불릴 수도 잇어. 그러니까 그걸 깨끗이 불려 가지
고서 맥에 담아 놔다가.)

103012 @2 예.(예.)

103012 #1 게 요 그 향, 그 향상 밧에 나가기 때문에 그 틈을 타 가지고서 쓸이
떨어지민 밤에도 영 혈 수 잇고 경 안 허민 비 온 날 물궤레에 강 굴고 그렇게.(그
래 요 그 향, 그 향상 밧에 나가기 때문에 그 틈을 타 가지고서 쌀이 떨어지면 밤
에도 이렇게 할 수 잇고 그렇게 안 하면 비 온 날 연자매에 가서 갈고 그렇게.)

103012 @2 물궤레 가근에 궤는 거라예. 아, 쟁 이제 물궤레 강 굴 때 아까 필
요헌 것들은 사람 수눌어근에 허고.(연자매 가서 가는 거지요. 아, 그래서 이제 연
자매 가서 갈 때 아까 필요한 것들은 사람 품앗이해서 하고.)

103012 #1 사럼 수눌영.(사람 품앗이해서.)

103012 @2 맥에.(떡에.)

103012 #1 푸는체도 필요허고 건디.(키도 필요하고 건데.)

103012 @2 예, 푸는체.(예, 키.)

154) ‘방세’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말한다. ‘방법’, ‘방쉬’라고도 한다.

155) ‘땡유자’는 글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것으로, 유자의 한 종류다.

103012 #1 푸는체허고 거 뭐인가 거 비, 비차락.(키하고 거 뭐인가 거 비, 빗자루.)

103012 @2 예.(예.)

103012 #1 비차락은 항상 쓸어근에 그레 행 뭐인가 그 올려줘야 돼. 이레 나오는 걸 자꾸 이렇게.(빗자루는 항상 쓸어서 그리 해서 뭐인가 그 올려줘야 돼. 이리 나오는 걸 자꾸 이렇게.)

103012 @2 올리는 비차락을 무슨 비차락이엔 헛수과?(올리는 빗자루를 무슨 빗자루라고 했습니까?)

103012 #1 ㄹ레, ㄹ렛비¹⁵⁶)라고 현 거 조금 든든현 거라야 돼.(맷돌, ‘ㄹ렛비’라고 하는 거 조금 단단한 거여야 돼.)

103012 @2 ㄹ렛비?(‘ㄹ렛비’?)

103012 #1 ㄹ렛비.(‘ㄹ렛비’.)

103012 @2 그 ㄹ렛비는 필로 만들언마씨?(그 ‘ㄹ렛비’는 필로 만들었어요?)

103012 #3 스투비.(싸리.)

103012 #1 스투비로 주로 멘들앗주. 스투비.(싸리로 주로 만들었지. 싸리.)

103012 @2 아, 요즘도 스투비 갑니까?(아, 요즘도 싸리 갑니까?)

103012 #1 아, 스투비 같아.(아, 싸리 같아.)

103012 @2 아.(아.)

103012 #1 계난에 그 스투비로도 허고 그 뭐인가 여기는 저 그 뭐인가 그.(그러니까 그 싸리로도 하고 그 뭐인가 여기는 저 그 뭐인가 그.)

103012 #3 대축낭으로도 허고.(수수깡으로도 하고.)

103012 #1 대축낭 그 느렁대축¹⁵⁷. 종지대축¹⁵⁸)이라고 잇주.(수수깡 그 ‘느렁대축’. ‘종지대축’이라고 있지.)

103012 @2 예.(예.)

103012 #1 그 범벅 행 먹고 허는 거.(그 범벅 해서 먹고 하는 거.)

103012 @2 예.(예.)

103012 #1 그 대축이 그 뭐인가 딱딱허주게. 그걸로 주로 만이 헛주. ㄹ렛비는.(그 수수가 그 뭐인가 딱딱하지. 그걸로 주로 많이 했지. ‘ㄹ렛비’는.)

103012 #3 그 느렁대축 열매도 먹어낫주게. 여름에 막, 막 여름에. 여름에 중간에 보민 거 가는 사름 재배허는 사름 헤낫주게.(그 ‘느렁대축’ 열매도 먹었었지. 여름에 아주, 아주 여름에. 여름에 중간에 보민 거 가는 사람, 재배하는 사람 했었지.)

103012 @2 잠깐만예. 느렁대축이라고 허면 쌀이 이렇게 쉰 것과 아니면 축축 늘어진 거우과?(잠깐만요. ‘느렁대축’이라고 하면 쌀이 이렇게 된 것과 아니면 축축 늘어진 겁니까?)

103012 #1 느렁, 느렁대축은 축 거시기 현 것이고 이걸 종지대축은 그자 과짜

156) ‘ㄹ렛비’는 ‘ㄹ레+비’의 구성으로 연자매에서 곡식을 장만할 때 사용하는 비를 말한다.

157) ‘느렁대축’은 이삭이 길게 아래로 휘늘어지는 수수의 한 가지다.

158) ‘종지대축’은 이삭의 모양이 사람의 손 주먹과 비슷한 수수의 한 가지다.

사 가지고 발갭게 익어. 그건 막 출, 출지주. 계난 옛날은 도깨비가 대축 범벅 행 먹어 그거 해 가지고서 도깨비 거시기 헌덴 해낫주.('느렁', '느렁대축'은 축 거시기 한 것이고 이건 '종지대축'은 그저 곧게 서 가지고 발갭게 익어. 그건 아주 찰, 찰지지. 그러니까 옛날은 도깨비가 수수 범벅 해서 먹어 그거 해 가지고서 도깨비 거시기 한다고 했었지.)

103012 @2 도깨비가 대축 범벅 먹는다고예?(도깨비가 수수 범벅 먹는다고요?)

103012 #1 어.(어.)

103012 @2 삼촌 아까 느렁대축은 혹시 비 만드는 건가?(삼촌 아까 '느렁대축'은 혹시 비 만드는 건가?)

103012 #1 아, 것도 비, 주로 비 만들주. 거 그자 가쟁이 사용하는 거.(아, 것도 비, 주로 비 만들지. 거 그저 가지 사용하는 거.)

103012 @2 으.(으.)

103012 #1 것도, 것도.(것도, 것도.)

103012 @2 비대축은 어떤 것과, 비대축은?('비대축'은 어떤 겁니까, '비대축'은?)

103012 #1 비대축¹⁵⁹. 느렁대축이 그 비 만들고 종지대축, 종지대축은 건 물그레 헐 때.('비대축', '느렁대축'이 그 비 만들고 '종지대축', '종지대축'은 건 연자매 할 때.)

103012 @2 아, 물그레 헐 때 허고. 그러면 종지대축이 우리 요즘 말허는 수수라예?(아, 연자매 할 때 하고. 그러면 '종지대축'이 우리 요즘 말하는 수수지요?)

103012 #1 으, 그게 수수여.(으, 그게 수수야.)

103012 @2 예, 그럼 쌀이 종지대축이 쌀이 더 좋구나예?(예, 그럼 쌀이 '종지대축'이 쌀이 더 좋군요?)

103012 #1 거 좋주게. 이 느렁대축은 안 먹는 거.(거 좋지. 이 '느렁대축'은 안 먹는 거.)

103012 @2 안 먹는 거.(안 먹는 거.)

103012 #1 거 먹지 못 허는 거. 비차락용으로.(거 먹지 못 하는 거. 빗자루용으로.)

103012 @2 예, 비차락용으로 느렁대축 간 거라예. 삼촌 스투비엔 헐 것은 어떤 거우과?(예, 빗자루용으로 '느렁대축' 간 거지요. 삼촌 싸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103012 #1 스투비란 것은 이 그 스투비가 주로 이 마당도 쓸고 뭐 허고 청소할 때 허는 거주게. 그 땅땅헌 건디 거 이제도 많이 간다, 그거.(싸리비란 것은 이 그 싸리비가 주로 이 마당도 쓸고 뭐 하고 청소할 때 하는 거지. 그 땅땅한 건디 거 이제도 많이 간다, 그거.)

103012 @2 아.(아.)

159) '비대축'은 '비+대축' 구성으로, 빗자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수수를 말한다.

103012 #1 우리 집이도 나 같아 잇는다.(우리 집에도 내가 같아 잇는데.)

103012 @2 아, 지금 같아 잇수과? 자 사진 찍을 게. 옛날에는 그 비 만들젠 허민 스투비들 다 갈았잖아예?(아, 지금 같아 잇습니까? 자 사진 찍을 게. 옛날에는 그 비 만들려고 하면 싸리비들 다 갈았잖아요?)

103012 #1 어. 다 갈았주게.(어. 다 갈았지.)

103012 @2 어떤 건지 알아지쿠다.(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103012 #1 스투비가 왜 필요했는고 허민 옛날에 눈이 만이 와서, 마당에 눈이 만이 오면은 날레군데 잇어이.(싸리비가 왜 필요했는가 하면 옛날 눈이 많이 와서, 마당에 눈이 많이 오면 고무래 잇어.)

103012 @2 예.(예.)

103012 #1 날레군데로 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눈을 거 옮길 거 아니라이. 밑에는 눈이 잇거든. 걸 스투비로 다 끌어내고 그랬지.(고무래도 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눈을 거 옮길 거 아니야. 밑에는 눈이 잇거든. 걸 싸리비로 다 끌어내고 그랬지.)

103012 @2 아, 눈 하영 오난. 삼촌 아까 이제 날렛군데 이제 우리 날레¹⁶⁰⁾ 너는 거를?(아, 눈 많이 오니까. 삼촌 아까 이제 고무래 이제 우리 ‘날레’ 너는 거를?)

103012 #1 으, 그 날레 날레 널면은 그 날렛군데로 영 거 다 영 거세기 명석이 영 허면은 날렛군데로 나뉘 영 펜펜허게 고무래 날렛군데로.(으, 그 ‘날레’, ‘날레’ 널면 그 고무래로 이렇게 거 다 이렇게 거시기 명석이 이렇게 하면 고무래로 나뉘서 이렇게 편편하게 고르지, 고무래로.)

103012 @2 예. 여기도 명석 짜는 하르방덜 잇어났수과?(예. 여기도 명석 짜는 할아버지들 있었습니까?)

103012 #1 셔낫주. 우리도 다 짜낫는데.(있었지. 우리도 다 짚었는데.)

103012 @2 아아.(아아.)

103012 #1 명석덜은.(명석들은.)

103012 #3 명석, 맥 다, 아까 그 맷방석이라고 그런 것도 다 다.(명석, 맥 다, 아까 그 맷방석이라고 그런 것도 다 다.)

103012 #1 우리가 다 했주게.(우리가 다 했지.)

103012 @2 예.(예.)

103012 #3 그때는이 밧베 잇잖아, 밧베. 밧베낭으로.(그때는 밧베 잇잖아, 밧베. 밧베짚으로.)

103012 @2 예, 알았수다.(예, 알겠습니다.)

103012 #3 계난 산디, 제주도 말로 산디지. 겨울 뉘면은이 그걸로 다.(그러니까 밧베, 제주도 말로 ‘산디’지. 겨울 뉘면은 그걸로 다.)

103012 @2 예. 계민 명석도 왜 크기가 종류가 큰 것도 잇고 작은 것도 잇지 안허우과?(예. 그럼 명석도 왜 크기가 종류가 큰 것도 잇고 작은 것도 잇지 않습니까?)

160) ‘날레’는 벌을 쫓기 위하여 명석에 넣어놓는 곡식을 말한다.

103012 #1 보통 규격이 거의 ㄴ트지. 날레 너는 것은. 그 ㄴ렛방식만 제외하고는 거의 ㄴ타.(보통 규격이 거의 같지. ‘날레’ 너는 것은. 그 ㄴ렛방식만 제외하고는 거의 같아.)

103012 @2 아, 예 알았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석이 필요한 거고 날렛군데가 필요한 거고.(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석이 필요한 거고 고무래가 필요한 거고.)

103012 #1 이 날렛군데 우리 집에도 있고. 명석도 있져.(이 고무래 우리 집에도 있고. 명석도 있어.)

103012 @2 예, 알았수다. 그거 사진 찍을 거고. 게문 불림질할 때 이제 손박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 사진 찍을 거고. 그럼 불림질할 때 이제 ‘손박’요?)

103012 #1 어, 속박¹⁶¹⁾하고 얼멍이가 꼭.(어, ‘속박’하고 어레미가 꼭.)

103012 @2 속박하고 얼멍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푸는체도 필요한 거라예? (‘속박’하고 어레미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키도 필요한 거지요?)

103012 #1 으.(으.)

103012 @2 경허고 그거도 치니까 체도 필요한 거고.(그리고 그거도 치니까 체도 필요한 거고.)

103012 #1 으. 체도 필요허주.(으. 체도 필요하지.)

103012 @2 그 보리 칠 때는 어느 체로 첫수과?(그 보리 칠 때는 어느 체로 첫습니까?)

103012 #1 주로 얼멍이로 쳐, 얼멍이도 치고 대체로 치주, 대체.(주로 어레미로 쳐, 어레미도 치고 대체로 치지, 대체.)

103012 @2 대체로예. 뭐 총체나 거름체는?(대체로요. 뭐 총체나 ‘거름체’는?)

103012 #1 아, 그건 안 허고.(아, 그건 안 하고.)

103012 @2 그거는 가루들 허는 거지예. 예, 이렇게 하면은 거의 웬 거 닻수다. 보리는. 고생했수다.(그거는 가루들 하는 거지요. 예, 이렇게 하면 거의 된 거 닻습니다. 보리는. 고생했습니다.)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1 이젠 쉼 길러난 거 여쭙보쿠다. 쉼 길러난 거.(이젠 소 길렀던 거 여쭙보겠습니다. 소 길렀던 거.)

104001 #1 쉼이 쉼 거 집집마다 그때는 저것이 농사짓젠 허민 쉼 없이는 안 돼주게. 집집마다 남자,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길루긴 길뤄는데이, 소는 길

161) ‘속박’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뜯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죤팍, 죤박, 손박’이라고도 한다.

르는 목적은 우선은 농사짓기, 밭 갈기 위해서 소를 길렀고이, 소를 길렀는데 나중에는 저것이 이제 소가 시세가 좋니까, 좋니까이 새끼를 그 부랭이, 부랭이 나면은 그때 돈도 한 오만 원, 십만 원 갖지. 계난, 계난이 소 질룸도 큰 소득이 났지.(소는 소는 거 집집마다 그때는 저것이 농사지으려고 하면 소 없이는 안 되지. 집집마다 남자,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기르긴 길렀는데, 소는 기르는 목적은, 우선은 농사짓기, 밭 갈기 위해서 소를 길렀고, 소를 길렀는데 나중에는 저것이 이제 소가 시세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새끼를 그 부록소, 부록소 나면 그때 돈도 한 오만 원, 십만 원 갖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 기르기도 큰 소득이 났지.)

104001 @1 음.(음.)

104001 #1 소득이 났고 또 이제 그때 정부에서 막 축산을 장려했지. 돈 날 것이 없으니까이. 윗동네선 느네, 느네 아방이 소 만이 질렀지. 일고으둑 개. 보통은 그자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새끼 내면은 그 새끼를 팔아 가지고서 계난 암송애기 값이 얼마 안 줘. 숫송애기 나면은 십만 원 받으면은 암송애기 오만 원밖에 안 주거든.(소득이 되고 또 이제 그때 정부에서 아주 축산을 장려했어. 돈 날 것이 없으니까. 윗동네선 너희, 너희 아버지 소 많이 길렀어. 일고여둑 개. 보통은 그자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새끼 내면 그 새끼를 팔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암송아지 값이 얼마 안 줘. 수송아지 나면 십만 원 받으면 암송아지 오만 원밖에 안 주거든.)

104001 @1 아, 기짜?(아, 그렇습니까?)

104001 #1 계난 그 숫송애기 나면은 아 이 집이 운 좋다. 숫송애기 나는 사람은 상당히 운 좋다 막 해낫주게.(그러니까 그 수송아지 나면 아 이 집에 운 좋다. 수송아지 난 사람은 상당히 운 좋다 마구 했었지.)

104001 @1 아.(아.)

104001 #1 경혜 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소를 팔아 가지고서 그 송아기 때 막 받으려 온다. 육지에서. 보통.(그래 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소를 팔아 가지고서 그 송아지 때 마구 받으려 온다. 육지에서. 보통.)

104001 @1 새끼 나면은 송애기로 그냥 팔아 부는 거?(새끼 낳으면 송아지로 그냥 팔아 버리는 거?)

104001 #1 으. 다간 날 때, 두 설 쉼 때.(으. 두습 될 때, 두 살 될 때.)

104001 @1 다간 날 때.(두습 될 때.)

104001 #1 으, 다간 날 때 다 사래 온다. 두 설 쉼 때 사래 오면 거 풀고. 겨고 주로이 그 밭갈췌¹⁶²⁾라고 잇저, 밭갈췌.(으, 두습 될 때 다 사러 온다. 두 살 될 때 사러 오면 거 팔고. 그리고 주로 그 ‘밭갈췌’라고 있어, ‘밭갈췌’.)

104001 @1 으.(으.)

104001 #1 밭갈췌가 주로 밭만 가는 전용인디이 계난 밭갈췌 었은 디가 그냥 암췌도 ㄹ르칭 갈긴 갈았저.(‘밭갈췌’가 주로 밭만 가는 전용인데 그러니까 ‘밭갈췌’

162) ‘밭갈췌’는 밭을 가는 힘센 부록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없는 데가 그냥 암소도 가르쳐서 갈긴 갈았어.)

104001 @1 계민 쉼 길르젠 허면은 여름에는 어디 데령 가고 해낫잖아예?(그럼 소 기르려고 하면 여름에는 어디 데리고 가고 했었잖아요?)

104001 #1 으, 으.(으, 으.)

104001 @1 언제쯤 데령 가는 거?(언제쯤 데리고 가는 거?)

104001 #1 계난 쉼은 쉼은이 겨울엔이 그 이제 농사가 다 끝날 양력 십일월, 십이월 양력 십이월 혼 중순 돼민이 추워 가민 쉼을 집이 쉼막에 다 들여 맨다.(그러니까 소는 소는 겨울엔 그 이제 농사가 다 끝나서 양력 십일월, 십이월 양력 십이월 한 중순 되면 추워 가면 소를 집에 외양간에 다 들여 맨다.)

104001 @1 으.(으.)

104001 #1 쉼막에 다 들여 매고 또 이제 저 그 또 쉼막에 들여 맷당 봄 나민, 청명 돼면은 소를 이제 출을, 겨울 때는 출을 므른 출을 우리가이 므른 출 해근에 겨울에 주고 그 출도 봄 나민 다 떨어져 가니까,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청명 넘 으면은 소를 이제 이제 밧테다 논다.(외양간에 다 들여 매고 또 이제 저 그 또 외양간에 들여 맷다가 봄 되면, 청명 되면 소를 이제 꼴을, 겨울 때는 꼴을 마른 꼴을 우리가 마른 꼴 해서 겨울에 주고 그 꼴도 봄 되면 다 떨어져 가니까,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청명 넘 으면 소를 이제 이제 밧에다 놓는다.)

104001 @1 으.(으.)

104001 #1 밧테다 놔 가지고서 이제 혼 두 집 세 집 어울어 가지고이 그 당번 해 가지고서 오늘은 나가 가 가지고 그 세 집이 쉼을 어디 가근에 영 농면은 뒷날은 딴 사람이 강 보고. 경해서 이제 농사를 다 해 버리면은 소가 필요가 없으면은 그때는 그때도 여름에는 그 이제 다 그 동네에 혼 대여섯 집이 모다 가지고서 소를 이젠 맥이레 간다. 당번해 가지고서 하루 종일 맥이다가 밤에는 바령밧¹⁶³이라고 혼 디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그 바령밧디 영 농면은 당번해서 뒷날은 딴 사람이 강, 딴 사람이 강. 그렇게 그 소 길르는 게 어려와났저.(밭에다 놔 가지고서 이제 한 두 집 세 집 어울러 가지고 그 당번해 가지고서 오늘은 내가 가 가지고 그 세 집의 소를 어디 가서 이렇게 놓으면 뒷날은 다른 사람이 가서 보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다 해 버리면 소가 필요가 없으면 그때는 그때도 여름에는 그 이제 다 그 동네에 한 대여섯 집에 모아 가지고서 소를 이젠 먹이러 간다. 당번해 가지고서 하루 종일 먹이다가 밤에는 ‘바령밧’이라고 하는 데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그 ‘바령밧’에 이렇게 놓으면 당번해서 뒷날은 딴 사람이 가서, 딴 사람이 가서. 그렇게 그 소 기르는 게 어려웠었어.)

104001 @1 기민 맷 사람이 ㄴ치덜 다.(그럼 몇 사람이 같이들 다.)

104001 #1 으, 다 다섯 사람 내지, 뭐 다섯 사람 내지 으섯 사람.(으, 다 다섯 사람 내지, 뭐 다섯 사람 내지 여섯 사람.)

163) ‘바령밧’은 보리를 벤 다음 농사를 한 철 쉬고 거름 대신으로 밤마다 마소 때를 가두어 놀리는 밧을 말한다.

104001 @1 으.(으.)

104001 #1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흔 조로 해 가지고서 그렇게 저 들에 강 소 맥인덴 한다. 그것ㄴ라.(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한 조로 해 가지고서 그렇게 저 들에 가서 소 먹인다고 한다. 그것보고.)

104001 @1 췌 맥인덴예?(소 먹인다고요?)

104001 #1 으, 췌 맥인덴. 게난 밧디 농서 다 해 부니까 *** 췌 맥일 디가 없어. 둔지봉¹⁶⁴) 같은 디 그런 디 강 맥이젠 허면은 거 흔 사름이 다, 주인이 다 가젠 허면은 농촌이 바쁘니까 안 돼거든. 그러니까 당번해 가지고서 오 일에 흔 번 삼 일에 흔 번, 일주일에 흔 번 맥이레 가고.(으, 소 먹인다고. 그러니까 밧에 농사 다 해 버리니까 *** 소 먹일 데가 없어. ‘둔지봉’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먹이려고 하면 거 한 사람이 다, 주인이 다 가려고 하면 농촌이 바쁘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당번해 가지고서 오 일에 한 번 삼 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먹이러 가고.)

104001 @1 맥이레 가고.(먹이러 가고.)

104001 #1 으, 췌 맥이레 가고.(으, 소 먹이러 가고.)

104002 @1 췌도 아까 밧갈췌도 있고 종류덜이 있잖아예?(소도 아까 ‘밧갈췌’도 있고 종류들이 있잖아요?)

104002 #1 으.(으.)

104002 @1 밧갈췌 잇고?('밧갈췌' 잇고?)

104002 #1 주로 밧 갈고 짐 시끄는 거.(주로 밧 갈고 짐 싣는 거.)

104002 @1 그거 밧갈췌렌 허고예?(그거 ‘밧갈췌’라고 하고요?)

104002 #1 으, 으.(으, 으.)

104002 @1 그다음 또, 또 다른?(그다음 또, 또 다른?)

104002 #1 짐 시끄는 거. 그 웨로는 뭐 우리가 뭐 송아기 나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풀젠 현 것이 암송애기.(짐 싣는 거. 그 외로는 뭐 우리가 뭐 송아지 낳아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팔려고 한 것이 암송애지.)

104002 @1 소 종류는 암췌랑 밧갈췌랑?(소 종류는 암소랑 ‘밧갈췌’랑?)

104002 #1 으, 게난 소 종류는이. 그 저 뭐인가 검은 췌도 잇고이.(으, 그러니까 소 종류는. 그 저 뭐인가 검은 소도 잇고.)

104002 @1 예, 예 그런 거 다 곱아 줘서. 검은 췌?(예, 예 그런 거 다 말해 주세요. 검은 소?)

104002 #1 검은 췌도 잇고 또 이제 어럭췌도 잇고 얼룩얼룩한 거 어럭췌도 잇고 습췌도 잇고.(검은 소도 잇고 또 이제 얼럭소도 잇고 얼룩얼룩한 거 얼럭소도 잇고 흑소도 잇고.)

104002 @1 습췌는 어떤 거?('습소'는 어떤 거?)

104002 #1 습췌¹⁶⁵)는이 이 검은, 검은 거, 노린 거영 서꺼진 걸 습췌라고 현

164) ‘둔지봉’은 제주도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둔지오름’이라고도 한다.

165) ‘습췌’는 털빛이 흑황색(黑黃色)으로 얼룩덜룩한 소를 말한다.

다.('숙소'는 이 검은, 검은 거, 노린 거랑 섞인 걸 흑소라고 한다.)

104002 @1 아.(아.)

104002 #1 검은 거 노린 것이 영 잡색으로 뵈 것이 숙쇄. 그건 숙쇄는 많지 안 한다. 게난 검은 쇠, 검은 쇠, 황쇄, 그자 숙쇄.(검은 거 노란 것이 이렇게 잡색으로 뵈 것이 흑소. 그건 '숙쇄'. 그건 '숙쇄'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검은 소, 검은 소, 황소, 그저 '숙쇄'.)

104002 @1 어럭쇄?(얼럭소?)

104002 #1 으, 어럭쇄.(으, 얼럭소.)

104002 @1 숙쇄예. 빨 모양에 따라 뉘 불르는 건 엇수과?('숙쇄'요. 빨 모양에 따라 뉘 부르는 건 없습니까?)

104002 #1 그건, 그건 뉘.(그건, 그건 뉘.)

104002 @1 아까 불렀던 거 털, 거의 털 색깔로 불렀던 거잖아예?(아까 불렀던 거 털, 거의 털 색깔로 불렀던 거잖아요?)

104002 #1 빨 뒤터레 이렇게 간 거는이 대개 뉘인가 솟소가, 솟소가 뒤터레 건 적박두리¹⁶⁶라 뒤터레 빨이 영 뒤터레, 뒤터레 영 잦아진 건 적박두리. 갱 안 헌 건.(빨 뒤로 이렇게 간 거는 대개 뉘인가 수소가, 수소가 뒤로 건 '적박두리'야 뒤로 빨이 이렇게 뒤로, 뒤로 이렇게 젓혀진 건 '적박두리'. 그래서 안 한 건.)

104002 @1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적박?(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적박'?)

104002 #1 적박두리.('적박두리'.)

104002 @1 아, 적박두리. 빨이 이렇게 뵈 거?(아, '적박두리'. 빨이 이렇게 뵈 거?)

104002 #1 뒤터레 간 걸 적박두리. 그 외에는 보통 앞으로, 빨이엔 헨 특별한 건 엇고.(뒤로 간 걸 '적박두리'. 그 외에는 보통 앞으로, 빨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104003 @1 아, 엇고예. 쇠 이용헌 건 밧 갈 때?(아, 없고요. 소 이용한 건 밧 갈 때?)

104003 #1 으, 밧 갈고 짐 시끄고. 짐 시끄고 그 새끼 나면은 거 풀아서 용돈 쓰고.(으, 밧 갈고 짐 싣고. 짐 싣고 그 새끼 나면 거 팔아서 용돈 쓰고.)

104003 @1 으, 으. 쓰고예.(으, 으. 쓰고요.)

104003 #1 겨고 걸름허고.(그리고 거름하고.)

104004 @1 걸름허고. 쇠 밧 갈젠 허민 영 길들여야 헐 거 아니예?(거름하고. 소 밧 갈려고 하면 이렇게 길들여야 할 거 아니요?)

104004 #1 으, 길들이는 거.(으, 길들이는 거.)

104004 @1 그거 길들이젠 허민 어떻 허여?(그거 길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

104004 #1 길들이젠 허민 그것이 세 살 날 적에 세 살, 사릅이엔 헨다이. 세 살

166) '적박두리'는 소머리 뒤쪽으로 잦히게 나온 빨 또는 그런 빨을 가진 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잦박빨', '잦박도리'라고도 한다.

때에 봄에, 봄에 가 가지고서이 저 바당 거튼 디 모래판에 가 가지고서이 그걸 이제 쟁기 메와, 메와서 사릅이 소를 이껴야 웬다. 이끄멍 가르쳐야 돼. 경허고 따시 이디 멩에 거 멩에, 멩에엔 현 것이 잊지이 제춧말로이.(길들이려고 하면 그것이 세 살 될 적에 세 살, 사릅이라고 한다. 세 살 때에 봄에, 봄에 가 가지고서 저 바다 같은 데 모래판에 가 가지고서 그걸 이제 쟁기 메워서, 메워서 사람이 소를 이끌어야 된다. 이끌면서 가르쳐야 돼. 그리고 또 여기 멩에 거 멩에, 멩에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제춧말로.)

104004 @1 으.(으.)

104004 #1 멩에 메와 가지고서 그 돌을, 돌을 끓는다. 왜 그 돌을 끓는고 허니 밧 갈젠 허민 이디 멩에가 막 질들어야 이디 안 아플 거 아니가이? 처음 메우민 이디가 막 아프니까. 게서 그 돌 끓는, 처음에는 돌 끓음을 우선 한다. 돌 끓음을.(멩에 메워 가지고 그 돌을, 돌을 끈다. 왜 그 돌을 끓는가 하니 밧 갈려고 하면 여기 멩에가 아주 길들어야 여기 안 아플 거 아니냐? 처음 메우면 여기가 아주 아프니까. 그래서 그 돌 끓는, 처음에는 돌 끌기를 우선 한다. 돌 끌기를.)

104004 @1 돌 끓음.(돌 끌기.)

104004 #1 으. 쉼 가르친덴 한다.(으. 소 가르친다고 한다.)

104004 @1 으.(으.)

104004 #1 사릅 쫓 날 때 소를 가르쳐근에가 돌 끓으멍 가르침 조금 그것이 쉽게 되면은 바당 거튼 디 강 모래판에 강 쟁기로 이제 그.(사릅 쫓 될 때 소를 가르쳐서 돌 끌면서 가르쳐서 조금 그것이 쉽게 되면 바다 같은 데 가서 모래판에 가서 쟁기로 이제 그.)

104004 @1 진짜 밧 갈기 전에 연습행 가는 거다예?(진짜 밧 갈기 전에 연습해서 가는 거네요?)

104004 #1 으. 것마라 돌 끓는 것마라 질들인덴 한다.(으. 것보고 돌 끓는 것보고 질들인다고 한다.)

104005 @1 아, 질들인덴 해. 기민 아까 질들이는 거 물엇고예. 쉼 한 살, 두 살, 세 살이 있잖아예?(아, 질들인다고 해. 그럼 아까 질들이는 거 물엇고요. 소 한 살, 두 살, 세 살이 있잖아요?)

104005 #1 으.(으.)

104005 @1 혼 살이 아까?(한 살이 아까?)

104005 #1 혼, 혼 살은 금승이엔 허고.(한, 한 살은 하릅이라고 하고.)

104005 @1 금승.(하릅.)

104005 #1 으. 혼 설 때가 금승, 그다음 두 설 때 다간이엔 허고.(으. 한 살 때가 하릅, 그다음 두 설 때 두습이라고 하고.)

104005 @1 다간.(두습.)

104005 #1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뭐 었다. 물은, 물은 여러 가지 잇는다.(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뭐 었다. 말은, 말은 여러 가지 잇는데.)

104005 @1 아까 삼촌 세 살 때도 뭐렌 글읍디다.(아까 삼촌 세 살 때도 뭐라고 말합디다.)

104005 #1 삼수엔 허는디 계난 거 물은 삼수엔 허고.(사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 말은 사릅이라고 하고.)

104005 @1 아.(아.)

104005 #1 소는 소는 그냥 세 살 현다.(소는 소는 그냥 세 살 한다.)

104005 @1 아, 세 살.(아, 세 살.)

104005 #1 금승, 다간 그것 외에는. 금승허고 다간.(하릅, 두습 그것 외에는. 하릅하고 두습.)

104005 @1 금승허고 다간예?(하릅하고 두습요?)

104005 #1 금승은 혼 설이고 다간은 두 설.(하릅은 한 살이고 두습은 두 살.)

104006 @1 이거, 이거. 밧 갈 때 써난 거, 밧 갈 때 쓰는 거 이거잖아예?(이거, 이거. 밧 갈 때 썼던 거, 밧 갈 때 쓰는 거 이거잖아요?)

104006 #1 으. 이것은 뱃이고 이거는.(으. 이것은 뱃이고 이거는.)

104006 @1 잠깐만예, 이건 뱃이고.(잠깐만요, 이건 뱃이고.)

104006 #1 으. 요건 뱃이고 이거, 이것은 보섭이고 이거 손에 심은 건 양죽머리엔 허는 것이고.(으. 요건 뱃이고 이거, 이것은 보습이고 이거 손에 잡는 건 양지머리라고 하는 것이고.)

104006 @1 양?(양?)

104006 #1 양죽머리.(양지머리.)

104006 @1 양죽머리. 예, 예.(양지머리. 예, 예.)

104006 #1 또 요것은 예, 이것도 거. 쟁기 성에엔 현 거. 쟁기 성에. 이건 보섭 끼우는 거난.(또 요것은 예, 이것도 거. 쟁기 성에라고 하는 거. 쟁기 성에. 이건 보습 끼우는 거니까.)

104006 @1 요 부분을 뭐렌 곤는 거 잇수과?(요 부분을 뭐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까?)

104006 #1 요것은 이거 이것은 뭐인가?(요것은 이거 이것은 뭐인가?)

104006 @1 들벵이뿔이엔 험니까?(물추리막대이라고 합니까?)

104006 #1 들벵이뿔¹⁶⁷⁾ 맞다. 이거 들벵이뿔.(물추리막대 맞다. 이거 물추리막대.)

104006 @1 요기를 몽클이엔 험니까?(요기를 쟁깃술이라고 합니까?)

104006 #1 으, 몽클. 쟁기 몽클.(으, 쟁깃술. 쟁기 쟁깃술.)

104006 @1 몽클.(쟁깃술.)

104006 #1 쟁기 몽클.(쟁기 쟁깃술.)

104006 @1 몽클, 이게 성에예?(쟁깃술, 이게 성에요?)

104006 #1 으. 요것 ㄱ란 설치이엔 현다. 설치.(으. 요것보고 한마루라고 한다. 한

167) '들벵이뿔'은 붓줄을 매기 위하여 성에 끝에 박는 비너 모양의 나무다. 표준어의 '물추리막대'에 대응한다.

마루.)

104006 @1 설칫. 그럼 이런 쟁기 멘들 때는.(한마루. 그럼 이런 쟁기 만들 때는.)

104006 #1 아, 요건 요건 또이 이건 뱃, 뱃바투기¹⁶⁸)엔 이걸, 요걸로 뱃을 이레 저레 가지 못허게 바투는 거주, 이거.(아, 요건 요건 또 이건 뱃, ‘뱃바투기’라고 이걸, 요걸로 뱃을 이리 저리 가지 못하게 받치는 거지, 이거.)

104006 @1 아.(아.)

104006 #1 뱃바투기.(‘뱃바투기’.)

104006 @1 뱃?(뱃?)

104006 #1 뱃바투기.(‘뱃바투기’.)

104006 @1 뱃바투기. 움직이지 못허게.(‘뱃바투기’. 움직이지 못하게.)

104006 #1 요 뭐인가 이거, 요거 움직이지 못허게.(요 뭐인가 이거, 요거 움직이지 못하게.)

104006 @1 으, 으. 밧 갈 때 영 허잖아예?(으, 으. 밧 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104006 #1 음.(음.)

104006 @1 영 허면?(이렇게 하면?)

104006 #1 영 허면 요것이 멩에고.(이렇게 하면 요것이 멩에고.)

104006 @1 멩에예?(멩에요?)

104006 #1 요것 ㄴ라 한줄이엔 현다, 한줄.(요것보고 붓줄이라고 한다, 붓줄.)

104006 @1 한줄.(붓줄.)

104006 #1 한줄이엔 허고 요건 고들게. 요디 잇는 건 고들게.(붓줄이라고 하고 요건 쟁거리막대. 요기 잇는 건 쟁거리막대.)

104006 @1 아, 고들게.(아, 쟁거리막대.)

104006 #1 어, 고들게. 이건 이것은 뿔에 영 감는 건 가리석이라고 현다, 가리석.(어, 쟁거리막대. 이건 이것은 뿔에 이렇게 감는 건 고삐라고 한다, 고삐.)

104006 @1 어, 뿔에 영허는 건 가리석.(어, 뿔에 이렇게 하는 건 고삐.)

104006 #1 가리석.(고삐.)

104006 @1 음.(음.)

104006 #1 이, 이 줄, 이것은 이, 뭐인가 멩에가 알러레 내리지, 멩에 줄에 내리지 못허게 이건 등바데엔 현다. 등바데.(이, 이 줄, 이것은 이, 뭐인가 멩에가 아래로 내리지, 멩에 줄에 내리지 못허게 이건 등태라고 한다. 등태.)

104006 @1 아, 등바데. 으, 등바데예, 내려오지 못허게.(아, 등태. 으, 등태요, 내려오지 못허게.)

104006 #1 으, 이거 내려오지 못허게. 이거 영 내려오민 이것이 딱 박아져근에 안 뉘주게.(으, 이거 내려오지 못허게. 이거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이 딱 박혀서 안

168) ‘뱃바투기’는 보습 위에 댄 뱃을 받치는 한마루에 껴어진 나무쟁이를 말한다. ‘뱃바드랭이’, ‘뱃공쟁이’, ‘뱃받이’라고도 한다.

되지.)

104007 @1 음. 나중에 또 한 번에 이 부분 명칭은 한 번 더 물어보쿠다. 이런 것덜 박물관에 있는 자료들마씨. 질메도 부분 명칭 알아지쿠과?(음. 나중에 또 한 번 이 부분 명칭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박물관에 있는 자료요. 길마도 부분 명칭 알겠습니까?)

104007 #1 질메가 그건.(길마가 그건.)

104007 @1 이름 생각 안 나민 나중에 물어보쿠다.(이름 생각 안 나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04007 #1 아니, 이 질멘이 앞에 잇는 건 앞가지엔 허고이, 뒤에 잇는 건 뒷가지엔 허고이.(아니, 이 길만 앞에 잇는 건 앞가지라고 하고 뒤에 잇는 건 뒷가지라고 하고.)

104007 @1 으.(으.)

104007 #1 또다시 이거 뭐인가 그 질메에 영 고정허는 게 잇는데 그것ㄴ라, 것ㄴ라 뭐렌 헤나신디 모르켜.(또다시 이거 뭐인가 그 길마에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잇는데 그것보고, 것보고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어.)

104007 @1 나중에 또 한 번 물어 볼 때 잇수다. 그때 튼나지민 곶아 줍서예. 여기 목장도 ㄴ치 헤낫지예?(나중에 또 한 번 물어 볼 때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면 말해 주세요. 여기 목장도 같이 했었지요?)

104008 #1 으, 목장도 헤낫저.(으, 목장도 했었어.)

104008 @1 어디에 목장 헤낫수과?(어디에 목장 했었습니까?)

104008 #1 우리 한동 공동 목장은 선흘, 선흘 지경에 선흘곶¹⁶⁹이엔 현 선흘 목장이 셔낫저.(우리 한동 공동 목장은 선흘, 선흘 지경에 선흘곶이라고 하는 선흘 목장이 있었어.)

104008 @1 그 목장 관리는 어떻게마씨?(그 목장 관리는 어떻게요?)

104008 #1 그 목장, 목장 관리는 그 목장에 가입허는 사름만이.(그 목장, 목장 관리는 그 목장에 가입하는 사람만.)

104008 @1 예.(예.)

104008 #1 거기 가서 소를 놓는다.(거기 가서 소를 놓는다.)

104008 @1 예.(예.)

104008 #1 뭐인가 으름에 바쁘니까 그 당번해서 멕이질 못 할 사름은 그 목장에 강 내불민 거기도 당번이 있어야 웬다. 거기는 열흘에 혼 번씩 열 집에 이렇게 헤 가지고서이 그 목장이 그냥 그 담 다 다와정 이시니까 그 목장에 강 디물양 내 버리면은 소가 어디 간 지 그 뭐인가 도망갔는지 어떻힌지 죽었는지 모르니깐이 그 당번헤 가지고 그걸 항상 강 돌아본다. 이녁 거 알아지니까.(뭐인가 으름에 바쁘니까 그 당번해서 멕이질 못 할 사름은 그 목장에 가서 내버리면 거기도 당번이 있어

169) '선흘곶'은 '선흘+곶'의 구성으로 선흘 지역에 있는 숲을 말한다. '선흘'은 제주도 조천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야 된다. 거기는 열흘에 한 번씩 열 집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목장이 그냥 그 담 쌓여 있으니까 그 목장에 가서 들이밀어서 내버리면 소가 어디 간 지 그 뭐인가도 망갔는지 어떠했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 당번해 가지고 그걸 항상 가서 돌아본다. 자기 거 알 수 있으니까.)

104008 @1 예.(예.)

104008 #1 돌아보면서 소, 걸 본다.(돌아보면서 소, 걸 본다.)

104008 @1 몇 집이 소 같이 관리하는 디.(몇 집의 소 같이 관리하는 데.)

104008 #1 거기 갈 때에는 혼 열다섯 집 내지 열 집서 경허고.(거기 갈 때에는 한 열다섯 집 내지 열 집에서 그렇고.)

104008 @1 그거 쉼 뺀 다 알아집니까?(그거 소 봐서 다 알 수 있습니까?)

104008 #1 으?(으?)

104008 @1 쉼 뺀 누구네 집 쉼인지 다 알아집니까?(소 봐서 누구네 집 소인지 다 알 수 있습니까?)

104008 #1 으, 다 안다. 동네 쉼 다 안다.(으, 다 안다. 동네 손 다 안다.)

104008 @1 거 다 알아져마써?(거 다 알 수 있어요?)

104008 #1 다 알아, 다 알아져.(다 알아, 다 알 수 있어.)

104008 @1 하하하.(하하하.)

104008 #1 동네 쉼은 다 알아져. 이 소는 항상, 소도 사람거치 다 모양이 다 틀린다.(동네 소는 다 알 수 있어. 이 소는 항상, 소도 사람같이 다 모양이 다 다르다.)

104008 @1 거 신기해, 다 알아진텐 허니까.(거 신기해, 다 알 수 있다고 하니까.)

104008 #1 몰 허는 사람은 몰 그렇게 잘 알아 봐. 늬의 몰이영 세껴져도.(말 하는 사람은 말 그렇게 잘 알아 봐. 남의 말이랑 섞여도.)

104008 @1 아. 알아져. 거 목장은 빌령 허는 것과?(아. 알 수 있어. 거 목장은 빌려서 하는 겁니까?)

104008 #1 아니, 거 정부에서 뭐인가 정부, 정부에서 임대해서 허는 거. 케니까 목장 세금을, 세금을 내야 돼. 그 뭐인가 목장에 가입한 사람은.(아니, 거 정부에서 뭐인가 정부, 정부에서 임대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목장 세금을, 세금을 내야 돼. 그 뭐인가 목장에 가입한 사람은.)

104008 @1 아, 그럼 임대료 형태로 돈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세금 정도만 내는 거군아예?(아, 그럼 임대료 형태로 돈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세금 정도만 내는 거군요?)

104008 #1 으. 세금정도만. 그게 임대료나 마찬가지로.(으. 세금정도만. 그게 임대료나 마찬가지.)

104008 @1 그게 임대료나 마찬가지. 막 비싸지는 았았다예?(그게 임대료나 마찬가지. 아주 비싸지는 았았네요?)

104008 #1 으. 비싸지는 않아. 게난 우리 소, 쉼 맥이는 데는 돈을 안 내는데 그, 그 일 년, 일 년 목장 임대료를 이제 부담하는 거 세금식으로.(으. 비싸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 소, 소 먹이는 데는 돈을 안 내는데 그, 그 일 년, 일 년 목장 임대료를 이제 부담하는 거 세금식으로.)

말 기르기

104011 @1 예. 말 질러난 것도 물어보쿠다. 말 질러난 것도. 말은 어떻게?(예. 말 길렀던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말 길렀던 것도. 말은 어떻게?)

104011 #1 말. 말은 거 집집마다는 아이 질렀는데이, 한동에도 말 허는 사람을 몰테¹⁷⁰허는 사람 한다, 몰테.(말. 말은 거 집집마다는 아니 길렀는데, 한동에도 말 하는 사람을 ‘몰테’하는 사람 한다, ‘몰테’.)

104011 @1 몰테허는 사람예?(‘몰테’하는 사람요?)

104011 #1 으, 몰테허는 사람. 말 만이 허는 사람²라 몰테허는 사람. 게난 웃동네에도 하나, 둘, 서이 잇고 요 알동네도 한 서이 잇고 한동에 한 여섯 사람³쯤, 겐 여섯 내지 일곱.(으, ‘몰테’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보고 ‘몰테’하는 사람. 그러니까 윗동네에도 하나, 둘, 셋 잇고 요 아랫동네도 한 셋 잇고 한동에 한 여섯 사람⁴쯤, 그래서 여섯 내지 일곱.)

104011 @1 음. 여섯 내지 일곱?(음. 여섯 내지 일곱?)

104011 #1 건 말 한 집이 하나 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 열 마리 이상 허는 사람. 열 마리 이상 허는 사람이.(건 말 한 집에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 열 마리 이상 하는 사람. 열 마리 이상 하는 사람이.)

104011 @1 아, 보통 말 허는 사람은 한 집이 하나 헨 다 허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아, 보통 말 하는 사람은 한 집에 하나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104011 #1 으, 대단위로.(으, 대단위로.)

104011 @1 그럼 말 키우는 것도 쉼랑 같아마씨?(그럼 말 키우는 것도 소랑 같아요?)

104011 #1 소랑, 소랑 ²튼다. 말은이 몰도 마찬가지로 목장에 몰도 몰대로만 놓고 소하고는, 말은 ³치 합쳐 놓지 안한다.(소랑, 소랑 같다. 말은 말도 마찬가지로 목장에 말도 말대로만 놓고 소하고는, 말은 같이 합쳐서 놓지 않는다.)

104011 @1 따로?(따로?)

104011 #1 으, 따로.(으, 따로.)

104012 @1 아, 합쳐 놓지 안허영. 말 종류는 어떤 종류?(아, 합쳐 놓지 않고. 말 종류는 어떤 종류?)

104012 #1 말 종류는 여러 가지 뭐 종류덜이 여러 가지 한다. 뭐 가라말도 있고.(말 종류는 여러 가지 뭐 종류들이 여러 가지 한다. 뭐 가라말도 있고.)

170) ‘몰테’는 말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일을 말한다.

104012 @1 으.(으.)

104012 #1 가라말도 있고 유마엔도 허고 청총이엔도 허고 뭐 흑가라엔도 허고. 해도 그거 우린 잘 모르니까.(가라말도 있고 유마라고도 하고 청총마라고도 하고 뭐 '흑가라'라고도 하고. 해도 그거 우린 잘 모르니까.)

104012 @1 가라말이엔 현 건 어떤 것파?(가라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104012 #1 가라말이엔 현 건 검은 것⁷라 가라말이엔 허여. 청총이엔 현 거 좀 푸른색이 꺼 잇는 것⁷라 청총이엔 허고.(가라말이라고 하는 건 검은 것보고 가라말이라고 해. 청총마라고 하는 거 좀 푸른색이 꺼 잇는 것보고 청총마라고 하고.)

104012 @1 유마 들은?(유마 말은?)

104012 #1 유마는 좀 노랑현 걸 유마라고 허고.(유마는 좀 노란 걸 유마라고 하고.)

104012 @1 아, 유마라고 하고.(아, 유마라고 하고.)

104012 #1 적다들은 또 빨간 걸 적다말(적다마는 또 빨간 걸 적다마.)

104012 @1 예, 예.(예, 예.)

104012 #1 게고 얼룩말도 있고.(그리고 얼룩말도 있고.)

104012 @1 얼룩말도 있고. 얼룩말은 그냥 얼룩말이엔 허고?(얼룩말도 있고. 얼룩말은 그냥 얼룩말이라고 하고?)

104012 #1 으, 얼룩말.(으, 얼룩말.)

104012 @1 얼룩말이렌 허고예. 그거는 털, 털 색깔에 따라 부른 거잖아예?(얼룩말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털, 털 색깔에 따라 부른 거잖아요?)

104012 #1 으, 털 색깔에.(으, 털 색깔에.)

104012 @1 흑시 모양에 따라 부르는 거 알아지쿠과?(흑시 모양에 따라 부르는 거 알겠습니까?)

104012 #1 건 잘 모르켜.(건 잘 모르겠어.)

104013 @1 말은 뭐 헐 때 씩니까?(말은 뭐 할 때 씩니까?)

104013 #1 말은 주로 이제 조 불릴¹⁷¹⁾ 때 사용한다. 조 불릴 때.(말은 주로 이제 조 밟을 때 사용한다. 조 밟을 때.)

104013 @1 아, 조 불릴 때.(아, 조 밟을 때.)

104013 #1 제주도에는 그때는 전부 다 조를 불리젠 허면 물을 불려야 웨니까.(제주도에는 그때는 전부 다 조를 밟으려고 하면 말을 밟아야 되니까.)

104013 @1 으, 으.(으, 으.)

104013 #1 게난 그걸 허기 위해서, 또 거기서도 몰도이 몰은 얼마 깎, 소만이 깎은 안 가났는데 게도 그거 옹마를 나면은 마차용으로 또 사 가주.(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도 말도 말은 얼마 값, 소만큼 값은 안 잤었는데 그래도 그거 수말을 낳으면 마차용으로 또 사 가지.)

104013 @1 음.(음.)

171) '조 불리다'는 조를 파종한 밟을, 씨가 흙에 잘 묻히도록 밟는 것을 말한다.

104013 #1 그래서. 주로는 밧 불릴라고 그렇게 했고 그, 그 웨로는 뭐인가 마차용으로 웅매 잇잖느냐? 웅매들은 마차용으로 허젠 만이 사 가고. 웅매는 값을 꽤찮게 가났져.(그래서. 주로는 밧 밟으려고 그렇게 했고 그, 그 외로는 뭐인가 마차용으로 수말 잇잖니? 수말들은 마차용으로 하려고 많이 사 가고. 수말은 값을 꽤찮게 갓었어.)

104013 @1 아, 웅매를 마차용으로 헛던 거예.(아, 수말을 마차용으로 헛던 거요?)

104013 #1 으, 마차용으로.(으, 마차용으로.)

104013 @1 조밭 불릴 때는 물은 그냥 담양 내부는 거, 아니면 누가 이꺼?(조밭 밟을 때는 말은 그냥 담아서 내버리는 거, 아니면 누가 이끌어?)

104013 #1 아니, 아니. 조팏 불릴 때는 물 임제가이 앞서 가지고서이 이렇게이 월월 허면서 소리허면서 해 가면 물이 그 스무남으 머리가 다 혼 디로 다 조르르 조르르 돌아텅킨다. 경헨 불르는 거주.(아니, 아니. 조밭 밟을 때는 말 임자가 앞서 가지고서 이렇게 위위 하면서 소리하면서 해 가면 말이 그 스무남은 머리가 다 한 데로 다 조르르 조르르 돌아다닌다. 그래서 밟는 거지.)

104013 @1 예, 예. 운반허는 거는 물 혼 머리가 허는 거? 여기서도 막 마차 끌고?(예, 예. 운반하는 거는 말 한 머리가 하는 거? 여기서도 마구 마차 끌고?)

104013 #1 으, 마차허고. 마차허는 건 웅매가 웅매덜이 주로 허는데 거 출도 시끄고 모든 짐을 날르는 건. 그 물로 마차를 헛주.(으, 마차하고. 마차하는 건 수말이 수말들이 주로 하는데 끌도 싣고 모든 짐은 나르는 건. 그 말로 마차를 헛지.)

104014 @1 아까 물 나이는 어떻 될 거마씨?(아까 말 나이는 어떻게 될 거요?)

104014 #1 물 나이는, 물은 오래 산다. 물은 하여튼 보통 한 이십 살 되면은, 한 살부터 이십 살, 이십 살 넘으면은 다 그걸 여기서도 늙은 물은 다 잡아먹고 헛져. 다 풀아 불고.(말 나이는, 말은 오래 산다. 말은 하여튼 보통 한 이십 살 되면, 한 살부터 이십 살, 이십 살 넘으면 다 그걸 여기서도 늙은 말은 다 잡아먹고 헛어. 다 팔아 버리고.)

104014 @1 아까 혼 설 나는 물은?(아까 한 살 되는 말은?)

104014 #1 혼 설 나는 건 금송이엔 한다.(한 살 되는 건 하릅이라고 한다.)

104014 @1 으.(으.)

104014 #1 금송, 그다음엔 두 설은 이수엔 허고.(하릅, 그다음엔 두 살은 이듬이라고 하고.)

104014 @1 아, 아까 췌는 다간이엇는데 물은 이수예? (아, 아까 소는 ‘다간’이엇는데 말은 ‘이수’요?)

104014 #1 으, 으. 이수, 삼수. 오수, 육수 그렇게 나간다.(으, 으. 이듬, 사릅, 다습, 여습 그렇게 나간다.)

104014 @1 아, 이수, 삼수, 오수, 육수. 계민 열 설이면 열수엔 헤?(아, 이듬, 사릅, 다습, 여습. 그럼 열 살이면 ‘열수’라고 헤?)

104014 @1 어, 어.(어, 어.)

104014 #1 열한수?('열한수'?)

104014 #1 아니, 그 이상 가민 그걸 쓰지, 불르지 안헌다.(아니, 그 이상 가민 그걸 쓰지, 부르지 않는다.)

104011 @1 그 이상은 쓰지 안허고. 쉼랑 말이랑 겨울에는, 겨울에는?(그 이상은 쓰지 않고, 소랑 말이랑 겨울에는, 겨울에는?)

104011 #1 아, 겨울에는 들은 그냥 산에 그냥 내버린다. 시월 말 돼민이 시월 말 돼민 곡식이 이제 다 곡식을 다 집이 해들이민 밧디 아무 것도 없지. 들은 그디 그냥 내버린다.(아, 겨울에는 들은 그냥 산에 그냥 내버린다. 시월 말 되면 시월 말 되면 곡식이 이제 다 곡식을 다 집에 해들이면 밧에 아무 것도 없지. 들은 거기 그냥 내버린다.)

104011 @1 겨울에?(겨울에?)

104011 #1 으, 겨울에. 집에 그거 다 맥일 수가 엇주게.(으, 겨울에. 집에 그거 다 맥일 수가 없지.)

104011 @1 아.(아.)

104011 #1 겨난 겨울에 맥이는 것은 마차 허는 그런 들 외에는 전부 다 그 밧 불리고 허는 건 전부 다 산에 그냥 내버린다.(그러니까 겨울에 맥이는 것은 마차 하는 그런 말 외에는 전부 다 그 밧 밟는 건 전부 다 산에 그냥 내버린다.)

104011 @1 아, 산에 내붙어마씨? 그민 들이랑 쉼랑 먹이 허젠 허민 어떻, 출 해야 될 거 아니예?(아, 산에 내버려요? 그럼 말이랑 소랑 먹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풀 해야 될 거 아니요?)

104011 #1 들출은 쉼출이, 쉼출이나 들출이나 그튼 겨난 겨난 들 만이 허는 사람덜은 출 허지 안허영 그냥.(말풀은 소풀이, 소풀이나 말풀이나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풀 하지 않고 그냥.)

104011 @1 밖에 내붙고?(밖에 내버리고?)

104011 #1 내붙고. 집에서 부리는 들, 가령 밧 가는 들도 잇주. 밧 가는 들이나 마차 허는 들이나 그 그런 건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소나 마찬가지로 겨울에 마귀에서, 그 들은 마귀에 안 해영 바깸디 그냥 매영 내분다. 눈 맞아도 어떻 안허난 바깸디 출 주멍 경헌다. 경험 쪼금 뜻아 가면 밧데 강 줄 싸근¹⁷²에, 줄 영 해 가지고 어디 가지 못허게 말뚝 박앙 내붙민 그 주위에만 영헤영 먹고.(내버리고. 집에서 부리는 말, 가령 밧 가는 말도 있지. 밧 가는 말이나 마차 하는 말이나 그 그런 건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소나 마찬가지로 겨울에 마귀에서, 그 들은 마귀에 안 해서 밖에 그냥 매서 내버린다. 눈 맞아도 어떻지 않으니까 밖에 풀 주면서 그런다. 그래서 조금 따듯해 가면 밧에 가서 줄 길게 해서, 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가지 못허게 말뚝 박아서 내버리면 그 주위에만 이렇게 먹고.)

104011 @1 아, 줄 길게 해 가지고.(아, 줄 길게 해 가지고.)

172) '줄 싸다'는 소나 말 등을 묶어 줄을 길게 하여 매 두는 것을 말한다.

104011 #1 어, 어.(어, 어.)

104011 @1 말뚝 박양 내불민.(말뚝 박아서 내버리면.)

104011 #1 말뚝 박양 그 주위에만 돌아댕기멍 똥은 그렇게.(말뚝 박아서 그 주위에만 돌아다니면서 똥은 그렇게.)

104011 @1 아까 그걸 줄 싼덴 현 거?(아까 그걸 ‘줄 싼다’고 하는 거?)

104011 #1 으, 줄 싼덴. 줄 싸는 거.(으, ‘줄 싼다’고. ‘줄 싸는’ 거.)

떡이

104017 @1 예. 출 비잖아예, 똥 뚱이젠, 쉼 떡이젠 허민?(예. 꿀 베잖아요, 말 떡이려고, 소 떡이려고 하면?)

104017 #1 그 출은.(그 꿀은.)

104017 @1 언제 장만, 언제 빙니까?(언제 장만, 언제 뺨니까?)

104017 #1 양력 구월 초가 돼주, 음력 팔월달, 팔월달이니까. 팔월달에 그 출을 한다.(양력 구월 초가 되지, 음력 팔월, 팔월이니까. 팔월에 그 꿀을 한다.)

104017 @1 팔월달에.(팔월에.)

104017 #1 음력 팔월달에.(음력 팔월에.)

104017 @1 으.(으.)

104017 #1 음력 팔월달에 하늬, 하늬보름이 나면은 그때 출을 해 가지고서 한 달 거의 걸린다. 그 출.(음력 팔월에 하늬, 하늬바람이 나면 그때 꿀을 해 가지고서 한 달 거의 걸린다. 그 꿀.)

104018 @1 출 다 허는 디 흔 달 걸리는 거? 하늬보름 불민. 출 비영, 거 누게 가 비여?(꿀 다 하는 데 한 달 걸리는 거? 하늬바람 불면. 꿀 베서, 거 누가 베?)

104018 #1 주인이 비고 경 안허면 똥, 거 소덜 만이 허는 사름은 낫꾼이라고 해서 거 농을 빈다, 농을 빌어. 농을 빌어근에 농을 빌영 비여 놓면 흔 이틀 똤민 똥를 거 아니라.(주인이 베고 그렇지 않으면 말, 거 소들 많이 하는 사름은 꿀꾼이라고 해서 거 농을 빌린다, 농을 빌려. 농을 빌려서 농을 빌려서 베어 놓으면 한 이틀 되면 마를 거 아니야.)

104018 @1 예.(예.)

104017 #1 경허민 또 다시 농 빌영 그걸 무꺼야 돼여.(그럼 또 다시 농 빌려서 그걸 묶어야 돼.)

104017 @1 으.(으.)

104017 #1 거 무꺼근에가 놀어 낫당.(거 묶어서 가려 났다가.)

104017 @1 으.(으.)

104019 #1 놀어 낫당 또 다시 그걸 마차로나 쉼로나 다 시꺼오주게, 그걸.(가려 났다가 또 다시 그걸 마차로나 소로나 다 실어오지, 그걸.)

104019 @1 아, 밧디 놀어 낫당?(아, 밧에 가려 났다가?)

104019 #1 으, 밧디 놀어 낫당.(으, 밧에 가려 났다가.)

104017 @1 케민 무끄는 거는 출로 그냥?(그럼 묶는 거는 꼴로 그냥?)

104017 #1 으, 그걸로 그냥 꼬명 영 영 한다.(으, 그걸로 그냥 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104017 @1 아, 꼬명에. 그럼 그 묶음을 뭐렌 험니까?(아, 꼬면서요. 그럼 그 묶음을 뭐라고 합니까?)

104017 #1 혼 못, 혼 못.(한 못, 한 못.)

104017 @1 예, 혼 못, 두 못예?(예, 한 못, 두 못요?)

104017 #1 케난 혼 바리를 서른 못⁷³라 혼 바리렌.(그러니까 한 바리를 서른 못 보고 한 바리라고.)

104017 @1 서른 못을 혼 바리렌 얘기할 거. 경 밧디 널영 놔뒀당 시경 왕.(서른 못을 한 바리라고 얘기할 거. 그렇게 밧에 널어 놔두었다가 신고 와서.)

104019 #1 시경 왕 집이서 오랑 놀주게. 집이서 왕 어디 장소에 그냥 놀어 가지고 거 다 시켜와지민 놀어 가지고 것에 그 새나 뭐인가 어웁 비여다가이 물매¹⁷³, 물 들어가지 못허게 헤영. 것⁷⁴라 거시린¹⁷⁴텐 한다. 거시리명, 거시리명 잘 놀어 가지고서 이제 낸중에는 거 다 이제 다 헤 오민 지봉식으로 지봉식으로 그렇게 놀어 가지고이 놀어 가지고 물매 나게 잘 해 가지고 이제 그 그 뭐인가 돌을 달아메야 돼, 돌을 그 뭐인가 놀, 놀 크면은 하여튼 혼 밧 사이에 돌 하, 혼 밧 사이에 돌 하나씩.(신고 와서 집에서 와서 가리지. 집에서 와서 어디 장소에 그냥 가려 가지고 거 다 신고 오면 가려 가지고 것에 그 떠나 뭐인가 역새 베다가 ‘물매’, 물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것보고 ‘거시린다’고 한다. 거시리면서, 거시리면서 잘 가려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는 거 다 이제 다 헤 오면 지봉식으로 지봉식으로 그렇게 가려 가지고 가려 가지고 ‘물매’ 나게 잘 해 가지고 이제 그 그 뭐인가 돌을 달아메야 돼, 돌을 그 뭐인가 가리, 가리 크면 하여튼 한 밧 사이에 돌 하, 한 밧 사이에 돌 하나씩.)

104019 @1 하나씩.(하나씩.)

104019 #1 혼 밧 사이에 돌 하나씩 양쪽, 양쪽더레 가게 돌아 가지고서 게서 저 엽은다, 엽어. 영 그물식으로. 경허민 다 끝난다.(한 밧 사이에 돌 하나씩 양쪽, 양쪽으로 가게 돌아 가지고 그래서 저 엽는다, 엽어. 이렇게 그물식으로. 그러면 다 끝난다.)

104019 @1 이 줄 끝에 돌 들양 영 언치고, 영 언치고, 영 언치고 한다는 얘기잖아예?(이 줄 끝에 돌 달아서 이렇게 었고, 이렇게 었고, 이렇게 었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104019 #1 가운데 마루에는 큰 돌로이, 그 꼭대기 마루 잇잖으나, 마루?(가운데 마루에는 큰 돌로, 그 꼭대기 마루 잇잖니, 마루?)

104019 @1 예.(예.)

173) ‘물매’는 지붕에서 비가 쉬 흘러 내기게 하기 위한 경사각을 말한다.

174) ‘거시리다’는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을 반대로 하여 나간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보리 가리를 만들 때 보리를 거꾸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104019 #1 므루엔이 줄로 해 가지고 줄, 술진 줄, 새로 멘든 줄로 해 가지고서 그 줄 두 개 한다. 두 개 험 큰 돌은 그 므루로 영 해 낱 그 윽으로 허는 건 존존 현 돌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마루엔 줄로 해 가지고 줄, 살진 줄, 띠로 만든 줄로 해 가지고서 그 줄 두 개 한다. 두 개 해서 큰 돌은 그 마루로 이렇게 해 놔서 그 옆으로 하는 건 자잘한 돌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104019 @1 아, 가운데는 큰 줄 해 놓고. 게민 그 줄은 뭐로 만드는 거마씨? 그 줄은?(아, 가운데는 큰 줄 해 놓고. 그럼 그 줄은 뭐로 만드는 거요? 그 줄은?)

104019 #1 그 므루줄¹⁷⁵⁾은 대개 새, 새로 꼬아근에 허는 것이고 그 윽이 것은 이 칙 걷어다가, 칙 걷어당.(그 ‘므루줄’은 대개 띠, 띠로 꼬아서 하는 것이고 그 옆에 것은 칙 걷어다가, 칙 걷어다가.)

104019 @1 아, 칙 걷어당.(아, 칙 걷어다가.)

104019 #1 칙이란 게 있져.(칙이란 게 있어.)

104019 @1 예, 칙 걷어당.(예, 칙 걷어다가.)

104019 #1 어, 어. 칙 걷어당.(어, 어. 칙 걷어다가.)

104019 @1 게민 출 놀에 우이 부분을 뭐렌 불러마씨?(그럼 꼴 가리에 위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104019 #1 그 거스린덴 허는 건데.(그 ‘거스린다’고 하는 건데.)

104019 @1 이렇게 지붕 만드는 걸 거스린덴 허는 거고?(이렇게 지붕 만드는 걸 ‘거스린다’고 하는 거고?)

104019 #1 으. 그거는 새, 그 출 중에서도 새가 만이 들어간 거이.(으. 그거는 띠, 그 꼴 중에서도 띠가 많이 들어간 거.)

104019 @1 예.(예.)

104019 #1 쉼 잘 안 먹을 거. 그걸 거슨, 거슨, 거슨 출이엔 한다. 그런 걸로 우이 뺑 허게 거스려 놔 가지고서 마지막엔 또 이제 우에는 어웁이나 새나 해다가 므루로 해 가지고.(소 잘 안 먹을 거. 그걸 ‘거슨’, ‘거슨’, ‘거슨’ 꼴이라고 한다. 그런 걸로 위에 뺑 하게 ‘거스려’ 놔 가지고서 마지막엔 또 이제 위에는 억새나 띠나 해다가 마루로 해 가지고.)

104019 @1 음, 만드는 거.(음, 만드는 거.)

104019 #1 어.(어.)

104019 @1 어웁이나 새나. 예, 예.(억새나 띠나. 예, 예.)

104019 #1 새나.(띠나.)

104019 @1 그 출 날라 올 때, 날라 올 때 쉼로 시꺼 읍니까, 몰로 시꺼 읍니까?(그 꼴 날라 올 때, 날라 올 때 소로 실어 읍니까, 말로 실어 읍니까?)

104019 #1 쉼로 주로 시꺼 왓져.(소로 주로 실어 왔어.)

104019 @1 게민 쉼에 어떻, 옆에?(그럼 소에 어떻게, 옆에?)

104019 #1 양 옆에 혼 쪽에 열다섯 못, 열다섯 못씩 해 가지고서 이제 서른 못.

175) ‘므루줄’은 지붕마루를 중심으로 지붕의 가로로 마루에 깔아 놓은 띠를 묶는 세 개의 긴 줄을 말한다.

게난 쉼가, 쉼 길마에 세, 세 칸이 잇저.(양 옆에 한 쪽에 열다섯 못, 열다섯 못씩 해 가지고서 이제 서른 못. 그러니까 소가, 소 길마에 세, 세 칸이 있어.)

104019 @1 음.(음.)

104019 #1 게난 혼 칸에 다섯 못씩 삼오 십오 아니가이?(그러니까 한 칸에 다섯 못씩 삼오 십오 아니냐?)

104019 @1 으.(으.)

104019 #1 게민 이쪽에도 삼오 십오 서른 못 헛저. 혼 번에.(그럼 이쪽에도 삼오 십오 서른 못 했어. 한 번에.)

104019 @1 아, 서른 못이 한 바리니까 혼 번 올 때가. 아.(아, 서른 못이 한 바리니까 한 번 올 때가. 아.)

104019 #1 어.(어.)

104020 @1 출 말고 쉼 맥엇던 거 또 뭐 잇수과?(꿀 말고 소 먹엇던 거 또 잇습니까?)

104020 #1 콩짚도 맥이고이. 또 콩짚도 맥이고 또 다시 그 조칩도 겨울에 맥이고.(콩짚도 먹이고. 또 콩짚도 먹이고 또 다시 그 조짚도 겨울에 먹이고.)

104020 @1 음.(음.)

104020 #1 조 풍뎡이도 쉼 맥이고 경헤났저.(조 겨도 소 먹이고 그랬었어.)

104021 @1 아, 조 풍뎡이도 맥이고. 출 비명, 출 장만허명 뭐 재미난 일은, 기억나는 일을 엇수과?(아, 조 겨도 먹이고. 꿀 베면서, 꿀 장만하면서 뭐 재미난 일은, 기억나는 일은 없습니까?)

104021 #1 출 허명 기억나는 건 엇다만, 출 빌 때이 노래 잘허는 사름은 소리를 허거든 흥애기 소리¹⁷⁶로 흥애기, 흥애기 소리 허면서 허면은 기분이 아주 좋주게. (꿀 하면서 기억나는 건 없다만, 꿀 벨 때 노래 잘하는 사름은 소리를 하거든. ‘흥애기 소리’로 ‘흥애기’, ‘흥애기 소리’ 하면서 하면 기분이 아주 좋지.)

104021 @1 아, 출 비는 소리를 흥애기 소리엔 험니까?(아, 꿀 베는 소리를 ‘흥애기 소리’라고 합니까?)

104021 #1 으, 흥애기, 흥애기 소리엔 해 가지고서.(으, ‘흥애기’, ‘흥애기 소리’라고 해 가지고서.)

104021 @1 노래 부르명.(노래 부르면서.)

104021 #1 으. 노래 부르명 잘 부르는 사름은 아주 잘 불른다.(으. 노래 부르면서 잘 부르는 사름은 아주 잘 부른다.)

104021 @1 잘 못 부르십니까? 잘하실 거 같은데.(잘 못 부르십니까? 잘하실 거 같은데.)

104021 #1 우린 잘 못 불러. 우리, 우리 또래엔 잘 못 불렀주. 이디 **아방네 누구네 잘 불러났저.(우린 잘 못 불러. 우리, 우리 또래엔 잘 못 불렀지. 여기 **아버

176) ‘흥애기 소리’는 김매기 작업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다. 제보자는 꿀 베면서 부르는 소리인 ‘출 비는 흥애기’를 ‘흥애기 소리’라고 하였다.

지네 누구네 잘 불렀었어.)

멜감

104022 @1 아, 흥애기 소리. 그다음 멜감 물어보쿠다예. 멜감예. 그 그 지들 커?(아, '흥애기 소리'. 그다음 멜감 물어보겠습니다. 멜감요. 그 그 멜감?)

104022 #1 지들커, 지들컷은 항상 그 저 뭐인가 우리가 이 옛날에는 다. 게난 지들커 허젠 허면이, 봄 나면은이 여유 잇는 사람은 저 선흘곳¹⁷⁷⁾이엔 헌 목장에 가근예가 고사릴 빈다, 고사리.(멜감, 멜감은 항상 그 저 뭐인가 우리가 이 옛날에는 다. 그러니까 멜감 하려고 하면, 봄 되면 여유 잇는 사람은 저 '선흘곳'이라고 하는 목장에 가서 고사릴 벤다, 고사리.)

104022 @1 아, 고사리 비여?(아, 고사리 베어?)

104022 #1 으, 으름예. 고사리 비여근예가 그걸 들류왕 무경 놀영 낫다근예가 겨울에 시꺼당도 허곡. 또 다시 그 뭐인가 이제 팔월 산소에 소분할 때 잇잖아이? (으, 여름예. 고사리 베어서 그걸 말려서 묶어서 가려 낫다가 겨울에 실어다가도 하고. 또 다시 그 뭐인가 이제 팔월 산소에 소분할 때 잇잖아?)

104022 @1 예, 예.(예, 예.)

104022 #1 소분허는 것을 갖다가, 소분할 때, 소분할 때 사람에 전부 지어다가 혼 군데 들류와근예 그걸 놀영 낫당 시꺼당도 겨울에 때고, 겨울에 때고.(소분하는 것을 갖다가, 소분할 때, 소분할 때 사람에 전부 지어다가 한 군데 말려서 그걸 가려 낫다가 실어다가도 겨울에 때고, 겨울에 때고.)

104022 @1 아.(아.)

104022 #1 주로 쉼 먹당 남은 거 만이 췌저. 게고 또 겨울에 또 다시 나무 삭다 리라고 그런다. 나무가 영 자연으로 나무가지 죽어 분 것을 갖다가, 소나무, 소나무나 다른 낭도 그 삭다리를 헤다가 겨울에는.(주로 소 먹다가 남은 거 많이 췌어. 그리고 또 겨울에 또 다시 나무 삭정이라고 그런다. 나무가 이렇게 자연으로 나뭇가지 죽어 버린 것을 갖다가, 소나무, 소나무나 다른 나무도 그 삭정이를 헤다가 겨울에는.)

104022 @1 삭다리?(삭정이?)

104022 #1 삭다리를 헤다가 겨울에 만이 췌주게.(삭정이를 헤다가 겨울에 많이 췌지.)

104022 @1 솔입은?(솔가리는?)

104022 #1 솔입도 경허고.(솔가리도 그렇고.)

104022 @1 솔입도 걷어당?(솔가리도 그러모아다가?)

104022 #1 으, 솔입도 걷어당.(으, 솔가리도 그러모아다가.)

104023 @1 솔입도 걷어당 허고예. 소똥, 말똥은?(솔가리도 그러모아다가 하고요. 소똥, 말똥은?)

177) '선흘+ 곳'의 구성으로 선흘 지역에 있는 숲을 말한다. '선흘'은 제주시 조천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104023 #1 소똥, 말똥은 거는 온돌을 허젠 허민 거 좇어야 돼.(소똥, 말똥은 거는 온돌을 하려고 하면 거 주워야 돼.)

104023 @1 굴묵¹⁷⁸⁾ 짓젠 허민.(‘굴묵’ 때려고 하면.)

104023 #1 으. 굴묵 짓젠 허민. 똥똥, 똥똥을 주로 주엇저. 소똥은 그 뭐인가 헤싸져 부난, 헤싸져 불고 허난이.(으. ‘굴묵’ 때려고 하면. 말똥, 말똥을 주로 주웠어. 소똥은 그 뭐인가 헤어져 버리니까, 헤어져 버리고 하니까.)

104023 @1 아.(아.)

104023 #1 똥똥이 하여튼 그걸 주로 늬보단 일찌감치 좇젠 막 애써나시네.(말똥이 하여튼 그걸 주로 남보단 일찌감치 주우려고 아주 애썼었어.)

104023 @1 어.(어.)

104023 #1 그거 아니민 겨울에 온돌이 때지 못허민 상당히 추우니까.(그거 아니면 겨울에 온돌이 때지 못하면 상당히 추우니까.)

104023 @1 예.(예.)

104023 #1 똥똥을 주로.(말똥을 주로.)

104023 @1 어디 강 좇어마씨?(어디 가서 주워요?)

104023 #1 그 쉼, 밧, 밧디. 그 뭐인가 난덴디, 난덴이엔 현다. 밧 바깥디 막 널른 디 가근에가.(그 소, 밧, 밧에. 그 뭐인가 난데인데, 난데라고 한다. 밧 밖에 아주 넓은 데 가서.)

104023 @1 아까 날덴디?(아까 ‘날덴디’?)

104023 #1 뭐이나 난벙디¹⁷⁹⁾.(뭐니, ‘난벙디’.)

104023 @1 아, 난벙디?(아, ‘난벙디’?)

104023 #1 으, 난벙디라고 가근에 그걸.(으, ‘난벙디’라고 가서 그걸.)

104023 @1 널른 디예?(넓은 데요?)

104023 #1 으. 널른 디.(으. 넓은 데.)

104023 @1 거기 강?(거기 가서?)

104023 #1 으, 좇어다가 겨울에 온돌을, 굴묵 때는 거라.(으, 주워다가 겨울에 온돌을, ‘굴묵’ 때는 거야.)

104023 @1 으, 으.(으, 으.)

104023 #1 굴묵이라고 온돌이.(‘굴묵’이라고 온돌이.)

104023 @1 예, 그거 날으는 거예?(예, 그거 때는 거요?)

104023 #1 아궁이가 그거 구들 거시기주게.(아궁이가 그거 구들 거시기지.)

104024 @1 예, 굴묵 날는 거예. 솔입 걸젠 허민 솔입은 어디 강 걸어?(예, ‘굴묵’ 때는 거요. 솔가리 그러모으려고 하면 솔가리는 어디 가서 그러모야?)

104024 #1 소나무, 소나무가 막 많은 데. 큰 소나무 아래.(소나무, 소나무가 아주 많은 데. 큰 소나무 아래.)

178)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79) ‘난벙디’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들을 말한다.

104024 @1 소낭 아래 강.(소나무 아래 가서.)

104024 #1 소낭 아래 겨울에 바람이 막 지독히 불 땀이 거 떨어지주게. 경허민 그거 걸어다근에.(소나무 아래 겨울에 바람이 아주 지독히 불 때 거 떨어지지. 그러면 그거 그러모아다가.)

104024 @1 뒤로 걸읍니까, 걸을 때는?(뒤로 그러모읍니까, 그러모을 때는?)

104024 #1 거 글쟁이로도 걷고. 이 중간에 글쟁이 나니까 글쟁이로 걷고 헛져. 글쟁이 엇일 적에는 글쟁이로 행 영 손으로 모당.(거 호미로도 그러모으고. 이 중간에 갈퀴 나니까 갈퀴로 그러모으고 했어. 갈퀴 없을 적에는 호미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모아서.)

104024 @1 아, 손으로 모당?(아, 손으로 모아서?)

104024 #1 으, 손으로.(으, 손으로.)

104024 @1 경 모드민 영 무끄는 거 만드는 거 아니?(그렇게 모으면 이렇게 묶는 거 만드는 거 아니?)

104024 #1 으, 무끄는 거 만들주. 무끄는 거 만들젠 허민 나무를 이제 흔 발썸 현 거이. 그런 뽀짝뽀짝현 걸 그런 걸이, 하여튼 스무남으 개 끄차다가이 그 칩 놔 가지고서 이레 영 이레 영 놀 거 아니가이? 영 그레 솔입을 조근조근 낡 불르명 경혜 가지고 빠지지 못하게 영 영 뱅 하게 영 무꺼는 식으로 경혜 가지고서 그걸 집이 정 와세.(으, 묶는 거 만들지. 묶는 거 만들려고 하면 나무를 이제 한 발썸 하는 거. 그런 뽀쪽뽀쪽한 걸 그런 걸, 하여튼 스무남은 개 끊어다가 그 칩 놔 가지고서 이리 이렇게 이리 이렇게 놓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리 솔가리를 차근차근 놔서 밟으면서 그레 가지고 빠지지 못하게 이렇게 이렇게 뱅 하게 이렇게 묶는 식으로 그레 가지고서 그걸 집에 저서 왔어.)

104024 @1 게민 그걸 한 묶음이엔 험니까?(그럼 그걸 한 묶음이라고 합니까?)

104024 #1 으, 흔 짐이 흔 묶음이야. 흔 짐 뒤편에 흔 묶음.(으, 한 짐이 한 묶음이야. 한 짐 되게 한 묶음.)

104025 @1 흔 짐 뒤편에 흔 묶음 행 무경 가정 왔던 거예? 낭은 안 헤낫수과, 낭은? 지들커로 쓸 거로 낭?(한 짐 되게 한 묶음 해서 묶어서 가지고 왔던 거요? 나무는 안 했었습니까, 나무는? 뽕감으로 쓸 거로 나무?)

104025 #1 낭은, 낭은이 거 허지 못하게, 엄하게 산림 녹화해 가지고 이런 그냥 산 나문 손을 못 것것주게. 게난 죽은 남만 사용했져.(나무는, 나무는 거 하지 못하게, 엄하게 산림 녹화해 가지고 이런 그냥 살아 있는 나문 손을 못 건드렸지. 그러니까 죽은 나무만 사용했어.)

104025 @1 아, 게난 삭다리만?(아, 그러니까 삭정이만?)

104025 #1 으, 삭다리만 사용했주. 그때는 나무에 손 것지만 그건 살인죄나 마찬가지로.(으, 삭정이만 사용했지. 그때는 나무에 손 건드리면 그건 살인죄나 마찬가지야.)

104025 @1 아, 하하하. 아, 살아있는 낭을 끄치지 못하게.(아, 하하하. 아, 살아

있는 나무를 끊지 못하게.)

104025 #1 절대 거 그 새 남, 퍼렁헌 썩 잇는 건 못허게.(절대 거 그 새 나무, 파란 잎 잇는 건 못허게.)

104025 @1 그럼 집 짓을 때 어떻 냥을 구했수과?(그럼 집 지을 때 어떻게 나무를 구했습니까?)

104025 #1 집 짓을 때는이, 그건 이녁, 그때는이 이녁이 소나무덜 만이 심지 안헤샤? 그걸 슬썩슬썩 그차시네. 그리고 또 허가도 나고, 그 집 짓젠 허민 허가, 허가도 준다.(집 지을 때는, 그건 자기, 그때는 자기가 소나무들 많이 심지 았았나? 그걸 살썩살썩 끊었지. 그리고 또 허가도 나고, 그 집 지으려고 하면 허가, 허가도 준다.)

104025 @1 아, 그럼 우리 집 짓을 거우다. 낭 비쿠다 허가받고?(아, 그럼 우리 집 지을 겁니다. 나무 베겠습니다. 허가받고?)

104025 #1 으, 몰르게 헛다가 그거 영창 가는 거주.(으, 몰르게 헛다가 그거 영창 가는 거지.)

104026 @1 솟 구워낫수과?(솟 구웠었습니까?)

104026 #1 으, 솟덜 구워낫저.(으, 솟들 구웠었어.)

104026 @1 솟 굽는 거 이야기해 줘서.(솟 굽는 거 이야기해 주세요.)

104026 #1 솟은, 솟은이 가을 농서가 다 끝나민 이젠이 겨울 돼영 다 할 거 아니가이? 농서가 다 끝나 버리면은 한결할 때이 이디서 허면은 저 산에 강 솟 묻는다. 저 뭐인가 저 겨난 건 슬째기 가근에가, 슬째기 가근에가 그 놀남을 끊어야 돼주게.(솟은, 솟은 가을 농서가 다 끝나면 이젠 겨울 돼서 다 할 거 아니냐? 농서가 다 끝나 버리면 한가할 때 여기서 하면 저 산에 가서 솟 묻는다. 저 뭐인가 저 그러니까 살짝 가서, 살짝 가서 그 날나무를 끊어야 되지.)

104026 @1 솟 만드는 나무가 뭐 날나무?(솟 만드는 나무가 뭐 날나무?)

104026 #1 아니게, 살아 잇는 거, 살아 잇는 걸 놀남이엔 허주. 그런 거 끈어 가지고서 거기서 산에서 솟, 솟 묻나. 경해서 솟을 묻어야만이 겨울에, 겨울에 그 기제사 때, 멧질 때나 제사 때 묵 굽고 뭐 허젠 허민 그 화리불 살라야 돼. 솟불, 솟이 엇영은 안 돼여. 게난 그건 가정 상비, 상비적으로 가정용으로 솟을 꼭 집집마다 그 솟을 구워.(아니, 살아 잇는 거. 살아 잇는 걸 날나무라고 하지. 그런 거 끊어가지고서 거기서 산에서 솟, 솟 묻어. 그래서 솟을 묻어야만 겨울에, 겨울에 그 기제사 때, 멧질 때나 제사 때 묵 굽고 뭐 하려고 하면 그 화룻불 살라야 돼. 솟불, 솟이 없으면 안 돼. 그거니까 그건 가정 상비, 상비적으로 가정용으로 솟을 꼭 집집마다 그 솟을 구워.)

104026 @1 케민 무슨 냥으로 솟을 만들앗수과?(그럼 무슨 나무로 솟을 만들었습니까?)

104026 #1 건.(건.)

104026 @1 풍낭 거튼 거 아니?(팽나무 같은 거 아니?)

104026 #1 풍낭 거튼 것도 허긴 헛주만은 그것이 무슨 낭고, 갑자기 얘기허젠 허난 잊어붙어졌저.(팽나무 같은 것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무슨 나무인가,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렸어.)

104026 @1 예, 나중에 튼나민 얘기해 줘서예. 풍낭 말고?(예,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팽나무 말고?)

104026 #1 풍낭, 풍낭허고이 소낭으론 솟 아니 군다. 풍낭허고 그자 이 잡남허고.(팽나무, 팽나무하고 소나무론 솟 안 굽는다. 팽나무하고 그저 이 잡나무하고.)

104026 @1 으, 잡낭으로. 솟 굽젠 허민 낭 짤랑?(으, 잡나무로. 솟 구우려고 하면 나무 잘라서?)

104026 #1 낭 짤랑, 것도 낭 짤라근에 영 제겨 낱, 제겨 놔 가지고이 제겨 낱 어귀를 세 군데 내야 된다.(나무 잘라서, 그것도 나무 잘라서 이렇게 쌓아 놔서, 쌓아 놔 가지고 쌓아 놓고 어귀를 세 군데 내야 된다.)

104026 @1 예.(예.)

104026 #1 공기 통허는 디.(공기 통하는 데.)

104026 @1 예.(예.)

104026 #1 어귀를 세 군데 내 놔 가지고서 낭 짤랑 낭 주위, 이렇게 다 제겨 낱 그 주위에 뭐 주위에 가마니 옛날 잇잔아이. 가마니 뭐 가마니 빙 허게 그걸 덮어 가지고서 그 흙을 막 더핀다.(어귀를 세 군데 내 놔 가지고서 나무 잘라서 나무 주위, 이렇게 다 쌓아 놔서 그 주위에 뭐 주위에 가마니 옛날 잇잖아. 가마니 뭐 가마니 빙 허게 그걸 덮어 가지고서 그 흙을 마구 덮는다.)

104026 @1 으.(으.)

104026 #1 흙을 더퍼 가지고서 우이로 불 질러 수도 잇고 알로 불 때는 사람도 잇고. 경허난 우이로 불 질러근에가 그 솟 남에 불 막 만이 부터 가기 시작하면은 우이로 영 막아 버리주게. 우이 영 막아 불민 우이로, 우이로 불 났으니까 우터레 연기 가던 것이, 우이 막아 불민 공기가 알로 돌아올 거 아니냐? 계난 불이 알러레 터져근에가 솟이 그래서 이제 헛 놔두면 그거 지켜야 돼. 왜 지켜야 허면 잘못하면 솟이 그냥, 나무가 흥 쪽으로만 타 버리면 그 나무가이 골라얏을 거, 터져 불 거 아니냐?(흙을 덮어 가지고서 위로 불 질러 수도 잇고 아래로 불 때는 사람도 잇고. 그러니까 위로 불 질러서 그 솟 나무에 불 마구 많이 붙어 가기 시작하면 위로 이렇게 막아 버리지. 위에 이렇게 막아 버리면 위로, 위로 불 났으니까 위로 연기가 가던 것이, 위에 막아 버리면 공기가 아래로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이 아래로 터져서 솟이 그래서 이제 해서 놔두면 그거 지켜야 돼. 왜 지켜야 하면 잘못하면 솟이 그냥, 나무가 한 쪽으로만 타 버리면 그 나무가 가라얏을 거, 터져 버릴 거 아니냐?)

104026 @1 으.(으.)

104026 #1 경허민 항상 불아 줘야 한다.(그러면 항상 밟아 줘야 한다.)

104026 @1 어디를 불라 줘야?(어디를 밟아 줘야?)

104026 #1 그 숯, 숯 그 동그랗힌 걸 발로 영 블라 줘야 해. 경혜 가지고 츠츠 츠츠 숯이 영 타가면은 늘냥 헐 때는 영 곧작했다가 타 가면 영 좋아질 거 아니가? 좋아들이면서 알려레 쳐지면서 불이 또 알려레 내려왕 이쪽, 이쪽 구녕으로 불 나오면 먼저 헐 딜로부터 막고 경허민 마지막이 나온 디 막아 가지고서 이제 그걸로 끄 한다.(그 숯, 숯 그 동그란 걸 발로 이렇게 밟아 줘야 해. 그래 가지고 차차차차 숯이 이렇게 타가면 날나무 할 때는 이렇게 곧았다가 타 가면 이렇게 좋아들 거 아니냐? 좋아들면서 아래로 쳐지면서 불이 또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 이쪽 구멍으로 불 나오면 먼저 한 데로부터 막고 그러면 마지막에 나온 데 막아 가지고서 이제 그 걸로 끝 한다.)

104026 @1 거 높이는 어느 정도 만듭니까? 땅 파고 허민?(거 높이는 어느 정도 만듭니까? 땅 파고 하면?)

104026 #1 높이는 나무, 나무에 비해서 나무가 만으면은 높이 허고 나무가 죽으면은 죽게 허고.(높이는 나무, 나무에 비해서 나무가 많으면 높이 하고 나무가 적으면 작게 하고.)

104026 @1 층층이 쌓아 낱, 구멍 한 세 개 정도예?(층층이 쌓아 놔서, 구멍 한 세 개 정도요?)

104026 #1 으.(으.)

104026 @1 우이도 구멍 내 우이로 불부치는 거라예?(위에도 구멍 내서 위로 불 붙이는 거지요?)

104026 #1 으, 주로 우이로 만이 불부진다.(으, 주로 위로 불붙인다.)

104026 @1 숯, 숯도 거의 다 집집마다?(숯, 숯도 거의 다 집집마다?)

104026 #1 으. 집집마다 다 그렇게 헛저.(으. 집집마다 다 그렇게 했어.)

104026 @1 만들양 써. 산에 강 만듭니까?(만들어서 써. 산에 가서 만듭니까?)

104026 #1 으, 산에 강 만들고, 또 장에 가민 또 숯 만이 풀아났저.(으, 산에 가서 만들고, 또 장에 가면 또 숯 많이 팔았었어.)

104026 @1 아, 팔고예.(아, 팔고요.)

104026 #1 숯 못 만드는 사름은 장에 강 사당. 거 비싸주게.(숯 못 만드는 사름은 장에 가서 사다가. 거 비싸지.)

사냥

104028 @1 그 사냥도 헤낫수과, 사냥?(그 사냥도 했었습니까, 사냥?)

104028 #1 사냥 거튼 건 안 헤낫저.(사냥 같은 건 안 했었어.)

104028 @1 사냥은, 사냥을 뭐렌 글습니까, 여깃말로?(사냥은, 사냥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깃말로?)

104028 #1 사농이엔 허주, 사농.(‘사농’이라고 하지, ‘사농’.)

104028 @1 사농.(사냥.)

104028 #1 사농, 여기 개 잇는 사름은이 개 잇는 사름은 추미로이 추미로 꿩 사

농을 허긴 해낫저.(사냥. 여기 개 있는 사람은 개 있는 사람은 취미로 취미로 꿩 사냥을 하긴 했었어.)

104029 @1 꿩 사농?(꿩 사냥?)

104029 #1 으, 꿩 사농. 다른 사냥은 해난 거 엇고.(으, 꿩 사냥. 다른 사냥은 했던 거 없고.)

104029 @1 엇고. 꿩 사냥 안 해도 꿩코¹⁸⁰⁾ 낡 잡으레?(없고. 꿩 사냥 안 해도 ‘꿩코’ 놔서 잡으러?)

104029 #1 어, 꿩코 낡은 만이 잡아낫저. 나도 만이 잡아낫는데. 꿩코는이 우리도 심하게 놔낫저. 계난 겨울 돼면은이 꿩이 다 해변으로 이제 느껴오느네, 산에 잇다가이.(어, ‘꿩코’ 놔서는 많이 잡았었어. 나도 많이 잡았었는데. ‘꿩코’는 우리도 심하게 놔었어. 그러니까 겨울 되면 꿩이 다 해변으로 이제 내려와, 산에 잇다가.)

104029 @1 예, 예.(예, 예.)

104029 #1 계민 꿩 잘 다니는 그 뭐인가 선덕¹⁸¹⁾이 잇저. 가시덤벌 속으로 가시덤벌.(그럼 꿩 잘 다니는 그 뭐인가 ‘선덕’이 있어. 가시덤불 속으로 가시덤불.)

104029 @1 아까 선덕?(아까 ‘선덕’?)

104029 #1 설덕.(‘설덕’.)

104029 @1 아, 설덕.(아, ‘설덕’.)

104029 #1 그 뭐인가 가시 섬벌, 거를 섬벌이엔 한다. 섬벌 소굽에 항상 꿩이 굽주게이.(그 뭐인가 가시 수풀, 거를 ‘섬벌’이라고 한다. 수풀 속에 항상 꿩이 숨지.)

104029 @1 예.(예.)

104029 #1 그런 디 영 강 보른 꿩이 멩겨난 길이 난다. 그런 디 길 멩기는 디 영 코 낡 놔두민 그 길에 꿩이 걸리는 거주.(그런 데 이렇게 가서 보면 꿩이 다녔던 길이 난다. 그런 데 길 다니는 데 이렇게 올라미 놔서 놔두면 그 길에 꿩이 걸리는 거지.)

104029 @1 아, 눈 위니까 길 난 거를 알아지는 거마씨?(아, 눈 위니까 길 난 거를 알 수 있는 거요?)

104029 #1 으, 으.(으, 으.)

104029 @1 계민 그 질 뺑 꿩코 낡 놔두면?(그럼 그 길 봐서 ‘꿩코’ 놓아 놔두면?)

104029 #1 한동리도 꿩코 낡 꿩 하영 잡아낫저.(한동리도 ‘꿩코’ 놔서 꿩 많이 잡았었어.)

104029 @1 기지예. 저 어릴 때도 꿩코 놓은[논] 거 보러.(그렇지요. 저 어릴 때도 ‘꿩코’ 놓은 거 보러.)

104029 #1 막 돌아멩겨나세.(마구 돌아다녔었어.)

180)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라미를 말한다.

181) ‘선덕’은 돌이 영기정기 쌓이고 잡초와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설덕’, ‘서드럭’이라고도 한다.

104031 @1 예, 덩겨난 거 기억나마썸. 게난 핑 사냥만 하고 노루나 지다리?(예, 다녔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핑 사냥만 하고 노루나 오소리?)

104031 #1 지달, 지다리 사냥은 안 했져. 허는 사름이 엇져. 다른 부락은 어디, 선홀하고 저디 송당은 셔낫져. 전문으로 허는 사름.(오소, 오소리 사냥은 안 했어. 하는 사람이 없어. 다른 부락은 어디, 선홀하고 저기 송당은 있었어.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4031 @1 으. 족제비 그런 것도 엇어난?(으. 족제비 그런 것도 없었어?)

104031 #1 족제비는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족제비 잡아낫져. 우리도 경 다 잡아난. 그때는 값이 많이 갖져, 족제비.(족제비는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족제비 잡았었어. 우리도 그렇게 다 잡았었어. 그때는 값이 많이 갔어, 족제비.)

104031 @1 건 어떻 잡습니까, 족제비 잡젠 허민?(건 어떻게 잡습니까, 족제비 잡으려고 하면?)

104031 #1 족제빈 거 덧이라는 게 잇져. 덧을 만들어야 허여. 그 나무, 나무 비여다가이 영 잘라 가지고서 이렇게 족제비 덧을 만들어 가지고서이 거기 쥐를 잡아 가지고서 쥐를 영 돌아맨다.(족제빈 거 덧이라는 게 있어. 덧을 만들어야 해. 그 나무, 나무 베어다가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족제비 덧을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 쥐를 잡아 가지고서 쥐를 이렇게 달아맨다.)

104031 @1 으.(으.)

104031 #1 쥐를 돌아메민 족제비가 상당히 좋아헛주게. 게난 쥐, 쥐를 돌아멩 놔두민 족제비가 쥐를 영 돌아멩 거 영 허면은 이디 거, 이디 영 바툰 것이 이렇게 허게끔 장치를 뒤어서.(쥐를 달아매면 족제비가 상당히 좋아헛지. 그러니까 쥐, 쥐를 달아매서 놔두면 족제비가 쥐를 이렇게 달아멩 거 이렇게 하면 여기 거, 여기 이렇게 받친 것이 이렇게 하계끔 장치를 뒤어서.)

104031 @1 예.(예.)

104031 #1 게문 그거 건드리면은 우이 돌이 무거운 것도 잇주. 게난 이거 쥐만 건드리면은 그냥 빠지게 뒤서 달락허게 경허민 그냥 옆어져 가지고 족제비 그것이 죽게 뒤주게.(그림 그거 건드리면 위에 돌이 무거운 것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 쥐만 건드리면 그냥 빠지게 뒤서 달가닥하게 그러면 그냥 옆어져 가지고 족제비 그것이 죽게 되지.)

104031 @1 게민 덧은 어디 강 놔두는 거마썸, 덧은?(그럼 덧은 어디 가서 놔두는 거요, 덧은?)

104031 #1 덧은 거 족제비 잘 텡김 직헌 디, 어디 어수룩헌 디 그디 논다. 백담¹⁸²⁾, 백담.(덧은 거 족제비 잘 다닐 만한 데, 어디 어두침침한 데 거기 놓는다. ‘백담’, ‘백담’.)

104031 @1 집 주변마썸?(집 주변요?)

104031 #1 집 주변도 뒤고 집 바깥디, 백담덜 만든.(집 주변도 되고 집 밖에,

182) ‘백담’은 돌맹이로 벽을 쌓듯이 에둘러 놓은 발담을 말한다.

‘백담’들 많은.)

104031 @1 백담덜 만든 디.(‘백담’들 많은 데.)

104031 #1 백담 속에 만이 사니까.(‘백담’ 속에 많이 사니까.)

104031 @1 게난 산, 들에, 밧디 강 놓는구나예?(그러니까 산, 들에, 밧에 가서 놓는군요?)

104031 #1 으, 밧디 강 논다.(으, 밧에 가서 놓는다.)

104031 @1 밧디 강예, 밧디 강 놓는 거예, 예.(밧에 가서요, 밧에 가서 놓는 거요, 예.)

5. 바다일

105001 @1 이번엔 바닷일 물어보쿠다. 바닷일예. 그 바다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이신고예?(이번엔 바닷일 물어보겠습니다. 바닷일요. 그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105001 #1 옛날에는 주로 그 메역을 주로.(옛날에는 주로 그 미역을 주로.)

105001 @1 예.(예.)

105001 #1 즈물아낫저. 메역이 그 주업이랏주게. 해녀들이 주업이 메역 즈무는 게 우선 그게 주업이란디 이젠, 이젠, 이젠 천초도 만이 나고.(쌌었어. 미역이 그 주업이었지. 해녀들이 주업이 미역 캐는 게 우선 그게 주업이었는데 이젠, 이젠, 이젠 우뭇가사리도 많이 나고.)

105001 @1 으.(으.)

105001 #1 천초는 거 우미엔 현다. 제줏말로 우미도 만이 나고. 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툄허고 우미허고 돈을 만이 쫓저. 메역은이 이제 시세 엇영 이젠 안 즈물고. 옛날에는 메역만 시세가 좋아났는데.(우뭇가사리는 거 ‘우미’라고 한다. 제줏말로 ‘우미’도 많이 나고. 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툄하고 우뭇가사리하고 돈을 많이 쫓어. 미역은 이제 시세 없어서 이젠 안 캐고. 옛날에는 미역만 시세가 좋았었는데.)

105001 @1 메역이 시세 좋아나신디. 게민 메역 즈물고, 우미 즈물고.(미역이 시세 좋았었는데. 그럼 미역 캐고, 우뭇가사리 캐고.)

105001 #1 즈물고, 게. 툄, 툄은 기자 거 즈문덴¹⁸³⁾ 안 해여. 툄은 기자 그 각자가 조합에서 조합별로 강 각자가 캐낫저, 거. 해녀들이 가근에 호미로 거 건 물에 안 들영 웨는 거난.(캐고, 그래. 툄, 툄은 그저 거 췌다고 안 해. 툄은 그저 그 각자가 조합에서 조합별로 가서 각자가 췌었어, 거. 해녀들이 가서 낫으로 거 건 물에 안 들어서 되는 거니까.)

183) ‘즈물다’는 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보자는 우뭇가사리와 미역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채취하기 때문에 ‘즈문다’라고 하지만 툄은 물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췌다’고 하였다.

105001 @1 예, 예.(예, 예.)

105001 #1 그거 허고 또시 이제 메역 즈무는 거 끝나면은이 젊은 사름덜은 이제 헛물¹⁸⁴)에를 만이 헛져. 헛물은 뭐냐 허면 고동 거튼 거, 뭐 고기도 쏘고 뭐 뭐인가 오분제기도 잡고.(그거 하고 또 이제 미역 캐는 거 끝나면 젊은 사름들은 이제 ‘헛물’에를 많이 했어. ‘헛물’은 뭐냐 하면 고동 같은 거, 뭐 고기도 쏘고 뭐 뭐인가 오분자기도 잡고.)

105001 @1 그걸 헛물이엔 험니까?(그걸 ‘헛물’이라고 합니까?)

105001 #1 으, 헛물이엔 현다.(으, ‘헛물’이라고 한다.)

105001 @1 어.(어.)

105001 #1 헛물에 가근에가 헛물에 강. 머정 좋은 사름은, 이게 갯곳이¹⁸⁵) 소질 잇는 사름은 고기, 고기 만이 쏘는 사름은 고기만 만이 쏘고. 고동 만이 허는 사름은 고동도 만이 허고 그렇게.(‘헛물’에 가서 ‘헛물’에 가서. 채수 좋은 사름은, 이게 갯가 소질 잇는 사름은 고기, 고기 많이 쏘는 사름은 고기만 많이 쏘고. 고동 많이 하는 사름은 고동도 많아 하고 그렇게.)

105002 @1 듬북이랑 감태는 안 해낫수과?(듬북이랑 감태는 안 했었습니까?)

105002 #1 감태는, 감태는.(감태는, 감태는.)

105002 @1 제주도 말로 듬북, 감태는 그냥 듬북, 감태?(제주도 말로 듬북, 감태는 그냥 듬북, 감태?)

105002 #1 으, 듬북, 감태여. 그 감태는이 감태는 막 지픈 바당에서 허는 거기 때문에 이디션 즈물질 못허고.(으, 듬북, 감태야. 그 감태는 감태는 아주 깊은 바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캐지 못하고.)

105002 @1 으.(으.)

105002 #1 감태는 놀 불어 나민 감태가 올라오민 그걸 해근에가 막 건져다가, 그걸 각자가 건져다가 이녁냥으로 건져. 지금도 건조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폰다.(감태는 파도 일고 나면 감태가 올라오면 그걸 해서 마구 건져다가, 그걸 각자가 건져다가 자기대로 건져. 지금도 건조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다.)

105002 @1 뭐, 뭐 해 나민 감태가?(뭐, 뭐 하고 나면 감태가?)

105002 #1 놀 불어 나사.(파도 일고 나야.)

105002 @1 놀 불어 나사.(파고 일고 나야.)

105002 #1 으, 셋놀¹⁸⁶). 셋브름이 셋놀이엔 현다. 북군¹⁸⁷)에선 셋브름이 굉장허지. 셋놀 불어 나민이 감태가 올라와서 그걸 각자가 주워다가 자기만씩 몰류와서 지금도 이제 폰다. 거 깎 만이 준다.(으, ‘셋놀’. 셋바람이 ‘셋놀’이라고 한다. 북군에

184) ‘헛물’은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잡는 것을 말한다.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등을 캐러 물에 들어가는 일이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도 있으므로 ‘헛물’이라고 했다.

185) ‘갯곳이’는 표준어 ‘갯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갯가에서 해산물을 잡는 일’의 의미로 쓰였다.

186) ‘셋놀’은 동쪽에서 부는 셋바람에 이는 파도를 말한다. 여기서 제보자는 ‘셋바람’을 ‘셋놀’이라고 하였다. ‘셋+놀’의 구성으로 ‘놀’은 너울을 가리킨다.

187) ‘북군’은 ‘북제주군’을 말한다.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제주시로 통합되었다.

선 셋바람이 굉장하지. ‘셋놀’ 붙고 나면 감태가 올라와서 그걸 각자가 주워다가 자기만씩 말려서 지금도 이제 판다. 거 값 많이 준다.)

105002 @1 그민 듬복이랑 감태를 다 공동으로 안 허고 개인으로 헛수과?(그럼 듬복이랑 감태를 다 공동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헛습니까?)

105002 #1 감텐 안 헨. 감텐 내베낫주. 겨난.(감텐 안 헛어. 감텐 내버렸었지. 그러니까.)

105002 @1 내베난.(내버렸었어.)

105002 #1 듬복, 듬복은 거세기 헛는디 이제는 듬복은 안 허고 감태만 올라온다.(듬복, 듬복은 거시기 헛는데 이제는 듬복은 안 하고 감태만 올라온다.)

105002 @1 감태만. 계민 듬복은 제로 헛던 거고? 듬복제¹⁸⁸)로 헛던 거고?(감태만. 그럼 듬복은 계로 헛던 거? ‘듬복제’로 헛던 거?)

105002 #1 으. 듬복제로, 듬복제로 해 가지고서 그걸, 듬복 올라오민 그걸 물류왕 물류우민 다 각자가 갈라 가지고서 그건 시꺼다가 놀영 낫당 건 보리 갈 때에 걸름 대신 그걸 고랑에 깔앙 이렇게 허고.(으. ‘듬복제’로, ‘듬복제’로 해 가지고서 그걸, 듬복 올라오면 그걸 말려서 마르면 다 각자가 갈라 가지고서 그거 실어다가 가려 낫다가 건 보리 갈 때 거름 대신 그걸 고랑에 깔아서 이렇게 하고.)

105002 @1 듬복제는 멧 사람이나?(‘듬복제’는 멧 사람이나?)

105002 #1 듬복제는 우리가 조합, 조합으로 헛주. 일 조합, 이 조합. 웃동넨 이 개 조합이주. 겨난 일 조합, 이 동으로 길 이쪽에는 일 조합, 길 저쪽에는 이 조합 그렇게 정해져낫저.(‘듬복제’는 우리가 조합, 조합으로 헛지. 일 조합, 이 조합. 윗동넨 이 개 조합이지. 그러니까 일 조합, 이 동으로 길 이쪽에는 일 조합, 길 저쪽에는 이 조합 그렇게 정해졌었어.)

105002 @1 겨난 일 조합이민 일 조합 사람들은 다 듬복제 참가허는 거마씨?(그러니까 일 조합이면 일 조합 사람들은 다 ‘듬복제’ 참가하는 거요?)

105002 #1 으, 다 일 조합은. 거 바당에 순서가 잇주.(으, 다 일 조합은. 거 바다에 순서가 있어.)

105002 @1 예.(예.)

105002 #1 가령 이 앞바다가 우리가 당번이 될 때도 잇고 비룻질¹⁸⁹)이 될 때도 잇고 저 서알¹⁹⁰) 될 때도 잇고. 겨난 그건 그 그 동네마다 그 해마다 배당한다. 바당을.(가령 이 앞바다가 우리가 당번이 될 때도 잇고 ‘비룻질’이 될 때도 잇고 저 ‘서알’ 될 때도 잇고. 그러니까 그건 그 그 동네마다 그 해마다 배당한다. 바다를.)

105002 @1 그럼 우리가 웃동네는 일 조합, 이 조합으로 나누잖아예?(그럼 우리가 윗동네는 일 조합, 이 조합으로 나누잖아요?)

105002 #1 으.(으.)

105002 @1 알동네 삼 조합, 사 조합으로 나뉘 가지고 그럼 네 개의 제가 잇는

188) ‘듬복제’는 거름으로 사용할 듬복의 채취 등을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한 계를 말한다.

189) ‘비룻질’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앞 바다 이름의 하나다.

190) ‘서알’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앞 바다 이름의 하나다.

거예?(아랫동네 삼 조합, 사 조합으로 나뉘 가지고 그럼 네 개의 계가 있는 거요?)

105002 #1 으, 네 개.(으, 네 개.)

105002 @1 바당은 멧 개로 나뉘져 잇수과? 한동 바당은?(바다는 멧 개로 나뉘져 있습니까? 한동 바다는?)

105002 #1 바당, 바당도 그, 그 뭐인가 지금 네 개로 나뉘 잇주.(바다, 바다도 그, 그 뭐인가 지금 네 개로 나뉘 잇지.)

105002 @1 네 개로 나뉘 잇영 이쪽 바당이 일 조합이 될 때 잇고 이 조합이 될 때 영 엇갈리멍.(네 개로 나뉘 잇어서 이쪽 바다가 일 조합이 될 때도 잇고 이 조합이 될 때 이렇게 엇갈리멍서.)

105002 #1 으, 엇갈리멍. 경해야 불평이 엇주게. 만이 올르는 디 잇고 아니 올르는 디도 잇고.(으, 엇갈리멍서. 그래야 불평이 없지. 많이 올르는 데 잇고 안 올르는 데도 잇고.)

105002 @1 하하하.(하하하.)

105002 #1 계난 거세기 허는 건 그건 구분이 엇고. 메역 즈무는 거나 다른 헛물에 허는 건 그건 구분이 엇고 풍조 올라올 때만 구분허는 거지.(그러니까 거시기 하는 건 그건 구분이 없고. 미역 캐는 거나 다른 ‘헛물’에 하는 건 그건 구분이 없고 풍조 올라올 때만 구분하는 거지.)

105002 @1 뭐, 뭐 올라올 때만?(뭐, 뭐 올라올 때만?)

105002 #1 풍조. 풍조허고 그 툄 허는 것만 구분이 잇어.(풍조. 풍조하는 그 툄 하는 것만 구분이 잇어.)

105002 @1 아, 풍조.(아, 풍조.)

105002 #1 으.(으.)

105002 @1 거 풍조렌 허는 거예?(거 풍조라고 하는 거요?)

105002 #1 으, 듄북 올라오는 걸. 브름 풍제에 거 풍조는 브름에 밀려 올라오는 거. 일일이 말허민 듄북게.(으, 듄북 올라오는 걸. 바람 풍자에 거 풍조는 바람에 밀려 올라오는 거. 일일이 말하면 듄북.)

105002 @1 아, 풍조로 올라오는 거는 듄북이난.(아, 풍조로 올라오는 거는 듄북이니까.)

105002 #1 으, 듄북.(으, 듄북.)

105002 @1 헨 일 조합 사름덜은 다 ㄴ치?(해서 일 조합 사람들은 다 같이?)

105002 #1 으, ㄴ치.(으, 같이.)

105002 @1 다 행 왕 놀영 놔뵤당 똑같이 나누는 거마씨?(다 해서 와서 가려서 놔뵤다가 똑같이 나누는 거요?)

105002 #1 으. 거 바당에, 바다에서 물르민 똑같이 나뉘 버린다. 그 수정마다, 계난 각자가 시켜 와야 돼여. 바당에서 놀 누는 것이 아니고.(으. 거 바다에, 바다에서 마르면 똑같이 나뉘 버린다. 그 수마다, 그러니까 각자가 실어 와야 돼. 바다에서 가리 가리는 것이 아니고.)

105002 @1 아, 거기서 똑같이 나누는 거?(아, 거기서 똑같이 나누는 거?)

105002 #1 으.(으.)

105002 @1 똑같이 나눠 가지고 각자가 가져왕.(똑같이 나눠 가지고 각자가 가져와서.)

105002 #1 으, 몰령. 몰려 와서 몰린 다음에 나뉘어 집이덜 놀영 낫당. 혼 번 허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댓 번도 올라올 수 잇고 놀 나민.(으, 말려서. 말려 와서 말린 다음에 나눠서 집에들 가려 났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댓 번도 올라올 수 잇고 파도 나면.)

105002 @1 게민 놀 붙어 가지고 듬북 허레 가젠 허민 모입서 행 급니까?(그럼 파도 일어 가지고 듬북 하러 가려고 하면 모이세요 해서 말합니까?)

105002 #1 그건 조합장이 그 뭐인가 일 조합, 이 조합 조합장이 잇저. 조합장이 다 거세기 연락을 다 한다. 이제는 마이크 잇이난 마이크로 다.(그건 조합장이 그 뭐인가 일 조합, 이 조합 조합장이 잇어. 조합장이 다 거세기 연락을 다 한다. 이제는 마이크 잇으니까 마이크로 다.)

105002 @1 마이크로.(마이크로.)

105002 #1 그 전인 마이크 잇일 적에는 돌, 돌아다니멍 다 반장안티 연락허민 반장이 또 그 동네에 다 연락허주.(그 전엔 마이크 없을 적에는 돌, 돌아다니면서 다 반장한테 연락하면 반장이 또 그 동네에 다 연락하지.)

105002 @1 널 듬북 헐 거우다. 나옵서, 멧 시에 나옵서. 걸읍서 헨예?(널 듬북 할 겁니다. 나오세요, 멧 시에 나오세요. 가세요 했어요?)

105002 #1 으.(으.)

105004 @1 저기 고등, 고등이 보말?(저기 고등, 고등이 '보말'?)

105004 #1 고등, 고등이엔 허는 건 그건이 구쟁기ㄴ라 표준말로 고등이엔 허는 디이 우린 구쟁기.(고등, 고등이라고 하는 건 그건 소라보고 표준말로 고등이라고 하는데 우린 '구쟁기'.)

105004 @1 으, 구쟁기.(으, 소라.)

105004 #1 보말은 구쟁기보단 쥬쥬현 그냥 보말은 쥬 것ㄴ라. 수두리, 수두리도 잇고 뭐 보말도 잇고.(고등은 소라보단 자잘한 그냥 '보말'은 잔 것보고. 두드럭고등, 두드럭고등 잇고 뭐 고등도 잇고.)

105004 @1 게민 보말 종류가 뭐, 뭐 잇수과? 보말 잇고.(그럼 고등 종류가 뭐, 뭐 잇습니까? 고등 잇고.)

105004 #1 보말 잇고 다시 저 구쟁기가 잇고. 아, 그 구쟁기는 딱로고.(고등 잇고 다시 저 소라가 잇고. 아, 그 소라는 따로고.)

105004 @1 으, 수두리 잇고.(으, 두드럭고등 잇고.)

105004 #1 또 수두리 잇고, 돌포말 잇고 또 춤가메기가 잇고.(또 두드럭고등 잇고, 눈알고등 잇고 또 남방울타리고등이 잇고.)

105004 @1 돌포말 잇고.(눈알고등 잇고.)

- 105004 #1 으, 춤가메기.(으, 남방울타리고등.)
- 105004 @1 춤가메기 잇고예?(남방울타리고등 잇고요?)
- 105004 #1 또 그 수두리 닳은 것이라 뭐엔 헨다만은 또 것도 잊어버렸저.(또 그 두드럭고등 닳은 것보고 뭐라고 한다만 또 것도 잊어버렸어.)
- 105004 @1 예, 나중에 뜬내지민 곶아 줍서. 갱이 종류마씨?(예,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 주세요. 게 종류요?)
- 105004 #1 갱이는 흔허지 안헨다. 흔허지 안허여. 갱이는 갱이덜이 거 헤다가 으름에 거 뭐인가 죽 썬 먹고 경해낫저.(게는 흔하지 않는다. 흔하지 않아. 게는 게들이 거 헤다가 여름에 거 뭐인가 죽 썬 먹고 그랬었어.)
- 105004 @1 으.(으.)
- 105004 #1 거 갱이덜 뽏아근에가. 왜냐면 갱이 먹으면은 신경통에 좋다고 그래서.(거 게들 뽏아서. 왜냐하면 게 먹으면 신경통에 좋다고 그래서.)
- 105004 @1 예.(예.)
- 105004 #1 갱이는 만이 나질 안헨다. 그거 힘들어. 갱이 잡는 것이.(게는 많이 나질 않는다. 그거 힘들어. 게 잡는 것이.)
- 105003 @1 아, 어떻 잡아난마씨?(아, 어떻게 잡았었어요?)
- 105003 #1 돌, 돌, 돌 둥그렁 큰 돌덜 둥그려야 그 갱이가 나온다. 돌 소굽에 잇는.(돌, 돌, 돌 둥글려서 큰 돌들 둥글려야 그 게가 나온다. 돌 속에 잇는.)
- 105003 @1 아, 돌 소굽에. 보말은 어떻 잡았수과?(아, 돌 속에. 고등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 105003 #1 보말은 뭐 그냥 나온다. 바깥데.(고등은 뭐 그냥 나온다. 바깥에.)
- 105005 @1 바깥데 나온 거예. 갱이 종류는 무신 거 따로 무슨 갱이, 무슨 갱이 안 허고?(바깥에 나온 거요. 게 종류는 무슨 거 따로 무슨 게, 무슨 게 안 하고?)
- 105005 #1 아, 것도 춤갱이가 잇고 또 펠갱이¹⁹¹⁾가 잇고.(아, 것도 참게가 잇고 또 ‘펠갱이’가 잇고.)
- 105005 @1 으. 춤갱이.(으. 참게.)
- 105005 #1 으, 펠갱이엔 헨 거.(으, ‘펠갱이’라고 하는 거.)
- 105005 @1 펠갱이.(‘펠갱이’.)
- 105005 #1 으. 펠갱인 노린내 나는 거, 그건 먹지 안허는 거.(으. ‘펠갱이’는 노린내 나는 거, 그건 먹지 않는 거.)
- 105005 @1 아, 우리가 먹는 건 춤갱이예?(아, 우리가 먹는 건 참게요?)
- 105005 #1 으, 춤갱이.(으, 참게.)
- 105006 @1 그 헛불 싸 가지고 뭔가 잡고도 헤낫수과?(그 헛불 켜 가지고 뭔가 잡고도 했었습니까?)
- 105006 #1 으, 거 헤낫저.(으, 거 했었어.)
- 105006 @1 뭐 잡젠?(뭐 잡으려고?)

191) ‘펠갱이’는 주로 갯벌에 사는 게를 말한다. ‘펠갱이’라고도 한다.

105006 #1 거 햏바르¹⁹²라 햏 가지고서 건 뉘인가 문어.(거 ‘햏바르’라 햏 가지고서 건 뉘인가 문어.)

105006 @1 아, 문어 잡을 때. 그햏 햏볼이엔 불럿수과?(아, 문어 잡을 때. 그햏 햏볼이라고 불럿습니까?)

105006 #1 햏볼을, 햏볼햏근에가 그 뉘인가 가을, 그건 주로 가을에 거시기 현디.(햏볼을, 햏볼햏서 그 뉘인가 가을, 그건 주로 가을에 거시기 햏는데.)

105006 @1 예.(예.)

105006 #1 가을밤에이.(가을밤에.)

105006 @1 으.(으.)

105006 #1 가을에 햏볼을 영 들르면은 그 문어가이 문어가 그 불을 봐 가지고이, 숨엇다가 불을 봐 가지고 나온다게.(가을에 햏볼을 이렇게 들면 그 문어가 문어가 그 불을 봐 가지고, 숨엇다가 불을 봐 가지고 나온다.)

105006 @1 으.(으.)

105006 #1 햏햏면은 그거 잡는 거.(그러면 그거 잡는 거.)

105006 @1 음.(음.)

105006 #1 햏볼을, 불 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햏바르엔 현디. 햏바르.(햏볼을, 불 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햏바르’라고 한다. ‘햏바르’.)

105006 @1 햏?(햏?)

105006 #1 햏바르. 햏바르 가자 햏.(‘햏바르’. ‘햏바르’ 가자 햏서.)

105006 @1 아, 그럼 햏볼 들고 잡는 거를 햏바르헏 햏는 거예?(아, 그럼 햏볼 들고 잡는 거를 ‘햏바르’라고 햏는 거요?)

105006 #1 으.(으.)

105006 @1 아, 햏바르 가자 햏. 게민 햏바르 가자 햏는 말이 문어 잡으레 가자 햏는 말이과?(아, ‘햏바르’ 가자 햏서. 그럼 ‘햏바르’ 가자 햏는 말이 문어 잡으레 가자 햏는 말입니까?)

105006 #1 어. 거 주로 그것햏끼 안 나오니까. 문어햏끼.(어. 거 주로 그것햏밖에 안 나오니까. 문어햏밖에.)

105007 @1 아, 문어햏끼 안 나와, 다른 건 안 나와. 또 햏 들어올 때 햏햏 햏민 원이 잇을 거 아니예?(아, 문어햏밖에 안 나와, 다른 건 안 나와. 또 햏 들어올 때 햏햏 하면 ‘원’이 잇을 거 아니요?)

105007 #1 어, 원¹⁹³은 그 옛날에는 그것이 들어왕 이디 답이 다와햏져. 햏답이라고.(어, ‘원’은 그 옛날에는 그것이 들어와서 여기 답이 햏얏어. ‘햏답’이라고.)

105007 @1 예, 햏답.(예, ‘햏답’.)

105007 #1 으, 햏답이라고, 햏답이라고 햏 다와햏는데 햏이 만이 들어와근에가 그 뉘인가 물이 햏 달라근에가 못 나가면은 햏답에 거 실 거 아니가?(으, ‘햏답’이

192) ‘햏바르’는 ‘햏+바르’의 구성으로 햏볼을 들고 햏산물을 햏취햏는 것을 말한다.

193) ‘원’은 햏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답을 햏조햏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햏를 햏물이 나면 그 안에 가뉘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햏치햏 둔 곳이다. ‘햏답’, ‘원답’이라고도 한다.

라고, ‘갯담’이라고 해서 쌓았는데 멸치가 많이 들어와서 그 뭐인가 물이 써서 말라서 못 나가면 ‘갯담’에 거 있을 거 아니냐?)

105007 @1 예.(예.)

105007 #1 경허면은 알동네 사름들이 이 바다에 잇는 사름, 해초 못허는 사름은 해당이 엇고, 게민 사달이라고 해 사달.(그러면 아랫동네 사람들이 이 바다에 잇는 사람, 해초 못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고, 그럼 사들이라고 해 사들.)

105007 @1 예, 사달.(예, 사들.)

105007 #1 사달이 구물로 이렇게 뭐인가 둥글허게 거 남으로 행 만들어근에 그 걸로 해 가지고서 거렁덜 먹주게. 알동네 사름덜은. 겐 만이 거릴 때는 막 소문낭 웃동네 사름도 강 거렁 올 때도 잇고.(사들이 그물로 이렇게 뭐인가 둥그렇게 거 나무로 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해 가지고서 떠서 먹지. 아랫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뜰 때는 아주 소문나서 윗동네 사람도 가서 떠서 올 때도 잇고.)

105007 @1 아. 그, 그 멜 거리는 건 웃동네 사름덜은 해당 안 되는 것과?(아. 그, 그 멸치 뜨는 건 윗동네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105007 #1 해당이 안 돼어.(해당이 안 돼.)

105007 @1 무사, 무사 알동네 사름들은 돼고 웃동네 사름은 안 되는 거?(왜, 왜 아랫동네 사람들은 되고 윗동네 사람은 안 되는 거?)

105007 #1 웃동네 사름은 그런 족바디, 족바디 그런 걸 구비헌 사름이 엇어.(윗동네 사람은 그런 뜰채, 뜰채 그런 걸 구비한 사람이 없어.)

105007 @1 아, 그런 그물로 행 만든 걸 뭐렌 헤여?(아, 그런 그물로 해서 만든 걸 뭐라고 해?)

105007 #1 그거 족바디라고 한다. 족바디.(그거 뜰채라고 한다. 뜰채.)

105007 @1 족바디?(뜰채?)

105007 #1 으.(으.)

105007 @1 족바디렌 불렀던 거예. 그걸로 멜 거렁 먹었던 거예?(‘족바디’라고 불렀던 거요. 그걸로 멸치 떠서 먹었던 거요?)

105007 #1 으.(으.)

105007 @1 그럼 그거 원 같은 거 원에 들어온 거 족바디로 영 거리는 거 아니?(그럼 그거 ‘원’ 같은 거 ‘원’에 들어온 거 뜰채로 이렇게 뜨는 거 아니?)

105007 #1 으, 원 안에 담 안에 들어 잇는 거.(으, ‘원’ 안에 담 안에 들어 잇는 거.)

105007 @1 족바디 생긴 건 어떻?(뜰채 생긴 건 어떻게?)

105007 #1 막 크게 멘들앗저. 족은 건, 족은 것도 개인으로 허기 따문에. 크게 허는 건 나무, 나무로이 혼 쪽에가 혼 두 개, 두 개씩 두 개 더 될 거여. 이렇게 헤 영 영 예껴 가지고서 이디 그물을 놓주게. 경허면은 혼 사람이 힘들 정도로 크게 멘들앙.(아주 크게 만들었어. 작은 건, 작은 것도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하는 건 나무, 나무로 한 쪽에가 한 두 개, 두 개씩 두 개 더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

게 이렇게 엮어서 가지고서 여기 그물을 놓지. 그러면 한 사람이 힘들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105007 @1 아, 예 우리 뜨는 그물처럼 만든 거구나.(아, 예 우리 뜨는 그물처럼 만든 거구나.)

105007 #1 으, 그물처럼 만들앙.(으, 그물처럼 만들어서.)

105007 @1 만약 그럼 원 보수는 알동네 거러 먹는 사름덜이?(만약 그럼 ‘원’ 보수는 아랫동네 떠서 먹는 사름덜이?)

105007 #1 거러 먹는 사름덜이 헛저. 옛날 질 처음에 헐 적에는 전부 다 우, 알동네 다 ㄴ치덜 거러근에 헛는다.(떠서 먹는 사름덜이 헛어. 옛날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전부 다 위, 아랫동네 다 같이 떠서 헛는데.)

105007 @1 으.(으.)

105007 #1 계난 그 혜택은 가까운 디 사름이 보는 거라.(그러니까 그 혜택은 가까운 데 사름이 보는 거야.)

105007 @1 아. 처음 만들 땐 아무것도 잇영, 처음 원을 만들 땐 다 ㄴ치 헛던 거라예?(아. 처음 만들 땐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 ‘원’을 만들 땐 다 같이 헛던 거지요?)

105007 #1 계고이 저 서알¹⁹⁴)이렌 현 딘이 갓, 다찌 올라오는 디가 잇주.(그리고 저 ‘서알’이라고 하는 덴 갓, 독가시치 올라오는 데가 있지.)

105007 @1 으.(으.)

105007 #1 거긴이 다운 사름만 임제라. 건 허물어지면은 가근에가 동네 사름이 다와근에게 그 다찌 거시기 허민 다찌 심영 먹고 경혜났저.(거긴 쌓은 사름만 임자야. 건 허물어지면 가근에 동네 사름이 쌓아서 그 독가시치 거시기 하면 독가시치 잡아서 먹고 그랬었어.)

105007 @1 다찌가 물고기 이름이과?(‘다찌’가 물고기 이름입니까?)

105007 #1 으, 다찌라고 저것이 독가시¹⁹⁵)엔 현 건디, 표준말로 독가시.(으, ‘다찌’라고 저것이 ‘독가시’라고 하는 건데, 표준말로 ‘독가시’.)

105007 @1 아, 다찌.(아, 독가시치.)

105007 #1 거 쏘이면 막 아프고 현다게.(거 쏘이면 아주 아프고 한다.)

105007 @1 으.(으.)

105007 #1 그것이 주로 서알이엔 현 디 올라와났저. 계민 웃동네 사름덜 여기 동민이 아방네 만이 거 다와근에게 잡앙 먹고 우리도 ㄴ치 강 잡앙 먹고 혜났저.(그것이 주로 ‘서알’이라고 하는 데 올라왔었어. 그럼 윗동네 사름들 여기 동민이 아버지네 많이 거 쌓아서 잡아서 먹고 우리도 같이 가서 잡아서 먹고 헛었어.)

105007 @1 서하리?(‘서하리’?)

105007 #1 서알, 서알.(‘서알’, ‘서알’.)

194) ‘서알’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다.

195) 제보자는 독가시치를 ‘독가시’라 하였다.

105007 @1 아, 바당 이름?(아, 바다 이름?)

105007 #1 으. 것ㄴ라 다찌개¹⁹⁶엔 현다, 다찌개.(으, 거보고 ‘다찌개’라고 한다. ‘다찌개’.)

105007 @1 다찌개. 다찌개가 뭐과?(‘다찌개’. ‘다찌개’가 뭐니까?)

105007 #1 다찌가 들어오는 개.(독가시치가 들어오는 개.)

105007 @1 아, 다찌개. 담 다와진 걸 다찌개렌 헌텐 말이지예?(아, ‘다찌개’. 담 쌓인 걸 ‘다찌개’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105007 #1 으, 으.(으, 으.)

105007 @1 아까 서알 나오난 여쭙보겠는데, 바당 이름이 뭐, 뭐 잇수과? 한동 바당 이름이?(아까 ‘서알’ 나오니까 여쭙보겠는데, 바다 이름이 뭐, 뭐 잇습니까? 한동 바다 이름이?)

105007 #1 한동 바당이 게랭이¹⁹⁷ 바당이 잇고이.(한동 바다가 ‘게랭이’ 잇고.)

105007 @1 으, 게랭이 바당 잇고.(으, 게랭이 바다 잇고.)

105007 #1 비릿질¹⁹⁸이엔 현 디 잇고이.(‘비릿질’이라고 하는 데 잇고.)

105007 @1 비?(비?)

105007 #1 비릿질.(‘비릿질’.)

105007 @1 비릿질?(‘비릿질’?)

105007 #1 으. 그다음은 서알.(으. 그다음은 ‘서알’.)

105007 @1 서알.(‘서알’.)

105007 #1 또 독그슬개¹⁹⁹가 잇구나. 독그슬개.(또 ‘독그슬개’가 잇구나. ‘컷달개’.)

105007 @1 컷달개?(‘컷달개’?)

105007 #1 독그슬개라.(‘독그슬개’야.)

105007 @1 아, 독그슬개. 케민 이름이 네 개 잇수다예?(아, ‘독그슬개’. 그럼 이름이 네 개 잇네요?)

105007 #1 으, 네 개.(으, 네 개.)

105007 @1 바당 이름이예?(바다 이름이요?)

105007 #1 으.(으.)

105007 @1 서알가?(‘서알’인가?)

105007 #1 서알에 다찌개가 잇엇난.(‘서알’에 ‘다찌개’가 잇엇어.)

105007 @1 다찌개가 잇어난. 원담은 어디, 어느 쪽에 만들아낫수과?(‘다찌개’가 잇엇어. ‘원담’은 어디, 어느 쪽에 만들엇엇습니까?)

105007 #1 원, 그디도 원담 멘들앗는디 그딘 자꾸, 파도가 썰니까 자꾸 허물어 쳐 불고, 원담 비릿질이엔 현 디 지금 남아 잇저. 비릿질이엔 현 디 남아 잇고.(‘원’

196) ‘다찌개’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다.
 197) ‘게랭이’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다.
 198) ‘비릿질’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다.
 199) ‘독그슬개’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다.

거기도 ‘원담’ 만들었는데 거긴 자꾸, 파도가 세니까 자꾸 허물어져 버리고, ‘원담’ ‘비릿질’이라고 하는 데 지금 남아 있어. ‘비릿질’이라고 하는 데 남아 있고.)

105007 @1 으.(으.)

105007 #1 이 뭐인가 강이므루²⁰⁰)엔 현 디도 있고. 이 바로, 바로 이 앞이가 강이므룬엔 현 디. 거기는 이제도 남아 있져.(이 뭐인가 ‘강이므루’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 바로, 바로 이 앞에가 ‘강이므루’라고 하는 데. 거기는 이제도 남아 있어.)

105007 @1 아, 강이므루?(아, ‘강이므루’?)

105007 #1 으.(으.)

105007 @1 여기에도 아직도 원담 남아있어예?(여기에도 아직도 ‘원담’ 남아있어요?)

105007 #1 으.(으.)

105007 @1 기민 뿔은 다 원담에 들어오는 것만 잡아난 거마씨?(그럼 뿔치는 다 ‘원담’에 들어오는 것만 잡았던 거요?)

105007 #1 으. 뿔 원담에 오는 거 왜에는 여기에 었다. 주로 구좌에서는 월정²⁰¹)이 주로 집단으로 잡아났져. 월정.(으. 뿔치 ‘원담’에 오는 거 외에는 여기에 없다. 주로 구좌에서는 월정이 주로 집단으로 잡았었어. 월정.)

105007 @1 뿔은 월정에서. 물궤기는, 물궤기는 어떻 나까낫수과?(뿔치는 월정에서. 물고기는, 물고기는 어떻게 낫았었습니까?)

105010 #1 물궤기는 뭐 만이 나끄레, 나끄레 다녀낫주, 건. 물궤기는.(물고기는 뿔 많이 낫으러, 낫으러 다녔었지, 건. 물고기는.)

105010 @1 바닷궤기렌 혈 거, 물고기렌 혈 거?(바닷고기라고 할 거, 물고기라고 할 거?)

105010 #1 바닷고기엔 허주.(바닷고기라고 하지.)

105010 @1 고기과, 궤기과?(고기입니까, ‘궤기’입니까?)

105010 #1 우리 제주 말론 궤기엔 허주.(우리 제주 말론 ‘궤기’라고 하지.)

105010 @1 궤기.(고기.)

105010 #1 계난 바다에 바다 그 궤기도 거 이름이 있져.(그러니까 바다에 바다 그 고기도 거 이름이 있어.)

105010 @1 예, 예.(예, 예.)

105010 #1 멧부게도 있고.(‘멧부게’도 있고.)

105010 @1 멧부게.(‘멧부게’.)

105010 #1 멧부게도 있고 어랭이도 있고.(‘멧부게’도 있고 황놀래기도 있고.)

105010 @1 어랭이.(황놀래기.)

105010 #1 술벙이도 있고.(‘술벙이’도 있고.)

105010 @1 술벙이.(‘술벙이’.)

200) ‘강이므루’는 제주도 구좌읍 한동리 바다 이름의 하나다.
201) ‘월정’은 구좌읍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월정리’를 말한다.

105010 #1 졸락도 잇고.(노래미도 잇고.)
 105010 @1 졸락.(노래미.)
 105010 #1 또 다시 이제 불락도 잇고.(또 다시 이제 불락도 잇고.)
 105010 @1 으.(으.)
 105010 #1 우럭도 잇고.(우럭도 잇고.)
 105010 @1 으.(으.)
 105010 #1 검탱이도 잇고.(‘검탱이’도 잇고.)
 105010 @1 으.(으.)
 105010 #1 또 이제 농어도 잇고.(또 이제 농어도 잇고.)
 105010 @1 농어도 잇고.(농어도 잇고.)
 105010 #1 가문돔도 잇고.(감성돔도 잇고.)
 105010 @1 가문돔도 잇고.(감성돔도 잇고.)
 105010 #1 부릿도 잇고.(‘부릿’도 잇고.)
 105010 @1 부릿도 잇고.(‘부릿’도 잇고.)
 105010 #1 그거 주로.(그거 주로.)
 105010 @1 그럼 아까 곁은 것들은 사진 보민 이게 뭔지는 알아지지예?(그럼 아
 까 말한 것들은 사진 보면 이게 뭔지는 알 수 있지요?)
 105010 #1 으, 알아지주게.(으, 알 수 있어.)
 105011 @1 나중에 그것도 여쭙보쿠다예. 그 퀘기 나끄젠, 바닷퀘기 나끄젠 허
 민 낙싯대도 잇어야 헐 거고?(나중에 그것도 여쭙보겠습니다. 그 고기 낚으려고, 바
 닷고기 낚으려고 하면 낙싯대도 잇어야 할 거고?)
 105011 #1 으, 낙시대 잇어야주.(으, 낚싯대 잇어야지.)
 105011 @1 낙싯줄도 잇어야 헐 거고?(낚싯줄도 잇어야 할 거고?)
 105011 #1 으, 뽕돌도 잇어야 헐 거고.(으, 뽕돌도 잇어야 할 거고.)
 105011 @1 예, 뽕돌도 잇어야 헐 거고. 계민 이견 어디서 어디 강 구해?(예, 뽕
 돌도 잇어야 할 거고. 그럼 이견 어디서 어디 가서 구해?)
 105011 #1 건 세화리 가면은 주로 파는 디가 잇저. 어구 파는 디가.(건 세화리
 가면은 주로 파는 데가 있어. 어구 파는 데가.)
 105011 @1 어구 파는 디가. 그 옛날에도?(어구 파는 데가. 그 옛날에도?)
 105011 #1 으, 그 옛날에도.(으, 그 옛날에도.)
 105011 @1 낙싯대는 뭐?(낙싯대는 뭐?)
 105011 #1 낙싯대는 저 대, 대로. 저 덕천²⁰²⁾ 가서 대를 빌어다가.(낙싯대는 저
 대, 대로. 저 덕천 가서 대를 빌려다가.)
 105011 @1 대나무로?(대나무로?)
 105011 #1 대나무로 주로. 한동도 만이 텅겨저. 만이 텅겨났저.(대나무로 주로.
 한동도 많이 다녔어. 많이 다녔었어.)

202) ‘덕천’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덕천리’를 말한다.

105011 @1 그런게예.(그렇네요.)

105011 #1 느네 동네도 그 희수, 희수네 그 승안이 아방네 아주 잘 다니주. 희권이도 막. 느네 아바진 잘 안 탕겨져.(너희 동네도 그 희수, 희수네 그 승안이 아버지네 아주 잘 다니지. 희권이도 아주. 너희 아바진 잘 안 다녔어.)

105011 @1 퀘기 나끄레?(고기 낚으러?)

105011 #1 으, 느네 아바진 좋아 안 허는데, 상당히 좋아 해낫져. 승안이 아방이 나 저 뭐 용호 아방이나.(으, 너희 아바진 좋아 안 하는데, 상당히 좋아 했었어. 승안이 아버지나 저 뭐 용호 아버지나.)

105012 @1 예.(예.)

105012 #1 그디 희수, 상택이 아방네.(거기 희수, 상택이 아버지네.)

105012 @1 예.(예.)

105012 #1 우리도 그렇게 헛주만은.(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105012 @1 작살로도 잡아나고?(작살로도 잡았었고?)

105012 #1 작살은이 해녀들 가정 다닌다.(작살은 해녀들 가지고 다닌다.)

105012 @1 해녀들.(해녀들)

105012 #1 고기 보면은 그 저 고무 작살로 해 가지고 그 고무 늘좌근에가 쏘고, 그 남자들도 그걸로 주로덜 행 놀레 강 여름에. 그 저 학생덜 남자덜. 우리도 거 해 낫져.(고기 보면 그 저 고무 작살로 해 가지고 그 고무 늘려서 쏘고, 그 남자들도 그걸로 주로들 해서 놀러 가서 여름에. 그 저 학생들 남자들. 우리도 거 했었어.)

105012 @1 그냥 물안경만 썩 들어강?(그냥 물안경만 써서 들어가서?)

105012 #1 으, 물안경만 썩. 거세기 안 허고 테왁 안 차고.(으, 물안경만 써서. 거시기 안 하고 테왁 안 차고.)

105012 @1 물안경은 제주도 말로 뭐렌 낚아낫수과?(물안경은 제주도 말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5012 #1 물안경은 거 눈이엔 허주게.(물안경은 거 '눈'이라고 하지.)

105012 @1 그냥 눈이엔?(그냥 물안경이라고?)

105012 #1 그냥 눈이엔 헛져.(그냥 물안경이라고 했어.)

105013 @1 그 퀘기 잡는 배, 고깃배, 퀘깃배는 뭐렌 불러낫수과?(그 고기 잡는 배, 고깃배, 고깃배는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05013 #1 퀘깃배는 우리 제주도, 아 저 한동엔 엇어낫져. 자리, 자리가 자리 테 우라고 잇어져. 자릿배, 자리.(고깃배는 우리 제주도, 아 저 한동엔 없었어. 자리돔, 자리돔이 자리돔 떼라고 있었어. 자리돔 배, 자리돔.)

105013 @1 예, 자릿배.(예, 자리돔 배)

105013 #1 자릿배, 자리 테우.(자리돔 배, 자리 떼.)

105013 @1 으.(으.)

105013 #1 그 테우란 거 어이 허냐민 낭, 낭으로만 영 쪽 허게 무꺼 가지고서 그냥 펜펜허게 자리 테우 헛 거여.(그 떼란 거 어이 하냐면 나무, 나무로만 이렇게

쪽 하게 묶어 가지고서 그냥 편편하게 자리돔 때 하는 거야.)

105013 @1 으.(으.)

105013 #1 그거 해근에 알동네, 알동네 허칩이 사름이 주로 해낫저.(그거 해서 아랫동네, 아랫동네 허씨 집의 사람이 주로 했었어.)

105013 @1 으. 그럼 그 배를 뭐렌 불러난지 알아지쿠과, 이런 배를?(으. 그럼 그 배를 뭐라고 불렀었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배를?)

105013 #1 거 배 이름은 잘.(거 배 이름은 잘.)

105013 @1 요런 배를 뭐렌 불렀수과? 그냥 배렌 부를 거?(요런 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냥 배라고 부를 거?)

105013 #1 그냥 이건. 우리 한동은 이만이 현 배도 엇긴 엇어.(그냥 이건. 우리 한동은 이만큼 한 배도 없긴 없어.)

105013 @1 엇어난. 이 배를 풍선이렌 부르코?(없었어. 이 배를 풍선이라고 부르코?)

105013 #1 으, 으.(으, 으.)

105013 @1 그럼 배 부분 명칭덜 알아집니까?(그럼 배 부분 명칭들 압니까?)

105013 #1 몰라.(몰라.)

105014 @1 해너, 잠녀들이, 잠녀엔 헐 거, 줌녀엔 헐 거?(해너, 잠녀들이, 잠녀라고 할 거, '잠녀'라고 할 거?)

105014 #1 줌녀엔 헐저, 줌녀.(‘잠녀’라고 했어, ‘잠녀’.)

105014 @1 줌녀들이 물속에 들영 잡는 거 뭐 뭐 잇어낫수과?(잠녀들이 물속에 들어서 잡는 거 뭐 뭐 있었습니까?)

105014 #1 물속에 들영 잡는 건 첫째는 메역이 잇엇고이 메역이 잇고 그다음에 우미, 그다음에 고통.(물속에 들어서 잡는 건 첫째는 미역이 잇엇고 미역이 잇고 그다음에 우뭇가사리, 그다음에 고통.)

105014 @1 고통?(고통?)

105014 #1 고통이엔 현 거 구쟁기이.(고통이라고 하는 거 소라.)

105014 @1 예, 예.(예, 예.)

105014 #1 또 다시 이제 전복?(또 다시 이제 전복?)

105014 @1 으, 전복.(으, 전복.)

105014 #1 전복허고 고기 같은 거 쏘고. 그 웨에는 엇다.(전복하고 고기 같은 거 쏘고. 그 웨에는 엇다.)

105014 @1 음.(음.)

105014 #1 아, 또 다시 우뭇가사리.(아, 또 다시 우뭇가사리.)

105015 @1 음, 우미도 즈물고예?(음, 우뭇가사리도 캐고요?)

105015 #1 으, 우미 즈물고.(으, 우뭇가사리 캐고.)

105015 @1 줌녀들이 물에 들어 가지고 즈물젠 허면 뭐, 뭐 잇어야 웨는 거? 우선은 옷.(잠녀들이 물에 들어 가지고 캐려고 허면 뭐, 뭐 잇어야 웨는 거? 우선은

옷.)

105015 #1 옷이 있어야 돼. 옛날에는 그 고무옷²⁰³이, 고무옷이 엇일 적에는이 각자가 그 뭐인가 저 불 초을 그 뭐를 가정 가났저. 각자가 질구덕²⁰⁴에.(옷이 있어야 돼. 옛날에는 그 고무옷이, 고무옷이 없을 적에는 각자가 그 뭐인가 저 불 췌 그 뭐를 가지고 갔었어. 각자가 ‘질구덕’에.)

105015 @1 으.(으.)

105015 #1 그 나무민 나무, 출뭇이민 출뭇 해 가지고서이.(그 나무면 나무, 풀단 이면 풀단 해 가지고서.)

105015 @1 으.(으.)

105015 #1 그때는 고무옷이 엇어노니까 물에 들엉 나오민 막 चु겨든이.(그때는 고무옷이 없으니까 물에 들어서 나오면 아주 चु겨든.)

105015 @1 으.(으.)

105015 #1 추우면은 그냥 불을 초아야 돼여. 것ㄴ라 불 초이는 디 불턱²⁰⁵이엔 현다.(추우면 그냥 불을 쪼어야 돼. 것보고 불 쪼는 데 ‘불턱’이라고 한다.)

105015 @1 아, 불턱예?(아, ‘불턱’요?)

105015 #1 모여앉아근에 그 불턱에서 불살랑 초이고 경허다가 이제는 고무옷이 나기 시작허난 불턱이 이젠 엇어.(모여앉아서 그 ‘불턱’에서 불살라서 쪼고 그러다가 이제는 고무옷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불턱’이 이젠 없어.)

105015 @1 으.(으.)

105015 #1 가정 가는 게 엇어졌지.(가지고 가는 게 없어졌지.)

105015 @1 그럼 고무옷 입기 전에 입어난 옷을 뭐렌?(그럼 고무옷 입기 전에 입었던 옷을 뭐라고?)

105015 #1 으, 그것ㄴ라 아래 건 속곳²⁰⁶이라 속곳이라고.(으, 그것보고 아래 건 ‘속곳’이야 ‘속곳’이라고.)

105015 @1 으.(으.)

105015 #1 우이는 적삼이라고 그러고.(위는 적삼이라고 그러고)

105015 @1 으, 속곳 입엉 물질했었던 거예. 기민 물에 들젠 허민 속곳 있어야 췌 거고?(으, ‘속곳’ 입어서 물질했었던 거요. 그럼 물에 들려고 하면 ‘속곳’ 있어야 췌 거고?)

105015 #1 으, 우이 적삼 있어야.(으, 위에 적삼 있어야.)

105015 @1 적삼 있어야 췌 거고.(적삼 있어야 췌 거고.)

105015 #1 테왁 있어야.(테왁 있어야.)

105015 @1 테왁 있어야 췌 거고.(테왁 있어야 췌 거고.)

203) ‘고무옷’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해산물 등을 캐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말한다.

204) ‘질구덕’은 물건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큰 바구니를 말한다.

205) ‘불턱’은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나와서 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쉬거나 옷을 갈아입는 곳을 말한다.

206)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105015 #1 또 다시 이제 그 중계호미²⁰⁷가 있어야 될 거지.(또 다시 이제 그 ‘중계호미’가 있어야 될 거지.)

105015 @1 으, 중계호미.(으, ‘중계호미’.)

105015 #1 또 다시 이제 그 다시 그 뭐인가 따시 그 글쟁이 닳은 그 무시것고, 문어 거튼 거 뽑아내는 그런 글쟁이가 있어야 되고. 또 빗창²⁰⁸이엔 현 거 잊저, 빗창.(또 다시 이제 그 다시 그 뭐인가 다시 그 호미 닳은 그 무엇, 문어 같은 거 뽑아내는 그런 호미가 있어야 되고. 또 ‘빗창’이라고 하는 거 있어. ‘빗창’.)

105015 @1 아, 글쟁이 따로 빗창 따로?(아, 호미 따로 ‘빗창’ 따로?)

105015 #1 으. 빗창은, 빗창은 그 전복 떼는 거.(으. ‘빗창’은, ‘빗창’은 그 전복 떼는 거.)

105015 @1 전복 떼는 거예?(전복 떼는 거요?)

105015 #1 또 다시 그 뭐인가 아까 그 그 고기 쪼는 거, 건 고무 작살.(또 다시 그 뭐인가 아까 그 그 고기 쪼는 거, 건 고무 작살.)

105015 @1 고무 작살.(고무 작살.)

105015 #1 그거 필요허고.(그거 필요하교.)

105015 @1 눈에 쓰는 건?(눈에 쓰는 건?)

105015 #1 건 큰눈²⁰⁹이라고. 옛날엔 작은눈²¹⁰ 써났는디 이제 것²란 큰눈이엔 현다, 큰눈.(건 ‘큰눈’이라고. 옛날엔 ‘작은눈’ 썼었는데 이제 것보고 ‘큰눈’이라고 한다.)

105015 @1 큰눈. 작은눈 잇고 큰눈 잇고예?(‘큰눈’. ‘작은눈’ 잇고 ‘큰눈’ 잇고요?)

105015 #1 으. 옛날엔 전부 작은눈이주만은.(으. 옛날엔 전부 ‘작은눈’이지만.)

105015 @1 작은눈 쓰고예. 머리에 쓰는 건?(‘작은눈’ 쓰고요. 머리에 쓰는 건?)

105015 #1 머리에 쓰는 건 물수건²¹¹이라고 해 가지고 하양현 천으로 만든 수건 써났저.(머리에 쓰는 건 물수건이라고 해 가지고 하얀 천으로 만든 수건 썼었어.)

105015 @1 물수건예.(물수건요.)

105015 #1 천으로 만든 거. 이제 그거 안 쓰주만은.(천으로 만든 거. 이제 그거 안 쓰지만.)

105016 @1 그럼 옛날이랑 지금이랑 잠녀들 달른 게 옷 달라졌고?(그럼 옛날이랑 지금이랑 잠녀들 달른 게 옷 달라졌고?)

105016 #1 옷 달라졌고 이제는 불 안 초고.(옷 달라졌고 이제는 불 안 쪼고.)

105016 @1 불 안 초고.(불 안 쪼고.)

207) ‘중계호미’는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미역, 톳 등의 해초를 벨 때 쓰는 낫을 말한다.

208) ‘빗창’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전복 따위를 캐는 데 쓰는 쇠붙이로 된 길쭉한 모양의 도구를 말한다.

209) ‘큰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으로 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왕눈’이라고도 한다.

210) ‘작은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으로 알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11) ‘물수건’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하얀 수건을 말한다.

105016 #1 또 오래 살고. 바다에서 혼 네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살고.(또 오래 살고. 바다에서 한 네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살고.)

105016 @1 아.(아.)

105016 #1 그 안 입을 때는 막상 해야 한 시간밖에 못 살았지.(그 안 입을 때는 막상 해야 한 시간밖에 못 살았지.)

105016 @1 아, 추워 부난?(아, 추워 버리니까?)

105016 #1 추워 부난.(추워 버리니까.)

105016 @1 또 뭐 달라졌수과?(또 뭐 달라졌습니까?)

105016 #1 그게, 그런 게 달라졌주. 불 안 초고 바당에서 오래 살고.(그게, 그런 게 달라졌지. 불 안 쪼고 바다에서 오래 살고.)

105016 @1 으, 테왁은?(으, 테왁은?)

105016 #1 테왁은 뭐 그때 테왁이나 지금 테왁이나 똑 고튼디 이제는 것ㄴ라 뭐엔 허느니, 거 부삭부삭헌 거?(테왁은 뭐 그때 테왁이나 지금 테왁이나 똑 같은데 이제는 것보고 뭐라고 하느니, 거 푸석푸석한 거?)

105016 @1 스트로폼?(스티로폼?)

105016 #1 으, 스트로폼 요샌 많이 있져.(으, 스티로폼 요샌 많이 있어.)

105016 @1 케니까 옛날에는 스트로폼 안 쓰고 뭐 써낫수과?(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티로폼 안 쓰고 뭐 썼었습니까?)

105016 #1 옛날에는 테왁. 즉 테왁이란 게 있져.(옛날에는 테왁. 박 테왁이란 게 있어.)

105016 @1 즉 테왁예?(박 테왁요?)

105016 #1 거 집에, 집에 그 뭐인가 호박 싱그듯이 싱거 가지고서 지붕 우이 올령 내불민 그디 즉 올주. 호박거치 크게 올양 그걸 사용했지. 즉 테왁이라고.(거 집에, 집에 그 뭐인가 호박 심듯이 심어 가지고서 지붕 위에 올려서 내버리면 거기 박 열지. 호박같이 크게 열어서 그걸 사용했지. 박 테왁이라고.)

105016 @1 즉 테왁예?(박 테왁요?)

105016 #1 으, 옛날은.(으, 옛날은.)

105018 @1 예, 맞아마씨. 지금은 스트로폼 사용허고예?(예, 맞아요. 지금은 스티로폼 사용하고요?)

105018 #1 으.(으.)

105018 @1 그리고 툇은 개인이 허는 거?(그리고 툇은 개인이 하는 거?)

105018 #1 아니, 툇은 틀이엔 현다이.(아니, 툇은 툇이라고 한다.)

105018 @1 틀이엔 헐 거예?(툇이라고 할 거요?)

105018 #1 개인이 허지 안현다. 건 공동으로 헐 판매헐저.(개인이 하지 않는다. 건 공동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어.)

105018 @1 공동으로 헐 판매?(공동으로 해서 판매?)

105018 #1 으, 건 일본으로 수출허고이 그것이 수지가 맞암주.(으, 건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것이 수지가 맞고 있어.)

105018 @1 옛날서부터?(옛날에서부터?)

105018 #1 옛날에는 엇어났주.(옛날에는 없었지.)

105018 @1 아, 옛날에는 톨 안 해놔수과?(아, 옛날에는 톨 안 했었습니까?)

105018 #1 으, 값이 값이 얼마 안 가니까 그 주변서 안 행, 거 지키지도 안 해놔주게.(으, 값이 값이 얼마 안 가니까 그 주변에서 안 해서, 거 지키지도 안 했었지.)

105018 @1 아, 이제야 막.(아, 이제야 막)

105018 #1 이제야 일본 수출하고 이렇게 허니까 지키, 지키면서 그 채취하는 날만.(이제야 일본 수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키, 지키면서 그 채취하는 날만.)

105018 @1 그럼 톨은 옛날에는 막 좇어당 먹기만.(그럼 톨은 옛날에는 마구 주워다가 먹기만.)

105018 #1 으, 좇어당 먹어났저.(으, 주워다가 먹었었어.)

105018 @1 먹기만 헛구나예?(먹기만 했군요?)

105018 #1 으.(으.)

105018 @1 이제야 풀젠 허난 공동으로 행 채취하는 거.(이제야 팔려고 하니까 공동으로 해서 채취하는 거.)

105018 #1 우미도 마찬가지로.(우뭇가사리도 마찬가지로.)

105018 @1 우미도 마찬가지로예, 우미도 공동으로?(우뭇가사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뭇가사리도 공동으로?)

105018 #1 으, 공동 아니, 우민 각자.(으, 공동 아니, 우뭇가사린 각자.)

105018 @1 각자 자기가 허는 거예. 케민 물 들 수 잇는 거는 조합원 가입해야만 들 수 잇는 거?(각자 자기가 하는 거요. 그럼 물 들 수 잇는 거는 조합원 가입해야만 들 수 잇는 거?)

105018 #1 으, 조합원 해야, 가입해야.(으, 조합원 해야, 가입해야.)

105018 @1 톨 허는 사람은 다 조합원?(톨 하는 사람은 다 조합원?)

105018 #1 으, 가입해야.(으, 가입해야.)

105018 @1 가입해야. 케민 공동으로 하게 뉘면, 해녀덜 이 조합이라는 게 언제 썸에 생겼수과?(가입해야. 그럼 공동으로 하게 되면, 해녀들 이 조합이라는 게 언제 썸에 생겼습니까?)

105018 #1 건 막 오랫동안. 옛날부터.(건 아주 오랫동안. 옛날부터.)

105018 @1 옛날부터.(옛날부터.)

105018 #1 옛날부터 생경 그 가입을, 그때는 가입 명단이 엇어 가지고 무조건 참여허는 사람이 권리가 잇었는디 이제는 가입 안 헌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 이제는 거 뭐인가 해녀회가 조직이 돼 잇기 때문에.(옛날부터 생겨서 그 가입을, 그때는 가입 명단이 없어 가지고 무조건 참여하는 사람이 권리가 잇었는데 이제는 가입 안 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어. 이제는 거 뭐인가 해녀회가 조직이 돼 잇기 때

문에.)

105019 @1 케민 만약에 우미는 개인이니까 자기가 해 왕 물령.(그럼 만약에 우 못가사리는 개인이니까 자기가 해 와서 말려서.)

105019 #1 물령 자기 각자가 풀고.(말려서 자기 각자가 팔고.)

105019 @1 풀민 됐는데 톨은 물령 풀민 어떻 헤여?(팔면 되는데 톨은 말려서 팔면 어떻게 해?)

105019 #1 건, 건 물려근에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작업헤영 공동으로 널영, 공동으로 저 눌엇다가 창고에 데멏다가 공동으로 폰다. 픉는 날은 큰 마다리에 그 사름덜 다 나오렌 헤영 다 담양.(건, 건 말려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작업해서 공동으로 널어서, 공동으로 저 가렸다가 창고에 쟁엇다가 공동으로 판다. 파는 날은 큰 자루에 그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다 담아서.)

105019 @1 으.(으.)

105019 #1 담양 픉는 거.(담아서 파는 거.)

105019 @1 돈은 받으민 다 똑같이 나뉘?(돈은 받으면 다 똑같이 나뉘?)

105019 #1 똑같이 나누고.(똑같이 나누고.)

105020 @1 똑같이 나뉘 주는 거예. 전복이랑 소라는 이런 건 공동, 개인?(똑같이 나뉘 주는 거요. 전복이랑 소라는 이런 건 공동, 개인?)

105020 #1 개인.(개인.)

105021 @1 개인예. 전복에는 영 종류가 잇수과?(개인요. 전복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까?)

105021 #1 족은 것은 오분제기엔 허고 큰 것그란 전복이엔 허고 거 두 가지베끼 엇다.(작은 것은 오분자기라고 하고 큰 것보고 전복이라고 하고 거 두 가지밖에 없다.)

105021 @1 오분제기?(오분자기?)

105021 #1 오분제기는 쟈그만헌 거.(오분자기는 자그마한 거.)

105021 @1 여기서는 여기서는 전복 쪽은 거를 오분제기렌 보는 거마씨?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고?(여기서는 여기서는 전복 작은 거를 오분자기라고 보는 거요?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고?)

105021 #1 아니, 종, 종류가 조금 틀리니까.(아니, 종, 종류가 조금 다르니까.)

105021 @1 틀리지예?(다르지요?)

105021 #1 틀려. 종류가 틀리니까 전복은 전복이고 오분제긴 암만 커도 오분제기베끼 안 되는 거고.(달라. 종류가 다르니까 전복은 전복이고 오분자긴 아무리 커도 오분자기밖에 안 되는 거고.)

105021 @1 안 되는 거고예?(안 되는 거고요?)

105021 #1 안 되는 거고 전복은 혼엇이 크는 거.(안 되는 거고 전복은 한없이 크는 거.)

105021 @1 케민 전복인 경우에는 암컷이랑 수컷이랑 그거 달리 헤 가지고?(그

럼 전복인 경우에는 암컷이랑 수컷이랑 그거 달리 해 가지고?)

105021 #1 건 우리 해녀 아니라 부난.(건 우리 해녀 아니여 버리니까.)

105021 @1 몰라. 이실 거라예?(몰라. 있을 거지요?)

105021 #1 잇고 말고. 모든 고기가 다 암놈, 수놈이 잇고 알 뵈 땀 때 고기가 더 맛좋은디.(잇고 말고. 모든 고기가 다 암놈, 수놈이 잇고 알 뵈 땀 때 고기가 더 맛좋은데.)

105021 @1 지금 우미 즈물레 물에 들 때 아니예?(지금 우뭇가사리 캐러 물에 들 때 아니요?)

105021 #1 이제 막 널어세. 저거 다 어제 해 온 거.(이제 마구 널었어. 저거 다 어제 해 온 거.)

105021 @1 어제 해 온 것들예. 그민 영 물에 들민 지금 우미 즈물명 전복이영 행 와도 됩니까?(어제 해 온 것들요. 그럼 이렇게 물에 들면 지금 우뭇가사리 캐면서 전복이랑 해 와도 됩니까?)

105021 #1 아, 거 돼는 거.(아, 거 되는 거.)

105021 @1 거 돼는 거?(거 되는 거?)

105021 #1 으.(으.)

105022 @1 돼는 거예. 테우는 아까 자리 테우만 잇는 거라예?(되는 거요. 떼는 아까 자리돔 떼만 잇는 거지요?)

105022 #1 어.(어.)

105022 @1 멜은 테우로 안 거렸던 거고? 자리만 거려?(멸치는 테우로 안 떴던 거고? 자리돔만 떠?)

105022 #1 멜은, 자리만 거리고이 그 멜은 개에 든 거이 족바데, 큰 족바데로 행 건지는 거고.(멸치는, 자리돔만 뜨고 그 멸치는 개에 든 거 뜰채, 큰 뜰채로 해서 건지는 거고.)

105022 @1 아, 족바데로 행 건지는 거.(아, 뜰채로 해서 건지는 거.)

6. 의생활

옷감

106001 @1 옷궤 종류에 뭐 잇수과? 아까 멩지도 잇고?(옷감 종류에 뭐 잇습니까? 아까 명주도 잇고?)

106001 #2 미녕.(무명.)

106001 @1 미녕도 잇고 또?(무명도 잇고 또?)

106001 #2 광목.(광목.)

106001 @1 광목도 잇고.(광목도 잇고.)

106001 #2 베.(베.)

106001 @1 베도 잇고 또 뭐 잇수과?(베도 잇고 또 뭐 잇습니까?)

106001 #2 그거 촌에 잇는 거, 거.(그거 촌에 잇는 거, 거.)

명주

106002 @1 그럼 멩지실 만드는 건 어땡 만드는 것과?(그럼 명주실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6002 #2 멩지실 만드는 건 저 거세기 누에 헤여근에 뽕남 싱거근에 뽕남 막 키왕 지레만이 키와 놔근에 그디, 그 이제 그 남쩍을 톨아당 이디 짝 허게시리 저 깔아근에.(명주실 만드는 건 저 거세기 누에 해서 뽕나무 심어서 뽕나무 마구 키워서 나 키만큼 키워 놔서 거기, 그 이제 그 나뭇잎을 뜯어다가 여기 짝 하게끔 저 깔아근에.)

106002 @1 으.(으.)

106002 #2 누에.(누에.)

106002 @1 누에?(누에?)

106002 #2 누에 사다근에 그디 놓민 그거 문착문착 누에가 그냥 그 구들 하나라도 그거 다 텅기멍 문 먹으민 그 헤영헌 누에로 헤근에 그 실을 뽑주게.(누에 사다가 거기 놓으면 그거 ‘문착문착’ 누에가 그냥 그 구들 하나라도 그거 다 당기면서 모두 먹으면 그 하얀 누에로 해서 그 실을 뽑지.)

106002 @1 그럼, 그거 멩지 만들 때 실 뽑젠 허민 누에를 키울 거 아니예?(그럼, 그거 명주 만들 때 실 뽑으려고 하면 누에를 키울 거 아니요?)

106002 #2 누에를 키왕. 요만씩 헌 거.(누에를 키워서. 요만큼씩 한 거.)

106002 @1 보통 누에 키우젠 허면 그거 누에는 몇 월덜쯤에 키우기 시작허는 것과?(보통 누에 키우려고 하면 그거 누에는 몇 월쯤에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까?)

106002 #2 우린 헤보지 안헛주만은 한동 사름덜 헤난 사름 핫저만은. 그땡 그거 어디 강 사다근에 놔근에 막 요만씩 헌 거 사당 놔근에 이만씩 이만씩 막 크게 헤근에 허민 거 어땡헤근에 그 실이 거 워로 헤영 웨영 거 빠근에 옷덜 험주.(우린 헤보지 았았지만 한동 사름들 헛던 사름 많지만. 그땡 그거 어디 가서 사다가 놔서 아주 요만큼씩 한 거 사다가 놔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아주 크게 해서 하면 거 어땡 해서 그 실이 거 워로 해서 돼서 거 뽑아서 옷들 하고 있지.)

106002 @1 케난 거 봄에 허는 거, 여름에 허는 거? 그 누에 키우는 거?(그러니까 거 봄에 하는 거, 여름에 하는 거? 그 누에 키우는 거?)

106002 #2 여름에.(여름에.)

106002 @1 여름에.(여름에.)

106002 #2 을민 아이 돼주게. 을민 누에가 오그라져 뽕 안 돼여.(추우면 안 되지. 추우면 누에가 오르라져 버려서 안 돼.)

106002 @1 케민 누에는 어디서 키우는 것과?(그럼 누에는 어디서 키우는 겁니까?)

106002 #2 밧디도 뽕남 싱거놔근에 그 유에, 누에 먹을 걸 큰 낭덜 싱거근에 막 질게 막 싱경 그 썸을 톤아당 그레 막 서경 다 ㅋ짱허게²¹²⁾ 이추룩 허게 놓민 그레 그거 앳다 놓민 그자 하영 앳다 놓민 막 범벅 지멍 먹는 거라. 그 놈이 경헨 실 뺨 덴 허난 실 빨 땀 그 저 누에에 막 또꼬냥에 헤영헌 거 실 닳은 거 싯주게. 그런 거 헤근에. 누에가 동글 동글 동글 요만씩 허게시리 빠근에 그 잘도 힘들어. 그런 거 헤근에 빠내여근에 어디 실 빠는 디 강 실 빠근에.(밭에도 뽕나무 심어놔서 그 ‘유에’, 누에 먹을 걸 큰 나무들 심어서 아주 길게 마구 심어서 그 잎을 뜯어다가 그리 마구 섞어서 다 고르게 이처럼 하게 놓으면 그리 그거 가져다 놓으면 그저 많 이 가져다 놓으면 마구 범벅 되면서 먹는 거야. 그 놈이 그래서 실 뽑는다고 하니 까 실 뽑을 땀 그 저 누에에 마구 똥구멍에 하얀 거 실 닳은 거 있지. 그런 거 해서. 누에가 동글 동글 동글 요만큼씩 하게끔 뽑아서 그 아주 힘들어. 그런 거 해서 뽑아내서 어디 실 뽑는 데 가서 실 뽑아서.)

106002 @1 아, 실 빨 때는 실 빠는 데가 따로 잇어마씨?(아, 실 뽑을 때는 실 뽑는 데가 따로 잇어요?)

106002 #2 으.(으.)

106002 @1 그런 디 가근에 허는 거?(그런 데 가서 하는 거?)

106002 #2 으.(으.)

106002 @1 아.(아.)

106002 #2 그 누에 허는 사름은 실 빠지 못허주게, 저르 엇어근에. 누에 맥이젠 허민 맥영 키우멍, 그 뽕남 문딱 톤으멍 그레 깔아주민 또 그레 올르멍 먹고 그 누에 그 뽕남을 다 먹으민 따시 허곡 허곡 행. 그 실 빠는 건 다른 디 강 빠.(그 누에 하는 사름은 실 뽑지 못하지, 겨를 없어서. 누에 먹이려고 하면 먹여서 키우면서, 그 뽕나무 모두 뜯으면서 그리 깔아주면 또 그리 오르면서 먹고 그 누에 그 뽕나무를 다 먹으면 다시 하고 하고 해서. 그 시 뽑는 건 다른 데 가서 뽑아.)

106002 @1 아, 다른 디 강. 게민 요만헌 누에 사당 이만 헐 때까지 키우는 거 아니마씨?(아, 다른 데 가서. 그럼 요만한 누에 사다가 이만할 때까지 키우는 거 아니요?)

106002 #2 으.(으.)

106002 @1 그민 요거 사단 요만큼 크기까지 기간은 얼마정도 걸릴 건고예?(그럼 요거 사다가 요만큼 크기까지 기간은 얼마정도 걸릴 건가요?)

106002 #2 게나 제나 으름 내냥 키워주게.(그러나 저러나 여름 내내 키우고 있지.)

106002 @1 으름 내냥?(여름 내내?)

106002 #2 으. 봄으로 으름 내냥.(으. 봄으로 여름 내내.)

106002 @1 게민, 만약 누에 키우는 집에서는 봄에서 으름,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한 번 작업이과, 아니면 그 누에 크면 실 뽑으레 보내 똥 다시?(그럼, 만약 누에

212) ‘ㅋ짱허다’는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의미다.

키우는 집에서는 봄에서 여름,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한 번 작업입니까, 아니면 그
누에 크면 실 뽑으러 보내 뒀어 다시?)

106002 #2 실 뽑으러 보내는 건 몰라.(실 뽑으러 보내는 건 몰라.)

106002 @1 아, 몰라, 예.(아, 몰라, 예.)

106002 #2 실 뽑으러 보내는 건 몰르고 어디 시 빠는 디 감젠 말만 들엇주.(실
뽑으러 보내는 건 몰르고 어디 시 뽑는 데 간다고 말만 들엇지.)

106002 @1 아, 예.(아, 예.)

106002 #2 이디서도게 하영 허지 안허난게. 가당 오당 허는 사름 허곡 안 허는
사름은, 뉘 혈 충 모르는 사름은 안 허고.(여기서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오
다가 하는 사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하고.)

106002 @1 게난 누에를 이렇게 한 번 키우는 게 봄에서 여름 기간?(그러니까
누에를 이렇게 한 번 키우는 게 봄에서 여름 기간?)

106002 #2 으.(으.)

106002 @1 한 번 요만큼 키와 놓고 여름에 또 한 번 키우고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요만큼 키워 놓고 여름에 또 한 번 키우고 그런 건 아니고?)

106002 #2 몰라, 그건 어떻게 험신디. 그거꺼진 몰르크라.(몰라, 그건 어떻게 하
고 있는지. 그거까진 모르겠어.)

106003 @1 예. 게민 멩지에도 종류가 잇수과?(예. 그럼 명주에도 종류가 잇습니
까?)

106003 #2 멩지, 이디선 뉘 토멩지²¹³⁾엔 허는디.(명주, 여기선 뉘 ‘토멩지’라고
하는데.)

106003 @1 으.(으.)

106003 #2 토멩지, 기계주. 육지 사름 이디 오랑 픉는 건 토멩지도 잇고 기계지
도 잇고. 이디선 토멩지 험실 거라.(‘토멩지’, ‘기계주’. 육지 사람 여기 와서 파는
건 ‘토멩지’도 있고 ‘기계지’도 있고. 여기선 ‘토멩지’ 하고 잇을 거야.)

106003 @1 토멩지랑 기계지랑 어떻 틀린 거마씨?(‘토멩지’랑 ‘기계지’랑 어떻게
다른 거요?)

106003 #2 기계로 빠는 거.(기계로 뽑는 거.)

106003 @1 예, 토멩지는 그냥 직접 만든 거, 기계지는 기계로 만든 거.(예, ‘토
멩지’는 그냥 직접 만든 거, ‘기계지’는 기계로 만든 거.)

106003 #2 으.(으.)

106003 @1 경허고 생명주, 수아주 허는 건 잘 몰르고?(그리고 생명주, 수아주
하는 건 잘 몰르고?)

106003 #2 무시거 허는 거?(뉘 하는 거?)

106003 @1 생멩지 수아지 허는 건 잘 몰르고?(생명주 수아주 하는 건 잘 모르
고?)

213) ‘토멩지’는 재래식 방법으로 손으로 짠 실이 굵은 명주를 말한다.

106003 #2 으, 그건 몰라.(으, 건 몰라.)

106004 @1 게민 멩지로는 어떤 옷 멘들앗수과?(그럼 명주로는 어떤 옷 만들었습니까?)

106004 #2 멩지옷게.(명주옷.)

106004 @1 멩지옷. 그게 어떤 때 입는 거?(명주옷. 그게 어떤 때 입는 거?)

106004 #2 옛날은 뭐 헤어 먹을 때만 입엇주게. 어디 웨방, 웨방 나갈 때, 출령 나갈 때 멩지옷 출령 나가고.(옛날은 뭐 해서 먹을 때만 입엇지. 어디 외방, 외방 나갈 때, 차려서 나갈 때 명주옷 차려서 나가고.)

106004 @1 으, 출령 나가고.(으, 차려서 나가고.)

106004 #2 이젠, 이젠 그런 멩지옷 아니 입엄주만은.(이젠, 이젠 그런 명주옷 안 입고 있지만.)

106004 @1 으.(으.)

106004 #2 이젠 저승 가는 사름베긴 안 입엄주. 죽영 갈 때만.(이젠 저승 가는 사람밖에 안 입고 있지. 죽어서 갈 때만.)

106004 @1 예.(예.)

106004 #2 이젠 옷 하부난게. 그뎨 아무 것도 엇은 때난게. 픈는 게 시카, 이젠 돈만 주민 사는 거 아니? 나가민. 경허난에 이젠 멩지옷. 그때 기자 칠팔월만 나민 기자 매 집이 다듬이 소리라. 그 멩지로 다듬양 옷 허젠.(이젠 옷 많으니까. 그뎨 아무 것도 없는 때니까. 파는 게 있을까, 이젠 돈만 주면 사는 거 아니? 나가면. 그러니까 이젠 명주옷. 그때 그저 칠팔월만 되면 그저 매 집에 다듬이 소리야. 그 명주로 다듬어서 옷 하려고.)

106004 @1 게민 멩지 천을 상 옷 만드는 건 다 각자, 집에서 자기가 험니까?(그럼 명주 천을 사서 옷 만드는 건 다 각자, 집에서 자기가 합니까?)

106004 #2 게, 각자가 사근에게 이녁냥으로 멘들양 다 아방이영 어멍이영 신랑이영 다 입지는 거주게.(그래, 각자가 사서 자기대로 만들어서 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신랑이랑 다 입히는 거지.)

106004 @1 음.(음.)

무명

106008 #2 제서 때나 멩질 때나 다. 막 그걸로만 입영 살앗주. 경허단 이젠 말찌라 가난 광목 미녕 나난에 이젠 감낭 싱건에 감낭에 감 으난 그거 타단에 으름 나민, 봄 나민, 아니 칠월 나민 험구나. 칠월 나민 그 감 타단에 미녕 바파단에 문 갈중의²¹⁴⁾ 적삼덜 우알 멘들아근에 이제 그 감물 뵈아근에 감물 짜근에 거 맥영 저 옥상에나 가근에 널영 돌류왕 이슬에도 돌롭고 물도 적정 돌롭고 감옷이 발강허는 거주.(제사 때나 명절 때나 다. 아주 그걸로만 입고 살앗지. 그러다가 이젠 말찌여 가니까 광목 무명 나니까 이젠 감나무 심어서 감나무에 감 열리니까 그거 따다가

214)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말한다.

여름 되면, 여름 되면, 아니 칠월 되면 하는구나. 칠월 되면 그 감 따다가 무명 바 꿔다가 모두 ‘갈중의’ 적삼들 위아래 만들어서 이제 그 감물 뺏아서 감물 짜서 거 먹여서 저 옥상에나 가서 널어 말려서 이슬에도 말리고 물도 적셔서 말리고 갈옷이 발간 거지.)

106008 @1 감물 들이는 건 광목을 사단 허는 거?(감물 들이는 건 광목을 사다가 하는 거?)

106008 #2 으.(으.)

106008 @1 미녕 직접 만든 걸로는 안 했지예?(무명 직접 만든 걸로는 안 했지요?)

106008 #2 으, 미녕 안 해 부난. 게나 제나 욱지서 폴레 부수 온다게. 미녕 베.(으, 무명 안 해 버리니까. 그러나 저러나 욱지에서 팔러 많이 온다. 무명 베.)

106008 @1 으, 미녕 베 폴레.(으, 무명 베 팔러.)

106008 #2 광목. 경 폴레 오난에.(광목. 그렇게 팔러 오니까.)

106008 @1 음.(음.)

106008 #2 폴레 온 거 바짜근에 그 옷 해영 입영 김질메레 뎅기곡 헤세게, 그 갈옷으로.(팔러 온 거 바뀌서 그 옷 해서 입고 김매러 다니고 했어. 그 갈옷으로.)

106008 @1 음.(음.)

106008 #2 또시 멩지옷으론 나들이옷으로 어디 갈 때 입고.(또 명주옷으론 나들이옷으로 어디 갈 때 입고.)

106011 @1 어디 갈 때 입고. 혹시 홍세미녕이라는 거 알아지쿠과?(어디 갈 때 입고. 혹시 ‘홍세미녕’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106011 #2 어?(어?)

106011 @1 홍세미녕, 홍세멩지?(‘홍세미녕’, ‘홍세멩지’?)

106011 #2 홍세미녕²¹⁵, 홍세멩지 그건 ㄹ튼 거주게. ㄹ튼 거, ㅋ짱헌²¹⁶ 거난 홍세만 그 함더레 놓는 거난 그 함이 홍세난에 그 함더레 놓는 걸 홍세미녕.(‘홍세미녕’, ‘홍세멩지’ 그건 같은 거지. 같은 거, 같은 거난 ‘홍세’만 그 함에 넣는 거니까 그 함이 ‘홍세’니까 그 함에 넣는 걸 ‘홍세미녕’.)

106011 @1 그 함은 무슨 함이라?(그 함은 무슨 함이야?)

106011 #2 낭.(나무.)

106011 @1 낭?(나무?)

106011 #2 낭, 영 니귀반득허게 현 거 그레 들이쳐근에.(나무,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한 거 그리 들어뜨려서.)

106011 @1 켜 함에 놔근에 결혼할 때 헛던 거?(그래서 함에 놔서 결혼할 때 헛던 거?)

215) ‘홍세미녕’은 ‘홍세함’에 넣는 무명을 가리킨다. ‘홍세함’이란 혼례를 치를 때 신랑집에서 마련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 집에 가는 예물 함을 말한다.

216) ‘ㅋ짱허다’는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갈다’의 뜻으로 쓰였다.

106011 #2 어.(어.)

106011 @1 케민 흥세함에는 뭐 뭐 놔놔수과?(그럼 함에는 뭐 뭐 놔놔있습니까?)

106011 #2 그거 저 결혼하는 뭐 거 한문으로 헤근에 다 새서방 이름 생명 써근에 함더레 놔근에 잔치할 때 앓아가는 거주.(그거 저 결혼하는 뭐 거 한문으로 해서 다 새서방 이름 생명 써서 함에 놔서 잔치할 때 가져가는 거지.)

106011 @1 으, 잔치할 때.(으, 잔치할 때.)

106011 #2 새서방 집이서 새각시 집더레.(새서방 집에서 새색시 집으로.)

106011 @1 으, 새서방 집이서 새각시 집더레 가져가는 거?(으, 새서방 집에서 새색시 집으로 가져가는 거?)

106011 #2 으.(으.)

106011 @1 거기에 미녕이나 멩지 같은 거 넣고?(거기에 무녕이나 명주 같은 거 넣고?)

106011 #2 으, 이녁 놓고정 현 대로.(으, 자기 놓고 싶은 대로.)

106012 @1 아, 이녁 놓고정 현 대로, 예, 예. 경 가져갔었던 거예? 여기 한동에 목화 농사지어난 데는 없다예?(아, 자기 놓고 싶은 대로, 예, 예. 그렇게 가져갔었던 거요? 여기 한동에 목화 농사지었던 데는 없네요?)

106012 #2 어?(어?)

106012 @1 여기 한동에 목화 농사짓어난 디는 엇수과?(여기 한동에 목화 농사지었던 데는 없습니까?)

106012 #2 목화, 이디서 허질 안 해 부난게. 이디서 그걸 헤시민 허주만은 어디 기계 신더레 보내 부난게. 그거 헐 저를 시냐? 땅 파젠 허민.(목화, 여기서 하질 안 해 버리니까. 여기서 그걸 했으면 하지만 어디 기계 있는 데로 보내 버리니까. 그거 헐 겨를 있니? 땅 파려고 하면.)

106012 @1 다 밧디 일들만 헛수과?(다 밧에 일들만 했습니까?)

106012 #2 밧디 일만, 일만. 게나 제나 볏으민 나가근에 조반헤여근에 저 해 틈 전이 막 저 둔지²¹⁷⁾ 알아질타, 둔지오름?(밭에 일만, 일만. 그러나 저러나 밧으면 나가서 조반해서 저 해 뜨기 전에 마구 저 ‘둔지’ 알겠니, ‘둔지오름’?)

106012 @1 예, 둔지오름.(예, ‘둔지오름’.)

106012 #2 그 우이꺼지 막 밧 지어 앓앙, 물 지어 앓앙 그디. 또시 아기구덕에 아기 녹지곡 행 지영 탕겨세계. 아이구, 침 그뻬 살 수가 엇어났저.(그 위에까지 마구 밧 지어 가지고, 물 지어 가지고 거기. 또 아기구덕에 아기 눅히고 해서 저서 다 냐어. 아이고, 침 그뻬 살 수가 없었어.)

106012 @1 기라, 기라예.(그지, 그렇죠.)

106012 #2 애기만 정 가도 허주만은.(아기만 지고 가도 하지만.)

도시

217) ‘둔지’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둔지오름’을 가리킨다.

106014 @1 그 모시로는 모시로는 어떤 옷 만들어집니까?(그 모시로는 모시로는 어떤 옷 만들 수 있습니까?)

106014 #2 건 모시옷.(건 모시옷.)

106014 @1 모시옷이렌만 해?(모시옷이라고 해?)

106014 #2 으.(으.)

106014 @1 모시옷은 어떤 때 입는 옷이라?(모시옷은 어떤 때 입는 옷이야?)

106014 #2 모시옷은 막 잘 살아지는 사름덜 막 호사로.(모시옷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아주 호사로.)

106014 @1 호사로.(호사로.)

106014 #2 호사로 막 좋은 치메 멘들양 헤영케시리 우알 헤근에. 그 모시옷은 아무나 못 입주게.(호사로 아주 좋은 치마 만들어서 하얗게끔 위아래 해서. 그 모시옷은 아무나 못 입지.)

106014 @1 겐 여름에 입었던 거라예?(그래서 여름에 입었던 거지요?)

106014 #2 여름에. 막 한 여름에.(여름에. 아주 한 여름에.)

106015 @1 모시 재배했었던 건 모르고예?(모시 재배했었던 건 모르고요?)

106015 #2 모신 저 거세기 막 삼 갈양.(모신 저 거시기 아주 삼 같아서.)

106015 @1 으.(으.)

106015 #2 삼이엔 현 거 갈양 밧디 갈앗다근에 그거 문 비여다근에 영 현 대막 데기 헤근에 그거 하나씩 다 영 영 영 영 헤 가민 그 낭에 부튼 게 다 에일에일 다 떼어정. 경허민 작 허게 벗기민 벗겨져근에 그거 삶아근에 빨아근에 또 발레명 헤 영케 발레명 경 헤여낫주.(삼이라고 하는 거 같아서 밧에 갈앗다가 그거 모두 베여다가 이렇게 한 대막대기 해서 그거 하나씩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그 나무에 붙은 게 다 ‘에일에일’ 다 떼져. 그러면 작 하게 벗기면 벗겨져서 그거 삶아서 빨아서 또 바래면서 하얗게 바래면서 그렇게 했었지.)

106015 @1 음.(음.)

106015 #2 게난 모시도 이디서 잘 허지 못헌다. 육지 사름은 잘해도. 경헤낫젠 아버지네 곤는 거 들음만 헛주.(그러니까 모시도 여기서 잘 하지 못한다. 육지 사름은 잘해도. 그랬었다고 아버지네 말하는 거 듣기만 했지.)

106015 @1 아, 직접 보지는 못허고?(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삼

106018 #2 으. 삼 갈아근에 영 영 벗기는 것만 봤주.(으. 삼 갈아서 이렇게 이렇게 벗기는 것만 봤지.)

106018 @1 삼은 어떻 헤난마씨, 삼? 삼은 갈아낫구나?(삼은 어떻게 했었어요, 삼? 삼은 갈았었구나?)

106018 #2 갈아낫주게.(갈았었지.)

106018 @1 삼은 어떻 헛수과?(삼은 어떻게 했습니까?)

106018 #2 삼도 경. 모시거치.(삼도 그렇게. 모시같이.)

106018 @1 모시거치?(모시같이?)

106018 #2 으.(으.)

106018 @1 질게 자랍니까?(길게 자랍니까?)

106016 #2 질게 기냥 깎는 깎는 허게 막 올라가근에 해 가민 혼 웨민 비여근에 이추룩 헌 대막대기 해근에 영 영 영 영 모시거치 영 영 영 영 해 가민 그게 돈 벳겨정 영 영 해 가민 영 벳겨 삶는 것만 봐났주.(길게 그냥 가는 가는 하게 마구 올라가서 해 가면 한 되면 베여서 이처럼 한 대막대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시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그게 모두 벗겨져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면 이렇게 벗겨서 삶는 것만 봤었지.)

106016 @1 삶는 거만?(삶는 거만?)

106016 #2 멘드는 건 아니 보고.(만드는 건 아니 보고.)

106016 @1 삶양, 벗겨진 걸 삶양 널영 플리는 거라?(삶아서, 벗겨진 걸 삶아서 널어서 말리는 거야?)

106016 #2 막 그거 헤영케 발레는 거 아니가? 막 공드는 거.(아주 그거 하얗게 바래는 거 아니냐? 아주 공드는 거.)

106016 @1 아, 삼도?(아, 삼도?)

106016 #2 으, 삼이나 모시나.(으, 삼이나 모시나.)

106016 @1 삼이나 모시나.(삼이나 모시나.)

106016 #2 퍼렁헌 거 거세기 저 폭냥 낭 닳은 거 그거 벳겨사 옷 멘들 거 아니?(파란 거 거시기 저 팽나무 나무 닳은 거 그거 벗겨야 옷 만들 거 아니?)

106016 @1 으.(으.)

106016 #2 헤영케. 삶아근에 삶앗닥 삶앗닥 허멍 널영 발레영.(하얗게. 삶아서 삶았다가 삶았다가 하면서 널어서 바래어서.)

106016 @1 계민 실 한 올 한 올 그거 다 엷어 주는 거?(그럼 실 한 올 한 올 그거 다 엷어 주는 거?)

106016 #2 으.(으.)

106016 @1 잘도 공들영 경 만드는.(아주 공들여서 그렇게 만드는.)

106016 #2 하이구, 말도 못허여. 경허난 이디 사름 저르 엷영 그거 못 허여.(아이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 사람 겨를 없어서 그거 못 해.)

106016 @1 아.(아.)

106016 #2 옛날 산뒤 믰물 조 경 갈아근에 거 조팠디 검질메저, 산뒤왔디 검질메저.(옛날 발벼 메밀 조 그렇게 갈아서 거 조발 김매랴, 발벼발 김매랴.)

106016 @1 으.(으.)

106016 #2 탁 와려 불민. 막 한걸헌 사름이나 거 가당 오당 하나에나 허주 거 사름마다 거 못 허는 거여.(탁 서둘러 버리면. 아주 한가한 사름이나 거 가다가 오다가 하나에나 하지 거 사름마다 못 하는 거야.)

도구

106020 @1 그민 그 물레 헤난 거 곶아 줍서?(그럼 그 물레 했던 거 말해 주세요?)

106020 #2 물레 이디 엇어.(물레 여기 없어.)

106020 @1 베틀도예?(베틀도요?)

106020 #2 어.(어.)

106020 @1 도구 같은 건?(도구 같은 건?)

106021 #2 베틀, 옛날은 초석 차는 것만 셔낫주.(베틀, 옛날은 초석 짜는 것만 있었어.)

106021 @1 아, 옷 짜는 거 말고 초석 차는 거?(아, 옷 짜는 거 말고 초석 짜는 거?)

106021 #2 으, 영 영 탁. 이만인 현 기계 앓다 놔근에 영 허민 탁 느리고 탁 느리고 경허멍 그 새 해당 비여당 파랑헌 새 물려당 기추룩 허멍 살았주. 옛날. 막 저 육지 강 풀고.(으, 이렇게 이렇게 탁. 이만큼 한 기계 가져다 놔서 이렇게 하면 탁 내리고 탁 내리고 그러면서 그 띠 해다가 베여다가 파란 띠 말려다가 것처럼 하면서 살았지. 옛날. 마구 저 육지 가서 팔고.)

106021 @1 아, 여기서도 육지 강 풀고 허게 만든 사름덜 잇어낫수과, 한동에도?(아, 여기서도 육지 가서 팔고 하게 만든 사람들 있었습니까, 한동에도?)

106021 #2 초석, 초석.(초석, 초석.)

106021 @1 초석 짜는 사름?(초석 짜는 사람?)

106021 #2 초석 짜는 사름이사게 보통이주게.(초석 짜는 사람이야 보통이지.)

106021 @1 아, 잇어낫수과?(아, 있었습니까?)

106021 #2 새 시난게, 새.(띠 있으니까, 띠.)

106021 @1 아, 새로 행.(아, 띠로 해서.)

106021 #2 막 육지 가근에 처풀양 오라나서. 그걸로 밥벌이행 살아낫주.(마구 육지 가서 처팔아서 왔었어. 그걸로 밥벌이해서 살았었어.)

바느질

106022 @1 바농질 허젠 허민예?(바느질 하려고 하먼요?)

106022 #2 으.(으.)

106022 @1 바농질은 헛을 거 아니, 집이서?(바느질은 헛을 거 아니, 집에서?)

106022 #2 으.(으.)

106022 @1 바농질 허젠 허민 뭐 뭐 필요합니까?(바느질 하려고 뭐 뭐 필요합니까?)

106022 #2 뭐, 실.(뭐, 실.)

106022 @1 실.(실.)

106022 #2 ㄹ세.(가위.)
 106022 @1 ㄹ세.(가위.)
 106022 #2 뭐 그런 거 필요허주, 바농질 허젠 허민.(뭐 그런 거 필요하지, 바농질 하려고 하면.)
 106022 @1 음, 실이영 ㄹ세영. 영 재젠 허민?(음, 실이랑 가위랑. 이렇게 재려고 하면?)
 106022 #2 자.(자.)
 106022 @1 자도 있어났고예?(자도 있었고요?)
 106022 #2 으.(으.)
 106022 @1 바농 ㄹ는 것도 있어났수과, 바농 ㄹ는 거?(바늘 가는 것도 있었습니까, 바늘 가는 거?)
 106022 #2 바농 ㄹ는 건 없어.(바늘 가는 건 없어.)
 106022 @1 없어.(없어.)
 106022 #2 문딱 저 장에 가민 사 온 걸로 허주. 바농 이디서 멘들지 못 허여.(모두 저 장에 가면 사 온 걸로 하지. 바늘 여기서 만들지 못 해.)
 106023 @1 바농질할 때 바농질 방법도 여러 가지 잇지 안허과?(바느질할 때 바느질 방법도 여러 가지 잇지 않습니까?)
 106023 #2 바농질할 때 요디 손 골메 찌는 거 잇주. 손곱²¹⁸ 터져근에 피 나민. 바농질 만이 헤 가민. 경허민 손 골메 이디 넓작헌 거 요만인 넓작헌 거, 어디 강사오는디사 우린 안 헤 봤저만은. 그거 띄워근에 바농질와치덜은 바농질 헤낫저게.(바느질할 때 요기 손 골무 끼는 거 있어. 손끝 터져서 피 나면. 바느질 많이 헤 가면. 그러면 손 골무 여기 넓적한 거 요만큼 넓적한 거, 어디 가서 사오는지 우린 안 헤 봤지만. 그거 끼워서 바느질꾼들은 바느질 했었어.)
 106023 @1 바농질와치덜은?(바느질꾼들은?)
 106023 #2 으, 늬의 옷 허는 사름덜은.(으, 남의 옷 하는 사람들은.)
 106023 @1 게민 바농질할 때 듬성듬성 허는 바농질도 이실 거고?(그럼 바느질할 때 듬성듬성 하는 바느질도 있을 거고?)
 106023 #2 듬성듬성 허는 거는 호우는 거고.(듬성듬성 하는 거는 호는 거고.)
 106023 @1 으.(으.)
 106023 #2 따시 줌질이 허는 거는 텅침허는 거고.(또 잘게 하는 거는 박음질하는 거고.)
 106023 @1 으, 텅침허는 거고. 듬성듬성 허는 건 호우는 거?(으, 박음질하는 거고. 듬성듬성 하는 건 호는 거?)
 106023 #2 으, 호 논 거고.(으, 호 놓는 거고.)
 106023 @1 호 논 거고.(호 놓는 거고.)
 106023 #2 기자 듬성듬성 허는 건 기자 바농으로 영 영 영 영 헤근에 영 에우

218) '손곱'은 표준어 '손톱'에 대응하는데, 여기서 '손곱'은 손끝을 가리킨다.

는 거고.(그저 듣성듣성 하는 건 그저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우는 거고.)

옷 종류

106024 @1 예, 예. 계민 남자 옷 종류에는 뭐 뭐 잇수과?(예, 예. 그럼 남자 옷 종류에는 뭐 뭐 있습니까?)

106024 #2 남자 옷 종류는 무시거 그거.(남자 옷 종류는 무엇 그거.)

106024 @1 바지 잇을 거고?(바지 잇을 거고?)

106024 #2 바지 저고리주게.(바지 저고리지.)

106024 @1 으, 으.(으, 으.)

106024 #2 바지 저고리.(바지 저고리.)

106024 @1 저고리.(저고리.)

106024 #2 조끼.(조끼.)

106024 @1 조끼.(조끼.)

106024 #2 두루막.(두루마기.)

106024 @1 두루막.(두루마기.)

106024 #2 그거 출리민 메기.(그거 차리면 없음.)

106025 @1 그거 출리민 메기. 여자는?(그거 차리면 없음.)

106025 #2 여제는 치메 저고리.(여자는 치마 저고리.)

106025 @1 치메 저고리 으. 그다음?(치마 저고리 으. 그다음?)

106025 #2 그거베긴 몰라.(그거밖엔 몰라.)

106025 @1 치메 저고리만 잇는 거예?(치마 저고리만 잇는 거요?)

106025 #2 치메 저고리 입으면 웨출힐 때 치메 저고리 입고.(치마 저고리 입으면 외출할 때 치마 저고리 입고.)

106025 @1 물질힐 때 입어난 것도 잇수게?(물질할 때 입었던 것도 잇잖아요?.)

106025 #2 어?(어?)

106025 @1 물질 갈 때 입어난 거?(물질 갈 때 있었던 거?)

106025 #2 물질 갈 때?(물질 갈 때?)

106025 @1 예.(예.)

106025 #2 물옷 잇주게.(물옷 있지.)

106025 @1 물옷예.(물옷요.)

106025 #2 이 슬 별정케 나게 헤근에 그냥 눈 팡팡 오라도 메역 즈물젠 허민 그레 빠지명.(이 살 별정케 나게 해서 그냥 눈 팡팡 와도 미역 캐려고 하면 그리 빠지면서.)

106025 @1 으.(으.)

106025 #2 흰 물수건²¹⁹에.(흰 물수건에.)

219) 여기서 '물수건'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썼던 수건을 말한다. '속곳'을 입고 '물수건'을 쓰고 해산물을

106025 @1 흰 물수건에?(흰 물수건에?)

106025 #2 흰 물수건에 검은 속곳²²⁰⁾ 입영 요만이 오는 속곳 입영. 이제 고무
옷²²¹⁾이여 무시거여 나난 흐루 즈물양 살암주만은 그뻐 흐 시간도 못 살양 나와.
박박 털영.(흰 물수건에 검은 속곳 입고 요만큼 오는 속곳 입고. 이제 고무옷이며
무엇이며 나니까 하루 종일 살지만 그뻐 한 시간도 못 살고 나와. 벌벌 떨어져서.)

106025 @1 추웁?(추워서?)

106025 #2 추웁. 니 부텡 기여근에 기여 나오는 사름이 하. 욱심헤영 그 메역
즈물다근에.(추워서. 이 붙어서 기여서 기여서 나오는 사름이 많아. 욱심해서 그 미
역 캐다가.)

106026 @1 아이 옷은 뭐가 잇수과? 아이덜 입혀난 옷?(아이 옷은 뭐가 있습니
까? 아이들 입혔던 옷?)

106026 #2 아이 옷은 그거주게. 베옷으로 허고. 광목옷으로.(아이 옷은 그거지.
베옷으로 하고. 광목옷으로.)

106026 @1 그걸 뭐렌 곶아?(그걸 뭐라고 말해?)

106026 #2 붓저고리²²²⁾.(‘붓저고리’.)

106026 @1 붓저고리 잇고?(‘붓저고리’.)

106026 #2 붓저고리 우에 하나만 입진다게. 그뻐 아기 나민. 이젠 다 우알덜 복
섹이덜 다 입전주만은. 그뻐 이 우이 거 요만이만 입지민 그냥 조쟁이 텡텡 허영.
(‘붓저고리’ 위에 하나만 입힌다. 그뻐 아기 낳으면. 이젠 다 위아래들 따듯하게들
다 입히지만. 그뻐 이 위에 거 요만큼만 입히면 그냥 좇 땡땡 해서.)

106026 @1 바지 입힐 때 이렇게 아래는 터지고. 바진데 애기 오줌 싸니까 여기
터진 바지도 잇지 안헉니까?(바지 입힐 때 이렇게 아래는 터지고. 바진데 애기 오줌
싸니까 여기 터진 바지도 잇지 않습니까?)

106026 #2 으. 강알 터진 바지도 짓고. 지성치메 기자 영 지성치메 영 헤영 즐
라메민 지집아의덜은 그냥 땡기단 싸 불민 애기덜토 샷빠 그뻐 엇어 부난에 그냥
옷에만 싹 살앗주게. 이젠 샷빠여 무시거여 철철이 출령 살암주만은.(으. 살 터진
바지고 있고. 처네 그저 이렇게 처네 이렇게 해서 잘라매면 계집아이들은 그냥 다
니다가 싸 버리면 아기들도 기저귀 그뻐 없으니까 그냥 옷에만 싸서 살았지. 이제
기저귀며 무엇이며 철철이 차려서 살고 있지만.)

106026 @1 철철이 출령.(철철이 차려서.)

106026 #2 그뻐 애기 오줌 싸민 빨아사주.(그뻐 애기 오줌 싸면 빨아야지.)

106026 @1 음.(음.)

106026 #2 근뻐 아기도 애기로 아니헉 헛저. 밧디 강 내 불민 막 카근에.(그뻐

채취하는 작업을 했다.

220)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
다.

221) ‘고무옷’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해산물 등을 캐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말한다.

222) ‘붓저고리’는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만든 베옷을 말한다. ‘붓뒹창옷’, ‘붓뒹적삼’이라
고도 한다.

아기도 아기로 안해서 했어. 밭에 가서 내 버리면 아주 타서.)

106026 @1 음.(음.)

106026 #2 시뻘겑게 캥 더위 먹엉 죽는 애기도 천지고.(시뻘겑게 타서 더위 먹고 죽는 애기도 천지고.)

106026 @1 더위 먹엉 죽어?(더위 먹고 죽어?)

106026 #2 게난 이 호청, 광목 호청 앳앙 가근에 이불안 앳앙 가근에 베에 니²²³) 밧디 대 꼽아근에 막 파닥 파닥 파닥 허는 애기덜은 헤뚜룩²²⁴) 허고 그냥 애기구덕에 정 강 내 불민 그냥 막 옛날은 베염 애기 입에 들어강 죽었저, 뭐 행 죽었저, 경도 막 헤낫저게.(그러니까 이 홀청, 광목 홀청 가지고 가서 이불안 가지고 가서 베에 두 군데 대 꼽아서 마구 파닥 파닥 파닥 하는 아기들은 ‘헤뚜룩’ 하고 그냥 애기구덕에 지고 가서 내 버리면 그냥 아주 옛날은 뱀 아기 입에 들어가서 죽었어, 뭐 해서 죽었어, 그렇게도 마구 했었어.)

106026 @1 아이구.(아이고.)

106026 #2 그냥 내부난에.(그냥 내버리니까.)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1 밥에는 무슨, 무슨 밥이 잇어낫수과? 밥?(밥에는 무슨, 무슨 밥이 잇었습니다? 밥?)

107001 #2 보리밥이주게.(보리밥이지.)

107001 @1 보리밥 또?(보리밥 또?)

107001 #2 조밥.(조밥.)

107001 @1 또?(또?)

107001 #2 프레밥. 툄밥 저 툄 해당 보리밥에 툄 해당, 조밥에 툄 해당 솥아근에 그냥 그레 낵 버무려근에 먹젠 허민 막 내냥 먹지 못허여.(파래밥. 툄밥 저 툄해다가 보리밥에 툄해다가, 조밥에 툄해다가 삶아서 그냥 그리 놓고 버무려서 먹으려고 하면 아주 냄새나서 먹지 못해.)

107001 #4 밧디 나는 못 해당 솥양 먹고. 저 밧디 나는 못 해당 솥양 먹고.(밭에 나는 무릇 해다가 삶아서 먹고. 저 밭에 나는 무릇 해다가 삶아서 먹고.)

107001 #2 몽클몽클헌 거 밧디 검질 나는 거 막 밧디 한다게.(몽클몽클한 거 밭에 김 나는 거 아주 밭에 많아.)

107001 @1 으.(으.)

107001 #2 이젠 약 쳐 부난 엇주. 그런 못 좃어다근에 큰 향아리에 놔근에 그리

223) ‘니’는 일본어 ‘に(二)’로 ‘둘’을 말한다.

224) ‘헤뚜룩’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다 씻어근에 담아 놔근에 저 거세기 무신 그 ㄴ시락 헤다근에 둘러 놔근에 그 ㄴ시락 소곱에 불 질러근에 그 향아리 그레 놔근에 그거 막 복잡복잡 테우멍 그 독헌 물은 막 베겏더레 내치멍 독헌 물 아이 나도록, 들허도록 막 그거 저 갯곳이 저 패, 듬북 헤다근에 그 소곱에 담아근에 그것에 패에 또 못에 경헤근에 막 먹젠 허민 막 아기덜은 야가지 아프덴. 못 숲양 먹으민 그거 막 야개 아프는 거주, 원래.(이젠 약 쳐 버리니까 없지. 그런 무릇 주워다가 큰 향아리에 놔서 거기 다 씻어서 담아 놓고 저 거시기 무슨 그 까끄라기 헤다가 둘러 놓고 그 까끄라기 속에 불 질러서 그 향아리 그리 놔서 그거 마구 복잡복잡 테우면서 그 독한 물은 마구 바깥으로 내치면서 독한 물 안 나도록, 달게 마구 그 저 갯가 저 패, 듬북 헤다가 그 속에 담아서 그것에 패에 또 무릇에 그러해서 마구 먹으려고 하면 아주 아기들은 목 아프다고. 무릇 삶아서 먹으면 그거 아주 목 아픈 거지, 원래.)

107001 @1 못이 뭐과?(무릇이 뭇니까?)

107001 #2 못 땅에 나는 검질, 검질.(무릇 땅에 나는 김, 김.)

107001 #4 동글동글헌 거 패마농 닳은 거 잇저.(동글동글한 거 쪽과 닳은 거 있어.)

107001 #2 패마농 닳양 이추룩 이추룩 헌 거.(쪽과 닳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

107002 @1 쌀 종류에는 뭇, 뭇 잇수과?(쌀 종류에는 뭇, 뭇 있습니까?)

107002 #2 보리쌀, 좁쌀.(보리쌀, 좁쌀)

107002 @1 산디쌀 같은 것도 잇어났수게?(밭벼쌀 같은 것도 있었지요?)

107002 #2 으, 산디쌀은 셔도 우리 먹지 못헤낫저게 제서 때나베끼.(으, 밭벼쌀은 잇어도 우리 먹지 못했었어, 제사 때나밖에.)

107002 @1 먹지 못해도 그때 잇어난 쌀은 다 곶아 줍서.(먹지 못해도 그때 잇었던 쌀은 다 말해 주세요.)

107002 #2 보리쌀, 좁쌀, 곤쌀, 콩.(보리쌀, 좁쌀, 흰쌀, 콩.)

107002 #4 곤쌀은 제서 때에 밥허고.(흰쌀은 제사 때에 밥하고.)

107002 @1 또. ㄴ물쌀.(또. 메밀쌀.)

107002 #4 ㄴ물쌀은 목 허고.(메밀쌀은 목 하고.)

107003 @1 보리밥 만들양 먹어난 거 곶아 줍서.(보리밥 만들어서 먹었던 거 말해 주세요.)

107003 #2 보리밥이 게메 거 갯곳 거 헤당 듬북 헤당 그레 다 서깁 숲안에 서깁. 보리밥도 보리쌀이 문딱 털어가 부난 무신 보리쌀이 셔게?(보리밥이 글썽 거 갯가 거 헤다가 듬북 헤다가 그리 다 섞어서 삶아서 섞어서. 보리밥도 보리쌀이 모두 털어가 버리니까 무슨 보리쌀이 잇어?)

107003 #4 보리밥도 하루, 하루 두 때베끼 못 먹었어. 다 털어가 부니까.(보리밥도 하루, 하루 두 때밖에 못 먹었어. 다 털어가 버리니까.)

107003 @1 게민 보리밥 허젠 허민 어떻게? 보리쌀이랑 못이랑 ㄴ치 낱 숲아.

(그럼 보리밥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리쌀이랑 무릇이랑 같이 놔서 삶아.)

107003 #2 보리이.(보리.)

107003 @1 보리밥 만들어 볶서. 어떻 허는지?(보리밥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107003 #4 보리 기계에 강 곶아당.(보리 기계에 가서 갈아다가.)

107003 @1 보리밥 해 먹젠 허민?(보리밥 해 먹으려고 하면?)

107003 #2 보리 기계에 강 곶아당.(보리 기계에 가서 갈아다가.)

107003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03 #4 옛날은이 저 물궤에, 물궤에 강 곶앙.(옛날은 저 연자매에, 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107003 @1 기계 생기기 전에.(기계 생기지 전에.)

107003 #2 아, 물궤로, 뱅뱅 돌아가는 물궤에 곶아당 돌궤에 건평 밥헝 먹었주.(아, 연자매로, 뱅뱅 돌아가는 연자매에 갈아다가 맷돌에 거피해서 밥해서 먹었지.)

107003 @1 으.(으.)

107003 #2 느네 신 때 느네 골목 안에 베꼈디 나오민 그 오부제집 우영에 돌궤, 큰 맷돌 선에 그것에 곶멍 먹어세.(너네 있을 때 너네 골목 안에 밖에 나오면 그 오부жат집 터알에 맷돌, 큰 맷돌 있어서 그것에 갈면서 먹었어.)

107003 @1 으. 장만허젠 허민 보리 장만허젠 허민 어떻 허는지 곶아 줘서.(으. 장만하려고 하면 보리 장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말해 주세요.)

107003 #2 익으면 비여당 도끼로 두드렁, 쌀 내젠 허민 막 두드렁 다 두드리민 영 불렁. 궤시락이영 다 불려뵤, 이젠 널영 돌류왕 이젠 돌류민 영 이제 맷돌에 강궤는 거라.(익으면 베어다가 도리깨로 두드려서, 쌀 내려고 하면 마구 두드려서 다 두드리면 이렇게 불려서. 까끄라기와 다 불려두고, 이젠 널어서 말려서 이젠 마르면 이렇게 이제 맷돌에 가서 가는 거야.)

107003 @1 물궤에예?(연자매에요?)

107003 #2 물 적정.(물 적셔서.)

107003 @1 물 적정?(물 적셔서?)

107003 #2 으, 물 적지명 곶아야 한다. 물 적정 곶아당.(으, 물 적시면서 갈아야 한다. 물 적셔서 갈아다가.)

107003 @1 그다음에?(그다음에?)

107003 #2 돌류왕 돌궤에, 앓진궤²²⁵에 건피 가지고 별러사 먹을 거. 집이 영 동그랑헌 궤에. 그거에 또 곶아.(말려서 맷돌에, 맷돌에 거피해 가지고 깨어야 먹을 거. 집에 이렇게 동그란 맷돌에. 그거에 또 갈아.)

107003 @1 그건 아까 무슨 궤엔 곶앗수과?(그건 아까 무슨 맷돌이라고 말했습니까?)

225) '앓진궤'는 맷돌을 가리킨다. '앓진+궤'의 구성으로 '앓힌 맷돌'이라는 뜻이다.

107003 #2 돌궤레.(멧돌.)

107003 @1 돌궤레. 아까 앓진 궤레엔?(멧돌. 아까 ‘앓진 궤레’에?)

107003 #2 앓진 궤레가 돌궤레 그거.(‘앓진 궤레’이 멧돌 그거.)

107003 @1 앓진 궤레엔도 궤고?(‘앓진 궤레’라고도 궤고?)

107003 #2 그거 허단 거 다 앓아가 부난. 마딱 주워 가서. 왕, 고물 장시덜 다 좇어 가서. 계난 그거 곶아난 궤루로 궤레 해당 서경 밥 헤 먹었지.(그거 하던 거 다 가져가 버리니까. 모두 주워 갔어. 와서, 고물 장수들 다 주워 갔어. 그러니까 그거 궤았던 가루로 궤레 해당가 섞어서 밥해 먹었지.)

107004 @1 반지기밥²²⁶은 어떻 헛수과?(‘반지기밥’은 어떻게 헛습니까?)

107004 #2 반지기밥이 그거주. 그 궤루로 돌궤레에 곶아난 궤루로 미살미살²²⁷ 현 궤루 해당에 궤레에 해당근에 해당게 발해영 비 올 때 발허고 물 지치명 발허고 해당근에 그거 발해여근에 이제 그거 다 해당게 발민 밥헝 먹을 곶로 이제 물 적저근에 칼로 막, 너플너플 현 거주 궤레.(‘반지기밥’이 그거지. 그 가루로 멧돌에 궤았던 가루로 ‘미살미살’한 가루 해서 궤레에 해당가 하얗게 바래서 비 올 때 바래고 물 끼었으면서 바래고 해서 그거 바래서 이제 다 하얗게 발하면 밥해 먹을 거로 이제 물 적셔서 칼로 마구, 너불너불 한 거지, 궤레.)

107004 @1 으.(으.)

107004 #2 문딱 칼로 썰명 이제 그 궤레로 곶민 그 보리쌀 곶아 나민 큰 거 나오고 궤레 나오고 허난 큰 건 밥헝 먹고 궤루론 무신 거 데껴 불 거주만은 그곶로 이제 그 범벅 헝 먹었어.(모두 칼로 썰면서 이제 그 멧돌로 궤면 그 보리쌀에 궤고 나면 큰 거 나오고 가루 나오고 하니까 큰 건 밥해서 먹고 가루론 무슨 거 던져 버털 거지만 그곶로 이제 그 범벅 해서 먹었어.)

107004 @1 다시 한 번 곶아 줍서. 반지기밥을 어떻 허는 건지?(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반지기밥’을 어떻게 하는 건지?)

107004 #2 반지기밥이 궤레밥이주게.(‘반지기밥’이 궤레밥이지.)

107004 @1 궤레밥? 보리쌀에?(궤레밥? 보리쌀에?)

107004 #2 보리쌀에 저 거세기 궤레도 서경 먹고 그 궤를 영 앓진 궤레로 영 곶아 낱 그 궤를 나오민.(보리쌀에 저 거시기 궤레도 섞어서 먹고 그 가루 이렇게 멧돌로 이렇게 곶아 놔서 그 가루 나오민.)

107004 @1 으.(으.)

107004 #2 그곶로 이제 궤레 썰어 놔근에 범벅도 헝 먹고. 조근조근 췌영 범벅도 헝 먹고 그 궤루로 또 궤레 바다에 간 헤 오지 못허민 그 영 영 곶아난 궤루로 이제, 보리쌀 나오, 보리쌀 밥헝 먹는 거 나오고 궤루 나온다게.(그곶로 이제 궤레 썰어 놔서 범벅도 해서 먹고. 차근차근 쥐어서 범벅도 해서 먹고 그 가루로 또 궤레 바다에 가서 헤 오지 못하면 그 이렇게 이렇게 궤았던 가루로 이제, 보리쌀 나

226)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으로, 보통 다른 두 종류의 쌀을 섞어 지은 밥을 말한다.

227) ‘미살미살’은 부드러운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오, 보리쌀 밥해 먹는 거 나오고 가루 나온다.)

107004 @1 으.(으.)

107004 #2 이제 그걸로 골아가민. 경허민 그걸로 이제 저 물 놔근에 그 가루 다
탈러레 비와 놔근에 막 끈닥끈닥 막 눌러 놔근에 잘 물 서꺼지민 췌영, 영 영 영
영 췌영 즈베기거치 헤영 그거 영 영 그치명 솟더레 놔근에 솟양.(이제 그걸로 갈아
가면. 그러면 그걸로 이제 저 물 놓고 그 가루 다라이에 비워 넣고 마구 끈적끈적
마구 눌러 놔서 잘 물 섞이면 쥐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쥐어서 수제비
같이 해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끓으면서 솥에 놔서 삶아서.)

107004 @1 그제 반지기밥?(그제 반지기밥?)

107004 #2 으.(으.)

107004 @1 기민, 보리쌀로가 아니고 보리?(그럼, 보리쌀로가 아니고 보리?)

107004 #2 가루.(가루.)

107004 @1 보리가루로 허는 거군아예.(보리가루로 하는 거군요.)

107004 #2 반지긴 저 보리쌀에 저 거세기 틀에 놔근에, 틀 막 문짝 솟양 틀에
놔근에 밥 흐쓸, 쌀 엇어 부난 흐쓸 거려다 낡 밥해근에 흔 일곱 식구가 우린 먹었
주게, 그때 옛날엔.(‘반지긴’ 저 보리쌀에 저 거시기 툷에 놔서, 툷 마구 푹 삶아서
툷에 놔서 밥 조금, 쌀 없으니까 조금 떠다 놔서 밥해서 한 일곱 식구가 우린 먹었
지, 그때 옛날엔.)

107004 @1 으.(으.)

107004 #2 경허민 쌀 흔 두어 사발 거려당 낡 그 틀은 흔 출구덕 솟아 놔근에
그레 막 허꺼근에 그거 먹으명 커세.(그러면 쌀 한 두어 사발 떠다가 놔서 그 툷은
한 바구니 삶아 놔서 그리 마구 섞어서 그거 먹으면서 컷어.)

107005 @1 곤밥은, 곤밥은 어떤 것과?(흰밥은, 흰밥은 어떤 것과?)

107005 #2 곤밥은 저 산디쌀 밥.(흰밥은 저 발벼쌀 밥.)

107005 @1 산디쌀 밥.(발벼쌀 밥.)

107005 #2 거는 우린 먹어 보도 못허고 제서만. 하영도 안 같고 그건.(거는 우
린 먹어 보지도 못하고 제사만. 많이도 안 같고 그건.)

107005 @1 케민?(그럼?)

107005 #2 아무 밧디나 경 하영 뉘도 안허고.(아무 밧에나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107005 @1 산디쌀 장만행 밥허는 거 골아 줍서. 산디쌀 장만허젠 허민?(발벼쌀
장만해서 밥하는 거 말해 주세요. 발벼쌀 장만하려고 하면?)

107005 #2 장만허제 허민.(장만하려고 하면.)

107005 @1 으.(으.)

107005 #2 좁씨 뵈여근에 검질, 그거 크민 검질뵈여근에 이젠 검질 막 그거 씨
방씨²²⁸⁾ 벌영 세와근에 베짜허게²²⁹⁾ 내불지 안허영 방씨 벌영 세우민 조코고리가

228) ‘방씨’는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을 때 일정 간격을 벌리는 것을 말한다.

나왕.(줍씨 뿌려서 김, 그거 크면 김매서 이젠 김 아주 그거 씨 ‘방씨’ 벌려서 세워서 ‘베짜하게’ 내버리지 않고 ‘방씨’ 벌려서 세우면 조 이삭이 나와.)

107005 @1 산디, 산디?(발벼, 발벼?)

107005 #2 산디.(발벼.)

107005 @1 곤밥, 곤밥.(흰밥, 흰밥.)

107005 #2 곤밥? 곤밥도 그것도 검질메사주. 빼영.(흰밥? 흰밥도 그것도 김매야지. 뿌려서.)

107005 @1 음.(음.)

107005 #2 갈아 낱.(갈아 놔서.)

107005 @1 음.(음.)

107005 #2 막 검질 여남은씩 앓정 멘다 그땐. 경혜영 메여 놔근에, 이제 그걸 하영 갈지도 못허고. 아무 빛이나 그 산디가 안 되는 때문에.(아주 김 여남은씩 앓혀서 멘다, 그땐. 그래서 매 놔서, 이제 그걸 많이 갈지도 못하고. 아무 빛이나 그 발벼가 안 되는 때문에.)

107005 @1 음.(음.)

107005 #2 햅쌀 빛 하나쯤 갈아 놓민 그걸로 그자 해 먹을 때도, 해 먹을 때도 아이 똥 땀 해 먹을 때도 잘 아이 똥민 이젠 그거 그 곤쌀 햅 사발 놓고 또시 이제 보리쌀, 저 보리 익어근에 파랑헌 보리, 거 앞쌀보리²³⁰엔 햅, 앞쌀보리 파랑헌 거 비여다근에 이젠 으물 들어 가민 비여당 그 곤밥 허젠 허민 곤밥이 족아부난에.(조금 햅 하나쯤 갈아 놓으면 그걸로 그자 해 먹을 때도, 해 먹을 때도 안 된 땀 햅 먹을 때도 잘 안 되면 이젠 그거 그 흰쌀 한 사발 놓고 또 이제 보리쌀, 저 보리 익어서 파란 보리, ‘앞쌀보리’라고 햅, ‘앞쌀보리’ 파란 거 베어다가 이젠 여물 들어가면 베어다가 그 흰밥 하려고 하면 흰밥이 적으니까.)

107005 @1 음.(음.)

107005 #2 그 앞쌀, 그 보리²²⁹라 앞쌀이엔 허주. 그 앞쌀보리 안 익은 거²³⁰라 앞쌀이엔 허는 거. 안 익은 거 퍼렁헌 거 비여다근에 막 이제 발로 보벼근에 사람 발로 보벼근에 그거 이제 체로 치영 불려근에 체로 치영 불렁 그거 물에 낱 솥양 물렁, 그거 반지기밥. 곤쌀러레 낱 그거 반지기밥.(그 ‘앞쌀’, 그 보리보고 ‘앞쌀’이라고 하지. 그 ‘앞쌀보리’ 안 익은 거보고 ‘앞쌀’이라고 하는 거. 안 익은 거 파란 거 베어다가 마구 이제 발로 보벼서 사람 발로 보벼서 그거 이제 체로 쳐서 불려서 체로 쳐서 불려서 그거 물에 놔서 삶아서 말려서, 그거 ‘반지기밥’. 흰쌀에 놔서 그거 ‘반지기밥’.)

107005 @1 그거 반지기밥예. 조팍 물어보쿠다. 조팍.(그거 ‘반지기밥’요. 조팍 물어보겠습니다. 조팍.)

107005 #2 조팍은 조 검질메영 씨 소팍 막 요디 하나 요디 하나 햅 소팍 낱 영

229) ‘베짜허다’는 사이가 촘촘한 것을 말한다.

230) ‘앞쌀보리’는 보릿고개 때 식량을 마련하려고 덜 여문 햇보리를 일찍 베어다 만든 보리쌀을 말한다. ‘앞쌀’이라고도 한다.

막 커 가민 고고리 나와근에 고고리가 막 영 고고리가 숙어지주.(조밥은 조 김매서 썬 숙아서 마구 요기 하나 요기 하나 해서 숙아 놔서 이렇게 마구 커 가면 이삭 나와서 이삭이 마구 이렇게 이삭이 숙어지지.)

107005 @1 으.(으.)

107005 #2 숙어져근에 익어근에 구시월 나민 그거 비여 낱 물려근에 이젠 그걸 그 고고릴 만딱 튼는 거라. 호미 앓앙 가근에 영 조근 조근 조근 그디서 놓멍 영 등겨 낱 문딱 튼아근에 이젠 도끼로 이젠 집이 와근에 따려. 이젠 각메기 트로 쓸 트로 허영 체로 치여근에 각메긴 쉼나 돌 백이고 이제 그 알쟁인²³¹⁾ 사름, 들류와 근에 곶알 쓸 흐썰썰 서끄멍 이제 프레 헤다근에 버무렁 먹고. 경험 살았주.(숙어져서 익어서 구시월 되면 그거 배어 놔서 말려서 이젠 그걸 그 이삭 모두 뜯는 거야. 낫 가져서 가서 이렇게 차근 차근 차근 거기서 놓으면서 이렇게 당겨 놔서 모두 뜯어서 이젠 도리깨로 이젠 집에 와서 때려. 이젠 깍지 따로 쌀 따로 해서 체로 쳐서 깍진 소나 말 먹이고 이제 그 알쟁인 사람, 말려서 갈아서 쌀 조금씩 섞으면서 이제 파래 헤다가 버무려서 먹고. 그러해서 살았지.)

107005 @1 아.(아.)

107005 #2 프레 헤당.(파래 헤다가.)

107006 @1 그림 조팍험 때도 프레에 서꺼 가지고?(그림 조밥 할 때도 파래에 섞어 가지고?)

107006 #2 으, 게나저나 그 갯갯 거 엇인 그때도 못 살았어.(으, 그러나 저러나 그 갯가 거 엇인 그때도 못 살았어.)

107006 @1 으.(으.)

107006 #2 갯갯 거로만. 요즘은 갯갯 거 그거 허민 돈도 막 처가는디 그땐 갯갯 이도 돈도 아이 나고 해 부난에 그거 허멍덜. 그자 날역부령²³²⁾ 강 수정²³³⁾ 한 집은 서너 짐씩 바다에 가근에 건져다근에 그거 들류와근에 동산에 오라근에 막 널영 헤영게 발려근에 이추룩 종잇장거치 발레여근에 그거 밥헤근에 조팍이영 보리팍이영 그거 서경.(갯가 거로만. 요즘은 갯가 거 그거 하면 돈도 아주 처가는데 그땐 갯가도 돈도 안 나고 해 버리까 그거 하면서들. 그저 하루 시간 들여서 가서 수 많은 집은 서너 짐씩 바다에 가서 건져서 그거 말려서 동산에 와서 마구 널어서 하얗게 바래서 이처럼 종잇장같이 바래서 그거 밥해서 조팍이랑 보리밥이랑 그거 섞어서.)

107006 @1 으.(으.)

107006 #2 경허난.(그러니까.)

107006 @1 갯갯 거 뭐 서꺼 먹는 거라?(갯가 거 뭐 섞어서 먹는 거야?)

107006 #2 게메게 툄허고 프레.(글썸 툄하고 파래.)

231) '알쟁이'는 조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온전치 못한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알쟁이를 의미로 쓰였다.

232) '날역부리다'는 제대로 일은 안 되면서 하루의 일할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의미다. '날역부리다', '날역버리다', '역부리다'라고도 한다.

233) '수정'은 '수(數)'의 제주어다. 여기서는 '가족 인원 수'를 말한다.

107006 @1 툄허고 프레예?(툄하고 프래요?)

107006 #2 옛날엔 그 프레도, 이젠 윈 프레도 엇다만은 옛날은 프레에 바닷물에 가민 그자 이불거치 탁탁탁탁 더꺼져근에. 이젠 약 헤 부난 약덜 씨 부난 저 물 내려가 부난 그런 거 다 엇어져 베세.(옛날엔 그 프래도, 이젠 윈 프래도 엇다만 옛날은 프래에 바닷물에 가면 그저 이불처럼 탁탁탁탁 덮여서. 이젠 약 헤 버리니까 약 들 씨 버리니까 저 물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

107006 @1 음.(음.)

107006 #2 오염웨연에.(오염돼서.)

107006 @1 오염웨영예?(오염돼서요?)

107006 #2 젠 그추룩 행 먹영 살았저.(그래서 그처럼 해서 먹고 살았어.)

107006 @1 팏밥?(팔밥?)

107006 #2 어?(어?)

107007 @1 팏, 팏 낭 밥행 먹읍니까, 팏?(팔, 팔 넣어서 밥해 먹읍니까, 팔?)

107007 #2 팏 낭 밥 안 헤 먹나. 그냥 팏은 기자 해당 뽕앙 죽 썰 물로 오래 먹젠.(팔 넣어서 밥 안 해 먹어. 그냥 팔은 그저 해다가 빵아서 죽 썰서 물로 오래 먹으려고.)

107007 @1 아.(아.)

107007 #2 물 해근에 죽 썰근에 기자 쓸 서너 방울 놔근에 수정 하도 기자 하영 못 거려근에. 하영 거리젠 해도 어디 셔. 혼 기자 공기로 하나씩 다 먹영 살았주.(물 해서 죽 썰서 그저 쌀 서너 방울 넣어서 수 많아도 그저 많이 못 떠서. 많이 뜨려고 해도 어디 있어. 한 그저 공기로 하나씩 다 먹고 살았주.)

107007 @1 아.(아.)

107007 #2 더 먹젠 해도 더 못 먹어.(더 먹으려고 해도 더 못 먹어.)

107008 @1 팏은 게난 밥 안 행 먹엇구나예, 죽으로만. 피밥 알아지쿠과?(팔은 그러니까 밥 안 해서 먹엇군요, 죽으로만. 피밥 알겠습니까?)

107008 #2 피밥은 이디 안 허고 저 송당²³⁴ 사름은 피 허고. 이딧 사름은 조허고 믯물허고 보리허고.(피밥은 여기 안 하고 저 송당 사름은 피 하고. 여기 사름은 조하고 메밀하고 보리하고.)

107009 @1 아, 피밥 안 헤 먹고예. 감저밥?(아, 피밥 안 해 먹고요. 고구마밥?)

107009 #2 감저밥은 이디도 감저밥은 헤영, 쓸 흐끔은 낭 감저 하영 썰영 놔근에 그냥 솟디 낭 닥 닥 닥 닥 찍어근에 익으면 푸닥푸닥허게 그자 범벅거추룩 거리명 먹엇주게.(고구마밥은 여기도 고구마밥은 해서, 쌀 조금은 넣어서 고구마 많이 썰어서 넣어서 그냥 솔에 넣어서 닥 닥 닥 닥 찍어서 익으면 ‘푸닥푸닥’하게 그저 범벅처럼 뜨면서 먹엇지.)

107009 @1 감저밥 혈 때 쓸은 보리쌀?(고구마밥 할 때 쌀은 보리쌀?)

107009 #2 그건 보리쌀 아니주, 좁쌀.(그건 보리쌀 아니지, 좁쌀.)

234) ‘송당’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송당리’를 말한다.

107009 @1 줍쌀.(줍쌀.)

107009 #2 감저 헐 땀 ㄴ실이난.(고구마 할 땀 가을이니까.)

107009 @1 그럼 감저 찢 때 줍쌀이랑 ㄴ치 낱 그냥 해불어? 감저밥 만들 때?
(그럼 고구마 찢 때 줍쌀이랑 같이 놔서 그냥 해버려? 고구마밥 만들 때?)

107009 #2 만들 때 게난 줍쌀에 ㄴ치 낱.(만들 때 그러니까 줍쌀 같이 넣어서.)

107009 @1 ㄴ치 낱 막 삶는 거?(같이 넣어서 마구 삶는 거?)

107009 #2 ㄴ치 낱 삶아 가민 밥도 되고 범벅도 되고 해근에 영 영 혼 숟가락
씩 거렁 먹는 거.(같이 넣어서 삶아 가면 밥도 되고 범벅도 되고 해서 이렇게 이렇
게 한 숟가락씩 뜨면서 먹는 거.)

107010 @1 무밥도 해 먹엇수와 무로?(무밥도 해서 먹엇습니까, 무로?)

107010 #2 무우밥도 막 해 먹엇주게.(무밥도 많이 해 먹엇었지.)

107010 @1 무밥 어떻 험니까, 무밥?(무밥 어떻게 합니까, 무밥?)

107010 #2 게 쌀 햅쌀 놔근에 무우 즈질이 썰어근에 그 밥해 가민 바글바글 께
여 가민 그 무수 솟더레 탁 비와근에 휘휘 젓어근에 이레착저레착 막 뒹게 놔근에
그거 경허멍 거리멍 먹고.(그래 쌀 조금 넣어서 무 잘게 썰어서 그 밥해 가면 바글
바글 끓어 가면 그 무 술에 탁 비워서 휘휘 저어서 이리저리 아주 되게 넣어서 그
거 그러면서 뜨면서 먹고.)

107010 @1 무밥 헐 때 물은 더 넣고 덜 넣고 그런 건 엇고?(무밥 할 때 물은
더 넣고 덜 넣고 그런 건 없고?)

107010 #2 예, 물은 마찬가지로.(예, 물은 마찬가지로.)

107010 @1 마찬가지로예?(마찬가지요?)

107010 #2 무운 저 물 나는 거난.(문 저 물 나는 거니까.)

107010 @1 물 나는 거난예. 물 적게?(물 나는 거니까요. 물 적게?)

107010 #2 물 나는 거난 흰 엇이 지장 엇어.(물 나는 거니까 전혀 없이 지장 없
어.)

107011 @1 툫밥?(툫밥?)

107011 #2 툫?(툫?)

107011 @1 예, 툫밥?(예, 툫밥?)

107011 #2 툫도, 툫은 물 안 나는 거난 물 햅쌀 낮게 놔근에 햅쌀 익듯하게 햅
근에 툫 문짝 삶아근에 놔근에 것도 밥 솟더레 낱 휘휘 젓어근에. 게민 아기덜은
저거 안 먹크라, 안 먹크라 해도 안 먹으면 죽넌 허멍 먹으라, 먹으라 해낫주.(툫도,
툫은 물 안 나는 거니까 물 조금 많이 넣어서 조금 익을 것 같게 해서 툫 푹 삶아
서 넣어서 것도 밥 술에 넣어서 휘휘 저어서. 그럼 아기들은 저거 안 먹겠어, 안 먹
겠어 해도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먹어라, 먹어라 했었지.)

107011 @1 툫을 ㄴ녀 삶는 거?(툫을 먼저 삶는 거?)

107011 #2 으?(으?)

107011 @1 툫을 먼저 삶습니까, 보리쌀 허기 전에? ㄴ치 낱 삶아?(툫을 먼저

삶습니까, 보리쌀 하기 전에? 같이 넣어서 삶아?)

107011 #2 으, 아니, 아니. 막 툄 오래 삶아사.(으, 아니, 아니. 아주 툄 오래 삶아야.)

107011 @1 아.(아.)

107011 #2 막 오래 삶아사. 거쓴 안 익어. 이제 강 툄 헤 올라도 막 딸려사. 경혜사 흐쉴 들썩혀주.(아주 오래 삶아야 얼른 안 익어. 이제 가서 툄 헤 와도 마구 달여야. 그래야 조금 물썩하지.)

107011 @1 케민 툄를 므녀 삶아난 다음에 보리 낱 꺾기 밥혀는 거라예?(그럼 툄를 먼저 삶은 다음에 보리 넣어서 같이 밥하는 거지요?)

107011 #2 으, 툄는 므녀 삶양 장텡이 커 둠수록 건지명, 문썩 삶아 낱 들썩들썩 혀는 거난.(으, 툄는 먼저 삶아서 장텡에 담가 두고 건지면서, 툄 삶아 놔서 물썩물썩 하는 거니까.)

107011 @1 음. 툄도 헤나고 꺾밥도 헤낫수과?(음. 툄도 했었고 꺾밥도 했었습니까?)

107011 #2 꺾밥 헤낫주게. 꺾밥도 그췌룩 혀여.(꺾밥 했었지. 꺾밥도 그췌룩해.)

107011 @1 그췌룩?(그췌룩?)

107011 #2 꺾 삶양.(꺾 삶아서.)

107011 @1 삶양.(삶아서.)

107012 #2 꺾밥도 혀고 또시 꺾 메여다근에 못, 거 검질 데껴 부는 거 요만썩 혀 거 밧디 과작혀게²³⁵). 이젠 약 처 부난 이런 못이 엇주만은 못이 꺾렇게 나오주, 봄 나 가민 경혀는 거 문 꺾다근에 그거 문 딸려 가명 솟디서 딸리명.(꺾밥도 하고 또 꺾 매다가 무룻, 거 김 던져 버리는 거 요만큼썩 한 거 밧에 ‘과작혀게’. 이젠 약 처 버리니까 이런 무룻이 없지만 무룻이 꺾렇게 나오지. 봄 되여 가면 그러는 거 모두 꺾다가 그거 모두 달여 가면서 술에서 달이면서.)

107012 @1 음.(음.)

107012 #2 막 물 넘겨 가명, 독헌 물 넘겨 가명 다시 거려 놔 가명. 경혀영 영줍아 먹어 뺑 흐쉴 들코롬혀민 거려내근에 밥 버무령.(마구 물 넘겨 가면서, 독한 물 넘겨 가면서 다시 떠 넣어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집어 먹어 봐서 조금 달콤하면 떠내서 밥 버무려서.)

107012 @1 아, 저기.(아, 저기.)

107012 #2 막 독헌 거.(아주 독한 거.)

107012 @1 밥혀 가명 물 더 놔 가명 경혀는 거마썩?(밥혀 가면서 물 더 넣어 가면서 그러는 거요?)

107010 #2 아니 거시기 삶을 때, 못, 못.(아니 거시기 삶을 때, 무룻, 무룻.)

107010 @1 아, 못 삶을 때.(아, 무룻 삶을 때.)

235) ‘과작혀다’는 풀이나 농작물 따위가 간격이 좁게 많이 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10 #2 으. 뭇은 검질이주, 그거 데껴 부는 거.(으, 무릇은 김이지, 그거 던져 버리는 거.)

107013 @1 으, 으. 이젠 밥, 밥 만들어시난 이젠 국 허쿠다예, 국. 국에 종류에 는 무신 국이 잇수과?(으, 으. 이젠 밥, 밥 만들었으니까 이젠 국 하겠습니까, 국. 국에 종류에 무슨 국이 있습니까?)

107013 #2 그뎨 늠빠허고 메역.(그뎨 무하고 미역.)

107013 @1 늠빠국, 메역국. 두 개뿐?(뭇국, 미역국. 두 개뿐?)

107013 #2 것뿐이주게.(것뿐이지.)

107013 @1 거뿐예.(거뿐요.)

107013 #2 우리 저 저 거세기 저 메역 즈물양 우리 한동 해녀덜 즈물안에 저 한동 학교 세와세게.(우리 저 저 거시기 저 미역 캐다가 우리 한동 해녀들 캐다가 저 한동 학교 세웠어.)

107013 @1 아, 메역 즈물양 세운 것과?(아, 미역 캐서 세운 겁니까?)

107013 #2 으. 저거 침 재미난 집이라. 학교 엇어부난게. 이제 메역은 미섹 이²³⁶ 나고 우리 메역 즈물아근에 학교 세웁자 혜영 할망덜 헨에 저 다 들영 우리 가 저 즈물양 저 집 짓어서.(으. 저거 침 재미난 집이야. 학교 없으니까. 이제 미역 은 ‘미섹이’ 나고 우리 미역 캐서 학교 세우자 해서 할머니들 해서 저 다 들어서 우리 가 저 캐서 저 집 지었어.)

107014 @1 예. 하나씩 물어 보쿠다예. 늠물국 끓이젠 허민 어떻 험니까?(예. 하나씩 물어 보겠습니다. 나물국 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7014 #2 늠물국 끓리젠 허민 늠물국은 쉬웁주게.(나물국 끓이려고 하면 나물 국은 쉽지.)

107014 @1 예.(예.)

107014 #2 물 삭삭 꿰여 가민 웬장 탁 카 놔근에 그레 곧 놓민 늠물사 곧 익는 거난 무시거.(물 삭삭 끓여 가면 된장 탁 타 넣어서 그리 곧 넣으면 나눌이야 곧 익는 거니까 무엇.)

107014 @1 예. 물 끌어 가민 웬장 낱 그다음 늠물 낱. 다시 물 같은 건 안 허 고?(예. 물 끓여 가면 된장 넣어서 그다음 나물 넣어서. 다시 물 같은 건 안 하고?)

107014 #2 다시 물 허게 메르치 살 돈이 이시냐?(다시 물 허게 멸치 살 돈이 있 니?)

107014 @1 으.(으.)

107014 #2 메르치 사샤 다시 물 헨 건디 그런 돈이 어디 신 말고.(멸치 사야 다 시 물 할 건데 그런 돈이 어디 있을 말이고.)

107015 @1 으. 콩나물국 끓여 주십서. 콩나물국?(으. 콩나물국 끓여 주세요. 콩 나물국?)

107015 #2 콩나물국도 마찬가지로.(콩나물국도 마찬가지야.)

236) ‘미섹이’는 무엇이 한데 만이 모아지거나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15 @1 으.(으.)

107015 #2 콩나물 끌릴 때도 저 거세기 콩나물은 물 언 때 뇌근에 오래 삶앙 끌려사, 장 놓고 혜근에 오래 삶앙 끌려사 허고. 느물은 기자 알른 거난 곧 놓민 그 자 익어 불고.(콩나물 끓일 때도 저 거세기 콩나물은 물 찰 때 넣어서 오래 삶아서 끓여야, 장 넣고 해서 오래 삶아서 끓여야 하고. 나물은 그저 얇은 거니까 곧 넣으면 그저 익어 버리고.)

107015 @1 콩나물은 물 언물에 그치 낱 끓이는 거고예?(콩나물은 물 찬물에 같이 뇌서 끓이는 거고요?)

107016 #2 늬삐국도 경허고.(무국도 그렁고.)

107016 @1 으. 무우국. 아까 무밥도 해 먹고 국도 해 먹엇수과?(으. 무국. 아까 무밥도 해 먹고 국도 해 먹엇습니까?)

107016 #2 으. 무우국도 그추룩. 저 거시기 허는 거주게. 물 삭삭 췌민 그레 들이쳐근에. 무운 빨리 익는 거난.(으. 무국도 그처럼. 저 거시기 하는 거지. 물 삭삭 끓으면 그리 들어뜨려서. 문 빨리 익는 거니까.)

107016 @1 음.(음.)

#107016 2 빨리 익는 거난 그자 장 놓고 물 놓고 행 기자 췌여 가민 흐췌만 삶으면 익어 부는 거.(빨리 익는 거니까 그저 장 놓고 물 놓고 해서 그저 끓어 가면 조금만 삶으면 익어 버리는 거.)

107017 @1 다음은 콩국이우다. 콩국?(다음은 콩국입니다. 콩국?)

107017 #2 콩국은 오래 끌려사.(콩국은 오래 끓여야.)

107017 @1 오래 끌려사.(오래 끓여야.)

107017 #2 막 저 콩이영 물이영 뇌근에 막 젓으멍 젓으멍 오래 오래 끌렁근에 투블투블²³⁷⁾ 해 가민 무수도 낱 먹을 때 싯곡 느물도 낱 먹을 때 싯곡 경혜낱주. (마구 저 콩이랑 물이랑 넣어서 마구 저으면서 저으면서 오래 오래 끓여서 ‘투블투블’ 해 가면 무도 넣어서 먹을 때 있고 나물도 넣어서 먹을 때 있고 그랬었지.)

107017 @1 음. 콩국 끓이젠 허민 그 물 끓일 때에 콩를 놓읍니까?(음. 콩국 끓이려고 하면 그 물 끓일 때에 콩가를 넣습니까?)

107017 #2 물 끌리기 전이 막 콩을 물에 다라에 낱 솟디 낱 막 휘휘 젓영 막 병댕이 안 지게 행 그 콩을.(물 끓이기 전에 마구 콩을 물에 다라이에 넣고 술에 넣어서 마구 휘휘 저어서 마구 덩어리 안 지게 해서 그 콩을.)

107017 @1 콩루인 거지예?(콩가루인 거지요?)

107017 #2 으?(으?)

107017 @1 콩루 넣는 거지예?(콩가루 넣는 거지요?)

107017 #2 콩루로.(콩가루로.)

107017 @1 예.(예.)

107017 #2 계난 콩루가 막 더디 익는 따문에.(그러니까 콩가루가 아주 더디

237) ‘투블투블’은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익는 때문에.)

107017 @1 으.(으.)

107017 #2 그건 콩은 거슨 못 먹어, 막 오래 삶아사.(그건 콩은 빨리 못 먹어, 막 오래 삶아야.)

107017 @1 오래 삶아사.(오래 삶아야.)

107017 #2 딸려사.(달여야.)

107017 @1 으.(으.)

107017 #2 경헨 다 삶아져 가민 무우 들이쳐근에 삶다근에 거려당 먹어.(그렇게 다 삶아져 가면 무 들어뜨려서 삶다가 떠다가 먹어.)

107017 @1 간은 뭐로, 웬장 낱?(간은 뭐로, 된장 넣어서?)

107017 #2 웬장게. 뭐 옛날엔 집이 다 웬장, 집마다 시난게. 웬장, 근장. 웬장 놓고프민 웬장, 근장 놓고프민 근장. 이젠 다 사명 먹주만은.(된장. 뭐 옛날엔 집에 다 된장, 집마다 있으니까. 된장, 간장. 된장 넣고 싶으면 된장, 간장 넣고 싶으면 간장. 이젠 다 사면서 먹지만.)

107018 @1 호박입국은 어떻 끓였수과?(호박잎국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18 #2 호박입국도 물 끌려가민 뇌근에 장 낱. ㄱ루 놓고 행 먹는 거. 호박입국은 ㄱ루 엷시민 못 먹어. 까룩까룩 헨 찢러 부는 거 서, 호박잎은.(호박잎국도 물 끓어 가면 뇌서 장 넣어서. 가루 넣고 해서 먹는 거. 호박잎국은 가루 없으면 못 먹어. 까끌까끌 해서 찢러 버리는 거 있어, 호박잎은.)

107018 @1 음. ㄱ루 낱. 무슨 ㄱ루 뇌?(음. 가루 넣어서. 무슨 가루 넣어?)

107018 #2 아무 ㄱ루라도. ㄱ물ㄱ루 노나 그 ㄱ물 곶아난 느쟁이 ㄱ를 노나.(아무 ㄱ루라도. 메밀가루 넣거나 그 메밀 갈았던 나깨 가를 넣거나.)

107018 @1 으, 느쟁이 ㄱ를 노나.(으, 나깨 가루 넣거나.)

107018 #2 나쁜 ㄱ루, 그런 걸 노나.(나쁜 가루, 그런 거 넣거나.)

107019 @1 으. 모자반, ㄱ궂²³⁸ 끓여 줍서, ㄱ궂.(으. 모자반, ‘ㄱ궂’ 끓여 주세요.)

107019 #2 으?(으?)

107019 @1 ㄱ궂.(‘ㄱ궂’.)

107019 #2 ㄱ?(ㄱ?)

107019 @1 으.(으.)

107019 #2 ㄱ은 막 삶아뇌근에 이제 끓여사. 건 막 더디 익는 덕분에. ㄱ 삶양 다라에 커둠수록 줍질명 ㄱ 끌렁 먹젠 허민.(모자반은 마구 삶아서 이제 끓여야. 건 아주 더디 익는 덕분에. 모자반 삶아서 다라이에 커두면서 짜면서 ㄱ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

107019 @1 음.(음.)

238) ‘ㄱ궂’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ㄱ을 말한다. ‘ㄱ궂’, ‘뿔망궂’, ‘뿔망궂’이라고도 한다.

107019 #2 이제 그걸 삭삭 꿰여 가민 놔근에 그냥 근 맞춰 먹는 거.(이제 그걸 삭삭 꿰어 가면 넣어서 그냥 간 맞춰서 먹는 거.)

107019 @1 음. 그 저기 돼지 꿰여난 물에?(음. 그 저기 돼지 꿰었던 물에?)

107019 #2 으?(으?)

107019 @1 돼지 삶아난 물에?(돼지 삶았던 물에?)

107019 #2 그때사 꿰기 어디 썬 삶느니게?(그때야 고기 어디 있어서 삶니?)

107019 @1 그냥, 그때는?(그냥, 그때는?)

107019 #2 것도 장국이주게.(것도 장국이지.)

107019 @1 장국에도 그냥.(장국에도 그냥.)

107019 #2 꿰기 옛날엔 꿰기 일 년 넘어가도 추렴 혼 번 안 해났저. 돈이 엇으난 도새기 잡을 생각을 안 해여. 제사 때에 그자 어디 장에나 어디 가근에 요만이 갈라당 적이나 해났주.(고기 옛날엔 고기 일 년 넘어가도 추렴 한 번 안 했었어. 돈이 없으니까 도새기 잡을 생각을 안 해. 제사 때에 그저 어디 장에나 어디 가서 요만큼 갈라다가 적이나 했었지.)

107019 @1 음.(음.)

107019 #2 먹어 보진 못허고.(먹어 보진 못하고.)

107019 @1 음. 계난 뭇국 꿰일 때도 그냥 장국으로 행 뭇국 꿰여 먹었구나예?(음. 그러니까 ‘뭇국’ 꿰일 때도 그냥 장국으로 해서 ‘뭇국’ 꿰여 먹었군요?)

107019 #2 으.(으.)

107020 @1 식게 해 먹젠 허면 생선국 끌려났수과?(제사 해 먹으려고 하면 생선국 꿰였었습니까?)

107020 #2 생선국 끌렁 햐주게.(생선국 꿰여서 하지.)

107020 @1 예, 생선국은 무슨 생선 낱?(예, 생선국은 무슨 생선 넣어서?)

107020 #2 무슨 생선, 아무 생선이라도 자리도 놔근에 제 때에 꿰이고.(무슨 생선, 아무 생선이라도 자리돔도 넣어서 제 때에 꿰이고.)

107020 @1 예, 자리도 제 때 썬났수과?(예, 자리돔도 제 때 썬었습니까?)

107020 #2 이 비늘 신 건 다 생선이엔 허주게.(이 비늘 있는 건 다 생선이라고 하지.)

107020 @1 으.(으.)

107020 #2 계민 자리국 끌렁. 엇인 사름은 자리국 끌리고 허고 신 사름은 우럭도 사당 끌리고 볼락도 사당 끌리고 허주만은.(그럼 자리돔국 꿰여서. 없는 사름은 자리돔국 꿰이고 하고 있는 사름은 우럭도 사다가 꿰이고 볼락도 사다가 꿰이고 하지만.)

107020 @1 음.(음.)

107020 #2 신 사름은 이제 우럭 거튼 거, 오토미 생선으로 끌리고.(있는 사름은 이제 우럭 같은 거, 옥돔 생선으로 꿰이고.)

107020 @1 오토미, 오토미 생선이라고 할 거?(옥돔, 옥돔 생선이라고 할 거?)

107020 #2 으, 별경헌 거.(으, 발간 거.)

107020 @1 별경헌 거. 돛예?(발간 거. 돛요?)

107020 #2 거 그거 아무나 못 먹나. 제사 때도 아무나 못 먹어. 막 그때도 비싼.(거 그거 아무나 못 먹어. 제사 때도 아무나 못 먹어. 막 그때도 비쌌어.)

107020 @1 오토미 생선국 끓이젠 허면 어떻게, 물부터 끓여?(옥돔 생선국 끓이려고 하면 어떻게, 물부터 끓여서?)

107020 #2 그거 오토미 낱 딸려근에 카시 만딱 그거 오토미 익으면 카시 털영 데껴 뒤근에 그 솔로만 해근에 체로 막 쳐근에 가시 하나토 아이 들게 해근에 그냥 메역 빨앙 그거 낱.(그거 옥돔 넣어서 달여서 가시 모두 그거 옥돔 익으면 가시 털어서 던져 뒤서 그 살로만 해서 체로 마구 쳐서 가시 하나도 안 들게 해서 그냥 미역 빨아서 그거 넣어서.)

107020 @1 음.(음.)

107020 #2 갱거리 해세.(갱거리 했어.)

107020 @1 갱거리 허는 거예. 물을 막 켈 때 넣는 거, 생선은?(갱거리 하는 거요. 물을 아주 끓을 때 넣는 거, 생선은?)

107020 #2 생선은 익는 거난 켈 때나 아니 켈 때나 아무 때라도.(생선은 익는 거니까 끓을 때나 안 끓을 때나 아무 때라도.)

107021 @1 아무 때나예. 메역국 끓이쿠다, 이젠.(아무 때나요. 미역국 끓이겠어요, 이젠.)

107020 #2 어?(어?)

107021 @1 메역국.(미역국.)

107021 #2 메역국도게 저 거세기 건 물 언 때 놔도 좋고 더운 때 놔도 좋고 아무 때 놔도 좋은 거여게.(미역국도 저 거시기 건 물 찰 때 넣어도 좋고 더운 때 넣어도 좋고 아무 때 넣어도 좋은 거야.)

107021 @1 음.(음.)

107021 #2 아무 때 놔도 그자.(아무 때 넣어도 그저.)

107022 @1 음. 냉국은 어떻 끌러났수과, 냉국?(음. 냉국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냉국?)

107022 #2 어떻 끌러?(어떻게 끓여?)

107022 @1 예.(예.)

107022 #2 메역국?(미역국?)

107022 @1 아니, 냉국?(아니, 냉국?)

107022 #2 냉국. 저 장항에 장 거려다근에 장 영 영 영 사발에 낱 데겨근에 그냥 그 늘장 그냥 물러레 국 사발러레 거려 낱 휘휘 젓엉 먹어세계. 밧 드르도 가민 경허고.(냉국. 저 장항에 장 거려다가 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발에 넣어서 으껴서 그냥 그 날장 그냥 물에 국 사발에 떠 넣어서 휘휘 저어서 먹었어. 밧 들도 가면 그러고.)

107022 @1 음.(음.)

107022 #2 드르도 가민 경허고 집이서도 경허고.(들도 가면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107022 @1 음.(음.)

107022 #2 냉국이엔 현 건 그거.(냉국이라고 한 건 그거.)

107022 @1 뭐 안 썰어 낱?(뭐 안 썰어 넣어서?)

107022 #2 아니, 아니. 썰어 놀 게 셔게, 무시거.(아니, 아니. 썰어 넣을 게 있어, 무엇.)

107022 @1 뭐 세우리라도?(뭐 부추라도?)

107022 #2 세우리사게 시민 썰곡 엇으민 말곡. 새우린 집집마다 흐썰썰 으만씩은 다 집집마다 셔낫주게. 거 반찬해 먹젠 허민.(부추야 있으면 썰고 없으면 말고. 부춘 집집마다 조금씩 요만큼씩은 다 집집마다 있었지. 거 반찬해 먹으려고 하면.)

107022 @1 반찬 해 먹젠 허민예.(반찬 해 먹으려고 하면요.)

107022 #2 거 세우리 퇴우민 최고주.(거 부추 띄우면 최고지.)

107023 @1 예. 성계국 어떻 끓입니까, 성계국은?(예. 성계국 어떻게 끓입니까, 성계국은?)

107023 #2 성계국은 이제사 성계 나는 거난 옛날에 성계 소문도 못 들었저. 그때 흠치 성계가 구경도 못해났어. 이제난 성계국이 잇주.(성계국은 이제야 성계 나는 거니까 옛날에 성계 소문도 못 들었어. 그때 한꺼번에 성계가 구경도 못 했었어. 이제니까 성계국이 있지.)

107023 @1 음.(음.)

107023 #2 성계 아니 나.(성계 안 나.)

107023 @1 게민 이제 어떻 끓여?(그럼 이제 어떻게 끓여?)

107023 #2 이제. 것도 물 팔팔 끓려근에 성계 들이쳐근에 미역 놓민 먹는 거.(이제. 것도 물 팔팔 끓여서 성계 들어뜨려서 미역 넣으면 먹는 거.)

107023 @1 성계 먼저 들이쳐, 미역이랑 ㄱ치 놔?(성계 먼저 들어뜨려서, 미역이랑 같이 넣어?)

107023 #2 ㄱ치 놔도 돼고. 성계 막 물른 거난 게 곧 놓민 익영.(같이 넣어도 되고. 성계 아주 무른 거니까 곧 넣으면 익어서.)

107023 @1 보말국 끓여 줘서, 보말국.(고동국 끓여 주세요, 고동국.)

107023 #2 보말국도 저 언물에 놔근에 끌려근에 메역 썰영 낱 먹곡.(고동국도 저 찬물에 넣어서 끓여서 미역 썰어서 놔서 먹고.)

107023 @1 아, 저기 보말을 그냥 언물에 놔?(아, 저기 고동을 그냥 찬물에 넣어?)

107023 #2 으, 저 보말, 삶아사 삶양 내영 낫당 끌일 거 아니라게.(으, 저 고동, 삶아야 삶아서 내어서 낫다가 끓일 거 아니야.)

107023 @1 으.(으.)

107023 #2 익은 거난에.(익은 거니까.)

107023 @1 으.(으.)

107023 #2 계난 물에 들이쳐근에 삶다근에 케여 가민 메역 썰어 놔근에 근 맞추멍 먹으민.(그러니까 물에 들어뜨려서 삶다가 끓어 가면 미역 썰어 넣어서 간 맞추면서 먹으면.)

107023 @1 근 맞추멍예. 가시리국 있어났수과?(간 맞추면서요. 풀가사리국 있었습니까?)

107023 #2 가시리국은 저 거시기 거쓴 안 익는 때문에 오래 끌려사.(풀가사리국은 저 거시기 빨리 안 익는 때문에 오래 끓여야.)

107023 @1 오래 끌려사예. 이것도 따로 삶아난 다음에?(오래 끓여야. 이것도 따로 삶은 다음에?)

107023 #2 아니, 가시린 삶지 안헤영 그냥 들이쳐. 오래, 오래 삶으민.(아니 풀가사린 삶지 않고 그냥 들어뜨려서. 오래, 오래 삶으면.)

107023 @1 그냥 들이쳐. 너페국?(그냥 들어뜨려서. 넓페국?)

107023 #2 너페국은 너페 헤다근에 삶양 그릇에 놔둬수록 거리멍, 삶은 거나 거리멍 그자 물러래 들이쳐 그냥 케민 먹는 거고.(넓페국은 넓페 헤다가 삶아서 그릇에 놔두면서 뜨면서, 삶은 거나 뜨면서 그저 물에 들어뜨려서 그냥 끓으면 먹는 거고.)

107023 @1 예.(예.)

107023 #2 너페엔 느 잘 알암신게.(넓페라고 너 잘 알고 있네.)

107023 @1 예, 여기 다 나왔수다.(예, 여기 다 나왔습니다.)

107023 #2 너페 다 나와?(넓페 다 나와?)

107023 @1 예. 너페 삶아 뒷당 밥도 헤 먹고.(예. 넓페 삶아 뒷다가 밥도 헤 먹고.)

107023 #2 으, 오래 삶아. 건 역불 따로 삶아사 현다.(으, 오래 삶아. 건 일부러 따로 삶아야 한다.)

107023 @1 음, 따로 삶아사예.(음, 따로 삶아야요.)

107023 #2 따로 삶아사 맛도 싯고.(따로 삶아야 맛도 있고.)

107023 @1 프레국은 어떤 것파, 프레국?(파래국은 어떤 겁니까, 파래국?)

107023 #2 프레국은 그 시에 곧 놔근에 케민 먹는 거고.(파래국은 그 시에 곧 넣어서 끓으면 먹는 거고.)

107023 @1 물 케는 디 그냥 냐?(물 끓는 데 그냥 넣어?)

107023 #2 으.(으.)

107023 @1 그럼 이런 것도 근 헐 때는 다 웬장이라?(그럼 이런 것도 간 할 때는 다 된장이야?)

107023 #2 건 이녁 식미대로. 웬장 먹고장 허민 웬장, 근장 놓고장 허민 근장. (건 자기 식미대로. 된장 먹고 싶으면 된장, 간장 넣고 싶으면 간장. 건 자기 식미

대로.)

107023 @1 으, 간장.(으, 간장.)

107023 #2 그땐 근장도 미삭허고²³⁹⁾, 웬장도 미삭, 이녁냥으로 허난. 이제 장은 사당 먹는 덕분에 맛도 엇고.(그땐 간장도 많고, 된장도 많고, 자기대로 하나까. 이제 장은 사다가 먹는 덕분에 맛도 없고.)

107023 @1 물훼, 그때 먹어난 물훼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 거고예?(물회, 그때 먹었던 물회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 건가요?)

107023 #2 물훼 안 봐난다?(물외 안 봤었니?)

107023 @1 아니, 알아집니다. 뭐 잇수과?(아니, 압니다. 뭐 있습니까?)

107023 #2 물훼 종류에 붉은 것도 씻고 푸른 것도 씻고.(물외 종류에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107023 @1 아니, 물훼 말고.(아니, 물외 말고.)

107023 #2 뭐?(뭐?)

107023 @1 물훼, 훼, 훼. 자리물훼.(물회, 회, 회. 자리물회.)

107023 #2 자리물훼.(자리물회.)

107023 @1 예, 물훼.(예, 물회.)

107023 #2 자리물훼 자리 사다근에 데맹이 그차 데껴 불고 가시 다 그차 낱 막 그차 불민 요만이베긴 안 허난 그거 반지룩케 비늘 해 뒤근에 가시 원 엇이 해근에 손탁손탁손탁 썰어근에 물훼 허는 거. 경허는 거.(자리물훼 자리 사다가 대가리 끊어 던져 버리고 가시 다 끊어 놓고 마구 끊어 버리면 요만큼밖에 안 하나까 그거 깨끗하게 비늘 해 뒤서 가시 전혀 없이 해서 ‘손탁손탁손탁’ 썰어서 물회 하는 거. 그러는 거.)

107023 @1 음.(음.)

107023 #2 가시 원 안 들게.(가시 전혀 안 들게.)

107023 @1 가시 원 안 들게예. 게민 물훼 만들앙 먹었던 거 자리도 있고, 물훼 또 뭐, 물훼 뭐로 또? 한치물훼도 잇엇수과?(가시 전혀 안 들게요. 그럼 물회 만들어서 먹었던 거 자리도 있고, 물회 또 뭐, 물회 뭐로 또? 한치물회도 잇엇습니까?)

107023 #2 한치물훼?(한치물회?)

107023 @1 예.(예.)

107023 #2 우린 그런 거 안 먹어난.(우린 그런 거 안 먹었어.)

107023 @1 아, 안헤난?(아, 안했어?)

107023 #2 이디 한치가 어디 시니?(여기 한치가 어디 있니?)

107023 @1 으, 엇어예?(으, 없어요?)

107023 #2 육지나베끼.(육지나밖에.)

107023 @1 게민 여기서 잡아지는 거 어렝이로 물훼 해 먹고?(그럼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 황놀래기로 물회 해 먹고?)

239) ‘미삭허다’는 양이 너무 많아 넘쳐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107023 #2 어.(어.)
107023 @1 어랭이 해 먹고?(황놀래기 해 먹고?)
107023 #2 어랭이, 볼락 다.(황놀래기, 볼락 다.)
107023 @1 볼락도 해 먹고예?(볼락도 해 먹고요?)
107023 #2 으.(으.)

죽류

107024 @1 죽, 죽. 죽 종류에는 무슨 죽 잇수과?(죽, 죽. 죽 종류에는 무슨 죽
잇습니까?)
107024 #2 죽, 저 꿩기라 뭐라?(죽, 저 고기야 뭐야?)
107024 @1 죽 썬 먹는 거?(죽 썬 먹는 거?)
107024 #2 죽 썬 먹는 거.(죽 썬 먹는 거.)
107024 @1 으.(으.)
107024 #2 죽 썬 먹는 거 거 뭐 줍쌀도 낱 제기 쭈젠 허민 줍쌀도 혼 직 거려
다 낱 썬 먹고.(죽 썬 먹는 거 거 뭐 줍쌀도 넣어서 제게 쭈려고 하면 줍쌀도 한 직
떠다 넣어서 썬 먹고.)
107024 @1 음.(음.)
107024 #2 믰물쌀도 먹고정 허민 이녀 식미대로 혼 줍 거려당 낱 먹고.(메밀쌀
도 먹고 싶으면 자기 식미대로 한 줍 떠다가 넣어서 먹고.)
107024 @1 음.(음.)
107024 #2 썬근에 먹곡 그추룩 허는 거주.(썬서 먹고 것처럼 하는 거지.)
107025 @1 아, 믰물쌀도 혼 직 놓고예. 곤죽 어떻 끌려신지 곤죽 끌려줍서.(아,
메밀쌀도 한 직 넣고요. 흰죽 어떻게 끓였는지 흰죽 끓여 주세요.)
107025 #2 곤쌀죽?(흰쌀죽?)
107025 @1 예, 곤쌀죽.(예, 흰쌀죽.)
107025 #2 곤쌀죽은 거 곤쌀 씻영 그레 놔근에 젓이멍 젓이멍 놀카 부덴 젓이
멍 솟아근에, 솟다근에 풀풀헤영 그 쌀 다 풀어지민 먹는 거주.(흰쌀죽은 거 흰쌀
씻어서 그리 넣어서 저으면서 저으면서 놀카 봐 저으면서 삶아서, 삶아서 풀풀해서
그 쌀 다 풀어지면 먹는 거지.)
107025 @1 으, 쌀 다 풀어지민예?(으, 쌀 다 풀어지면요?)
107025 #2 으.(으.)
107025 @1 물 케민 넣는 거, 찰은?(물 끓으면 넣는 거, 쌀은?)
107025 #2 아니 언 때 놔도 돼.(아니 찰 때 넣어도 돼.)
107025 @1 언 때 놔도 될 거.(찰 때 넣어도 될 거.)
107025 #2 언 때 놔근에 젓으멍 솟아사.(찰 때 넣어서 젓으면서 삶아야.)
107026 @1 조도 죽 해 먹습니까?(조도 죽 해 먹습니까?)
107026 #2 조도 죽 해 먹고.(조도 죽 해 먹고.)

107026 @1 거는 조죽은 어떻 끓입니까?(거는 조죽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26 #2 것도 그처럼.(것도 것처럼.)
 107026 @1 으.(으.)
 107026 #2 좁쌀 거러다 놔근에 기자.(좁쌀 떠 넣어서 그저.)
 107026 @1 으.(으.)
 107026 #2 저 놀카 부덴 그자 남죽으로 영 영 영 행 짓으멍.(저 놀까 봐 그저 죽젓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으면서.)
 107026 @1 남죽으로예?(죽젓개로요?)
 107026 #2 으.(으.)
 107026 @1 남죽?(죽젓개?)
 107026 #2 집집마다 시난.(집집마다 있으니까.)
 107026 @1 집집마다 시난. 지금 남죽 잇수과? 옛날 썬 남죽.(집집마다 있으니까. 지금 죽젓개 있습니까? 옛날 썬 죽젓개.)
 107026 #2 옛날 썬 남죽 다 데껴 벤 엇어.(옛날 썬 죽젓개 다 던져 버려서 없어.)
 107027 @1 예. 팻죽 끓여줍서, 팻죽.(예. 팔죽 끓여 주세요, 팔죽.)
 107027 #2 팻죽도 그거주.(팔죽도 그거지.)
 107027 @1 으. 팻 삶아야 될 거 아니?(으. 팔 삶아야 될 거 아니?)
 107027 #2 으?(으?)
 107027 @1 팻 삶아야 될 거 아니?(팔 삶아야 될 거 아니?)
 107027 #2 으, 팻 삶아근에 데겨근에.(으, 팔 삶아서 으껴서.)
 107027 @1 으.(으.)
 107027 #2 그레 쓸 놔근에 물 마창 바글바글 딸리다근에 다 웨민 거렁 먹주.(그리 쌀 넣어서 물 맞추서 바글바글 달이다가 다 되면 떠서 먹지.)
 107027 @1 으. 다 ㄴ치 낱, 데긴 거 다 흠치 낱 끓여?(으, 다 같이 넣어서, 으깬 거 다 한꺼번에 넣어서 끓여?)
 107027 #2 으.(으.)
 107027 @1 그 데기는 건 어디 낱 데깁니까?(그 으개는 건 어디 넣어서 으깬니까?)
 107027 #2 그 솟디서, 삶는 솟디서.(그 솥에서, 삶는 솥에서.)
 107027 @1 솟디서 남죽으로 막 문질렁.(솥에서 죽젓개로 마구 문질러서.)
 107027 #2 아니게, 밥자로. 옛날에 이만이 현 밥자 쉼 밥자털 다 집집마다 서나서게.(아니, 밥주걱으로. 옛날에 이만큼 한 밥주걱 쇠 밥주걱들 다 집집마다 있었어.)
 107027 @1 으.(으.)
 107027 #2 그 밥자로 문데겨 가민 문짜.(그 밥주걱으로 으개 가면 모두.)
 107027 @1 예, 문짜 풀어져예.(예, 모두 풀어져요.)

107027 #2 영장, 영장나도 그 팔죽 썩 가고.(초상, 초상나도 그 팔죽 썩 가고.)
107027 @1 아, 영장나도 팔죽 썩 가고?(아, 초상나도 팔죽 썩 가고?)
107027 #2 영장, 사둔칩이 영장나민 허벅에 풋죽 질어 강 맥엿주.(초상, 사둔집에 초상 =나면 허벅에 팔죽 질어 가서 먹었지.)
107028 @1 콩죽 끓여 줘서, 콩죽?(콩죽 끓여 주세요, 콩죽?)
107028 #2 으, 콩죽?(으, 콩죽?)
107028 @1 예.(예.)
107028 #2 콩죽은 오래오래 딸려사. 미르생이 ㄱ루 낱 막.(콩죽은 오래오래 달여야. 미리 가루 넣어서 마구.)
107028 @1 ㄱ루 낱?(가루 넣어서?)
107028 #2 으, 콩죽은 ㄱ루주게.(으, 콩죽은 가루지.)
107028 @1 ㄱ루 낱예.(가루 넣어서요.)
107028 #2 그거 은물에 낱 막 짓엉 놀지 말게 막 짓억, 짓억 허멍. 그거 안 짓으민 뚝비 허듯 놀어근에 놀어 벤 안 돼주게. 막 짓어사.(그거 찬물에 넣어서 마구 저어서 놀지 말게 마구 저어, 저어 하면서. 그거 안 저으면 두부 하듯 놀어서 놀버려서 안 되지. 마구 저어야.)
107028 @1 음.(음.)
107028 #2 경허민 풀풀 헤 가민 거 승키 낱.(그러면 팔팔 해 가면 거 푸성귀 넣어서.)
107029 @1 끓으민 승키 낱. ㄱ물죽 끓여 줘서. ㄱ물죽.(끓으면 푸성귀 넣어서. 메밀죽 끓여 주세요. 메밀죽.)
107029 #2 ㄱ물죽도 물 췌민 그레 들이쳐근에 ㄱ물쫄은 약헌 거난 ㅎ썰만 슴으민 익어, 돼여, 저 죽이 돼여.(메밀죽도 물 끓으면 그리 들어뜨려서 메밀쌀은 약한 거니까 조금만 삶으면 익어, 되어, 저 죽이 되어.)
107029 @1 음, ㅎ썰만.(음, 조금만.)
107029 #2 들이청 ㅎ썰만 북각북각 췌민 먹어.(들어뜨려서 조금만 부글부글 끓으면 먹어.)
107029 @1 아, 금방 끓으는 거라예, ㄱ물죽은예?(아, 금방 끓는 거지요, 메밀죽은?)
107029 #2 금방 건.(금방 건.)
107030 @1 녹, 녹디로도 죽 끓여먹지 안 헛수과?(녹, 녹두로도 죽 끓여먹지 안 했습니까?)
107030 #2 녹디도 죽 헛주. 풋죽거치게.(녹두도 죽 했지. 팔죽같이.)
107030 @1 풋죽거치.(팔죽같이.)
107030 #2 데겨 낱.(으깨 놔서.)
107030 @1 예, 예. 녹두죽 끓이젠 허민?(예, 예. 녹두죽 끓이려고 하면?)
107030 #2 그 풋죽거치 허는 거. 똑ㄱ치 건.(그 팔죽같이 하는 거. 똑같이 건.)

107030 @1 팍죽거치. 삶아 가지고 그냥 냄비서 데경.(팍죽같이. 삶아 가지고 그냥 냄비에서 으깨서.)

107030 #2 으, 막 데경.(으, 마구 으깨서.)

107030 @1 데경, 거기에 물 낱 쌀 낱 꺾 치 끓여 부는 거예?(으깨서, 거기에 물 넣어서 쌀 넣어서 같이 끓여 버리는 거요?)

107030 #2 으.(으.)

107031 @1 득죽?(답죽?)

107031 #2 득죽은 저 거세기 막 물 놔근에 딸려근에 그거 득 막 베삭허도록 딸려 놔근에 건정 먹고정 허민 건져 불고 또 죽은 물 신 거난에 물 놔근에 썰 먹곡 경허는 거주.(답죽은 저 거시기 마구 물 넣어서 달여서 그거 닭 아주 무르도록 달여 놔서 건져서 먹고 싶으면 건져 버리고 또 죽은 물 있는 거니까 물 넣어서 썰서 먹고 그러는 거지.)

107031 @1 으.(으.)

107031 #2 득은 득대로 먹젠 허민 득대로 먹곡 득 그레 치져 놔근에 죽더레 치져 낱 먹젠 허민 치져 낱 먹고. 이녀 식미대로.(답은 닭대로 먹으려고 하면 닭대로 먹고 닭 그리 찢어 넣어서 죽에 찢어 넣어서 먹으려고 하면 찢어 넣어서 먹고. 자기 식미대로.)

107032 @1 쟁이죽도 끓영 먹어났수과?(계죽도 끓여서 먹었었습니까?)

107032 #2 어?(어?)

107032 @1 쟁죽?(계죽?)

107032 #2 쟁이죽도 먹주.(계죽도 먹지.)

107032 @1 쟁이죽.(계죽.)

107032 #2 쟁이죽.(계죽.)

107032 @1 쟁이죽 끓이젠 허민?(계죽 끓이려고 하면?)

107032 #2 쟁인 잡양, 바다에 강 잡아다근에 도깨통에 득 득 득 득 두드려근에 못아근에 즘질이 못아 낱.(젠 잡아서, 바다에 가서 잡아다가 절구에 득 득 득 득 두드려서 마아서 잘게 마아 넣어서.)

107032 @1 음.(음.)

107032 #2 이제 그레 영 물, 도깨통더레 물 놔근에 딸라 낱 또시 못고, 또시 못고 물 놔낱 또시 못고, 또시 못고 허민 헤영케 그 짱만 남아.(이제 그리 이렇게 물, 절구에 물 넣어서 따라 놔서 또 마고, 또 마고 물 넣어서 또 마고, 또 마고 하면 하얗게 그 뼈만 남아.)

107032 @1 음.(음.)

107032 #2 경허민 건 데껴 부는 거.(그러면 건 던져 버리는 거.)

107032 @1 데껴 부는 거. 계민 물은 죽 끌리는 데 놓고.(던져 버리는 거. 그럼 물은 죽 끓이는 데 넣고.)

107032 #2 으.(으.)

107032 @1 거기에 쌀 낱?(거기에 쌀 넣어서?)
 107032 #2 쌀 낱.(쌀 넣어서.)
 107032 @1 곤쌀 놓는 건 아니지예. 곤쌀 놔?(흰쌀 넣는 건 아니지요. 흰쌀 넣어?)
 107032 #2 곤쌀이 어디 성 놓느니, 식게할 것도 엇인디.(흰쌀이 어디 있어서 넣니, 제사할 것도 없는데.)
 107032 @1 하하.(하하.)
 107032 #2 좁쌀이주, 좁쌀.(좁쌀이지, 좁쌀.)
 107032 @1 아, 좁쌀. 계민 아까 죽 끓이는 데 콩죽이나 팥죽이나 다 좁쌀 놓는 거?(아, 좁쌀. 그럼 아까 죽 끓이는 데 콩죽이나 팥죽이나 다 좁쌀 넣는 거?)
 107032 #2 으, 좁쌀.(으.)
 107033 @1 아.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죽 끓여 먹어낸 거 잇수과?(아.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죽 끓여 먹었던 거 있습니까?)
 107033 #2 것베긴 몰라.(것밖에 몰라.)
 107033 @1 것베긴 몰라예.(것밖에 몰라요.)
 107033 #2 것베긴 몰르주, 뭐 다른 건 엇주게.(것밖에 모르지, 뭐 다른 건 없지.)

범벅과 수제비

107034 @1 범벅, 범벅들 해 먹엇잖아예, 범벅?(범벅, 범벅들 해 먹엇잖아요, 범벅?)
 107034 #1 범벅은이.(범벅은이.)
 107034 @1 무슨 종류가 잇수과?(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107034 #1 게 믰물, 주로 이제 믰물범벅허고이 믰물범벅에 그 고구마 썰어 낱이 그 범벅을 만이 해, 거 맛이 좋나. 그리고 또이 대축 범벅이란 게 잇어저.(그래 메밀, 주로 이제 메밀범벅하고 메밀범벅에 그 고구마 썰어 넣어서 그 범벅을 많이 해, 거 맛이 좋아. 그리고 또 수수 범벅이란 게 잇었어.)
 107034 @1 으.(으.)
 107034 #1 대축 거 수수대축. 그건 이덧말, 제주도 말론 수수대축은 비차락 멘드는 게 수수대축인디 종지대축²⁴⁰⁾이란 게 잇어저, 빨간 거 종지대축.(수수 거 ‘수수대축’. 그건 여깃말, 제주도 말론 ‘수수대축’은 빗자루 만드는 게 ‘수수대축’인데 ‘종지대축’이란 게 잇었어, 빨간 거 ‘종지대축’.)
 107034 @1 종지대축?(‘종지대축’?)
 107034 #1 으, 종지대축. 거 막 출진 거여.(으, ‘종지대축’. 거 아주 찰진 거야.)
 107034 @1 예.(예.)
 107034 #1 그 범벅이 최고 맛 좋나, 거.(그 범벅이 최고 맛 좋아, 거.)

240) ‘종지대축’은 이삭의 모양이 사람의 손 주먹과 비슷한 수수의 한 종류다.

107034 @1 대축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수수 종류에는 어떤 게 잇습니까?)
 107034 #1 사당대축.(사탕수수.)
 107034 @1 사당대축.(사탕수수.)
 107034 #1 강낭대축.(옥수수.)
 107034 @1 강낭대축.(옥수수.)
 107034 #1 종지대축.(‘종지대축’.)
 107034 @1 예. 그렇게 세 개예?(예. 그렇게 세 개요?)
 107034 #1 그거 허고 또 다시 이제 그, 아까 그 비차락 멘드는 거 그.(그거 하
 고 또 다시 이제 그, 아까 그 빗자루 만드는 거 그.)
 107034 @1 수수?(수수?)
 107034 #1 으, 수수. 수수대축.(으, 수수. 수수.)
 107034 @1 수수대축. 네 종류로 아까 저기 범벅 해 먹는 건.(수수. 네 종류로
 아까 저기 범벅 해 먹는 건.)
 107034 #1 범벅 해 먹는 건 므물, 므물허고.(범벅 해 먹는 건 메밀, 메밀하고.)
 107034 @1 예.(예.)
 107034 #1 대축, 그 종지대축.(수수, 그 ‘종지대축’.)
 107034 @1 종지대축.(‘종지대축’.)
 107034 #1 찰진 거, 찰진 거.(찰진 거, 찰진 거.)
 107034 @1 아, 므물 낱 범벅 해 먹을 때는 거기에 감자 낱?(아, 메밀 넣어서 범
 벅 해 먹을 때는 거기에 고구마 넣어서?)
 107034 #1 으. 감자 주로. 감자 아니민 맛이 엇주게.(으. 고구마 주로. 고구마 아
 니면 맛이 없어.)
 107034 @1 예.(예.)
 107034 #1 감저 놔야 맛이 더 좋고.(고구마 넣어야 맛이 더 좋고.)
 107034 @1 감자 낱 므물궤루?(고구마 넣어서 메밀가루?)
 107034 #1 으, 므물궤루. 그거는 므물범벅이엔 현다.(으, 메밀가루. 그거는 메밀
 범벅이라고 한다.)
 107034 @1 예. 아까 종지대축 헐 때는?(예. 아까 ‘종지대축’ 할 때는?)
 107034 #1 종지대축은 거 집집마다 안 허기 때문에 건 상당히 희귀헌 거주.(‘종
 지대축’은 거 집집마다 안 하기 때문에 건 상당히 희귀한 거지.)
 107034 @1 예.(예.)
 107034 #1 계난 거 특별히 맛있는 거, 막 출진 거라 부난. 막 엇거치 건 맛있는
 거.(그러니까 거 특별히 맛있는 거, 아주 찰진 거여 버리니까. 마구 엇같이 건 맛있
 는 거.)
 107034 @1 계민 그거 헐 때도 감저 놓고?(그럼 그거 할 때도 고구마 넣고?)
 107034 #1 건 감저 안 놔, 안 놔.(건 고구마 안 넣어, 안 넣어.)
 107034 @1 아, 그것만 놔 가지고?(아, 그것만 넣어 가지고?)

107034 #1 으.(으.)

107034 @1 기민 종지대축을 어떻 행, ㄹ루 내와 가지고?(그럼 ‘종지대축’을 어떻게 해서, 가루 내어 가지고?)

107034 #1 그건 ㄹ루, ㄹ루 그걸이, 종지대축을 해다가 마께로 다 못아근에가 마께로.(그건 가루, 가루 그걸, ‘종지대축’을 해다가 방망이로 다 마아서 방망이로.)

107034 @1 그 줄기를 못는 거마씨, 아니면 우에 맺힌 걸?(그 줄기를 마는 거요, 아니면 위에 맺힌 걸?)

107034 #1 우에 맺힌 거 못는 거. 우에 맺힌 거.(위에 맺힌 거 마는 거. 위에 맺힌 거.)

107034 @1 아.(아.)

107034 #1 고고리가 영.(이삭이 이렇게.)

107034 @1 고고리?(이삭?)

107034 #1 고고리가 타박허게²⁴¹⁾ 둥글랑헌 게 타박허게 뻗저.(이삭이 소복하게 둥그란 게 소복하게 뻗지.)

107034 @1 예.(예.)

107034 #1 그거 헨 고고리 우이로만 타당 물리와 가지고서이.(그거 해서 이삭 위로만 따다가 말려 가지고서.)

107034 @1 예.(예.)

107034 #1 겐 명석에서 우리가 마께로 이렇게 털영 부수와 가지고서 게 가지고서 그거 쌀, 쌀 다 될 거 아니가이?(그래서 명석에서 우리가 방망이로 이렇게 털어서 부수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그거 쌀, 쌀 다 될 거 아니냐?)

107034 @1 예.(예.)

107034 #1 쓸거치 허면은 기꺄방에 강 곶아저만은 옛날엔 이 돌꺄레에 다 곶아세.(쌀같이 하면 기꺄방에 가서 갈았지만 옛날엔 그 맺돌에 다 갈았어.)

107034 @1 예, 예.(예, 예.)

107034 #1 돌꺄루에 곶아 가지고서 그렇게 헨 범벅 해 먹어났저.(맺돌에 곶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범벅 해 먹었었어.)

107034 @1 아, ㄹ루?(아, 가루?)

107034 #1 그리고이 ㅁ물도 마찬가지여, 돌꺄루에 다.(그리고 메밀도 마찬가지야, 맺돌에 다.)

107034 @1 어쨌든 종지대축도 우이 쌀 같은 게 열리는 건게?(어쨌든 ‘종지대축’도 위에 쌀 같은 게 열리는 거네?)

107034 #1 으, 으. 그거 가지고.(으, 으. 그거 가지고.)

107034 @1 아, 그거 가지고예. 그거 곶앙 범벅 해 먹은 거예?(아, 그거 가지고요. 그거 곶아서 범벅 해 먹은 거요?)

107034 #1 으.(으.)

241) ‘타박허다’는 나무, 풀 따위가 무성하여 위가 소복하다.

107035 @1 예, 즈베기?(예, 수제비?)

107035 #1 즈베기논이 므물츠베기허고이 밀츠베기. 주로 그거 했주. 다른 즈베기 었다.(수제비는 메밀수제비하고 밀수제비. 주로 그거 했지. 다른 수제비 없다.)

107035 @1 므물츠베기 밀츠베기.(메밀수제비 밀수제비.)

107035 #1 밀츠베기.(밀수제비.)

107035 @1 므물은 갈앗고 밀은 어떻 했수과?(메밀은 갈앗고 밀은 어떻게 했습니까?)

107035 #1 밀도 갈아났저, 옛날은. 만이 갈앗주, 이디 옛날에 밀을.(밀도 갈앗었지, 옛날은. 많이 갈앗지, 여기 옛날에 밀을.)

107035 @1 아, 밀도 갈고.(아, 밀도 갈고.)

107035 #1 밀도 갈아나세. 게난 제서에 쓰기 위해선 밀을 안 갈 수가 었어났주게. 제서에 상웨떡²⁴²도 해야 되고 뭐 허기 때문에.(밀도 갈앗었어. 그러니까 제사에 쓰기 위해선 밀을 안 갈 수가 없었지. 제사에 상화떡도 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107035 @1 으.(으.)

107035 #1 재래식, 재래밀을 갈아났저.(재래식, 재래밀을 갈앗었어.)

107035 @1 으. 그, 그럼 즈베기 헤 먹을 때는 안에 뭐 뭐? 므물쿠루 낱 뭐 득 아니, 썩 거튼 것도 놓고마썸?(으. 그, 그럼 수제비 헤 먹을 때는 안에 뭐 뭐? 메밀가루 넣어서 뭐 닭 아니, 썩 같은 것도 넣고요?)

107035 #1 게난 썩 거튼 거는 무슨 뭐 절사 때나이 경헌 때나 썩이 귀허지이, 게난.(그러니까 썩 같은 거는 무슨 뭐 절사 때나 그런 때나 썩이 귀하지, 그러니까.)

107035 @1 절사 때가 뭐과?(절사 때가 뭇니까?)

107035 #1 절사 때가 뭇인가 그 뭇인가 뭇인가 팔월 추석이나 아니민 거시기 헐 그런 때에 그렇게.(절사 때가 뭇인가 그 뭇인가 뭇인가 팔월 추석이나 아니면 거시기 할 그런 때에 그렇게.)

107035 @1 아.(아.)

107035 #1 돈이 들어도 사다근에 맛있게 먹젠 허민이 그 썩 놔, 삶은 그 물에 썩고기영 ㄱ치 헤근에가 국수 행 먹으면 더 맛 좋주게, 그렇게.(돈이 들어도 사다가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그 썩 넣어, 삶은 그 물에 썩고기와 같이 해서 국수 해서 먹으면 더 맛 좋지, 그렇게.)

107035 @1 으.(으.)

107035 #1 그렇게, 그렇게 행 먹어났저.(그렇게, 그렇게 해서 먹었었지.)

107035 @1 으. 기민 므물츠베기에 들어갓었던 거 썩고기, 썩고기 정도지예, 다른 건.(으. 그럼 메밀수제비에 들어갓었던 거 썩고기, 썩고기 정도지요, 다른 건.)

107035 #1 으. 다른 건 었다. 그뻐 소고기 거튼 것도 귀헤부난이.(으. 다른 건

242)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막걸리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찢 떡을 말한다.

없다. 그땐 소고기 같은 것도 귀하니까.)

107035 @1 으.(으.)

107035 #1 꿩이 그때 만이 잡아줬주.(꿩이 그때 많이 잡혔지.)

107035 @1 그지예, 꿩고기 낱 헛지예.(그렇죠. 꿩고기 넣어서 했지요.)

107035 #1 으.(으.)

107036 @1 계민, 칼국수는 어떤 거라?(그럼, 칼국수는 어떤 거야?)

107036 #1 칼국수는 믰물을, 믰물을 믰루해 가지고서이 이렇게 밀어 가지고이 그냥 즐, 영 즐게 현 걸, 것ᄇ라 칼국수엔 허고이.(칼국수는 메밀을, 메밀을 가루해 가지고서 이렇게 밀어 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잘게 한 걸, 것보고 칼국수라고 하 고.)

107036 @1 예.(예.)

107036 #1 그냥 손가락으로 떠 놓는 건 그냥 그 수제비 국수라고 한다.(그냥 손가락으로 떠 놓는 건 그냥 그 수제비 국수라고 한다.)

107036 @1 그니까 수제비 국수를 즈베기렌 허는 거 아니?(그러니까 수제비 국수를 ‘즈베기’라고 하는 거 아니?)

107036 #1 으, 즈베기. 그걸 즈베기렌 허고 즐게 현 건 국수, 칼국수.(으, ‘즈베기. 그걸 수제비라고 하고 잘게 한 건 국수, 칼국수.)

107036 @1 예. 믰물ᄇ루로 행 만들 거고?(예. 메밀가루로 해서 만들 거고?)

107036 #1 그 밀ᄇ루도 그렇게 헨 만든다.(그 밀가루도 그렇게 해서 만든다.)

김치

107037 @1 저기 김치 종류, 먹어낸 것만 물어볼게예.(저기 김치 종류, 먹었던 것만 물어볼게요.)

107037 #1 우리 제주도에는 김치가 두 종류베끼 안 먹어났저. 왜냐면 저 뭐인가 배추김치허고이 그 뭐인가 무수김치 그것베끼. 다른 건 뭐 행 먹어낸 거.(우리 제주도에는 김치가 두 종류밖에 안 먹었었어. 왜냐하면 저 뭐인가 배추김치하고 그 뭐인가 무김치 그거밖에. 다른 건 뭐 해서 먹었던 거.)

107037 @1 뭐 파김치도 행 먹어나고 꿩마농 김치 같은 거 안 먹어났수과?(뭐 파김치도 해서 먹었었고 달래 김치 같은 거 안 먹었었습니까?)

107037 #1 그 꿩, 꿩마농 김치 그런 것도 행 먹어났저. 그 드룻늑물을 캐다가 이.(그 꿩, 달래 김치 그런 것도 해서 먹었었어. 그 들나물을 캐다가.)

107037 @1 으.(으.)

107037 #1 드룻늑물 뿌리.(들나물 뿌리.)

107037 @1 으.(으.)

107037 #1 밧디 그자 드룻늑물은 사람이 재배 안 허는데 그것이 막 아주 딱딱 허주게.(밭에 그저 들나물은 사람이 재배 안 하는데 그것이 아주 아주 딱딱하지.)

107037 @1 으.(으.)

107037 #1 그것 뿌리 해 가지고서 물류왕 그 장물에 커 가지고서 지시 해 가지고서 그거 먹고.(그것 뿌리 해 가지고서 말려서 그 간장에 담가 가지고서 장아찌 해 가지고서 그거 먹고.)

107037 @1 으.(으.)

107037 #1 또 콤포사니지시 행 먹고.(또 마늘장아찌 해서 먹고.)

107037 @1 으.(으.)

107037 #1 그렇게, 여름 반찬은 그렇게.(그렇게, 여름 반찬은 그렇게.)

107037 @1 행 먹어난예?(해서 먹었었어요?)

107037 #1 으.(으.)

107037 @1 배추김치?(배추김치?)

107037 #1 으, 배추김치하고 그 뭐인가 무수김치하고.(으, 배추김치하고 그 뭐인가 무김치하고.)

107037 @1 으.(으.)

107037 #1 또 다시 그, 그 저 그 김치. 아까 그 드룻느물 해다가.(또 다시 그, 그 저 그 김치. 아까 그 들나물 해다가.)

107037 @1 꿩마농김치?(달래김치?)

107037 #1 으, 꿩마농김치 그렇게.(으, 달래김치 그렇게.)

107038 @1 게민 배추김치 해 먹젠 허민 배춘 어떻 갈양 해낫수과?(그럼 배추김치 해 먹으려고 하면 배춘 어떻게 갈아서 했었습니까?)

107038 #1 배추는 요 중간에사 갈기 시작해근에, 옛날에는이 기냥, 그냥 해 가지고서 제라헌 김치를 안 해 가지고서 임시, 임시 그렇게 행 먹엇주게.(배추는 요 중간에야 갈기 시작해서, 옛날에는 그냥, 그냥 해 가지고 제대로 김치를 안 해 가지고서 임시, 임시 그렇게 해서 먹엇지.)

107038 @1 으.(으.)

107038 #1 계난 이제는 배추김치 해근에 겨울 내냥 먹주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행 먹어낫져.(그러니까 이제는 배추김치 해서 겨울 내내 먹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서 먹엇었어.)

107038 @1 그럼, 옛날에 김치 만들어진 거 봐나실 거 아니예. 그민 배추 사당, 함덕 배추 사당 먹엇수과, 아니면?(그럼, 옛날에 김치 만들엇던 거 봤었을 거 아니요. 그럼 배추 사다가, 함덕 배추 사다가 먹엇습니까, 아니면?)

107038 #1 그 옛날은 이디 배추 거 나기 전이는 그냥 그 우, 우영에 가는 걸로 그 포기가 안 앓는 거주.(그 옛날은 여기 배추 거 나기 전에는 그냥 그 위, 터앞에 가는 걸로 그 포기가 안 앓는 거지.)

107038 @1 으, 안 앓는 거.(으, 안 앓는 거.)

107038 #1 기냥 그 캐다가이 물에 잘 씻어근에가 소금에 절일 거 아니가?(그냥 그 캐다가 물에 잘 씻어서 소금에 절일 거 아니냐?)

107038 @1 예.(예.)

107038 #1 계근에가 그 마늘허고이 양념이 그 뭐인가 마늘허고 그 뭐인가 생강은 귀혜부난 주로 마늘만 넣 헛주. 콤테사니이.(그래서 그 마늘하고 양념이 그 뭐인가 마늘하고 그 뭐인가 생강은 귀하니까 주로 마늘만 넣어서 했지. 마늘.)

107038 @1 어.(어.)

107038 #1 콤테사니 못아 놓고 고춧가루 농곡 해근에 경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간단히 행 먹었주, 그거.(마늘 마아 넣고 고춧가루 넣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간단히 해서 먹었지, 그거.)

107038 @1 지금은 김치 허젠 허민 고춧가루 양념을 따로 허잖아예?(지금은 김치 하려고 하면 고춧가루 양념을 따로 하잖아요?)

107038 #1 범벅을 따로 허고 또 이제 뭐인가 젓갈도 요새 들어가고 허는디 옛날엔 젓갈 맛이 경해도 맛이 있어주.(범벅을 따로 하고 또 이제 뭐인가 젓갈도 요새 들어가고 하는데 옛날엔 젓갈 없이 그래도 맛이 있었지.)

107039 @1 아, 옛이 해도. 예, 예. 그민 열무김치 같은 거는 안 해 먹어났수과?(아, 없이 해도. 예, 예. 그럼 열무김치 같은 거는 안 해 먹었었습니까?)

107039 #1 열무김치, 무사 여름엔 행 먹어났저.(열무김치, 왜 여름엔 해서 먹었었어.)

107039 @1 어.(어.)

107039 #1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해 가지고 시원하게 그 뭐인가 그 해 가지고서 여름 거튼 땀이 배추보단도 열무김치 해 가지고서 많이 그걸로 국 행 먹고 냉국 행 먹고 경해나세.(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해 가지고 시원하게 그 뭐인가 그 해 가지고서 여름 같은 땀 배추보단도 열무김치 해 가지고서 많이 그걸로 국 해서 먹고 냉국 해서 먹고 그랬었어.)

107039 @1 아, 거 김치 할 땀 어떻 해?(아, 거 김치 할 땀 어떻게 해?)

107039 #1 김치 할 땀 마찬가지로 아까, 씻영 소금에 버무려근에가 그 누물이 죽으면은 양념 놔 가지고서.(김치 할 땀 마찬가지로 아까, 씻어서 소금에 버무리서 그 누물이 죽으면 양념 넣어 가지고서.)

107039 @1 아, 버무령예?(아, 버무리세요?)

107039 #1 으.(으.)

107040 @1 물김치?(물김치?)

107040 #1 물김치엔 현 건이, 물김치엔 현 건이 국보단 국거치 시원하게 현 것을 물김치엔 현다.(물김치라고 한 것이, 물김치라고 한 건은 국보단 국같이 시원하게 한 것을 물김치라고 한다.)

107040 @1 으.(으.)

107040 #1 그건 좀 새콤하게 해 가지고서이 그 저 초를 넣는다. 옛날에도 집에서 초를 만들어났저.(그건 좀 새콤하게 해 가지고서 그 저 초를 넣는다. 옛날에도 집에서 초를 만들었었어.)

107040 @1 초도 만들어났수과?(초도 만들었었습니까?)

107040 #1 으, 초도 집이서 만들었저. 저 뭐, 옛날은 쉰다리²⁴³로도 초 멘들아 나고이.(으, 초도 집에서 만들었어. 저 뭐, 옛날은 ‘쉰다리’로도 초 만들었었고.)

107040 @1 예.(예.)

107040 #1 게난 그 쉰, 그 물김치는이 그 초가 들어가야 시원해주게.(그러니까 그 쉰, 그 물김치는 그 초가 들어가야 시원하지.)

107040 @1 예.(예.)

107040 #1 경 안허면 안 들어가. 경허영 옛날엔 다 집집마다 거 만들아났저.(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 그래서 옛날엔 다 집집마다 거 만들었었어.)

107040 @1 초를 어떻 만듭니까?(초를 어떻게 만듭니까?)

107040 #1 초를이 옛날엔 그 피보리엔 현 거 잊저. 피보리는 누룩해영 낫다가 이.(초를 옛날엔 그 곁보리라고 한 거 있어. 곁보리는 누룩해서 낫다가.)

107040 @1 예.(예.)

107040 #1 그걸 어떻게 가지고서 그 술 담듯이 담양, 담양 거 오래 내 불민 그 것이 막 쉰다, 쉬어. 그민 물 뜰라 내 가지고서 그걸 여름에는 이제 나오는 초 대신 그렇게 옛날도 행 먹어났저.(그걸 어떻게 가지고서 그 술 담듯이 담아서, 담아서 거 오래 내 버리면 그것이 아주 쉰다, 쉬어. 그럼 물 따라 내 가지고서 그걸 여름에는 이제 나오는 초 대신 그렇게 옛날도 해서 먹었었어.)

107041 @1 아, 기구나. 동지김치가 뭐과, 동지김치?(아, 그렇구나. 장다리김치가 뭐니까, 장다리김치?)

107041 #1 동지김치엔 현 건 그 겨울에 먹는 건데이, 동지김치엔 현 거는이 그 요새 그거 요새 그거 조그만씩현 요만씩현 무수 잇잖으냐이?(장다리김치라고 한 건 그 겨울에 먹는 건데, 장다리김치라고 한 거는 그 요새 그거 요새 그거 조그마한 요만한 무 잇잖니?)

107041 @1 으.(으.)

107041 #1 쪼그만현 거이. 그것ㄴ라이 그런 걸로 갈랑 현 것ㄴ라 동지김치엔 경 이름을 했주.(쪼그마한 거. 그것보고 그런 걸로 나눠서 한 것보고 장다리김치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지.)

107041 @1 만드는 방법은 ㄴ틀 거고예?(만드는 방법은 같은 거고요?)

107041 #1 으, ㄴ틀 거고.(으, 같은 거고.)

107042 @1 무김치?(무김치?)

107042 #1 무우김치가 아까 그 무수로 허는 게 무우김치주. 것도 똑ㄴ튼 거.(무김치가 아까 그 무로 하는 게 무김치지. 것도 똑같은 거.)

107042 @1 아. 그거 깍두기랑.(아. 그거 깍두기랑.)

107042 #1 깍두긴 옛날에 안 해 먹어났저.(깍두긴 옛날에 안 해 먹었었어.)

107042 @1 안 해 먹언예?(안 해 먹었어요?)

107042 #1 물김치는 주로 만이 행 먹고.(물김치는 주로 많이 해서 먹고.)

243)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근 음료를 말한다.

107042 @1 케민 무김치 만들젠 허민 무수를 얼만큼씩 썬니까?(그럼 무김치 만
들려고 하면 무를 어느만큼씩 썬니까?)

107042 #1 아, 쪼그만, 깍두기 거치 얇롭게 썬다. 깍두기 두꺼운디 이진 막 알롭
게.(아, 쪼그만, 깍두기 같이 얇게 썬다. 깍두기 두꺼운데 이진 아주 얇게.)

107043 @1 파김치? 꿩마농 김치 말양 파김치를 따로 해놔수과?(파김치? 달래
김치 말고 파김치를 따로 했었습니까?)

107043 #1 파김치엔 현 게 따로 엇어놔저. 꿩마농 김치에 또시 이제 그 뭐인가
거시기 꿩마농김치엔 현 게 잇어놔저.(파김치라고 한 게 따로 없었어. 달래 김치에
또 이제 그 뭐인가 거시기 ‘꿩마농’김치라고 한 게 있었어.)

107043 @1 예, 그니까 파김치 꿩마농김치엔예?(예, 그니까 파김치 ‘꿩마농’김치
라고요?)

107043 #1 으, 그거 해놔저.(으, 그거 했었어.)

107043 @1 으, 꿩마농김치예. 갯늬물김치?(으, 파김치요. 갯나물김치?)

107045 #1 으, 갯늬물김치도 해놔저, 거.(으, 갯나물김치도 했었어, 거.)

107045 @1 으.(으.)

107045 #1 갯늬물도 캐다가이 그 아까 식으로 거 그 돕는 건 마찬가지로. 그건 코
가 썩허게 핑장허 막 거 매웁나.(갯나물도 캐다가 그 아까 식으로 거 그 담그는 건
마찬가지. 그건 코가 썩허게 핑장허 아주 거 매워.)

107045 @1 아.(아.)

107045 #1 건 매웁는 맛으로 먹는 거.(건 매운 맛으로 먹는 거.)

107045 @1 아, 갯늬물김치가.(아, 갯나물김치가.)

107045 #1 으, 막 매웁나, 시원허게 매웁게.(으, 아주 매워, 시원허게 맵게.)

107046 @1 아, 기짱. 세우리김치는?(아, 그렇습니까. 부추김치는?)

107046 #1 세우리김친 잘 안 해 먹었저.(부추김친 잘 안 해 먹었어.)

107046 @1 안 해 먹언예?(안 해 먹었어요?)

107046 #1 건 주로이 웬장 같은 디 반찬 허는 디 만이 세우렐 낫주. 거 김치 같
은 건 그때는 안 해 먹어.(건 주로 된장 같은 데 반찬 하는 데 많이 부추 넣었지.
거 김치 같은 건 그때는 안 해 먹어.)

젓갈

107048 @1 으. 젓갈 종류예? 젓갈에는 무슨 젓갈이 잇어나신고예?(으. 젓갈 종
류요? 젓갈에는 무슨 젓갈이 있었었나요?)

107048 #1 적갈 종류는이 마늘적갈도 잇었저. 꿩마농, 마늘적갈은 그 뭐인가 예,
우리가 오월, 삼월 한식에이.(적갈 종류는 마늘적도 있었지. 파, 마늘 적은 그 뭐인
가 예, 우리가 오월, 삼월 한식에.)

107048 @1 으.(으.)

107048 #1 삼월 한식엔 주로 마늘적갈을 현다. 꿩마농적갈을.(삼월 한식에 주로

마늘적을 한다. 파적을.)

107048 @1 으.(으.)

107048 #1 파랑케 막 올라올 때 패마늘을, 패마늘을 데울 거 아니가이? 패마늘을 물에 조금 데우면 발이 죽을 거 아니가? 경허민 그걸 뱅 뱅 뱅 적고지, 적거치 말아근에가 적고지에 꿩영.(파랑케 마구 올라올 때 파를, 파를 데울 거 아니냐? 파를 물에 조금 데우면 발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뱅 뱅 뱅 적꼬치, 적같이 말아서 적꼬치에 꽂아서.)

107048 @1 예.(예.)

107048 #1 그걸 이제 우이 뭐인가 ㄱ루 불라근에, ㄱ루 불랑 적췌에 ㄴ근에 그거 화룻불레 구웁 주로 이제 한식 명절에는 그 그걸 많이 했주.(그걸 이제 위에 뭐인가 가루 발라서, 가루 발라서 석쇠에 ㄴ서 그거 화룻불에 구워서 주로 이제 한식 명절에는 그 그걸 많이 했지.)

107048 @1 아.(아.)

107048 #1 그걸 꼭 해야 돼여.(그걸 꼭 해야 돼.)

107048 @1 아, 패마농 꽂아 가지고 그거를?(아, 파 꽂아 가지고 그거를?)

107048 #1 으, 패마농적을 허고. 그 웨에는게 그 고기적은 옛날은 그거 허고 도 야지고기적. 소고기적은 옛날은 힘들어난.(으, 파적을 하고. 그 외에는 그 고기적은 옛날은 그거 하고 돼지고기적. 소고기적은 옛날은 힘들었었어.)

107048 @1 힘들어나고예?(힘들었었고요?)

107048 #1 으.(으.)

107048 @1 바닷고기도 안 해나고예?(바닷고기도 안 했었고요?)

107048 #1 바닷고기는 그거.(바닷고기는 그거.)

107048 @1 그냥 굽는 거고 적갈로는 안 해놨잖아?(그냥 굽는 거고 적으로는 안 했었잖아?)

107048 #1 으, 적으로는 안 허고.(으, 적으로는 안 하고.)

107048 @1 그거 말고.(그거 말고.)

107048 #1 그거 허고. 그거 그 적이란 거이 그거 허고 소고기적, 돼지고기적, 또 구쟁기적 또 이제 오분제기적. 계난 집집마다 그거 구쟁기나 오분제기는 못 허고 그 바다에 탕기명 허는 사람은 오분제기나 구쟁기 적거치 행 허고 경 안허민 보통 기자 돼야지적허고 목적허고.(그거 하고. 그거 그 적이란 거 그거 하고 소고기적, 돼지고기적, 또 소라적 또 이제 오분제기적.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거 소라나 오분제기는 못 하고 그 바다에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오분제기나 소라 적같이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저 돼지적하고 목적하고.)

107048 @1 구쟁기적이나 오분제기적도 옛날에도 해놨수과?(소라적이나 오분제기적도 옛날에도 했었습니까?)

107048 #1 으, 해놨저.(으, 했었어.)

107048 @1 예. 제사할 때 적 말앙 자리젓이나 멜컷 같은 그런 거?(예. 제사할

때 적 말고 자리젓이나 멸치젓 같은 그런 거?)

107048 #1 그런 건 안 올린다.(그런 건 안 올린다.)

107048 @1 그런 거 안 올리는데 옛날에 만들앙 먹언, 반찬으로?(그런 거 안 올리는데 옛날에 만들어서 먹었어, 반찬으로?)

107048 #1 어, 옛날에 주로 자리젓 만이 행 먹었저.(어, 옛날에 주로 자리젓 많이 해서 먹었어.)

107048 @1 자리젓 행 먹언예?(자리젓 해서 먹었어요?)

107048 #1 자리젓, 멸젓.(자리젓, 멸치젓.)

107048 @1 두 개뿐이라예?(두 개뿐이지요?)

107048 #1 으.(으.)

107049 @1 자리젓, 멸젓. 자리젓 어떻 만들어나신고예?(자리젓, 멸치젓. 자리젓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107049 #1 자리젓 어떻 뭐 그건 자리젓은 소금을 적당히 뭐. 자리를 사다가.(자리젓 어떻게 뭐 그건 자리젓은 소금을 적당히 뭐. 자리돔을 사다가.)

107049 @1 한동 바당에서도 사질 건가?(한동 바다에서도 살 수 있나요?)

107049 #1 으, 한동 바당에서 옛날은 거래났저. 이제는 안 허는디. 한동 바당에서 사다가이 자리젓 허젠 허민이.(으, 한동 바다에서 옛날은 떴었어. 이제는 안 하는데. 한동 바다에서 사다가 자리젓 하려고 하면.)

107049 @1 예.(예.)

107049 #1 혼 말이나 말가웃 사당이.(한 말이나 말가웃 사다가.)

107049 @1 예.(예.)

107049 #1 배에서 사면은 바닷물에 깨끗이 씻나. 씻어 가지고 집에 와근에가 물이 빠지면은 소금에 영 버무려 가지고서 멧 할 허는 건 우린 모르지만 여저덜이 알아 가지고서 게서 거. 그 자리가 언제 만이 나는고 허니 이제가 만이 나주.(배에서 사면 바닷물에 깨끗이 씻어. 씻어 가지고 집에 와서 물이 빠지면 소금에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서 멧 할 하는 건 우린 모르지만 여자들이 알아 가지고서 그래서 거. 그 자리돔이 언제 많이 나는가 하니 이제가 많이 나지.)

107049 @1 으.(으.)

107049 #1 이제 자릴 것 헤 가지고서 거 일 년을 먹었저.(이제 자리돔을 것 헤 가지고서 거 일 년을 먹었어.)

107049 @1 으.(으.)

107049 #1 경허민 팔월 출 혈 때 먹고 겨울에 먹고.(그러면 팔월 꼴 할 때 먹고 겨울에 먹고.)

107049 @1 으. 자리 혼 말에 소금 얼마 놓는지는 모르고예?(으. 자리돔 한 말에 소금 얼마 놓는지는 모르고요?)

107049 #1 건 모르켜. 여저덜 물으민 알 거여.(건 모르겠어. 여자들 물으면 알 거야.)

107049 @1 지금 자리 날 때난 지금 자리젓덜 만들 때라예?(지금 자리돔 날 때니까 지금 자리젓들 만들 때지요?)

107049 #1 으, 지금 아주 제일, 시기가 이제 자리젓 할 때.(으, 지금 아주 제일, 시기가 이제 자리젓 할 때.)

107050 @1 예, 예. 멜젓은 어떻 만들앗수과?(예, 예. 멸치젓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50 #1 멜젓도, 지금 뭐인가 멜젓은이 이젓 육젓이라고 유월 전이 허민이 거물이 돼주게. 게난 그건 이 팔월 나근에가 그슬 멜젓 허면이 그 멜이 녹질 안허여. (멸치젓도, 지금 뭐인가 멸치젓은 이제 육젓이라고 유월 전에 하면 거물이 되지. 그러니까 그건 이 팔월 되어서 가을 멸치젓 하면 그 멸치가 녹질 않아.)

107050 @1 으.(으.)

107050 #1 그래서 그건 거 오래 먹고이. 이 으름에는 멜젓을 하영 안 헛저. 조그만 해 가지고 으름만 먹고. 다 녹아 부니까.(그래서 그건 거 오래 먹고. 이 으름에는 멸치젓을 많이 안 헛어. 조그만 해 가지고 으름만 먹고. 다 녹아 버리니까.)

107050 @1 아.(아.)

107050 #1 거 물베끼 안 남아. 국물베끼.(거 물밖에 안 남아. 국물밖에.)

107050 @1 국물베끼 안 남아?(국물밖에 안 남아?)

107050 #1 으. 게난 가을에 허면은 그건 그대로 바짝허게 그냥 그, 멜이 그대로 살아잇주게, 그냥.(그. 그러니까 가을에 하면 그건 그대로 바짝허게 그냥 그, 멸치가 그대로 살아잇지, 그냥.)

107050 @1 게민 멜은 언제까지 거립니까?(그럼 멸치는 언제까지 뜯니까?)

107050 #1 멜은 시월덜꺼지 거린다.(멸치는 시월까지 뜯다.)

107050 @1 아, 시월덜까지 거려. 지금서부터 거리기 시작허는 거마씨?(아, 시월까지 떠. 지금부터 뜨기 시작하는 거요?)

107050 #1 으.(으.)

107050 @1 그럼 지금 거린 건 으름내만 먹고?(그럼 지금 뜯 건 으름내만 먹고?)

107050 #1 으, 으름내만 먹고.(으, 으름내만 먹고.)

107050 @1 먹고.(먹고.)

107050 #1 게난 육젓이라 해 가지고 요샌이 유월덜 이전에 양력 유월덜 현 거 육젓이엔 현 건이 거 다 녹아 불기 때문에 그건 물로 그 뭐인가 김치 담는 액젓이 그거여. 액젓을 따로 판다.(그러니까 육젓이라 해 가지고 요샌 유월 이전에 양력 유월 한 거 육젓이라고 한 건 거 다 녹아 버리기 때문에 그건 물로 그 뭐인가 김치 담그는 액젓이 그거야. 액젓을 따로 판다.)

107050 @1 예. 육젓을?(예. 육젓을?)

107050 #1 으, 육젓으로 김치 담양 먹는 거.(으, 육젓으로 김치 담가서 먹는 거.)

107051 @1 혹시 아감젓 같은 건?(혹시 아감젓 같은 건?)

107051 #1 아가미젓은 건 제주도논이 거 나지 안허고 육지는 아가미젓이엔 헌 거 뭐인가 갈치 아가미젓이여 뭐이여 허주만은 이런 디서 그건 거 제주는 안 나. 그런 고기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 헤 봤저.(아감젓은 건 제주도논 거 나지 않고 육지는 아감젓이라고 한 거 뭐인가 갈치 아감젓이여 뭐이여 하지만 이런 데서 그건 거 제주는 안 나. 그런 고기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헤 봤어.)

107051 @1 으.(으.)

107051 #1 육지는이 뭐 명태젓이여 무신 것이여 만이 잇주만은 제주도는 그런 젓 었고 벨젓허고 그자 자리젓 그거 주로 그거 두 개베끼 었어났저.(육지는 뭐 명태젓이여 무슨 것이여 많이 있지만 제주도는 그런 젓 없고 멀치젓하고 그저 자리젓 그거 주로 그거 두 개밖에 없었어.)

107052 @1 두 개베끼 었어난예. 그럼 게젓 같은 것도 혹시 들어봤수과, 게?(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게젓 같은 것도 혹시 들어 봤습니까, 게?)

107052 #1 게젓은이 게가 하영 안 나기 때문에 게젓은 아니 허고 게는 잡아다가이 썬양 죽 썬 먹었저.(게젓은 게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게젓은 안 하고 게는 잡아다가 빵아서 죽 썬서 먹었어.)

107052 @1 예.(예.)

107052 #1 경허면은 그것이 신경통에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그걸.(그러면 그것이 신경통에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그걸.)

107052 @1 으.(으.)

107052 #1 게가 젓 허게 나지 안 허주게.(게가 젓 하게 나지 안 하지.)

107054 @1 안 나, 하영 안 나난예. 출레²⁴⁴라는 말이 뭐과, 출레?(안 나, 많이 안 나니까요. ‘출레’라는 말이 뭘니까, ‘출레’?)

107054 #1 출레라는 것은이 거 젓을 이딴말로 출레엔 헌다.(‘출레’라는 것은 거 젓을 여긔말로 ‘출레’라고 한다.)

107054 @1 예.(예.)

107054 #1 벨젓도 출레엔 허고 그 자리젓도 출레엔 허고 그자 반찬으로 갯갯고기 헌 걸 다 출레엔 헤났저.(멀치젓도 ‘출레’라고 하고 그 자리젓도 ‘출레’라고 하고 그저 반찬으로 바닷고기 한 걸 다 ‘출레’라고 했었어.)

107054 @1 기민 아까 벨젓, 자리젓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생선, 갯갯고기 헌 거 반찬은 다 출레엔 헐 거예?(그럼 아까 멀치젓, 자리젓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생선, 바닷고기 한 거 반찬은 다 ‘출레’라고 할 거요?)

107054 #1 아, 젓 종류만 출레.(아, 젓 종류만 ‘출레’.)

107054 @1 아, 젓 종류만 출레. 기민 갯갯고기 구운 거라던지?(아, 젓 종류만 ‘출레’. 그럼 바닷고기 구운 거라던지?)

107054 #1 으, 그건 출레엔 허지 안헌다.(으, 그건 ‘출레’라고 하지 않는다.)

244)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107054 @1 아, 젓 종류만?(아, 젓 종류만?)

107054 #1 으, 젓 종류만.(으, 젓 종류만.)

107054 @1 기민 두 개밖에 없는 거다예?(그럼 두 개밖에 없는 거네요?)

107054 #1 으, 두 개밖에 엇는 거주.(으,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장아찌와 회

107055 @1 저기 장아찌, 장아찌 만들어난? 마농지시렌 험니까, 지시?(저기 장아찌, 장아찌 만들었었어? 마늘장아찌라고 합니까, 장아찌?)

107055 #1 으. 마농지시엔 거.(으. 마늘장아찌라고 거.)

107055 @1 예, 마농지시예. 지시 종류는 마농지시?(예, 마늘장아찌요. 장아찌 종류는 마늘장아찌?)

107055 #1 콧데사니지시허고 꽤마농지시허고 그 저 무시거 그, 그 따시 무우 드르에 과당 허는 거 자꾸 잊어불엄주만은.(마늘장아찌하고 과장아찌하고 그 저 무었그, 그 또 무 들에 과다가 하는 거 자꾸 잊어버리고 있지만.)

107055 @1 예. 아까 열무 아니지.(예. 아까 열무 아니지.)

107055 #1 알타리무 닳은 건디 들에 가근에 야생에 거 해당 들류왕 그 장물에 덩강, 것도 만이 행 먹어났저.(알타리무 닳은 건데 들에 가서 야생에 거 해다가 말려서 그 간장에 담가서, 것도 많이 해서 먹었었어.)

107055 @1 아, 것도 지시 만들어났수과?(아, 것도 장아찌 만들었었습니까?)

107055 #1 으.(으.)

107055 @1 이름은?(이름은?)

107055 #1 이름은 튼내지 못허커.(이름은 생각해 내지 못하겠어.)

107055 @1 그거 김치도 해 먹고 지시도 해 먹고?(그거 김치도 해 먹고 장아찌도 해 먹고?)

107055 #1 아니, 김치 해 먹는 거 아니고 지시.(아니, 김치 해 먹는 거 아니고, 장아찌.)

107055 @1 어. 못 말고예.(어. 무릇 말고요.)

107055 #1 못은 건 먹지 안했저, 그때 못은이 막.(무릇은 건 먹지 안했어, 그때 무릇은 마구.)

107055 @1 으.(으.)

107055 #1 그때 그 흥년 들 때 어쩔 수 없이, 못은 거 독 잇고이 먹질 못헌다.(그때 그 흥년 들 때 어쩔 수 없이, 무릇은 거 독 잇고 먹질 못한다.)

107056 @1 거민 마농지시 만들젠 허민 어떻게신지 봐났수과?(그럼 마늘장아찌 만들려고 하면 어떠했는지 봤었습니까?)

107056 #1 그 마농지시 허젠 것도이 건 마농지신 주로이 장물에 현다, 장물에.(그 마늘장아찌 하려면 것도 건 마늘장아찌 주로 간장에 한다, 간장에.)

107056 @1 예.(예.)

107056 #1 장물 꿩에 허는 건디. 장물에 쾡.(간장 끓여서 하는 건데. 간장에 담가서.)

107057 @1 장물에 쾡예. 여기 꿩 종류는 뭐 있어났수과, 꿩?(간장에 담가서요. 여기 회 종류는 뭐 있었습니까, 회?)

107057 #1 꿩 종류는 주로 자리꿩이 주로 자리꿩.(회 종류는 주로 자리회가 주로 자리회.)

107057 @1 자리꿩?(자리회?)

107057 #1 자리꿩 말고는 뭐 있어났저. 주로 이 촌에는 주로 자리꿩.(자리회 말고는 뭐 없었어. 주로 이 촌에는 주로 자리회.)

107057 @1 새끼꿩 같은 건?(새끼회 같은 건?)

107057 #1 아, 옛날은 도새기 새끼꿩²⁴⁵⁾ 그거 있어났저. 도새기 새끼꿩.(아, 옛날은 돼지 새끼회 그거 있었어. 돼지 새끼회.)

107057 @1 도새기 새끼꿩 있어나고예?(돼지 새끼회 있었고요?)

107057 #1 으, 이젠 도새기 집집마다 안 질루난.(으, 이젠 돼지 집집마다 안 부르니까.)

107057 @1 으. 바닷꿩이 자리 말고.(으. 바닷고기 자리돔 말고.)

107057 #1 자리 말고 송어도 꿩 행 먹고 멍도 꿩 행 먹고 꿩 행 먹는 건 많다. 갈치도 꿩 행 먹고.(자리 말고 송어도 회 해서 먹고 멍치도 회 해서 먹고 회 해서 먹는 건 많다. 갈치도 회 해서 먹고.)

107057 @1 갈치도 꿩 행 먹고?(갈치도 회 해서 먹고?)

107057 #1 으, 갈치, 고등어, 송어.(으, 갈치, 고등어, 송어.)

107057 @1 으.(으.)

107057 #1 멍치도 꿩 행 먹고 다.(멍치도 회 해서 먹고 다.)

107057 @1 다 꿩 행 먹어났다예?(다 회 해서 먹었었네요?)

107057 #1 으, 다 먹어났저. 거 술 먹는 사람은 그걸 좋아행 먹주만은 술 아니 먹는 사람은 보통으로 잘 아니 먹주.(으, 다 먹었었어. 거 술 먹는 사람은 그걸 좋아해서 먹지만 술 안 먹는 사람으로 보통으로 잘 안 먹지.)

107058 @1 그럼 뭐 예를 들면 봄 돼면 무슨 반찬 해 먹고 여름 돼면 무슨 반찬 해 먹고 하는 게 있어나신가예?(그럼 뭐 예를 들면 봄 돼면 무슨 반찬 해 먹고 여름 돼면 무슨 반찬 해 먹고 하는 게 있었나요?)

107058 #1 아니, 따로 그런 것이 었다.(아니, 따로 그런 것이 없다.)

107058 @1 었어예?(없어요?)

107058 #1 특별히 봄 돼면은 그 뭐인가 마농이 주로 만이 나니까이 마늘 데왕 덜 먹고이, 저 지금 뭐인가 쪽과덜 만이 데왕 먹고이.(특별히 봄 돼면은 그 뭐인가 마늘이 주로 많이 나니까 마늘 데워서들 먹고, 저 지금 뭐인가 파들 많이 데워서 먹고.)

245) '새끼꿩' 주로 돼지의 태반 속의 새끼로 만든 회를 가리킨다.

107058 @1 예.(예.)

107058 #1 또 다시 뭐인가 이 콤포사니도이, 콤포사니도 연헌 뎨이 그거이 막 데와근에가 장에 막 춤지름 미청 먹으민 그거 승키로 만이 먹고. 봄철에 주로 그런 것이 만이 먹주게.(또 다시 뭐인가 이 마늘도, 마늘도 연한 때 그것 마구 데워서 장에 마구 찹기름 무쳐서 먹으면 그거 푸성귀로 많이 먹고. 봄철에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먹지.)

107058 @1 여름엔?(여름엔?)

107058 #1 여름엔 그런 것이 었으니까이. 그냥이 아까 거 짓 해 논 거 그런 것 배끼 먹을 게 었주.(여름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아까 거 짓갈 해 놓은 거 그런 것밖에 먹을 게 없지.)

107058 @1 뭐 냉국 같은 것도?(뭐 냉국 같은 것도?)

107058 #1 냉국 같은 건이 옛날은이 집마다 물웨를 낫저. 겐 주로 냉국 헨 여름에 주로 물웨로 만이, 물웨로 모든 냉국도 허고 그거 승키로 장에 짝어 먹고 그렇게 헻저.(냉국 같은 건 옛날은 집마다 물외를 낫어. 그래서 주로 냉국 해서 여름에 주로 물외로 많이, 물외로 모든 냉국도 하고 그거 푸성귀로 장에 짝어 먹고 그렇게 헻어.)

107058 @1 으, 짝어 먹고예. 가을 돼민 뭐?(으, 짝어 먹고요. 가을 되면 뭐?)

107058 #1 가을 돼민 호박이, 주로 호박이 만이 먹었저. 호박이 나니까, 호박이.(가을 되면 호박이, 주로 호박이 많이 먹었어. 호박이 나니까, 호박이.)

107058 @1 예. 겨울 돼민?(예. 겨울 되면?)

107058 #1 겨울 돼민 메역이니 뭐이니 호박이니 거.(겨울 되면 미역이니 뭐니 호박이니 거.)

장 담그기

107059 @1 예. 우리 장 만이 담강 먹어났잖아예?(예. 우리 장 많이 담가서 먹었었잖아요?)

107059 #1 집집마다 장 담가세. 일 년 내내 장 듬양 먹어세게.(집집마다 장 담갔어. 일 년 내내 장 담가서 먹었어.)

107059 @1 그니까. 장은 주로 언제 담굽니까?(그러니까. 장은 주로 언제 담굽니까?)

107059 #1 장은 주로 정월 초에 만이 듬는데 그 뭐인가 그 선들은 석은 들이엔 해 가지고서 안 듬주게.(장은 주로 정월 초에 많이 담그는데 그 뭐인가 그 선달은 썩은 달이라고 해 가지고서 안 담그지.)

107059 @1 으.(으.)

107059 #1 경허난 정월달에 듬으면은 삼월달부터 먹기 시작허주게. 주로 정월달에 듬주.(그러니까 정월달에 담그면 삼월부터 먹기 시작하지. 주로 정월달에 담그지.)

107060 @1 정월에 담그는 거예?(정월에 담그는 거요?)
 107060 #1 으, 으.(으, 으.)
 107060 @1 장 종류에는 웬장.(장 종류에는 된장.)
 107060 #1 웬장, 뭐인가 그 뭐인가 간장 그것베끼.(된장, 뭐인가 그 뭐인가 간장 그것밖에.)
 107060 @1 케민 고추장은 안 담강 먹었수과?(그럼 고추장은 안 담가서 먹었습니까?)
 107060 #1 제주도는 고추장은 안 담가 먹었저.(제주도는 고추장은 안 담가 먹었어.)
 107060 @1 아, 두 개만예.(아, 두 개만요.)
 107060 #1 으, 두 개만.(으, 두 개만.)
 107061 @1 장 담그젠 허민, 웬장 담그젠 허민 어떻게마씨, 메주 해야 될 거 아니니?(장 담그려고 하면, 된장 담그려고 하면 어떠해요. 메주 해야 될 거 아니?)
 107062 #1 게메, 메주를 동지덜에 전부 다 메주를 쏘다이.(글쎄, 메주를 동짓달에 전부 다 메주를 쏘다.)
 107062 @1 예.(예.)
 107062 #1 동지덜에 다 메주를 쏘어 가지고서 그걸 다 건조를 시켜. 물랑이.(동짓달에 다 메주를 쏘어 가지고서 그걸 다 건조를 시켜. 말려서.)
 107062 @1 으.(으.)
 107062 #1 잘 뭐인가.(잘 뭐인가.)
 107062 @1 삶는 거서부터 막 밧앙 메주 만드는 거 영 촌근촌근 곱아 줍서.(삶는 거부터 마구 밧아서 메주 만드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말해 주세요.)
 107062 #1 으, 게난 동지덜 뒤편은이 농서가 다 끝나니까 동지덜 뒤편 집집마다 메주를 삶나. 메주를 삶젠 허민 콩을 다 깨끗이 시쳐근에가이 그 쟁지숫²⁴⁶ 큰 두말떼기²⁴⁷ 뭐 그런 것이 잇저, 그런 숫에 그 식구가 많은 디는 그 쟁지숫으로 두개 삶는 집도 잇고 또 하나 삶는 디도 잇고.(으, 그러니까 동짓달 되면 농사가 다 끝나니까 동짓달 되면 집집마다 메주를 삶아. 메주를 삶으려고 하면 콩을 깨끗이 씻어서 그 ‘쟁지숫’ 큰 ‘두말떼기’ 뭐 그런 것이 잇어, 그런 술에 그 식구가 많은 데는 그 ‘쟁지숫’으로 두개 삶는 집도 잇고 또 하나 삶는 데도 잇고.)
 107062 @1 그 숫을 쟁지숫?(그 술을 ‘쟁지숫’?)
 107062 #1 으, 쟁지숫. 그 무쇄숫이 아니라 웨숫²⁴⁸이라. 무쇄숫은 혼 말베끼 이기지 못 허는 것이고.(으, ‘쟁지숫’. 그 무쇄술이 아니라 ‘웨숫’이야. 무쇄술은 한 말밖에 이기지 못 하는 것이고.)
 107062 @1 으.(으.)
 107062 #1 쟁지숫은 큰 거주게. 거 두말떼기라 헤 가지고서.(‘쟁지숫’은 큰 거지.

246) ‘쟁지숫’은 쌀 두 말 정도를 거뜬하게 넣을 수 있는 크기의 큰 술을 말한다.

247) ‘두말떼기’는 쌀 두 말 들이 술을 말한다.

248) ‘웨숫’은 한 말들이 술을 말한다.

거 ‘두말떼기’라 해 가지고서.)

107062 @1 무사 쟁지, 쟁지라는 말이 뭐과?(왜 ‘쟁지’, ‘쟁지’라는 말이 됩니까?)

107062 #1 그 솟 이름이 그거. 하여튼 모르켜. 하여튼 쟁지솟, 쟁지솟.(그 솟 이름이 그거.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쟁지솟’, ‘쟁지솟’.)

107062 @1 그럼 그거는, 그거는 무쇄솟이렌 안 곤는 거예?(그럼 그거는, 그거는 무쇠솟이라고 안 말하는 거요?)

107062 #1 으.(으.)

107062 @1 두말떼기는예?(‘두말떼기’는요?)

107062 #1 으, 두말떼긴 무쇄솟이 아니라 쟁지솟이렌 헛주.(으, ‘두말떼긴’ 무쇠솟이 아니라 ‘쟁지솟’이라고 했지.)

107062 @1 쟁지솟, 으.(‘쟁지솟’, 으.)

107062 #1 그런 그것에 삶아 가지고이 하루 한 여섯 시간, 네 시간을 삶아야 된다.(그런 그것에 삶아 가지고 하루 한 여섯 시간, 네 시간을 삶아야 된다.)

107062 @1 어.(어.)

107062 #1 네 시간을 삶앙 그걸 이제 방에혹에서 막 뺏는다이.(네 시간을 삶아서 그걸 이제 방아확에서 마구 뺏는다.)

107062 @1 예.(예.)

107062 #1 방에혹에서 막 뺏아 가지고서 메주를 만들어서이.(방아확에서 마구 뺏아 가지고서 메주를 만들었어.)

107062 @1 으.(으.)

107062 #1 메주를 만들어서 산디점으로 그 노 꼬아 가지고 그 메주를 해 가지고 다 건조, 건조, 건조해 가지고 건조해 가지고.(메주를 만들어서 발뽀질으로 그 노 꼬아 가지고 그 메주를 해 가지고 다 건조, 건조, 건조해 가지고 건조해 가지고.)

107062 @1 으.(으.)

107061 #1 낫다가 거 정월달 뒤편은 그디 곰팡이 핀 거 뭐 현 거 다 물로 씻어 가지고서 그 장 듭젠 허민 날을 봐야 된다, 날을. 곳인 날 허민 장이 변할 수 있다고 해서.(낫다가 거 정월달 되면 거기 곰팡이 핀 거 뭐 현 거 다 물로 씻어 가지고서 그 장 담그려고 하면 날을 봐야 된다, 날을. 곳은 날 하면 장이 변할 수 있다고 해서.)

107061 @1 으.(으.)

107061 #1 좋은 날 택해 가지고서.(좋은 날 택해 가지고서.)

107061 @1 으.(으.)

107061 #1 장 듭앙, 정월달에 듭으민 삼월달부터는 그 장이 익으니까, 혼 두어 달 뒤편이, 익으민 먹주.(장 담가서, 정월달에 담그면 삼월부터는 그 장이 익으니까, 한 두어 달 되니까, 익으면 먹지.)

107062 @1 두말떼기 솥에 삶은덴 헛는데, 보통 얼마나 콩 삶아놔수과, 장 담젼 허민?('두말떼기' 솥에 삶는다고 헛는데, 보통 얼마나 콩 삶았었습니까, 장 담그려고 하면?)

107062 #1 우리 집이 보통 두말떼기로 하나 웨말떼기²⁴⁹로 하나 그렇게 헤낫 주. 켜 서 말을 삶주, 서 말 정도.(우리 집에 보통 '두말떼기'로 하나 '웨말떼기'로 하나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서 말을 삶지, 서 말 정도.)

107062 @1 예.(예.)

107062 #1 서말 정도 삶양 허고 수정이 많은 디는 두말떼기로 두 개 허고 경헤 낫저.(서 말 정도 삶아서 하고 수정이 많은 데는 '두말떼기'로 두 개 하고 그랬었 어.)

107062 @1 아, 두 개 삶기도 허고예?(아, 두 개 삶기도 하고요?)

107062 #1 식구가 많으면 많게 허고 죽으면 죽게 허고.(식구가 많으면 많게 하 고 적으면 적게 하고.)

107062 @1 그럼 콩 삶을 때 두말떼기 솥에 한 번에 두 말을 다 놔?(그럼 콩 삶 을 때 '두말떼기' 솥에 한 번에 두 말을 다 넣어?)

107062 #1 으, 두 말을 다. 두 말 이상은 안 들어가고.(으, 두 말을 다. 두 말 이 상은 안 들어가고.)

107062 @1 안 들어가고예. 두 말을 다 놔. 물도 가득 넣고마씨?(안 들어가고요. 두 말을 다 넣어. 물도 가득 넣고요?)

107062 #1 물은 가득, 하여간 콩 우이 물이 떠야 웨는 거주.(물은 가득, 하여간 콩 위에 물이 떠야 되는 거지.)

107062 @1 떠야 웨는 거예?(떠야 되는 거요?)

107062 #1 그렇게 헤근에 삶는 거여.(그렇게 해서 삶는 거야.)

107062 @1 아, 그럼 한 여섯 시간쯤 삶양예?(아, 그럼 한 여섯 시간쯤 삶아요?)

107062 #1 으, 여섯 시간 아니 혼 네 시간쯤.(으, 여섯 시간 아니, 한 네 시간 쯤.)

107062 @1 경험 방에혹에 막 두드리잖아예?(그래서 방아확에 마구 두드리잖아 요?)

107062 #1 으.(으.)

107062 @1 네모나게 만들잖아예?(네모나게 만들잖아요?)

107062 #1 으.(으.)

107062 @1 바로 산디쪽으로 못 무끌 거 아니?(바로 밭뽕짚으로 못 묶을 거 아 니?)

107062 #1 산디쪽으로 다 무끈다.(밭뽕짚으로 다 묶는다.)

107062 @1 만든 날, 오늘 삶아시민 오늘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영 바로 메달지 못 허잖아?(만든 날, 오늘 삶았으면 오늘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바로 메달지 못

249) '웨말떼기'는 쌀 한 말 들이 솥을 말한다.

하잖아?)

107062 #1 아니 바로 메달아진다.(아니, 바로 매달 수 있다.)

107062 @1 아, 바로 메답니까?(아, 바로 매답니까?)

107062 #1 바로 메달아진다. 건 멘들명.(바로 매달 수 있다. 건 만들면서.)

107062 @1 멘들명.(만들면서.)

107062 #1 막 땀땀허주게 막 딱 허게 손으로 이렇게 허민 팡팡허주게.(아주 땀땀하지, 아주 딱 하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땀땀하지.)

107062 @1 예.(예.)

107062 #1 그날 메단다.(그날 매단다.)

107062 @1 아, 그날 메달아마씨? 그럼 물리는 건 어디서 물려?(아, 그날 매달아요? 그럼 말리는 건 어디서 말려?)

107062 #1 그냥 그 집 안에 쪽 허게, 집 안에 도리에 걸어근에가.(그냥 그 집 안에 쪽 하게, 집 안에 도리에 걸어서.)

107062 @1 예.(예.)

107062 #1 걸어근에가 그냥 쪽 허게 못 박아근에 못 박앙 상방에 쪽 허게 걸어.(걸어서 그냥 쪽 하게 못 박아서 마루에 쪽 하게 걸어.)

107062 @1 예.(예.)

107062 #1 경 안허민 창고거튼 디 쪽 허게 거나 그렇게 행 건조시킨다.(그렇지 않으면 창고 같은 데 쪽 하게 걸거나 그렇게 해서 건조시킨다.)

107062 @1 그럼 건조시키는 거 설달에 메주 만들아시난.(그럼 건조시키는 거 설달에 메주 만들었으니까.)

107062 #1 계속 그냥 낱 내부는 거.(계속 그냥 놔서 내버리는 거.)

107062 @1 내불민.(내버리면.)

107062 #1 자연적으로 거 이제 트고 발화되고 다 건조되고 허주.(자연적으로 거 이제 트고 발화되고 건조되고 하지.)

107062 @1 그렇게 물르는 게 시간적으로 흐 흐 덜.(그렇게 마르는 게 시간적으로 한 한 달.)

107062 #1 흐 덜 더 걸린다.(한 달 더 걸린다.)

107062 @1 흐 덜 더 걸령예, 그민 그거 곰팡이 피고 허면.(한 달 더 걸려요, 그럼 그거 곰팡이 피고 하면.)

107062 #1 으.(으.)

107061 @1 그거 씻고 나서 간장, 웬장 담그는 거예.(그거 씻고 나서 간장, 된장 담그는 거요.)

107061 #1 계난 그 간장, 웬장은이.(그러니까 그 간장, 된장은.)

107061 @1 예.(예.)

107061 #1 웬장 돔앙 다 익을 거 아니가이?(된장 담가서 다 익을 거 아니냐?)

107061 @1 예, 예.(예, 예.)

107061 #1 다 익으면은 간장을이 그 물, 그디 웬장이 잇는 물을 비와근에 따로 허는 게 그게 간장이고.(다 익으면 간장을 그 물, 거기 된장이 잇는 물을 비워서 따로 하는 게 그게 간장이고.)

107061 @1 간장이고.(간장이고.)

107061 #1 그 메주는 메주대로 부병 딱딱 눌러근에가 국물 잇이 딱 해근에가 퍼다 먹는 것이.(그 메주는 메주대로 부벼서 딱딱 눌러서 국물 없이 딱 해서 퍼다 먹는 것이.)

107061 @1 웬장예?(된장요?)

107061 #1 으, 웬장. 경헛주.(으, 된장. 그랬지.)

107061 @1 그 메주 담글 때 뭐 허면 안 웬다 허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수과?(그 메주 담글 때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습니까?)

107061 #1 거 금기사항은 잇는데 날, 날은 본다. 날은 본다.(거 금기사항은 없는데 날, 날은 본다. 날은 본다.)

107061 @1 메주 허는 날?(메주 하는 날?)

107061 #1 으.(으.)

107061 @1 메주 삶는 날을 보는 것과, 웬장, 장 담그는 날을 보는 것과?(메주 삶는 날을 보는 겁니까, 된장, 장 담그는 날을 보는 겁니까?)

107061 #1 웬장 담그는 날도 보고 메주 허는 날도 보고.(된장 담그는 날도 보고 메주 하는 날도 보고.)

107061 @1 아, 둘 다 보는 거?(아, 둘 다 보는 거?)

107061 #1 으, 둘 다 본다.(으, 둘 다 본다.)

107063 @1 날을 보는 거. 금기사항 따로 잇고예?(날을 보는 거. 금기사항 따로 없고요?)

107063 #1 으.(으.)

떡류

107064 @1 이제 떡 종류 물어보쿠다. 떡 종류 뭐, 뭐 잇수과?(이제 떡 종류 물어보겠습니다. 떡 종류 뭐, 뭐 잇습니까?)

107064 #1 떡은 친떡, 곤떡, 곤친떡이 잇고이.(떡은 시루떡, 흰떡, 백설기가 잇고.)

107064 @1 곤친떡.(백설기.)

107064 #1 조친떡이 잇고이.(조시루떡이 잇고.)

107064 @1 조친떡.(조시루떡.)

107064 #1 그다음에 만뒤떡²⁵⁰⁾이 잇고이.(그다음에 ‘만뒤떡’이 잇고.)

107064 @1 만뒤떡.(‘만뒤떡’.)

107064 #1 약, 약케엔 현 게 잇고.(약, 약과라고 한 게 잇고.)

250) ‘만뒤떡’은 메밀가루를 익반죽 한 후에 안에 팔소 등을 넣어서 찌낸 후에 다시 팔고물을 무친 떡을 말한다.

107064 @1 약쾌.(약과.)
107064 #1 약쾌엔 현 거 잇고 솔벤, 젤벤.(약과라고 한 거 잇고 솔편, 절편.)
107064 @1 솔벤, 절벤.(솔편, 절편.)
107064 #1 그거 잇고 또 다시 송편도 잇고.(그거 잇고 또 다시 송편도 잇고.)
107064 @1 송편도 잇고예?(송편도 잇고요?)
107064 #1 으.(으.)
107064 @1 지름떡?(기름떡?)
107064 #1 지름떡도 잇고.(기름떡도 잇고.)
107064 @1 지름떡도 잇고예. 하나씩 한 번 물어볼게예. 아까?(기름떡도 잇고요. 하나씩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07064 #1 조친, 아니 저 곤친떡.(조시루, 아니 백설기.)
107064 @1 으. 곤친떡은?(으. 백설기는?)
107064 #1 거 곤쌀로 현 건 곤친떡이엔 허고, 줍쌀로 허민 조친떡이고이.(거 흰 쌀로 한 건 백설기라고 하고, 줍쌀로 하면 조시루떡이고.)
107064 @1 으.(으.)
107064 #1 그다음엔 약쾌엔 현 게 잇저. 약쾌.(그다음엔 약과라고 한 게 있어, 약과.)
107064 @1 으.(으.)
107064 #1 그거 네모난 거세기 상웨떡.(그거 네모난 거시기 상화떡.)
107064 @1 지진 거예?(지진 거요?)
107064 #1 그다음에 만뒤떡 잇고이.(그다음에 ‘만뒤떡’ 잇고.)
107064 @1 으.(으.)
107064 #1 그다음에 이제 송편이 잇고이.(그다음에 이제 송편이 잇고.)
107064 @1 으.(으.)
107064 #1 송편이 잇고이.(송편이 잇고.)
107064 @1 그 만뒤.(그 ‘만뒤’.)
107064 #1 그다음에 솔벤 잇고이. 솔벤 잇고 젤벤 잇고.(그다음에 솔편 잇고. 솔편 잇고 절편 잇고.)
107064 @1 젤벤 잇고예?(절편 잇고요?)
107064 #1 지름떡 잇고이.(기름떡 잇고.)
107064 @1 예.(예.)
107064 #1 또 다시 이제 득세기알 정기도 잇곡이.(또 다시 이제 달걀 전도 잇고.)
107064 @1 득세기알 전기?(달걀 전?)
107064 #1 으, 건 마지막에 놓다, 건. 그거 노는 집이 싯고 아니 노는 집이 싯나.(으, 건 마지막에 놓는다, 건. 그거 놓는 집이 잇고 안 놓는 집이 있어.)
107064 @1 득세기알?(달걀?)

107064 #1 정기.(전.)
 107064 @1 득세기알 정기가 뭐라?(달걀 전이 뭐야?)
 107064 #1 거 전 지진 거. 거, 거.(거 전 지진 거. 거, 거.)
 107064 @1 아, 아. 득세기알. 고사리 놓고 파 놓고 전 지진 거.(아, 아. 달걀. 고사리 놓고 파 놓고 저 지진 거.)
 107064 #1 으, 으.(으, 으.)
 107065 @1 그럼예, 친떡부터 물어볼게예. 아까 곤친떡이 있고 조친떡이 있어예?(그럼요, 시루떡부터 물어볼게요. 아까 백설기가 있고 조시루떡이 있어요?)
 107065 #1 으, 으.(으, 으.)
 107065 @1 우선은 친떡 만드는 거 흐뭇 골아 줘서. 알아지는 대로만.(우선은 시루떡 만드는 거 조금 말해 주세요. 아는 대로만.)
 107065 #1 거 친떡은이 그 뭐인가 거 친떡 시리엔 현 게 잊져, 시리.(거 시루떡은 그 뭐인가 거 시루떡 시루라고 한 게 있어, 시루.)
 107065 @1 예, 예.(예, 예.)
 107065 #1 아래 고망 딸라진 거.(아래 구멍 뚫린 거.)
 107065 @1 예, 예.(예, 예.)
 107065 #1 그것에 뭐인가 ㄱ루를이 ㄱ루를 물 아썩 놔 가지고서이.(그것에 뭐인가 가루를 가루를 물 조금 넣어 가지고서.)
 107065 @1 예.(예.)
 107065 #1 굳지 않은 정도로이.(굳지 않을 정도로.)
 107065 @1 예.(예.)
 107065 #1 잘 허꺼 가지고 덩어리 잘 지게 잘 풀어 가지고서 흔 징²⁵¹을 놓면 이 그 위에 또 다시 이제 뭐인가 그 흔 징을 놓면은 다시 또 징을 놔야 될 거 아니가?(잘 섞어 가지고 덩어리 잘 지게 잘 풀어 가지고서 한 켜를 놓으면 그 위에 또 다시 이제 뭐인가 그 한 켜를 놓으면 다시 또 켜를 놔야 될 거 아니냐?)
 107065 @1 으.(으.)
 107065 #1 경허민 그 사이에 부트지 못허게 풋쉬를 논다. 풋쉬를 놓고 또 이제 또 아닌게 아니라 그 뭐인가 대썸도 놓는 디가 있고 주로 풋쉬를 놓주게. 풋쉬를 낱 따시 그 우에 또 다시 흔 징 놓고 두 징 놓고 해 가지고 흔 시에 흔 대여섯 징이 웬다.(그러면 그 사이에 붙지 못허게 팔소는 놓는다. 팔소를 놓고 또 이제 또 아닌 게 아니라 그 뭐인가 댓있도 놓는 데도 있고 주로 팔소를 놓지. 팔소를 놔서 또 그 위에 또 다시 한 켜 놓고 두 켜 놓고 해 가지고 한 시에 한 대여섯 켜가 된다.)
 107065 @1 으.(으.)
 107065 #1 대여섯 웨여서 그걸 찌여서 시리떡을, 걸 흔 시리엔 허주, 흔 시리. 그 찌 내영, 찌 내영 그 이제 다 찌지민 영 비와근에가 식으민 영 그 썰어 가지고

251) '징'은 시루에 떡을 찢 때 알맞은 두께로 켜를 만들어 그 사이에 소를 넣어 켜로 나누어지게 만든 것을 말한다.

서 경혜근에 떡을 친떡은 경허는 것이고.(대여섯 되어서 그걸 찌서 시루떡을, 걸 한 시루에 하지, 한 시루. 그 찌 내서, 찌 내서 그 이제 다 찌지면 이렇게 비워서 식으면 이렇게 그 썰어 가지고서 그래서 떡을 시루떡은 그러는 것이고.)

107065 @1 음.(음.)

107065 #1 또 다시 약래는 약래는.(또 다시 약과는 약과는.)

107065 @1 조친떡은?(조시루떡은?)

107065 #1 으, 조친떡도 마찬가지로.(으, 조시루떡도 마찬가지.)

107065 @1 으.(으.)

107065 #1 조친떡도이, 계난 조친떡 반, 그 저 곤친떡 반, 조친떡 반, 시릴 반반씩 허면은 그 흔꺼번에 되는 거주게. 따로 안 쳐도.(조시루떡, 그러니까 조시루떡 반, 그 저 백설기 반, 조시루떡 반, 시를 반반씩 하면 그 한꺼번에 되는 거지. 따로 안 찌도.)

107065 @1 그민 조친떡 헌텐 허는 거는 조친떡만 허는 게 아니라 곤친떡이랑 ㄱ치 험니까? 따로 허기도 허고?(그럼 조시루떡 한다고 하는 거는 조시루떡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설기랑 같이 험니까? 따로 허기도 하고?)

107065 #1 따로 허기도 허고.(따로 허기도 하고.)

107065 @1 따로 허기도 허고?(따로 허기도 하고?)

107065 #1 따로 허기도 허곡이, 또 다시 이젠 곤친떡에이 곤친떡 흔 징에이.(따로 허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젠 백설기에 백설기 한 켜에.)

107065 @1 으.(으.)

107065 #1 위에 약간 조친떡, 조 ㄱ루 영 ㄴ아 가지고서 허민이.(위에 약간 조시루떡, 조 가루 이렇게 ㄴ아 가지고서 하면.)

107065 @1 으.(으.)

107065 #1 ㄱ루 영 ㄴ아 가지고서, 아 조친떡을 미룻에 아래 ㄴ아 가지고서 흔 징이라도 반은 영 곤썰로 할 거 아니까?(가루 이렇게 ㄴ아 가지고서, 아 조시루떡을 미리 아래 ㄴ아 가지고서 한 켜라도 반은 이렇게 흰쌀로 할 거 아니냐?)

107065 @1 으.(으.)

107065 #1 겨민 사람들 보기에다 다 곤친떡으로 보이거든.(그럼 사람들 보기에다 다 백설기로 보이거든.)

107065 @1 아, 예.(아, 예.)

107065 #1 경도 헤낫저. 절약허기 위해서.(그렇게 했었어. 절약하기 위해서.)

107065 @1 쫄 엇이난?(쫄 없으니까?)

107065 #1 으, 쫄 엇이난. 경허고 또 다시 이제는 아까 식으로 따로따로도 허곡이 보통으로 겸해 가지고서 반반 허민 곤친떡으로 보이게 될 거 아니가이?(으, 쫄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이제는 아까 식으로 따로따로도 하고 보통으로 겸해 가지고서 반반 하면 백설기로 보이게 될 거 아니냐?)

107066 @1 으. 송편, 송편은 어떻 만들어?(으. 송편, 송편은 어떻게 만들어?)

107066 #1 송편은 거시기로 맨든다, 그 뭐인가 산디쌀로.(송편은 거시기로 만든다, 그 뭐인가 발벼쌀로.)

107066 @1 산디쌀로.(발벼쌀로.)

107066 #1 건 송편은 동글랑헌 거 잇잖으나?(건 송편은 동그란 거 잇잖니?)

107066 @1 예, 예.(예, 예.)

107066 #1 그거 게 송편이엔 헌다.(그거 게 송편이라고 한다.)

107066 @1 그거 산디쌀 곶아 왕 ㄱ루로.(그거 발벼쌀 곶아 와서 가루로.)

107066 #1 으, ㄱ루로. 거 손으로 만들어야 돼여. 손으로 뱅 뱅 돌령 속에 그 무신 쉬, 쉬를 놓나. 콩 개역 곶아근에도 놓을 수도 잇고 아까 그 뭐인가 그 꾹 거튼 거 놓을 수도 잇고. 경혜근에 송편 만들고.(으, 가루로. 거 손으로 만들어야 돼. 손으로 뱅 뱅 돌려서 속에 그 무슨 소, 소를 넣어. 콩 미숫가루 곶아서도 놓을 수도 잇고 아까 그 뭐인가 그 팔 같은 거 넣을 수도 잇고. 그래서 송편 만들고.)

107066 @1 으.(으.)

107068 #1 그다음에 그다음에 약케엔 헌 거 잇잖으나?(그다음에 그다음에 약과라고 한 거 잇잖아?)

107068 @1 예, 약케.(예, 약과.)

107068 #1 건 밀 ㄱ루로 만드는 것이고이.(건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107068 @1 으, 약케. 약케는 상웨떡?(으, 약과. 약과는 상화떡?)

107068 #1 으, 상웨떡.(으, 상화떡.)

107068 @1 상웨떡이랑 ㄱ튼 말이라?(상화떡과 같은 말이야?)

107068 #1 으. 상웨떡이영 ㄱ트나. 약케엔 헌 건 상에 올릴 때 약케엔 경 끝나.(으. 상화떡이랑 같아. 약과라고 한 건 상에 올릴 때 약과라고 그렇게 말해.)

107068 @1 약케는 지름에 약간 지저야 약케가 되는 거?(약과는 기름에 약간 지저야 약과가 되는 거?)

107068 #1 으, 계난 상에 올리는 건 지진다, 다.(으, 그러니까 상에 올리는 건 지진다, 다.)

107068 @1 지지는 거예?(지지는 거요?)

107068 #1 으.(으.)

107068 @1 예, 예.(예, 예.)

107074 #1 경허고 또 이제 송편, 아까 송편 다음에 또 솔벤이라는 게 잇저. 솔벤.(그리고 또 이제 송편, 아까 송편 다음에 또 솔편이라는 게 있어. 솔편.)

107074 @1 으.(으.)

107074 #1 손바닥거치 영헌 거 잇잖아이.(손바닥같이 이러한 거 잇잖아.)

107074 @1 예.(예.)

107073 #1 그거 잇고 절편은 동글랑헌 거이.(그거 잇고 절편은 동그란 거.)

107073 @1 예.(예.)

107069 #1 그건 뭐 규칙적으로 다 옛날은 다 올려났저.(그건 뭐 규칙적으로 다

옛날은 다 올렸었어.)

107069 @1 으.(으.)

107069 #1 그 외에도 뭐인가 그 그 절편 우이는 지름떡 허고.(그 외에도 뭐인가 그 그 절편 위에는 기름떡 하고.)

107069 @1 으.(으.)

107069 #1 그 우이는 또 이제 마지막에는 계란전 그거이.(그 위에는 또 이제 마지막에는 계란전 그거.)

107069 @1 케민 순서대로 곁아즙서, 상에 올리는 순서대로?(그럼 순서대로 말해 주세요. 상에 올리는 순서대로?)

107069 #1 친떡, 친떡, 처음에는 친떡이고이.(시루떡, 시루떡, 처음에는 시루떡이고.)

107069 @1 친떡. 그다음에?(시루떡. 그다음에?)

107069 #1 그다음 약케.(그다음 약과.)

107069 @1 약케.(약과.)

107069 #1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동글랑헌 거 뭐엔 헛저만은.(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동그란 거 뭐라고 했지만.)

107069 @1 동글랑헌 거 솔벤.(동그란 거 솔편.)

107069 #1 아, 송편.(아, 송편.)

107069 @1 송편.(송편.)

107069 #1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 뭐인가 만뒤떡. 만뒤떡이란 게 있져 만뒤떡.(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 뭐인가 ‘만뒤떡’, ‘만뒤떡’이란 게 있어, ‘만뒤떡’.)

107069 @1 만뒤떡은 어떤 것과?(‘만뒤떡’은 어떤 겁니까?)

107069 #1 만뒤떡은 이것도 영, 영 췌 건데, 영 똥글랑허게 영 무시거 터 가지고서 이디 영 쉬 놔근에 영, 영 허면이.(‘만뒤떡’은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동그랑게 이렇게 무엇 떠 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7069 @1 반달 모양으로?(반달 모양으로?)

107069 #1 으, 반달 모양으로 합혀진 거. 그걸 만뒤떡.(으, 반달 모양으로 합쳐진 거. 그걸 ‘만뒤떡’.)

107069 @1 으, 만뒤떡.(으, ‘만뒤떡’.)

107069 #1 그거 허고.(그거 하고.)

107069 @1 아까 친떡, 약케, 송편.(아까 시루떡, 약과, 송편.)

107069 #1 으, 송편.(으, 송편.)

107069 @1 그다음 만뒤떡.(그다음 ‘만뒤떡’.)

107069 #1 으, 만뒤떡. 그다음에는 그 외에 이제 솔변.(으, ‘만뒤떡’. 그다음에는 그 외에 이제 솔편.)

107069 @1 솔변.(솔편.)

107069 #1 절변.(절편.)

107069 @1 으, 솔변. 솔벤, 절벤예.(으, 솔편. 솔편, 절편요.)

107069 #1 으. 절변.(으. 절편.)

107069 @1 솔벤이랏수과?(솔편이었습니까?)

107069 #1 솔변, 절변.(솔편, 절편.)

107069 @1 솔변예.(솔편요.)

107069 #1 으, 표준말론 솔편, 절편 경 험다.(으, 표준말론 솔편, 절편 그렇게 한다.)

107069 @1 그 위에 지름떡?(그 위에 기름떡?)

107069 #1 으, 지름떡.(으, 기름떡.)

107069 @1 그다음에 아까 독세기알.(그다음에 아까 계란.)

107069 #1 으, 으 독세기전. 그건 노는 디도 잇고 안 노는 디도 잇고. 계란 그걸 랑 내붙어도 좋고.(으, 으 계란전. 그건 놓는 데도 잇고 안 놓는 데도 잇고. 그러니까 그거랑 내버려도 좋고.)

107069 @1 예, 그럼예, 아까 송편 만드는 거는 아까 산디솔로 행 곶아 왕.(예, 그럼요. 아까 송편 만드는 거는 아까 발벼쌀로 해서 곶아 와서.)

107069 #1 것도 허고 또 이 만뒤만, 아까 만뒤만 이 믰물솔로 허주. 그 외는 솔벤이나 절벤도 다 산뒤솔로 험다.(것도 하고 또 이 ‘만뒤’만, 아까 ‘만뒤’만 이 메밀쌀로 하지. 그 외는 솔편이나 절편도 다 발벼쌀로 한다.)

107069 @1 만뒤는 믰물솔로?(‘만뒤’는 메밀쌀로?)

107069 #1 믰물솔로.(메밀쌀로.)

107067 @1 아, 기파. 빙떡 만들어 봅서. 빙떡 만들어지지예?(아, 그렇습니까. 빙떡 만들 수 있지요?)

107067 #1 빙떡은이 거 제사엔 잘 안 올려놔져 그거.(빙떡은 거 제사엔 잘 올렸었어, 그거.)

107067 @1 아, 올리진 앓고예.(아, 올리진 앓고요.)

107067 #1 으, 올리진 안해 가지고서이.(으, 올리진 앓아 가지고서.)

107067 @1 예.(예.)

107067 #1 그날 제서 먹으레 온 사람한테 거 놓고.(그날 제사 먹으러 온 사람한테 거 놓고.)

107067 @1 만들젠 허민 뭐로 만들어 빙떡은?(만들려고 하면 뭐로 만들어 빙떡은?)

107067 #1 빙떡은 믰물솔로 저, 솟두경에서 지진다. 영.(빙떡은 메밀쌀로 저, 솔뚜경에서 지진다. 이렇게.)

107067 @1 믰물꺄루 물에 캅?(메밀가루 물에 타서?)

107067 #1 으, 믰물꺄루 물에 카근예가 약간 주걱으로 영 거령 낡 벵 허게 헤 가지고서 거 지지는 거.(으, 메밀가루 물에 타서 약간 주걱으로 이렇게 떠 놔서 벵

하게 해 가지고서 거 지지는 거.)

107067 @1 지지는 거예?(지지는 거요?)

107067 #1 으, 겐 거 속에, 속에는 무수허고 무수 삶은 거허고 그 뭐인가 이제 콩지를 삶은 거.(으, 그래서 거 속에, 속에는 무하고 무 삶은 거하고 그 뭐인가 이제 콩나물 삶은 거.)

107067 @1 으.(으.)

107067 #1 그런 거 양념해 가지고서 거 속 낱 영 동글랑헌 거에 해 가지고서 이제 이레 놔 가지고서 영 뽕뽕 마는 거 것ㄴ라 빙떡이엔 해.(그런 거 양념해 가지고서 거 속 넣어서 이렇게 동그란 거에 해 가지고서 이제 이리 놔 가지고서 이렇게 뽕 뽕 마는 거, 것보고 빙떡이라고 해.)

107067 @1 으, 빙떡. 여기 빙떡이렌 험니까, 정기렌 험니까?(으, 빙떡. 여기 빙떡이라고 험니까, '정기'라고 험니까?)

107067 #1 아, 빙떡이야.(아, 빙떡이야.)

107067 @1 여긴 빙떡이렌 곱아예?(여긴 빙떡이라고 말해요?)

107067 #1 으, 빙떡이엔 헌다.(으, 빙떡이라고 한다.)

107068 @1 그 아까 약케는 상웨떡을 약케렌 헛잖아예?(그 아까 약과는 상화떡을 약과라고 헛잖아요?)

107068 #1 으, 상웨떡.(으, 상화떡.)

107068 @1 상웨떡 지진 거. 상웨떡은 어떻 만듭니까?(상화떡 지진 거. 상화떡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68 #1 상웨떡은 밀ㄴ루, 밀ㄴ루, 밀ㄴ루에 물에 ㄴ치 거시기 헛 거 아니가? 반죽헛 적에.(상화떡은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에 물에 같이 거시기 할 거 아니냐? 반죽할 적에.)

107068 @1 예.(예.)

107068 #1 거기 뭐인가 거 막걸리가 들어간다, 막걸리. 왜 막걸리가 들어가는데 허니 막걸리는 이걸 이것을 발효시켜야 돼여.(거기 뭐인가 거 막걸리가 들어간다, 막걸리. 왜 막걸리가 들어가는데 하니 막걸리는 이걸 이것을 발효시켜야 돼.)

107068 @1 예.(예.)

107068 #1 부풀어야 돼여.(부풀어야 돼.)

107068 @1 예.(예.)

107068 #1 발효시키는 걸 우리 제춧말은 상웨떡이 잘 부껴사 아니 부껴사 보라 헌다. 거, 거 떡을 만들아근에가 영 구들 거튼이 영 췌자리에 쪽 허게 놔두면, 거 즉시 삶으면 안 돼여.(발효시키는 걸 우리 제춧말은 상화떡이 잘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보라 한다. 거, 거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들 같은 이렇게 돛자리 쪽 하게 놔두면, 거 즉시 삶으면 안 돼.)

107068 @1 예.(예.)

107068 #1 거 발효돼영 부껴사. 거 부꿀 때 삶아야 떡이 저 보각보각허는 거주.

경 안 허영 부끄지 안허민 다 땅땅행 안 돼주게.(거 발효되어서 괴어야. 거 쥘 때 삶아야 떡이 저 보각보각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서 괴지 않으면 다 탄탄해서 안 되지.)

107068 @1 으.(으.)

107068 #1 계난 그 발효시키젠 허면은 이제 그 막걸리가 들어갔져. 막걸리 사다 근에 물에 ㄴ치 탕 반죽해 가지고서 헨 만드는 거.(그러니까 그 발효시키려고 하면 이제 그 막걸리가 들어갔어. 막걸리 사다가 물에 같이 타서 반죽해 가지고서 해서 만드는 거.)

107068 @1 막걸리 사당 허기 전에는 그 보리 가져 가지고서 뭐 만들양?(막걸리 사다가 하기 전에는 그 보리 가져 가지고서 뭐 만들어서?)

107068 #1 으, 그 보리 가져 가지고서 아까이 초 멘드는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렇게 했져.(으, 그 보리 가져 가지고서 아까 초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렇게 했어.)

107068 @1 예.(예.)

107068 #1 으, 골로, 골로 해 가지고서 골 놔 가지고서 그걸.(으, 골로, 골로 해 가지고서 골 넣어 가지고서 그걸.)

107068 @1 으.(으.)

107068 #1 골 감주를 허면은 그것이 부글부글 부끄주게.(골 감주를 하면 그것이 부글부글 괴지.)

107069 @1 으, 골 감주 만들영예. 아까 제사떡 종류 순서 얘기했잖아예?(으, 골 감주 만들어서요. 아까 제사떡 종류 순서 얘기했잖아요?)

107069 #1 으.(으.)

107070 @1 제사 때 말고 상 낮을 때 어떻게?(제사 때 말고 상 낮을 때 어떻게?)

107070 #1 상 날 때도 그거는 그대로 다 올린다.(상 날 때도 그거는 그대로 다 올린다.)

107070 @1 순서는 다.(순서는 다.)

107070 #1 순서는 다 ㄴ타.(순서는 다 같아.)

107070 @1 종류도 다 같고예?(종류도 다 같고요?)

107070 #1 으, 종류도 다 똑가튼다.(으, 종류도 다 똑같아.)

107071 @1 예. 설기떡이란 게 뭐고예?(예. '설기떡'이란 게 뭔가요?)

107071 #1 설기떡이 그거 설기떡이 친떡을 설기떡이라고 보통 허주.('설기떡'이 그거 백설기 그거 시루떡을 백설기라고 보통 하지.)

107072 @1 인절미 같은 건 안 해낫수과?(인절미 같은 건 안 했었습니까?)

107072 #1 인절미, 인절미 해도 보통 그거 상에는 올리지 안허고 그냥 먹는 거.(인절미, 인절미 해도 보통 그거 상에는 올리지 않고 그냥 먹는 거.)

107072 @1 으.(으.)

107072 #1 인절미 거튼 거, 인절미는 상에 안 올려낫져. 아까 곶은 거 주로 상

에 올리고.(인절미 같은 거, 인절미는 상에 안 올렸었어. 아까 말한 거 주로 상에 올리고.)

107073 @1 음. 절벤이랑 솔벤이랑 어떻 틀립니까?(음. 절편이랑 솔편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107073 #1 그 뭐인가 절, 절벤은이, 그 솔벤이란 거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그 뭐인가 절, 절편은, 그 솔편이란 거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107073 @1 반달 모양.(반달 모양.)

107073 #1 반달 모양으로 쥘 거고이.(반달 모양으로 쥘 거고.)

107073 @1 으.(으.)

107073 #1 뭐인가 절벤은 동글랑헌 거, 동글랑헌 거 나무로 짝 찍으면 거기에 무늬가 꽃무늬가 다 올른다. 그걸 절벤이엔 허주.(뭐인가 절편은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나무로 짝 찍으면 거기에 무늬가 꽃무늬가 다 오른다. 그걸 절편이라고 하지.)

107073 @1 그니까 본 잇는 거라예. 본예, 떡본예?(그러니까 떡살 잇는 거지요. 떡살요, 떡살요?)

107073 #1 으, 잇어. 솔벤도 떡본으로 쥘 행 만드는 거 잇저.(으, 잇어. 솔편도 떡살로 쇠 해서 만드는 거 잇어.)

107073 @1 예.(예.)

107073 #1 삼가꾸²⁵²⁾ 식으로 해 가지고 딱 딱 허민.(삼각 식으로 해 가지고 딱 딱 하면.)

107073 @1 찍는 거예?(찍는 거요?)

107073 #1 으, 만뒤떡은 손으로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고이. 거 또 약케는이 또 다시 이렇게 거세기 해 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뭐인가 손 본으로 떠근에가 경헌다. (으, ‘만뒤떡’은 손으로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고. 거 또 약과는 또 다시 이렇게 거시기 해 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뭐인가 손 떡살로 떠서 그런다.)

107073 @1 떠 가지고예?(떠 가지고요?)

107073 #1 네모난 거, 약케는 네모난 거.(네모난 거, 약과는 네모난 거.)

107073 @1 약케는 네모난 걸로, 그것도 약케도 뜨는 것과?(약과는 네모난 걸로, 그것도 약과도 뜨는 것과?)

107073 #1 으. 그걸로.(으, 그걸로.)

107075 @1 여기 우끼떡이렌 험니까, 우찌떡이렌 험니까? 지름떡 같은 거, 맨 위에 올리는 거?(여기 ‘우끼떡’이라고 험니까, ‘우찌떡’이라고 험니까? 기름떡 같은 거, 맨 위에 올리는 거?)

107075 #1 거 웃케떡이엔, 우로 쥘다는 말이지. 쥘다는.(거 ‘웃케떡’이라고 위로 쥘다는 말이지. 쥘다는.)

107075 @1 아.(아.)

107075 #1 쥘야 쥘다.(쥘야 쥘다.)

252) ‘삼가꾸’는 ‘삼+가꾸’의 구성으로 여기서 ‘가꾸’는 일본어 ‘かく(角)’로 ‘각’의 의미다.

107075 @1 아, 우케떡이엔 곶을 거예. 우케떡으로 지름떡을 쓰는 거?(아, 웃기떡이라고 말할 거요. 웃기떡으로 기름떡을 쓰는 거?)

107075 #1 으.(으.)

107076 @1 지름떡예. 고사나 당에 가져갈 때는 떡은 뭐라?(기름떡요. 고사나 당에 가져갈 때는 떡은 뭐야?)

107076 #1 당에 갈 때는이 거는이 거 뭐인가, 백돌레를 한다.(당에 갈 때는 거는 거 뭐인가, 도래떡을 한다.)

107076 @1 으.(으.)

107076 #1 백돌, 그 동글랑헌 거이, 곤쌀로 반허고이 므물쌀로 반허고. 므물쌀은 웨 허는고 허니, 원칙에는 곤쌀로 다 할 건데, 절약허기 위해서 그거 곤쌀 이렇게 동글랑헌 떡.(도래, 그 동그란 거, 흰쌀로 반하고 메밀쌀로 반하고. 메밀쌀은 왜 하는가 하니, 원칙에는 흰쌀로 다 할 건데, 절약하기 위해서 그거 흰쌀 이렇게 동그란 떡.)

107076 @1 동글랑헌 거.(동그란 거.)

107076 #1 두껍게 해 가지고서 그거 두 개, 두 종류만 한다. 므물쌀 동글랑헌 거 그거허고.(두껍게 해 가지고서 그거 두 개, 두 종류만 한다. 메밀쌀 동그란 거 그거허고.)

107076 @1 그 떡을 당떡이엔 헐 거과 돌레떡이엔 헐 것과?(그 떡을 ‘당떡’이라고 할 겁니까 ‘돌레떡’이라고 할 것과?)

107076 #1 돌레떡인데 당에 가니까 당떡²⁵³이엔 허는 거주, 돌레떡.(도래떡인데 당에 가니까 ‘당떡’이라고 하는 거지, 도래떡.)

107076 @1 아, 돌레떡.(아, 도래떡.)

107076 #1 계난 당에 갈 거니까 당떡이엔 허주, 동글랑헌 그 두껍게 해 가지고서.(그러니까 당에 갈 거니까 ‘당떡’이라고 하지, 동그란 그 두껍게 해 가지고서.)

107076 @1 그민 그거 굻떡이엔도 허고?(그럼 그거 ‘굻떡’이라고도 하고?)

107076 #1 으, 굻 할 때도 그런 떡을 한다.(으, 굻 할 때도 그런 떡을 한다.)

107077 @1 굻떡, 돌레떡, 당떡. 상황에 맞게 다 쓰는 말예?(‘굻떡’, 도래떡, ‘당떡’. 상황에 맞게 다 쓰는 말요?)

107077 #1 으, 으. 다 쓴다.(으, 으. 다 쓴다.)

107077 @1 말헌 거 말고 다른 떡들은 엇잖아예. 다 곶앗잖아예?(말한 거 말고 다른 떡들은 엇잖아요. 다 말했잖아요?)

107077 #1 다른 떡은이 그 물떡²⁵⁴이란 게 있어났저, 물떡.(다른 떡은 그 ‘물떡’이란 게 있었어, ‘물떡’.)

107077 @1 물떡이 뭐과?(‘물떡’이 뭇니까?)

107077 #1 물떡이란 게, 한동은 물떡이 옛날엔이 영장나민이 옛날은 들에 강 밥

253) ‘당떡’은 당에 갈 때 만들어 가서 제물로 올리는 떡을 말한다.

254)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팔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을 말한다.

허지 못해나지 안하시냐?(‘물떡’이란 게, 한동은 ‘물떡’이 옛날에 초상나면 옛날은 들에 가서 밥 하지 못했었지 않니?)

107077 @1 으.(으.)

107077 #1 게난 물떡이엔 현 건이 므물쫄로 해 가지고서 아까 그 뭐인가 그 만 뒤떡 모양으로 막 두껍게 막 두껍나. 게니까 그거 만뒤떡 열 개 더 돼주, 그거.(그러니까 ‘물떡’이라고 한 건 메밀쌀로 해 가지고서 아까 그 뭐인가 그 ‘만뒤떡’ 모양으로 아주 두껍게 아주 두꺼워. 그러니까 그거 ‘만뒤떡’ 열 개 더 되지, 그거.)

107077 @1 으.(으.)

107077 #1 열 개 분량도 더 돼여. 경혜 가지고서 영장에 가근에 밥 대신 그걸 세 개씩 그 혼 순, 혼 사람안티 세 개씩 테와났저. 그건 물떡이엔 해근에. 게난 그것 세 개 먹으면 노동, 일 허는 것이 다 보충이 되는 거라. 그거 먹으면.(열 개 분량도 더 돼. 그래 가지고서 장사에 가서 밥 대신 그걸 세 개씩 그 한 순, 한 사람한테 세 개씩 나눠 줬었어. 그건 ‘물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 세 개 먹으면 노동, 일 허는 것이 다 보충이 되는 거야. 그거 먹으면.)

107077 @1 아, 만뒤떡을 완전 크게 만들안?(아, ‘만뒤떡’을 완전 크게 만들었어?)

107077 #1 으, 그게 물떡이엔 현다. 크게, 만뒤떡은 므물ㄴ룬데 크게 만들양, 두껍고 크게 만들양 그디 쉬, 쉬는 주로 그 뭐인가 무수를 만이 낫주, 무수를.(으, 그게 ‘물떡’이라고 한다. 크게, ‘만뒤떡’은 메밀가루데 크게 만들어서, 두껍고 크게 만들어서 거기 소, 소는 주로 그 뭐인가 무를 많이 넣었어, 무를.)

107077 @1 아, 무수를 쉬 낫.(아, 무를 소 넣어서.)

107077 #1 웨 무술 낫는가 허면이 그디 쉬 다 놓젠 허민 옛날은 돈이 만이 드니까이 무수를 논 거라. 헐헐 거로.(왜 물 넣었는가 하면 거기 소 다 넣으려고 하면 옛날은 돈이 많이 드니까 무를 넣은 거야. 짠 거로.)

소와 고물

107079 @1 그럼 쉬 놓젠 허면 그 쉬로 사용했던 것은 뭐 잇수과?(그럼 소 넣으려고 하면 그 소로 사용했던 것은 뭐 있습니까?)

107079 #1 쉬로 사용했던 것은이 아까 쉬로 사용했던 것은 대충 뭐인가 그 풋쉬.(소로 사용했던 것은 아까 소로 사용했던 것은 대충 뭐인가 그 팔소.)

107079 @1 풋쉬.(팔소.)

107079 #1 콩 개역.(콩 미숫가루.)

107079 @1 콩 개역.(콩 미숫가루.)

107079 #1 콩 개역허고 또 다시 이제 뭐 무수.(콩 미숫가루하고 또 다시 이제 뭐 무.)

107079 @1 무수. 무수도 쉬로 사용허고. 아, 빙떡도 무수?(무, 무도 소로 사용하고. 아, 빙떡도 무?)

107079 #1 무수 만이 들어간다. 빙떡도.(무 많이 들어간다. 빙떡도.)

107079 @1 팻 거의 대부분 팻이랑 콩이라예?(팻 거의 대부분 팻이랑 콩이랑 요?)

107079 #1 으.(으.)

107079 @1 고물로도 사용하고 쉬로도 사용하고?(고물로도 사용하고 소로도 사용하고?)

107079 #1 으, 으. 쉬로 사용하고.(으, 으. 소로 사용하고.)

107081 @1 떡 만들 때 뭐 허지 말라 허는 건 엇어났지예?(떡 만들 때 뭐 하지 말라 하는 건 없었지요?)

107081 #1 계난 떡 다루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엇는데 친떡을 헐 적에는이.(그러니까 떡 다루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시루떡을 할 적에는.)

107081 @1 예.(예.)

107081 #1 그 친떡을 헐 적에는 이제는 군소리도 말아야 되고, 처음에 들어왔은 사람이 끝까지 쳐야 된다.(그 시루떡을 할 적에는 이제는 군소리도 말아야 되고, 처음에 들어왔은 사람이 끝까지 찌야 된다.)

107081 @1 아니 건 무사과?(아니 건 왜입니까?)

107081 #1 경 안 허민 떡이 잘 안 익영 비비빅 한 쪽으로만 짐 나면서이 떡이 잘 안 익주게.(그렇게 안 하면 떡이 잘 안 익어서 비비빅 한 쪽으로만 짐 나면서 떡이 잘 안 익지.)

107081 @1 으.(으.)

107081 #1 경허민이 떡 잘 치는 사름이 거 선발행 한다, 것도. 거 아무나 허는 것이 아니라.(그러면 떡 잘 찌는 사람이 거 선발해서 한다, 것도.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107081 @1 아, 기과? 친떡 치는 거마찌?(아, 그렇습니까? 시루떡 찌는 거요?)

107081 #1 친떡 치는 거 잘못허민이 혼 쪽만 익고 혼 쪽이 안 익을 수도 잇잖아. 계난 안 익어 불민 거 생떡이난 거 버려야 되는 거.(시루떡 찌는 거 잘못하면 한 쪽만 익고 한 쪽이 안 익을 수도 잇잖아. 그러니까 안 익어 버리면 거 생떡이니까 거 버려야 되는 거.)

107081 @1 아.(아.)

107081 #1 경혜부난에 상당히 정성이 친떡 칠 땐 경한다.(그러니까 상당히 정성이 시루떡 찌 땐 그런다.)

107081 @1 아.(아.)

107081 #1 막 익엄저, 안 익엄저 군소리 말고 부엌에 강.(마구 익는다, 안 익는다, 군소리 말고 부엌에 가서.)

107081 @1 군소리 말고.(군소리 말고.)

107081 #1 이딘 주로 정지, 정지 헛주게. 정지에 강 쓸데기엇는 말도 허지 말고 그 처음에 불 숨은 사람이 끝까지.(여긴 주로 부엌, 부엌 했지. 부엌에 가서 쓸데없

는 말도 하지 말고 그 처음에 불 때는 사람이 끝까지.)

107081 @1 아, 친떡 칠 때?(아, 시루떡 찢 때?)

107081 #1 으, 친떡 칠 때 경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으, 시루떡 찢 때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별식

107082 @1 음식 마지막으로 별식 물어보쿠다. 순대 만들어 먹었잖아예, 순대렌 헛수과, 수에렌 헛수과?(음식 마지막으로 별식 물어보겠습니다. 순대 만들어 먹었었잖아요, 순대라고 했습니까, ‘수에’라고 했습니까?)

107082 #1 수에, 수에.(‘수에’, 순대.)

107082 @1 으, 수에 만들앙 먹었잖아예, 수에 어떻 만들앗수과?(으, 순대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순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82 #1 수에는, 수에는 어떻게 만드느고 허니 그 도야지 저 뭐인가 베설 있지 안허느냐이?(순대는, 순대는 어떻게 만드느가 하니 그 돼지 저 뭐인가 창자 있지 않니?)

107082 @1 으.(으.)

107082 #1 도야지 베설, 큰베설이 있저.(돼지 창자, 큰창자가 있어.)

107082 @1 으.(으.)

107082 #1 큰베설에 그것을 분량을 만이 거세기 허면은이, 허젠 허면은 대창을 대창 거튼 거, 대창은 두껍주. 대창을 막 즐게 썰어근에가이 므물궤루와 쫄 거튼 거 막 논다. 거 저 뭐인가 대개 찹쌀도 놓고 산디쌀도 놓고 그 물 맞게 해 가지고서 그디 양념을, 그 뭐인가 부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놔 가지고서이 거 막 버무려 가지고서 버무려 가지고서 그 도야지 베설 큰베설덜 있저. 여, 이렇게 현 디 그 속에 막 담아근에가이 담아근에 삶아근에 그거 수에엔 헨 썰엉 먹으면 막 맛 좋주게. (큰창자에 그것을 분량을 많이 거시기 하면, 하려고 하면 대창을 대창 같은 거, 대창은 두껍지. 대창을 아주 잘게 썰어서 메밀가루와 쌀 같은 거 마구 넣는다. 거 저 뭐인가 대개 찹쌀도 넣고 발벼쌀도 넣고 그 물 맞게 해 가지고서 거기 양념을, 그 뭐인가 부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넣어 가지고서 거 마구 버무려 가지고서 버무려 가지고서 그 돼지 창자 큰창자들 있어. 여, 이렇게 한 데 그 속에 마구 담아서 담아서 삶아서 그거 순대라고 해서 썰어서 먹으면 아주 맛 좋지.)

107082 @1 으, 게민 그 피에 돼지 피에?(으, 그럼 그 피에 돼지 피에?)

107082 #1 으, 돼지 피에 버무린다.(으, 돼지 피에 버무린다.)

107082 @1 뭇, 므물궤루 낱?(뭇, 메밀가루 넣어서?)

107082 #1 므물궤루 아까, 궤 나 므물궤루에 양념 다 낱 피에 경 버무렁, 버무렁 그것에 베설 속에 담아 가지고서 그거 딱 무끈다. 흔 쪽은 무경 나오지 못허게, 쟁 삶앙 경헨에 수에 맛있게 행덜 먹고이.(메밀가루 아까, 아까 나 메밀가루에 양념 다 넣어서 피에 그렇게 버무려서, 버무려서 그것에 창자 속에 담아 가지고서

그거 딱 묶는다. 한 쪽은 묶어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삶아서 그러해서 순대 맛있게 해서들 먹고.)

107082 @1 무슨 날 수에를 행 먹어났수과?(무슨 날 순대를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82 #1 이디서 특별히 수에를 뭐 따로 해 먹어나지 안했져. 그자 집에서이 옛날은 돛제²⁵⁵를 해낫주, 돛제.(여기서 특별히 순대를 뭐 따로 해 먹지 않았어. 그자 집에서 옛날은 ‘돛제’를 했었어, ‘돛제’.)

107082 @1 으.(으.)

107082 #1 지금 저 김녕리 지금도 계속 한다. 우리 한동도 많이 해낫져.(지금 저 김녕리 지금도 계속 한다. 우리 한동도 많이 했었어.)

107082 @1 돛제 한동도 해낫수과?(‘돛제’ 한동도 했었습니까?)

107082 #1 해낫져, 한동도. 이젠 설릿주만은이. 그 돛제 구신이 이제 김녕이라.(했었어, 한동도. 이젠 그만됐지만. 그 ‘돛제’ 귀신이 이제 김녕이야.)

107082 @1 예, 예.(예, 예.)

107082 #1 김녕허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잇는 사름이 돛제를 해 가지고, 일년에 혼 번 꼭 돛제를 했져. 돛제를 허면이 그때는 이제 그 베설 거튼 거 아까 식으로이 수에 헨 맛있게 나뉘 먹고이.(김녕허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잇는 사름이 ‘돛제’를 해 가지고, 일 년에 한 번 꼭 ‘돛제’를 했어. ‘돛제’를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창자 같은 거 아까 식으로 순대 해서 맛있게 나뉘서 먹고.)

107082 @1 으.(으.)

107082 #1 큰일 때는이 수에가 적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엇주게. 돛제 거튼 거 할 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큰일 때는 순대가 적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지. ‘돛제’ 같은 거 할 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107082 @1 아, 돛제 때가 오히려 큰일 때보다 수에를 더 많이 해낫어?(아, ‘돛제’ 때가 오히려 큰일 때보다 순대를 더 많이 했었어?)

107082 #1 아니, 만이는 안 했지만은 그 큰일이 아니니까 돛제 때는 동네 사름 베끼 안 오니까 게니까 풍족하게 먹주, 그 수에를.(아니, 만이는 안 했지만 그 큰일이 아니니까 ‘돛제’ 때는 동네 사람밖에 안 오니까 게니까 풍족하게 먹지, 그 순대를.)

107082 @1 아. 돛제는 언제 허는 것과?(아. ‘돛제’는 언제 하는 겁니까?)

107082 #1 주로 정월달에 많이 했져.(주로 정월달에 많이 했어.)

107082 @1 정월달에. 아무튼 김녕 쪽이랑 관련 잇는 사름덜이라예, 시집오거나 아니면?(정월달에. 아무튼 김녕 쪽이랑 관련 잇는 사름들이지요, 시집오거나 아니면?)

107082 #1 으, 그 신을 섬기는 사름들.(으, 그 신을 섬기는 사름들.)

107083 @1 아, 한동도 돛제 해낫구나예. 두부, 둠비렌 곶앗수과?(아, 한동도 ‘돛

255) ‘돛제’는 돼지고기를 받아먹는 분향신을 청하여 돼지고기를 바쳐 기원하는 의례를 말한다.

제’ 했었군요. 두부, ‘뚝비’라고 말했습니까?)

107083 #1 으, 거 뚝비는 옛날 여기서 만들었저. 그 뭐인가 콩을이 여기서 콩을 그 뭐인가 그 뭐인가 돌궤에 굴 거 아니냐? 돌궤에 궤로 굴아 가지고서이 그것을, 그것을 이제 큰 솥디 놔근에 그것을 막 삶는다.(으, 거 두부는 옛날 여기서 만들었어. 그 뭐인가 콩을 여기서 콩을 그 뭐인가 그 뭐인가 맷돌에 갈 거 아니냐? 맷돌에 맷돌로 갈아 가지고서 그것을, 그것을 이제 큰 솥에 놔서 그것을 마구 삶는다.)

107083 @1 으.(으.)

107083 #1 게민, 콩이 다 익을 거 아니냐?(그럼, 콩이 다 익을 거 아니냐?)

107083 @1 음.(음.)

107083 #1 익으면은 그 이젠 뭐인가 그 물을 하영 놓주.(익으면 그 이젠 뭐인가 그 물을 많이 넣지.)

107083 @1 으.(으.)

107083 #1 게난 그 반죽된 그 물을, 물만 남을 거 아니냐? 게난 물을 반죽된 삶은 물을 갖다가 그 저 뭐인가 그 천 놔 가지고서 옛날 베나 무시거 베 험벅이나 영 놔 가지고서 그걸이 그 물만 알려레 굴라왔게 험다. 경혜 가지고 그 우에는 비지, 비지엔 험 게 잊지 안허냐? (그러니까 그 반죽된 그 물을, 물만 남을 거 아니냐? 게니까 물을 반죽된 삶은 물을 갖다가 그 저 뭐인가 그 천 놔 가지고서 옛날 베나 무엇 베 형겘이나 이렇게 놔 가지고서 그걸 그 물만 아래로 가라왔게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는 비지, 비지라고 한 게 잊지 않냐?)

107083 @1 으.(으.)

107083 #1 콩 찌꺼지가 그건 따로 걸러 불고 그 아래에 내린 물을 갖다가이, 물을 갖다가이, 그 뭐인가 통에 놔 가지고서이 알로 그 뭐인가 통에 이렇게 진진험 통을 놔 가지고서 알로 다 고냥이 뭐인가 뚫어졌지. 게난 그걸이 그디 낱 놔두민 그 물은이, 그 미세험 물은 알로 흘러 버리고 그 우이 남는 것은 콩 삶아진 게 남을 거 아니냐? 그것이 거 어느 정도 쳐지면 그 우이 거세기 더핀다. 나무로 영 나무로 딱 더핑 지들르지.(콩 찌꺼기가 그건 따로 걸러 버리고 그 아래에 내린 물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그 뭐인가 통에 놔 가지고서 아래로 그 뭐인가 통에 이렇게 길디긴 통에 놔 가지고서 아래로 다 구멍이 뭐인가 뚫렸지. 그러니까 그걸 거기 넣어 놔두면 그 물은, 그 미세한 물은 아래로 흘러 버리고 그 위에 남는 것은 콩 삶아진 게 남을 거 아니냐? 그것이 거 어느 정도 쳐지면 그 위에 거시기 덮는다.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딱 덮어서 지지르지.)

107083 @1 으.(으.)

107083 #1 궤로 영 지들르민 그 압력으로 헤 가지고서. 그 물은 다 빠지고 그 저 그 콩 삶아진 게 탄탄하게 굳어 가는 거. 거 굳어, 멧 시간 뒤편근에 허면은 뚝비가 뒤편 가지고서 그걸 사용, 큰일 때 다 그것 사용해신에.(맷돌로 이렇게 지지르면 그 압력으로 헤 가지고서. 그 물은 다 빠지고 그 저 그 콩 삶아진 게 탄탄하게

굳어 가는 거. 거 굳어, 몇 시간 되어서 하면 두부가 되어 가지고서 그걸 사용, 큰 일 때 다 그것 사용했어.)

107083 @1 으.(으.)

107083 #1 다 자가로 자죽했저.(다 자가로 자죽했어.)

107083 @1 만들어. 집이서예?(만들어. 집에서요?)

107083 #1 집이서.(집에서.)

107083 @1 그럼 한, 물 빠지는 건 한 반나절이던 될 건가?(그럼 한, 물 빠지는 건 한 반나절이던 될 건가?)

107083 #1 혼 반나절은 걸려야 돼. 허젠 허민 미릿 아시날, 널 허젠 허민 오닐 다 해야 돼여.(한 반나절은 걸려야 돼. 하려고 하면 미리 전날, 널 하려고 하면 오늘 다 해야 돼.)

107084 @1 미리 다 해예. 묵, 묵. 묵은 종류가 뭐 있어났수과?(미리 다 해요. 묵, 묵. 묵은 종류가 뭐 있었습니까?)

107084 #1 묵은 그냥 그 기자 그 묵 종류는이 기자 그 쭈는 묵도 있고이 청묵²⁵⁶)이란 게 있저.(묵은 그냥 그 그저 그 묵 종류는 그저 그 쭈는 묵도 있고 ‘청묵’이란 게 있어.)

107085 @1 예, 청묵 만들젠 허민 청묵은 어떻 만듭니까?(예, ‘청묵’ 만들려고 하면 ‘청묵’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85 #1 청묵 만들젠 허민이 그 뭐인가 곤 ㄱ루로이 ㅁ물쌀 곤 ㄱ루로이 고운 ㄱ루로 막 ㄱ루 쳐 가지고서이 물을 얇게 해 가지고 그 묵을 쏜다.(‘청묵’ 만들려고 하면 그 뭐인가 곤 가루로 메밀쌀 곤 가루로 고운 가루로 마구 가루 쳐 가지고서 물을 얇게 해 가지고 그 묵을 쏜다.)

107085 @1 으.(으.)

107085 #1 얇게 묵을 썬 가지고 그 묵을 채 닦은 거에 영 헤영 바쳐 가지고서이 그거 헤근에가 그거 굳으면은 혈랑혈랑²⁵⁷) 허주게. 기자 묵은 딱딱허지 안 허느냐이?(얇게 묵을 썬 가지고 그 묵을 채 닦은 거에 이렇게 해서 받쳐 가지고 그거 해서 그거 굳으면 ‘혈랑혈랑’ 하지. 그저 묵은 딱딱하지 않니?)

107085 @1 예.(예.)

107085 #1 혈랑혈랑 헤영 것ㄱ라 청묵이엔 헤 가지고서 거 좀 정성허지 않은 사름은 거 잘 못허주게.(‘혈랑혈랑’ 해서 것보고 ‘청묵’이라고 해 가지고서 거 좀 정성하지 않은 사름은 거 잘 못하지.)

107085 @1 예.(예.)

107085 #1 게난 정성 들영, 것ㄱ라 청묵이엔 헤근에.(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것보고 ‘청묵’이라고 해서.)

107085 @1 ㅁ물묵은 그냥 ㅁ물ㄱ루로 허는 거지예?(메밀묵은 그냥 메밀가루로

256) ‘청묵’은 메밀쌀 등을 물에 담갔다가 짜낸 물로 쏜 묵을 말한다.

257) ‘혈랑혈랑’은 단단하게 굳지 않고 힘이 없어 뭉그러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하는 거지요?)

107085 #1 청목도 므물ㄱ루, 그냥 목도 므물ㄱ루.(‘청목’도 메밀가루, 그냥 목도 메밀가루.)

107085 @1 청목은 므물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과?(‘청목’은 메밀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7085 #1 으, 므물쌀로.(으, 메밀쌀로.)

107084 @1 그냥 목은 므물ㄱ루로 허고.(그냥 목은 메밀가루로 하고.)

107084 #1 으, 므물ㄱ루 따로.(으, 메밀가루 따로.)

107086 @1 미숫ㄱ루, 미숫ㄱ루?(미숫가루, 미숫가루?)

107086 #1 으, 미숫ㄱ루엔 허는 건이.(으, 미숫가루라고 하는 건.)

107086 @1 여기선 뭐렌 곶앗수과?(여기선 뭐라고 말했습니까?)

107086 #1 보리 보까근예가, 그 저 개역, 개역이 미숫ㄱ루여.(보리 볶아서, 그 저 미숫가루, ‘개역’이 미숫가루야.)

107086 @1 예, 예. 개역 만들젠 허민 어떻 허여?(예, 예. 미숫가루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7086 #1 개역 만들젠 허민 그 보리를 솥에 보끌 거 아니가이?(미숫가루 만들려고 하면 그 보리를 솥에 볶을 거 아니냐?)

107086 @1 예.(예.)

107086 #1 솥에 보까근예가이 그 돌ㄱ레에 막 곶아근예가이 그걸 우이 꺼끄레 기덜 싯지 안허느냐? 거 ㄱ는체로 친다. 막 즘진 ㄱ루체로 치면은 우이 꺾테기가 다 걸히고 아랫 것만 나올 거 아니가? 경허면은 여름에 그거 집이서 하영 행 낫다가 여름에는 그 남저덜이 밧 갈레 들에 강 밤도 자낫서. 경허면은 밥 대신 그거 개역을 타근에 물에 행 물 먹듯 먹고.(솥에 볶아서 그 멧돌에 마구 갈아서 그걸 위에 까끄라기들 있지 않니? 거 가는체로 친다. 아주 가는 가루체로 치면 위에 꺾테기가 다 걸어지고 아래 것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여름에 그거 집에서 많이 해서 낫다가 여름에는 그 남자들이 밧 갈러 들에 가서 밤도 잤었어. 그러면 밥 대신 그거 미숫가루를 타서 물에 해서 물 먹듯 먹고.)

107086 @1 예.(예.)

107086 #1 또 이제 밥에 개역 버무령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아낫서.(또 이제 밥에 미숫가루 버무리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았었어.)

107086 @1 하하.(하하.)

107086 #1 게 그게 미숫ㄱ루여. 제주도는 하영 행 먹어낫주.(그래 그게 미숫가루야. 제주도는 많이 해서 먹었었지.)

107086 @1 하영 행 먹어난예. 보리만 보깡.(많이 해서 먹었었어요. 보리만 볶아서.)

107086 #1 콩도 보까근예 그것도 웬다, 콩.(콩도 볶아서 그것도 된다, 콩.)

107086 @1 아.(아.)

107086 #1 콩은 저 귀혜부난에, 그땐 보리만이 아니 헛주게.(콩은 저 귀하니까, 그땐 보리만이 안 했지.)

107086 @1 아.(아.)

107086 #1 콩 개역이 더 맛있주.(콩 미숫가루가 더 맛있지.)

107086 @1 고소행.(고소해서.)

107086 #1 으.(으.)

107087 @1 그지예. 지짐이도 행 먹어났수과?(그렇죠. 지짐이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87 #1 으. 지짐이도 행 먹어나신예, 그 뭐인가.(으. 지짐이도 해서 먹었었어요, 그 뭐인가.)

107087 @1 뭐 낱?(뭐 넣어서?)

107087 #1 겨울에 심심하면 말야, 그 뭐인가 빙도, 빙 말앙 그냥 두껍게 해 가지고 그거 그냥 부추도 넣고 그냥 그 페마농 해영 우이 그런 것도 썰영 뇌근에가 이 솟뚜껍이서 두껍게 행 심심허민 밤에 간식으로 먹어나신에게.(겨울에 심심하면 말야, 그 뭐인가 빙떡도, 빙떡 말아서 그냥 두껍게 해 가지고 그거 그냥 부추도 넣고 그냥 그 파 해서 위에 그런 것도 썰어서 넣어서 솟뚜껍에서 두껍게 해서 심심하면 밤에 간식으로 먹었었어.)

107088 @1 오메기술²⁵⁸ 어땡 담갔는지 알아지쿠과?(‘오메기술’ 어떻게 담갔는지 알겠습니까?)

107088 #1 오메기술은 그거 뭐 그 술은 거 덤그는 건이 오메기²⁵⁹엔 현 건이 흐린, 흐린좁쌀이 잇저, 흐린좁쌀, 출진.(‘오메기술’은 그거 뭐 그 술은 거 담그는 건 ‘오메기’라고 한 건 흐린, 차조가 있어, 차조, 찰진.)

107088 @1 예.(예.)

107088 #1 그걸로 덤그는 게 거 오메기술이여.(그걸로 담그는 게 거 ‘오메기술’ 이야.)

107088 @1 아.(아.)

107088 #1 흐린좁쌀로 덤근 게 오메기술.(차조로 담근 게 ‘오메기술’.)

107089 @1 흐린좁쌀로 담그는 거. 쉰다리²⁶⁰는?(차조로 담그는 거. ‘쉰다리’는?)

107089 #1 쉰다리는 밥이 으름에 쉰 거 아니가이? 밥이 으름에 쉬면 그 밥 쉰 것에 아까 그 뭐인가 발효현 거 그 골 이잖으냐이?(‘쉰다리’는 밥이 여름에 쉰 거 아니냐? 밥이 여름에 쉬면 그 밥 쉰 것에 아까 그 뭐인가 발효한 거 그 골 있잖아?)

258) ‘오메기술’은 좁쌀로 빳은 술을 말한다. 이것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떡으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59) ‘오메기’는 떡 이름의 하나다.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글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으로 팔고물을 무치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 ‘오메기 떡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260)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근 음료를 말한다.

107089 @1 으.(으.)

107089 #1 그 골을 밥 씌 것에이 논다. 농곡 물 흥쌀 낱 허민 그게 골이 들어갓기 때문에 발효될 거 아니가이. 발효되면 그거 끝린다. 끌려근에가 걸 먹어나세. 그 걸 끌렁 먹으면은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냥 내버리면은 쉰다리가 거 초가 되는 거라.(그 골을 밥 씌 것에 넣는다. 넣고 물 조금 넣어서 하면 그게 골이 들어갓기 때문에 발효될 거 아니냐. 발효되면 그거 끓인다. 끓여서 걸 먹었었어. 그걸 끓여서 먹으면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냥 내버리면 ‘쉰다리’가 거 초가 되는 거야.)

107089 @1 아.(아.)

107089 #1 그 쉰다리가 초가 되는 거.(그 ‘쉰다리’가 초가 되는 거.)

107089 @1 초가 되는 거예. 그거 감주?(초가 되는 거요. 그거 감주?)

107089 #1 으, 으. 게 가지고서 게 가지고 옛날은 밥이 쉬도 아니 버렸주게. 그것에, 그것이 골이, 발효제가 들어가면은 거 발효되면은 걸 솥에서 기자 그 끌렁 먹으면 쉰다리 되는 거라.(으, 으. 그래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옛날은 밥이 쉬도 안 버렸지. 그것에 그것이 골이, 발효제가 들어가면 거 발효되면 걸 솥에서 그저 그 끓여서 먹으면 ‘쉰다리’ 되는 거야.)

107089 @1 골이라는 건 뭘 골이엔 허는 것과?(골이라는 건 뭘 골이라고 하는 겁니까?)

107089 #1 건 피보리엔 현 보리 잇저.(건 걸보리라고 하는 보리 있어.)

107089 @1 예.(예.)

107089 #1 보리를 그 피보리엔 현 것들이, 걸 그 콩지름 놓듯이 물에 거 서꺼근에 걸 내와근에가.(보리를 그 걸보리라고 한 것들, 걸 그 콩기름 놓듯이 물에 거 섞어서 걸 나게 해서.)

107089 @1 예.(예.)

107089 #1 그걸 싹이 트게 해근에 싹이 요만씩 나오게 행 물려, 물려 부는 거여. 싹이 너무 크게 나오면 안 돼지.(그걸 싹이 트게 해서 싹이 요만큼씩 나오게 해서 말려, 말려 버리는 거요. 싹이 너무 크게 나오면 안 되지.)

107089 @1 예.(예.)

107089 #1 경혜근에 그게 골이엔 현다.(그래서 그게 골이라고 한다.)

107089 @1 아, 그 싹 난 걸 골이엔 허는 거마씨?(아, 그 싹 난 걸 골이라고 하는 거요?)

107089 #1 으.(으.)

107089 @1 그 피보리 해 가지고?(그 걸보리 해 가지고?)

107089 #1 으. 피보리로 현 거. 피보리 엮으면은 밀로도 헛저만은 밀로는 잘 발효가 안 돼어근에 피보리라사 되는 거.(으. 걸보리로 한 거. 걸보리 없으면 밀로도 했지만 밀로는 잘 발효가 안 되어서 걸보리여야 되는 거.)

107089 @1 아. 게민 어쨌든 그 골을 만들양 놔두면 골감주 헐 때나 그것에 물 넣어 가지고.(아. 그럼 어쨌든 그 골을 만들어서 놔두면 골감주를 할 때나 그것에

물 넣어 가지고.)

107089 #1 계난 맥주엔 헛 게 잇잖으냐?(그러니까 맥주라고 한 게 잇잖아?)

107089 @1 예.(예.)

107089 #1 그 피보리가 맥이, 맥주맥이여, 그게 맥주라. 계난 그걸로 맥주를 만들고 발효를 시키는 게 그거.(그 걸보리가 맥이, 맥주맥이야, 그게 맥주야. 그러니까 그걸로 맥주를 만들고 발효를 시키는 게 그거.)

107090 @1 으. 누룩은, 누룩은 어떻 만듭니까?(으. 누룩은, 누룩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90 #1 누룩은 건 밀하고 그 뭐인가 그 골하고 그치 서꺼근에가이 서꺼 가지고 발효, 동글랑허게 멘들아근에가 그거 발효된민이 그 저 뭐인가 물론다, 물류와.(누룩은 건 밀하고 그 뭐인가 그 골하고 같이 섞어서 섞어 가지고 발효, 동그랑게 만들어서 그거 발효되면 그 저 뭐인가 말린다, 말려.)

107090 @1 으.(으.)

107090 #1 물류와근에가 그거 이제 골 감주 허게, 허젠 허면은 그걸 근다, 그 뭐인가 발효된 누룩을 곁아 가지고서 물에 영 놔 가지고서 이제 발효된근에가 그 체로 바쳐근에 그 우이 누룩은 쳐질 거 아니냐. 아래 나온 게 그거 골 감주.(말려서 그거 이제 골 감주 하게, 하려고 하면 그걸 간다, 그 뭐인가 발효된 누룩을 곁아 가지고서 물에 이렇게 놔 가지고서 이제 발효되어서 그 체로 받쳐서 그 위에 누룩은 칠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래 나온 게 그거 골 감주.)

107090 @1 예. 옛도 만들양 먹어났수과?(예. 옛도 만들어서 먹었었습니까?)

107091 #1 옛도 만이 만들양 먹어시네.(옛도 많이 만들어서 먹었어.)

107091 @1 어떤 옛?(어떤 옛?)

107091 #1 옛은이 그 뭐인가 옛날은 이디 출졸이 옛어부난이 아까 그 뭐인가 흐린조설 잇지 안허냐이?(옛은 그 뭐인가 옛날은 여기 찹쌀이 없으니까 아까 그 뭐인가 차조 잇지 않냐?)

107091 @1 예, 예.(예, 예.)

107091 #1 그걸로 해 가지고서 그 흐린조설을 곁아 가지고서 곁아 가지고서 그 뭐인가 그 물에 막 탈 거 아니가이?(그걸로 해 가지고서 그 차조를 곁아 가지고서 곁아 가지고서 그 뭐인가 그 물에 마구 탈 거 아니냐?)

107091 @1 예.(예.)

107091 #1 물에 타 가지고서 그것을 혼, 혼 여섯 시간 정도 팔려 가면 그것이 수분이 다 증발해 불고 그 골 감주를 헛 것이 그것이 결국은 좇아 가지고서이 좇아 가지고 그게 청이 되는 거. 노랑게 청이 된다.(물에 타 가지고서 그것을 한, 한 여섯 시간 정도 달여 가면 그것이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리고 그 골 감주를 헛 것이 그것이 결국은 좇아 가지고서 좇아 가지고 그게 청이 되는 거. 노랑게 청이 된다.)

107091 @1 음.(음.)

107091 #1 경헛 겨울엔 경헛 가지고서 단지에 담양 낫당 떡도 허민 그것에 부

병 먹고 경해나시네. 집집마다 그건 해냈저.(그래서 겨울엔 그래 가지고서 단지에
담아 놔다가 떡도 하면 그것에 비벼서 먹고 그랬었어. 집집마다 그건 했었어.)

107091 @1 음.(음.)

107091 #1 건 흐린좁쌀로 허는 거.(건 차조로 하는 거.)

107091 @1 흐린좁쌀로예. 쨍엿 같은 건 따로 안 만들어놨잖아예?(차조로요. 쨍
엿 같은 건 따로 안 만들었었나요?)

107091 #1 그것에 쨍을 집어넣 줄이는 게 쨍엿.(그것에 쨍을 집어넣어서 줄이는
게 쨍엿.)

107091 @1 아. 그민 경헨 엿 만들 때 넣을 수 잇는 재료가 쨍 말고 득도 넣고
해냈수과?(아. 그럼 그렇게 해서 엿 만들 때 넣을 수 잇는 재료가 쨍 말고 닭도 넣
고 했었습니까?)

107091 #1 으, 득도 넣고이 또 다시 도야지 뭐인가 거세기 고기도 놔냈저.(으,
닭도 넣고 또 다시 돼지 뭐인가 거시기 고기도 놔냈어.)

107091 @1 돼지고기도 넣고마씨?(돼지고기도 넣고요?)

107091 #1 경해 가지고서 영양 보충할 사름, 돼야지고기 논 걸 주로 여저덜 만
이 먹었저. 젓 모자란 사름덜.(그래 가지고서 영양 보충할 사름, 돼지고기 넣은 걸
주로 여자들 많이 먹었어. 젓 모자란 사름들.)

107091 @1 아. 쨍, 득, 돼지.(아. 쨍, 닭, 돼지.)

107091 #1 도야지, 으.(돼지, 으.)

107091 @1 소고기 같은 건 안 넣고?(소고기 같은 건 안 넣고?)

107091 #1 소고기 안 놔냈저. 귀허니까.(소고기 안 놔냈어. 귀하니까.)

107091 @1 귀허니까예. 경헨엇던 거. 이거 말고, 곶은 거 말고 더 해 먹엇던 음
식 뭐 기억나는 거 잇수과?(귀하니까요. 그랬엇던 거. 이거 말고, 말한 거 말고 더
해 먹엇던 음식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7091 #1 더 해 먹어난 건 뭐 었다. 더 해 먹어난 게 범벅하고 뭐 우리가 저
대축 범벅 그런 거 기자. 더 해 먹어난 거 었저. 보리밥 조팍 외에는 뭐.(더 해 먹
엇던 건 뭐 없다. 더 해 먹엇던 게 범벅하고 뭐 우리가 저 수수 범벅 그런 거 그저.
더 해 먹엇던 거 없어. 보리밥 조팍 외에는 뭐.)

107091 @1 뻗데기 범벅도 잇수과?(절간고구마 범벅도 있습니까?)

107091 #1 뻗데기 범벅, 뻗데기 범벅도 허긴 행 먹어냈저만은 건 맛이 었주게.
(절간고구마 범벅, 절간고구마 범벅도 하긴 해서 먹엇엇지만 건 맛이 없지.)

107091 @1 아.(아.)

107091 #1 믰물크루 범벅만이 맛이 었어 가지고서. 뻗데기도 겨울엔이 뻗데기를
우리가, 옛날에는 고구마를 만이 싱거 가지고서 다른 수확보다는 고구마를 싱그는
게.(메밀가루 범벅만큼 맛이 없어 가지고서. 절간고구마도 겨울엔 절간고구마를 우
리가, 옛날에는 고구마를 많이 심어 가지고서 다른 수확보다는 고구마를 심는 게.)

107091 @1 감저, 감저.(고구마, 고구마.)

107091 #1 감저를 싱그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됐주. 케난 그걸 국가에서 받아 가
났저. 국가에서 받아가 가지고 일제시대부터 국가에서 받아가 가지고서. 케난 그 감
저, 절간 그거 절간이주.(고구마를 심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됐지. 그러니까 그걸 국
가에서 받아 갔었어. 국가에서 받아가 가지고 일제시대부터 국가에서 받아가 가지
고서. 그러니까 그 고구마, 절간 그거 절간이지.)

107091 @1 예, 예.(예, 예.)

107091 #1 영 기계로 썰영 물려근에 헨 거 넘겨 낫당이 겨울에는이 그걸 돌른
거 물에 컷당 물 올민 치여근에 떡곡 경헤나시네. 겨울에 심심허니까 그걸 간식으
로.(이렇게 기계로 썰어서 말렸다가 한 거 남겨 놔다가 겨울에는 그걸 마른 거 물에
담갔다가 물 불면 쳐서 먹고 그랬었어. 겨울에 심심하니까 그걸 간식으로.)

107091 @1 아, 뺏데기 돌른 걸 물에 담앗당?(아, 절간고구마 마른 걸 물에 담갔
다가?)

107091 #1 으, 물에 담가야 거 물 올려야, 쳐야 말랑말랑허주.(으, 물에 담가야
거 물 불어야, 찌야 말랑말랑하지.)

107091 @1 아, 말랑말랑허게.(아, 말랑말랑하게.)

107091 #1 경허곡이 따시 고구마 잇잖아이?(그리고 다시 고구마 잇잖아?)

107091 @1 으, 감저 감저.(으, 고구마 고구마.)

107091 #1 고구마 쳐근에 썰어근에가.(고구마 찌서 썰어서.)

107091 @1 감저 청 썰영.(고구마 찌서 썰어서.)

107091 #1 으, 썰어근에가 들류왕 그건, 그건 더 감저 뺏데기보다 더 맛 좋다.
쫄깃쫄깃해 가지고서.(으, 썰어서 말려서 그건, 그건 더 고구마 절간고구마보다 더
맛 좋아. 쫄깃쫄깃해 가지고서.)

107091 @1 아, 삶양 들린 거.(아, 삶아서 말린 거.)

107091 #1 으, 삶양 들렛당 거 겨울에 떡곡 경헤났저.(으, 삶아서 말렸다가 거
겨울에 먹고 그랬었어.)

107091 @1 영양식이어신게, 지금 영양식.(영양식이었네요, 지금 영양식.)

107091 #1 으, 영양식.(으, 영양식.)

107091 @1 영양 간식이라신게. 또 엇고예?(영양 간식이었네요. 또 없어요?)

107091 #1 으, 그 외에는 엇다.(으, 그 외에는 없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1 초가집도 짓어나고 헤낫수과?(초가집도 지었었고 했었습니까?)

108001 #1 주로 전부 초가집이었는데 칠십 년대 이후에 다 이거 뭐인가 새로
다 집을 바꿔신에.(주로 전부 초가집이었는데 칠십 년대 이후에 다 이거 뭐인가 떠

로 다 집을 바꿨어.)

108001 @1 그때 인부 빌어 헨 거, 사름들이 직접?(그때 인부 빌려서 한 거, 사름들이 직접?)

108001 #1 그때는이 이 조합별로 조합이 잇저, 조합별로.(그때는 이 조합별로 조합이 있어, 조합별로.)

108001 @1 예.(예.)

108001 #1 조합별로 해 가지고서이, 가령 나가 일 조합이면 일 조합 사람이 총 출동해 가지고이.(조합별로 해 가지고서, 가령 내가 일 조합이면 일 조합 사람이 총 출동해 가지고.)

108001 @1 예.(예.)

108001 #1 그 집 서슬²⁶¹, 서슬. 담 거튼 거 다우는 것은 그 집 주인이 그 인부를 빌어근애가 품 쥘 담을 다웁고.(그 집 산자, 산자. 담 같은 거 쌓는 것은 그 집 주인이 그 인부를 빌려서 품 쥐서 담을 쌓고.)

108001 @1 음.(음.)

108001 #1 그 웨로는 서슬 허는 것이 잇저. 서슬이라는 것이 이런 이디 벽 거튼 거 허는 거. 그런 서슬 험광 또 다시 흙질허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 조합 사름이 다 해 쥘저. 그 흙질할 때는 여자들이 오랑 전부다 그 물도 지어 주고 또 흙이 웃동넨 귀해낫주게. 흙질허젠 허민.(그 외로는 산자 하는 것이 있어. 산자라는 것이 이런 여기 벽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산자 하기와 또 다시 흙질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 조합 사람이 다 해 쥘어. 그 흙질할 때는 여자들이 와서 전부 다 그 물도 지어 주고 또 흙이 웃동넨 귀했었어. 흙질하려고 하면.)

108001 @1 으.(으.)

108001 #1 흙 할 때도 조합 사름이 전부 나오랑 할당을 한다. 그 집이 크면은 다섯 하꼬²⁶², 집 세 거린 다섯 하꼬. 두 거리, 그 두 거리쯤은 네 하꼬, 세 하꼬 이렇게 해서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다 시켜 쥘 헛지. 그거 다 돈으로 허젠 허민 어마하게 돈이 든다.(흙 할 때도 조합 사람이 전부 나와서 할당을 한다. 그 집이 크면 다섯 상자, 집 세 채 다섯 상자. 두 채, 그 두 채쯤은 네 상자, 세 상자 이렇게 해서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다 실어다 쥐서 헛지. 그거 다 돈으로 하려고 하면 어마하게 돈이 든다.)

108001 @1 아니 그 조합이란 게 영 동네 사름들이 게 같은 거 만든다는 얘기, 아니면?(아니, 그 조합이란 게 이렇게 동네 사름들이 게 같은 거 만든다는 얘기, 아니면?)

108001 #1 으. 그 게가 아니고 조합, 조합으로 딱 정해서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웨여낫저.(으. 그 게가 아니고 조합, 조합으로 딱 정해서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되었었어.)

261)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262) '하꼬'는 일본어 'ほこ(箱)'로 상자를 말한다.

108001 @1 계민 그 집을 의무적으로 허게 되면 집을 영 번갈아 가명 짓어마
씨?(그럼 그 집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집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어요?)

108001 #1 아니, 새 집 허는, 가령 일개 조합에 가령 나가 새 집 허민.(아니, 새
집 하는, 가령 일개 조합에 가령 내가 새 집 하면.)

108001 @1 아, 조합이란 게 우리 저기 일 조합, 이 조합 허는 그 조합마씨?(아,
조합이란 게 우리 저기 일 조합, 이 조합 하는 그 조합요?)

108001 #1 어. 그 조합, 그 조합.(어. 그 조합, 그 조합.)

108001 @1 아, 그럼 조합 사름덜이 의무적으로 그걸 갖다 줘.(아, 그럼 조합 사
람들이 의무적으로 그걸 갖다 줘.)

108001 #1 으, 갖다 주고.(으, 갖다 주고.)

108001 @1 그거 집 짓는덴 허민. (그거 집 짓는다고 하면.)

108001 #1 으, 집 짓는덴 허민. 그 날짜를 정허민 그 부락에서 조합장이 정헌
다.(으, 집 짓는데 하면. 그 날짜를 정하면 그 부락에서 조합장이 정한다.)

108001 @1 어.(어.)

108001 #1 메칠 날은 흑 시끌 날이우다.(며칠 날은 흑 실을 날입니다.)

108001 @1 으.(으.)

108001 #1 계민 흑 시끄고. 그다음에는 흑 다 시꺼 놓면은.(그럼 흑 신고. 그다
음에는 흑 다 실어 놓으면.)

108001 @1 으.(으.)

108001 #1 서, 이제는 그 흑질혈 거 아니라, 흑질혈 때면 서슬 그날 한다.(서,
이제는 그 흑질할 거 아니야, 흑질할 때면 산자 그날 한다.)

108001 @1 으.(으.)

108001 #1 계난 흑질혈 때도 의무적으로 흑, 비는 사람이 다 강 해 준다. 거 빌
민. 것도 주인이 빌긴 빌어야 돼. 품은 안 받는다. 그 비는 사름도.(그러니까 흑질
할 때도 의무적으로 흑, 빌리는 사람이 다 가서 해 준다. 거 빌리면. 것도 주인이
빌리긴 빌어야 돼. 품은 안 받는다. 그 빌리는 사름도.)

108001 @1 아, 품 안 받아마씨?(아, 품 안 받아요?)

108001 #1 으.(으.)

108001 @1 품 안 받는다 의무적으로 왕?(품 안 받는데 의무적으로 와서?)

108001 #1 으, 의무적으로.(으, 의무적으로.)

108001 @1 그 조합이 우리 일 조합 허면 그 조합이 몇 사름이나 됩니까?(그 조
합이 우리 일 조합 하면 그 조합이 몇 사름이나 됩니까?)

108001 #1 조합이 흰 오륙십 명 돼주.(조합이 한 오륙십 명 되지.)

108001 @1 그 사람이 다 ㄱ치 왕 일해 주고.(그 사람이 다 같이 와서 일해 주
고.)

108001 #1 으, ㄱ치 왕 허주. 계난 새 집 헐 때는이 밥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계난.(으, 같이 와서 하지. 그러니까 새 집 할 때는 밥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108001 @1 아.(아.)

108001 #1 계난 그 동기간덜이이 흑질허는 날 밥 허는 사름. 가령 나가 허게 웨민 우리 누님이 허던가 누겐가 처가침이서 허던가 그렇게 마탕 그렇게 해낫저.(그러니까 그 동기간들이 흑질하는 날 밥 하는 사름. 가령 내가 하게 되면 우리 누님이 하든가 누군가 처갓집에서 하든가 그렇게 말아서 그렇게 했었어.)

108001 @1 아.(아.)

108001 #1 밥이 제일 허기가 힘든다.(밥이 제일 하기가 힘든다.)

108001 @1 계민 주인은, 집 짓는 사름은 어쨌든 밥 허는 거 걱정해야겠냐예?(그럼 주인은, 집 짓는 사름은 어쨌든 밥 하는 거 걱정해야겠네요?)

108001 #1 으. 계민 그거 동기간이나 누구나 부모네가 말앙 해 주주게. 점심은.(으. 그럼 그거 동기간이나 누구나 부모네가 말아서 해 주지. 점심은.)

108001 @1 으, 점심은.(으, 점심은.)

108001 #1 흑질허는 날이 그렇고 또 다시 이제 흑 시끄는 날도 그렇고 다.(흑질하는 날이 그렇고 또 다시 이제 흑 신는 날도 그렇고 다.)

108001 @1 계민 조합원들이 왕 해 주는 날은 흑질허는 날이랑 흑 시끄는 날?(그럼 조합원들이 와서 해 주는 날은 흑질하는 날이랑 흑 신는 날?)

108001 #1 날허고 서슬 허는 날.(날하고 산자 하는 날.)

108001 @1 아, 서슬 허는 날허고. 나머지 뭐 담 쌓는 거라든지 목수들이 허는 일은 그냥 빌영.(아, 산자 하는 날하고. 나머지 뭐 담 쌓는 거라든지 목수들이 하는 일은 그냥 빌려서.)

108001 #1 그건 품이 들어야주.(그건 품이 들어야지.)

108002 @1 아, 빌영 허는 거예. 집 종류는 뭐 뭐 잇수과?(아, 빌려서 하는 거요. 집 종류는 뭐 뭐 있습니까?)

108002 #1 삼칸집이 잇고 뭐 보통, 이던 스칸집²⁶³도 잇는데 보통 한동은 삼칸집이여.(삼칸집이 잇고 뭐 보통, 여긴 ‘스칸집’도 잇는데 보통 한동은 삼칸집이야.)

108002 @1 삼칸집.(삼칸집.)

108002 #1 이칸집²⁶⁴도 잇고.(‘이칸집’도 잇고.)

108002 @1 이칸집은 못 사는 디?(‘이칸집’은 못 사는 데?)

108002 #1 아니, 이칸집은 칸이 삼 칸은 세 칸이고.(아니, ‘이칸집’은, 칸이 삼 칸은 세 칸이고.)

108002 @1 세 칸, 으.(세 칸, 으.)

108002 #1 이칸집이 집이 두 칸이주게.(‘이칸집’이 집이 두 칸이지.)

108002 @1 으.(으.)

108002 #1 계난 쪼금 못 사는 집인 두 칸으로만 행 혼 쪽엔 방허고 혼 쪽엔 부엌 행 허고 밧거리는 보통 이 칸, 이 칸이주게.(그러니까 쪼금 못 사는 집은 두 칸

263) ‘스칸집’은 네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264) ‘이칸집’은 두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으로만 해서 한 쪽에 방하고 한 쪽엔 부엌 해서 하고 바깥채는 보통 이 칸, 이 칸 이지.)

108002 @1 아, 이 칸이고예. 초가면 초가집이 있고, 지붕이 초가인 건 초가집이 렌 허고.(아, 이 칸이고요. 초가면 초가집이 있고, 지붕이 초가인 건 초가집이라고 하고.)

108002 #1 으, 초가집이엔 허고(으, 초가집이라고 하고.)

108002 @1 또?(또?)

108002 #1 다 초가집이라.(다 초가집이야.)

108002 @1 지, 지에집.(기, 기와집.)

108002 #1 건 기와집이라, 기와집.(건 기와집이야, 기와집.)

108002 @1 기와집을 제주도 말로, 여기선 뭐렌 골아낫수과?(기와집을 제주도 말로, 여기선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8002 #1 것도 기와집이주, 기와집.(것도 기와집이지, 기와집.)

108002 @1 지에집 안 허고.(기와집 안 하고.)

108002 #1 아니, 기와집이엔 헛주.(아니, 기와집이라고 헛지.)

108002 @1 아, 기와집이엔 헛수과? 초가집 있고, 기와집?(아, 기와집이라고 헛습니까? 초가집 있고, 기와집?)

108002 #1 어, 기와집. 그것만 셔낫저. 그때는 이 뭐인가 그 쓰레트가 없어났기 때문에 기와집허고 그자 초가집.(어, 기와집. 그것만 있었어. 그때는 그 뭐인가 그 슬레이트가 없었었기 때문에 기와집하고 그저 초가집.)

108002 @1 으, 으. 흑으로 짓으면 흑집, 돌로 지으면 돌집 그런 건 얘기 안 허고?(으, 으. 흑으로 지으면 흑집, 돌로 지으면 돌집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108002 #1 그런 건 얘기허진 아니헌다. 초가집은 초가집이엔만. 보통 제주도는 다 바깥채 다 돌로 뒤희 잇주.(그런 건 얘기하진 않는다. 초가집은 초가집이라고만. 보통 제주도는 다 밖에 다 돌로 되어 있지.)

108003 @1 집이 안커리 잇고 밧거리 잇고 이디 모커리엔 험니까?(집에 안채 잇고 바깥채 잇고 여기 곁채라고 합니까?)

108003 #1 으, 모커리. 그 세 거리가 모커리엔 헌다.(으, 곁채. 그 세 채가 곁채라고 한다.)

108003 @1 안커리, 밧거리, 모커리엔 험 거고예?(안채, 바깥채, 곁채라고 할 거고요?)

108003 #1 음.(음.)

108004 @1 삼간집 지을 때 어떻 짓는지 좀 골아줍서. 삼간집 지을 때. 집 짓젠 허민 제일 먼저 뭐 허여?(삼간집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좀 말해 주세요. 삼간집 지을 때. 집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

108004 #1 지일 먼저는 거 포엔 잇저, 포.(제일 먼저는 거 들보라고 있어, 들보.)

108004 @1 어.(어.)

108004 #1 포 양쪽에 두 개가 제일 필요하고.(들보 양쪽에 두 개가 제일 필요하고.)

108004 @1 으.(으.)

108004 #1 그다음에 상마루가 필요하고.(그다음에 용마루가 필요하고.)

108004 @1 예.(예.)

108004 #1 그다음에 그 뒤편이 양쪽에 그 춘일석이, 춘일석이 필요하고.(그다음에 그 뒤편이 양쪽에 그 추녀가, 추녀가 필요하고.)

108004 @1 으.(으.)

108004 #1 양쪽에.(양쪽에.)

108004 @1 예.(예.)

108004 #1 서리, 서리 거튼 거.(서까래, 서까래 같은 거.)

108004 @1 예.(예.)

108004 #1 그걸 다 장만해야 돼주. 집 지은이가.(그걸 다 장만해야 되지. 집 지은이가.)

108004 @1 아, 장만해야 되는 거예. 미리예?(아, 장만해야 되는 거요. 미리요?)

108004 #1 으.(으.)

108004 @1 지난번 글을 때 낭 아무 거나 행 오민 안 되는 거잖아예?(지난번 말할 때 나무 아무 거나 해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8004 #1 으, 아무 거나 행 오민 안 돼니까, 건 허가받으면 다 나온다.(으, 아무 거나 해서 오면 안 되니까, 건 허가받으면 다 나온다.)

108004 @1 아, 집 짓을 때는.(아, 집 지을 때는.)

108004 #1 어, 집 짓을 거. 계민 거 서리 허는 것도이 거 술찢 낭을 갖다가 영 쪼개주게. 쪼개영 서리 허고.(어, 집 지을 거. 그럼 거 서까래 하는 것도 거 살진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지. 쪼개서 서까래 하고.)

108004 @1 계민 그 낭은 우리 밧디 거 비영 와야 되는 거?(그럼 그 나무 우리 밧디 거 베어 와야 되는 거?)

108004 #1 아니, 늙의 밧디 거라도 허가받으면 돼주. 이녁 밧디, 이녁 밧디 나무 엇은 사람은.(아니, 남의 밧디 거라도 허가받으면 되지. 자기 밧디, 자기 밧디 나무 없는 사람은.)

108004 @1 아, 늙의 밧디 거라도 허가받으면 돼?(아, 남의 밧디 거라도 허가받으면 돼?)

108004 #1 집 짓는 던 허가해 주주게.(집 짓는 덴 허가해 주지.)

108004 @1 아, 계민 누구네 밧디 무슨 낭 비여오쿠다 헤영.(아, 그럼 누구네 밧디 무슨 나무 베어오겠습니까 해서.)

108004 #1 으.(으.)

108004 @1 그렇게 신고합니까?(그렇게 신고합니까?)

108004 #1 그렇게 신고한다.(그렇게 신고한다.)

108004 @1 아, 거민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예. 낭은예?(아, 그럼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무는요?)

108004 #1 낭은 미리 준비하지. 일 년 전이부터 준비해야 된다. 일 년 전이부터.(나무는 미리 준비하지. 일 년 전이부터 준비해야 된다. 일 년 전이부터.)

108004 @1 낭은 미리 준비하고.(나무는 미리 준비하고.)

108004 #1 집이 왕 들춰야 돼니까 것도.(집에 와서 말려야 되니까 것도.)

108004 @1 예, 예. 깎고 자르고 행 들렁.(예, 예. 깎고 자르고 해서 말려서.)

108004 #1 으.(으.)

108004 @1 게민 집 짓을 때 뉘민 뉘서부터 시작하는 거? 낭은 준비했수다. 그 다음엔?(그럼 집 지을 때 되면 뉘부터 시작하는 거? 나무는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엔?)

108004 #1 그다음엔 뉘 허냐 허면 집터를 골라야 돼지.(그다음엔 뉘 하나 하면 집터를 골라야 되지.)

108004 @1 으.(으.)

108005 #1 그다음엔 지춧돌 놔야 된다. 그 돌 그 지동 세울 거. 그거 해 가지고 그 우터레 지동 세와야 한다.(그다음엔 주춧돌 놔야 된다. 그 돌 그 기둥 세울 거. 그거 해 가지고 그 위로 기둥 세워야 한다.)

108005 @1 그 우터레 지동. 지춧돌?(그 위로 기둥. 주춧돌?)

108005 #1 주춧돌게.(주춧돌.)

108005 @1 으, 주춧돌예.(으, 주춧돌요.)

108005 #1 응, 여깃말로 지춧돌이엔, 지춧돌이나 주춧돌이나 마찬가지로.(응, 여깃말로 ‘지춧돌’이라고, ‘지춧돌’이나 주춧돌이나 마찬가지로.)

108005 @1 지춧돌, 여기선 지춧돌예.(주춧돌, 여기선 주춧돌요.)

108005 #1 으, 지춧돌.(으, 주춧돌.)

108005 @1 지춧돌 놔 가지고 거기에 지동 세우고. 세우면 그다음 지동 세우고?(주춧돌 놔 가지고 거기에 기둥 세우고. 세우면 그다음 기둥 세우고?)

108005 #1 그 지동 세우고 세우면, 그 지동 세와 놔사게. 그 뉘인가 도리. 도리가 그 도리엔 현 건이 그 집이 상마루를 바투는 그 양쪽에 큰 진진현 나무 잇주게.(그 기둥 세우고 세우면, 그 기둥 세워 놔야. 그 뉘인가 도리. 도리가 그 도리라고 한 건 그 집에 용마루를 받치는 그 양쪽에 큰 길디긴 나무 있지.)

108005 @1 으, 도리?(으, 도리?)

108005 #1 으.(으.)

108005 @1 상마루를 바트는 진진현 낭이 도리라예?(용마루를 받치는 길디긴 나무가 도리지요?)

108005 #1 것ㄴ라 포엔 한다. 이거 양쪽에 포.(것보고 들보라고 한다. 이거 양쪽에 들보.)

108005 @1 영 보민 좋을 건가? 이거 지둥이과?(이렇게 보면 좋을 건가? 이거 기둥입니까?)

108005 #1 으, 이거 지둥인디 이것이 포주, 포가 두 개 잇어야 돼.(으, 이거 기둥인데 이것이 들보지, 들보가 두 개 잇어야 돼.)

108005 @1 아, 이것이 포. 도리는 어느 거마씨?(아, 이것이 들보. 도리는 어느 거요?)

108005 #1 도리는 도리는 이디 영 현 거 굽도리라고 이쪽에 영 현 거 도리고.(도리는 도리는 여기 이렇게 한 거 굽도리라고 이쪽에 이렇게 한 거 도리고.)

108005 @1 아, 그럼 우에서, 우에서 영 내려오게 현 거?(아, 그럼 위에서, 위에서 서 이렇게 내려오게 한 거?)

108005 #1 어.(어.)

108005 @1 이렇게 되면 영 내려오는.(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108005 #1 게난이 이거이 포에, 포에 옆으로 영 현 것도 다 도리엔 한다.(그러니까 이거 들보에, 들보에 옆으로 이렇게 한 것도 다 도리라고 한다.)

108005 @1 아.(아.)

108005 #1 도리엔 허고 서리엔 허는 것은 이건 굽도리 허고 이건 서리엔 허고.(도리라고 하고 서까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굽도리 하고 이건 서까래라고 하고.)

108005 @1 음.(음.)

108005 #1 이디영 하나, 두 개, 세 개 도리가 세 개 들어갈 거주. 포 옆으로 세 개, 이디도 세 개 들어가고 경 허면은 이거 포 허면은 네 개 될 거주. 하나 둘 셋 넷 뒤편에 서리 영 걸치는 거.(여기랑 하나, 두 개, 세 개 도리가 세 개 들어갈 거지. 들보 옆으로 세 개, 여기도 세 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들보 하면 네 개 될 거지. 하나 둘 셋 넷 되어서 서까래 이렇게 걸치는 거.)

108005 @1 으, 여기에 포에 서리에 걸치는 거. 그민 주춧돌 낳 지둥 세웁 도리 영 다 하고 나서.(으, 여기에 들보에 서까래에 걸치는 거. 그럼 주춧돌 놔서 기둥 세워서 도리 이렇게 다 하고 나서.)

108005 #1 도리영, 도리 그 뭐인가 도리 포 잇잖아이.(도리랑, 도리 그 뭐인가 도리 들보 있잖아?)

108005 @1 예, 포.(예, 들보.)

108005 #1 포가 질 큰 거여. 제일 그 주춧, 그거에 다 포에 지둥이 다 세와졌 주.(들보가 질 클 거여. 제일 그 주춧, 그거에 다 들보에 기둥이 다 세워졌지.)

108005 @1 예.(예.)

108005 #1 그걸 사람이 여럿이 모여근에 그거 영 세와근에가 거 해 가지고서 다 집을, 이제 짜 낫당 거 올리는 거.(그걸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그거 이렇게 세워서 거 해 가지고서 다 집을, 이제 짜 낫다가 거 올리는 거.)

108005 @1 아, 우에 지붕은 요거 올리고 나서 그다음 올리는 거?(아, 위에 지붕은 요거 올리고 나서 그다음 올리는 거?)

108005 #1 다 짜 낚다근에 이거 포 두 개영 양쪽에 포 두 개 세와 놔 가지고서 그다음에 도리를 올령 놓는 거.(다 짜 낚다가 이거 들보 두 개랑 양쪽에 들보 두 개 세워 놔 가지고서 그다음에 도리를 올려 놓는 거.)

108005 @1 아, 도리를 올령 놓는 거예. 그민 저기 서까래 하는 거는 어느 것 과?(아, 도리를 올려 놓는 거요. 그럼 저기 서까래 하는 거는 어느 것입니까?)

108005 #1 서까래엔 허는 것은이 이 도리 이렇게 영 영 내려온 게 서까래엔 헨 다.(서까래라고 하는 것은 이 도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게 서까래라고 한다.)

108006 @1 아, 내려온 거. 바닥으로 내려온 거? 이렇게 내려온 거지예?(아, 내려온 거. 바닥으로 내려온 거? 내려온 거? 이렇게 내려온 거지요?)

108005 #1 으, 이렇게 내려온 거.(으, 이렇게 내려온 거.)

108005 @1 서까래예. 서까래렌 허고. 외나 산자, 인방을 뒤 인방이렌 험니까?(서까래요. 서까래라고 하고. 외나 산자, 인방을 뒤 인방이라고 합니까?)

108006 #1 인방이라고 헨 것은 자축인묘 그걸 헤 가지고서 인이 들어오는 디를 인방이라고 이렇게 허는 거.(인방이라고 헨 것은 자축인묘 그걸 헤 가지고서 인이 들어오는 데를 인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108006 @1 반자들은마씨?(반자들은요?)

108006 #1 반자들이 뭐라?(반자들이 뭐야?)

108006 @1 반자들이렌 안 헤신가?(반자들이라고 안 했나?)

108006 #1 반자들은 모르켜.(반자들은 모르겠어.)

108007 @1 아, 게민 방은, 방은 몇 개나 십니까?(아, 그럼 방은, 방은 몇 개나 있습니까?)

108007 #1 방은 옛날에 고평이란게 또 잇엇주.(방은 옛날에 고평이란게 또 잇엇지.)

108007 @1 예.(예.)

108007 #1 집 안에 고평.(집 안에 고평.)

108007 @1 예.(예.)

108007 #1 그다음에 안구들.(그다음에 안방.)

108007 @1 예.(예.)

108007 #1 안구들이 큰구들이엔 허지.(안방이 ‘큰구들’이라고 하지.)

108007 @1 예.(예.)

108007 #1 그다음에 족은구들.(그다음에 작은방.)

108007 @1 안구들, 족은구들 부를 거예.(안방, 작은방 부를 거요.)

108007 #1 안구들, 족은구들 아니라 큰방, 족은방 허고. 안구들은 거 주로 큰구들이엔 허는 딴 주인이 눅는 딴 안구들이엔 허주.(안방, 작은방 아니라 큰방, 작은 방 하고. 안방은 거 주로 큰구들이라고 하는 덴 주인이 눅는 텔 안방이라고 하지.)

108007 @1 방에 시렁도 잇고.(방에 시렁도 잇고.)

108007 #1 시렁이엔 허는 거 퀘 놓는 델 시렁이렌 현다.(시렁이라고 하는 거 퀘 놓는 델 시렁이라고 한다.)

108007 @1 시렁이엔 허는 거예?(시렁이라고 하는 거요?)

108007 #1 으, 으.(으, 으.)

108007 @1 백장도 잇고예?(백장도 잇고요?)

108007 #1 으, 백장. 그 시렁 안에 백장이 잇는 거주.(으, 백장. 그 시렁 안에 백장이 잇는 거주.)

108007 @1 시렁 안에 백장이 잇는 거. 퀘는?(시렁 안에 백장이 잇는 거. 퀘는?)

108007 #1 퀘는 거 저 뭐인가 시렁 아래 백장에 퀘를 놓는다.(퀘는 거 저 뭐인가 시렁 아래 백장에 퀘를 놓는다.)

108007 @1 놓는 거.(놓는 거.)

108007 #1 백장은 퀘 놓게끔 백장이 짜 잇주.(백장은 퀘 놓게끔 백장이 짜 잇지.)

108005 @1 예, 예. 그, 그럼 아까 주춧돌 놔 가지고 보 놓고 도리 허고 서리 현 다음에.(예, 예. 그, 그럼 아까 주춧돌 놔 가지고 들보 놓고 도리 하고 서까래 한 다음에.)

108005 #1 서리는 마지막에 현다.(서까래는 마지막에 한다.)

108005 @1 서리를 마지막에 현 다음에 후 불르젠 허민.(서까래를 마지막에 한 다음에 후 바르려고 하면.)

108005 #1 후 불르젠 허민 건 서리영 다, 다 논 다음에 후 불리는 거.(후 바르려고 하면 건 서까래랑 다, 다 논 다음에 후 바르는 거.)

108005 @1 으, 후 불를 땀 어떻 헤낫수과?(으, 후 바를 땀 어떻게 했었습니까?)

108005 #1 후 불를 때 후 불를 땀 후를 뿜 거 아니가이?(후 바를 때 후 바를 때 후를 뿜을 거 아니냐?)

108005 @1 으.(으.)

108005 #1 겨민 서슬²⁶⁵은 미릿에 그날, 그날 동네가 다 나오니까 서슬 다 될 거 아니가이?(그럼 산자은 미리 그날, 그날 동네가 다 나오니까 산자 다 될 거 아니냐?)

108005 @1 으.(으.)

108005 #1 경허면은 서슬 다 뒤편은 후를 땀 건이 쉼스렁으로 지붕 우터레 젊은 사람덜이 막 올린다.(그러면 산자 다 되면 후를 뿜은 건 쉼스랑으로 지붕 위로 젊은 사람들이 마구 올린다.)

108005 @1 으.(으.)

108005 #1 지붕 우터레 땡 땡 올리면.(지붕 위로 땡 땡 올리면.)

108005 @1 으.(으.)

108005 #1 그 후를 우이 깎는 거. 그 서슬 우터레.(그 후를 위에 까는 거. 그 산

265)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자 위로.)

108005 @1 다 같이 해 가지고 영 치대기는 거?(다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없는 거?)

108005 #1 으, 치대기면 사람이 우이 올라가 다 골짜.(으, 없으면 사람이 위에 올라서 다 골짜.)

108005 @1 아.(아.)

108005 #1 경 안 허민 그거 지영 올라가지 못허주게. 계난 힘센 사름이 떠 가지고서 웨스렁으로 떠 가지고서 지붕 우터레 다 올린다.(그렇게 안 하면 그거 지어서 올라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힘센 사름이 떠 가지고서 웨스랑으로 떠 가지고서 지붕 위로 다 올린다.)

108005 @1 아.(아.)

108005 #1 계난 젊은 사름이 힘센 사름이 그거 필요헌 거주, 계난.(그러니까 젊은 사름이 힘센 사름이 그거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108005 @1 아.(아.)

108005 #1 후 올리는 사름은 다 젊은 사름이?(후 올리는 사름은 다 젊은 사름이?)

108008 @1 예. 마루는, 마루는 삼방이렌 험니까?(예. 마루는, 마루는 ‘삼방’이라고 험니까?)

108008 #1 으, 삼방.(으, 마루.)

108008 @1 삼방에 부섭²⁶⁶ 같은 것도 잇어난마씨, 부섭?(마루에 ‘부섭’ 같은 것도 있었어요, ‘부섭’?)

108008 #1 부섭, 건 것²라 봉덕이엔 헛는데 봉덕. 우리말로 봉덕.(‘부섭’, 건 것 보고 ‘봉덕’이라고 헛는데 ‘봉덕’. 우리말로 ‘봉덕’.)

108008 @1 아, 봉덕이렌 해난예?(아, ‘봉덕’이라고 헛었지요?)

108008 #1 으, 봉덕이엔 헛저. 우리 이딴말로 봉덕.(으, ‘봉덕’이라고 헛어. 우리 여깃말로 ‘봉덕’.)

108008 @1 으.(으.)

108008 #1 꼭 거 가운데 봉덕이 셋주. 왜냐하면 겨울에 추면은 거기서 불살라근에 뱅 영 돌아 앓앙 불 초고.(꼭 거 가운데 ‘봉덕’이 있었지. 왜냐하면 겨울에 추우면 거기서 불살라서 뱅 이렇게 달라붙어 앓아서 불 쪼고.)

108008 @1 으.(으.)

108008 #1 또 제서 때엔 거기서 뭐인가 목도 굽곡 고기도 굽곡. 봉덕에서 그렇게 해나세.(또 제사 때엔 거기서 뭐인가 목도 굽고 고기도 굽고. ‘봉덕’에서 그렇게 헛었어.)

108008 @1 봉덕에서예.(‘봉덕’에서요.)

108008 #1 이제는 거 없어져 벳주. 그때는 난방 기구가 잇어 놓니까 봉덕이, 집

266) ‘부섭’은 마룻바닥에 불을 피울 수 있게 만든 화로다. ‘봉덕’이라고도 한다.

집마다 그 봉덕은 다 잇었저.(이제는 거 없어져 버렸지. 그때는 난방 기구가 없어 놓으니까 ‘봉덕’이, 집집마다 그 ‘봉덕’은 잇었어.)

108008 @1 그 봉덕은 산방 들어가민 어느 쪽에 잇어났수과?(그 ‘봉덕’은 마루 들어가면 어느 쪽에 잇었습니까?)

108008 #1 가운데.(가운데.)

108008 @1 가운데, 맨 가운데?(가운데, 맨 가운데?)

108008 #1 으.(으.)

108009 @1 으, 봉덕이 잇어난 거예. 고팡은?(으, ‘봉덕’이 잇었던 거요. 고팡은?)

108009 #1 고팡은 안구들 바로 다음에 고팡이엔 현 디 잇어났주.(고팡은 안방 바로 다음에 고팡이라고 한 데 잇었지.)

108009 @1 고팡의 용도는 뭐파?(고팡의 용도는 뭡니까?)

108009 #1 고팡의 용도는 곡식 거 보관허는 창고.(고팡의 용도는 곡식 거 보관하는 창고.)

108009 @1 거기에 뭐 안칠성²⁶⁷도 잇덴 험니까?(거기에 뭐 ‘안칠성’도 잇다고 험니까?)

108009 #1 게메 그 옛날엔 고팡지기라 고팡을 잘 위해야만 험에 고팡에 간에 제사 댐 물 다 거려 놔났저.(글쎄 그 옛날엔 고팡지기라 고팡을 잘 위해야만 해서 고팡에 가서 제사 댐 물 다 떠서 냐었어.)

108009 @1 안칠성 잇덴 험에예?(‘안칠성’ 잇다고 했어요?)

108009 #1 어.(어.)

108009 @1 창곰이란 건 뭐과, 창곰. 고팡이 구멍?(‘창곰’이란 건 뭡니까, 창구멍. 고팡에 구멍?)

108009 #1 창곰이엔 현 건 공기 통허렌 창곰 내는 거.(‘창곰’이라고 한 건 공기 통하라고 창구멍 내는 거.)

108009 @1 그냥 창곰이렌 험니까, 여기서도?(그냥 창구멍이라고 험니까, 여기서도?)

108009 #1 으, 창곰.(으, 창구멍.)

108009 @1 창곰이렌 공기 통허렌.(창구멍이라고 공기 통하라고.)

108009 #1 으, 공기 통허렌. 게난 쪼그만허게, 그거 도둑이라도 들민 안 돼니까 크민 안 돼지. 게난 쪼그만허게.(으, 공기 통하라고. 그러니까 쪼그마하게, 그거 도둑이라도 들면 안 되니까 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쪼그마하게.)

108010 @1 아, 하하. 요, 요만이 허게예?(아, 하하. 요, 요만큼 하게요?)

108010 #1 으, 거 공기 통허게.(으, 거 공기 통하게.)

108010 @1 공기 통허게 창곰 냐던 거. 부엌은 뭐렌 곱아났수과?(공기 통하게 창구멍 냐던 거. 부엌은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267) ‘안칠성’은 고팡에 모시는 뱀 신을 말한다. 여자 귀신으로 재물을 관장한다고 한다.

108010 #1 정지지.(‘정지’지.)

108010 @1 정지. 정지엔 뭐, 뭐 있어놔수과?(부엌. 부엌이라고 뭐, 뭐 있었습니까?)

108010 #1 아, 정지엔 솥하고 물, 물항하고.(아, 부엌엔 솥하고 물, 물독.)

108010 @1 으.(으.)

108010 #1 살레, 살레에는 뭐 놓는고 허니 식기 거튼 거 놓는 거 살레엔 헛지. 것뿐. 솥하고 물항하고 살레.(살강, 살강에는 뭐 놓는가 하니 식기 같은 거 놓는 거 살강이라고 헛지. 것뿐. 솥하고 물독하고 살강.)

108010 @1 그것만예. 솥은 몇 개 정도 놔 있어?(그것만요. 솥은 몇 개 정도 놔 있어?)

108010 #1 보통 세 개. 세 개, 네 개.(보통 세 개. 세 개, 네 개.)

108010 @1 크기별로?(크기별로?)

108010 #1 으.(으.)

108010 @1 솥은 솥덕 우에.(솥은 붓돌 위에.)

108010 #1 으.(으.)

108011 @1 문설주는, 문설주, 문설주 알아지쿠과?(문설주는, 문설주, 문설주 알겠습니까?)

108011 #1 문설주, 문설주 들어놔주만은 제춧말로 문설주가 잘 모르겠네.(문설주, 문설주 들었었지만 제춧말로 문설주가 잘 모르겠어.)

108011 @1 문 이 주변을 뭐렌 길읍니까, 문틀?(문 이 주변을 뭐라고 말합니까, 문틀?)

108011 #1 아, 이것ㄴ라 입쟁이, 입쟁이엔 현다. 우리 제주도 말로 입쟁이엔 현다.(아, 이것보고 문설주, ‘입쟁이’라고 한다. 우리 제주도 말로 ‘입쟁이’라고 한다.)

108011 @1 아, 입쟁이에. 요, 요거를 뭐렌 헤마씨?(아, 문설주요. 요, 요거를 뭐라고 해요?)

108011 #1 이건 문쌀 창이엔 허주, 거.(이건 문살 창이라고 하지, 거.)

108011 @1 문쌀 창이고 여기에 문 들젠 하면?(문살 창이고 여기에 문 달려고 하면?)

108011 #1 돌쳐귀가 있다, 돌쳐귀.(돌쩌귀가 있다, 돌쩌귀.)

108011 @1 돌쳐귀?(돌쩌귀?)

108011 #1 으, 돌쳐귀.(으, 돌쩌귀.)

108011 @1 문얼굴? 문얼굴이라는 말은 엇고? 계민 요 밑에 여기는, 문지방?(문얼굴? 문얼굴이라는 말은 없고? 그럼 요 밑에 여기는, 문지방?)

108011 #1 문지방.(문지방.)

108011 @1 문지방. 우이는?(문지방. 위는?)

108011 #1 대문지방, 문지방. 이건.(대문지방, 문지방. 이건.)

108011 @1 우이는?(위는?)

108011 #1 이건 문대방이엔 현다. 우이.(이건 ‘문대방’이라고 한다. 위.)

108013 @1 아, 우이는 문대방. 문대방이렌 허고 밑에는 문지방, 문지방예. 호령창 있어났수과, 여기도?(아, 위는 ‘문대방’. ‘문대방’이라고 하고 밑에는 문지방, 문지방요. ‘호령창’ 있었습니까, 여기도?)

108013 #1 호령창이 뭐인고?(‘호령창’이 뭐인고?)

108013 @1 쪼그만허게 누게 불르거나 누게 왁신가?(쪼그마하게 누구 부르거나 누구 오는지?)

108013 #1 아, 아. 그건 가라스²⁶⁸⁾ 쪼그만허게 헤근에가 옛날에 창문에 영 부찌긴 부찌났저, 그거.(아, 아. 그건 유리 쪼그마하게 해서 옛날에 창문에 이렇게 붙이긴 붙였었어, 그거.)

108013 @1 가라스로 헤낫수과?(유리로 했었습니까?)

108013 #1 으.(으.)

108013 @1 가라스 잇기 전에는 뭐?(유리 잇기 전에는 뭐?)

108013 #1 가라스 잇기 전에는 뭐 그건.(유리 잇기 전에는 뭐 그건.)

108013 @1 그건 뭐렌 곁앗는지는?(그건 뭐라고 말했는지는?)

108013 #1 건 잘 모르켜.(건 잘 모르겠어.)

108014 @1 모르고예. 굴목 떼젠 허민, 굴목 떼젠 허민 굴목을 뒤로 떼난마씨?(모르고요. ‘굴목’ 때려고 하면, ‘굴목’ 때려고 하면 ‘굴목’을 뒤로 떼었나요?)

108014 #1 굴목²⁶⁹⁾은 주로 뭇똥으로 떼신에, 뭇똥으로.(‘굴목’은 주로 말똥으로 떼었어, 말똥으로.)

108014 @1 뭇똥.(말똥.)

108014 #1 굴목군데라는 것이 잇저, 굴목에이.(불당그래라는 것이 있어, ‘굴목’.)

108014 @1 예.(예.)

108014 #1 뭇똥을 이렇게 헨 끄어다가 굴목 거시기러레, 흙더레 막 담아 낵.(말똥을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굴목’ 거시리로, 흙으로 마구 담아 낵서.)

108014 @1 담아 놓고.(담아 놓고.)

108014 #1 담아 낵 불 부쨍, 불부쨍 내버리면 불이 탈 거 아니가?(담아 낵서 불 붙여서 내버리면 불이 탈 거 아니냐?)

108014 @1 예.(예.)

108014 #1 경허민 불이 영 오지 못허게 도에, 큰 돌로이 납작헌 돌로 이렇게 불 나오지 않게 막아났저.(그러면 불이 이렇게 오지 못하게 입구에, 큰 돌로 납작한 돌로 이렇게 불 나오지 않게 막았었어.)

108014 @1 납작헌 돌, 그 막는 돌을 또 뭐렌 부르는 건 엇어났수과?(납작한 돌, 그 막는 돌을 또 뭐라고 부르는 건 없었습니까?)

108014 #1 건 뭐렌 허는 건 엇다.(건 뭐라고 하는 건 없다.)

268) ‘가라스’는 일본어 ‘ガラス’로 유리를 말한다.

269)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떼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8014 @1 엇고예.(없고요.)

108014 #1 건 공기를 통해야 거 불이 타니까.(건 공기를 통해야 거 불이 타니까.)

108015 @1 예, 예. 초가지붕 밑에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앞에 세우는 거 잇잖아예?(예, 예. 초가지붕 밑에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앞에 세우는 거 잇잖아요?)

108015 #1 거 풍채.(거 차양.)

108015 @1 여기도 그냥 풍채렌 헤난마씨?(여기도 그냥 차양이라고 했었어요?)

108015 #1 으, 풍채.(으, 차양.)

108015 @1 풍채가 그냥 달려 잇는 것도 잇고 떼여지는 것도 잇수과?(차양이 그냥 달려 잇는 것도 잇고 떼이는 것도 잇습니까?)

108015 #1 으. 보통 달려져.(으. 보통 달렸어.)

108015 @1 아, 떼당 부쳐당 안 허고 달려진 걸로?(아, 떼다가 붙였다가 안 하고 달린 걸로?)

108015 #1 으, 보통 달려져. 아, 떼당 허게, 허게도 뻬져. 건 끈으로 영 풍채 영 도리에 돌아메영.(으, 보통 달려. 아, 떼다가 하게, 하게도 뻬어. 건 끈으로 이렇게 차양을 이렇게 도리에 달아매어서.)

108016 @1 예, 예. 물팡²⁷⁰이렌 허지예, 그냥예?(예, 예. ‘물팡’이라고 하지요, 그냥예?)

108016 #1 으. 물팡이엔 현 건이.(으. ‘물팡’이라고 한 건.)

108016 @1 예.(예.)

108016 #1 그 물 길어다근에 허벅 잇잖허이?(그 물 길어다가 허벅 잇잖아?)

108016 @1 예.(예.)

108016 #1 그걸 항상 그 놔 두는 것²⁷¹라 물팡이엔 현다. 물허벅²⁷¹ 그 보관허는 그 집 앞에 그 축담²⁷²에 부짱 그건 논다.(그걸 항상 그 놔두는 것보고 ‘물팡’이라고 한다. ‘물허벅’ 그 보관하는 그 집 앞에 그 ‘축담’에 붙어서 그건 놓는다.)

108016 @1 그 정지 앞에?(그 부엌 앞에?)

108016 #1 정지 앞에, 아무 디 그자 집 앞이도 뵈고.(부엌 앞에, 아무 데 그자 그 집 앞에도 뵈고.)

108016 @1 집 앞이도 뵈고 물팡?(집 앞에도 뵈고 ‘물팡’?)

108016 #1 으.(으.)

108016 @1 허벅 무거워부난 거기서 내리는 게 아니?(허벅 무거우니까 거기서 내리는 게 아니?)

108016 #1 허벅이 놀 디가 엇지게. 향시 지영 텅길 거니까 허벅.(허벅이 놓을 데가 없지. 향시 지고 다닐 거니까 허벅.)

108016 @1 아니 물 땡 와신디 물 부리젠 허난 무거워부난 물팡 우이 영.(아니,

270)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곳을 말한다.
 271) ‘물허벅’은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는 허벅이다.
 272) ‘축담’은 집채 둘레에 돌로 쌓은 담을 말한다.

물 떠서 왔는데 물 내리려고 하니까 무거우니까 ‘물팡’ 위에 이렇게.)

108016 #1 아니, 아니. 물팡은 항상 물허벅 보관하는 장소.(아니, 아니. ‘물팡’은 항상 ‘물허벅’ 보관하는 장소.)

108016 @1 아, 우이 영 물허벅 영 올려 놔두는 거마씨?(아, 위에 이렇게 ‘물허벅’ 이렇게 올려 놔두는 거요?)

108016 #1 으. 경혜사 거기 산 채로 영 물 지게끔 영 뿔주게. 영 굽영 허젠 허민 안 돼니까 그냥 이만이 높이 해 가지고서 물 지는 사람이 꼭 알맞게끔 그냥 어깨에 끼울 수 있게끔 허는 거.(으. 그래야 거기 선 채로 이렇게 물 지게끔 이렇게 됐지. 이렇게 굽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만큼 높이 해 가지고서 물 지는 사람이 꼭 알맞게끔 그냥 어깨에 끼울 수 있게끔 하는 거.)

108017 @1 집집마다 골목은 다 잇었수과?(집집마다 골목은 다 있었습니까?)

108017 #1 골목 신 디.(골목 있는 데.)

108017 @1 올레?(‘올레’?)

108017 #1 으, 올레²⁷³가 다 잇었어.(으, ‘올레’가 다 있었어.)

108017 @1 올레가 다 잇었어예. 올레가 곧장 허지 않고 약간 영 구불구불.(‘올레’가 다 있었어예. ‘올레’가 곧장 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

108017 #1 경헌 디도 잇고 저 보통, 옛날은 꼬불꼬불헌 올레도 만이 잇었주.(그런 데도 잇고 저 보통, 옛날은 꼬불꼬불한 ‘올레’도 많이 있었지.)

108017 @1 그 우리 안거리, 밧거리엔 허고 모커리엔 허잖아예?(그 우리 안채, 바깥채라고 하고 곁채라고 하잖아요?)

108017 #1 으.(으.)

108018 @1 이걸 문간채엔 헌 말은 안 씩니까?(이걸 문간채라고 한 말은 안 씩니까?)

108018 #1 우리 제춧말론 문간채엔 헌 말 안 쓴다.(우리 제춧말론 문간채라고 한 말은 안 쓴다.)

108003 @1 모커리 용도는 뭐과?(곁채 용도는 뭐니까?)

108003 #1 모커리 용도는 대개 뭐인가 부엌, 부엌을 주로 헛주.(곁채 용도는 대개 뭐인가 부엌, 부엌을 주로 했지.)

108003 @1 그 웨양간, 쉼막 같은 거는?(그 외양간, 외양간 같은 거는?)

108003 #1 쉼막은 밧거리에.(외양간은 바깥채에.)

108003 @1 아, 쉼막은 위치가 밧거리가 되는 거?(아, 외양간은 위치가 바깥채가 되는 거?)

108003 #1 으.(으.)

108019 @1 늘 늘어나면 가리, 늘 잇지예. 늘 뒤에서 거기 막 슴박꼭질도 허고 곱을락 같은 것도 허고.(가리 가리면 가리, 가리 잇지요. 가리 뒤에서 거기 마구 슴바꼭질도 하고 슴바꼭질 같은 것도 하고.)

273)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108019 #1 아, 옛날 경혜나신에. 옛날 어린아이덜.(아, 옛날 그랬었어. 옛날 어린 아이들.)

108019 @1 으, 놀 눈 거, 가리라는 말은 안 하고 놀이엔 허는 거?(으, 가리 가 린 거, 가리라는 말은 안 하고 ‘놀’이라고 하는 거?)

108019 #1 으, 그냥 놀이엔 현다. 아이덜 놀 트멍에 강 곱고 그렇게 헛주게.(으, 그냥 ‘놀’이라고 한다. 아이들 가리 틈에 가서 숨고 그렇게 했었지.)

108020 @1 통시?(돼지우리?)

108020 #1 건 통시는 지금 뭐인가 화장실인데.(건 돼지우리는 지금 뭐인가 화장 실인데.)

108020 @1 으.(으.)

108020 #1 통시엔도 허고 칙간이엔도 허고.(돼지우리라고도 하고 측간이라고도 하고.)

108020 @1 아, 칙간이엔도 해낫수과?(아, 측간이라고도 했었습니까?)

108020 #1 으.(으.)

108020 @1 통시엔 도새기 잇, 돼야지 잇수과?(돼지우리라고 돼지 잇, 돼지 있습 니까?)

108020 #1 으, 집집마다 거 돼야지, 집집마다 다 질좌세. 왜냐허면 걸름을 하기 위해.(으, 집집마다 거 돼지, 집집마다 다 길렀어. 왜냐하면 거름을 하기 위해.)

108020 @1 걸름.(거름.)

108020 #1 걸름허고 또 다시 우리가 음식물 찌거기 다 돼야지가 먹으난 아무것 도 버릴 것이 없주게.(거름하고 또 다시 우리가 음식물 찌거기 다 돼지가 먹으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지.)

108020 @1 예. 돼지 사는 집도 잇잖아예?(예. 돼지 사는 집도 있잖아요?)

108020 #1 집 잇주.(집 있지.)

108020 @1 게민 거 돼야지 집이엔 해?(그럼 거 돼지 집이라고 해?)

108020 #1 돼야지 집이주.(돼지 집이지.)

108020 @1 지붕 잇수과?(지붕 있습니까?)

108020 #1 지붕 멘들아 쥐야지게.(지붕 만들어 쥐야지.)

108021 @1 멘들아 쥐야. 게민 우리가 일 보는 데에는, 일 보는 데는.(만들어 쥐 야. 그럼 우리가 일 보는 데에는, 이 보는 데는.)

108021 #1 건 디들팡이라고 해. 디들팡.(건 부출돌이라고 해. 부출돌.)

108021 @1 디들팡 거기는 지붕 잇어낫수과?(부출돌 거기는 지붕 있었습니까?)

108021 #1 아니 엇어.(아니 없어.)

108021 @1 디들팡은 나무로 만들앗수과, 돌로 헛수과?(부출돌은 나무로 만들었 습니까, 돌로 헛습니까?)

108021 #1 돌로 헛주.(돌로 헛지.)

108021 @1 다 돌로?(다 돌로?)

108021 #1 으.(으.)

108023 @1 쉼막?(외양간?)

108023 #1 거 쉼막은 소 뭐인가 소 메는 디가, 쉼 메는 디가 쉼, 쉼막.(거 외양간은 소 뭐인가 소 매는 데가, 소 매는 데가 외, 외양간.)

108023 @1 헛간에는 뭐 보관해놔수과?(헛간에는 뭐 보관했었습니까?)

108023 #1 헛간에는 기차 농기구 거튼 거. 헛간에 잡대 거튼 거, 쟁이 거튼 거, 삽 거튼 거, 뭐.(헛간에는 그저 농기구 같은 거. 헛간에 쟁기 같은 거, 쟁이 같은 거, 삽 같은 거, 뭐.)

108023 @1 으.(으.)

108023 #1 농기구 보관하는 디가 헛간이랏주.(농기구 보관하는 데가 헛간이었지.)

108024 @1 으, 으. 장독대는 장독대렌 헛수과, 아니면?(으, 으. 장독대는 장독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108024 #1 거 장독대엔 헛저.(거 장독대라고 했어.)

108024 @1 장들 보관하는 디, 아니 항아리들.(장들 보관하는 데, 아니 항아리들.)

108024 #1 게메 그 장 논 것ᄇ라 장독대엔 헛주.(글쎄 그 장 넣는 것보고 장독대라고 했지.)

108025 @1 춤향이 뭐과, 춤향?(‘춤’은 뭘니까, ‘춤’?)

108025 #1 아, 춤²⁷⁴, 춤향²⁷⁵이엔 허는 건 건 어떤 거고 허민이 나무 잇잖아 이.(아, ‘춤’, ‘춤향’이라고 하는 건 건 어떤 거고 하면 나무 잇잖아.)

108025 @1 으.(으.)

108025 #1 물이 귀허니까이 그 나무에이, 이것이 나무면이 이디 영 저 뭐인가 물 새로 영 예껴근에 허면 이렇게 영 허면은 물이 영 오면은 일로 해 가지고서 항 더레 물이 빠지게끔. 그 큰 나무에서는 물이 만이 나온다. 것ᄇ라 춤향이엔 현다. 춤, 춤 받는다고.(물이 귀하니까 그 나무에, 이것이 나무면 여기 이렇게 저 뭐인가 물 띠로 이렇게 엮어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오면 일로 해 가지고서 향에 물이 빠지게끔. 그 큰 나무에서는 물이 많이 나온다. 것보고 ‘춤향’이라고 한다. ‘춤’, ‘춤’ 받는다고.)

108025 @1 춤 받는 거예?(‘춤’ 받는 거요?)

108025 #1 물 내려오는 거, 나무에서 내려오는 걸 춤 받는다고.(물 내려오는 거, 나무에서 내려오는 걸 춤 받는다고.)

108025 @1 예, 물 받는 거.(예, 물 받는 거.)

연장

274) ‘춤’을 띠를 머리 땅듯이 땅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이나 빗물 따위를 나무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 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275) ‘춤향’은 ‘춤’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받는 항아리를 말한다.

108033 @1 지난번에 집 짓는 것까지 물어봐신디예.(지난번에 집 짓는 것까지 물어봤는데요.)

108033 #1 으. 집 짓는 거.(으. 집 짓는 거.)

108033 @ 집 짓을 때 연장들예, 뭐 필요할 건고, 나무 헐 때서부터. 나무 허젠 허민?(집 지을 때 연장들요, 뭐 필요할 건고, 나무 할 때에서부터. 나무 하려고 하면?)

108033 #1 나무 헐 때부터이 톱, 또 뭐인가 돌도치란 게 잇저, 옛날에 영.(나무 할 때부터 톱, 또 뭐인가 돌도끼란 게 있어, 옛날에 이렇게.)

108033 @1 돌도치?(돌도끼?)

108033 #1 아니, 저 남, 낭 도치란 게 잇저, 남 끈는 도치.(아니, 저 나무, 나무 도치란 게 있어, 나무 끊는 도끼.)

108033 @1 으, 도치.(으, 도끼.)

108033 #1 으, 그거하고 톱이 그것만 필요하다. 남 끈을 땀. 옛날에 목수덜은 뭐 대패니 끌이니 뭐이니는 건 목수가 거세기 허는 것이고.(으, 그거하고 톱이 그것만 필요하다. 나무 끊을 땀. 옛날에 목수들은 뭐 대패니 끌이니 뭐이니 건 목수가 거시기 하는 것이고.)

108033 @1 으.(으.)

108033 #1 집 주인이 허는 것은 나무 끈는 거 때문에 그 저 뭐인가 톱허고이.(집 주인이 하는 것은 나무 끊는 거 때문에 그 저 뭐인가 톱하고이.)

108033 @1 예.(예.)

108033 #1 나무 잘르는 톱허고 남 도끼 그거 주로 필요하다.(나무 자르는 톱하고 나무 도끼 그거 주로 필요하다.)

108033 @1 나무 도끼를 아까 도치렌 헛수과?(나무 도끼를 아까 ‘도치’라고 했습니까?)

108033 #1 으, 우리 제춇말로 도치, 도치.(으, 우리 제춇말로 ‘도치’, 도끼.)

108034 @1 도치예. 그럼 톱은 크기가 여러 종류?(도끼요. 그럼 톱은 크기가 여러 종류?)

108034 #1 으, 여러 종류 잇저.(으, 여러 종류 있어.)

108034 @1 크기별로 뭐 명칭 따로 엇수과?(크기별로 뭐 명칭 따로 없습니까?)

108034 #1 큰 톱은 큰 톱 뭐 작은 톱 경허주게. 뭐 그 그 명칭덜 나 잇어불엇는 데 옛날에 큰 뭐엔, 뭐엔 한다만은.(큰 톱은 큰 톱 뭐 작은 톱 그렇지. 뭐 그 그 명칭들 나 잇어버렸는데 옛날에 큰 뭐라고, 뭐라고 한다만.)

108034 @1 거두를 헉니까, 흑시?(거도를 합니까, 흑시?)

108034 #1 보통 걸 거두엔 한다. 거 작은 거라 거두엔 허주.(보통 걸 거도라고 한다. 거 작은 것보고 거도라고 하지.)

108034 @1 아, 작은 거라 거두예?(아, 작은 거보고 거도요?)

108034 #1 큰 것라 톱이엔 허고.(큰 것보고 톱이라고 하고.)

108034 @1 그민 톱은 영 놀이 잇고?(그럼 톱은 이렇게 날이 잇고?)

108034 #1 으, 하나로 영 놀이 잇어근에 쪽 허게 뵈 것도 잇고.(으, 하나로 이렇게 날이 잇어서 쪽 허게 뵈 것도 잇고.)

108034 @1 예.(예.)

108034 #1 또 다시 둘이가 이렇게 뺑기는 톱도 잇저. 그거, 것ㄴ라 또 톱이엔 허주.(또 다시 둘이 이렇게 당기는 톱도 잇어. 그거, 것보고 또 톱이라고 하지.)

108034 @1 으.(으.)

108034 #1 둘이가 이쪽에 앓고 썩쪽에 앓고 가령 뵈 대판 같은 거, 널 같은 거 오리젠 허면은 그건 다른 톱이라 뵈여.(둘이 이쪽에 앓고 저쪽에 앓고 가령 뵈 대판 같은 거, 널 같은 거 오리려고 하면 그건 다른 톱이야 돼.)

108034 @1 아, 다른 톱이라야 뵈여.(아, 다른 톱이라야 돼.)

108034 #1 그건 뵈인가 그 저기 나무 오리는 톱이엔 현 게 또 따로 잇저.(그건 뵈인가 그 저기 나무 오리는 톱이라고 한 게 또 따로 잇어.)

108034 @1 으, 그거 부르는 이름은 모르고마씨?(으, 그거 부르는 이름은 모르고요?)

108034 #1 것ㄴ란 나무 오리는 톱이엔 허주게.(것보고 나무 오리는 톱이라고 하지.)

108034 @1 그냥 나무 오리는 톱예?(그냥 나무 오리는 톱요?)

108034 #1 막 큰 건 대톱이엔 허고.(아주 큰 건 대톱이라고 하고.)

108034 @1 게민 제일 큰 게 대톱이라?(그럼 제일 큰 게 대톱이야?)

108034 #1 으.(으.)

108034 @1 그다음 나무 오리는 톱?(그다음 나무 오리는 토?)

108034 #1 으. 나무 오리는 것ㄴ라 대톱이엔 현다. 큰 톱이난.(으. 나무 오리는 것보고 대톱이라고 한다. 큰 톱이니까.)

108034 @1 아, 나무 오리는 걸 대톱이엔 허는 거예?(아, 나무 오리는 걸 대톱이라고 하는 거요?)

108034 #1 으. 또 다시 이제 톱 쪽에 넓썩현 톱이 잇주.(으. 또 다시 이제 톱 쪽에 넓썩한 톱이 잇지.)

108034 @1 으.(으.)

108034 #1 거 일본말로 고비끼리²⁷⁶⁾엔 헤 가지고서 그건 혼자 막 톱이 막 이렇게이 혼자 허는 건데 톱이 막 넓나.(거 일본말로 ‘고비끼리’라고 헤 가지고서 그건 혼자 아주 톱이 마구 이렇게 혼자 하는 건데 톱이 아주 넓어.)

108034 @1 어.(어.)

108034 #1 거 고비끼리. 일본말로 고비끼리엔 현 건 옆으로 썩르는 걸 고비끼리엔 현다. 게난 고비끼리, 고비끼리엔 헤낫저.(거 거도. 일본말로 ‘고비끼리’라고 한 건 옆으로 자르는 걸 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도, 거도라고 했었어.)

276) ‘고비끼리’는 ‘거도’를 가리킨다.

108034 @1 고비끼리?(거도?)

108034 #1 으, 옆으로 영 쫄랑.(으,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108034 @1 아, 고비끼리. 아, 아.(아, 거도. 아, 아.)

108034 #1 그런 것도 있고 그자 톱도 있고 죽은 건 거두엔 허고.(그런 것도 있고 그저 톱도 있고 작은 건 거도라고 하고.)

108034 @1 죽은 걸 거두엔 허는 것과?(작은 걸 거도라고 하는 겁니까?)

108034 #1 으,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잇는 걸 거두엔 한다.(으,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잇는 걸 거도라고 한다.)

108034 @1 아.(으.)

108034 #1 가정용으로 사용허는.(가정용으로 사용하는.)

108034 @1 가정용으로 사용허는 거예. 그럼 보통 집에 잇는 거는?(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거요. 그럼 보통 집에 잇는 거는?)

108034 #1 다, 다 거두여.(다, 다 거도야.)

108034 @1 거두라예. 대톱이니 아까 고비끼리니 그런 건 엇고예.(거도지요. 대톱이니 아까 ‘고비끼리’니 그런 건 없고요.)

108034 #1 으.(으.)

108034 @1 그민 톱 허민 톱날이 잇고.(그럼 톱 하면 톱날이 잇고.)

108034 #1 사람 손잡이가 잇고.(사람 손잡이가 잇고.)

108034 @1 으, 손잡이 잇고 그다음 톱.(으, 손잡이 잇고 그다음 톱.)

108034 #1 나무 거세기, 나문가 영 거 오리는 건이 아까 그 대톱이니 해 가지고서 양쪽에 뭐 서기도 한다. 막 큰 아주 이런 나무는. 그것은 톱이 어떻게 뻗는고 허니 이렇게 이렇게 영 와꾸²⁷⁷거치 이렇게 뻗 가지고이.(나무 거시기, 나문가 이렇게 거 오리는 건 아까 그 대톱이니 해 가지고서 양쪽에 뭐 서기도 한다. 아주 큰 아주 이런 나무는. 그것은 톱이 어떻게 뻗는가 하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틀같이 돼 가지고.)

108034 @1 으.(으.)

108034 #1 가운데 날이 잇주.(가운데 날이 있지.)

108034 @1 으.(으.)

108034 #1 가운데 날이 이시민, 가운데 날이 잇이니까 이렇게 와꾸 이렇게 현 것은 여기 다 이거 춤베로 다 이렇게 단단하게 무껴 잇저. 그거에 해 가지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 쓰게끔 해 가지고 이제 땡기,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가운데 날이 있으면, 가운데 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틀 이렇게 한 것은 여기 다 이거 참바로 다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 있어. 그거에 해 가지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 쓰게끔 해 가지고 이제 당기,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108034 @1 아, 두 쪽 손잡이를 해 가지고?(아, 두 쪽 손잡이를 해 가지고?)

108034 #1 으, 이렇게, 이렇게 짜젓주, 이렇게 짜전 가운데가 늘인데 여기 사람

277) ‘와꾸’는 일본어 ‘わく(枠)’로 틀, 테두리의 의미다.

얏얏 손잡이 잡고 여기 잡고 막 거 진다. 두 발 내지 서 발.(으, 이렇게, 이렇게 짜
였어, 이렇게 짜여서 가운데가 날인데 여기 사람 앉아서 손잡이 잡고 여기 잡고 마
구 거 길다. 두 발 내지 서 발.)

108034 @1 아, 두 발 내지 서 발, 크기가?(아, 두 발 내지 서 발, 크기가?)

108034 #1 두 발 정도, 거의 한 발가웃 내지 두 발 정도.(두 발 정도, 거의 한
발가웃 내지 두 발 정도.)

108034 @1 아, 그거, 그거는 나무 행 올 때 쓰는 거라.(아, 그거, 그거는 나무
해서 올 때 쓰는 거야.)

108034 #1 그건 집에서 뭐 문이나 대판이란 게 있져, 대판. 그리고 널 올릴 때
주로 저 그 톱으로 대톱으로 사용해주게. 저디 강 나무 끈는 것은 큰 톱으로.(그건
집에서 뭐 문이나 대판이란 게 있어, 대판. 그리고 널 올린 때 주로 저 그 톱으로
대톱으로 사용하지. 저기 가서 나무 끊는 것은 큰 톱으로.)

108034 @1 아, 큰 톱으로.(아, 큰 톱으로.)

108034 #1 으.(으.)

108034 @1 큰 톱이랑 아까 도치랑예?(큰 톱이랑 아까 도끼랑요?)

108034 #1 으, 도치. 그런 거.(으, 도끼. 그런 거.)

108034 @1 그런 거 사용하는 거예. 그민 나무는 톱으로 행 행 왔수다. 오면은
나머지 목수들이 쓰는 목수들이 쓰는.(그런 거 사용하는 거요. 그럼 나무는 톱으로
해서 해서 왔습니다. 오면 나머지 목수들이 쓰는 목수들이 쓰는.)

108034 #1 계난 그 제재소가 나기 전에는이, 나무 오리는 공장 있지 않허냐?(그
러니까 그 제재소가 나기 전에는, 나무 오리는 공장 있지 않니?)

108034 @1 예, 예.(예, 예.)

108034 #1 그거 나기 전에는 목수가 그 뭐인가 도치와 그 뭐인가 번자귀²⁷⁸⁾엔
현 게 있져. 그걸로 다 나무를 목수가 집 짓기 전이 자기 혼자 다 다듬었는데.(그거
나기 전에는 목수가 그 뭐인가 도끼와 그 뭐인가 ‘번자귀’라고 한 게 있어. 그걸로
다 나무를 목수가 집 짓기 전에 자기 혼자 다 다듬었는데.)

108034 @1 으.(으.)

108034 #1 처음에는 그렇게 다듬었는데, 제재소가 나기 시작허니까 이제는 주인
이 나무를 끈어올 거 아니가이?(처음에는 그렇게 다듬었는데, 제재소가 나기 시작하
니까 이제는 주인이 나무를 끊어올 거 아니냐?)

108034 @1 으.(으.)

108034 #1 끈어 오면은 그 집이 뭐인가 그 집 구조에 맞게끔 제재소에 강 나무
를 시경 강 다 오려온다. 그디 강 제젤 행 와. 제재소에 강.(끊어 오면 그 집이 뭐
인가 그 집 구조에 맞게끔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실어 가서 다 오려온다. 거기 가
서 제젤 해서 와. 제재소에 가서.)

278) ‘번자귀’는 자귀의 한 종류로 날이 가로로 되어 있어 주로 굵은 통나무를 서서 깎는데 알맞게 만들어진 도
구다.

108034 @1 아.(아.)

108034 #1 계난 그거 허기 전에는.(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는.)

108034 @1 으.(으.)

108034 #1 목수가 다 전적으로 그 뭐인가 그 귀자귀하고 그런 걸로 다 치목을 했주, 다. 다듬앗주.(목수가 다 전적으로 그 뭐인가 그 귀자귀하고 그런 걸고 다 치목을 했지, 다. 다듬앗지.)

108034 @1 맞추명 치수 맞추명 그거에 맞게 다 다듬앙.(맞추면서 치수 맞추면서 그거에 맞게 다 다듬어서.)

108034 #1 으.(으.)

108034 @1 목수가 헛엇던 거예?(목수가 헛엇던 거요?)

108034 #1 계난 남거튼 거 할 때도이 목수를 들앙, 들앙 가야 웬다. 그 꼬부라진 낭 쓸 때도 있거든.(그러니까 나무같은 거 할 때도 목수를 데리고, 데리고 가야 된다. 그 꼬부라진 나무 쓸 때도 있거든.)

108034 @1 으.(으.)

108034 #1 그런 걸 다 목수가 요건 어디 쓰고 어디 쓰고 목수가 남, 집 짓기 전이 강 그 남을 다 지정, 지정해야 돼. 그런 남을.(그런 걸 다 목수가 요건 어디 쓰고 어디 쓰고 목수가 나무를, 집 짓기 전에 가서 그 나무를 다 지정, 지정해야 돼. 그런 나무를.)

108034 @1 아, 그럼 이 나문 길이 어느 정도 해서 잘르라고 허고?(아, 그럼 이 나문 길이 어느 정도 해서 자르라고 하고?)

108034 #1 으, 그렇게 해서 목수가 다 거시기 현 대로 제재행 왕 집을 짓는 거.(으, 그렇게 해서 목수가 다 거시기 한 대로 제재해서 와서 집을 짓는 거.)

108033 @1 계민 목수가 사용하는 도구는 뭐, 뭐 이신지 알아지쿠과?(그럼 목수가 사용하는 도구는 뭐, 뭐 있는지 알겠습니까?)

108033 #1 목수가 사용하는 거는 많주게. 우선 거뒤가 잇고이.(목수가 사용하는 거는 많지. 우선 거도가 잇고.)

108033 @1 거뒤.(거도.)

108033 #1 톱도 잇고 거뒤가 잇고이. 또 다시 아까 그 뭐인가 나무, 도치가 잇고이.(톱도 잇고 거도가 잇고. 또 다시 아까 그 뭐인가 나무, 도끼가 잇고.)

108033 @1 으.(으.)

108033 #1 대패, 나무 집 짓젠 허민 그 뭐인가 남을, 남을 깨끗이 깎아야 될 거 아니라.(대패, 나무 집 지으려고 하면 그 뭐인가 나무를, 나무를 깨끗이 깎아야 될 거 아니야.)

108033 @1 으.(으.)

108033 #1 대패란 것이 잇고이. 또 끝이란 것이 잇고. 끝은 구녕 뜯루는 거.(대패란 것이 잇고. 또 끝이란 것이 잇고. 끝은 구멍 뚫는 거.)

108033 @1 구녕 뜯루는 걸 끝이렌 헤마씨?(구멍 뚫는 걸 끝이라고 해요?)

108033 #1 으.(으.)

108033 @1 그 정도면 뒤는 거마씨?(그 정도면 되는 거요?)

108033 #1 그 정도민. 그리고 또 먹통이란 게 있어야 뒤.(그 정도면. 그리고 또 먹통이란 게 있어야 뒤.)

108033 @1 예, 예. 먹통.(예, 예. 먹통.)

108033 #1 먹통은 왜냐하면 나무 줄을 바꾸기 위해서 그 줄 긋어 가지고 나무를 쫄르는 거.(먹통은 왜냐하면 나무 줄을 바꾸기 위해서 그 줄 그어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거.)

108033 @1 예, 예. 먹통 있다 다시 물어보쿠다예. 뒤에 쓰는 건지예?(예, 예. 먹통 있다 다시 물어보겠습다. 뒤에 쓰는 건지요?)

108033 #1 건 나무 거세기 혈 적에 선을 긋어근에 나무 멧 센치 놓면은 그대로 줄을 그걸로 먹통으로 영헨 딱 허게 줄이 짝 긋어지면 나무를 잘라 가지고서.(건 나무 거시기 할 적에 선을 그어서 나무 멧 센치 놓으면 그대로 줄을 그걸로 먹통으로 이렇게 딱 허게 줄이 짝 그어지면 나무를 잘라 가지고서.)

108033 @1 예, 예.(예, 예.)

108033 #1 잘라 가지고서.(잘라 가지고서.)

108033 @1 아. 툇에 툇에 날이 잇고 손잡이가 잇고 손잡이랑 날이랑 연결허는 부분이 잇잖아예?(아. 툇에 툇에 날이 잇고 손잡이가 잇고 손잡이랑 날이랑 연결하는 부분이 잇잖아요?)

108033 #1 어, 췌, 손잡이는 나무로 뒤어 잇고.(어, 쇠, 손잡이는 나무로 뒤어 잇고.)

108033 @1 예.(예.)

108033 #1 그 뒤로는 전부 다 그 뒤인가 췌로 다 뒤 잇주.(그 뒤로는 전부 다 그 뒤인가 쇠로 다 뒤 잇지.)

108033 @1 그런 거를 뒤렌 곤는 명칭이 잇수과?(그런 거를 뒤라고 말하는 명칭이 잇습니까?)

108033 #1 그거 뒤 그냥 툇 즈룩이엔 허고.(그거 뒤 그냥 툇 자루라고 하고.)

108033 @1 이게 만약 툇이렌 허면은.(이게 만약 툇이라고 하면.)

108033 #1 이게 즈룩이고 이게 툇이고.(이게 자루고 이게 툇이고.)

108033 @1 툇이고예. 여기 연결허는 췌 같은 거는 명칭이 따로 없지예?(툇이고요. 여기 연결하는 쇠 같은 거는 명칭이 따로 없지요?)

108033 #1 그거이 이 췌가 구워 가지고서이 이게 뒤인가 호미나 뒤이나 다 그렇게 헤근에 허민 안 빠진다.(그거 이 쇠가 구워 가지고서 이게 뒤인가 낫이나 뒤이나 다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빠진다.)

108033 @1 예, 예. 안 빠지게 딱, 딱 조이는 역할로 헿 잇는 거예?(예, 예. 안 빠지게 딱, 딱 조이는 역할로 해서 잇는 거요?)

108033 #1 으.(으.)

108033 @1 요런 데, 요런 데.(요런 데, 요런 데.)

108033 #1 으. 요건 쉼스렁.(으. 요건 쇠스랑.)

108033 @1 예, 쉼스렁이고. 호미가 영 보민 모양이 특나잖아예.(예, 쇠스랑이고. 낫이 이렇게 보면 모양이 다르잖아요.)

108033 #1 이건 이건 나무 찍는 호미. 이건 주로 나무 찍는 호미여. 이건 우리 그냥 사용허는 호미고. 이건 나무 찍는 호미, 이거 ㄱ라.(이건 이건 나무 찍는 낫. 이 건 주로 나무 찍는 낫이야. 이건 우리 그냥 사용하는 낫이고. 이건 나무 찍는 낫, 이것보고.)

108033 @1 제일 큰 게 나무 찍는 호미?(제일 큰 게 나무 찍는 낫?)

108033 #1 으.(으.)

108033 @1 그다음 두 번째 거는?(그다음 두 번째 거는?)

108033 #1 요거는 보통으로 우리가 보리도 비고 조도 비는 거.(요거는 보통으로 우리가 보리도 베고 조도 베는 거.)

108033 @1 으, 비는 거. 요거는?(으, 베는 거. 요거는?)

108033 #1 거나 이거나 거의 ㄱ튼데 요거 두 개는 주로 나무, 나무 할 때. 나무에 가지에 가지치기 허고 할 때 사용허는 거.(거나 이거나 거의 같은데 요거 두 개는 주로 나무, 나무 할 때. 나무에 가지에 가지치기 하고 할 때 사용하는 거.)

초가지붕 이기

108026 @1 예. 지붕 이는 거 잇잖아예. 초가지붕 이는 거?(예. 지붕 이는 거 잇잖아요. 초가지붕 이는 거?)

108026 #1 으, 새로 인다.(으, 띠로 인다.)

108026 @1 새로 이는 거잖아예?(띠로 이는 거잖아요?)

108026 #1 으.(으.)

108026 @1 보통 얼마마다, 일 년에 한 번?(보통 얼마마다, 일 년에 한 번?)

108026 #1 우리 북군²⁷⁹)에는 보통 이 년에 한 번이다.(우리 북군에는 보통 이 년에 한 번인데.)

108026 @1 예.(예.)

108026 #1 이 정의는 남군²⁸⁰)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매해 인다. 해마다.(이 정의는 남군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매해 인다. 해마다.)

108026 @1 아, 남군에는 매해 허고 여기 우리는.(아, 남군에는 매해 하고 여기 우리는.)

108026 #1 여긴 이 년에 한 번 한다.(여긴 이 년에 한 번 한다.)

108026 @1 아, 이 년에 한 번마씨.(아, 이 년에 한 번요.)

279) '북군'은 '북제주군'을 말한다. 북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제주시로 통합되었다.

280) '남군'은 '남제주군'을 말한다. 남제주군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 구역 명칭으로 2006년에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108026 #1 안 이는 걸 일 년 갓을 들인다고 한다.(안 이는 걸 일 년 갓을 들인다고 한다.)

108027 @1 그럼 지붕 이젠 허면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어마씨?(그럼 지붕 이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108027 #1 준비해야 될 건이 첫째이 농서가 다 끝나면 새란 게 있다, 새.(준비해야 될 건 첫째 농사가 다 끝나면 띠란 게 있다, 띠.)

108027 @1 으.(으.)

108027 #1 농서가 흔 시월 말 돼민 끝나면은 흔 십이월 이 보리 다 갈아 놓 다음에.(농사가 한 시월 말 되면 끝나면 한 십이월 이 보리 다 갈아 놓은 다음에.)

108027 @1 으.(으.)

108027 #1 마지막에 허는 게 새를 저 뭐인가 동짓달에 새를 한다.(마지막에 하는 게 띠를 저 뭐인가 동짓달에 띠를 한다.)

108027 @1 으.(으.)

108027 #1 새를 우선 해다가 집에 쌓아 둘 거 아냐이?(띠를 우선 해다가 집에 쌓아 둘 거 아냐?)

108027 @1 예.(예.)

108027 #1 거 집을 일젠 허면은 보통 삼간집은 백오십, 거 뭐인가 흔 단 들어가는, 여기는 흔 못, 두 못 허는데 흔 백 내지 백오십 못이 든다.(거 집을 이려고 하면 보통 삼간집은 백오십, 거 뭐인가 한 단 들어가는, 여기는 한 못, 두 못 하는데 한 백 내지 백오십 못이 든다.)

108027 @1 삼간집 허는 데.(삼간집 하는 데.)

108027 #1 으, 삼간집 하나 일젠 허민.(으, 삼간집 하나 이려고 하면.)

108027 @1 으.(으.)

108028 #1 경헌데 그 집을 일젠 허면은 처음 준비할 게 새를 준비해야 돼고 그 다음에 줄은 내야 돼.(그런데 그 집을 이려고 하면 처음 준비할 게 띠를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줄은 내야 돼.)

108028 @1 예.(예.)

108028 #1 줄이란 것은 거 영 새로 영 그 뭐인가 다 집을 일어 가지고서 등돌을 매야 돼니까이.(줄이란 것은 거 이렇게 띠로 이렇게 그 뭐인가 다 집을 이어 가지고서 들들을 매야 되니까.)

108028 @1 으.(으.)

108028 #1 줄을 내야 돼. 줄을 사전에 내영. 줄도이 진 줄 즈른 줄이 잇저.(줄을 내야 돼. 줄을 사전에 내어서. 줄도 긴 줄 짧은 줄이 있어.)

108028 @1 으.(으.)

108028 #1 영 옆으로 진진헌 건 진 줄이엔 허고.(이렇게 옆으로 길디건 건 긴 줄이라고 하고.)

108028 @1 진 줄.(긴 줄.)

108028 #1 영 모로 오는 건 즈른 줄이엔.(이렇게 모로 오는 건 짧은 줄이라고.)
 108028 @1 으, 즈른 줄.(으, 짧은 줄.)
 108028 #1 그 줄을 내영 줄을 내야 돼주. 그 줄을 다 미룻에 내영 낫다가 집 일 때는 거 날 뵙 비, 날이 존 때.(그 줄을 내어서 줄을 내야 되지. 그 줄을 다 미리 내어서 낫다가 집 일 때는 거 날 봐서 비, 날이 좋을 때.)
 108028 @1 으.(으.)
 108028 #1 뭐인가 화일이 아닌 날을 택해 가지고서 집을 인다.(뭐인가 화일이 아닌 날을 택해 가지고서 집을 인다.)
 108028 @1 으.(으.)
 108028 #1 웨 화일을 피허는고 허면은 화일에 허면은 불이 난다는 뭐 속설이 잇기 때문에.(왜 화일을 피하는가 하면 화일에 하면 불이 난다는 뭐 속설이 잇기 때문에.)
 108028 @1 아, 지붕 이는 거 불화 안 들어간 날?(아, 지붕 이는 거 불화 안 들어간 날?)
 108028 #1 으, 화가 안 들어간 날.(으, 화가 안 들어간 날.)
 108028 @1 저기 지붕 이는 거라예?(저기 지붕 이는 거지요?)
 108028 #1 으, 으. 이는 거.(으, 으. 이는 거.)
 108028 @1 아, 새로 하니까 불 막 부터 불카 부덴.(아, 띠로 하니까 불 마구 불어 버릴까 봐.)
 108028 #1 그 화일은 불 날이기 때문에.(그 화일은 불 날이기 때문에.)
 108028 @1 예, 그 새로 뭐 저기 각단?(예, 그 띠로 뭐 저기 ‘각단’?)
 108028 #1 각단²⁸¹⁾으론, 각단이엔 현 건 쯤쯤현 샌데 북작현²⁸²⁾ 거.(‘각단’으론, ‘각단’이라고 한 건 자디잔 띠인데 박작한 거.)
 108028 @1 예.(예.)
 108028 #1 그걸로 줄 내는 거. 각단은 쯤라부난이 집을 못 일주게.(그걸로 줄 내는 거. ‘각단’은 짧아서 집을 못 이지.)
 108028 @1 아, 그럼 비어 온 것 중에 쯤 좋은 거는 덮을 거로?(아, 그럼 베어 온 것 중에 쯤 좋은 거는 덮을 거로?)
 108028 #1 으, 덮을 걸로 허고 제일 거기서 쯤른 거 잇주게, 북작허게 쯤른 거. 건 줄 널 용으로.(으, 덮을 거로 하고 제일 거기서 짧은 거 잇지, 박작허게 짧은 거. 건 줄 널 용으로.)
 108028 @1 아, 줄 내는 용으로.(아, 줄 내는 용으로.)
 108028 #1 으, 각단은 줄 내고 새로는 지붕을 일고.(으, ‘각단’은 줄 내고 띠로는 지붕을 이고.)
 108029 @1 줄 내젠 허민 뭐 뭐가 필요할 것과?(줄 내려고 하면 뭐 뭐가 필요할

281)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282) ‘북작허다’는 자잘한 것들이 뻑뻑하게 많이 모여 있는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겁니까?)

108029 #1 그 호랭이²⁸³란 게 필요허주.(그 ‘호랭이’라는 게 필요하지.)

108029 @1 예.(예.)

108029 #1 호랭이 거 나무로 만든 건데이. 나무로 만든 건데 중간에 철로 만든 것도 있고.(‘호랭이’ 거 나무로 만든 건데. 나무로 만든 건데 중간에 철로 만든 것도 있고.)

108029 @1 예.(예.)

108029 #1 옛날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저.(옛날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어.)

108029 @1 예.(예.)

108029 #1 그걸로, 각단으로 이제 우리 다른 것은 다 손으로 꼬는데.(그걸로 ‘각단’으로 이제 우리 다른 것은 다 손으로 꼬는데.)

108029 @1 으.(으.)

108029 #1 이 줄 내젠 허면은 독특한다.(이 줄 내려고 하면 독특하다.)

108029 @1 으.(으.)

108029 #1 그 각단이 각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땐 각단 양쪽으로 이제 영 행 질게 해 가지고 모양 이거 호랭이에 호랭이에 이거 끼울 거 아냐?(그 ‘각단’이 ‘각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각단’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길게 해 가지고 말아서 이거 ‘호랭이’에 ‘호랭이’에 이거 끼울 거 아냐?)

108029 @1 으.(으.)

108029 #1 끼우민 여저든 남저든 호랭일 비는²⁸⁴ 사람이 있어야 돼여.(끼우민 여자든 남자든 ‘호랭이’를 ‘비는’ 사람이 있어야 돼.)

108029 @1 으.(으.)

108029 #1 호랭이 영 비여 가민 이디선 영 거 줄 놓는다²⁸⁵고 그레. 각단으로 이렇게 손에 심영 베거치 쪽 일정하게 나게끔, 것도 기술이 필요허다 처음에는.(‘호랭이’ 이렇게 ‘비여’ 가면 여기선 이렇게 거 줄 놓는다고 그레. ‘각단’으로 이렇게 손에 잡고 바같이 쪽 일정하게 나게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108029 @1 으.(으.)

108029 #1 경혜 가지고서 그 줄을 다 놓면은 이것 또 줄 어울려야 돼여.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 가지고서이 합쳐 가지고서 것에 이젠 또다시 줄을 만든다.(그레 가지고서 그 줄을 다 놓으면 이것 또 줄 어울려야 돼.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 가지고서 합쳐 가지고서 것에 이젠 또다시 줄을 만든다.)

108029 @1 으.(으.)

108029 #1 비어 낱. 경헨 줄 그거 해 가지고서 이제 거 보관헿당 줄 그렇게 비

283) ‘호랭이’는 집줄,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284) ‘비다’는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그것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엮어매는 ‘집줄’을 만들기 위해 띠를 꼬는 것을 말한다.

285) ‘줄 놓다’은 ‘집줄’을 꼬아 만드는 데는 띠를 알맞게 차례로 잘 조정해 주어 알맞은 굵기로 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비어' 놔서. 그러해서 줄 그거 해 가지고서 이제 거 보관했다가 줄 그렇게 '비고'.)

108029 @1 으.(으.)

108029 #1 어울리고 베를 만드는 거지, 줄을 만드는 거.(어울리고 바를 만드는 거지, 줄을 만드는 거.)

108029 @1 으, 으.(으, 으.)

108029 #1 어울리고 경헨 낫당 일자 봐근에 새로 집을 이는 거지.(어울리고 그렇게 낫다가 일자 봐서 띠로 집을 이는 거지.)

108029 @1 음. 영 돌리는 걸 호랭이렌 허잖아예?(음. 이렇게 돌리는 걸 '호랭이'라고 하잖아요?)

108029 #1 으.(으.)

108029 @1 무꺼 두는 거 뭐 또 하나 잊지 안헤마씨? 무꺼 두는 거 잊어?(묶어 두는 거 뭐 또 하나 잊지 않아요? 묶어 두는 거 없어?)

108029 #1 그 저 뭐인가 그 베 멘들 때 무꺼 두는 건이 거 뭐 뒤치개²⁸⁶)란 게 잊져, 뒤치개.(그 저 뭐인가 그 바 만들 때 묶어 두는 건 거 뭐 '뒤치개'란 게 있어, '뒤치개'.)

108029 @1 으, 뒤치개.(으, '뒤치개'.)

108029 #1 뒤치개 뒤에서 얹아 가지고서 뭐인가 뒤치개를 막 돌려 줘야 돼.('뒤치개' 뒤에서 얹아 가지고서 뭐인가 '뒤치개'를 마구 돌려 줘야 돼.)

108029 @1 예, 예.(예, 예.)

108029 #1 경, 경헤야 베가 영 이렇게 영 거세기 허는디 안 돌려지민 거 줄이 안 돼주게.(그렇게, 그래야 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시기 하는데 안 돌려지면 거 줄이 안 되지.)

108029 @1 으, 안 돼여.(으, 안 돼.)

108029 #1 여껴지지 안허여. 뒤치개로 막 돌려 줘야 돼.(엮이지 않아. '뒤치개'로 마구 돌려 줘야 돼.)

108029 @1 예, 게난 집줄 헐 때도 뒤치개 쓰는 거 아니?(예, 그러니까 '집줄' 할 때도 '뒤치개' 쓰는 거 아니?)

108029 #1 으, 으. 집줄²⁸⁷) 헐 땐 것이. 줄 다 놔난 다음에 줄을 급허게 허젠 허민 뒤치개가 반드시 필요하다.(으, 으. '집줄' 할 땐 것이. 줄 다 놓은 다음에 줄을 급하게 하려고 하면 '뒤치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108029 @1 아, 두 줄 다시 여끌 때 뒤치기로 해 가지고 돌려주게예?(아, 두 줄 다시 엮을 때 '뒤치기'로 해 가지고 돌려주게요?)

108029 #1 으. 게민 줄 거세기 낼 때에는 혼 사람이 주로 허고이. 줄 어울 털²⁸⁸), 것²⁸⁸라 어울린덴 허는 건디.(으. 그럼 줄 거시기 낼 때에는 한 사람이 주로

286) '뒤치개'는 '집줄'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287)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엮어매는 줄을 말한다.

288) 여기서 '어울리다'는 한 번 꼰 줄 두 개를 다시 엮어 꼬는 것을 말한다.

하고. 줄 어울릴, 것보고 어울린다고 하는 건데.)

108029 @1 으.(으.)

108029 #1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

108029 @1 으.(으.)

108029 #1 어울릴 때는, 어울릴 때는, 줄 어울릴 때는 사람이 하나, 둘, 서이, 서이, 너이가 들어야 돼여.(어울릴 때는, 어울릴 때는, 줄 어울릴 때는 사람이 하나, 둘, 셋, 셋, 넷이 들어야 돼.)

108029 @1 아.(아.)

108029 #1 한 사람은 뒤치개에 지고.(한 사람은 ‘뒤치개’에 지고.)

108029 @1 예.(예.)

108029 #1 또 이 가운데 줄을 양쪽에 해영 손으로 심어 가지고서 걸 일정하게 끄 돌아가게끔 이렇게 허곡 또 이쪽에 줄 두 사람이 비어 쥐야 줄이 딱 딱 맞거든.(또 이 가운데 줄을 양쪽에 해서 손으로 잡아 가지고서 걸 일정하게끔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줄 두 사람이 ‘비어’ 쥐야 줄이 딱 딱 맞거든.)

108029 @1 아, 그럼 네 사람 잇어야 돼여?(아, 그럼 네 사람 잇어야 돼?)

108029 #1 으, 네 사람이 필요허여.(으, 네 사람이 필요해.)

108029 @1 그럼 놉 빌영 험니까, 사람 엇이민?(그럼 놉 빌려서 험니까, 사람 없으면?)

108029 #1 그뻬 동네 사람 다 놉 빌영 허주.(그뻬 동네 사람 다 놉 빌려서 하지.)

108029 @1 아, 놉 빌영.(아, 놉 빌려서.)

108029 #1 그 줄 어울릴 때만.(그 줄 어울릴 때만.)

108029 @1 어울릴 때. 처음에 꼬을 때는 이거 줄 뭐 한다고, 처음에 할 때는?(어울릴 때. 처음에 꼬을 때는 이거 줄 뭐 한다고, 처음에 할 때는?)

108029 #1 줄 낸덴 허주.(줄 낸다고 하지.)

108029 @1 줄 낸덴. 그다음 밑에서 영 각단 집어 주는 사람은?(줄 낸다고. 그다음 밑에서 이렇게 ‘각단’ 집어 주는 사람은?)

108029 #1 줄 놓는 사람.(줄 놓는 사람.)

108029 @1 줄 놓는 사람예? 그리고 돌리는 사람. 그때는 두 명만 잇어도 되는 거라?(줄 놓은 사람요? 그리고 돌리는 사람. 그때는 두 명만 잇어도 되는 거야?)

108029 #1 으, 두 명 잇어도 되는데 경험데 그 어울릴 적에는 너이가 그 뒤치기에 뒤에서 막 돌려 쥐야 되는 거.(으, 두 명 잇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어울릴 적에는 넷이 그 ‘뒤치기’에 뒤에서 마구 돌려 쥐야 되는 거.)

108030 @1 예, 예. 그리고 그 거왕, 집 허게 되면 집줄²⁸⁹ 맨 밑에 쪽 허게.(예, 예. 그리고 그 평고대, 집 하게 되면 ‘집줄’ 맨 밑에 쪽 하게.)

108030 #1 으, 으.(으, 으.)

289)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엮어매는 줄을 말한다.

108030 @1 거왕이렌 험니까, 뭐렌 험니까?(평고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8030 #1 거왕이렌 허는 건이 집 측면, 거 뭐인가 집가지 끝에이.(평고대라고 하는 건 집 측면, 거 뭐인가 처마 끝에.)

108030 @1 예.(예.)

108030 #1 가지 끝에이, 가지 끝에이 그 뭐인가 거왕이란 게 있저. 거왕이란 건 가지 밑에로 나무, 곧은 나무를 쪽 허게 그 뭐인가 거 거왕을 해야 웬다.(처마 끝에, 처마 끝에 그 뭐인가 평고대란 게 있어. 평고대란 건 처마 밑에로 나무, 곧은 나무를 쪽 하게 그 뭐인가 거 평고대를 해야 된다.)

108030 @1 예.(예.)

108030 #1 거왕을 그 뭐인가 이제는 나일론 끈이 낫주만은 그 전에는 아주 깎 늘게 새끼 꼬아 가지고이.(평고대를 그 뭐인가 이제는 나일론 끈이 낫지만 그 전에는 아주 가늘게 새끼 꼬아 가지고.)

108030 @1 예.(예.)

108030 #1 그 나무 해다가 그 서리 아래이 서리를 길게 서리에 걸 무끄주게.(그 나무 해다가 그 서까래 아래 서까래를 길게 서까래에 걸 묶지.)

108030 @1 으.(으.)

108030 #1 그걸 거왕이엔 허주. 그 거왕을 왜 거왕을 허는고 허니 줄을 허면은 그것에 거왕에 매야 돼니까.(그걸 평고대라고 하지. 그 평고대를 왜 평고대라고 하는가 하니 줄을 하면 그것이 평고대에 매야 되니까.)

108030 @1 으.(으.)

108030 #1 줄 매기 위한 것이 거 거왕이라.(줄 매기 위한 것이 거 평고대야.)

108030 @1 계민 줄 영 내려왕 이쪽에 거왕 잇고 저쪽에 거왕.(그럼 줄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평고대 있고 저쪽에 평고대.)

108030 #1 잇고 스, 스칸에 다 잇저.(잇고 사, 사칸에 다 있어.)

108030 @1 영헨 거왕에 영 여끄는 거라예?(이런 평고대에 이렇게 엮는 거지요?)

108030 #1 으.(으.)

108030 @1 우리 늘 같으면 돌맹이?(우리 가리 같으면 돌맹이?)

108030 #1 으, 돌맹이 무끄듯이.(으, 돌맹이 묶듯이.)

108030 @1 무끄듯이 해 가지고예. 거왕을 멩두암, 뵙두암 그런 말 안 쓰고?(뭇듯 해 가지고요. 평고대를 ‘멩두암’, ‘뵙두암’ 그런 말 안 쓰고?)

108030 #1 거왕이렌 현다.(‘거왕’이라고 한다.)

108030 @1 그냥 거왕이렌 허는 거라예. 기민 거왕은 아까 곧작헌 나무라야 허는 거 아니?(그냥 ‘거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평고대는 아까 곧은 나무라야 하는 거 아니?)

108030 #1 으, 곧작헌 나무.(으, 곧은 나무.)

108030 @1 어떤 나무 써낫수과, 주로?(어떤 나무 썼었습니까, 주로?)

108030 #1 아무 나무라도 써도, 곧작허게 나무는이.(아무 나무라도 써도, 곧게 나무는이.)

108030 @1 예.(예.)

108030 #1 대부분이 막 굵디 강 행 와야 돼.(대부분이 막 가에 가서 해서 와야 돼.)

108030 @1 으.(으.)

108030 #1 곧작헌 건 가마귀폭남 거튼 거이.(곧은 건 까마귀쪽나무 같은 거.)

108030 @1 으.(으.)

108030 #1 주로 가마귀폭남 거튼 거 저 굵디 가면 그 뭐인가 가시낭 거튼 거 그런 거 해 가지고 현다. 이 잡나무 같은 건 잘 곧게 난 게 잘 엇주게.(주로 ‘가마귀폭남’ 같은 거 저 가에 가면 그 뭐인가 가시나무 같은 거 그런 거 해 가지고 현다. 이 잡나무 같은 건 잘 곧게 난 게 잘 없지.)

108030 @1 으.(으.)

108030 #1 그런 것도 허고 대로도 허고. 주로 대로 만이 헛저, 대.(그런 것도 하고 대로도 하고. 주로 대로 많이 했었어, 대.)

108030 @1 주로 대예?(주로 대요?)

108030 #1 으, 대.(으, 대.)

108031 @1 곧작허난. 기민 집줄 매기는 아까 삼간집이면 새가 백오십.(곧으니까. 그럼 ‘집줄’ 매기는 아까 삼간집이면 띠가 백오십.)

108031 #1 으, 새가 백삼십 내지 백오십.(으, 띠가 백삼십 내지 백오십.)

108031 @1 백오십 못 필요헌 거고. 그럼 집줄은 어느 정도 해야 돼?(백오십 못 필요한 거고. 그럼 ‘집줄’은 어느 정도 해야 돼?)

108031 #1 집줄은 그 집줄과 집줄 사이가이 혼 혼 이십 센치 간격이, 집이 크면 또 이제 뭐인가 만이 들고 그 간격이 일정허기 때문에 대충 다. 나 거 세보지 안 허난 그건 모르겠네이.(‘집줄’은 그 ‘집줄’과 ‘집줄’ 사이가 한 한 이십 센티 간격이, 집이 크면 또 이제 뭐인가 많이 들고 그 간격이 일정허기 때문에 대충 다. 나 거 세보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겠어.)

108031 @1 아. 어쨌든 집줄 간격이 한 이십 센치?(아. 어쨌든 ‘집줄’ 간격이 한 이십 센티?

108031 #1 으. 이십 센치 사이에 하나씩 다 매게 뵈 거주.(으. 이십 센티 사이에 하나씩 다 매게 뵈 거지.)

108031 @1 아.(아.)

108031 #1 게니까 거 가로 매고 윗으로 매고 허면은 스각형 나게끔 뵈는 거주.(그러니까 거 가로 매고 옆으로 매고 하면 사각형 나게끔 되는 거지.)

108031 @1 으.(으.)

108031 #1 가로로 영 쪽 허게 뭐인가 마루로 영 혼불 처음에 매고 넌중에 윗으로 이렇게.(가로로 이렇게 쪽 하게 뭐인가 마루로 이렇게 초벌 처음에 매고 나중에

옆으로 이렇게.)

108031 @1 그럼 영 뭘 때 가로로 영 줄을 놓았잖아예?(그럼 이렇게 뭘 때 가로로 이렇게 줄은 놓잖아요?)

108031 #1 으.(으.)

108031 @1 옆으로 놓젠 헐 때 줄을 꼬웁니까, 한 번?(옆으로 놓으려고 할 때 줄을 꼬니까, 한 번?)

108031 #1 거 줄을 모아근에 뱅뱅 도레기²⁹⁰)로 사령 논다. 뱅뱅 이렇게 뱅뱅 도령 사령 놔근에 그 도레기 뵈 걸 올리주게.(거 줄을 모아서 뱅뱅 등글게 사려서 놓는다. 뱅뱅 이렇게 뱅뱅 돌아 사려 놔서 그 등글게 된 걸 올리지.)

108031 @1 도레기 뵈 걸 올려 가지고?(등글게 된 걸 올려 가지고?)

108031 #1 도레기거치 만들양 줄을. 경해서 올령 그걸 올리민 그 집 이는 사람이 우에서 마탕 풀어근에가 양쪽더레 던져주면은 아래 사름덜이 그 줄 뭘 땀 사름이 칠팔 명이 들어야 돼여.(바퀴같이 만들어서 줄을. 그래서 올려서 그걸 올리면 그 집 이는 사람이 위에서 말아서 풀어서 양쪽으로 던져주면 아래 사람들이 그 줄 뭘 땀 사람이 칠팔 명이 들어야 돼.)

108031 @1 집줄 만들 때 도레기처럼 영 말아 분덴 허는 거지예?('집줄' 만들 때 바퀴처럼 이렇게 말아 버린다고 하는 거지요?)

108031 #1 으, 그게 도레기처럼 줄 다 뭐인가 어울릴 거 아니가이?(으, 그게 바퀴처럼 줄 다 뭐인가 어울릴 거 아니냐?)

108031 @1 예, 예.(예, 예.)

108031 #1 어울리멍 다 뵈 거지. 그걸 이제 도레기처럼 뱅뱅 하나씩 돌아 가지고 테뎃다근에 그걸 마당에 내쳐 낮당 집 다 일면은 줄을 우터레 올려근에 그걸 풀면서.(어울리면서 다 된 거지. 그럴 이제 바퀴처럼 뱅뱅 하나씩 말아 가지고 쌓았다가 그걸 마당에 내쳐서 뵈다가 집 다 이면 줄을 위로 올려서 그걸 풀면서.)

108031 @1 으.(으.)

108031 #1 경 안 허면 진진헌 거 올리면 새가 다, 건들면 거스러져²⁹¹) 불지 안 허냐. 경허난.(그렇게 안 하면 길디긴 거 올리면 띠가 다, 건들면 흐트러져 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108032 @1 집줄 쓰당 남으민 뭐 험니까?(‘집줄’ 쓰다가 남으면 뭐 험니까?)

108032 #1 쓰당 남질, 남질 안헌다. 보통 대충 맞춰 허기 때문에. 멧 개 남으면 옛날에는이 비가 많이 치는 디 잇잖으냐이?(쓰다가 남질, 남질 않는다. 보통 대충 맞춰서 하기 때문에. 멧 개 남으면 옛날에 비가 많이 치는 데 잇잖나?)

108032 @1 예, 예.(예, 예.)

108032 #1 비가 많이 치는 디 거튼 디는 줄 남은 거로이 영 저 여꺼근에가 집 가지 알로 영 등기게 헤낫저. 계난 비 쳐도 그 뭐인가 흑이 안 들게 허기 위해서.

290) ‘도레기’는 등근 열매 따위나, 바퀴처럼 등글어 돌아가게 된 것들을 일컫는 말이다.

291) ‘거스러지다’는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말한다.

(비가 많이 치는 데 같은 데는 줄 남은 거로 이렇게 저 엮어서 처마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게 했었어. 그러니까 비 쳐도 그런 뭐인가 흠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108032 @1 아, 위로 밑으로?(아, 위로 밑으로?)

108032 #1 그 거왕 현 알러레 등기계.(그 평고대 한 아래로 늘어지게.)

108032 @1 아.(아.)

108032 #1 건 집 앞이 안 허고 주로 옆이 거튼 디 영. 사름 안 보이는 디.(건 집 앞에 안 하고 주 옆에 같은 데 이렇게. 사람 안 보이는 데.)

108032 @1 예.(예.)

연장

108033 @1 다음은예.(다음은요.)

108033 #1 으.(으.)

108033 @1 아까 잠깐 물어 봐신디 집 짓는 연장, 연장 다시 한 번만 곱아 줘서.(아까 잠깐 물어 봤는데 집 짓는 연장, 연장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세요.)

108033 #1 어.(어.)

108033 @1 연장 종류가, 종류가 집 짓젠 허민 아까 나무 할 때?(연장 종류가, 종류가 집 지으려고 하면 아까 나무 할 때?)

108033 #1 나무 할 때 톱, 톱허곡이 나무 도치이.(나무 할 때 톱, 톱하고 나무 도끼.)

108033 @1 도치.(도끼.)

108033 #1 그거 허고 장호미²⁹²⁾ 거튼 것도 필요헌다.(그거 하고 ‘장호미’ 같은 것도 필요하다.)

108033 @1 아.(아.)

108033 #1 장호미는 아까 큰 거 무시거.(‘장호미’는 아까 큰 무엇.)

108033 @1 예, 예.(예, 예.)

108033 #1 그거이, 그런 건이 가지 영 치기 쉽주게.(그거이, 그런 건 가지 이렇게 치기 쉽지.)

108033 @1 예, 낭 짤를 때 가지 치기 쉬운 거예?(예, 나무 자를 때 가지 치기 쉬운 거요?)

108033 #1 으, 으.(으, 으.)

108034 @1 톱 종류 아까 물어봐신디?(톱 종류 아까 물어봤는데?)

108034 #1 톱, 톱은이 톱 종류는 뭐인가 하여튼 세 가진디이.(톱, 톱은 톱 종류는 뭐인가 하여튼 세 가진데.)

108034 @1 예.(예.)

108034 #1 그 고비끼리엔 현 건 큰 널 짤르는 넓썩헌 톱이 있고.(그 ‘고비끼리’ 라고 한 건 큰 널 자르는 넓적한 톱이 있고.)

292) ‘장호미’는 나무 따위를 자를 수 있는 긴 낫을 말한다.

108034 @1 으.(으.)

108034 #1 보통은 기자 나무 잘르는 큰 톱 잇잖으냐이?(보통은 그저 나무 자르는 큰 톱 잇잖아?)

108034 @1 예, 예.(예, 예.)

108034 #1 거 판자 허는 거보다 조금 거세기 현 거. 그걸로 주로 혼자 그 뭐인가 나무를 허고 혼자 잘르주게.(거 판자 하는 거보다 조금 거시기 한 거. 그걸로 주로 혼자 그 뭐인가 나무를 하고 혼자 자르지.)

108034 @1 으.(으.)

108034 #1 혼자 잘르는 그것이라 톱이엔 허고 작은 건 거뒤엔 허고.(혼자 자르는 그것보고 톱이라고 하고 작은 건 거도라고 하고.)

108034 @1 으.(으.)

108034 #1 또 다시 이제 또 서너이, 둘이나 서이가 앓앙 그 뭐인가 개판나 널을, 그 널을 오릴 때는 뭐인가 건 톱이엔 허주, 그거 대톱.(또 다시 이제 또 서넛, 둘이나 셋이 앓아서 그 뭐인가 개판이나 널을, 그 널을 오릴 때는 뭐인가 건 톱이라고 하지, 그거 대톱.)

108034 @1 아까 고비끼과, 고비끼리과?(아까 ‘고비끼’입니까, ‘고비끼리’입니까?)

108034 #1 고비끼리. 기리엔 끈는다. 끼리엔 허는 건 건 일본말로 끈는다는 말이주.(‘고비끼리’. ‘기리’라고 끊는다. ‘끼리’라고 하는 건 건 일본말로 끊는다는 말이지.)

108034 @1 예, 고비끼리예?(예, ‘고비끼리’요?)

108034 #1 으, 고비끼리엔 행 거 일본말이여.(으, ‘고비끼리’라고 해서 거 일본말이야.)

108034 @1 예, 예. 일본말예?(예, 예. 일본말요?)

108034 #1 으, 일본말로 보통이 목수 연장이 일본말이 만앗주게.(으, 일본말로 보통이, 목수 연장이 일본말이 많았지.)

108034 @1 그지예?(그렇지요?)

108034 #1 으, 그 당시엔.(으, 그 당시엔.)

108034 @1 겐 아직도 그런 말들은 다 그냥 쓰잖아예?(그래서 아직도 그런 말들은 다 그냥 쓰잖아요?)

108034 #1 으, 그런 말들 다 쓴다. 고비기리 같은 거 우리말로 그 무시거 톱이엔 허면은 몰르주게. 고비기리엔 해야 알주.(으, 그런 말들 다 쓴다. ‘고비기리’ 같은 거 우리말로 그 무엇 톱이라고 하면 모르지. ‘고비기리’라고 해야 알지.)

108035 @1 아, 고비기리엔 해야 알아. 그 못 박거나 뽑을 때?(아, ‘고비기리’라고 해야 알아. 그 못 박거나 뽑을 때?)

108035 #1 으, 못빼기엔 현 게 잇저.(으, 못뽑이라고 하는 게 있어.)

108035 @1 예, 못빼기.(예, 못뽑이.)

108035 #1 으, 못빠기.(으, 못뽑이.)

108035 @1 거린장은?('거린장'은?)

108035 #1 거림, 그런 건 잘 몰르켜.(거림, 그런 거 잘 모르겠어.)

108035 @1 모르고마썸. 못 뽑을 때 쓰는 게 못빠기예?(모르고요. 못 뽑을 때 쓰는 게 못뽑이요?)

108035 #1 으, 못빠기.(으, 못뽑이.)

108035 @1 우리 못 뽑젠 허면 영 이게 이게 못이면 영 걸치고 영 지탱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안허과?(우리 못 뽑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게 이게 못이면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지탱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8035 #1 게난, 못빠기도이 기냥 쪼고만이 망치 같은 걸로 허는 못빠기가 잇고이.(그러니까, 못뽑이도 그냥 조그마한 망치 같은 걸로 하는 못뽑이가 잇고.)

108035 @1 예.(예.)

108035 #1 그냥 진진허게 큰 못 빠는 건이, 큰 못빠기라고 해 가지고서 건 췌로 영 진진허게 만든다. 췌로 영 길게, 뭐 하여튼 요 정도 해 가지고서 이렇게 꼬부라지게 해 가지고서 못 빠는 거 그 두 가지여.(그냥 길디긴 큰 못 빠는 건, 큰 못뽑이라고 해 가지고서 건 쇠로 이렇게 길디길게 만든다. 쇠로 이렇게 길게. 뭐 하여튼 요 정도 해 가지고서 이렇게 꼬부라지게 해 가지고서 못 뽑는 거 그 두 가지야.)

108035 @1 음. 못 빠는 거 그냥 망치에 부튼 거랑?(음. 못 뽑는 거 그냥 망치에 붙은 거랑?)

108035 #1 으, 망치에 부튼 거랑 기냥 진진허게 췌로 헤영 허는 거 그거.(으, 망치에 붙은 거랑 그냥 길디길게 쇠로 해서 하는 거 그거.)

108036 @1 예. 대패, 깎을 때. 목수가 쓰는 거긴 한데 대패?(예. 대패, 깎을 때. 목수가 쓰는 거긴 한데 대패?)

108036 #1 대패도 건 목수가 집 지을 때는이, 이 낭을 아니게, 아니라 깨끗허게 뭐인가 다듬젠 허민 꼭 대패가 필요허주게.(대패도 건 목수가 집 지을 때는, 이 나무를 아니, 아니야 깨끗하게 뭐인가 다듬으려고 하면 꼭 대패가 필요하지.)

108036 @1 예.(예.)

108036 #1 그리고 문 거튼 거 짜젠 허면은 또 다시 끌이 필요허고. 망치허고 끌이.(그리고 문 같은 거 짜려고 하면 또 다시 끌이 필요하고. 망치하고 끌이.)

108036 @1 예. 기민 대패도 혹시 종류가 잇수과?(예. 그럼 대패도 혹시 종류가 잇습니까?)

108036 #1 종류가 잇주. 거 문 골 치는 거, 대패가 잇고이.(종류가 있지. 거 문 골 치는 거, 대패가 잇고.)

108036 @1 으.(으.)

108036 #1 거 문 홈을 파는 골 대패가 잇고이.(거 문 홈을 파는 골 대패가 잇고.)

108036 @1 예.(예.)

108036 #1 기자 그 썩 대패가 있고.(그저 그 썩 대패가 있고.)

108036 @1 아, 골 대패랑, 썩 대패?(아, 골 대패랑, 썩 대패?)

108036 #1 으, 보통 기자.(으, 보통 그저.)

108036 @1 썩 대패는 그냥 넓적하게 파는 거고?(썩 대패는 그냥 넓적하게 파는 거고?)

108036 #1 으, 그냥 문짝허게 그냥 수평으로 허는 거.(으, 그냥 매끈하게 그냥 수평으로 하는 거.)

108036 @1 으, 골 대패는 골 치는 거예?(으, 골 대패는 골 치는 거요?)

108036 #1 으, 골 치는, 문골 거튼 거 허젠 허면 그거, 그걸로 골만 치는 거.(으, 골 치는 문골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그거, 그걸로 골만 치는 거.)

108038 @1 예. 자 아까 먹통, 먹줄 골아나신디 먹통 뭐 허는 건지 자세히 좀 골아 줘서.(예. 자 아까 먹통, 먹줄 말했었는데 먹통 뭐 하는 건지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108038 #1 먹통은 나무의 나무를 뭐인가 나무를 치수에 맞추기 위해서는이.(먹통은 나무의 나무를 뭐인가 나무를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108038 @1 으.(으.)

108038 #1 그 저 목측으론 못 허거든이. 그러니까 그 먹통으로 줄을 쳐 가지고서 그 나무를 다듬는다. 잘른다. 거 톱으로 잘르든지 뭐 허던지.(그 저 목측으론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 먹통으로 줄을 쳐 가지고서 그 나무를 다듬는다. 자른다. 거 톱으로 자르든지 뭐 하든지.)

108038 @1 계민 먹통이렌 허는 게 지금 뭐 줄자 같은 것과?(그럼 먹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줄자 같은 겁니까?)

108037 #1 아니, 줄자, 줄자는 따로 건 있고. 거는 각도를 맞출 때 줄자를 허는 것이고.(아니, 줄자, 줄자는 따로 건 있고. 거는 각도를 맞출 때 줄자를 하는 것이고.)

108037 @1 으.(으.)

108038 #1 먹통이란 것은 그 나무, 나무를 그 뭐인가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줄 치는 거.(먹통이란 것은 그 나무, 나무를 그 뭐인가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줄 치는 거.)

108038 @1 아, 줄 치는 거?(아, 줄 치는 거?)

108038 #1 으, 줄 치는 거.(으, 줄 치는 거.)

108038 @1 거 나무를 죽 허게 사람 목측으로 보니까 그것을 몇 미리 몇 센치 영 놔 가지고서, 스각이면 스각 놔 가지고서 저디 영 못을 꽃앙 이디 영 못을 헤 가지고서 이제 거 먹물이 미쳐 있주. 거 실이주, 그계.(거 나무를 죽 하게 사람 목측으로 보니까 그것을 몇 밀리 몇 센치 이렇게 놔 가지고서, 사각이면 사각 놔 가지고서 저기 이렇게 못을 꽃아서 여기 이렇게 못을 헤 가지고서 이제 거 먹물이 묻어 있지. 거 실이지, 그계.)

108038 @1 예.(예.)

108038 #1 계난 영 딱 들렁 딱 허면은 먹물이 이게 짝 허게 선 곳어져. 그 선대로 나물 저, 치목을 해야 돼여.(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서 딱 하면 먹물이 이게 짝 하게 선 그어져. 그 선대로 나물 저, 치목을 해야 돼.)

108038 @1 아, 그럼 우리 막 옷감 마름질할 때 선 그렇 마름질?(아, 그럼 우리 마구 옷감 마름질할 때 선 그러서 마름질?)

108038 #1 으, 으. 마름질하는 모양 그런 거.(으, 으. 마름질하는 모양 그런 거.)

108038 @1 으, 하는 것처럼 약간 선 그려지게 그거?(으, 하는 것처럼 약간 선 그려지게 그거?)

108038 #1 으.(으.)

108038 @1 그것대로 잘르, 잘르렌 해 가지고 하는 거예?(그것대로 자르, 자르려고 해 가지고 하는 거요?)

108038 #1 으.(으.)

108038 @1 그럼 먹통 안에 먹줄이?(그럼 먹통 안에 먹줄이?)

108038 #1 거 자동으로 속에 다 들어 잇저, 먹통 안에.(거 자동으로 속에 다 들어 있어, 먹통 안에.)

108038 @1 아, 먹통 안에 먹줄이예?(아, 먹통 안에 먹줄이요?)

108038 #1 으.(으.)

108039 @1 그 우리 흑 브르젠 허면은, 그 흑 브르젠 허면은?(그 우리 흑 바르려고 하면, 그 흑 바르려고 하면?)

108039 #1 그 서슬, 으.(그 산자, 으.)

108039 @1 서슬 해난 다음에 벽에든 지붕에는 흑 브르젠 허면 뭐 필요할 거 아니?(산자 했었던 다음에 벽에든 지붕에는 흑 바르려고 하면 뭐 필요할 거 아니?)

108039 #1 으, 필요하다. 거 지붕, 거 뭐인가 그 지붕도이 그 흑질할 때에이.(으, 필요하다. 거 지붕, 거 뭐인가 그 지붕도 그 흑질할 때에.)

108039 @1 예.(예.)

108039 #1 거기다 서슬 해 가지고이 새, 새 일기 전에이.(거기다 산자 해 가지고 띠, 띠 일기 전에.)

108039 @1 예.(예.)

108039 #1 문딱 그디 그 흑으로 다 더퍼야 된다. 그 서슬을 흑으로 쪽 허게.(모두 거기 그 흑으로 다 덮어야 된다. 그 산자를 흑으로 쪽 하게.)

108039 @1 예, 예.(예, 예.)

108039 #1 그건 뭐 아무 기술자 없이 해도 다 돼는데.(그건 뭐 아무 기술자 없이 해도 다 되는데.)

108039 @1 예.(예.)

108039 #1 이 뭐인가 이 축브름²⁹³ 잇지 안허냐이?(이 뭐인가 이 ‘축브름’ 잇지

293) ‘축브름’은 돌로만 쌓거나 그 위에 흙을 발라 둘러막은 집의 둘레를 말한다.

않니?)

108039 @1 예.(예.)

108039 #1 축벼름 거튼 건 거 상뒤²⁹⁴), 그땐 상뒤엔 헛주. 상뒤가, 상뒤가 와 가지고서 처음 초불 불르는 거 해 준다. 그 흑질허는 날.(‘축벼름’ 같은 거 건 거 ‘상뒤’ 그땐 ‘상뒤’라고 했지. ‘상뒤’가, ‘상뒤’가 와 가지고서 처음 초벌 바르는 거 해 준다. 그 흑질하는 날.)

108039 @1 상, 상두가 뭐마씨?(상, ‘상두’가 뭐요?)

108039 #1 거 상뒤엔 현다. 상뒤라는 것은 여러 사름을 모이는 거, 동네 사름이 다 모이는 것을 옛날엔 상뒤엔 해났저.(거 ‘상뒤’라고 한다. ‘상뒤’라는 것은 여러 사름을 모이는 거, 동네 사름이 다 모이는 것을 옛날엔 ‘상뒤’라고 했었어.)

108039 @1 아. 동네 사름이 모이는 걸.(아, 동네 사름이 모이는 걸.)

108039 #1 으. 그래서 그 사름덜이 와 가지고서.(으, 그래서 그 사름들이 와 가지고서.)

108039 @1 으.(으.)

108039 #1 이제 그 흑질허는 날 나온다. 흑질허는 날 미룻에 다 서슬 행 낫다 가.(이제 그 흑질하는 날 나온다. 흑질하는 날 미리 다 산자 해 낫다가.)

108039 @1 으.(으.)

108039 #1 서슬 행 낫다가 흑질허는 날 상뒤가, 그 동네 사름이 다, 그 조합원 덜이 다 나오라 가지고서 그 이제 흑질허는 사름은 흑, 특별한 젊은 사름, 힘 쎈 사름은 흑질을, 흑질을 허고 그 사름을 흑 밧디 든다고 현다이.(산자 해 낫다가 흑질하는 날 ‘상뒤’가, 그 동네 사름이 다, 그 조합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서 그 이제 흑질하는 사름은 흑, 특별한 젊은 사름, 힘 쎈 사름은 흑질을, 흑질을 하고 그 사름을 흑 밧에 든다고 한다.)

108039 @1 흑?(흑?)

108039 #1 흑 밧테 든 사름.(흑 밧에 든 사름.)

108039 @1 아, 흑 밧테 든 사름?(아, 흑 밧에 든 사름?)

108039 #1 으, 그 사름이 흰 십여 명쯤 흑 밧디 들어야 그 사름덜이 이거 막 뵈 으면서이 뵈 으면서 뒤집으면서이 쟁헤야 잘 뵈 이지면은 그때는 이제 흑을 이제는 그 지붕, 지붕 우터레 올리고.(으, 그 사름이 한 십여 명쯤 흑 밧에 들어야 그 사름들이 이거 마구 뵈 으면서 뵈 으면서 뒤집으면서 그래야 잘 뵈 이지면 그때는 이제 흑을 이제는 그 지붕, 지붕 위로 올리고.)

108039 @1 예.(예.)

108039 #1 또 이제 더러레 집 안에 축벼름에 서슬에 불르제 그렇게 다 나누면은 그 상뒤덜이, 그 동네 사름덜이 그 깔고 초불 다 불를 거 아니가이?(또 이제 일부 집 안에 ‘축벼름’에 산자에 바르려고 그렇게 다 나누면 그 ‘상뒤’들이, 그 동네 사름들이 그 깔고 초벌 다 바를 거 아니냐?)

294) ‘상뒤’는 마을 일에 참석하여 의결하고 일을 함께 치루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108039 @1 으.(으.)

108039 #1 그 지붕에는 초벌로 마무리, 다 끝나는 것이고. 이 벽 거튼 디는 그 거 행 몰르면 또 다시 행 기술자 빌어근에가 그걸이 다 이제 켜켜하게 잘 메꾸젠 허면은 건, 그것은 뭐인가 사깁²⁹⁵이라고 헨다이.(그 지붕에는 초벌로 마무리, 다 끝나는 것이고. 이 벽 같은 데는 그거 해서 마르면 또 다시 해서 기술자 빌려서 그 걸 다 이제 편편하게 잘 메우려고 하면 건, 그것은 뭐인가 미장이라고 한다.)

108039 @1 으. 흑 불르는 사람?(으. 흑 바르는 사람?)

108039 #1 으, 흑 불르는 사람.(으. 흑 바르는 사람.)

108039 @1 사깁?(미장이?)

108039 #1 으, 그런 사름 빌어다가 축브름을 깨끗이 만든 다음에 다 몰르면은 그 도배하는 거야.(으, 그런 사람 빌려다가 ‘축브름’을 깨끗이 만든 다음에 다 마르면 그 도배하는 거야.)

108039 @1 케민 그 흑 불를 때 뭘로 불릅니까?(그럼 그 흑 바를 때 뭐로 바릅니까?)

108039 #1 손으로, 기냥 손으로.(손으로, 그냥 손으로.)

108039 @1 아. 그민 사깁도 손으로만 헤여?(아, 그럼 미장어도 손으로만 해?)

108039 #1 아니, 그건 저 췌손이란 게 잊져.(아니, 그건 저 쇠손이란 게 있어.)

108039 @1 췌손예?(쇠손요?)

108039 #1 으, 췌손으로 그거 헤사 멘작허게. 손으로 행은 아무래도 잘 안 돼주 게.(으, 쇠손으로 그거 해야 매끈하게. 손으로 헤서는 아무래도 잘 안 되지.)

108039 @1 케민 췌손은 췌로 만든 거?(그럼 쇠손은 쇠로 만든 거?)

108039 #1 으, 췌로 만든 거.(으, 쇠로 만든 거.)

108039 @1 케민 남손은 안 써낫수과?(그럼 ‘남손’은 안 썼었습니까?)

108039 #1 아니, 남손²⁹⁶도 쓰긴 쓰주만은, 남손도 쓰긴 쓴다.(아니, ‘남손’도 쓰긴 쓰지만, ‘남손’도 쓰긴 쓴다.)

108039 @1 으.(으.)

108039 #1 남손은 웨 쓰는고 허니 빨리 허기 위해서이 그 울통불통헌 디 잊지 안허냐이. 울통불통헌 디털 그걸 어느 정도 막이 손으로라도 던질 거 아니가이? 켜 큰 남손으로 짝, 짝 일정하게 이렇게 헤 놔 가지고서 마지막으론 췌손으로 시아 게²⁹⁷ 헨다.(‘남손’은 왜 쓰는가 하니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울통불통한 데 있지 않 니. 울통불통한 데들 그걸 어느 정도 마구 손으로라도 던질 거 아니냐? 그래서 큰 ‘남손’으로 짝, 짝 일정하게 이렇게 헤 놔 가지고서 마지막으론 쇠손으로 마무리 한 다.)

108039 @1 아, 그럼 남손은 좀 큰 거다예?(아, 그럼 ‘남손’은 좀 큰 거네요?)

295) ‘사깁’은 일본어 ‘さかん’으로 미장이를 말한다.

296) ‘남손’은 흙일을 할 때에, 이긴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걸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나무로 만든 연장을 말한다.

297) ‘시아게’는 일본어 ‘しあげ’로 ‘마무리, 끝손질’의 의미다.

108039 #1 으, 으.(으, 으.)

108039 @1 싹 한 번 해 놓고 나서 더 섬세하게 할 때.(싹 한 번 해 놓고 나서 더 섬세하게 할 때.)

108039 #1 섬세허겐 췌손으로.(섬세하겐 쇠손으로.)

108039 @1 그민 여기 뭐 잡앙 이렇게 한다면 이 바치는 것도 잊지 안허과?(그럼 여지 뭐 잡아서 이렇게 한다면 이 받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8039 #1 어, 어. 거, 거 바치는 것도 잊저. 거 손에 잡아근에가.(어, 어. 거, 거 받치는 것도 있어. 거 손에 잡아서.)

108039 @1 예. 오른손으론 영 행 영 허고.(예.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108039 #1 으, 거 왼손으로 거 뭐인가 거 영. 것ㄴ라?(으, 거 왼손으로 거 뭐인가 거 이렇게. 것보고?)

108039 @1 흑바데렌 험니까?(흙받기라고 험니까?)

108039 #1 으, 흑바데.(으, 흙받기.)

108039 @1 예.(예.)

108039 #1 그 흑바데 영, 흑바데러레 영 흑 떠 놔근에가 거기서 오른손으로 그 뭐인가 삭강 험 적에.(그 흙받기 이렇게, 흙받기에 이렇게 흙 떠 놔서 거기서 오른손으로 그 뭐인가 미장이 할 적에.)

108039 @1 예.(예.)

108039 #1 췌손 험 적에 경헤영. 경 안 헤영 그자 나무로 험 적에는 그냥 집영, 손으로 집영 부쩌근에가 나무로 영.(쇠손 할 적에 그러해서. 그렇게 안 해서 그자 나무로 할 적에는 그냥 집어서, 손으로 집어서 붙여서 나무로 이렇게.)

108039 @1 아, 게난 어쨌든 저기 췌손 험 때야 흑바데 헤근에 부치멍?(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쇠손 할 때야 흙받기 해서 붙이면서?)

108039 #1 으, 으.(으, 으.)

108039 @1 마무리 하고예?(마무리 하고요?)

108039 #1 으, 마무리 허고.(으, 마무리 하고.)

108039 @1 마무리 하고. 흑바데과, 흑바데과?(마무리 하고. ‘흑바데’입니까, ‘흑바데’입니까?)

108039 #1 흑바데.(‘흑바데’.)

108039 @1 흑이엔 험 거예?(흙이라고 할 거요?)

108039 #1 으.(으.)

9. 신앙

109001 @1 다음은예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쿠다.(다음은요 신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09001 #1 으, 신앙, 신앙.(으, 신앙, 신앙.)

109001 @1 집에 신들이 잇덴 허잖아예. 가신이엔 험니까?(집에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신이라고 합니까?)

109001 #1 가신은 집집마다 거 신이 틀린다.(가신은 집집마다 거 신이 다르다.)

109001 @1 예.(예.)

109001 #1 그 어떤 디는이 그 도체비라는, 우리 제춧말로이 도체비 모시는 집도 잇고이.(그 어떤 데는 그 도깨비라는, 우리 제춧말로 ‘도체비’ 모시는 집도 잇고.)

109001 @1 으.(으.)

109005 #1 또 다시 토산²⁹⁸ 한집²⁹⁹이엔 해 가지고서이.(또 다시 토산리 호구 별성이라고 해 가지고서.)

109005 @1 으.(으.)

109005 #1 그 베염을 모시는 건데 베염 모시는 건데이, 거 모시는 집도 잇고 그렇게.(그 뱀을 모시는 건데 뱀 모시는 건데, 거 모시는 집도 잇고 그렇게.)

109005 @1 으.(으.)

109005 #1 계난 그 도체비란 것은 고폡에 모시곡이.(그러니까 그 도깨비란 것은 고폡에 모시고.)

109005 @1 으.(으.)

109005 #1 그 뭐인가 토산 거세기는이 그 뒤에 같은 디 해근에 주쟁이로 거기에 뭐인가 비 안 들게 뭐 안 들게 싸 준다.(그 뭐인가 토산 거시기는 그 뒤에 같은 데 해서 주저리로 거기에 뭐인가 비 안 들게 안 들게 싸 준다.)

109005 @1 으.(으.)

109005 #1 그건 칠성³⁰⁰이엔 해 가지고. 이 베염을 칠성이라고 현다.(그건 ‘칠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 뱀을 ‘칠성’이라고 한다.)

109005 @1 베염을 칠성이렌 허는 거예. 보통 도체비랑 칠성.(뱀을 ‘칠성’이라고 하는 거요. 보통 도깨비랑 ‘칠성’.)

109005 #1 주로 그거라.(주로 그거야.)

109005 @1 그걸 가신예?(그걸 가신요?)

109001 #1 으, 게고 바당을 섬기는 선왕이 또 잇고.(으, 그리고 바다를 섬기는 선왕이 또 잇고.)

109001 @1 선왕?(선왕?)

109001 #1 선왕.(선왕.)

109001 @1 선왕이 잇고예. 바당 섬기는 거 뭐 영등은?(선왕이 잇고요. 바다 섬기는 거 뭐 영등은?)

109001 #1 그 영등³⁰¹도 그건 뭐 주기적으로 영등은 영등날 가근에, 바다에 가

298) ‘토산’은 서귀포시 표선면 행정 마을 중의 하나인 ‘토산리’를 말한다.

299) ‘한집’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하는 여신 ‘호구별성’을 말한다.

300) ‘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 신을 말한다. ‘안칠성’과 ‘뱃칠성’이 있다.

근에 그 비는 것이 영등굿³⁰²이란 게 있져.(그 ‘영등’도 그건 뭐 주기적으로 ‘영등’은 ‘영등날’ 가서, 바다에 가서 그 비는 것이 ‘영등굿’이라는 게 있어.)

109002 @1 으. 성주는 뭐과, 성주?(으. 성주는 뭇니까, 성주?)

109002 #1 성주라는 건이 집이, 집을 다 끝내면이 성주풀이를, 성주풀일 한다.(성주라는 건 집이, 집을 다 끝내면 성주풀이를, 성주풀일 한다.)

109002 @1 예.(예.)

109002 #1 계난 흑질해난 밤에이.(그러니까 흑질한 밤에.)

109002 @1 예.(예.)

109002 #1 밤에 그 성주풀이 행 막 놀주게. 노래 부르멍.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이 어디 어디냐? 경상도 안도 땅에, 뭐 그러면서 막 허곡.(밤에 그 성주풀이 해서 마구 놀지. 노래 부르면서.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이 어디 어디냐? 경상도 안도 땅에, 뭐 그러면서 마구 하고.)

109002 @1 그 노래를 한 번 불러 봅서.(그 노래를 한 번 불러 보세요.)

109002 #1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이 어디더냐, 경상도 안도 땅에 백양목 무슨 목을 끈어다가 집을 져저, 그런 노래주.(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본이 어디더냐, 경상도 안도 땅에 백양목 무슨 목을 꿰어다가 집을 지었어, 그런 노래지.)

109002 @1 아.(아.)

109002 #1 게서 이제는 그건 놀이로 경허는 것이고 흑질 끝에 경허는 것이고 정성스리 성주를 내려와야 된다. 심방을 빌어 가지고.(그래서 이제는 그건 놀이로 그러는 것이고 흑질 끝에 그러는 것이고 정성스럽게 성주를 내려와야 된다. 무당을 빌려 가지고.)

109002 @1 예.(예.)

109002 #1 무당을 빌어 가지고서.(무당을 빌려 가지고서.)

109002 @1 예.(예.)

109002 #1 성주풀이를 해야 돼여. 성주풀이가 뭐인가 허면은 그 성주신을 아주 뭐인가 즐겁게 해주는 게 성주풀이주게.(성주풀이를 해야 돼. 성주풀이가 뭐인가 하면 그 성주신을 아주 뭐인가 즐겁게 해주는 게 성주풀이지.)

109002 @1 그럼 성주신을 모시는 것과?(그럼 성주신을 모시는 겁니까?)

109002 #1 아니, 모시진 안한다.(아니, 모시진 않는다.)

109002 @1 계민.(그럼.)

109002 #1 모시진 안허고 얘기로만 뭐인가 와서 풀이 허는 거. 거 집이 모시는 건 아니.(모시진 않고 얘기로만 뭐인가 와서 풀이 하는 거. 거 집에 모시는 건 아니.)

109002 @1 아, 집이 모시는 건 아니고. 흑질 다 끝나면 그날 성주풀이를 허는 거마씨?(아, 집에 모시는 건 아니고. 흑질 다 끝나면 그날 성주풀이를 하는 거요?)

301) ‘영등’은 ‘영등할망’, ‘영등신’으로 음력 2월 1일에 입도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神)의 이름이다. 이 기간에 섬을 돌며, 해산물의 낚은 것은 모두 먹어 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준다고 전해진다.

302) ‘영등굿’은 영등신을 보내기 위해 음력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행하는 굿을 말한다.

109002 #1 그날, 그 동네 분들이 동네 분들이 그 혼 잔 먹어근에가 그 성주풀이 그냥 노는 거, 거 성주풀이 할 때 막 놀지 안 허느냐?(그날, 그 동네 분들이 동네 분들이 그 한 잔 먹어서 그 성주풀이, 그냥 노는 거, 거 성주풀이 할 때 마구 놀지 않나?)

109002 @1 예.(예.)

109002 #1 노래 부르명 거 허고 정식으로 허는 건 무당 불러근에.(노래 부르면서 거 하고 정식으로 하는 건 무당 불러서.)

109002 @1 아.(아.)

109002 #1 성주풀이를 안 허면이 집안에 뭘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주게.(성주풀이 안 하면 집안에 뭘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러지.)

109002 @1 어쨌든 상 차려놓고예?(어쨌든 상 차려 놓고요?)

109002 #1 으.(으.)

109002 @1 제 지내명.(제 지내면서.)

109002 #1 으. 그거 혼 서너 시간 걸린다. 무당 오면.(으. 그거 한 서너 시간 걸린다. 무당 오면.)

109003 @1 무당 오면은. 문전은 뭐과? 문전에 대해서 곱아 주십서.(무당 오면. 문전은 뭐니까? 문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9003 #1 게 문전은 거 저 뭐인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대문³⁰³, 대문 집 안 그라 문전이엔 허는데이.(그래 문전은 거 저 뭐인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대문, 대문 집 안보고 문전이라고 하는데.)

109003 @1 예.(예.)

109003 #1 문전에는 거 뭐인가 집이 그 집에 주인이 문전이엔 허주게.(문전에는 거 뭐인가 집에 그 집에 주인이 문전이라고 하지.)

109003 @1 집에 주인이?(집의 주인이?)

109003 #1 으. 제서할 때도 문전 모른 공서 엇텐 허지 안허냐이?(으. 제사할 때도 문전 모른 공서 없다고 하지 않나?)

109003 @1 예.(예.)

109003 #1 주인 모른 음식이 엇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서 때엔 꼭 제 지내기 전에 문전제³⁰⁴를 지낸다.(주인 모른 음식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사 때엔 꼭 제 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지낸다.)

109003 @1 예.(예.)

109003 #1 문전제를 지내난 다음에 이제 그 제를 지내는데 이 문전이라는 것은 그 집이 임자라고 여기서 얘기한다. 집의 주인이 문전.(‘문전제’를 지낸 다음에 이제 그 제를 지냈는데 이 문전이라는 것은 그 집의 임자라고 여기서 얘기한다. 집의 주인이 문전.)

303) ‘대문’은 대청 정면에 단 문을 가리킨다.

304) ‘문전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109003 @1 어.(어.)

109003 #1 그렇기 때문에 집이 주인 모르게 음식 거든 거 제사 때에 꼭 문전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와나났주.(그렇기 때문에 집의 주인 모르게 음식 같은 거 제사 때에 꼭 문전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왔었지.)

109003 @1 으.(으.)

109003 #1 지금도 건 유지되고 있다. 제서 때에.(지금도 건 유지되고 있다. 제사 때에.)

109003 @1 그 앞에예?(그 앞에요?)

109003 #1 으.(으.)

109003 @1 저기 제사 지내기 전에 조그만허게.(저기 제사 지내기 전에 조그만 하게.)

109003 #1 으, 제서 지내기 전에 대문 앞, 대문 저 상방, 상방에서 그 대문을 향해 헤냈저. 집이서.(으, 제사 지내기 전에 대문 앞, 대문 저 마루, 마루에서 그 대문을 향해 했었어. 집에서.)

109004 @1 예. 조왕은 뭐과 조왕?(예. 조왕은 뭇니까, 조왕?)

109004 #1 조왕이라는 것은이, 그 뭇인가 부엌, 부엌 신을 말헌다. 부엌 신을 말허는 건데 조왕이란 것은 항상 옛날에 부인덜이 촛불을 켜냈저. 어디 집 안의 가장이 뭇인가 어디 타지에 가던가.(조왕이라는 것은, 그 뭇인가 부엌, 부엌 신을 말헌다. 부엌 신을 말하는 건데 조왕이란 것은 항상 옛날에 부인들이 촛불을 켜었어. 어디 집 안의 가장이 뭇인가 어디 타지에 가든가.)

109004 @1 예.(예.)

109004 #1 군인에 간다던가 이렇게 허면은 그 조왕신이 따라와 가지고 항상 그 어머니들이 말야 조왕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그 집안도 거세기 허게 돼, 편안헌다 해 가지고서.(군인에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조왕신이 따라와 가지고 항상 그 어머니들이 말야 조왕을 깨끗하게 해야만 그 집안도 거시기 하게 돼, 편안하다 해 가지고서.)

109004 @1 으.(으.)

109004 #1 조왕 어지럽게 부엌이 지저분허면 안 된다. 그렇게 여자덜이 생활수준을 조왕에서 부엌에서 그 가늠했저.(조왕 어지럽게 부엌이 지저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자들이 생활수준을 조왕에서 부엌에서 그 가늠했어.)

109004 @1 으.(으.)

109004 #1 부엌이 지저분허면 그 집안 잘 안 돼. 모든 일이.(부엌이 지저분하면 그 집안 잘 안 돼. 모든 일이.)

109004 @1 음.(음.)

109004 #1 계난 항상 깨끗하게 해 가지고서 그 조왕 조왕을 잘 웃좌야 조왕은 우리 밥 먹는 것을 대 주는 신이기 때문에.(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해 가지고서 그

조왕 조왕을 잘 높여야 조왕은 우리 밥 먹는 것을 대 주는 신이기 때문에.)

109004 @1 음.(음.)

109004 #1 그래서 그. 그 조왕신이 그렇게 자손들을 돕는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을 전설로 내려오는 거주.(그래서 그. 그 조왕신이 그렇게 자손들을 돕는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을 전설로 내려오는 거지.)

109004 @1 음. 우리 고평제³⁰⁵ 지내는 게 이거 조왕신이과?(음. 우리 고평제 지내는 게 이거 조왕신입니까?)

109004 #1 아니, 건 고평신³⁰⁶이라고.(아니, 건 고평신이라고.)

109004 @1 고평신 따로?(고방신 따로?)

109004 #1 그건 곳간, 우리 현재말로 허민 곳간이주, 고평이 곳간이주.(그건 곳간, 우리 현재말로 하면 곳간이지, 고평이 곳간이지.)

109004 @1 예, 예.(예, 예.)

109004 #1 그 곡식 보관하는.(그 곡식 보관하는.)

109004 @1 예.(예.)

109004 #1 그러니까 그것도 고평, 그 조왕 하르방이나 마찬가지로 고평 할망이엔 허주.(그러니까 그것도 고평, 그 조왕 할아버지나 마찬가지로 고평 할머니라고 하지.)

109004 @1 그 부엌 제 지내는 거를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고평에서 지내났거든마씨.(그 부엌 제 지내는 거를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고평에서 지냈었거든요.)

109004 #1 아, 그것하고는 틀리다.(아, 그것하고는 다르다.)

109005 @1 아, 달라마씨. 조왕신이랑 고평신이랑. 칠성 아까 잠깐 고평신디 칠성이 뭐라고마씨?(아, 달라요. 조왕신이랑 고평신이랑. ‘칠성’ 아까 잠깐 말했는데 ‘칠성’이 뭐라고요?)

109005 #1 칠성은 그 뭐인가 베염을 섬기는 건디 토산이라는, 우리 제주는 토산에 거기가 베염을 섬긴다.(‘칠성’은 그 뭐인가 뱀을 섬기는 건데 토산이라는, 우리 제주는 토산에 거기에 뱀을 섬긴다.)

109005 @1 음.(음.)

109005 #1 그 토산 사람이, 거긴 정의엔 허고 여긴 모관³⁰⁷이엔 허는디, 북군은 이.(그 토산 사람이, 거긴 정의라고 하고 여긴 모관이라고 하는데, 북군은.)

109005 @1 으.(으.)

109005 #1 거기 여자가 이디 오면은이 그 신을 섬겨야 돼. 거 따라온다는 거주게. 그 뭐인가 거시기를 칠성신이.(거기 여자가 여기 오면 그 신을 섬겨야 돼. 거 따라온다는 거지. 그 뭐인가 거시기를 칠성신이.)

109005 @1 으.(으.)

109005 #1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꼭 그디 그 사람 메느리 쪽으로 오는 거라.(따

305) ‘고평제’는 제사 때 ‘고방’을 관장하는 신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306) ‘고평신’은 곡식을 보관하는 ‘고방’을 관장하는 신을 말한다.

307) ‘모관’은 행정 구역으로 제주목을 가리킨다.

라오기 때문에 이제 꼭 거기 그 사람 머느리 쪽으로 오는 거야.)

109005 @1 음.(음.)

109005 #1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칠성을 꼭 뒤에 모셔.(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 칠성을 꼭 뒤에 모셔.)

109005 @1 그 뒤에렌 허민 장독대?(그 뒤로 하면 장독대?)

109005 #1 아, 장독은 피허고 뒤에, 그자 하여튼.(아, 장독은 피하고 뒤에, 그자 하여튼.)

109005 @1 안거리 뒤에?(안채 뒤에?)

109005 #1 으, 안거리 뒤에. 게난 거 집집마다 허는 게 아니고 우리 오침³⁰⁸이도 그런 걸 안 헌디 그런 사람덜이 잇주게.(으, 안채 뒤에. 그러니까 거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씨 집안도이도 그런 걸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109005 @1 그럼 칠성 데려온덴 행 토산리 사람은 메누리로 별로 안 반기겠냐예?(그럼 칠성 데려온다고 해서 토산리 사람은 머느리로 별로 안 반기겠네요?)

109005 #1 옛날엔 아니 반겨놔주게 이 모관 사름들은. 거 따라온다고 해서 뭐인가 그.(옛날엔 안 반겼었지. 이 모관 사름들은. 거 따라온다고 해서 뭐인가 그.)

109005 @1 예.(예.)

109005 #1 칠성이 뭐인가 그 칠성 따라온다고 해 가지고서.(‘칠성’이 뭐인가 그 ‘칠성’ 따라온다고 해 가지고서.)

109005 @1 예.(예.)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1 예. 이젠 세시풍속 물어보쿠다. 월마다예 월마다 해난 것들예?(예. 이젠 세시풍속 물어보겠습니다. 월마다요, 월마다 했던 것들요?)

110001 #1 으.(으.)

110001 @1 우선은 정월달예. 정월달. 정월달에 정월 명절, 정월 멧질은 어떻?(우선은 정월달요. 정월달. 정월달에 정월 명절, 정월 명절은 어떻게?)

110001 #1 정월 멧질은 뭐 정월 멧질은 조상을 다 뭐인가 조상을 다 그 우패를 다 써 놔 가지고이.(정월 명절은 정월 명절은 조상을 다 뭐인가 조상을 다 그 위패를 다 써 놔 가지고.)

110001 @1 음.(음.)

110001 #1 건 정월 멧질만 아니라 다 그 일 년을 새로 맞는 거니까 새 정신으로 정월 멧질 지내는 거. 자기가 혼 설 돼고 허니까, 정월 멧질 지내면은 혼 설 더 넘으니깐이 그 저 부모들은 즈식들안테 세배를 받고. 또한 일반 사름덜은 자기보다

308) ‘오침’은 성씨가 오씨인 집안을 가리킨다.

웃사람안테는 항상 세배를 허는 게 그게 상례랏저.(건 정월 명절만 아니라 다 그 일년을 새로 맞는 거니까 새 정신으로 정월 명절 지내는 거. 자기가 한 살 되고 하니까, 정월 명절 지내면 한 살 더 넘으니까 그 저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세배를 받고. 또한 일반 사람들은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항상 세배를 하는 게 그게 상례였어.)

110001 @1 음. 계난 저기 멧질 해 먹젠 허면 미리 준비허는 게 음식 준비 말고 뭐 따로 잇수과?(음. 그러니까 저기 명절 해 먹으려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음식 말고 뭐 따로 잇습니까?)

110001 #1 옛날에는 미릿에 준비해놔저. 옛날엔이 소 거튼 거, 소고기 거튼 건 미릿에 추렴을 한다.(옛날에는 미리 준비했었어. 옛날엔 소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건 미리 추렴을 한다.)

110001 @1 음.(음.)

110001 #1 소도 허고 돼지도 허고 미릿에 추렴을 해 가지고서이 그 제숙³⁰⁹을, 제숙을 다 장만해야 돼여. 경헨 낫다근에가 그걸 다른 거는 뭔가 당일 돼는디 그것만은 미릿에 뭐 소나 돼지나 추렴을 해 가지고 장만허고.(소도 하고 돼지도 하고 미리 추렴을 해 가지고 그 ‘제숙’을, ‘제숙’을 다 장만해야 돼. 그래 낫다가 그걸 다른 거는 뭔가 당일 되는데 그것만은 미리 뭐 소나 돼지나 추렴을 해 가지고 장만하고.)

110001 @1 으.(으.)

110001 #1 또 고사리, 고사리는 항상 봄에 들에 강 꺼쨌 낫다가 아무리 다른 고기나 뭐나 못 올려도 고사리 채, 콩나물허고 고사린 똑 올려놔저.(또 고사리, 고사리는 항상 봄에 들에 가서 꺾어 낫다가 아무리 다른 고기나 뭐나 못 올려도 고사리 채, 콩나물하고 고사린 꼭 올렸었어.)

110001 @1 으. 다른 건 못 올려도예.(으. 다른 건 못 올려도요.)

110001 #1 계난 고사리 정성해 가지고 고사리. 물렁 보관헿 낫다가 그거 삶아근에가 채소허고.(그러니까 고사리 정성해 가지고 고사리. 말려서 보관해 낫다가 그거 삶아서 채소하고.)

110001 @1 으. 우리는 지금 멧질 보통 하루 해 먹엉 끝나 불잖아예.(으. 우리는 지금 명절 보통 하루 해 먹어서 끝나 버리잖아요.)

110001 #1 그때는 옛날에는 보름 동안이 항상 놀았저, 놀았어. 정월 보름꺼지 막 재밋게, 밤이 나오랑 막 재밋게 동네서 놀고 막 그레놔주게.(그때는 옛날에는 보름 동안 항상 놀았어, 놀았어. 정월 보름까지 아주 재밋게, 밤에 나와서 아주 재밋게 동네에서 놀고 마구 그렷었어.)

110001 @1 예.(예.)

110001 #1 정월 보름꺼지. 계난 정월, 정월 보름에 그때는 정월달에 그 연덜도 막 띄와놔주.(정월 보름까지. 그러니까 정월, 정월 보름에 그때는 정월달에 그 연들도 아주 띄웠었어.)

110001 @1 으.(으.)

309) ‘제숙’은 제상(祭床)에 올리는 고기나 생선류를 말한다.

110001 #1 계민 정월 보름 돼민 연도 이제 불살라 불고 뭔가 액막이 하고 그렇게. 정월 보름꺼진 막 재밌게, 옛날은 거 그런 풍속이 서, 노는 풍속이.(그럼 정월 보름 되면 연도 이제 불살라 버리고 뭔가 액막이 하고 그렇게. 정월 보름까지 아주 재밌게, 옛날은 거 그런 풍속이 있어, 노는 풍속이.)

110001 @1 으.(으.)

110001 #1 서나서.(있었어.)

110001 @1 으, 으. 우리가 전날 음식행 멩질 해 먹엉 멩질날을 세배덜 가잖아 예.(으, 으. 우리가 전날 음식해서 멩절 해 먹어서 멩절날을 세배들 가잖아요.)

110001 #1 어, 어. 멩질날은 멩질허기 전에 일가에는 다 세배를 간다.(어, 어. 멩절날은 멩절하기 전에 일가에는 다 세배를 간다.)

110001 @1 예.(예.)

110001 #1 옛날에는 일가에는 가까운 뭐인가 그 가까운 디는 제 지내기 전에. 국제를 먼저 했주게, 국제.(옛날에는 일가에는 가까운 뭐인가 그 가까운 데는 제 지내기 전에. 떡국제를 먼저 했지, 떡국제.)

110001 @1 국제예, 뭐 설날 같으면 떡국제예?(떡국제요, 뭐 설날 같으면 떡국제요?)

110001 #1 으. 거 이제는 잘 안 허는디 설날은 원체 그 떡국제 해야 맞는 거여 게.(으. 거 이제는 잘 안 하는데 설날은 원체 그 떡국제 해야 맞는 거야.)

110001 @1 예.(예.)

110001 #1 그 떡국제는 언제 허는고 허니 이 붉기 전에이 이 가마귀 뭐인가 가마귀가 붉으면 날아오는디 가마귀 날아오기 전이 지낸다고 해서 어슬어슬할 때. 아침에 예를 들어서 으섯 시 해가 뜬덴 허면은 다섯 시에 지냈저.(그 떡국제는 언제 하는가 하니 이 밝기 전에 이 까마귀 뭐인가 까마귀가 밝으면 날아오는데 까마귀 날아오기 전에 지낸다고 해서 어슬어슬할 때.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섯 시 해가 뜬다고 하면 다섯 시에 지냈어.)

110001 @1 으.(으.)

110001 #1 다섯 시에 그 국제를 지낸 다음에는 일가 가까운 근족은 세배를 해 가지고.(다섯 시에 그 떡국제를 지낸 다음에는 일가 가까운 근족은 세배를 해 가지고.)

110001 @1 예.(예.)

110001 #1 돌아와서 국제를, 그 상을 다 철상해 가지고서 조상덜안티 그 뭐인가 묵이니 뭐이니 모든 제숙을 다 새로 장만해 가지고서, 그 국제할 때는 제물 거튼 거 안 한다. 단지 국만.(돌아와서 떡국제를, 그 상을 다 철상해 가지고서 조상들한테 그 뭐인가 묵이니 뭐니 모든 '제숙'을 다 새로 장만해 가지고서, 그 떡국제할 때는 제물 같은 거 안 한다. 단지 떡국만.)

110001 @1 그 떡국만.(그 떡국만.)

110001 #1 국만 올려 가지고.(떡국만 올려 가지고.)

110001 @1 국만. 으, 으.(떡국만. 으, 으.)

110001 #1 게 가지고서 그거 끝나면은 조상님안티 정식으로 정월 거세기 제사할 때에는 다 그 묵이니 뭐이니 뭐 다 그거 해 가지고서 상을 새로 출려 가지고 제설 지낸다.(그래 가지고서 그거 끝나면 조상님한테 정식으로 정월 거시기 제사할 때에는 다 묵이니 뭐니 뭐 다 그거 해 가지고서 상을 해로 차려 가지고 제살 지낸다.)

110001 @1 멧절 다 끝낭 세배 가는 게 아니고?(멧절 다 끝나서 세배 가는 게 아니고?)

110001 #1 아니. 이제는 멧절 끝낭 가는데 옛날은 멧절 끝나지 안행 가났저.(아니. 이제는 멧절 끝나서 가는데 옛날은 멧절 끝나지 않고 갔었어.)

110001 @1 아, 국제만 지내 가지고예?(아, 떡국제만 지내 가지고요?)

110001 #1 으.(으.)

110001 @1 지금은 국제라는 게 떡국제 지내는 거잖아예. 옛날에는 뭐로 국제를 지냈수과?(지금은 국제라는 게 떡국제 지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로 떡국제를 지냈습니니까?)

110001 #1 옛날에는 뭐 골미떡이란 게 잇어져, 그 골미떡. 그때는 쓸이 엇기 때문에 쓸이 귀허기 때문에이 흐린조, 흐린조 썰허고 산디쓸 해 가지고서 그 골미떡을 만들앗저.(옛날에는 뭐 골무떡이란 게 잇었어, 그 골무떡. 그때는 쌀이 없기 때문에 쌀이 귀하기 때문에 차조, 차조 쌀하고 발벼쌀 해 가지고서 그 골무떡을 만들었어.)

110001 @1 으.(으.)

110001 #1 영 소랑허게 영. 그 골미떡이란 건이 진진허게.(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그 골무떡이란 건 길디길게.)

110001 @1 이거 골미떡 아까 뭐라고 줍썰허고, 흐린조허고?(이거 골무떡 아까 뭐라고 줍쌀하고, 차조하고?)

110001 #1 으. 흐린줍썰 골미떡허고 또 다시 이제 그 산디 골미떡 해 가지고이.(으. 차조 골무떡하고 또 다시 이제 그 발벼 골무떡 해 가지고.)

110001 @1 으.(으.)

110001 #1 그걸 반반 행 썰어 낱 국을 헛저, 그 뭐인가 떡국을 헛저.(그걸 반반 해서 썰어 놔서 국을 했어, 그 뭐인가 떡국을 했어.)

110001 @1 아.(아.)

110001 #1 그걸 반반 해 가지고서. 겐 맛이 좋나. 거 흐린 줍썰 골미떡이 들어가기 때문에.(그걸 반반 해 가지고서. 그래서 맛이 좋아. 거 차조 골무떡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110001 @1 아, 믰물로는 안 허고마씨?(아, 메밀로는 안 하고요?)

110001 #1 골미떡에 믰물은 안 들어가고.(골무떡에 메밀은 안 들어가고.)

110001 @1 케니까 믰물 칼국수 해 가지고 그걸로.(그러니까 메밀 칼국수 해 가지고 그걸로.)

110001 #1 칼국수로 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떡국을 썰어 놔 가지고.(칼국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떡국을 썰어 놔 가지고.)

110001 @1 떡국 썰어 놔 이걸로.(떡국 썰어 놔서 이걸로.)

110001 #1 평소 먹는 것은 믱물 칼국수 행 먹고.(평소 먹는 것은 메밀 칼국수 해서 먹고.)

110001 @1 으.(으.)

110001 #1 제사 땀 그 믱물은 안 쓴다. 옛날에는 흐린조 오메기³¹⁰허고 산디쫄 오메길 행 먹었주.(제사 땀 그 메밀은 안 쓴다. 옛날에는 차조 ‘오메기’하고 밧벼쌀 ‘오메기’를 해서 먹었지.)

110001 @1 이걸로 골미떡을 만들영 국제에 찻던 거.(이걸로 골무떡을 만들어서 떡국제에 찻던 거.)

110001 #1 으.(으.)

110002 @1 건디 아까 정월대보름까지 놀아마씨?(그런데 아까 정월대보름까지 놀아요?)

110002 #1 으, 대보름까지 그렇게 노는 풍속이 셔났저.(으, 대보름까지 그렇게 노는 풍속이 있었어.)

110002 @1 대보름 때 또 멩질 헤낫수과?(대보름 때 또 명절 했었습니까?)

110002 #1 그 대보름 땀 멩질도 허지 안허고 그 뵤가, 이제 이 불교에서는 대보름 불공이 잇주게, 이 대보름 불공이 잇기 때문에 뵤 유교나 불교나 거의 거시기 허니까 그런 전통이 잇어 가지고서 그 보름날은 청결헌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주, 특별히.(그 대보름 땀 명절도 하지 앓고 그 뵤가, 이제 이 불교에서는 대보름 불공이 잇지, 이 대보름 불공이 잇기 때문에 뵤 유교나 불교나 거의 거지지 하니까 그런 전통이 잇어 가지고서 그 보름날은 청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지, 특별히.)

110002 @1 뵤 제 지내거나는 안 허고?(뵤 제 지내거나 안 하고?)

110002 #1 안 허고.(안 하고.)

110002 @1 이날 뵤 연날리기 앓은 거 그런 거?(이날 뵤 연날리기 앓은 거 그런 거?)

110002 #1 거 낮에 연날리기 그날 마지막으로. 그날도 경헤낫저.(거 낮에 연날리기 그날 마지막으로. 그날도 그랬었어.)

110002 @1 아, 마지막으로 케민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아, 마지막으로 그럼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110002 #1 으. 맘대로 연 날리당 보름 넘으면 연을 안 올려낫저.(으. 맘대로 연 날리다가 보름 넘으면 연을 안 올렸었어.)

110002 @1 아, 보름 넘으면 안 올려마씨? 그럼 아까 액막이 했다는 게?(아, 보름 넘으면 안 올려요? 그럼 아까 액막이 했다는 게?)

310)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오메기떡’이라고도 한다.

110002 #1 액막이란 거 그건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가 몸이 아프면 그 연을 띄워 가지고이.(액막이란 거 그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가 몸이 아프면 그 연을 띄워 가지고.)

110002 @1 예.(예.)

110002 #1 연을 띄워 가지고이 그 저 연을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연은 영 띄워 가지고서이 연줄에 불을 대면은 연이 막 날라간다. 경허면은 나, 나 액을 연에 날려 보내니까 멀리 날아가라고 경허는 거.(연을 띄워서 그 저 연을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연은 이렇게 띄워 가지고서 연줄에 불을 대면은 마구 날라간다. 그러면 내, 내 액을 연에 날려 보내니까 멀리 날아가라고 그러는 거.)

110002 @1 아. 연을 불살르는 게 아니고.(아. 연을 불살르는 게 아니고.)

110002 #1 으, 연줄에 불 해근에 하늘에 뭐인가 떠 있을 적에 끈으면 거 날라가는 거. 그게 액막이 한다는 거.(으, 연줄에 불 해서 하늘에 뭐인가 떠 있을 적에 끊으면 거 날라가는 거. 그게 액막이 한다는 거.)

110003 @1 방사³¹¹란 건 뭐과?(방사란 건 뭡니까?)

110003 #1 으?(으?)

110003 @1 방사라는 것도 잇수과?(방사라는 것도 있습니까?)

110003 #1 정월보름에 방서를 많이 했저.(정월보름에 방사를 많이 했어.)

110003 @1 방서?(방사?)

110003 #1 으, 여기 제춧말론 방세, 방세 허는데.(으, 여기 제춧말론 ‘방세’, ‘방세’ 하는데.)

110003 @1 예, 예.(예, 예.)

110003 #1 방세헌덴 허는데 자기가 운이 나쁘덴 허면, 토정비결을 본다. 옛날에는이.(방사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운이 나쁘다고 하면, 토정비결을 본다. 옛날에는.)

110003 @1 토?(토?)

110003 #1 토정비결.(토정비결.)

110003 @1 으, 토정비결.(으, 토정비결.)

110003 #1 토정비결을 봐 가지고 조금 뭐인가 운이 나쁘덴 허면은 정월보름 밤에 방세를 했저. 왜냐면은 뭐인가 그 뭐 뭐 허라 심방이 일러 주주. 그대로 해 가지고서 가령, 가령 그 나가 뭐인가 액이 굿덴 허면 나 이름 생년월일 써 가지고, 써 가지고서이.(토정비결을 봐 가지고 조금 뭐가 운이 나쁘다고 하면 정월보름 밤에 방사를 했어. 왜냐하면 뭐인가 그 뭐 뭐 해라 무당이 일러 주지. 그대로 해 가지고서 가령, 가령 그 나가 뭐가 액이 굿다고 하면 내 이름 생년월일 써 가지고, 써 가지고서.)

110003 @1 예.(예.)

110003 #1 어떻게 액을 잘 거시기 허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그 방세를 심방이

311) ‘방사’는 사악함을 막는다는 의미인 ‘방사(防邪)’로, 무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에게 닥칠 액을 미리 막는 일을 말한다. 제주어로 ‘방서’, ‘방세’, ‘방쉬’라고도 한다.

왕 해 줘냈저.(어떻게 액을 잘 거시기 하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그 방사를 무당이 와서 해 줘냈어.)

110003 @1 아, 그럼 심방이 예를 들어 내가 삼재 들어 가지고 올해 운수가, 운이 안 좋덴 허면은.(아, 그럼 무당이 예를 들어 내가 삼재 들어 가지고 올해 운수가, 운이 안 좋다고 하면.)

110003 #1 경허면은 방세로 심방이 왕 해 줘.(그러면 방사로 무당이 와서 해 줘.)

110003 @1 해 줘.(해 줘.)

110003 #1 게난 뭘, 뭘 저 들어갈 것도 다 만들렌 그 만뒤떡³¹²⁾이니 돌레떡이니 그 심방이.(그러니까 뭘, 뭘 저 들어갈 것도 다 만들라고 그 ‘만뒤떡’이니 도래떡이니 그 무당이.)

110003 @1 아.(아.)

110003 #1 경헨 그걸 준비허면 심방이 와근에 방세해 줘. 흐룻밤에 심방이 멧, 멧 집이도 가, 가주게. 그렇게.(그래서 그걸 준비하면 무당이 와서 방사해 줘. 하룻밤에 무당이 멧 멧 집에도 가, 가지. 그렇게.)

110003 @1 아, 심방이 돌아다니멍. 게민 심방이 돌레떡 허라, 사과 올리라 갱국 끌리라, 그런 거 다 곶아 주는 거고?(아, 무당이 돌아다니면서. 그럼 무당이 도래떡 해라, 사과 올려라 갱 꿏여라, 그런 거 말해 주는 거고?)

110003 #1 으, 으 곶아 주는 거.(으, 으 말해 주는 거.)

110003 @1 그것이 방세과?(그것이 방사입니까?)

110003 #1 그것이 방세, 방세 현다.(그것이 방사, 방사 한다.)

110003 @1 방세예. 그거 정월대보름날 허는 거예?(방사요. 그게 정월대보름날 하는 거요?)

110003 #1 정월대보름날 주로 만이 현다.(정월대보름날 주로 많이 한다.)

110004 @1 포제 해냈수과, 마을예?(포제 했었습니까, 마을예?)

110004 #1 포제 해냈저.(포제 했었어.)

110004 @1 으.(으.)

110004 #1 포제는 건 무슨 뜻이냐 허면이 그 포제는이 하늘허고 땅, 땅을 섬기는 거지. 일 년 뉘인가 우리가 곡식 잘 뉘게 해 주고. 땅도 곡식 잘 크게 해 주라고 거 일 년에 흐 번 정월달이.(포제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포제는 하늘하고 땅, 땅을 섬기는 거지. 일 년 뉘인가 우리가 곡식 잘 뉘게 해 주고. 땅도 곡식 잘 크게 해 주라고 거 일 년에 한 번 정월달이.)

110004 @1 으.(으.)

110004 #1 정월달 첫 뉘인가 정일 택해 가지고서 정일을 갑자을축의 정초에 정일을 택해 가지고서 그 부락의 기원을 했주. 그 토지와 천신에 비는 걸 포제라 해. (정월달 첫 뉘인가 정일 택해 가지고서 정일을 갑자을축의 정초에 정일을 택해 가

312) ‘만뒤떡’은 메밀가루를 익반죽 한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서 찌낸 후에 다시 팥고물을 무친 떡을 말한다.

지고서 그 부락의 기원을 했지. 그 토지와 천신에 비는 걸 포제라 해.)

110004 @1 그럼 포제 허젠 허민 뭐 준비합니까?(그럼 포제 하려고 하면 뭐 준비합니까?)

110004 #1 포제 허젠 허면은, 포제 허젠 허면은 그 도야지를 생체로 올려야 되니까 도야지를 그시지도 안해 가지고 그 털을 다 물 켜서 뽑나.(포제 하려고 하면, 포제 하려고 하면 그 돼지를 생짜로 올려야 되니까 돼지를 그을리지도 않아 가지고 그 털을 다 물 끓여서 뽑아.)

110004 @1 하.(하.)

110004 #1 그 털을 다 뽑아 하얗게.(그 털을 다 뽑아서 하얗게.)

110004 @1 으.(으.)

110004 #1 게니까 잡지 안해 가지고서 통채. 그 뭐인가 배설만, 안침만 다 뽑아 내 가지고서 그 통채 제물로 올린다. 제물로 올려 가지고서 그 두 군데를 올리는 건데 뭐 천신, 토신 이렇게 두 군데를 올리고 또 이제 그 제관이 그 제관이 차출해야 해여.(그러니까 잡지 않아 가지고서 통채. 그 뭐인가 배설만, 안침만 다 뽑아 내 가지고서 그 통채 제물로 올린다. 제물로 올려 가지고서 그 두 군데를 올리는 건데 뭐 천신, 토신 이렇게 두 군데를 올리고 또 이제 그 제관이 그 제관이 차출해야 해.)

110004 @1 마을에서.(마을에서.)

110004 #1 으, 마을에서. 그 제관은이 아주 그 복이 많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초헌, 아헌, 헌관.(으, 마을에서. 그 제관은 아주 그 복이 많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초헌, 아헌, 헌관.)

110004 @1 으.(으.)

110004 #1 또 이 세 사람을 허고 집례라고 헌 게 집례는 지금 거트면 총무지. 집례는 모든 것을 갖다가 그 뭐인가 포제 지내는 모든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그 우선 그 도야지를 주문해야 되고 또 그 외는 사소한 건 총무가 알아근에가 뭐.(또 이 세 사람을 하고 집례라고 한 게 집례는 지금 같으면 총무지. 집례는 모든 것을 갖다가 그 뭐인가 포제 지내는 모든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그 우선 그 돼지를 주문해야 되고 또 그 외는 사소한 건 총무가 알아서 뭐.)

110004 @1 그 제관 뽑는 거는 마을 회의해 가지고?(그 제관 뽑는 거는 마을 회의해 가지고?)

110004 #1 으, 마을 회의해서 뽑나.(으, 마을 회의해서 뽑아.)

110004 @1 연세 있는 분 중심으로마씨?(연세 있는 분 중심으로요?)

110004 #1 주로 연세, 연세 잇는 분으로 뽑고 좀 팔자 존 사람으로 뽑나.(주로 연세, 연세 잇는 분으로 뽑고 좀 팔자 좋은 사람으로 뽑아.)

110004 @1 으.(으.)

110004 #1 근때는 기형, 기형아 된 사람, 장애인은 안 뽑고.(그때는 기형, 기형아 된 사람, 장애인은 안 뽑고.)

110004 @1 으.(으.)

110004 #1 장애인은 안 뽑고 또 천현 사람도 안 뽑고 옛날은이 쌍놈이나 뭐이 나.(장애인은 안 뽑고 또 천현 사람도 안 뽑고 옛날은 상놈이나 뭐나.)

110004 @1 예, 예.(예, 예.)

110004 #1 제관에 뽑히는 사람은 그 부락에서 아주 유력하고 덕망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을.(제관에 뽑히는 사람은 그 부락에서 아주 유력하고 덕망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을.)

110004 @1 아. 아까 제관?(아. 아까 제관?)

110004 #1 초현.(초현.)

110004 @1 초현.(초현.)

110004 #1 아현.(아현.)

110004 @1 아현.(아현.)

110004 #1 종현.(종현.)

110004 @1 종현 세 사람이 제관 허는 거.(종현 세 사람이 제관 하는 거.)

110004 #1 세 사람이 제관 허고. 집례는 요걸 집행허는 사람.(세 사람이 제관 하고. 집례는 요걸 집행하는 사람.)

110004 @1 총무 격인 것과?(총무 격인 겁니까?)

110004 #1 으, 총무 격이야. 집례가.(으, 총무 격이야. 집례가.)

110004 @1 으, 그럼 제도 이 사람이 집행하고?(으, 그럼 제도 이 사람이 집행하고?)

110004 #1 으, 그 사람이 집행하고. 집례가 거 국궁배 그렇게 절차를 홀기를 불러근에 한다. 홀기엔 현 게 잇서.(으, 그 사람이 집행하고. 집례가 거 국궁배 그렇게 절차를 홀기를 불러서 한다. 홀기라고 한 게 있어.)

110004 @1 홀기는 뭐과?(홀기는 뭐니까?)

110004 #1 홀기는 그 제사 지내는 절차를 그 뭐인가 집례가 부르는 대로.(홀기는 그 제사 지내는 절차를 그 뭐인가 집례가 부르는 대로.)

110004 @1 예.(예.)

110004 #1 그 삼현이 절허는, 국궁배 허민 절허고.(그 삼현이 절하는, 국궁배 하면 절하고.)

110004 @1 아.(아.)

110004 #1 흥 허면 일어나고 그 명령에 따라서, 홀기에 따라서 제를 꼭 지낸다.(흥 하면 일어나고 그 명령에 따라서, 홀기에 따라서 제를 꼭 지낸다.)

110004 @1 그 제 지낼 때 앞에서 영 소리허멍?(그 제 지낼 때 앞에서 이렇게 소리하면서?)

110004 #1 으, 응.(으, 응.)

110004 @1 소리허는 사람이군아예?(소리하는 사람이군요?)

110004 #1 으, 소리허멍 제 지낸다.(으, 소리하면서 제 지낸다.)

110004 @1 예, 제 지내명예. 그 부정 타지 말렌 메는 것도 잇수과?(예, 제 지내 면서요. 그 부정 타지 말라고 매는 것도 있습니까?)

110004 #1 으, 매는 것도 잇저. 경허면은 그 포제를 그 지내게 뒤면은 오일 전에이 다 부락에이 그 솟을 꼬아서이 다 그 부정 타지 안허게 다 맨다.(으 매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 포제를 그 지내게 되면 오일 전에 다 부락에 그 새끼를 꼬아서 다 그 부정 타지 않게 다 맨다.)

110004 @1 그거 매는 걸 뒤 험니까, 금줄?(그거 매는 걸 뒤라고 합니까, 금 줄?)

110004 #1 금줄이엔 허주, 금줄. 그것이 어린아이 날 때도 그거 맨다. 부정헌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건 언제라도 맨다. 경허면 아 이 부락에는 포제 들었구나, 그걸 알주.(금줄이라고 하지, 금줄. 그것이 어린아이 날 때도 그거 맨다. 부정헌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건 언제라도 맨다. 그러면 아 이 부락에도 포제 들었구나, 그걸 알지.)

110004 @1 아.(아.)

110004 #1 알게 뒤여.(알게 돼.)

110004 @1 산디짚으로 꼬양마씨?(밭뽕짚으로 꼬아서요?)

110004 #1 으, 산디짚으로 꼬양.(으, 밭뽕짚으로 꼬아서.)

110004 @1 뒤 메달지 안허지예?(뒤 메달지 않지요?)

110004 #1 거 창호지 흰 거 흰 종이를 그리 영 매단다.(거 창호지 흰 거 흰 종이를 거기 이렇게 매단다.)

110004 @1 아, 창호지 흰 거예?(아, 창호지 흰 거요?)

110004 #1 흰히 먼 디서도 보이게 그것이. 경해야 먼 디서도 보일 거 아니가.(흰히 먼 데서도 보이게 그것이. 그래야 먼 데서도 보일 거 아니가.)

110004 @1 한 군데만?(한 군데만?)

110004 #1 아, 여러 군데.(아, 여러 군데.)

110004 @1 여러 군데예, 동네 골목, 골목.(여러 군데요, 동네 골목, 골목.)

110004 #1 으. 골목, 골목.(으. 골목, 골목.)

110004 @1 붉은 흑 뿌리기 같은 것도 험니까?(붉은 흑 뿌리기 같은 것도 합니까?)

110004 #1 으, 붉은 흑 뿌리기도 한다. 황토로 해당 뿌리는 건데이.(으, 붉은 흑 뿌리기도 한다. 황토로 해다가 뿌리는 건데.)

110004 @1 예, 예.(예, 예.)

110004 #1 황토로 해당 뿌리는 건데 건 아주 정성스럽게 신이 들어오라고 청결 허다는 뜻으로 그 황토를 뿌렸저.(황토로 해다가 뿌리는 건데 건 아주 정성스럽게 신이 들어오라고 청결하다는 뜻으로 그 황토를 뿌렸어.)

110004 @1 아, 황토.(아, 황토.)

110004 #1 지금 우리가 왕, 대통령이나 오젠 허민 뒤인가 비단 깎지 안허느냐.

(지금 우리가 와서, 대통령이나 오려고 하면 뭐인가 비단 깔지 않니.)

110004 @1 하하, 예.(하하, 예.)

110004 #1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신 오젠 허민 꼭 황토 붉은 걸 그 해다가 그날은 쪽 허게 뿌렸저.(그와 마찬가지로 그 신 오려고 하면 꼭 황토 붉은 걸 그 해다가 그날은 쪽 허게 뿌렸어.)

110004 @1 그럼 동네마다 다 뿌리는 거?(그럼 동네마다 다 뿌리는 거?)

110004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0004 @1 오는 길목에만?(오는 길목에만?)

110004 #1 으, 으. 제청 길목에만, 제사 지내는 장소 길목.(으, 으. 제청 길목에만, 제사 지내는 장소 길목.)

110004 @1 아. 제사 지내는 디 길목에만 계민 그 제사는 어디서 지냅니까?(아. 제사 지내는 데 길목에만 그럼 그 제사는 어디서 지냅니까?)

110004 #1 제사논이 그 포제를 지내는 일정한 장소가 정해졌주, 거 동마다.(제사는 그 포제를 지내는 일정한 장소가 정해졌어, 거 동마다.)

110004 @1 아.(아.)

110004 #1 그 동마다 정해졌저. 게 동마다 정해져 가지고 그 포제를 허게 되면은 동에 책임자가 그 집을 거 이제 거 뭐인가 거 장막이란 거 그디 장막을 강 쳐야 된다.(그 동마다 정했어. 게 동마다 정해져 가지고 그 포제를 하게 되면 동에 책임자가 그 집을 거 이제 거 뭐인가 거 장막이란 거 거기 장막을 가서 쳐야 된다.)

110004 @1 음.(음.)

110004 #1 장막을 다 치고 그 뭐인가 불 초일 거 거기 다 장만허고.(장막을 다 치고 그 뭐이나 불 췌 거 거기 다 장만하고.)

110004 @1 으.(으.)

110004 #1 게 가지고 거기서 그 포제에서 삼 일 동안은 제관들은 거기에서 해 가지고 그 그 뭐인가 밥 먹는 거허고 기거하는 거, 또 그 제청에서 나오지 못허고 삼 일 동안은 그디서 앉아 가지고서 밤낮 거기서 앉아 가지고 거세기 한다.(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 포제에서 삼 일 동안은 제관들은 거기에서 해 가지고 그 그 뭐인가 밥 먹는 거하고 기거하는 거, 또 그 제청에서 나오지 못하고 삼 일 동안은 거기서 앉아 가지고서 밤낮 거기서 앉아 가지고 거시기 한다.)

110004 @1 영 행 포제허는 날이 정해져신디 마을에 무슨 일 생경 그게 변경되기도 험니까?(이렇게 해서 포제하는 날이 정해졌는데 마을에 무슨 일 생겨서 그게 변경되기도 험니까?)

110004 #1 으, 그런 일, 만일 이게 포제, 포제 지내기 전에 포제 든 그 어간에 장사 나면은 그것은 뭐인가 해체된다. 다음으로.(으, 그런 일, 만일 이게 포제, 포제 지내기 전에 포제 든 그 어간에 장사 나면 그것은 뭐인가 해체된다. 다음으로.)

110004 @1 다음 정날로.(다음 정날로.)

110004 #1 거 못 지내니까. 거 동네가 비리면은³¹³ 그 구신이 안 된다고 해서.

(거 못 지내니까. 거 동네가 ‘비리면’ 그 귀신이 안 된다고 해서.)

110004 @1 안 오니까.(안 오니까.)

110004 #1 그 정성이 부족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죄 받는다고 안 지냈져.
(그 정성이 부족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죄 받는다고 안 지냈어.)

110004 @1 아.(아.)

110004 #1 한동에도 여러 번이 그런 날이 잇었져. 포제 들어근에 삼 일 전이 영장나면은 안 돼여.(한동에도 여러 번이 그런 날이 있었어. 포제 들어서 삼 일 전에 초상나면 안 돼.)

110004 @1 영장나면은. 으.(초상나면. 으.)

110004 #1 연기해냈져.(연기했었어.)

110005 @1 으, 으. 안택이 뭐과?(으, 으. 안택이 뭘니까?)

110005 #1 안택은 그, 안택이라는 것은 거 정초라면은이 자기 집에 그 액운을 모두 쫓아내라고 해서이 스님들이나이 해 가지고서 불공허는 게 안택 불공이여. 그 집이 집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허는 집 택 자지 안 택 자는. 집을 편안하게 해 달라는 게 안택 불공이여.(안택은 그, 안택이라는 것은 거 정초라면 자기 집에 그 액운을 모두 쫓아내라고 해서 스님들이나 해 가지고서 불공하는 게 안택 불공이야. 그 집이 집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하는 집 택 자지 안 택 자는. 집을 편안하게 해 달라는 게 안택 불공이야.)

110005 @1 으.(으.)

110005 #1 정초에는 그런 거 만이 했져.(정초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

110005 @1 절간?(절간?)

110005 #1 스님이나 동네 뉘인가 유식헌 그런 뉘 사름이 잇주게, 그런 거 전문으로 허는 사름덜.(스님이나 동네 뉘인가 유식한 그런 뉘 사름이 잇지,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름들.)

110006 @1 으. 정월에 보리밭 밭기도 험니까?(으. 정월에 보리밭 밭기도 험니까?)

110006 #1 정월에 보리 안 밭고 그 이월덜 나야 밭지. 이월, 삼월 나야, 이월덜에 주로 거 이월덜에 밭나.(정월에 보리 안 밭고 그 이월 돼야 밭지. 이월, 삼월 돼야, 이월에 주로 거 이월에 밭아.)

110006 @1 이월덜에 밭는 거?(이월에 밭는 거?)

110006 #1 왜 밭는고 허니 겨울에는 옛날에는 하도 추워나기 때문에 땅이 막 곳양 그걸 불아줘야 보리 그 뿌리가 확장이 잘 돼 가지고 그 썩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주. 해냈저만은 그 그 아니 밭는 사름이 대부분이여.(왜 밭는가 하니 겨울에는 옛날에는 아주 추웠었기 때문에 땅이 아주 곱아서 그걸 밭아 줘야 보리 그 뿌리가 확장이 잘 돼 가지고 그 썩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했었지만 그 그 아니 밭는 사름이 대부분이야.)

313) ‘비리다’는 꺼림칙한 송장이나 마소 등 동물이 죽은 것을 보고 몸이 더러워진 것을 말한다.

110006 @1 으, 게니까 정월달 아니고 이월달인 거라?(으, 그러니까 정월 아니고 이월인 거야?)

110006 #1 으, 이월달. 정월달에 보리가 아직 올라오지 안허주.(으, 이월. 정월달에 보리가 아직 올라오지 않지.)

110007 @1 안 현 거라예. 걸궁도 헤낫수과?(안 한 거지요. 걸립도 했었습니까?)

110007 #1 걸궁 막 헤낫저. 게난 정월달 뒤편은 정월 15일 전에 걸궁 한다. 주로 보름날 걸궁을 만이 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이 그 뭐인가 그 걸궁, 걸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이 아주 그 부락에 대행사주게.(걸립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정월 되면 정월 15일 전에 걸립 한다. 주로 보름날 걸립을 많이 하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뭐인가 그 걸립, 걸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 아주 그 부락에 대행사지.)

110007 @1 예.(예.)

110007 #1 그래 가지고 집에 가면은 집에 가면 막 집에 강 헤 가면 정초에 백 사람에게 오라서 그 마당을 밟아 주면은 그 운이 좋다고 해서 그 집집마다 가주게. 가면은 그 집에선 말야, 부자집에선 말야 돈도 얼마니 나오고 떡도 해근에 주고. 아주 재밋게 헤낫저.(그래 가지고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아주 집에 가서 해 가면 정초에 백 사람이 와서 그 마당을 밟아 주면 그 운이 좋다고 해서 그 집집마다 가지. 가면 그 집에선 말야, 부자집에선 말야 돈도 얼마 나오고 떡도 해서 주고. 아주 재밋게 했었어.)

110007 @1 으.(으.)

110007 #1 남저가 여장을 허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아주 재밋게 헤낫저.(남자가 여장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아주 재밋게 했었어.)

110007 @1 그 걸궁이란 게 마당을 자기 집 마당을 백 사람이 왕 밟아 주민 좋으니까 다른 집이 강 막?(그 걸립이란 게 마당을 자기 집 마당을 백 사람이 와서 밟아 주면 좋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마구?)

110007 #1 으, 다른 집 방문하면서 집집마다 갱 헤 쥐나세. 게니까 한 오, 오륙 일을 걸러낫저.(으, 다른 집 방문하면서 집집마다 그렇게 해 줘었어. 그러니까 한 오, 오륙 일을 걸렸었어.)

110007 @1 그민 동네 사람들 거기 다 모여 가지고.(그럼 동네 사람들 거기 다 모여 가지고.)

110007 #1 다 모영.(다 모여서.)

110007 @1 옷 같은 거는?(옷 같은 거는?)

110007 #1 옷 같은 거는 **이라고 이디 관 큰 거허고 두루마기 입곡이.(옷 같은 거는 **이라고 여기 관 큰 거하고 두루마기 입고.)

110007 @1 예.(예.)

110007 #1 여저는이 잠수 옷 입고 그 뭐야 테왁 들러메고.(여자는 잠수 옷 입고 그 뭐야 테왁 들러매고.)

110007 @1 예.(예.)

110007 #1 또 포수가 잇저, 포수라고 썩.(또 포수가 있어, 포수라고 썩.)

110007 @1 사냥, 사농허는 사람들?(사냥, 사냥하는 사람들?)

110007 #1 으, 사농허는 사람. 사농허는 사람도 사농허는 옷허고 이상한 뭐 쓰고 그 뭐인가 냥으로 만든 총 해 가지고서 그렇게 들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재밌게.(으, 사냥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도 사냥하는 옷하고 이상한 뭐 쓰고 그 뭐인가 나무로 만든 총 해 가지고서 그렇게 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재밌게.)

110007 @1 아, 그럼 자기가 일허는 주 복장덜을 갖추고예?(아, 그럼 자기가 일하는 주 복장들을 갖추고요?)

110007#1 그리고 또 이디 저 송낙³¹⁴이란 게 잇저, 이디 저 꽃으로 멘들 송낙 썩 가지고서 주요 인물들은 그거 썩 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그 부인덜도 역시 북치고 장구 치고 그렇게 허고.(그리고 또 여기 저 송낙이란 게 있어, 여기 저 꽃으로 만든 송낙 썩 가지고서 주요 인물들은 그거 썩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부인들도 역시 북치고 장구 치고 그렇게 하고.)

110007 @1 아, 경허명 돌아다니는 거예. 집이서는 부제칩이서는 음식도 내놓고.(아,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요. 집에서는 부잣집에서는 음식도 내놓고.)

110007 #1 부제칩 아니라도 음식은 주로이 빙 거튼 거 해근에 만이 내놔났저. 배고프주, 돌아댁기젠 허민. 부제칩 거튼 디서는 돈으로 이제, 것도 경비가 들 거 아니냐, 그 사람덜도 떡곡 허젠 허민.(부잣집 아니어도 음식은 주로 빙 같은 거 해서 많이 내놔았어. 배고프지, 돌아다니려고 하면. 부잣집 같은 데서는 돈으로 이제, 것도 경비가 들 거 아니냐, 그 사람들도 먹고 하려고 하면.)

110007 @1 으.(으.)

110007 #1 부제칩 사름덜은 회사도 만이 헛주. 그 집에 가면은 켜 음식도 내놓고.(부잣집 사람들은 회사도 많이 헛지. 그 집에 가면 그래서 음식도 내놓고.)

110008 @1 음식도 내놓고예. 다음은 절기 물어보쿠다. 입춘이 뭐를 입춘이렌 합니까?(음식도 내놓고요. 다음은 절기 물어보겠습니다. 입춘이 뭐를 입춘이라고 합니까?)

110008 #1 입춘이라는 것은이 새 봄이 돌아온다는 뜻이여. 입춘 돼면은 이젠 새해 들엇다고 정월 초하루가 아니, 아니 돼도 입춘 돼면은 여기선 결혼을 할 적에 입춘 돼면은 새해 든 걸로 택일을 보고 그렇게, 입춘대길이라고 해서.(입춘이라는 것은 새 봄이 돌아온다는 뜻이야. 입춘 되면 이젠 새해 들엇다는 정월 초하루 안, 안 되도 입춘 되면 여기선 결혼을 할 적에 입춘 되면 새해 든 걸로 택일을 보고 그렇게,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110008 @1 음.(음.)

110008 #1 그 입춘은 새해를 맞이헌 거주.(그 입춘은 새해를 맞이한 거지.)

110008 @1 농사지을 때 입춘 때 돼면 뭐 해야 되는 거 잇수과?(농사지을 때 입

314) '송낙'은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머리에 쓰는 백지로 만든 고깔을 말한다.

춘 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110008 #1 농사 때 입춘 돼민 뭐 허곤 엇저.(농사 때 입춘 되면 뭐 하곤 없어.)

110008 @1 그 우수는마씨?(그 우수는요?)

110008 #1 우수는 거세기 그 뭐인가 우수는 비가 적당히 와 준다고 그래서 우수 절기에 그때도 뭐 허는 건 엇다.(우수는 거시기 그 뭐인가 우수는 비가 적당히 와 준다는 그래서 우수 절기에 그때도 뭐 하는 건 엇다.)

2월

110009 @1 엇고예. 이월덜 물어보쿠다예. 이월덜 영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과?
(엇고요. 이월 물어보겠어요. 이월 영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10009 #1 영등은 음력 이월 초하룻날부터이.(영등은 음력 이월 초하룻날부터)

110009 @1 으.(으.)

110009 #1 스무날.(스무날.)

110009 @1 예.(예.)

110009 #1 그 어간에 이제 스무날 돼면은 나간텐 허주, 영등신이.(그 어간에 이제 스무날 되면 나간다고 하지, 영등신이.)

110009 @1 으.(으.)

110009 #1 영등신이 나간다고 허니깐이 이 구좌에서는 김녕³¹⁵⁾에서 영등굿, 지금도 한다. 영등굿은 이제 영등할망을 맞이한다.(영등신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 구좌에서는 김녕에서 영등굿, 지금도 한다. 영등굿은 이제 영등할머니를 맞이한다.)

110009 @1 아.(아.)

110009 #1 우리 구좌에서는 김녕으로 와 가지고서 저 우도로 나간다고 그렇게 속설이 그렇게.(우리 구좌에서는 김녕으로 와 가지고서 저 우도로 나간다고 그렇게 속설이 그렇게.)

110009 @1 아, 기좌. 그럼 마을마다 다 영등굿 하는 건 아니?(아, 그렇습니까. 그럼 마을마다 다 영등굿 하는 건 아니?)

110009 #1 아니, 그건 아니.(아니, 그건 아니.)

110009 @1 아니구나예. 김녕으로 왕 우도로 나간다고. 그민 영등 기간이 있는 거잖아예?(아니군요. 김녕으로 와서 우도로 나간다고. 그럼 영등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110009 #1 으.(으.)

110009 @1 영등이 들어왕 나가는 기간 동안에 뭐 허지 말아야 허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수과?(영등이 들어와서 나가는 기간 동안에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110009 #1 그런 건 엇고. 경건현 마음만 가지라 그러는 거주.(그런 건 엇고. 경건한 마음만 가져라 그러는 거주.)

315) '김녕'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김녕리를 말한다.

110009 @1 뭐 영등 기간에도 물에 들어가고 험니까?(뭐 영등 기간에도 물에 들어가고 험니까?)

110009 #1 영등엔 추워 부난 그뻐 물에 안 간다.(영등엔 추워 버리니까 그뻐 물에 안 간다.)

110009 @1 아.(아.)

110009 #1 그뻐 추워 부난 물에 안 든 때.(그뻐 추워 버리니까 물에 안 든 때.)

110010 @1 아. 이월에 절기가 경칩이 잇다예?(아. 이월에 절기가 경칩이 잇네요?)

110010 #1 으.(으.)

110010 @1 경칩이랑 춘분이 이신다.(경칩이랑 춘분이 잇는데.)

110010 #1 경칩은 개구리가 깨나고 봄이 따뜻하니까 이제는 이제부터는, 그 입춘은 새해고 경칩이 뉘면은 경칩은 봄이 서서히 움튼다고 허는 그 계절을 말허는 것이여.(경칩은 개구리가 깨나고 봄이 따뜻하니까 이제는 이제부터는, 그 입춘은 새해고 경칩이 되면 경칩은 봄이 서서히 움튼다고 하는 그 계절을 말하는 것이야.)

110010 @1 음.(음.)

110012 #1 그다음엔 청명이란 게 잇주.(그다음엔 청명이란 게 잇지.)

110012 @1 으.(으.)

110012 #1 청명은, 청명은 모든 풀이 이제 새로 돌아난다는 시기가 금방 닥쳤다고 해 가지고 청명 뉘면은 온 산야가 막 파랗게 다 그렇게 뉘다.(청명은, 청명은 모든 풀이 이제 새로 돌아난다는 시기가 금방 닥쳤다고 해 가지고 청명 되면 온 산야가 아주 파랗게 다 그렇게 뉘다.)

110010 @1 으. 경칩 때 농서 뭐 허는 거 없지예?(으. 경칩 때 농사 뭐 하는 거 없지요?)

110010 #1 그런 거 허는 거 엇다.(그런 거 하는 거 엇다.)

110010 @1 춘분은, 춘분 때도?(춘분은, 춘분 때도?)

110010 #1 으, 춘분 때도 허는 것이 엇고.(으, 춘분 때도 하는 것이 엇고.)

3월

110011 @1 삼월, 삼월 뉘면 한식 명절이 잇수다 한식 멩질 이거 헤낫수과?(삼월, 삼월 되면 한식 명절이 잇습니다. 한식 명절 이거 했었습니까?)

110011 #1 한식 멩질 여긴 전부 헤낫저. 한식도 허고 단오도 허고 다 헤낫는데, 거 중간에 끈어 뉘는데 한식은이.(한식 명절 여긴 전부 했었어. 한식도 하고 단오도 하고 다 했었는데, 거 중간에 끊어 버렸는데 한식은.)

110011 @1 예.(예.)

110011 #1 한식이 무슨 날이고 허니 식은 밥을, 찬밥을 먹은 게 한식이주, 그 의미가.(한식이 무슨 날이고 하니 식은 밥을, 찬반을 먹은 게 한식이지, 그 의미가.)

110011 @1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10011 #1 으, 계난.(으, 그러니까.)

110011 @1 식은 밥 먹는 날?(식은 밥 먹는 날?)

110011 #1 으. 식은 밥 먹는다고 허지만은 여기는 한식을 제사로 그때 멩질을 지내나시네.(으. 식은 밥 먹는다고 하지만 여기는 한식을 제사로 그때 멩질을 지냈었어.)

110011 @1 예.(예.)

110011 #1 그 한식의 유래는 그 중국에 개자취라는 사람이 잇었는데, 개자취가 아주 충신이었는데 남이 모함해 부니까 그 역적으로 몰리게 돼지 안헤시냐.(그 한식의 유래는 그 중국에 개자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개자취가 아주 충신이었는데 남이 모함해 버리니까 그 역적으로 몰리게 되지 않았니.)

110011 @1 으.(으.)

110011 #1 역적으로 몰리게 돼니까 이 사람이 산에 강 숨어 분 거라. 자기는 췌가 없는데 모략을 당허니까. 게서 왕이 결국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모함으로 어디 도망갔거든.(역적으로 몰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숨어 버린 거야. 자기는 죄가 없는데 모략을 당하니까. 그래서 왕이 결국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모함으로 어디 도망갔거든.)

110011 @1 으.(으.)

110011 #1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모함이 풀렸으니까 나오라고 방, 지금 거트민 신문, 방송이여만은 암만 방을 놔도 안 나오거든.(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모함이 풀렸으니까 나오라고 방, 지금 같으면 신문, 방송이지만 아무리 방을 놔도 안 나오거든.)

110011 @1 으.(으.)

110011 #1 안 나오니까 그 마지막에 산간에 들어간 걸로 알고 불을 부졌어.(안 나오니까 그 마지막에 산간에 들어간 걸로 알고 불을 붙였어.)

110011 @1 으.(으.)

110011 #1 불을 부찌민 불을 피해서 나올 거 아니냐?(불을 붙이면 피해서 나올 거 아니냐?)

110011 @1 으.(으.)

110011 #1 불을 부찌도 안 나완 거 불 탄 죽어 버렸단 말이야.(불을 붙여도 안 나와서 거 불 타서 죽어 버렸단 말이야.)

110011 @1 으.(으.)

110011 #1 계난 더우면, 얼마나 더워서 죽엇길래 그래서 한식이라 헤 가지고 그 개자취를 숭배허는 중국의 풍속이 이 나라에 와 가지고서 한식은 찬밥을 먹는 날로 그렇게 됐지.(그러니까 더우면, 얼마나 더워서 죽엇기에 그래서 한식이라 헤 가지고 그 개자취를 숭배허는 중국의 풍속이 이 나라에 와 가지고서 한식은 찬밥을 먹는 날로 그렇게 됐지.)

110011 @1 으.(으.)

110011 #1 그렇게 돼긴 뻘는데 그 제사를 개자취 대신 지내는 게 그거.(그렇게 돼긴 뻘는데 그 제사를 개자취 대신 지내는 게 그거.)

110011 @1 멍질, 멍질 해 먹듯이 음식도 다 출리는 거마씨?(명절, 명절 해 먹듯이 음식도 다 차리는 거요?)

110011 #1 으, 멍질 똑거치 헛저. 정월 멍질 조상. 개자취를 위헌 건데 그 개자취를 위할 수 없지 안허여. 그래서 그로부터.(으, 명절 똑같이 했어. 정월 명절 조상. 개자취를 위한 건데 그 개자취를 위할 수 없지 았아. 그래서 그로부터.)

110011 @1 으.(으.)

110015 #1 단오에도 오월은 단오 멍질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즐겼주게, 단오하고 멍질을.(단오에도 오월은 단오 명절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즐겼지, 단오하고 명절을.)

110015 @1 우리가 정월이나 추석 멍질에는 우리 집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친척 집 다 돌아다니명 ㅁ치 제를 지내잖아예?(우리가 정월이나 추석 명절에는 우리 집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친척 집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제를 지냈잖아요?)

110011 #1 으, 그 한식이나 단오도 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내주.(으, 그 한식이나 단오도 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냈지.)

110012 @1 아,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거 ㅁ치들. 아까 청명 곶아주셨고예, 곡우. 그럼 청명이랑 곡우 때 뭐 농서지으면 그런 건?(아,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거 같이들. 아까 청명 말해 주었고요, 곡우. 그럼 청명이랑 곡우 때 뭐 농사지으면 그런 건?)

110012 #1 게니까 청명 때는이 소 거튼 것을 그때에는 이제 방목을 허기 시작헌다. 집에 들여 뻘다가 청명 뻘면. 겨고 이제 곡우가 뻘여 가면 밭덜을 다 갈아야 뻘주.(그러니까 청명 때는 소 같은 것을 그때에는 이제 방목을 하기 시작한다. 집에 들여 뻘다가 청명 뻘면. 그리고 이제 곡우가 뻘여 가면 밭들을 다 갈아야 뻘지.)

110012 @1 아.(아.)

110012 #1 여름 농서할 것을 초불을 다 갈아야. 이제 곡우 뻘면은 갈기 시작헌다.(여름 농사할 것을 초불을 다 갈아야. 이제 곡우 뻘면 갈기 시작한다.)

110012 @1 아, 이때 초불 가는 거라예. 이때서부터 본격 농사 준비?(아, 이때 초불 가는 거지요. 이때서부터 본격 농사 준비?)

110012 #1 농서 준비허는 거.(농사 준비하는 거.)

4월

110013 @1 사월달 넘어가쿠다예. 사월초파일 그때 뻘 험니까?(사월 넘어가겠습니다. 사월초파일 그때 뻘 합니까?)

110013 #1 초파일, 그건 뻘 불교 행사기 때문에 촌에서 뻘 허지 안헌다. 불교 행사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절간에 가 가지고서 초파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허는 거고.(초파일, 그건 뻘 불교 행사기 때문에 촌에서 뻘 하지 았는다. 불교 행사이

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절간에 가 가지고서 초파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고.)

110014 @1 절기상으로 입하하고 소만이 잇수다. 이 시기에 농사는 뭐?(절기상으로 입하하고 소만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농사는 뭐?)

110014 #1 게 입하, 입하가 돼면은이 농서를 저 뭐인가 산두를 간다, 산다.(게 입하, 입하가 되면 농사를 저 뭐인가 밭벼를 간다, 밭벼.)

110014 @1 아.(아.)

110014 #1 산다가 제일 처음 먼저, 먼저 가는 거고.(밭벼가 제일 처음 먼저, 먼저 가는 거고.)

110014 @1 아, 산다가 제일 먼저 갈아마씨?(아, 밭벼가 제일 먼저 갈아요?)

110014 #1 으.(으.)

110014 @1 산디 갈양 그다음엔 뭐 갈아, 순서가?(밭벼 갈아서 그다음엔 뭐 갈아, 순서가?)

110014 #1 그다음에는 산디, 산디 갈아난 다음에는 이젠 거세기 해야 돼여, 보릴 갖다가 다 이제 거뒤들여야 된다.(그다음에는 밭벼, 밭벼 간 다음에는 이젠 거시기 해야 돼, 보릴 갖다가 다 이제 거뒤들여야 된다.)

110014 @1 아, 보리 수확.(아, 보리 수확.)

110014 #1 보리를 거 뭐이냐 그디가 망종 전에, 망종 전에 보리를 다 거뒤들여서.(보리를 거 뭐이냐 거기가 망종 전에, 망종 전에 보리를 다 거뒤들여서.)

110014 @1 어.(어.)

110014 #1 이제 망종이 지나면은 이제 그 여름 농서를.(이제 망종이 지나면 이제 그 여름 농서를.)

110014 @1 으.(으.)

110014 #1 글로부터 시작허젠 허면은 그 보리크르에도 갈아야 되고 뭐 해야 허고 그때부턴 농촌엔 이제 바빠지기 시작한다.(그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그 보리 그루에도 갈아야 되고 뭐 해야 하고 그때부턴 농촌엔 이제 바빠지기 시작한다.)

110014 @1 으. 오월달 넘어 가쿠다예. 아, 소만에 뭐 허는 거 잇수과?(으. 오월달 넘어 가겠습니다. 아, 소만에 뭐 하는 거 있습니까?)

110014 #1 소만에는 뭐 허는 거 엇고.(소만에는 뭐 하는 거 없고.)

5월

110015 @1 엇고예. 오월달에 아까 단오 명절 이신디 단오 명절이 정월 명절이나 한식 명절이랑 다른 게 잇수과?(없고요. 오월에 아까 단오 명절 있는데 단오 명절이 정월 명절이나 한식 명절이랑 다른 게 있습니까?)

110015 #1 다르지 안허영 똑거치 지낸다.(다르지 않고 똑같이 지낸다.)

110015 @1 똑같애? 다 똑 같아마씨?(똑같아? 다 똑 같아요?)

110015 #1 으.(으.)

110015 @1 한식 명절도예, 똑같은 거?(한식 명절도요, 똑같은 거?)

110015 #1 으.(으.)

110015 @1 그러면 설 명절만 세배허레 다니는 게 다른가?(그럼 설 명절만 세배하러 다니는 게 다른가?)

110015 #1 응. 설 명절만. 그건 혼 설 더 먹기 때문에 웃사람한테 나 혼 설 더 먹었습니다, 해 가지고 인사. 일 년에 거 안부를 건강허십서, 안부를 묻고 또 그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 덕담으로 너 몸을 건강해라, 너 소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덕담해 주는 거.(응. 설 명절만. 그건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웃사람한테 나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해 가지고 인사. 일 년에 거 안부를 건강하세요, 안부를 묻고 또 그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 덕담으로 너 몸을 건강해라, 너 소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덕담해 주는 거.)

110016 @1 예. 오월달에 망종이 잇고 하지가 잇수다. 아까 망종 전에 보리 수확을 다 해 베야 돼고?(예. 오월에 망종이 잇고 하지가 잇습니다. 아까 망종 전에 보리 수확을 다 해 버려야 되고?)

110016 #1 으. 거의 거의 망종 전에 다 보리 수확을 부지런히 다 끝마쳐야 되는 거주.(으. 거의 거의 망종 전에 다 보리 수확을 부지런히 다 끝마쳐야 되는 거지.)

110016 @1 계민 하지 때는 뭐 허는 거 잇어마씨?(그럼 하지 때는 뭐 하는 거 잇어요?)

110016 #1 하지 때는 뭐 특별히 허는 게 엇다. 특별히 허는 게 엇고이 그자 그 밧덜 다 갈아야. 그 초벌 밧을.(하지 때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다. 특별히 하는 게 없고 그저 그 밧들 다 갈아야. 그 초벌 밧을.)

6월

110017 @1 아. 유월달 넘어가쿠다예. 유월달에 닭 잡아먹는 날이 이신게.(아. 유월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에 닭 잡아먹는 날이 잇네요.)

110017 #1 으, 거 유월 스무날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서 내려오는데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으면은.(으, 거 유월 스무날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서 내려오는데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으면.)

110017 @1 득 잡아먹는 거지예?(닭 잡아먹는 거지요?)

110017 #1 으, 득 잡아먹는 날. 유월 스무날 주로 잡아먹는 건데.(으, 닭 잡아먹는 날. 유월 스무날 주로 잡아먹는 건데.)

110017 @1 예.(예.)

110017 #1 경허면은 몸도 건강허고 모든 액운이 막아진다고 해 가지고서 몸을 건강헌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유래해서 주로 만이 잡아먹나, 그날.(그러면은 몸도 건강하고 모든 액운이 막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몸을 건강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유래해서 주로 많이 잡아먹어, 그날.)

110017 @1 그날은 득 어디 강 사당?(그날은 닭 어디 가서 사다가?)

110017 #1 집집마다 그때 질러나세. 다 질러났저.(집집마다 그때 길렀었어. 다 길렀었어.)

110018 @1 질러 뒀던 거 그날 잡아먹는 거예. 계민 삼복, 삼복이엔 험니까, 득 잡아먹는 날 세 번 이시난?(길러 뒀던 거 그날 잡아먹는 거요. 그럼 삼복, 삼복이라고 합니까, 닭 잡아먹는 날 세 번 있으니까?)

110018 #1 으, 계난 복날은 득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옛날은 복날은 개 잡아먹는 날이주.(으, 그러니까 복날은 닭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옛날은 복날은 개 잡아먹는 날이지.)

110018 @1 아, 개 잡아먹는 날?(아, 개 잡아먹는 날?)

110018 #1 계니까 그 개 잡아먹는 날, 삼복 날이 개 잡아먹어야 그 더위를 이긴다고 그래서.(그러니까 그 개 잡아먹는 날, 삼복 날이 개 잡아먹어야 그 더위를 이긴다고 그래서.)

110018 @1 아, 아까 유월 스무날도 삼복 날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아, 아까 유월 스무날도 삼복 날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

110018 #1 아니, 그건 아니.(아니, 그런 아니.)

110018 @1 그럼 따로?(그럼 따로?)

110018 #1 그때는 삼복이 안 든 때주, 유월은.(그때는 삼복이 안 든 때주, 유월은.)

110018 @1 아, 아. 그거 지남 또 삼복 날이 있는 거예?(아, 아. 그거 지나서 삼복 날이 있는 거요?)

110018 #1 으.(으.)

110018 @1 동네에서 개들 그치 잡아먹어남마씨?(동네에서 개들 같이 잡아먹었었어요?)

110018 #1 으, 옛날은 만이 거, 옛날은 거 돈이 엇영 개 사기가 만이 어려와났주게. 계난 옛날은 그 뭐인가 연령, 영양 가치 있는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으, 옛날은 많이 거, 옛날은 거 돈이 없어서 개 사기가 많이 어려웠었지. 그러니까 옛날은 그 뭐인가 연령, 영양 가치 있는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110018 @1 으.(으.)

110018 #1 그 가령 그 집에 아이덜이 뭐인가 영양실조 돼 가지고서 아이덜이 막 약해났주. 경험 개덜 동네에서 추렴해근에 아이덜 앓다 주민이 즉시 거 효과가 나타나났저.(그 가령 그 집에 아이덜이 뭐인가 영양실조 돼 가지고서 아이덜이 아주 약했었지. 그래서 개들 동네에서 추렴해서 아이들 가져다 주면 즉시 거 효과가 나타났었어.)

110019 @1 아, 기구나, 기구나. 소서랑 대서가 있다예, 유월덜에예?(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소서랑 대서가 있네요, 유월에요?)

110019 #1 으.(으.)

110019 @1 소서, 대서 때는 뭐 험니까?(소서, 대서 때는 뭐 합니까?)

110019 #1 소서 전이이.(소서 전에.)

110019 @1 예.(예.)

110019 #1 소서 전이 뭐인가 모든 곡식 파종이 다 끝나는 거여. 뭐인가 소서, 소서 전이.(소서 전에 뭐인가 모든 곡식 파종이 다 끝나는 거야. 뭐인가 소서, 소서 전에.)

110019 @1 아, 게민 아까 산디 맨 먼저.(아, 그럼 아까 밭벼 맨 먼저.)

110019 #1 제일 먼저.(제일 먼저.)

110019 @1 먼저 같고 그다음 보리 수확해 난 다음에 그다음 씨 뿌리는 게 뭐 잇수과?(먼저 같고 그다음 보리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씨 뿌리는 게 뭐 잇습니까?)

110019 #1 그다음에는 조나. 그다음에는 조, 조 콩.(그다음에는 조나. 그다음에는 조, 조 콩.)

110019 @1 대서 때는마씨?(대서 때는요?)

110019 #1 대서 때는 특별히 허는 거 없다. 거, 거, 그때는 검질을 메는 거주. (대서 때는 특별히 하는 거 없다. 거, 거, 그때는 김을 매는 거지.)

110019 @1 대서 맨 검질메는 거?(대서 맨 김매는 거?)

110019 #1 으름 곡식에 그 검질덜 막.(으름 곡식 그 김들 마구.)

7월

110020 @1 칠석, 칠월달 물어보쿠다. 칠석예. 칠월 칠석 때는 뭐 해낫수과?(칠석, 칠월 물어보겠습니다. 칠석요. 칠월 칠석 때는 뭐 했었습니까?)

110020 #1 칠석 때는 제 지내는 것이 엇고 것도 뭐인가 불교에서 칠석을 거시기 현 건데.(칠석 때는 제 지내는 것이 엇고 것도 뭐인가 불교에서 칠석을 거시기 한 건데.)

110020 @1 으.(으.)

110020 #1 그 칠월 칠석을 해 가지고서 아주 경건허게 그 마음을 쓰라고 해 가지고서 그 다 그 칠석 잊어볼진 안허고 특별헌 제 거튼 거 지내지 안헐저.(그 칠월 칠석을 해 가지고서 아주 경건허게 그 마음을 쓰라고 해 가지고서 그 다 그 칠석 잊어버리진 았고 특별한 제 같은 거 지내지 았았어.)

110020 @1 아, 제 지내는 건 아니고예?(아, 제 지내는 건 아니고요?)

110020 #1 건 불교에서 행헌다. 제 지내는 건.(건 불교에서 행한다. 제 지내는 건.)

110020 @1 으, 불교라예. 이때 농사짓고 그러는 건 엇수과?(으, 불교지요. 이때 농사짓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110020 #1 다 농서 끝났저, 다.(다 농사 끝났어, 다.)

110020 @1 아, 끝난 거?(아, 끝난 거?)

110020 #1 메밀 농서만 아직 안 현 거라.(메밀 농사만 아직 안 한 거야.)

110021 @1 아. 백중제 험니까?(아. 백중제 험니까?)

110021 #1 으, 백중제는 소 만이 허는 딴 백중제를 다 험저. 물 가진 사람도 백중제를 허고.(으. 백중제는 소 많이 허는 딴 백중제를 다 험저. 말 가진 사람도 백중제를 하고.)

110021 @1 백중 때 물 맞으레 가거나, 모래찜 허레 가거나 그런 거?(백중 때 물 맞으러 가거나 모래찜질 하러 가거나 그런 거?)

110023 #1 아, 그거 험저. 백중 때는이 제일 그때 한걸험 때여, 여름에가. 한걸 허고 막 더우니까 이제 물 맞으레 뭐 여기서는 저 시에도 막 가났저.(아, 그거 험저. 백중 때는 제일 그때 한가할 때야, 여름에가. 한가하고 아주 더우니까 이제 물 맞으러 뭐 여기서는 저 시에도 많이 갔었어.)

110023 @1 하도 가난 거 기억남수다.(하도 갔었던 거 기억남니다.)

110023 #1 절물³¹⁶도 허고 하도³¹⁷도 가고 종달이³¹⁸도 가고.(절물도 하고 하도도 가고 종달리에도 가고.)

110023 @1 예.(예.)

110023 #1 종달이가 하도 어간에 막 물 거시기 험 디. 거디도 가고.(종달이 하도 어간에 아주 물 거시기 한 데. 거기도 가고.)

110023 @1 예.(예.)

110023 #1 이디 거트민 저 독그슬³¹⁹에 물 막 차가운 바닷물 거기도 가고.(여기 같으면 저 ‘독그슬’에 물 아주 차가운 바닷물 거기도 가고.)

110022 @1 아, 물맞이 허고예. 모래찜은 안 헤낫수과?(아, 물맞이 하고요. 모래찜질은 안 험었습니까?)

110022 #1 모래찜은 여기선 안 헤낫저. 여기는.(모래찜질은 여기선 안 험었어. 여기는.)

110022 @1 여기는 안 허고예.(여기는 안 하고요.)

110022 #1 저 삼양 거 주로 허는 디.(저 삼양 거 주로 하는 데.)

110021 @1 어쨌든 백중 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런 물맞이 허는 거고 쉼 키우는 사람.(어쨌든 백중 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런 물맞이 하는 거고 소 키우는 사람.)

110021 #1 으, 쉼 키우는 사람덜 꼭 제를 지낸다.(으, 소 키우는 사람들 꼭 제를 지낸다.)

110024 @1 예, 제 지내는 거예. 칠월달에 입추허고 처서가 잇수다. 그때는 뭐 험니까?(예, 제 지내는 거요. 칠월에 입추하고 처서가 잇습니다. 그때는 뭐 험니까?)

110024 #1 계난 입추, 계난 처서 전에 처서 삼사일 전에 메밀 파종허는 시기.(그러니까 입추, 그러니까 처서 전에 처서 삼사일 전에 메밀 파종하는 시기.)

316) ‘절물’은 제주시 봉개동 ‘대나오름’ 자락에 있는 물 이름이다. 물 곁에 절집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317) ‘하도’는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하도리를 말한다.

318) ‘종달이’는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종달리를 말한다.

319) ‘독그슬’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바다이름의 하나로, ‘독그슬개’라고도 한다.

110024 @1 아, 처서 삼사일 전에 메밀 파종하는 거예?(아, 처서 삼사일 전에 메밀 파종하는 거요?)

110024 #1 그거 끝나면은 일 년 농사는 전부 파종은 끝난 거.(그거 끝나면 일 년 농사는 전부 파종은 끝난 거.)

8월

110025 @1 예, 예. 팔월덜예, 팔월덜에 별초허지예?(예, 예. 팔월요, 팔월에 별초하지요?)

110025 #1 팔월덜 돼면은 뭐인가 팔월 추석이 십오 일이거든이.(팔월 되면은 뭐인가 팔월 추석이 십오 일이거든.)

110025 @1 예.(예.)

110025 #1 팔월 추석 전에 제주도는 산소에 소분을 다 해야 돼. 계난 팔월 초가 돼면은, 팔월 초하루가 돼면은 문중 소분으로 시작해 가지고서 다 개인 소분까지 다 해야 돼.(팔월 추석 전에 제주도는 산소에 소분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팔월 초가 되면, 팔월 초하루가 되면 문중 소분으로 시작해 가지고서 다 개인 소분까지 다 해야 돼.)

110025 @1 음.(음.)

110025 #1 그 소분하는 기간.(그 소분하는 기간.)

110025 @1 그니까 팔월 초하루서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그러니까 팔월 초하루서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110025 #1 으, 전까지.(으, 전까지.)

110025 @1 메칠이나 헤낫수과?(며칠이나 했었습니까?)

110025 #1 아, 계난 그때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아, 그러니까 그때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110025 @1 으.(으.)

110025 #1 그 문중 소분 한 이틀이 걸리고 개인 소분도 막 먼 디 걸어 땡기젠 허면은 흐 이틀, 흐 스일 걸렸저, 삼스일.(그 문중 소분 한 이틀이 걸리고 개인 소분도 아주 먼 데 걸어 다니려고 하면 한 이틀, 한 사일 걸렸어, 삼사일.)

110026 @1 으, 삼스일. 기민 팔월 명절은 똑같고예?(으, 삼사일. 그럼 팔월 명절은 똑같고요?)

110026 #1 으, 똑같고.(으, 똑같고.)

110027 @1 저기 백로랑 추분 잇수다.(저기 백로랑 추분 있습니다.)

110027 #1 그 백로란 것은 팔월 전이 드는 것이 백로엔 현다.(그 백로란 것은 팔월 전에 드는 것이 백로라고 한다.)

110027 @1 으.(으.)

110027 #1 백로에는 그 뭐인가 이슬이 그 만이 내린다고 그래서 백로주. 그것이 바로 팔월절³²⁰이여, 백로가.(백로에는 그 뭐인가 이슬이 그 많이 내린다고 그래서

백로지. 그것이 바로 팔월절이야, 백로가.)

110027 @1 아, 백로가 팔월절예. 뭐 이때는 농서하는 거?(아, 백로가 팔월절요. 뭐 이때는 농사하는 거?)

110027 #1 농서 다 끝나 부는 그땐 한결힐 때여.(농사 다 끝나 버리는 그땐 한 가할 때요.)

9월

110028 @1 구월달에 상강이 잇수다.(구월에 상강이 있습니다.)

110028 #1 상강, 으, 구월달엔 이젠 조가 한창 거시기 그거 거두어들일 때여. 조 수확.(상강, 으, 구월엔 이젠 조가 한창 거시기 그거 거두어들일 때요. 조 수확.)

110028 @1 예.(예.)

110028 #1 조 수확, 조 수확이 다 끝나고 이 상강 전에이 뭐인가 그 저 뭐인가 그 메밀 거튼 것도 상강 쳐 버리민이 으물이 다 몰라 불주게.(조 수확, 조 수확이 다 끝나고 이 상강 전에 뭐인가 그 저 뭐인가 그 메밀 같은 것도 서리 내려 버리면 여물이 다 말라 버리지.)

110028 @1 예.(예.)

110028 #1 상강 전에 그걸 거둬고 경헛저. 상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지런히 상강 전에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들이는 거여.(상강 전에 그걸 거두고 그랬어. 상강을 기준으로 해서 부지런히 상강 전에 가을 곡식을 다 거두어들이는 거야.)

10월

110029 @1 으. 시월달에 입동허고 소설이 잇수다.(으. 시월에 입동하고 소설이 있습니다.)

110029 #1 입동은 건 겨울이 왔다는 거. 겨울 절기난애.(입동은 건 겨울에 왔다는 거. 겨울 절기니까.)

110029 @1 예.(예.)

110029 #1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추수가 다 끝나고.(그때는 모든 것이 다 추수가 다 끝나고.)

110029 @1 으.(으.)

110029 #1 이제 입동이 되면은 보리 갈 준비 그때는 한다.(이제 입동이 되면 보리 갈 준비 그때는 한다.)

110029 @1 보리 갈 준비.(보리 갈 준비.)

110029 #1 보리 갈 준비 다. 겐 조크루도 같고 밧 같고 경헛 낫다가 보리 갈 준비.(보리 갈 준비 다. 그래서 조 그루도 같고 밧 같고 그래 낫다가 보리 갈 준비.)

110029 @1 소설 때는마씨?(소설 때는요?)

110029 #1 소설 때는 이 보리가 다 끝나 부니깐이 이 소설 때는 뭐 헐 게 엇

320) 제보자는 백로를 '팔월절'이라고 하였다.

다.(소설 때는 이 보리가 다 끝나 버리니까 이 소설 때는 뭐 할 게 없어.)

11월

110030 @1 엇어예, 엇어예. 저기 동지 풋죽?(없어요, 없어요. 저기 동지 팔죽?)

110030 #1 으.(으.)

110030 @1 십일월달 넘어가 가지고, 십일월달 넘어가 가지고 동지 풋죽.(십일월 넘어가 가지고, 십일월 넘어가 가지고 동지 팔죽.)

110030 #1 동지 풋죽은 집집마다 썬 먹었저.(동지 팔죽은 집집마다 썬 먹었지.)

110030 @1 예.(예.)

110030 #1 왜냐하면 동지 풋죽 거 썬 먹는 원인은 그 풋이 거 붉은 거거든.(왜냐하면 동지 팔죽 거 썬 먹는 원인이 그 팔이 거 붉은 거거든.)

110030 @1 으.(으.)

110030 #1 계난 이 신, 귀신, 잡귀는 붉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 동지 풋죽 썬 가지고서 이 올레 거튼 디 영 케우려났저. 나쁜 잡귀가 들어오지 말라고.(그러니까 이 신, 귀신, 잡귀는 붉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 동지 팔죽 썬 가지고서 이 올레 같은 데 이렇게 고수레했었어. 나쁜 잡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110030 @1 아.(아.)

110030 #1 그런 풍속도 있고.(그런 풍속도 있고.)

110030 @1 계민 집집마다 풋죽은 다 해 먹어났수과?(그럼 집집마다 팔죽은 다 해 먹었었습니까?)

110030 #1 으, 다 해 먹어났저. 동네에서 해 먹는다 아니 먹을 수 이시냐?(으, 다 해 먹었었어. 동네에서 해 먹는데 안 먹을 수 있니?)

110031 @1 하하하. 그 납평날이라는 게 뭐과?(하하하. 그 납평날이라는 게 뭘니까?)

110031 #1 납평날, 몰라. 그런 거.(납평날, 몰라. 그런 거.)

110031 @1 동지 뒤에 오는 세 번째 술날이엔 험디다만은 그런 거 따로 안 해났구나예?(동지 뒤에 오는 세 번째 술날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거 따로 안 했었군요?)

110031 #1 따로 안 해났저.(따로 안 했었어.)

110032 @1 십일월달에 절기가 대설이 있고 동지가 잇수다.(십일월에 절기가 대설이 있고 동지가 있습니다.)

110032 #1 으, 대설이 눈이 많이 온다는 그거고 동지는 뭐인가 동지가 들면은 뭐인가 이제는 뭐인가 새해가 가까웠다는 거주게.(으, 대설이 눈이 많이 온다는 그거고 동지는 뭐인가 동지가 들면 뭐인가 이제는 뭐인가 새해가 가까웠다는 거지.)

110032 @1 으.(으.)

110032 #1 동지가 아주 겨울이 아주 한복판이 들었다 그 말이주, 동지가.(동지가 아주 겨울이 아주 한복판에 들었다 그 말이지, 동지가.)

110032 @1 으, 여름에 하지, 겨울에 동지예?(으, 여름에 하지, 겨울에 동지요?)

110032 #1 으, 동지 뒤편은 아주 그 하지로부터 해 가지고 동지가 제일 뒤편가 해가 제일 짝른 거가 동지.(으, 동지 되면 아주 그 하지로부터 해 가지고 동지가 제일 뒤편가 해가 제일 짧은 거가 동지.)

110032 @1 으.(으.)

110032 #1 동지 넘으면은 해가, 낮이 길어가고.(동지 넘으면 해가, 낮이 길어가고.)

12월

110033 @1 으. 저기 십이월달에 넘어가쿠다. 십이월달에 친구간이 이신디?(으. 저기 십이월에 넘어가겠습니다. 십이월에 '친구간'이 있는데?)

110033 #1 으, 친구간³²¹⁾ 잊저. 친구간은 예, 친구간은 입춘 넘어서, 입춘 넘어서 오 일 후 입춘 삼 일 전에 그제 친구간으로 모든 이사나 집에 모든 뒤편가 고치는 건 다 헛저.(으, '친구간' 있어. '친구간'은 예, '친구간'은 입춘 넘어서, 입춘 넘어서 오 일 후 입춘 삼 일 전에 그제 '친구간'으로 모든 이사나 집에 모든 뒤편가 고치는 건 다 헛어.)

110033 @1 으.(으.)

110033 #1 그 친구간에 웨, 제주도는 친구간에 허는고 허니 이 날은 신이 이 지상에 잇는 신이 저 하늘로 다 올라강 웨이를 허는 날이라.(그 '친구간'에 웨, 제주도는 '친구간'에 하는가 하니 이 날은 신이 이 지상에 잇는 신이 저 하늘로 다 올라가서 회의를 하는 날이야.)

110033 @1 예.(예.)

110033 #1 그래서 다음 임무를 주는, 위해서 이 신이 하늘로 다 갖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해서 경해서 친구간.(그래서 다음 임무를 주는, 위해서 이 신이 하늘로 다 갖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친구간'.)

110033 @1 아.(아.)

110033 #1 신, 신허고 뒤편가 신참허고 구참이 아직은 바파지지 안헌 때난 그 친구간에 허면은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해서 주로 그때 이사나 집을 고치나 산소를 고치나 그렇게.(신, 신하고 뒤편가 신참하고 구참이 아직은 바파지지 않은 때니까 그 '친구간'에 하면 아무런 탈이 없다고 해서 주로 그때 이사나 집을 고치거나 산소를 고치거나 그렇게.)

110033 @1 아까 입춘 삼 일 전, 뒤편 오 일 후?(아까 입춘 삼 일 전, 뒤편 오 일 후?)

110033 #1 계난 입춘 오 일 후.(그러니까 입춘 오 일 후.)

110033 @1 아, 입춘 오 일 후.(아, 입춘 오 일 후.)

110033 #1 아, 첨, 대한 오 일 후, 대한 오 일 후 입춘 삼 일 전.(아, 첨, 대한

321) '친구간'은 절기로 대한 후 7일부터 입춘 3일 전까지의 6일 동안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손이 없다고 해서 주로 이사를 하거나 집안을 수리하기도 한다.

오일 후, 대한 오 일 후 입춘 삼 일 전.)

110033 @1 아.(아.)

110033 #1 계난 꼭 일주일 쯤다.(그러니까 꼭 일주일 쯤다.)

110033 @1 일주일, 그 기간이예. 예, 예. 경허민 이때 집 고치는 건 안 물어봐도 돼는 거?(일주일, 그 기간요. 예, 예. 그러면 이때 집 고치는 건 안 물어봐서 해도 되는 거?)

110033 #1 으, 안 물어봐도 돼도 쯤다.(으, 안 물어봐서 해도 된다.)

110033 @1 이사, 여기도 이 한동리에서도 막 이사 다니고 해냈수과?(이사, 여기도 이 한동리에서도 많이 이사 다니고 했었습니까?)

110033 #1 으, 이사 막 다녀났저. 여기는 전부 다 집이 가졌지만은 여기는 밧거리 사는 사람도 있지 안허느냐. 경헌 사람덜 친구간에 이사덜 만이 헛저.(으, 이사 많이 다녀났어. 여기는 전부 다 집 가졌지만 여기는 바깥채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 ‘친구간’에 이사들 많이 했어.)

110034 @1 계민 이사 가젠 허민, 집 구허젠 허민, 이제야 오일장 신문도 있고 부동산 있고 허는디 옛날에는 어떻 이사 갈 집?(그럼 이사 가려고 하면, 집 구하려고 하면, 이제야 오일장 신문도 있고 부동산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사 갈 집?)

110034 #1 옛날에는이 물통에 물 질레 여자덜은 오면은 거기서 다 정보가 다 교환웁다.(옛날에는 물통에 물 길러 여자들은 오면 거기서 다 정보가 다 교환된다.)

110034 @1 하하하.(하하하.)

110034 #1 경허난 물통이나 빨래통 가면은 다 어느 집이 뭐 다 알게 쯤니까 그런 디서.(그러니까 물통이나 빨래통 가면 다 어느 집의 뭐 다 알게 쯤니까 그런 데서.)

110034 @1 아.(아.)

110034 #1 정보를 얻어 가지고 다 험세.(정보를 얻어 가지고 다 하고 있어.)

110034 @1 아. 물통에 가가지고.(아. 물통에 가가지고.)

110034 #1 어.(어.)

110035 @1 이사 가젠 허민 뭐부터 제일 먼저 옮겨야 쯤 것과?(이사 가려고 하면 뭐부터 제일 먼저 옮겨야 쯤 겁니까?)

110035 #1 제일 이사 가젠 허민 첫째가 솥, 솥을 우선 옮긴다.(제일 이사 가려고 하면 첫째가 솥, 솥을 우선 옮긴다.)

110035 @1 예.(예.)

110035 #1 그다음 침구.(그다음 침구.)

110035 @1 아, 솥 옮기고 그다음 침구. 그럼 솥은 들어가는 시간 영 물어봐?(아, 솥 옮기고 그다음 침구. 그럼 솥은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물어봐서?)

110035 #1 으, 건 물어봐 간다.(으, 건 물어봐서 간다.)

110036 @1 물어봐 가는 거예. 집알이, 집들이덜도 험니까 영 이사 가지민?(물어

봐서 가는 거요. 집알이, 집들이들도 합니까, 이렇게 이사 가면?)

110036 #1 요새는 허주, 옛날엔 집들이엔 현 거 엇어났저. 요새는 다 한다.(요새는 하지, 옛날엔 집들이라고 한 게 없었어. 요새는 다 한다.)

110036 @1 예, 예. 요새는예.(예, 예. 요새는요.)

110036 #1 으, 요새는 허주, 옛날엔 거 집들이엔 현 거 엇저.(으, 요새는 하지, 옛날엔 거 집들이라고 한 게 없어.)

110037 @1 예. 그럼 이사 갖덴 헨 선물 뭐 가져가는 것도 요즘 일이다예?(예. 그럼 이사 갔다고 해서 선물 뭐 가져가는 것도 요즘 일이네요?)

110037 #1 거 요즘 일이여 다.(거 요즘 일이야 다.)

110037 @1 요즘엔 집들이 헐 땐 뭐?(요즘엔 집들이 할 땐 뭐?)

110037 #1 성냥을 주로, 요 촌에는. 왜 성냥을 가져가느고 허니, 성냥은 불을 부치민 불이 팍 퍼져.(성냥을 주로, 요 촌에는. 왜 성냥을 가져가느가 하니, 성냥은 불을 붙이면 불이 팍 퍼져.)

110037 @1 으.(으.)

110037 #1 계난 그렇게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라 해서.(그러니까 그렇게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라 해서.)

110038 @1 으. 십이월달에예 소한허고 대한이 잇수다. 이때는 뭐 험니까?(으. 십이월에 소한허고 대한이 잇습니다. 이때는 뭐 험니까?)

110038 #1 소한허고 대한은 그때는 겨울에 막 한걸헐 때주.(소한허고 대한은 그때는 겨울에 아주 한가할 때지.)

110038 @1 으.(으.)

110038 #1 경허난 집이서 앓앙 모여 앓앙 동네에서 모영 노는 시기여.(그러니까 집에서 앓아서 모여 앓아서 동네에서 모여서 노는 시기야.)

110038 @1 뭐 일 없는 거예?(뭐 일 없는 거요?)

110038 #1 으.(으.)

11. 놀이

111001 @1 놀이 헤난 거 물어보쿠다. 어렸을 때 놀이 헤난 거예?(놀이 했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 했던 거요?)

111001 #1 으, 어렸을 때 놀이 헤난 거. 팔월 추석에는이 주로.(으, 어렸을 때 놀이 했던 거. 팔월 추석에는 주로.)

111001 @1 으.(으.)

111001 #1 씨름을 허면서 놀았저. 밤에덜 들 밝은 날, 팔월달에.(씨름을 하면서 놀았어. 밤에들 달 밝은 날, 팔월에.)

111001 @1 으.(으.)

111001 #1 씨름, 주로 씨름을.(씨름, 주로 씨름을.)

111001 @1 으, 팔월에는?(으, 팔월에는?)

111001 #1 팔월 추석 때는 추석 때는 씨름.(팔월 추석 때는 추석 때는 씨름.)

111001 @1 으. 어렸을 때 놀아난 거 뭐 연 날려난 거?(으. 어렸을 때 놀았던 거 뭐 연 날렸던 거?)

111001 #1 어렸을 때에는 그 뭐인가 그 제기차기 그거 뭐 곱을레기, 그것이라 제주도 말로.(어렸을 때에는 그 뭐인가 그 제기차기 그거 뭐 ‘곱을레기’, 그것보고 제주도 말로.)

111001 @1 곱을락.(숨바꼭질.)

111001 #1 으, 곱을락허고이. 또 이 남저덜이 자치기 허곡이.(으, 숨바꼭질하고. 또 이 남자들이 자치기 하고.)

111001 @1 으.(으.)

111001 #1 뽕이치기, 뽕이 영 뱅뱅 도는 것도 있고.(뽕이치기, 뽕이 이렇게 뱅뱅 도는 것도 있고.)

111001 @1 예.(예.)

111001 #1 제기차기도 허고.(제기차기도 하고.)

111001 @1 으.(으.)

111001 #1 그렇게 허면서 놀았어.(그렇게 하면서 놀았어.)

111001 @1 제기차기렌 헤, 곱앗수과, 쪽기차기엔?(제기차기라고 헤, 말했습니까, ‘쪽기차기’라고?)

111001 #1 쪽기차기엔 헛주.(‘쪽기차기’라고 했지.)

연

111002 @1 쪽기차기엔 헛지예. 우선은 하나씩 물어볼게예.(제기차기라고 했지요. 우선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111002 #1 으.(으.)

111002 @1 연부터 물어보쿠다. 연, 연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연, 연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111002 #1 연 종류에는이 그 뭐인가 니기반득헌 갯연이 잇고이.(연 종류에는 그 뭐인가 네모반듯한 달연이 있고.)

111002 @1 으.(으.)

111002 #1 또이 가오리연이 잇저. 소름헌 거, 가오리연.(또 가오리연이 있어. 가름한 거, 가오리연.)

111002 @1 아, 니기반득헌 거는 갯연이엔 곱앗수과?(아, 네모반듯한 거는 달연이라고 말했습니까?)

111002 #1 으, 갯연.(으, 달연.)

111003 @1 계민 연 어떻게 만듭니까? 가오리연서부터 혼 번 만들어 줘서.(그럼

연 어떻게 만듭니까? 가오리연에서부터 한 번 만들어 주세요.)

111003 #1 가오리, 가오리연은 거 만들기 쉬웁주. 가오리연은 아무나 멘들아.(가오리, 가오리연은 거 만들기 쉽지. 가오리연은 아무나 만들아.)

111003 @1 으.(으.)

111003 #1 가오린이 종이를 가오리거치 삼각으로 영 둘라 가지고 대 잇잖으나 이.(가오린 종이를 가오리같이 삼각으로 이렇게 말라 가지고 대 잇잖아.)

111003 @1 예.(예.)

111003 #1 대, 영 밤이 큰 대를 이렇게 뱅허게 구브려근에 영 헨 풀로 부썬 가지고서이.(대, 이렇게 밤에 큰 대를 이렇게 뱅하게 굽혀서 이렇게 해서 풀로 붙여 가지고서.)

111003 @1 으.(으.)

111003 #1 가운데 대가 잇주, 가운데. 가운데 대 놔 가지고서 이제 만들면은 그 실 고평, 고평 안터렐이 그 불로 무시거 불깍살로 영 해근에 불부트민 불깍살 꺼 버리면 그디 불 잇잖느냐이?(가운데 대가 있지, 가운데. 가운데 대 놔 가지고서 이제 만들면 그 실 구멍, 구멍 안으로 그 불로 무엇 성냥개비로 이렇게 해서 불붙으면 성냥개비 꺼 버리면 거기 불 잇잖니?)

111003 @1 예.(예.)

111003 #1 그걸 종이 영 태왕 불부썬 영 그디 끈 매여 가지고서 연술 행 띄우는 거.(그걸 종이 이렇게 태워서 불붙여서 이렇게 거기 끈 매어 가지고서 연줄 해서 띄우는 거.)

111003 @1 아.(아.)

111004 #1 게고 연술 감는 열레엔 현 것도 잇저, 열레 감양 그거 등기명.(그리고 연줄 감는 열레라고 한 것도 있어, 열레 감아서 그거 당기면서.)

111004 @1 게민 열레도 네모진 것도 잇고 둥근 것도 잇고?(그럼 열레도 네모난 것도 잇고 둥근 것도 잇고?)

111004 #1 으, 둥근 것도 잇고.(으, 둥근 것도 잇고.)

111004 @1 아, 기민.(아, 그럼.)

111004 #1 네모진 것도 다 두 개로 이렇게 돌리는 거.(네모난 것도 다 두 개로 이렇게 돌리는 거.)

111004 @1 아, 그거 네모진 거랑 일름은 따로 엇고마썬?(아, 그거 네모난 거랑 일름은 따로 없고요?)

111004 #1 거 연 툄, 그 연 툄레엔, 네모진 건 연 툄레엔 허는다.(거 연 타, 그 연 타래라고, 네모난 건 연 타래라고 하는데.)

111004 @1 으.(으.)

111004 #1 뱅뱅 감는 거니까 연 툄레식으로 감는다고 허고.(뱅뱅 감는 거니까 연 타래식으로 감는다고 하고.)

111004 @1 으.(으.)

111004 #1 기자 거 연, 연 기자 영 두 개만 해근에 혼자 뭐 이렇게 감는 건 뭐 연실 틀레앤도 한다.(그저 거 연, 연 그저 이렇게 두 개만 해서 혼자 뭐 이렇게 감는 건 뭐 연실 타래라고도 한다.)

111004 @1 연실 틀레앤도 허고예. 그 가오리 만들엇고 방패연, 아니 아까 무시거?(연실 타래라고도 하고요. 그 가오리 만들엇고 방패연, 아니 아까 무엇?)

111004 #1 으, 네기반득현 거.(으, 네모반듯한 거.)

111004 @1 쟁 무시거?(쟁 무엇?)

111004 #1 갱연 해 가지고 거기, 크게 만드는 건 창호지 연이앤도 허고 막 큰 거 잇저.(달연 해 가지고 거기, 크게 만드는 건 창호지 연이라고도 하고 아주 큰 거 있어.)

111004 @1 으.(으.)

111005 #1 그것엔 막 이상헌 그림덜 막 해근에 말이야. 방패연이엔 그 싸움허는 연도 잇주.(그것엔 아주 이상한 그림들 마구 해서 말이야. 방패연이라고 그 싸움하는 연도 있지.)

111005 @1 으.(으.)

111005 #1 싸움허는 연도. 방패연은 기자 고정식으로 허는 허고 싸움허는 갱연은 좁게 만들앙이.(싸움하는 연도. 방패연은 그저 고정식으로 하는 하고 싸움하는 달연은 좁게 만들어서.)

111005 @1 으.(으.)

111005 #1 서로가 돌아댕기명 줄 걸려근에가 그 그거 끈어 보게. 그 줄에 옛날엔 호야³²²라는 유리, 유리가 잇엇저. 그건 그 줄에 풀 맥일 거 아니라이?(서로가 돌아다니면서 줄 걸려서 그 그거 끊어 보도록. 그 줄에 옛날엔 등피라는 유리, 유리가 잇엇어. 그건 그 줄에 풀 맥일 거 아니야?)

111005 @1 으.(으.)

111005 #1 풀 맥영 유리 뺏은 걸 그레 쪽 허게 맥여 가지고서 연 띄와 가지고서 연 끈을라고 연싸움허명. 그 유리 때문에 상대방은 연은 이렇게 걸리게 헤영 영 허민 끈어질 거 아니가?(풀 먹여서 유리 뺏은 걸 그리 쪽 하게 먹여 가지고서 연 띄워 가지고서 연 끊으려고 연싸움하면서. 그 유리 때문에 상대방은 연은 이렇게 걸리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끊길 거 아니냐?)

111005 @1 아, 예, 예.(아, 예, 예.)

111005 #1 연싸움, 것ㄴ라 연싸움 허는 거.(연싸움, 것보고 연싸움 하는 거.)

111005 @1 연싸움 허는 거예. 그 갱연도 잇고.(연싸움 하는 거요. 그 달연도 잇고.)

111005 #1 으, 갱연도 잇고 가오리연도 잇고 방패연도 잇고 큰 창호지 연도 잇고.(으, 달연도 잇고 가오리연도 잇고 방패연도 잇고 큰 창호지 연도 잇고.)

322) '호야'는 일본어 'ほや(火屋)'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하여 남포등에 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으로 '등피'를 말한다.

111002 @1 그럼 갱연이랑 방패연은 트난 거?(그럼 달연이랑 방패연은 다른 거?)

111002 #1 아니, 꼭거튼디 모양은 똑ㄱ튼디 크기만 차이가 잇는 거.(아니,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만 차이가 잇는 거.)

111002 @1 큰 거는 방패연이고 작은 건?(큰 거는 방패연이고 작은 건?)

111002 #1 아, 큰 건 창호지, 창호지 연이 제일 큰 거, 창호지로 크게 행 제일 큰 거.(아, 큰 건 창호지, 창호지 연이 제일 큰 거, 창호지로 크게 해서 제일 큰 거.)

111002 @1 그럼 네 종류가 될 거우다. 창호지연, 방패연, 갱연. 이거는 네모나게 만든 거고?(그럼 네 종류가 될 겁니다. 창호지연, 방패연, 달연. 이거는 네모나게 만든 거고?)

111002 #1 으, 건 다 네모나게 멘든 거.(으, 건 다 네모나게 만든 거.)

111002 @1 그다음은 가오리연.(그다음은 가오리연.)

111002 #1 가오리연 건 삼각뿔 나게 멘든 거.(가오리연 건 삼각뿔 나게 만든 거.)

111003 @1 갱연 만드는 거 곶아 붙서. 갱연 어떻 만듭니까?(달연 만드는 거 말해 보세요. 달연 어떻게 만듭니까?)

111003 #1 갱연 만드는 건, 건 저건 대가, 대가 만이 들주. 그 우이 하나 들고이.(달연 만드는 건, 건 저건 대가, 대가 많이 들지. 그 위에 하나 들고.)

111003 @1 예.(예.)

111003 #1 양쪽에 딱시 양쪽에 딱시 이렇게 디근 자로 영 들고 또 가운데 어질 연자로 영 놓고.(양쪽에 또 양쪽에 또 이렇게 디근 자로 이렇게 들고 또 가운데 어질 연 자로 이렇게 놓고.)

111003 @1 으.(으.)

111003 #1 또 중간에 마주친 디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디 맞게 해 가지고서 그리고 연실도 갱연은 네 군데를 매야 된다.(또 중간에 마주친 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거기 맞게 해 가지고서 그리고 연실도 달연은 네 군데를 매야 된다.)

111003 @1 으.(으.)

111003 #1 네 군데. 객주리연이엔 현 건 그걸 두 군데만 메고 갱연은 양쪽, 우이 그 빗대기³²³⁾ 글로 실 헤여근에가 글로 양쪽으로 이렇게 허꼭 가운데 고망 것에 합쳐 가지고 경헨 허는 거 그거.(네 군데, 가오리연이라고 한 건 그걸 두 군데만 메고 달연은 양쪽, 위에 그 ‘빗대기’ 거기로 실 해서 거기로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구멍 것에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111003 @1 아, 그럼 말씀헌 대로 그리면 영 될 거 아니. 가운데 고망?(아, 그럼 말씀한 대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 가운데 구멍?)

111003 #1 어, 어. 가운데 고망이 나야 브름이 뭐인가 나가고.(어, 어. 가운데 구

323) ‘빗대기’는 연을 만드는 대오리의 한 가지를 말한다.

멍이 나야 바람이 뭐인가 나가고.)

111003 @1 들어가고 헐 거예?(들여가고 할 거요?)

111003 #1 경허난 여기 연출 메고 여기 연출 메고 경헛주.(그러니까 여기 연출 매고 여기 연출 매고 그랬지.)

111003 @1 여기 연출 메고예?(여기 연출 매고요?)

111003 #1 또 이 가운데 여기도 뭐인가 영허는 영 내려왔저.(또 이 가운데 여기 도 뭐인가 이러는 이렇게 내려왔어.)

111003 @1 아, 여기까지 여기도 하나 내려와?(아, 여기까지 여기도 하나 내려 와?)

111003 #1 으, 꾸작 이 직선으로이.(으, 똑바로 이 직선으로.)

111003 @1 내려와.(내려와.)

111003 #1 내려와서 요것에 가운데 요디 메고 이디 메곡.(내려와서 요것에 가운데 요기 매고 이디 매고.)

111003 @1 아, 여기 메고 여기 메고 경헨 네 군데. 케민 이 갱연에 명칭, 일름 달이 뭐 따로 잇수과?(아, 여기 매고 여기 매고 그래서 네 군데. 그럼 이 달연에 명 칭 이름들이 뭐 따로 있습니까?)

111003 #1 뭐 따로 엇다.(뭐 따로 없다.)

111003 @1 여기는 뭐렌 부르고 여기는 뭐렌 부르는 거 엇어?(여기는 뭐라고 부 르고 여기는 뭐라고 부는 거 엇어?)

111003 #1 이진 뭐 이진 거 공기 통허는 거.(이진 뭐 이진 거 공기 통하는 거.)

111004 @1 으, 공기 통하는 거고 여기 부치는 대나무는 뭐렌 헐 거?(으, 공기 통하는 거고 여기 붙이는 대나무는 뭐라고 할 거?)

111004 #1 이 대나무 이진 어질연대이고.(이 대나무 이진 컷달이고.)

111004 @1 어질연대?(컷달?)

111004 #1 어질연대. 이진 뿔이여 우이, 우잇 것은 보통 기자 머리, 머릿대허고 이 율이.(컷달. 이진 뭐야 위에, 위에 것은 보통 그저 머리, 머릿대하고 이 옆에.)

111004 @1 머릿대렌 허고 옆이 거는?(머릿대라고 하고 옆에 거는?)

111004 #1 옆이 대, 이진 어질연대.(옆에 대, 이진 컷달.)

111004 @1 어질연대.(컷달.)

111004 #1 가운데 영 헨 거 이진 므루 대.(가운데 이렇게 한 거 이진 마루 대.)

111004 @1 아, 므루 대예.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 그럼 세 개 만드는 건 똑같 은 거라예? 아까 저기?(아, 마루 대요.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 그럼 세 개 만드는 건 똑같은 거지요? 아까 저기?)

111004 #1 으, 갱연은 똑거튼다. 창호지로도 만들고 그냥 속지로도 만들고. 그냥 일반 갱지로도 만들고.(으, 달연은 똑같다. 창호지로도 만들고 그냥 속지로도 만들 고. 그냥 일반 달연으로도 만들고.)

111004 @1 창호지연, 방패연, 갱연을 만드는 방법이 똑같고.(창호지연, 방패연,

달연을 만드는 방법이 똑같고.)

111004 #1 똑거튼다.(똑같다.)

111004 @1 아까 종이는 창호지.(아까 종이는 창호지.)

111004 #1 백지.(백지.)

111004 @1 백지.(백지.)

111004 #1 속지로도 멘들고.(속지로도 만들고.)

111004 @1 아까 말씀 글으멍 뒤 얘기했냐 허면은 그 가오리연을 객주리연이라고?
(아까 말씀 말하면서 뒤 얘기했냐 하면은 그 가오리연을 ‘객주리연’이라고?)

111004 #1 으, 여기서 객주리연이엔 헛저, 객주리연.(으, 여기서 가오리연이라고
했어, 가오리연.)

111004 @1 예. 게민 여기 말로 글아 줘서, 여기 말.(예. 그럼 여기 말로 말해
주세요, 여기 말.)

111004 #1 객주리연 그건. 삼각형으로 허는 건 객주리연. 객주리연은 풀리를
막.(가오리연 그건. 삼각형으로 하는 건 가오리연. 가오리연 꼬리를 아주.)

111004 @1 길게.(길게.)

111004 #1 길게 한다. 게난 갱연은 잘못, 저거 기술자가 아니면은 잘 이거 뜨지
안허여.(길게 한다. 그러니까 달연은 잘못, 저거 기술자가 아니면 잘 이거 뜨지
않아.)

111004 @1 으.(으.)

111004 #1 게니까 줄을 잘 고정을 해야 잘 뜨는 건데, 이 객주리연이란 건 아무
라도 기자 거, 이 풀리 셔부니까 풀리 때문에 거 이리저리 안 가고 거 구작 올라간
다.(그러니까 줄을 잘 고정을 해야 잘 뜨는 건데, 이 가오리연이란 건 아무라도 그
저 거, 이 꼬리 있으니까 꼬리 때문에 거 이리저리 안 가고 거 곧장 올라간다.)

111004 @1 게민 그 객주리연은, 종이는 무슨 종으로 할 거.(그럼 그 가오리연
은, 종이는 무슨 종으로 할 거.)

111004 #1 거 풀리는 아무 거라도 한다, 아무 종이.(거 꼬리는 아무 거라도 한
다, 아무 종이.)

111004 @1 아무 종이라고 허고 대는 요거는 대나무?(아무 종이라고 하고 대는
요거는 대나무?)

111004 #1 으, 대나무. 대나무 해근에 잘 이렇게 잘 뭐인가 칼로 잘 달뎠야 허
여.(으, 대나무. 대나무 해서 잘 이렇게 잘 뭐인가 칼로 잘 다뤄야 해.)

111004 @1 달뎠야. 갱연도 마찬가지로?(다뤄야. 달연도 마찬가지로?)

111004 #1 으, 갱연도 다 대나무로.(으, 달연도 다 대나무로.)

111004 @1 대나무로예. 대나무로 만드는 거. 연대는 대나무로 하고, 열레는?(대
나무로요. 대나무로 만드는 거. 연대는 대나무로 하고, 열레는?)

111004 #1 그 열레는 나무로 한다. 다 나무로.(그 열레는 나무로 한다. 다 나무
로.)

111004 @1 나무로예. 나무로 허고 열레는 아까 종류가 몇 가지?(나무로요. 나무로 하고 열레는 아까 몇 가지?)

111004 #1 두 가지여.(두 가지야.)

111004 @1 두 가지예. 케민 실은 어떻헐 구릅니까?(두 가지요. 그럼 실은 어떻게 해서 구릅니까?)

111004 #1 실은 그때는, 그때는 바농질허는 실도 허고이, 큰 거는 큰 거는 장에 장 상 와야 돼. 창호지연 거튼 건이 사름을 막 끄어 갈 정도로 무겁나게.(실은 그때는, 그때는 바느질하는 실도 하고, 큰 거는 큰 거는 장에 가서 사서 와야 돼. 창호지연 같은 건 사름을 마구 끌어 갈 정도로 무거워.)

111004 @1 으.(으.)

111004 #1 그런 것은 저 뭐인가 삼갑실이라고 해 가지고 삼갑실. 그 이제 실이 헐 번만 꼬아진 건 두 갑이고.(그런 것은 저 뭐인가 삼겹실이라고 해 가지고 삼겹실. 그 이제 실이 한 번만 꼬인 건 두 겹이고.)

111004 @1 예.(예.)

111004 #1 세 가지 꼬아진 건 삼 갑이렌 허주. 그 삼갑실이라야 그, 그.(세 가지 꼬인 건 삼 겹이라고 하지. 그 삼겹실이라야 그, 그)

111004 @1 튼튼허고.(튼튼하고.)

111004 #1 튼튼헌 걸로 그걸로 해야 되는 거.(튼튼한 걸로 그걸로 해야 되는 거.)

111004 @1 예. 여기 줄 매는 거 여기 매는 줄을 뭐렌 험니까?(예. 여기 줄 매는 거 여기 매는 줄을 뭐라고 합니까?)

111004 #1 벌이줄.(벌이줄.)

111004 @1 예, 벌이줄.(예, 벌이줄.)

111004 #1 것^ㄴ라 연 벌이줄이엔 현다. 연 벌이줄.(것보고 연 벌이줄이라고 한다. 연 벌이줄.)

111004 @1 매는 건 연 벌이줄?(매는 건 연 벌이줄?)

111004 #1 으.(으.)

111004 @1 그리고 나서 열레에 매여진 건 그냥.(그리고 나서 열레에 매는 건 그냥.)

111004 #1 그냥 거.(그냥 거.)

111004 @1 연술?(연술?)

111004 #1 으, 연술로.(으, 연술로.)

111004 @1 연술이렌 허고.(연술이라고 하고.)

111004 #1 원래는 연술 감는 거.(원래는 연술 감는 거.)

111004 @1 연술 감는 거. 그럼 벌이줄로 먼저 맨 다음에 연술에 이르는 거예?(연술 감는 거. 그럼 벌이줄로 먼저 맨 다음에 연술에 잇는 거요?)

111004 #1 으.(으.)

111004 @1 연술에 이르는 거.(연술에 잇는 거.)

111004 #1 벌이줄로 거 가운데 영 양쪽에 우이 허고 해 가지고 그 세, 네 개가 같이 묶는다.(벌이줄로 거 가운데 이렇게 양쪽에 위에 하고 해 가지고 그 세, 네 개가 같이 묶는다.)

111005 @1 예. 아까 연술에 뭐 무친덴 헛잖아예, 연싸움 허젠 허면예?(예. 아까 연술에 뭐 묻힌다고 헛잖아요, 연싸움 하려고 하면요?)

111005 #1 으. 거 싸움할, 싸움시킬 적에 그 뭐인가 갱연덜 싸움한다고 헨다이.
(으. 거 싸움할, 싸움시킬 적에 그 뭐인가 달연들 싸움한다고 한다.)

111005 @1 예.(예.)

111005 #1 먼저 끈어진 거 진 거주게.(먼저 끊긴 거 진 거지.)

111005 @1 진 거주.(진 거지.)

111004 #1 게난 유리를 뺏아 가지고이 그 연술에 풀을 맥여 가지고 풀 맥여서 그 풀 들르지 안헐 적 그, 그 유리 뺏은 것을, 그때 호야라고 잇엇저, 호야.(게난 유리를 마아 가지고 그 연술에 풀을 먹여 가지고 풀 먹여서 그 풀 마르지 않을 적 그, 그 유리 만 것을, 그때 등피라고 잇엇어, 등피.)

111004 @1 으.(으.)

111004 #1 그 불 썬는 남포등에.(그 불 썬는 남포등에.)

111004 @1 예, 예.(예, 예.)

111004 #1 알른 거 그것 뺏아근에 해낫주.(얹은 거 그것 마아서 했엇어.)

111004 @1 예.(예.)

111004 #1 그거 해근에가 풀, 실에 풀 맥영 들르지 안 헐 때 이디 낡 주르르허 게 실 가정 가민 딱 부트주게.(그거 해서 풀, 실에 풀 먹여서 마르지 않을 때 여 기 놔서 주르르하게 실 가져서 가면 모두 붙지.)

111004 @1 아.(아.)

111004 #1 그래서 거 것³²⁴라 스³²⁴히 맥엇젠 헨다. 스이 맥여.(그래서 거 거보고 개미 먹엇다고 한다. 개미 먹여.)

111004 @1 스?(스?)

111004 #1 스³²⁴히, 스³²⁴히.(‘스³²⁴히’, ‘스³²⁴히’.)

111004 @1 스³²⁴히.(‘스³²⁴히’.)

111004 #1 실에 스³²⁴히 맥영 연싸움 헨다고.(실에 ‘스³²⁴히’ 먹여서 연싸움 헨다고.)

111004 @1 그걸 스³²⁴히렌 허는 거예?(그걸 ‘스³²⁴히’라고 하는 거요?)

111004 #1 스³²⁴히. 우리말로 스³²⁴히 맥엇저, 스³²⁴히 맥엇저.(‘스³²⁴히’. 우리말로 ‘스³²⁴히’ 먹엇어, ‘스³²⁴히’ 먹엇어.)

111004 @1 스³²⁴히 맥엇저, 스³²⁴히 맥엇저 허는 거예?(‘스³²⁴히’ 먹엇어, ‘스³²⁴히’ 먹엇어 하는 거요?)

324) ‘스³²⁴히’는 개미를 말한다. 연술을 질기고 세게 만들기 위해서 연술에 먹이는 ‘개미’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글리’다. 제보자는 이를 ‘스³²⁴히’, ‘스³²⁴이’라고 했다.

111004 #1 계란 거 재료는 유리를 뺏아 가지고서.(그러니까 거 재료는 유리를
마아 가지고서.)

111004 @1 유린디 아까 호야에 유리?(유린데 아까 등피에 유리?)

111004 #1 으, 호야에 유리.(으, 등피에 유리.)

111004 @1 호야 갓 얇은 유리니까 거, 풀은 뭐로?(등피 갓 얇은 유리니까 거,
풀은 뭐로?)

111004 #1 풀은 뭐, 옛날엔 여기 밀풀들 만이 사용했주게.(풀은 뭐, 옛날엔 여길
밀풀들 많이 사용했지.)

111004 @1 으.(으.)

111004 #1 밀풀 해 가지고서.(밀풀 해 가지고서.)

111004 @1 밀풀은 파는 거?(밀풀은 파는 거?)

111004 #1 아니 집에서 쭈어 가지고.(아니 집에서 쭈어 가지고.)

111004 @1 아, 썬서. 밀풀이렌 허는 거?(아, 썬서. 밀풀이라고 하는 거?)

111004 #1 으.(으.)

111004 @1 밀풀이렌 허는 거.(밀풀이라고 하는 거.)

111004 #1 밀풀이 제일 강허주게.(밀풀이 제일 강하지.)

111004 @1 이거 재료는 뭐마씨?(이거 재료는 뭐요?)

111004 #1 그 옛날은 밀덜 만이 심어났저. 밀가루로 쭈면 되는 거.(그 옛날은
밀들 많이 심었었어. 밀가루로 쭈면 되는 거.)

111004 @1 아, 아. 밀가루로. 집이 심어난 밀로예.(아, 아. 밀가루로. 집에 심었
던 밀로요.)

111004 #1 으.(으.)

111005 @1 연싸움은 어떤 방법으로 험니까?(연싸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11005 #1 연싸움은 서로가 상대방이 연을 띄와 가지고이, 그때는 막 동네마다
여러이덜 연을 띄우주게. 연 띄울라고 허주게. 경허민 그 조금 저 장난 심헌 아니덜
이 연에 스히 맥여 가지고 남의 연을 막 끈어 불주게.(연싸움은 서로가 상대방이 연
을 띄워 가지고, 그때는 마구 동네마다 여러이들 연을 띄우지. 연 띄우려고 하지.
그러면 그 조금 저 장난 심한 아이들이 연에 ‘스히’ 먹여 가지고 남의 연을 마구 끊
어 버리지.)

111005 @1 음.(음.)

111005 #1 그렇게 허는 거. 거 재미로 그렇게 허는 거.(그렇게 하는 거. 거 재미
로 그렇게 하는 거.)

111006 @1 연날리명 뭐 재미난 일 기억나는 일 엇수과?(연 날리면서 뭐 재밌었
던 일 기억나는 일 없습니까?)

111006 #1 연 날리명 즐겁게 논다. 그렇게 계난 연이 영 허당 잘못돼영 연이 떨
어지민이 또 연 놀리는 사람이 잇주. 같은 친구끼리 쪼금 미련헌 사름이 연 놀리라
허면 떨어진 걸 손으로 심영 바람에 연을 올려줘야 영 하늘로 올라가주.(연 날리면

서 즐겁게 논다. 그렇게 그러니까 연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돼서 연이 떨어지면 또 연 날리는 사람이 있지. 같은 친구끼리 조금 미련한 사람이 연 날리라 하면 떨어진 걸 손으로 잡아서 바람에 연을 올려 줘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111006 @1 아, 나는 연줄 심영 ㄱ만이 있고 너 보고 가라 해서 연 띄우게 할 거구나.(아, 나는 연줄 잡아서 가만히 있고 너 보고 가라 해서 연 띄우게 할 거구나.)

111006 #1 으.(으.)

111006 @1 옛날에 밧 불리젠 그 밧디 담아 낵 연날리기 허게 그렇게는.(옛날에 밧 밧으려고 그 밧에 담아 낵서 연날리기 하게 그렇게는.)

111006 #1 아니 밧 불리젠 연 안 날린다. 그뎨 안 날리고 하여튼 가을 들어야 연 날리길 시작한다.(아니 밧 밧으려고 연 안 날린다. 그뎨 안 날리고 하여튼 가을 되어야 연 날리길 시작한다.)

제기차기

111007 @1 아. 그뎨 아니고예. 쪽기차기 물어보쿠다예.(아. 그뎨 아니고요. 제기차기 물어보겠습니다.)

111007 #1 으. 쪽기차긴 학교 뎡길 때 뭐 하여튼 쉴 때는 그거 주로 만이 했저. 쉴 때는 교실에서 그것베끼 할 게 없으니까, 비 안 올 뎡 운동장에 나왕 뭐 지금 축구 잇잖으냐이?(으. 제기차긴 학교 다닐 때 뭐 하여튼 쉴 때는 그거 주로 많이 했어. 쉴 때는 교실에서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비 안 올 뎡 운동장에 나와서 뭐 지금 축구 잇잖니?)

111007 @1 예, 예.(예, 예.)

111007 #1 그거 허듯 주로 쪽기 만이 했저.(그거 하듯 주로 제기 많이 했어.)

111007 @1 예, 예. 저기 쪽기는 어떻 만듭니까?(예, 예. 저기 제기는 어떻게 만듭니까?)

111007 #1 쪽기는 그 뭐인가 그 종이가 아주 그 지금 거트면 나이론거치 질긴 종이덜이 잇나이.(제기는 그 뭐인가 그 종이가 아주 그 지금 같으면 나일론같이 질긴 종이들이 있어.)

111007 @1 으.(으.)

111007 #1 그건 것을 갖다가이,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 가지고서이 가위로 막 그걸 막 쫄른다. 그걸 줄게 줄게 쫄르면 탁 퍼질 거 아니가이?(그건 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 가지고서 가위로 마구 그걸 마구 자른다. 그걸 잘게 잘게 자르면 탁 퍼질 거 아니냐?)

111007 @1 예.(예.)

111007 #1 경헨 가운데는 그걸 가운데만 넘겨 뎡 그걸 거시기 다 뎡 허게 돌아가명 동글랑허게 헤 가지고 가운데만 넘겨서 영 접아 가지고서 다 가위로 쫄르민 줄기 나올 거 아니라.(그래서 가운데는 그걸 가운데만 남겨 뎡서 그걸 거시기 다 뎡

하게 돌아가면서 동그렇게 해 가지고 가운데만 넘겨서 이렇게 접어 가지고서 다 가위로 자르면 줄기 나올 거 아니야.)

111007 @1 으.(으.)

111007 #1 이 가운데 동글랑헌 디는 그디를 그 뭐인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 뭐인가 췌돈이 있지만 옛날에는 구리 담아서 구리. 구리 담아서.(이 가운데 동그란 데는 거기를 그 뭐인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 뭐인가 쇠돈이 있지만 옛날에는 구리 담아서 구리. 구리 담아서.)

111007 @1 으, 음.(으, 음.)

111007 #1 구리 담아서 일제시대는 구리 담아서, 구리 그디 가운데 영 놔 가지고서 이레 무꾼다, 이레.(구리 담아서 일제시대는 구리 담아서, 구리 거기 가운데 이렇게 놔 가지고서 이리 묶는다, 이리.)

111007 @1 음.(음.)

111007 #1 무끄면은, 무끄면은 끈어 분 건 탁 퍼질 거 아니냐, 머리거치.(묶으면, 묶으면 끊어 버린 건 탁 퍼질 거 아니냐, 머리같이.)

111007 @1 으.(으.)

111007 #1 경허면은 그것이 조절이 잘 돼게끔 그것을 허는 거.(그러면 그것이 조절이 잘 돼게끔 그것을 하는 거.)

111007 @1 구리는 동전같이 생긴 거?(구리는 동전같이 생긴 거?)

111007 #1 어. 동전거치 생겼저, 옛날에.(어. 동전같이 생겼어, 옛날에.)

111008 @1 계민 쪽기차기 허젠 허민 그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그럼 제기차기 하려고 하면 그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

111008 #1 으, 양발 차기도 있고이, 양발 차기도 허고 혼발 차기도 허고.(으, 양발 차기도 있고, 양발 차기도 하고 한발 차기도 하고.)

111008 @1 혼발 차기, 양발 차기 있고. 올리기, 물기 그런 것도 잇수과? 그건 뭐과?(한발 차기, 양발 차기 있고. 올리기, 물기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건 뭐니까?)

111008 #1 건 쪽기를 쪽기를 ㄱ만이 이렇게 놔 가지고 저레 차고 받아 가지고 이레 차고. 경 받지 못허민 지고 그렇게.(건 제기를 제기를 가만히 이렇게 놔 가지고 저리 차고 받아 가지고 이리 차고. 그렇게 받지 못하면 지고 그렇게.)

111008 @1 아.(아.)

111008 #1 거 시합덜 허는 거주, 쪽기 서로가 받아 차기.(거 시합들 하는 거지, 제기 서로가 받아 차기.)

111008 @1 아, 받아 차기?(아, 받아 차기?)

111008 #1 으.(으.)

111008 @1 그니까 다른 사람은 저쪽 강 성 있고. 내가 글로 차면?(그니까 다른 사람은 저쪽 가서 서 있고. 내가 글로 차면?)

111008 #1 으, 글로 치면은 그거 받지 못허영 땅에 떨어지면 거 지는 거.(으, 글로 치면 그거 받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면 거 지는 거.)

111009 @1 지는 거예. 경허민 그것도 하나의 승부하는 거?(지는 거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승부하는 거?)

111009 #1 으, 승부하는 거.(으, 승부하는 거.)

111009 @1 승부하는 방법이냐예?(승부하는 방법이네요?)

111009 #1 으. 또 쪽길 기자 차는 건 오래 차는 거, 많이 차는 거가 승부가 되는 것이고.(으. 또 제길 그저 차는 건 오래 차는 거, 많이 차는 거가 승부가 되는 것이고.)

111009 @1 아, 개수로?(아, 개수로?)

111009 #1 개수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차는 건 거 땅에 먼저 떨어진 사람이, 게니까 많이 찬 사람이 것도 이기는 거주.(개수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차는 건 거 땅에 먼저 떨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찬 사람이 것도 이기는 거지.)

111009 @1 아, 많이 찬 사람이.(아, 많이 찬 사람이.)

111009 #1 으.(으.)

111010 @1 받아 차기가 있는 거예?(받아 차기가 있는 거요?)

111010 #1 으.(으.)

111010 @1 쪽기차기 허멍 뭐 재미난 일 엇엇수과?(제기차기 하면서 뭐 재미난 일 없었습니까?)

111010 #1 재미나는 건 많이, 건 편 갈랑 한다, 그거이.(재미나는 건 많이, 건 많이, 건 편 갈라서 한다, 그거.)

111010 @1 예.(예.)

111010 #1 가령 다섯 사람, 저레 다섯 사람이면 여기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이 거 차 가지고 그 중에는 잘 차는 사람도 있고 못 차는 사람도 있거든.(가령 다섯 사람, 저리 다섯 사람이면 여기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이 거 차 가지고 그 중에는 잘 차는 사람도 있고 못 차는 사람도 있거든.)

111010 @1 예.(예.)

111010 #1 계난 총계로 다섯 사람이 거 그걸 합쳐 가지고서 많이 찬 디가 이기는 거주게. 계민 역전도 되고.(그러니까 총계로 다섯 사람이 거 그걸 합쳐 가지고서 많이 찬 데가 이기는 거지. 그럼 역전도 되고.)

111010 @1 아, 역전도 되고. 계민 펜 갈를 때는 어떻게?(아, 역전도 되고. 그럼 편 가를 때는 어떻게 해?)

111010 #1 잔겐뽀³²⁵⁾ 해 가지고.(가위바위보 해 가지고.)

111010 @1 하하하.(하하하.)

111010 #1 잔겐뽀 행 진 사람은 진 사람끼리,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끼리.(가위 바위보 해서 진 사람은 진 사람끼리,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끼리.)

자치기

325) '잔겐뽀'는 일본어 'じゃんけんぽう'로, '가위바위보'를 말한다.

111011 @1 아, 계민 잘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기도 허겠다예. 자치기 물어보쿠다. 자치기도 종류가 잇수과?(아, 그럼 잘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기도 하겠네요. 자치기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기도 종류가 있습니까?)

111011 #1 아니 자치기는 종류가 혼 가지 뿐이여.(아니 자치기는 종류가 한 가지 뿐이야.)

111012 @1 혼 가지뿐예. 기민 자치기 헐 때 자랑 치는 어떻 준비해알 거마써?(한 가지뿐요. 그럼 자치기 할 때 자랑 치는 어떻게 준비해알 거요?)

111012 #1 계난 거 막뎡이가 혼 육십 내지 칠십 센치 썸 뎡 거 막뎡이가 잇주. 그 가느다란 막뎡이.(그러니까 거 막대기가 한 육십 내지 칠십 센치 썸 된 거 막대기가 있지. 그 가느다란 막대기.)

111012 @1 예.(예.)

111012 #1 겐디 그디 또 작은 막뎡이가, 작은 막뎡이가 셔이.(그런데 거기 또 작은 막대기가, 작은 막대기가 있어.)

111012 @1 예.(예.)

111012 #1 이견 손에 잡는 거고.(이견 손에 잡는 거고.)

111012 @1 예.(예.)

111012 #1 그 작은 막뎡이는 그 치면은 그 족은 거시긴데, 그것은 요만이 해 가지고서 혼 쪽이 영 삼각형으로 이딜 따 분다.(그 작은 막대기는 그 치면 그 작은 거시긴데, 그것은 요만큼 해 가지고서 한 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길 따 버린다.)

111012 @1 예.(예.)

111012 #1 거 웨 따는고 허니 웨 따는고 허니, 웨 따는고 허니 땅에 영 수평 뎡면은 그게 딱 때려도 안 튀거든이.(거 왜 따는가 하니 왜 따는가 하니, 왜 따는가 하니 땅에 이렇게 수평 되면 그게 딱 때려도 안 튀거든.)

111012 @1 으.(으.)

111013 #1 혼쪽에 까끄니까 공간이 생길 거 아냐? 계난 이 손에서 그걸 딱 때려근예가 그것이 탁 우터레 올라오면은 그걸 딱 쳐 멀리 가는 게 이기는 거.(한쪽에 짊으니까 공간이 생길 거 아냐? 그러니까 이 손에서 그걸 딱 때려서 그것이 탁 위로 올라오면 그걸 딱 쳐서 멀리 가는 게 이기는 거.)

111013 @1 으. 계난 뜯어 부는 건 딱 쳐 올라오기 쉽게 딱 쳐 부는 거예?(으. 그러니까 뜯어 버리는 건 딱 쳐서 올라오기 쉽게 딱 쳐 버리는 거요?)

111013 #1 으, 으.(으, 으.)

111013 @1 멀리 가는 게 이기는 거예?(멀리 가는 게 이기는 거요?)

111013 #1 으, 멀리 가는 게.(으, 멀리 가는 게.)

111013 @1 기민 이것도 두 사람만 허는 게 아니라 펜도 나뉘 험니까?(그럼 이것도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편도 나뉘서 합니까?)

111013 #1 으, 펜도 나뉘 헐 수 잇고. 주로 두 사람이 만이 한다.(으, 편도 나뉘서 할 수 잇고. 주로 두 사람이 많이 한다.)

111013 @1 아, 두 사람이 만이 허는 거. 게민 펜 나뉘 허게 돼민 어떤 형태로?
(아, 두 사람이 많이 하는 거. 그럼 편 나뉘서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111013 #1 펜 나뉘 허게 돼민 아까 혼 사름씩 멀리 만이, 사름이 이기는 거.(편 나뉘서 하게 되면 아까 한 사람씩 멀리 많이, 사람이 이기는 거.)

111013 @1 게민 뭐 내가 이만큼 가시민 이영 가지고 계속?(그럼 뭐 내가 이만큼 갔으면 이어 가지고 계속?)

111013 #1 으, 으.(으, 으.)

111014 @1 음. 재미난 일 잊어났수과?(음. 재밌던 일 있었습니까?)

111014 #1 이기민 지켜정 웃고 지민 또 서로가 화낭 허고 그겨주. 그걸로 세월 보냈주. 그걸로 세월 보냈주. 웃음 얻기 위해서 허는 거니까.(이기면 기뻐서 웃고 지면 또 서로가 화나서 하고 거지. 그걸로 세월 보냈지. 그걸로 세월 보냈지. 웃음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말타기

111015 @1 예, 예. 말타기예. 말타기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잇수과?(예, 예. 말타기요. 말타기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11015 #1 말타기 종류는이 그 대를 끈어다가 대를 끈어다가 여기 영 놔 가지고서 돌리는 건 막 초등학생덜.(말타기 종류는 그 대를 끊어다가 대를 끊어다가 여기 이렇게 놔 가지고서 달리는 건 아주 초등학생들.)

111015 @1 어. 말타기, 말타기. 업드령 올라타는 거 아니?(어. 말타기, 말타기. 옆드려서 올라타는 거 아니?)

111015 #1 돌 등에 업드령 올라타는, 그 질메 엮는 건 업드령 올라타는 거고 이.(말 등에 옆드려서 올라타는, 그 길마 엮는 건 옆드려서 올라타는 거고.)

111015 @1 으, 으.(으, 으.)

111015 #1 그 질메 족은 건 그디 저 발판이 잇저. 말 디디는 그거 행 올라가고.(그 길마 작은 건 거기 저 발판이 있어. 말 디디는 그거 해서 올라가고.)

111015 @1 진짜 말 타는 거 말고 아이덜끼리 장난할 때 말타기.(진짜 말 타는 거 말고 아이들끼리 장난할 때 말타기.)

111015 #1 아, 그거 말타기할 땐 이디 굽어 가지고이.(아, 그거 말타기할 땐 여기 굽어 가지고.)

111015 @1 굽어 가지고.(굽어 가지고.)

111015 #1 으, 이렇게 굽어 가지고서 이디 올라와근에가이.(으, 이렇게 굽어 가지고서 여기 올라와서.)

111015 @1 으.(으.)

111015 #1 그 뭐인가 상대방허고 쟁점뵈혜근에가 이거 베퉁 이거 거세기 허면 은 지고 그러는 거주.(그 뭐인가 상대방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거 힘에 부쳐서 이거 거시기 하면 지고 그러는 거지.)

111016 @1 으, 무너지면 지고 허는. 그민 이런 몰타기에도 종류가 있어났수과?
(으, 무너지면 지고 하는. 그럼 이런 말타기에도 종류가 있었습니까?)

111016 #1 아니 건 그거 흔 가지베끼 었다.(아니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111016 @1 흔 가지. 뭐 죽은 몰타기, 생몰타기, 대말타기?(한 가지. 뭐 작은 말타기, 생말타기, 대말타기?)

111016 #1 아니 그건 었고.(아니 그건 없고.)

111016 @1 었어. 게민 이것도 두 사람만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도.(없어. 그럼 이것도 두 사람만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도.)

111016 #1 여러 사람도 할 수 있고.(여러 사람도 할 수 있고.)

구슬치기

111020 @1 할 수 있는 거예. 다마치기?(할 수 있는 거요. 구슬치기?)

111020 #1 다마치기 그거 만이 거세기 헛져. 그때는 다마³²⁶가 없어 가지고이저 바다에 가면 진흙이 있져.(구슬치기 그거 많이 거시기 헛져. 그때는 구슬가 없어가지고 저 바다에 가면 진흙이 있어.)

111020 @1 으.(으.)

111020 #1 저 뭐인가 파랑헌 진흙 해근에가 그거 불에 구워.(저 뭐인가 파란 진흙 해서 그거 불에 구워.)

111020 @1 으.(으.)

111020 #1 불에 구민 딱딱해 가지고서 거 구슬거치 돼주게. 그게 다마, 다마는 그 일본 말로 동그란 걸 다마엔 허는 거주. 그거 헨 저디 이디 영 쪼그만허게 홈파 가지고서이.(불에 구면 딱딱해 가지고서 거 구슬같이 되지. 그게 구슬, '다마'는 그 일본 말로 동그란 걸 '다마'라고 하는 거지. 그거 해서 저기 여기 이렇게 조그마하게 홈파 가지고서.)

111020 @1 으.(으.)

111020 #1 이 저 그디, 그디서 세 발쭈 해 가지고서 그디서 뒹글여 가지고서이.(이 저 거기, 거기서 세 발쭈 해 가지고서 거기서 뒹글여 가지고서.)

111020 @1 으.(으.)

111020 #1 뒹글여 가지고 그디 뒹글여, 처음에 영, 영 밀 거 아니가이?(뒹글여 가지고 거기 뒹글여,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밀 거 아니냐?)

111020 @1 예.(예.)

111022 #1 밀영 단번에 들라 허민 잘 안 들거든.(밀어서 단번에 들어가라 하면 잘 안 들어가거든.)

111022 @1 예.(예.)

111022 #1 게근에 이젠 그디, 가령 펜 갈랑 허면은 나가 먼저 이디, 이것이 구녕이면은 이디서 나가 먼저 이꺼지 밀 거 아니가이?(그래서 이젠 거기, 가령 펜 갈

326) '다마'는 일본어 'たま(玉)'에서 온 말로, 구슬을 말한다.

라서 하면은 내가 먼저 여기, 이것이 구멍이면 여기서 내가 먼저 이까지 밀 거 아니야?)

111022 @1 예.(예.)

111022 #1 나가 밀영 구녕에 안 들어가도 구녕 가까이 와세. 다음 사람이 또 이제 밀 거 아니냐.(나가 밀어서 구멍에 안 들어가도 구멍 가까이 왔어. 다음 사람도 이제 밀 거 아니냐?)

111022 @1 으.(으.)

111022 #1 밀면 이 사람이 이만이 오면은 나가 이제 따시 나가 먼저 이 구녕에 들여 낱 그다음에 이거 맞추는 거.(밀면 이 사람이 이만큼 오면 내가 이제 다시 내가 먼저 이 구멍에 들여 놔서 그다음에 이거 맞추는 거.)

111022 @1 으.(으.)

111022 #1 구녕에 안 들어가면 맞추지 못 허는 거. 맞추면 이거 죽는 거.(구멍이 안 들어가면 맞추지 못 하는 거. 맞추면 이거 죽는 거.)

111022 @1 으.(으.)

111022 #1 구녕에 일단 통과해야 들어갓당 나와야 맞추는 거.(구멍에 일단 통과해야 들어갓다가 나와야 맞추는 거.)

111022 @1 구녕에 들어갓당 나와야?(구멍에 들어갓다가 나와야?)

111022 #1 으.(으.)

111024 @1 아, 맞추는 거예. 그럼 이 다마치기에도 뭐 종류가 있어마씨? 구녕치기³²⁷, 뭐 원치기³²⁸, 벽치기³²⁹.(아, 맞추는 거요. 그럼 이 제기차기에도 뭐 종류가 있어요? 구멍치기, 뭐 원치기, 벽치기.)

111024 #1 그건, 그자 다마치기 그자 그런 거.(그건, 그저 구슬치기 그저 그런 거.)

111024 @1 아.(아.)

111022 #1 게고 그 구멍치기에 현 거 또 이제이 거세기도 있져. 돌로 해 가지고서 구멍 해 가지고이 가령 돌을 다섯 개 허민 다섯 개 해 가지고서이.(그리고 그 구멍치기에 한 거 또 이제 거시기도 했어. 돌로 해 가지고서 구멍 해 가지고 가령 돌을 다섯 개 하면 다섯 개 해 가지고서.)

111022 @1 예.(예.)

111022 #1 구멍에 들어밀어근에가 다섯 개 해 가지고서 다섯 개 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다섯 개에 혼두 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펜 갈라근에가 만이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거. 구녕에 만이 들어간 사람이. 건 돈으로 한다.(구멍에 들어밀어서 다섯 개 해 가지고서 다섯 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다섯 개에 한두 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펜 갈라서 많이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거. 구멍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 건 돈으로 한다.)

327) '구녕치기'는 구슬치기 놀이의 한 방법이다.

328) '원치기'는 구슬치기 놀이의 한 방법이다.

329) '벽치기'는 구슬치기 놀이의 한 방법이다.

111022 @1 아, 다마치기로 하지 않고.(아, 구슬치기로 하지 않고.)

111022 #1 건, 다마치긴 다마로 그걸로 하고. 돈치기 하는 건 이렇게 서근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건, 구슬치긴 구슬로 그걸로 하고. 돈치기 하는 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111022 @1 그건 구녕치기렌 허는 거마씨?(그건 구멍치기라고 하는 거요?)

111022 #1 으, 구녕치기렌 현다.(으, 구멍치기라고 한다.)

111023 @1 예. 원치기, 벽치기는?(예, 원치기, 벽치기는?)

111023 #1 그거 안 해놨어.(그거 안 했었어.)

딱지치기

111028 @1 안 해난예. 뺏지치기는마씨?(안 했었어요. 딱지치기는요?)

111030 #1 뺏지치기 것도, 건 해놨어. 그 뭐인가 책 두께 거튼 거이.(딱지치기 것도, 건 했었어. 그 뭐인가 책 두께 같은 거.)

111030 @1 으.(으.)

111030 #1 책 두께 거튼 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삼각형으로 행, 나는 잊어붙었는디 영 해근에이 네기반듯하게 만들아근에 그걸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땅에 있는 걸 뒤흐야 된다. 뒤흐고 경 안허민 상대방 이것이, 이거 뺏지민 나가 탁 쳐근에 이 알로 들어가민 이거 죽는 거고.(책 두께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삼각형으로 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땅에 있는 걸 뒤집어야 된다. 뒤집고 그렇게 안하면 상대방이 이것이, 이거 딱지면 내가 탁 쳐서 이 아래로 들어가면 이거 죽는 거고.)

111030 @1 아.(아.)

111030 #1 또 이거 자빠져, 자빠져도 죽는 거고.(또 이거 자빠져, 자빠져도 죽는 거고.)

111030 @1 아, 그럼 밑으로 들어가도 죽는 거고?(아, 그럼 밑으로 들어가도 죽는 거고?)

111030 #1 이기는 거고 자빠져도.(이기는 거고 자빠져도.)

111030 @1 이기는 거예?(이기는 거요?)

111030 #1 그렇게 재밋게 막 쳐놨어.(그렇게 재밋게 마구 쳤었어.)

111028 @1 딱지는 아까 무슨 종이로?(딱지는 아까 무슨 종이로?)

111028 #1 대부분 책 두께이로 만이 했주.(대부분 책 두께으로 많이 했지.)

111028 @1 단단한 거.(단단한 거.)

111028 #1 학습장 두께나.(학습장 두께이나.)

111028 @1 으, 학습장.(으, 학습장.)

111028 #1 그런 거 해 가지고서. 게 가지고 영 자빠지면은 건 이녁이 다 츠지해근에 건 만이 따는 사름이 임제주. 게난 하영 딸 수 잇주. 뒤흐진 건 다 자기 거니까.(그런 거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자빠지면 건 자기가 다 차지해서 건

많이 따는 사람이 임자지. 그러니까 많이 딸 수 있지. 뒤집어진 건 다 자기 거니까.)

111028 @1 으. 계민 종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뭐렌 굴으는 거 뒤집어지면 뭐렌 굴으는 거 그런 이름은?(으. 그럼 종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는 거, 뒤집어지면 뭐라고 말하는 거 그런 이름은?)

111028 #1 그런, 그런 건.(그런, 그런 건.)

111028 @1 그런 건 엇고예?(그런 건 없고요?)

111028 #1 그런 건 엇고.(그런 건 없고.)

숨바꼭질

111032 @1 곱을락, 곱을락은 어떻 험니까?(숨바꼭질, 숨바꼭질은 어떻게 합니까?)

111032 #1 그 곱을락, 곱을락은 그 자기가 눈, 곱을락할 때는 상대방이라 그 곱는 사람은 눈 안 곱고 그 좇으는 사람이 눈을 곱으렌 한다.(그 숨바꼭질, 숨바꼭질은 그 자기가 눈, 숨바꼭질할 때는 상대방보고 그 숨는 사람은 눈 안 곱고 그 좇는 사람이 눈을 곱으라고 한다.)

111032 @1 으.(으.)

111032 #1 눈 곱을락 허렌 헤근에가 우리가 곱을 거 아니가이?(눈 감기 하라고 해서 우리가 숨을 거 아니냐?)

111032 @1 예.(예.)

111032 #1 경 곱은 다음에는 눈 터근에가 좇는 거 그게 곱을락이여. 숨어 잇는 거 좇는 거.(그렇게 숨은 다음에는 눈 떠서 좇는 거 그게 숨바꼭질이야. 숨어 잇는 거 좇는 거.)

111032 @1 계민 저기 그걸 술래엔 할 거, 좇는 사람을?(그럼 저기 그걸 술래라고 할 거, 좇는 사람을?)

111032 #1 으, 술래엔 허는 거, 좇는 사람은 술래주.(으, 술래라고 하는 거, 좇는 사람은 술래지.)

111033 @1 계민 술래는 거 어떻게 정해집니까?(그럼 술래는 거 어떻게 정해집니까?)

111033 #1 계난 거 장깸보해야 돼, 거 이긴 사람이 술래 허는 거.(그럼 거 가위 바위보해야 돼, 거 이긴 사람이 술래 하는 거.)

111033 @1 진 사람 아니고 이긴 사람이?(진 사람 아니고 이긴 사람이?)

111033 #1 으, 이긴 사람 술래 되는 거. 거 진 사람은 강 곱아야 돼니까.(으, 이긴 사람 술래 되는 거. 거 진 사람은 가서 숨어야 되니까.)

111033 @1 이긴 사람이.(이긴 사람이.)

111033 #1 그 좇는 사람이 우선권이 잇주게.(그 좇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지.)

111034 @1 기짜? 그럼 보통 어떤 디 숨어났수과?(그렇습니까? 그럼 보통 어떤

데 숨었습니까?)

111034 #1 이 촌에는 뭐 불치막³³⁰⁾ 거튼 디, 출눌 트멍 거튼 디, 뭐 조칩눌 트멍 거튼 디 그런 집안에는 그런, 집안에는 놀이 잇는 때 그건 더운 땀 못허는 거니까.(이 촌에는 뭐 ‘불치막’ 같은 데, 풀 가리 툼 같은 데, 뭐 조짚 가리 툼 같은 데 그런 집안에는 그런, 집안에는 가리가 있을 때 그건 더운 땀 못하는 거니까.)

111034 @1 예.(예.)

111034 #1 대략 가을 거튼 때, 봄 거튼 때.(대략 가을 같은 때, 봄 같은 때.)

111035 @1 예. 곱을락 허멍 재미난 일 엇어났수과?(예. 숨바꼭질 하면서 재미던 일 없었습니까?)

111035 #1 경혜근에 못 좇으민 막 거시기 허고 말이야, 자기가 숨어근에 앞이 와도 말이야 못 좇으민 넌중에 웃고 뭐 허고 그렇게 허멍 상대방 놀리고.(그래서 못 좇으면 아주 거시기 하고 말이야, 자기가 숨어서 앞에 와도 말이야 못 좇으면 나중에 웃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 놀리고.)

111035 @1 좇는 거는 그 사람신디 강 나 너 봤저 허민 뉘는 거?(찾는 거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나 너 봤어 하면 되는 거?)

111035 #1 아니, 그디 가근에 그걸 지적행 끌고 나와야 뉘는 거.(아니, 거기 가서 그걸 지적해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

111035 @1 아.(아.)

111035 #1 경혜야.(그래야.)

111035 @1 아, 터치헤영?(아, 터치해서?)

111035 #1 으, 터치헤야.(으, 터치헤야.)

111035 @1 잡으민?(잡으면?)

111035 #1 진 거지, 그건.(진 거지, 그건.)

111035 @1 그럼 진 사람이 다시 술래 허는 거 아니?(그럼 진 사람이 다시 술래 하는 거 아니?)

111035 #1 경허주 바꾸멍.(그러지, 바꾸면서.)

실뜨기

111040 @1 바꾸멍. 실뜨기, 실펠락도 헤낫수과?(바꾸면서. 실뜨기, 실뜨기도 했었습니까?)

111040 #1 실펠락. 건 여자덜이 헤낫저.(실뜨기. 건 여자들이 했었어.)

111040 @1 여자덜이.(여자들이.)

111040 #1 여자덜이 게난 이추룩 헤 가지고 뭐, 이추룩 뭐 만드는 거.(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처럼 헤 가지고 뭐, 이처럼 뭐 만드는 거.)

111040 @1 예.(예.)

111040 #1 뭐 삼각형도 만들고 이상헌 집 닳은 것도 만들고.(뭐 삼각형도 만들

330) ‘불치막’은 재거름을 보관하는 공간이다.

고 이상한 집 같은 것도 만들고.)

111040 @1 예.(예.)

111040 #1 건 주로 여자덜이 만이 허는 거.(건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

111040 @1 예.(예.)

111040 #1 우리 잘 안 한다. 여자덜이 실 거세기 허명.(우리 잘 안 한다. 여자들이 실 거시기 하면서.)

111040 @1 예.(예.)

111040 #1 손에 영 해 가지고.(손에 이렇게 해 가지고.)

111040 @1 예.(예.)

111040 #1 또 방치기³³¹⁾엔 현 것도 있어나고. 것도 여자덜도.(또 ‘방치기’라고 한 것도 있었고. 것도 여자들도.)

111040 @1 아. 방치기도 여자덜이 허는 거마썸?(아. ‘방치기’도 여자들이 하는 거요?)

111040 #1 으, 여자덜 허는 거.(으, 여자들 하는 거.)

공기놀이

111043 @1 방치기도 여자덜예. 공기놀이?(‘방치기’도 여자들요. 공기놀이?)

111043 #1 공기놀이는 여기 그런 건 안 해났저.(공기놀이는 여기 그런 건 안 했었어.)

111043 @1 공기놀이 안 해난마썸, 공기치기?(공기놀이 안 했었어요, 공기놀이)

111043 #1 공기치기. 아, 공기치기 막 해났저.(공기놀이. 아, 공기놀이 많이 했었어.)

111041 @1 공기는 어떻, 뭘로 만들어?(공기는 어떻게, 뭘로 만들어?)

111041 #1 거 돌로 만든다.(거 돌로 만든다.)

111041 @1 돌?(돌?)

111041 #1 돌 쥘쥘현 거. 아까도 그 다마치기 허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들고 허 주만은 주로 공기는 돌로 영 헛저.(돌 자잘한 거. 아까도 그 구술치기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들고 하지만 주로 공기는 돌로 이렇게 했어.)

111041 @1 돌 깎양 아니면 좃엉?(돌 깎아서 아니면 주워서?)

111041 #1 돌 좃어근예가 적당하게 돌 뱅 동글랑허게 다시려 가지고서 동글락허게 만들야.(돌 주워서 적당하게 돌 뱅 동그랗게 다스려 가지고서 동그랗게 만들어.)

111042 @1 음. 그럼 공기순은 어떤 순서로 정할 거마썸, 공기 순서는?(음. 그럼 공기순은 어떤 순서로 정할 거요, 공기 순서는?)

111042 #1 공기는 거 공깃돌이 다섯 갠데이.(공기는 거 공깃돌이 다섯 갠데.)

111042 @1 예.(예.)

331) ‘방치기’는 놀이의 한 종류다.

111042 #1 다섯 갠데, 거 손으로 해 가지고 영 행 우터레 올령 만이 잡는 거, 영 공기 심어근에 공기 심영 영 혜근에 영 행 올령 만이 잡는 게, 잡는 거 숫자로 해 가지고 거 이기는 거 승부를 갈리는 거.(다섯 갠데, 거 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서 많이 잡는 거, 이렇게 공기 잡아서 공기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서 많이 잡는 게, 잡는 거 숫자로 해 가지고 거 이기는 거 승부를 갈리는 거.)

111042 @1 아, 다섯 개 던정 누게가 만이 잡는지예?(아, 다섯 개 던져서 누가 많이 잡는지요?)

111042 #1 으, 잡는 거.(으, 잡는 거.)

고누

111048 @1 그걸로 순서예. 다음에 고누렌 현 거 알아지쿠과?(그걸로 순서요. 다음에 고누라고 한 거 알겠습니까?)

111048 #1 무시거?(무엇?)

111048 @1 고누인데 고니, 끈?(고누인데 ‘고니’, ‘끈’?)

111048 #1 그런 건 나 자세히?(그런 건 나 자세히?)

111048 @1 끈져?(고누?)

111048 #1 끈져 그런 거 모르켜.(고누 그런 거 모르겠어.)

111048 @1 영 옷판 모양으로 영 그렁 여기에 뭐 올려 낱 이거 자리 옮기는 거 그런 거 안 해낫수과?(이렇게 옷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뭐 올려 낱 이거 자리 옮기는 거 그런 거 안 했었습니까?)

111048 #1 그런 옷판베끼 그런 거 엇다.(그런 옷판밖에 그런 건 없다.)

111048 @1 엇어? 고누라고 안 해 판마씨?(없어? 고누라고 안 해 봤어요?)

111048 #1 그런 건 안 헛저. 윗놀이 그건 뭐 아주 옛날부터 한 거고.(그런 건 안 했어. 윗놀이 그런 뭐 아주 옛날부터 한 거고.)

땅뺨기

111052 @1 예. 윗놀이 이땅 물어보쿠다. 땅따먹기?(예. 윗놀이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땅따먹기?)

111052 #1 으, 땅따먹기는 그거 저 땅따먹기도, 땅따먹긴 그건 남저가 주로 해 낫저.(으, 땅따먹기는 그거 저 땅따먹기도, 땅따먹긴 그건 남자가 주로 했었어.)

111049 @1 예, 땅따먹기예. 땅따먹기 허젠 허민 뭐 던져두는 거 있잖아예. 뭐 사그마치 같은 거?(예, 땅따먹기요. 땅따먹기 하려고 하면 뭐 던져두는 거 있잖아요. 뭐 사금파리 같은 거?)

111049 #1 으, 그렇게 헛주만은 이젠 다 잊어불언. 허허.(으, 그렇게 했지만 이젠 다 잊어버렸어. 허허.)

111049 @1 하하.(하하.)

111050 #1 요새는 경헌디 옛날엔 땅따먹기 해 가지고서 땅 따먹을 때 손으로 영 뽑아 가지고서이.(요새는 그래서 옛날엔 땅따먹기 해 가지고서 땅 따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111050 @1 예.(예.)

111050 #1 손으로 영 행 영 따먹나.(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먹어.)

111050 @1 경헌?(그래서?)

111051 #1 만이 땅 따먹는 사람이 거 이기는 건디이.(많이 땅 따먹는 사람이 거 이기는 건데.)

111051 @1 아. 그럼 게임을 허젠 허민 어떻 손으로 해 가지고 어떻 허는 거마 씨?(아. 그럼 게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요?)

111051 #1 거 땅따먹기도이 그 어디 강 방을 영 돌아왕 여기 영 만이 디디면은 이 땅을 만이 따먹게 뉘고 좁은 디 디디면은 땅을 좁게 따먹게 뉘고, 경 그걸로 기준 해 가지고서이. 만이 따 먹을 수 잇는 디 튀멍 받을 영 거세기 해야 뉘여.(거 땅 따먹기도 그 어디 가서 방을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많이 디디면 이 땅을 많이 따먹게 되고 좁은 데 디디면 땅을 좁게 따먹게 되고. 그렇게 그걸로 기준 해 가지고서. 많이 따 먹을 수 잇는 데 뛰면서 받을 이렇게 거시기 해야 돼.)

111050 @1 모양을 그려 놓는 거?(모양을 그려 놓는 거?)

111050 #1 모양을 그려 놔 가지고서.(모양을 그려 놔 가지고서.)

111050 @1 아, 그려 놓는 거예?(아, 그려 놓는 거요?)

111050 #1 그려 놔 가지고서.(그려 놔 가지고서.)

111050 @1 그럼 던지는 거를?(그럼 던지는 거를?)

111050 #1 던지지 안해근예.(던지지 앓고.)

111050 @1 뭔가 던정 이 방에는 안 가고 이 방에?(뭔가 던져서 이 방에는 안 가고 이 방에?)

111001 #1 건 먹대치기³³²라 해 가지고서 허긴 해낫는데.(건 ‘먹대치기’라 해 가지고서 하긴 했었는데.)

111001 @1 아.(아.)

111001 #1 먹대치기라 해 가지고서 것도이 네 군데 영 기려 놔 가지고서 거 허는 것도 셔낫저. 게난 것도 다 잊어불언. 먹대치기 하여튼 걸 만이 해낫주, 땅따먹기도 허고.(‘먹대치기’라 해 가지고서 것도 네 군데 이렇게 그려 놔 가지고서 거 허는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것도 다 잊어버렸어. ‘먹대치기’ 하여튼 걸 많이 했었지, 땅따먹기도 하고.)

111001 @1 아, 건 먹대치기마씨, 던정 허는 거.(아, 건 ‘막대치기’요, 던져서 하는 거.)

111001 #1 어, 어.(어, 어.)

111001 @1 아.(아.)

332) ‘먹대치기’는 놀이의 한 종류다.

111001 #1 뽕이치기도 겨울엔 허멍 놀아나고.(뽕이치기도 겨울엔 하면서 놀았었고.)

웃놀이

111053 @1 예. 웃놀이 물어볼게예. 웃놀이에?(예. 웃놀이 물어보겠어요. 웃놀어요?)

111053 #1 으. (으.)

111053 @1 웃가락은 어떻게 준비합니까?(웃가락은 어떻게 해서 준비합니까?)

111054 #1 웃가락은 거 나무로 주로 해, 나무로.(웃가락은 거 나무로 주로 해, 나무로.)

111054 @1 음. 그 나무는 주로 무슨 나무?(음. 그 나무는 주로 무슨 나무?)

111054 #1 아무 나무라도 한다, 그건. 쯤데 여기는 구럼비나무 허고 동박나무가 그거가 든든허니까 주로 그거 만이 한다.(아무 나무라도 한다, 그건. 그런데 여기는 까마귀쪽나무하고 동백나무가 그거가 단단하니까 주로 그거 많이 한다.)

111054 @1 구럼비나무랑?(까마귀쪽나무랑?)

111054 #1 으, 동백나무.(으, 동백나무.)

111054 @1 동박나무와, 동박나무와?(‘동박나무’입니까, ‘동박나무’입니까?)

111054 #1 제죽말로 동박, 동박 허난 동박나무주.(제죽말로 ‘동박’, ‘동박’ 하니까 ‘동박나무’이지.)

111054 @1 동박나무, 음. 계민 종지는? 종지는 뭐로?(동박나무, 음. 그럼 종지는 뭐로?)

111055 #1 종지는 옛날에 그 뭐인가 그 쯤그만 종지가 셔났저.(종지는 옛날에 그 뭐인가 그 쯤그만 종지가 있었어.)

111055 @1 간장 종지.(간장 종지.)

111055 #1 으, 간장 종지 맞다. 그걸로 했저.(간장 종지 맞다. 그걸로 했어.)

111055 @1 웃판은마씨, 웃판은 어떻게 했수과?(웃판은요, 웃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111055 #1 웃판은 명석에 주로 기령 해났저. 명석에 기리고 경 안허민 흑판에 기리고.(웃판은 명석에 주로 그려서 했었어. 명석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흑판에 그리고.)

111056 @1 아, 흑판에 그리고. 음. 웃놀이도 어떤 종류가 잇수과?(아, 흑판에 그리고. 음. 웃놀이도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11056 #1 그 종류가 만이 그거, 상대방 가는 걸 그거 죽여 가지고 그거 네 지를 나야 돼는디 처음, 처음 일번으로 부터근에 혼 바퀴씩 돌아오는 게 혼 지주. 게 난 녀지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그 종류가 많이 그거, 상대방 가는 걸 그거 죽여 가지고 그거 네 동이 나야 되는데 처음, 처음 일 번으로 붙어서 한 바퀴씩 돌아오는 게 한 동이야. 그러니까 녀동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

111056 @1 녀지렌 헐 거예?(녀동이라고 할 거요?)

111057 #1 으, 녀지. 거 하나씩 네 번 돌앙 빨리 난 사름이 이기는 거. 계난 상대방 가는 것도 잡아 불민 이제 뭐인가 몇 번 나지 못헤영 지고 경허는 거주. 그 기술이 잇는 거라, 상대방 물 잡는 게 기술.(으, 녀동. 거 하나씩 네 번 돌아서 빨리 난 사람이 이기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 가는 것도 잡아 버리면 이제 뭐인가 몇 번 나지 못헤서 지고 그러는 거지. 그 기술이 잇는 거야, 상대방 말 잡는 게 기술.)

111057 @1 케니까 도 개 걸 옷 모 헤 가지고 나는 거. 계난 빨리 갈 수도 잇는 건데 상대방 못 가게 잡는 것도?(그러니까 도 개 걸 옷 모 헤 가지고 나는 거. 그러니까 빨리 갈 수도 잇는 건데 상대방 못 가게 잡는 것도?)

111057 #1 못 가게 잡아 버리면 또 다시 일번으로 다시 출발헤야 웨여.(못 가게 잡아 버리면 또 다시 일번으로 다시 출발헤야 돼.)

111057 @1 아, 다시 출발허는 거라예. 케민 네 개가 먼저 나야 이기는 거?(아, 다시 출발하는 거지요. 그럼 네 개가 먼저 나야 이기는 거?)

111057 #1 으, 녀지를 먼저 나야 이기는 거.(으, 녀동을 먼저 나야 이기는 거.)

111057 @1 녀지라고 허는 거예?(녀동이라고 하는 거요?)

111057 #1 으, 녀지를 먼저 나야 이기는 거.(으, 녀동을 먼저 나야 이기는 거.)

111057 @1 옷놀이는 지금도 허잖아예?(옷놀이는 지금도 하잖아요?)

111057 #1 지금도 헐다. 결혼식, 이제도 결혼식 가민 그거베끼 오락이 엇다.(지금도 한다. 결혼식, 이제도 결혼식 가면 그거밖에 오락이 없다.)

111057 @1 예, 그지예?(예, 그렇죠?)

111057 #1 이제도 막 그거 성허게 헐다. 옛날보다 더 헐다, 이제.(이제도 아주 그거 성허게 한다. 옛날보다 더 한다, 이제.)

111057 @1 아, 하하하. 뭐 돈 내기 헐니까?(아, 하하하. 뭐 돈 내기 헐니까?)

111057 #1 어, 돈 내기.(어, 돈 내기.)

팽이치기

111059 @1 팽이치기?(팽이치기?)

111059 #1 팽이치기 거 겨울에. 겨울에 팽이치기 경허난 거 남을 끈어다가이 그 남을이 하여튼이 것도 하여튼 센치로 허민 혼 직경 혼 삼 센치, 둘레 그걸 둘레 영헤 가지고서 그 밑엔 나무를 영 쫓아지게 영 가꾼다.(팽이치기 거 겨울에. 겨울에 팽이치기 그러니까 거 나무를 끊어서 그 나무를 하여튼 것도 하여튼 센치로 하면 혼 직경 혼 삼 센치, 둘레 그걸 둘레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밑에 나무를 이렇게 쫓아지게 이렇게 깎는다.)

111059 @1 으.(으.)

111059 #1 가까 가지고서 그 가운데 거, 가운데 주로 그 뭐인가 속 구린 나무, 그 소낭을 만이 허는디 속 구린 나물 헤야 그디 거시기 웨뭇을 그디 거시기 허여. 웨뭇을 박으면은 이거 잘 돌아가주, 웨뭇이. 거 펜펜허니까.(깎아 가지고서 그 가운데

데 거, 가운데 주로 그 뭐인가 속 구린 나무, 그 소나무를 많이 하는데 속 구린 나무를 해야 거기 거시기 외뭇을 거기 거시기 해. 외뭇을 박으면 이거 잘 돌아가지, 외뭇이. 거 편편하니까.)

111059 @1 음.(음.)

111064 #1 그래서 오래, 그 시간을 오래 끌게 쳐근에 그걸 죽지 안허민 그게 이기는 거 뺑이치기. 것도 막 심백해근에 뺑일 서로 막 부딪치게 만들앙이.(그래서 오래, 그 시간을 오래 끌게 쳐서 그걸 죽지 않으면 그게 이기는 거 뺑이치기. 것도 아주 겨뤄서 뺑일 서로 마구 부딪치게 만들어서.)

111064 @1 으.(으.)

111064 #1 누게네가 먼저 떨어지느냐, 죽느냐, 거 바닥에 자빠지는 것이 지는 거주. 뺑이치기 막, 싸움도 막 한다.(누구네가 먼저 떨어지느냐, 죽느냐, 거 바닥에 자빠지는 것이 지는 거지. 뺑이치기는 마구, 싸움도 마구 한다.)

111061 @1 아, 뺑이치기 허멍 싸움허는디 아까 그 소남으로 해야 되는 거?(아, 뺑이치기 하면서 싸움하는데 아까 그 소나무로 해야 되는 거?)

111061 #1 으, 소남.(으, 소나무.)

111061 @1 속 구려?(속 구려?)

111061 #1 으, 속 구린 남을 주로 한다.(으, 속 구린 나무를 주로 한다.)

111061 @1 속 구린다는 게 무슨 말이과?(속 구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11061 #1 거 속, 나무가 가운데 심이란 게 잇주.(거 속, 나무가 가운데 심이라는 게 있지.)

111061 @1 예.(예.)

111061 #1 계난 단단히, 오래지 안헌 나무는 그디가 뭐인가 속이 영 저 뭐인가 그 좁쌀, 아니 뭐인가 가루거치 가운데 이렇게 웬다. 거기는이 거 물리민 나무가 거기는 그냥 구려근에 가루가 떨어지주게. 계난 그런 디 못 박기가 좋거든.(그러니까 단단히, 오래지 않은 나무는 그거가 뭐인가 속이 이렇게 저 뭐인가 그 좁쌀, 아니 뭐인가 가루같이 가운데 이렇게 된다. 거기는 거 마르면 나무가 거기는 그냥 구려서 가루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데 못 박기가 좋거든.)

111061 @1 아.(아.)

111061 #1 다른 건 허면은 못 박젠 허면은 깨어져 불어.(다른 건 하면 못 박으려고 하면 깨져 버려.)

111061 @1 아.(아.)

111061 #1 깨지니까 속 구린 나무는 못, 웨뭇을 박아도 깨어지지 안허니까.(깨지니까 속 구린 나무는 못, 외뭇을 박아도 깨지 않으니까.)

111061 @1 예, 예. 못 박기 좋게 하기 위해서.(예, 예. 못 박기 좋게 하기 위해서.)

111061 #1 으, 으.(으, 으.)

111061 @1 속 구린 낭을.(속 구린 나무를.)

111061 #1 속 구린 나무를.(속 구린 나무를.)

111061 @1 그래서 주로 소나무가 그렇다는 얘기.(그래서 주로 소나무가 그렇다는 얘기.)

111061 #1 으.(으.)

111061 @1 소나무 말고 또 다른 거 잇수과?(소나무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111061 #1 개나무 거튼 거.(누리장나무 같은 거.)

111060 @1 개나무 같은 거예. 예. 팽이에도 종류가 잇수과?(누리장나무 같은 거요. 예. 팽이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111060 #1 큰 거, 작은 거 잇저. 큰 거, 작은 거.(큰 거, 작은 거 있어. 큰 거, 작은 거.)

111062 @1 케민 팽이도 만들젠 허민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예?(그럼 팽이도 만들려고 하면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111062 #1 으, 잘 돌아가게, 것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으, 잘 돌아가게, 것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111062 @1 뭐 방법이 잇수과?(뭐 방법이 있습니까?)

111062 #1 아, 케난 규격을 잘 맞춰야 돼. 아래 좁아지는 것을 갖다가 규격을 잘 맞춰 일정하게끔. 거 아니 맞추면 한 쪽으로만 자빠지고 케난 그거 영 아래 좁아지게 허는 것을 잘, 기술적으로 잘 맞춰야.(아, 그러니까 규격을 잘 맞춰야 돼. 아래 좁아지는 것을 갖다가 규격을 잘 맞춰서 일정하게끔. 거 안 맞추면 한 쪽으로만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아래 좁아지게 하는 것을 잘, 기술적으로 잘 맞춰야.)

111062 @1 케난 그것도 집어서 다 자기냥으로 만드는 거.(그러니까 그것도 집에서 다 자기대로 만드는 거.)

111062 #1 으, 자기냥으로 만들고 자기 못 만들민 늑안티 멘들아 도렌도 허고.(으, 자기대로 만들고 자기 못 만들면 남한테 만들어 달라고도 하고.)

111062 @1 아, 멘들아 도렌 허고. 팽이는 경행 소나무 깎양 만들앗고 팽이채는?(아, 만들어 달라고 하고. 팽이는 그래서 소나무 깎아서 만들엇고 팽이채는?)

111063 #1 팽이채는 이, 그 질긴 거 뭐인가, 뭐인가 저 형겍으로 헛주, 형겍으로.(팽이채는 이, 그 질긴 거 뭐인가, 뭐인가 저 형겍으로 헛지, 형겍으로.)

111063 @1 예.(예.)

111063 #1 좀 질긴 형겍으로.(좀 질긴 형겍으로.)

111063 @1 예.(예.)

111063 #1 그래야 오래 쓰니까.(그래야 오래 쓰니까.)

111063 @1 아, 질긴 형겍으로. 나무, 나무?(아, 질긴 형겍으로. 나무, 나무?)

111063 #1 나문 아무 냥으로나.(나문 아무 나무로나.)

111063 @1 아무 나무예.(아무 나무예.)

111063 #1 나무에 험겍 으만이 헤 가지고 쾀뎡이에 감아 가지고서 팽이를 뽕뽕

뽕뽕 그 뭐인가 험집을 감을 거 아니라이, 감양 짝 뽕이민 그 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게난 돌아가기 시작하민 죽기 전에 그걸 자꾸 때려 줘야 그거 계속 돌아간다.(나무에 형겅 요만큼 해 가지고 끄트머리에 감아 가지고서 뽕이를 뽕뽕 뽕뽕 그 뭐인가 형겅을 감을 거 아니냐, 감아서 짝 당기면 그 힘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면 죽기 전에 그걸 자꾸 때려 줘야 그거 계속 돌아간다.)

111063 @1 여긴 낭이고 여긴 천을 부친 거잖아예?(여긴 나무이고 여긴 천을 붙인 거잖아요?)

111063 #1 으, 천.(으, 천.)

111063 @1 천 영 쪼끼 만들 때처럼 찢어마썸? 안 찢어?(천 이렇게 제기 만들 때처럼 찢어요? 안 찢어?)

111063 #1 그건, 그건 혼두 개로만 찢는다.(그건, 그건 한두 개로만 찢는다.)

111063 @1 두 개로.(두 개로.)

111063 #1 으, 두 개로, 질긴 천으로?(으, 두 개로, 질긴 천으로?)

111063 @1 아, 쪼끼처럼 막 잘게 찢는 건 아니로군아예?(아, 제기처럼 아주 잘게 찢는 건 아니로군요?)

111063 #1 으, 잘게 찢지 안허여.(으, 잘게 찢지 않아.)

111063 @1 안 해영예?(안 해서요?)

111063 #1 흥나로도 허고 두 개로도 찢으고.(하나로도 하고 두 개로도 찢고.)

111064 @1 뽕이 싸움은?(뽕이 싸움은?)

111064 #1 상대방이가 서로 부딪치게 치여 가지고서 부딪치게 치어 가지고 그 먼저 그 뭐인가 부딪친 후에 그 자빠지는 게 지는 거.(상대방이 서로 부딪치게 치어 가지고서 부딪치게 치어 가지고 그 먼저 그 뭐인가 부딪친 후에 그 자빠지는 게 지는 거.)

111064 @1 상대방도 치고 저도 치잖아예?(상대방도 치고 저도 치잖아요?)

111064 #1 으.(으.)

111064 @1 나는 내 뽕이만 쳐야 돼여?(나는 내 뽕이만 쳐야 돼?)

111064 #1 이녀 뽕이 쳐근에 이녀 뽕이로 상대방 뽕이를 그 부딪치게 해 가지고서 쓰러뜨리는 거주.(자기 뽕이 쳐서 자기 뽕이로 상대방 뽕이를 그 부딪치게 해 가지고서 쓰러뜨리는 거주.)

111064 @1 케민 내가 치다가 내 뽕이 안 치고 녀의 뽕이를 쳐서.(그럼 내가 치다가 내 뽕이 안 치고 녀의 뽕이를 쳐서.)

111064 #1 녀의 뽕이는 거 칠 수가 없주게.(남의 뽕이는 거 칠 수가 없지.)

111064 @1 아.(아.)

111064 #1 서로가 딴 데 상 잇으니까?(서로가 딴 데 서 잇으니까?)

111064 @1 내 뽕이만 치명예?(내 뽕이만 치면서요?)

111064 #1 으.(으.)

굴렁쇠

111066 @1 굴렁쇠라는 것도 해놔수과?(굴렁쇠라는 것도 했었습니까?)

111066 #1 굴렁쇠도 해놔져. 굴렁쇠는 그 뭐인가 옛날에는 그 자전거가 안 나났지.(굴렁쇠도 했었어. 굴렁쇠는 그 뭐인가 옛날에는 그 자전거가 안 나났어.)

111066 @1 예.(예.)

111066 #1 그 자전거 뭐인가 요새는 자전거 그 튜브 그 뭐인가 다이야 빼 두고 쇠 그 굴렁쇠를 허는데 옛날에는 뭐인가 세비낭가시란 게 있어서. 세비낭가시.(그 자전거 뭐인가 요새는 자전거 그 튜브 그 뭐인가 타이어 빼 두고 그 굴렁쇠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인가 찢레나무란 게 있었어. 찢레나무.)

111066 @1 휘비낭가시?(‘휘비낭가시’?)

111066 #1 세비낭가시. 세비낭가시.(찢레나무. 찢레나무.)

111066 @1 아, 세비낭가시.(아, 찢레나무.)

111066 #1 세비낭가시 그 줄을 걷어다가 그 가시를 다 없애 붙어 가지고이 그거를 둥그렇게 몰아서 그걸 저 뭐인가 그 즙전개 거시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게 가지고서 이제는 그 쇠 거튼 거 잇잖으냐이?(찢레나무 그 줄을 걷어다가 그 가시를 다 없애 버려 가지고 그거를 둥그렇게 몰아서 그걸 저 뭐인가 그 자전거 거시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게 가지고서 이제는 그 쇠 같은 거 잇잖니?)

111066 @1 예.(예.)

111066 #1 쇠 이렇게 영 해 가지고선 그걸 영 돌려근에 그걸 이레 나오지 못하게 걸리게끔 췌로 영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거 막 질레에 돌아댕겨 세. 옛날엔 세비낭가시로 그렇게 해난디 요새는 그 자전거 거시기 췌 다이야 빼불고 그것에 해근에 아이덜 놀주.(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선 그걸 이렇게 돌려서 그걸 이리 나오지 못하게 걸리게끔 쇠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거 마구 길에 돌아다녔었어. 옛날엔 찢레나무로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그 자전거 거시기 쇠 타이어 빼 버리고 그것에 해서 아이들 놀지.)

111066 @1 게민 세비낭가시를 영 둥글게 말면 이렇게 돼 가지고 굴릴 거 아니?(그럼 찢레나무를 이렇게 둥글게 말면 이렇게 돼 가지고 굴릴 거 아니?)

111066 #1 으, 둥그렁 해야 굴러가고 헐 거 아니가? 거 세비낭가시 줄이 많이 든다.(으, 둥그런 해야 굴러가고 할 거 아니냐? 거 찢레나무 줄이 많이 든다.)

111066 @1 아,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고 뱅뱅뱅.(아,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고 뱅뱅뱅.)

111066 #1 으, 뱅뱅뱅 두껍게 허젠 허민, 두꺼워야 돼여.(으, 뱅뱅뱅 두껍게 하려고 하면, 두꺼워야 돼.)

111066 @1 아.(아.)

111066 #1 두꺼워야 돼여. 그것이 세비낭가시 허젠 허면은 혼 스무남은 개, 진진헌 혼 발짜리 혼 스무남은 개 들어야. 스무남은 개 더 들어야 헌다.(두꺼워야 돼. 그것이 찢레나무 하려고 하면 한 스무남은 개, 길디긴 한 발짜리 한 스무남은 개

들어야. 스무남은 개 더 들어야 한다.)

111066 @1 거 막 두껍게 만드는 거군아예?(거 아주 두껍게 만드는 거군요?)

111066 #1 으, 경 안 허민 힘이 엇주게.(으, 그렇게 안 하면 힘이 없지.)

111066 @1 아.(아.)

111066 #1 거 두껍게 만들어야 힘이 좋양 오래 견디주.(거 두껍게 만들어야 힘이 좋아서 오래 견디지.)

111066 @1 게민 이 굴렁췌 헐 때 둥그렇게 멘드는 건 세비냥가시남. 이거는?(그럼 이 굴렁쇠 할 때 둥그렇게 만드는 건 찢레나무. 이거는?)

111067 #1 게난 그건 철을 저 이제 전봇대 줄 그때 만이 잇잖아이. 저런 췌 봉가다가 그건.(그러니까 그건 철을 저 이제 전봇대 줄 그때 많이 잇잖아. 저런 쇠 주워다가 그건.)

깡통차기

111067 @1 하하하. 전봇대 줄에 췌. 통차기 헤낫수과, 깡통차기?(하하하. 전봇대 줄에 쇠. 통차기 했었습니까, 깡통차기?)

111067 #1 그런 건 안 허고.(그런 건 안 하고.)

‘뽕이치기’

111072 @1 안 헤낫고예. 뽕이치기?(안 했었고요. ‘뽕이치기’?)

111072 #1 뽕이치기 아까 나 얘기헌 거 뽕이치기.(뽕이치기 아까 나 얘기한 거 뽕이치기.)

111072 @1 뽕이 말고 뽕이치기도 잇어낫수과?(뽕이 말고 ‘뽕이치기’도 있었습니까?)

111072 #1 아, 뽕이치기333)?(아, ‘뽕이치기’?)

111072 @1 예.(예.)

111072 #1 뽕이치기는 거 뽕이 빠다근에이 거 막 메역 단 허는 식으로 헤 가지고서이 경허멍이 거 뽕이치기엔 헤난. 그 뽕이치기도이 새왓디 봄 나면은 새가 막 올라올 때 그 뽕이가 막 올라올 때이 그 뽕이가 막 올라오주게.(‘뽕이치기’ 거 뽕기 빠다가 거 마구 미역 단 하는 식으로 헤 가지고서 그리면서 거 ‘뽕이치기’라고 했었어. 그 ‘뽕이치기’도 떠발 봄 나면 떠가 마구 올라올 때 그 뽕기가 마구 올라올 때 그 뽕기가 마구 올라오지.)

111072 @1 예.(예.)

111072 #1 새 그거 봉우리주게.(떠 그거 봉우리지.)

111072 @1 예.(예.)

111072 #1 그건 연현 때는, 막 그거 어웁이 되는 건데 어릴 땐 그것이 막 맛있

333) ‘뽕이치기’는 뽕기를 가지고 노는 내기 놀이를 말한다. ‘뽕(뽕기)’에 ‘치다’의 명사형인 ‘치기’가 결합한 것으로, ‘뽕이’는 ‘뽕이’, ‘뽕이치기’는 ‘뽕이치기’라고도 한다.

나. 그거 막 연해 가지고서.(그건 연한 때는, 마구 그거 역새가 되는 건데 어릴 땐
그것이 아주 맛있어. 그거 아주 연해 가지고서.)

111072 @1 예.(예.)

111072 #1 이제 그걸 따다근에가 서로가 이제 블라놉근에가 따먹을락도 허고
해낫저.(이제 그걸 따다가 서로가 이제 발라서 따먹기도 하고 했었어.)

111072 @1 예.(예.)

111072 #1 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건 빵이 철엔이 그 빵이 빠레 막 다녀나시
네.(그래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건 뽕기 철엔 그 뽕기 빠러 마구 다녔었어.)

111072 @1 게니까 뽕일 영 뽕 왓어예, 서로가. 게민 어쨌든 뽕이치기 허는 거
는 상대방 뽕이를 내가 뽕아 먹젠 하는 거잖아예?(그러니까 뽕길 이렇게 빼 왔지요,
서로가. 그럼 어쨌든 ‘뽕이치기’ 하는 거는 상대방 뽕기를 내가 뽕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111072 #1 경헌 거주.(그러는 거지.)

111072 @1 게민 승부는 어떻 허는 거라?(그럼 승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111072 #1 거 나 잘 모르켜, 허허. 모르커라 것도.(거 나 잘 모르겠어, 하하.)

111072 @1 어쨌든 해난 거?(어쨌든 했던 거?)

111072 #1 으, 해낫저.(으, 했었어.)

고무줄 놀이

111075 @1 고무줄 놀이?(고무줄 놀이?)

111075 #1 건 여자덜만 허고.(건 여자들만 하고.)

111075 @1 여자덜 놀이.(여자들 놀이.)

111075 #1 학생덜 아이 건 뽕 초등학생덜. 중학생꺼진 해낫주게, 고무줄놀이.(학
생들 아이 건 뽕 초등학생들. 중학생까진 했었지, 고무줄놀이.)

줄넘기

111078 @1 예, 고무줄놀이. 베뽕락?(예. 고무줄놀이. 줄넘기?)

111078 #1 베뽕락도 것도 여자들만 허고.(줄넘기도 것도 여자들만 하고.)

그네뛰기

111080 @1 그네도?(그네도?)

111080 #1 그네도 그 뽕인가 오월 단오에는 그네 만이 뛰어낫저.(그네도 그 뽕
인가 오월 단오에는 그네 많이 뛰었었어.)

111080 @1 남자덜 안 헛지예, 여자덜이 헛지예?(남자들 안 했지요, 여자들이 했
지요?)

111080 #1 어, 주로 여자.(어, 주로 여자.)

‘흔다리인다리’

111082 @1 한다리인다리라고 알아지쿠과?(‘한다리인다리’라고 알겠습니까?)

111082 #1 으, 흔다리인다리³³⁴) 그거 헤낫저. 거 흔다리인다리 헤근에 서로가 다리덜 영 놔 가지고서 흔 다리 두 다리 뭐 헤 가지고서 마지막에 뭐인가 딱 허게 가근에 끝까지 안 가면은 거 거세기.(으, ‘흔다리인다리’ 그거 했었어. 거 ‘흔다리인다리’ 해서 서로가 다리들 이렇게 놔 가지고서 한 다리 두 다리 뭐 헤 가지고서 마지막에 뭐인가 딱 하게 가서 끝까지 안 가면 거 거시기.)

111082 @1 흔다리인다리 남저덜 했던 거예?(‘한다리인다리’ 남자들 했던 거요?)

111082 #1 으, 남자덜도 여자덜도 허고. 건 남녀 공히 거 처녀덜 총각덜 앓앙 막 장난으로 거 막 헤낫저.(으, 남자들도 여자들도 하고. 건 남녀 공히 거 처녀들 총각들 앓아서 마구 장난으로 거 마구 했었어.)

111083 @1 혹시 불러난 노래 알아지쿠과?(혹시 불렀던 노래 알겠습니까?)

111083 #1 거 잊어불엇저. 거 흔 다리 두 다리 허면서 노래가 잊어낫긴 잊어낫는다.(거 잊어버렸어. 거 한 다리 두 다리 하면서 노래가 있었긴 있었는데.)

111083 @1 예.(예.)

12. 통과이레

출생

112001 @1 이젠 태어났을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거, 상 났을 때 허는 거우다. 이번엔예.(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거, 상 났을 때 하는 겁니다. 이번엔요.)

112001 #1 으.(으.)

112001 @1 옛날에도 영 애기 생기민 태교 거튼 거 헤저신가예?(옛날에도 이렇게 애기 생기면 태교 같은 거 했었나요?)

112001 #1 아, 옛날도 태교 거튼 것도 헤낫저. 태교는이 뭐인가 불난 집이 가면은 놀레면은 그 어린아이가 나면은 경짱이 한다. 그 경짱으로 옛날은 아이덜이 만이 죽엇주게. 게난 불난 집이 가지 말고. 그 뭐인가 영장난 집이 그 뭐인가 잘 가지 말고.(아, 옛날도 태교 같은 것도 했었어. 태교는 뭐인가 불난 집에 가면 놀라면 그 어린아이가 나면 경기를 한다. 그 경기로 옛날은 아이들이 많이 죽엇지. 그러니까 불난 집에 가지 말고. 그 뭐인가 초상난 집에 그 뭐인가 잘 가지 말고.)

112001 @1 으.(으.)

112001 #1 그렇게 항상 그렇게 헛저. 몸가짐을 무거운 거 들지 말고.(그렇게 항상 그렇게 헛어. 몸가짐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112001 @1 아.(아.)

112001 #1 무거운 거 들면은 그 어린아이가 유산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옛날은

334) ‘흔다리인다리’는 놀이의 한 종류다.

태교주게. 계난 뭐 육지 거튼 디 유복헌 사름덜은 말야 자장가도 불러주고.(무거운 거 들면 그 어린아이가 유산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옛날은 태교지. 그러니까 뭐 육지 같은 데 유복한 사람들은 말야 자장가도 불러주고.)

112001 @1 하하.(하하.)

112001 #1 이런 촌에는 그럴 새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불난 집이 가면 갑자기 허면 마음이 동해영 어린아이가 놀래면 그 경쩍이 어린아이가 웬다. 그리고 또 이 가령 그 갑자기 어디 강 밤이 거튼 디 텅기지 말앙. 밤이 뭘 뺑 놀래민 것도 거시기 허니까.(이런 촌에는 그럴 새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불난 집에 가면 갑자기 하면 마음이 동해서 어린아이가 놀래면 그 경기가 어린아이가 된다. 그리고 또 가령 그 갑자기 어디 가서 밤에 같은 데 다니지 말고. 밤에 뭘 봐서 놀래면 것도 거시기 하니까.)

112001 @1 으.(으.)

112001 #1 경허고 또이 영장난 집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그리고 또 초상난 집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112002 @1 으, 영장난 집이예. 출산 준비허젠 허민, 출산 준비는 어떻 허는 것파?(으, 초상난 집예요. 출산 준비하려고 하면,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02 #1 겨난 옛날은 산파가, 옛날은 여기 뭐 병원이 없어나기 때문에 거 출산 준비는, 출산 준비는 여기는 옛날은이 거 잘, 잘 못 맞췄거든. 그 부인덜이 날 짜를.(그러니까 옛날은 산파가, 옛날은 여기 뭐 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 출산 준비는, 출산 준비는 여기는 옛날은 거 잘, 잘 못 맞췄거든. 그 부인들이 날 짜를.)

112002 @1 으.(으.)

112002 #1 겨민 몸이, 예를 들어서 열 달 뒤편은 출산 준비를 허기 시작허야 돼. 마음의 준비.(그럼 몸이, 예를 들어서 열 달 되면 출산 준비를 하기 시작허야 돼. 마음의 준비.)

112002 @1 어.(어.)

112002 #1 게 가지고 그 출산 준비허젠 허면은, 그 시부모가 다 초산일 경우에는 시부모가 다 어린아이 그 옷 거튼 거, 베적삼 거튼 거 뭐 기저귀 거튼 거 뭐 다 마련허주게. 경해서 그 진통이 오기 시작허면은이.(그래 가지고 그 출산 준비하려고 하면, 그 시부모가 다 초산일 경우에는 시부모가 다 어린아이 그 옷 같은 거, 베적삼 같은 거 뭐 기저귀 같은 거 뭐 다 마련하지. 그래서 그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112002 @1 으.(으.)

112002 #1 진통이 오기 시작허면은 그 구들에 그 산디짚을 깔아놔서, 옛날은.(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그 구들에 그 밧벚짚을 깔았었어, 옛날은.)

112002 @1 으.(으.)

112002 #1 웨 산디짚 깎는고 허니 그 출산허면은 그 피가 만이 나오거든. 그 양수허고. 계난 거 깔아 가지고서 그걸 다 준비행 낫당 그 진통이 오기 시작허면은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아기를 받지이.(왜 밧벚짚을 까는가 하니 그 출산하면 그 피

가 많이 나오거든. 그 양수하고. 그러니까 거 깔아 가지고서 그걸 다 준비해서 왔다가 그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아기를 받지.)

112002 @1 으.(으.)

112002 #1 계난 오래 진통을 해서 오래 안 나와 가민 그 삼성할망³³⁵이라고, 동네 잇어났저. 그 산파 역할 하는 할머니가. 그 사람덜 데려다가 허면은 그 시부모도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책임 하에 저 저 뭐인가 순산시키는 거.(그러니까 오래 진통을 해서 오래 안 나와 가면 그 삼신할머니라고, 동네 있었어. 그 산파 역할 하는 할머니가.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하면 그 시부모도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책임 하에 저 저 뭐인가 순산시키는 거.)

112002 @1 아, 계민 산파가 왕?(아, 그럼 산파가 와서?)

112002 #1 으.(으.)

112002 @1 아까 뭐렌?(아까 뭐라고?)

112002 #1 삼성할망.(삼신할머니.)

112002 @1 삼성할망이렌 부를 거예?(삼신할머니라고 부를 거요?)

112002 #1 삼신할망이주, 삼성할망이라고 부르는 게.(삼신할머니지, 삼신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112002 @1 삼성할망이 왕 애기 날 때 뉘민 태 잘르고?(삼신할머니 와서 애기 날 때 되면 태 자르고?)

112002 #1 으, 태 잘르고. 다 그거 뭐인가 그 어린아이 옷 다 입혀 주고 그렇게 허는 거주.(으, 태 자르고. 다 그거 뭐인가 그 어린 아이 옷 다 입혀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112003 @1 예. 계민 그 잘른 태랑 탯줄은 어떻 처리합니까?(예. 그럼 그 자른 태랑 탯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12003 #1 탯줄은, 그 탯줄과 태는이 그 굴목에 놔 가지고서 그 저 슬아났저. 그 굴목에 그 굴목 진을 때 그 뭐인가 그 말뚝 있지 아냐이. 그리 놔 내불민 거기서 슬아지면은 그걸, 아주 저 뭐인가 보관해났저. 탯줄은 따로 해근에가 그건 물류 왕 보관허고.(탯줄은, 그 탯줄과 태는 그 ‘굴목’에 놔 가지고 그 저 살랐었어. 그 ‘굴목’에 그 ‘굴목’ 뉘 때 그 뭐인가 그 말뚝 있지 아냐. 그리 놔서 내버리면 거기서 사를 수 있으면 그걸, 아주 저 뭐인가 보관했었어. 탯줄은 따로 해서 그건 말려 와서 보관하고.)

112003 @1 으.(으.)

112003 #1 탯줄은. 그 태는 슬아 가지고서 아기 클 때까지 보관해났저.(탯줄은. 그 태는 살라 가지고서 아기 클 때까지 보관했었어.)

112003 @1 슬아 불민 없어지는 거 아니?(살라 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

112003 #1 아니 그 뭔가 팡팡 굳은 양 숫거치 웨여 있다.(아니 그 뭔가 팡팡 굳

335) ‘삼성할망’은 아기를 접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신령인 ‘삼신할머니’다. 여기서는 산파를 가리키고 있다.

은 양 솟같이 돼 있어.)

112003 @1 아.(아.)

112003 #1 솟거치, 솟거치 돼여서 어린아이 피부병이나 뭐 나면은 그 태, 그거 태 슬아난 그걸 거명허게 솟거치 뉼 걸 그걸 영 퀘여근에가 이렇게 불라 주면은 어린아이가 피부병이 다 낫고. 게난 그 베포롱줄은 늘 보관, 보관한다.(솟같이, 솟같이 돼서 어린아이 피부병이나 뭐 나면 그 태, 그거 태 살랐던 그걸 거명게 솟같이 된 걸 그걸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발라 주면 어린아이가 피부병이 다 낫고. 그러니까 그 텃줄은 늘 보관, 보관한다.)

112003 @1 으.(으.)

112003 #1 클 때까지. 열댓 설꺼지 보관허는 집도 잇주만. 보통 너댓 설꺼진 정성 들영 보관허여. 거 생명줄이랏어.(클 때까지. 열댓 살까지 보관허는 집도 잇지만. 보통 네댓 살까지 정성 들여서 보관해. 거 생명줄이었어.)

112003 @1 아, 게민 텃줄은 아까 베포롱줄이렌 혈 거라예?(아, 그럼 텃줄은 아까 텃줄이라고 할 거지요?)

112003 #1 으, 베포롱줄.(으, 텃줄.)

112003 @1 태는 제죽말로?(태는 제죽말로?)

112003 #1 태는 태반 아니가? 아기를 싸는.(태는 태반 아니냐? 아기를 싸는.)

112003 @1 그냥 태반은 태반이렌 곁옵니까?(그냥 태반은 태반이라고 말합니까?)

112003 #1 으, 으. 태반을 여기서 아기붓이엔 헛주.(으, 으. 태반을 여기서 ‘아기붓’이라고 헛지.)

112003 @1 아기붓예?(‘아기붓’요?)

112003 #1 으, 으.(으, 으.)

112003 @1 그지예. 게민 아기붓은 불슬아 불고. 불슬아근에 요만허게 솟?(그렇죠. 그럼 태반을 불살라 버리고. 불살라서 요만허게 솟?)

112003 #1 으, 그건 보관해 낫당 약재로 사용허고.(으, 그건 보관해 뵈다가 약재로 사용허고.)

112003 @1 약재로 사용허고.(약재로 사용허고.)

112003 #1 그 텃줄은 하여튼.(그 텃줄은 하여튼.)

112003 @1 베포롱줄은?(텃줄은?)

112003 #1 베포롱줄은 잘 말렸당 보관허는 거.(텃줄은 잘 말렸다가 보관허는 거.)

112004 @1 예. 애기 나면 산모 음식 줘야 혈 거잖아예?(예. 아기 낳으면 산모 음식 줘야 할 거잖아요?)

112004 #1 으, 산모 음식 거. 게난 나면은 우선 그 뭐인가 그 므물즈베기이. 그 거에 뭐인가 메역 낵 거세기 거세기 헤 준다. 건 무산고 허민 므물은이 피를 삭히는 거.(으, 산모 음식 거. 그러니까 나면 우선 그 뭐인가 그 메밀수제비. 그거에 뭐

인가 미역 놔서 거시기 거시기 해 준다. 건 왜인가 하면 메밀은 피를 삭히는 거.)

112004 @1 으.(으.)

112004 #1 그 나쁜 피 모든 것을 시쳐내는 거주게. 계난 그거 므물 허는 거고 이 또 메역도 건 반드시 산모는 메역국을 먹으렐 허지 안허느냐. 그거도 모든 나쁜 피를 정화시키는 거.(그 나쁜 피 모든 것을 씻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메밀 허는 거고 또 미역도 건 반드시 산모는 미역국을 먹으라고 하지 않니. 그거도 모든 나쁜 피를 정화시키는 거.)

112004 @1 으.(으.)

112004 #1 계난 그거 흔 삼 일을 거 먹고 또 어린아이, 젓 만이 나오게 허젠 허면은 또 이제 장에 가근에 바닷고기 좋은 걸로 해영 사단 산모 맥이고. 또 이제 산모가 젓이 잘 아니 나와 가민 또 다시 장에 거튼 디 강 그 도새기 족발 있지 안 허냐이?(그러니까 그거 한 삼 일을 거 먹고 또 어린아이, 젓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장에 가서 바닷고기 좋은 걸로 해서 사다가 산모 먹이고. 또 이제 산모가 젓이 잘 안 나와 가면 또 다시 장에 같은 데 가서 그 돼지 족발 있지 않니?)

112004 @1 으.(으.)

112004 #1 그 족발 막 고와 가지고서 물과 거세기를 맥이면은 젓이 잘 나고.(그 족발 마구 고와 가지고서 물과 거세기를 먹이면 젓이 잘 나고.)

112004 @1 아, 족발로?(아, 족발로?)

112004 #1 족발 그걸로 만이 이용했저.(족발 그걸로 많이 이용했어.)

112004 @1 으.(으.)

112004 #1 옛날은 우유가 엇어부니깐이. 거 젓이 만이 나는 사람도 잇고 안 나는 사람도 잇으니깐이.(옛날은 우유가 없으니까. 거 젓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잇고 안 나는 사람도 잇으니까.)

112005 @1 으. 태어남 음식은 경 헛고예. 애기 목욕은 언제 헛니까?(으. 태어나서 음식을 그렇게 헛고요. 아기 목욕은 언제 헛니까?)

112005 #1 아기 뭐인가 목욕은 그 아기 난 때 산모가, 아 첨 삼성할망이 다 거 세기 해 준다. 계난 삼 일에 흔 번씩 해야 돼, 목욕을.(아기 뭐인가 목욕은 그 아기 난 때 산모가, 아 첨 삼신할머니가 다 거시기 해 준다. 그러니까 삼 일에 한 번씩 해야 돼, 목욕을.)

112005 @1 계난 나는 날 바로 목욕.(그러니까 낳는 날 바로 목욕.)

112005 #1 으, 바로 목욕한다. 삼성할망이.(으, 바로 목욕한다. 삼신할머니가.)

112005 @1 헛고예?(하고요?)

112005 #1 으, 계난 그 뱃속에 잇은 그 뭐인가 찢득찢득헌 그 거세기 탯물을 다 다까 줘야 돼. 그거 다 다까근에가 경헤근에가. 계난 그건 경험 엇인 사름은 못 허니까. 거시기 그 산파가 와 가지고서 처음엔 경헤났저. 글후제는 시어머니가 글후제 삼 일에 흔 번은 해 줘야 돼주.(으,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잇은 그 뭐인가 찢득찢득헌 그 거시기 탯물을 다 닦아 줘야 돼. 그거 다 닦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경험 없

는 사람은 못 하니까. 거시기 산과가 와 가지고서 처음엔 그랬었어. 그 후에 시어머니가 그 후에 삼 일에 한 번은 해 줘야 되지.)

112006 @1 애기 처음, 낭 처음 입는 옷을 뭐렌 걸읍니까?(아기 처음, 나서 처음 입는 옷을 뭐라고 말하니까?)

112006 #1 그걸 무신, 그걸.(그걸 무슨, 그걸.)

112006 @1 붓땃옷?(‘붓땃옷’?)

112006 #1 아, 붓적삼³³⁶이라 해 가지고.(아, ‘붓적삼’이라고 해 가지고.)

112006 @1 붓적삼이라고 험니까, 여기는?(‘붓적삼’이라고 험니까, 여기는?)

112006 #1 으, 으. 붓적삼.(으, 으. ‘붓적삼’.)

112006 @1 붓적삼예?(‘붓적삼’요?)

112006 #1 으, 그거는 왜 험 입지르고 허니.(으, 그거는 왜 해서 입히는가 하니.)

112006 @1 예.(예.)

112006 #1 어린아이가 그때 그 막 술이 엇는 때 거든이. 그 베가이, 베가 막 딱 딱헌 거 아이가?(어린아이가 그때 아주 살이 없는 때 거든. 그 베가, 베가 아주 딱 딱헌 거 아니냐?)

112006 @1 예.(예.)

112006 #1 그거 입지면은이 그 어린아이가 피부병, ㄱ롭지 안허여.(그거 입히면 그 어린아이가 피부병, 가렵지 않아.)

112006 @1 아.(아.)

112006 #1 그걸 안 입진 사름덜은 막 ㄱ로왕헌다, 막. 꼭 그것 붓, 창옷.(그걸 안 입힌 사람들은 아주 가려워한다, 아주. 꼭 그것 ‘붓’, 창옷.)

112006 @1 붓적삼.(‘붓적삼’.)

112006 #1 으, 붓적삼을 꼭 입히는 거여, 그거 필히 헌다.(으, ‘붓적삼’을 꼭 입히는 거야, 그거 필히 한다.)

112006 @1 그민 그거 붓적삼은 그 베로 만드는 거잖아예?(그럼 그거 ‘붓적삼’은 그 베로 만드는 거잖아요?)

112006 #1 으, 베로.(으, 베로.)

112006 @1 그민 여름 아니고 겨울에도?(그럼 여름 아니고 겨울에도?)

112006 #1 겨울에도 마찬가지로여.(겨울에도 마찬가지로야.)

112006 @1 아.(아.)

112006 #1 꼭 그걸 입져야만이 그 어린아이가 피부가 든든하고 피부병이 안 생기고 ㄱ롭지 안허여.(꼭 그걸 입혀야만 그 어린아이가 피부가 든든하고 피부병이 안 생기고 가렵지 않아.)

112006 @1 아, 겨울에도?(아, 겨울에도?)

336) ‘붓적삼’은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베옷을 말한다. ‘붓땃옷’, ‘붓땃창옷’이라고도 한다.

112006 #1 겨울에도.(겨울에도.)

112006 @1 겨울에 태어나도 빗적삼을 입혀야 되는 거라예?(겨울에 태어나도 ‘빗적삼’을 입혀야 되는 거지요?)

112006 #1 그 위에 복삭헌³³⁷⁾ 걸 입저도 돼지만 속에는 꼭 빗적삼을 입저야.(그 위에 복삭한 걸 입혀도 돼지만 속에는 꼭 ‘빗적삼’을 입혀야.)

112007 @1 예. 할망상 험니까?(예. ‘할망상’ 험니까?)

112007 #1 으?(으?)

112007 @1 할망상 험니까? 애기 태어나민?(‘할망상’ 험니까? 아기 태어나면?)

112007 #1 아니, 그거 잘 허지 안헌다.(아니, 그거 잘 하지 않는다.)

112007 @1 허지 안허여?(하지 않아?)

112007 #1 아니 허는 집은 정성 들인 거 할망상³³⁸⁾ 모셔 놓는다. 안거리에 죽은구들에 영 허고, 큰구들에 영 윽에 할망상이라 해 가지고 모셔 놔도 허고 거 정성 들인 집은 경허고 경 안 헌 집은.(안 하는 집은 정성 들인 거 ‘할망상’ 모셔 놓는다. 안채에 작은방에 이렇게 하고, 큰방에 이렇게 옆에 ‘할망상’이라 해 가지고 모셔 놓기도 하고 거 정성 들인 집은 그렇고 그렇게 안 한 집은.)

112007 @1 그니까 그 애기, 애기 아프지 말렌?(그니까 그 아기, 아기 아프지 말라고?)

112007 #1 으, 으. 경 헌다. 정성 들인 집은 경 헌다.(으, 으. 그렇게 한다. 정성 들인 집은 그렇게 한다.)

112008 @1 그 머리 잇잖아예. 이 애기 머리 베넷머리렌 험니까? 벳속머리엔 험니까?(그 머리 잇잖아요. 그 아기 머리 베넷머리라고 험니까? ‘벳속머리’라고 험니까?)

112008 #1 벳속머리엔 허주.(‘벳속머리’라고 하지.)

112008 @1 벳속머리예?(베넷머리요?)

112008 #1 으.(으.)

112008 @1 이 벳속머리는 자릅니까, 어떻 처리를 험니까?(이 벳속머리는 자릅니까, 어떻게 처리를 험니까?)

112008 #1 그건 자르지 안허영 그자 그, 얼마 아니 웬 그 한 육 개월 이상 돼어야 그거 즐른다. 그 전인 그 크지 안허영 안 즐르주.(그건 자르지 않아서 그저 그, 얼마 안 된 그 한 육 개월 이상 돼어야 그거 자른다. 그 전엔 그 크지 않아서 안 자르지.)

112008 @1 그 즐르는 거 초과일 돼사 즐를 거 아니?(그 자르는 거 초과일 돼야 자를 거 아니?)

112008 #1 아니, 초과일 돼서 즐르는 사름, 경허는 사름도 잇고 아기가 막 그것이 더퍼져 가민 아무 때나 즐르고. 정성 허는 사름은 초과일꺼지 기다령 즐르는 사

337) ‘복삭헌다’는 폭신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다.

338)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신할머니에게 감사하고 기원한다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 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말한다.

름 잊주게.(아니, 초과일 돼서 자르는 사람,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기가 아주 그것이 덮여 가면 아무 때나 자르고. 정성 하는 사람은 초과일까지 기다려서 자르는 사람 있지.)

112008 @1 겐 뱃속머리렌 곶을 거예?(그래서 ‘뱃속머리’라고 말할 거요?)

112008 #1 으.(으.)

112008 @1 베넷머리가 아니고 뱃속머리?(베넷머리가 아니고 ‘뱃속머리’?)

112008 #1 그 베넷머리엔도 허고. 베넷저고리엔 허니까. 그거 뱃속에서.(그 베넷머리라고도 하고. 베넷저고리라고 하니까. 그거 뱃속에서.)

112008 @1 여기서 뒤편 곶아, 여깃말로. 한동에서?(여기서 뒤편이라고 말해, 여깃말로. 한동에서?)

112008 #1 베넷머리엔 한다, 베넷머리.(베넷머리라고 한다, 베넷머리.)

112008 @1 베넷머리, 뱃속머리예?(베넷머리, 베넷머리요?)

112008 #1 뱃속머리엔도 허고 베넷머리엔도 보통 뱃속머리엔 헛저.(‘뱃속머리’라고도 하고 베넷머리라고도 보통 ‘뱃속머리’라고 했어.)

112009 @1 애기덜 옛날에는 천연두나 홍역 하영 걸러났지예?(아기들 옛날에는 천연두나 홍역 많이 걸렸었어?)

112009 #1 하영 헛저, 거.(많이 했어, 거.)

112009 @1 거민 거 예방허젠 민간요법이나 혹시 잊어났수과?(그럼 거 예방하려고 민간요법이나 혹시 있었습니까?)

112009 #1 가령 천연두가 오면은이 막 어린아이가 고열이 나고 막 헛소리한다. 하도 경혜 가면은 그 천연두 혈 적에는이 꼭 구신 같은다. 놈의 집이 뉘 이신 거 갔다 도렌꺼지 허주게. 경허면 부모가 그걸 아이 허면은 아이가 울음을 안 그친다. 경혜영 그 집이 가면은 그게 잇는 거라, 귀신거치.(가령 천연두가 오면 아주 어린아이가 고열이 나고 마구 헛소리한다. 아주 그래 가면 그 천연두 할 적에는 꼭 귀신 같아. 남의 집에 뉘 잇는 거 갔다 달라고까지 하지. 그러면 부모가 그걸 안 하면 아이가 울음을 안 그친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게 잇는 거야, 귀신같이.)

112009 @1 하하.(하하.)

112009 #1 귀신거치 그게 잇곡이. 그 천연두가 들어오면은 상을 안 받는다. 상 출령 먹지 안허여. 부모덜이.(귀신같이 그게 있고. 그 천연두가 들어오면 상을 안 받는다. 상 차려서 먹지 않아. 부모들이.)

112009 @1 그럼?(그럼?)

112009 #1 웨냐허면 그 손님이 들어왔젠 허여, 손님. 그 마누라가 손님이엔 한다. 천연두가 손님. 그 손님 잘못헛당은 그 이제 그 사고 나주게. 겐 하도 경 혜 가면은이 하도 보채 가면 무당 데려다가 막 빈다, 빌어. 그 뉘인가 그 천연두 할머니 안테 빌면은 어린아이가 줌.(웨냐하면 그 손님이 들어왔다고 해, 손님. 그 마누라가 손님이라고 한다. 천연두가 손님. 그 손님 잘못헛다가 그 이제 그 사고 나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 가면 너무 보채 가면 무당 데려다가 마구 빈다, 빌어. 그 뉘인가

그 천연두 할머니에게 빌면 어린아이가 줌.)

112009 @1 으.(으.)

112009 #1 그런 때에 잘못 거시기 행은 아이가 불구가 될 수가 있어. 느네 일가에도 저 봉호엔 헌 사름 셔낫저.(그런 때에 잘못 거시기 해서는 아이가 불구가 될 수가 있어. 너희 일가에도 저 봉호라고 하는 사람 있었어.)

112009 @1 으.(으.)

112009 #1 그디 눈이 혼착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뭐인가 그 어린아이가 일주일 전에 멜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 집 안에서.(거기 눈이 한쪽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뭐인가 그 어린아이가 일주일 전에 멀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집 안에서.)

112009 @1 메가 뭐?(메가 뭐?)

112009 #1 멜, 멜.(멀치, 멀치.)

112009 @1 아, 멜?(아, 멀치?)

112009 #1 멜을 그냥 그 집안에서 그걸 지지면은이 멜이 눈 거튼 거 튀어날 거 아니냐. 경허민 거 그걸 즉각. 게난 봉호도 그거. 그런 일이 만았주, 옛날은.(멀치를 그냥 그 집안에서 그걸 지지면 멀치가 눈 같은 거 튀어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거 그걸 즉각. 그러니까 봉호도 그거. 그런 일이 많았지, 옛날은.)

112009 @1 아이고.(아이고.)

112009 #1 게난 봉호도 편찍했다가 경헨 거 멜 그만 그 어디서 가져와시난 몰랑 그 집이서 먹엇단. 그자 일주일 동안엔이 웨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안 먹고 막 정성을 허는 거라.(그러니까 봉호도 아무렇지도 았았다가 그래서 거 멀치 그만 그 어디서 가져오니까 몰라서 그 집에서 먹엇다가. 그자 일주일 동안엔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안 먹고 아주 정성을 하는 거야.)

112009 @1 상 차리지 말라는 거는 무사과?(상 차리지 말라는 거는 왜입니까?)

112009 #1 건, 그건 마누라, 그때는 천연두가 마누라랏주. 마누라는 큰 손님이라 그래서.(그건, 그건 마누라, 그때는 천연두가 마누라였지. 마누라는 큰 손님이라 그래서.)

112009 @1 으.(으.)

112009 #1 그 사름을 존경, 그 구신을 존경하는 뜻에서 상을 출령 먹으면 버르장이 없다고 해서 안 출령 먹엇주.(그 사름을 존경, 그 귀신을 존경하는 뜻에서 상을 차려서 먹으면 버릇이 없다고 해서 안 차려서 먹엇지.)

112009 @1 그민 상 출리지 말앙 바닥에서 먹는 거?(그럼 상 차리지 았고 바닥에서 먹는 거?)

112009 #1 으, 바닥에서.(으, 바닥에서.)

112009 @1 아.(아.)

112009 #1 마누라 그 천연두 올 때는 그렇게 부모도 신경 쓰고 아이덜토 상당히 예민헌다. 겐 욱도 못 허여. 욱허민 즉시 거 척 헤 가지고서 아기가 막 울기 시

작하면 붉도록 안 갠다. 경허민 심방 해다가 빌어야만이 돌아오고. 걸로 보면은 첨 미신 아니랄 수가 있어.(마누라 그 천연두 올 때는 그렇게 부모도 신경 쓰고 아이들도 상당히 예민하다. 그래서 욕도 못 해. 욕하면 즉시 거 척 해 가지고서 아기가 마구 울기 시작하면 밝도록 안 갠다. 그러면 무당 해다가 빌어야만 돌아오고. 걸로 보면 첨 미신 아니랄 수가 없어.)

112009 @1 그지예. 멜 먹어도 안 돼고. 멜 말고 다른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게 음식이 뭐 잇수과?(그렇지요. 멸치 먹어도 안 되고. 멸치 말고 다른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게 음식이 뭐 있습니까?)

112009 #1 주로 멜이 만이 거세기 해났주. 그 웨로는 무시거 먹는 거 다 필요하니까.(주로 멸치가 많이 거시기 했었어. 그 외로는 무엇 먹는 거 다 필요하니까.)

112010 @1 음. 애기덜 출산허게 돼면은, 임신해 가지고 출산허게 돼면 금기해야, 아까 뭐 상 난 딴 안 간다 해신디 그거 말고 또 허지 말아야 할 거 잇수과?(음. 아기들 출산하게 되면, 임신해 가지고 출산하게 되면 금기해야, 아까 뭐 상 난 딴 안 간다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까?)

112010 #1 금기도 무시거 오리를 먹지 말렌 헛고. 오리는 웨 먹지 말렌 헛는고 허니 오리발이 다 이런 디 연결이 뻬져.(금기도 무엇 오리를 먹지 말라고 헛고. 오리는 왜 먹지 말라고 헛는가 하니 오리발이 다 이런 데 연결이 뻬어.)

112010 @1 으.(으.)

112010 #1 영 연결뻬난 오리발 먹으면 어린아이가 손이 부뻬뻬 헤근에 것도 정성 헤영. 그 웨로는 뭐 금기시헌 게 엇다.(이렇게 연결되니까 오리발 먹으면 어린아이가 손이 붙는다고 해서 것도 정성 해서. 그 외로는 뭐 금기시헌 게 엇다.)

혼례

112011 @1 이제는 저기 혼례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이제는 저기 혼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2011 #1 으.(으.)

112011 @1 구식 결혼식, 옛날 결혼식.(구식 결혼식, 옛날 결혼식.)

112011 #1 으, 옛날 결혼식.(으, 옛날 결혼식.)

112011 @1 결혼할 때 옛날에 어떻 헤났수과? 절차, 결혼식 허젠 허민?(결혼할 때 옛날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절차, 결혼식 하려고 하면?)

112011 #1 절차는 어떻 헛는고 허니 날짜를 받을 거 아니가이?(절차는 어떻게 헛는가 하니 날짜를 받을 거 아니냐?)

112012 @1 게니까. 소개허는 거부터 헛서, 중매허는 거부터.(그러니까. 소개하는 거부터 하세요, 중매하는 거부터.)

112012 #1 결혼은 그때는 주로 동네 사름끼리 일가끼리 중매를 허지 안헤사이?(결혼은 그때는 주로 동네 사람끼리, 일가끼리 중매를 하지 않았니?)

112012 @1 으.(으.)

112012 #1 중매는 우선 신랑 집이서 가근에 중매하는 거 아니가이?(중매는 우선 신랑 집에서 가서 중매하는 거 아니냐?)

112012 @1 으.(으.)

112012 #1 경허고 또 이제 여자 집이선 그 뭐인가 그 신랑, 사위 뵈 아이가 얹 전허면은 또 거기서 또 이제 자원 사위란 게 있나. 자원해근에 우리 집이 장게오라 해근에 해서.(그리고 또 이제 여자 집에선 그 뭐인가 그 신랑, 사위 될 아이가 얹 전 하면 또 거기서 또 이제 자원 사위란 게 있어. 자원해서 우리 집에 장가오라 해서 해서.)

112012 @1 거 무슨 사위마씨?(거 무슨 사위요?)

112012 #1 거 뭐인가 즈원 사위.(거 뭐인가 자원 사위.)

112012 @1 조혼 사위?(조혼 사위?)

112012 #1 아니, 즈원, 자원 사위.(아니, 자원, 자원 사위.)

112012 @1 아, 자원 사위.(아, 자원 사위.)

112012 #1 자원 사위. 건 데릴사위.(자원 사위. 건 데릴사위.)

112012 @1 예, 데릴사위.(예, 데릴사위.)

112012 #1 육지 표현 말론 데릴사위 허는 거주.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렇게. 그렇게 해근에가 그 결혼이 성립되는 거주.(육지 표현 말론 데릴사위 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 들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 결혼이 성립되는 거지.)

112012 @1 예, 예.(예, 예.)

112012 #1 그 중진애비를 통해 가지고서 상대방에 가 가지고서 허면은 허가를 허면은 거기서 이제는 난 날 난 시를 이거 거기서 적어 준다. 자기가 허가, 허락을 허면은 부모가 신부 난 날 난 시를 적어 주면은, 이제 그 남자 남자 그 뭐인가 스 주 거 난 날 난 시 들이 거 봐 가지고 정시안테 강 거 고남을 현다.(그 중진애비를 통해 가지고서 상대방에 가 가지고서 하면 허가를 하면 거기서 이제는 난 날 난 시를 이거 거기서 적어 준다. 자기가 허가, 허락을 하면은 부모가 신부 난 날 난 시를 적어 주면, 이제 그 남자 남자 그 뭐인가 사주 거 난 날 난 시 들이 봐 가지고 지 관에게 가서 거 맞추고 따져 본다.)

112012 @1 고남을 해?(맞추고 따져 봐?)

112012 #1 으, 스주 고남³³⁹).(으, 사주 맞추기)

112012 @1 아, 그걸 스주 고남이렌 험니까?(아, 그걸 사주 ‘고남’이라고 합니까?)

112012 #1 으, 고남이엔 현다. 스주 고남. 고남 해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맞지 안허면은 저 거세기 험 수도 있나. 그것이 성립이 안 돼영.(으, ‘고남’이라고 한다. 사주 맞추기. 맞추기 해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맞지 않으면 저 거시기 할 수도 있어. 그것이 성립이 안 되어서.)

112012 @1 으.(으.)

339) ‘고남’은 이것저것 살펴보거나 맞추고 따져 보는 것을 말한다.

112012 #1 맞으면은 이제는 맞텐 해근에 이제는 그 신부 집에 보낼 거 아니가?
(맞으면 이제는 맞는다고 해서 이제는 그 신부 집에 보낼 거 아니냐?)

112012 @1 예.(예.)

112012 #1 경허면은 맞텐 해근에 신랑칩이서, 육지는 신부칩이서 날을 보는데
여기는, 우리 제주는 신랑칩이서 본다. 신랑칩이서 날을 봐 가지고서 결혼 날짜를
정해 가지고서 그 신부 집에 전해 주는 거.(그러면 맞는다고 해서 신랑 집에서, 육
지는 신부 집에서 날을 보는데 여기는, 우리 제주는 신랑 집에서 본다. 신랑 집에서
날을 봐 가지고서 결혼 날짜를 정해 가지고서 그 신부 집에 전해 주는 거.)

112012 @1 예.(예.)

112012 #1 경허면은 그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주. 사돈끼리 성립이 돼 가지고
서. 그 결혼, 결혼하게 되면은 삼 일 전부터 도야지를 잡아야 돼여이.(그러면 그 결
혼이 성립이 되는 거지. 사돈끼리 성립이 돼 가지고서. 그 결혼, 결혼하게 되면 삼
일 전부터 돼지를 잡아야 돼.)

112012 @1 으, 삼 일 전에?(으, 삼 일 전에?)

112014 #1 으. 삼 일 전에 도야질 잡아 가지고서 그 결혼 이바지 날,
이바지 날이라고 해 가지고이 그 신랑칩이서 신부칩더레 쓸 뒨, 부잣집이선 쓸도
시켜 가고 고기도 놓고 막 해 가지고서 그 뒨 미녕 거튼 거 무시거 거 흥세미녕³⁴⁰
이라고 해 가지고서이.(으 삼일 전에 돼지 잡아 가지고서 그 결혼 전날은 이바지
날, 이바지 날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쌀 뒨, 부잣집에선 쌀
도 실어 가고 고기도 놓고 마구 해 가지고서 그 무명 같은 거 무엇 거 ‘흥세미녕’이
라고 해 가지고서.)

112014 @1 으.(으.)

112014 #1 큰 상자레 봐 가지고서 그거하고 또 쌀 거튼 거 고기 거튼 거 이바
지 날 처갓집이 보낸다.(큰 상자에 봐 가지고서 그거하고 또 쌀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바지 날 처갓집에 보낸다.)

112014 @1 이바지 날에 보내는 것과?(이바지 날에 보내는 겁니까?)

112014 #1 으, 이바지날.(으, 이바지날.)

112014 @1 아.(아.)

112014 #1 그거, 그거.(그거, 그거.)

112014 @1 쓸이랑 음식이랑 흥세미녕이랑.(쌀이랑 음식이랑 ‘흥세미녕’이랑.)

112014 #1 으, 그렇게 해근에 그거 보낸다. 게민 육지는 그거 함 저근에, 그
함 정 간덴 허는 거주.(으, 그렇게 해서 그거 보낸다. 그럼 육지는 그거 함 저서, 그
게 함 저서 간다고 하는 거지.)

112014 @1 예.(예.)

112014 #1 그래 가지고 신랑안티 막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막 돈 내령 해

340) ‘흥세미녕’은 ‘흥세함’에 넣는 무명을 가리킨다. ‘흥세함’이란 혼례를 치를 때 신랑집에서 마련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 집에 가는 예물 함을 말한다.

근에, 돈 내렝 해 가지고서 잔치 아시날 헛기 때문에 일가 사름덜이 막 모여라게.
(그래 가지고 신랑한테 마구 들어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마구 돈 내라고 해서, 돈
내라고 해 가지고서 잔치 전날 헛기 때문에 일가 사람들이 마구 모였어.)

112014 @1 예.(예.)

112014 #1 겐 신랑안티 돈, 그 친구덜이 막 돈 내렝 허민 돈 받았 그, 그날 수
고헌 부엌에 잇는 사름, 뭐 헌 사름 주는 거.(그래서 신랑에게 돈, 그 친구들이 마
구 돈 내라고 하면 돈 받아서 그, 그날 수고한 부엌에 잇는 사람, 뭐 한 사람 주는
거.)

112014 @1 아, 그민 이바지헛 그 다음날.(아, 그럼 이바지해서 그 다음날.)

112014 #1 이바지 끝나면 뒷날은 이제 멧 시에 식 할 걸로 해 가지고서 이제는
이제 통보할 거 아니가이?(이바지 끝나면 뒷날은 이제 멧 시에 식 할 걸로 해 가
고서 이제는 이제 통보할 거 아니냐?)

112014 @1 으.(으.)

112014 #1 신랑이 멧 시에 그디 들어갑니다. 경허면은 신랑이 가령 열 시에 간
덴 허면은 신부침이선 말야 상을 다 출려야 할 거 아니가이. 신부상, 신랑상 뭐인가
그 우시상이라고 해서. 옛날은 귀허니까 다 출린다.(신랑이 멧 시에 거기 들어갑니
다. 그러면 신랑이 가령 열 시에 간다고 하면 신부 집에선 말이야 상을 다 차려야
할 거 아니냐. 신부상 신랑상 뭐인가 그 우시상이라고 해서. 옛날은 귀허니까 다 차
린다.)

112014 @1 으.(으.)

112016 #1 경허민 출리는 사람은 아무나 거 출릴 수가 엇어. 것도 그 동네에서
전문으로 허는 사름이 잇주. 일가에서. 겐 그 사름덜이 책임정 다 그거 상을 다 출
령 놔두면은 다 출령 놔두면은 될 거 아니가. 경허민 이제 신랑이 영 들어가면 처
음에는 뭐인가 예장을 들인다, 예장이.(그러면 차리는 사람은 아무나 거 차릴 수가
없어. 것도 그 동네에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일가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져서 다 그거 상을 다 차려서 놔두면은 다 차려서 놔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러
면 이제 신랑이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인가 예장을 들인다, 예장이.)

112016 @1 으.(으.)

112016 #1 그 신랑허고 따라갈 그 뭐인가 흥세 싸개엔 현다 것ㄴ라이. 흥세 싸
개가 아, 침 흥세 우시가 흥세 우시가 그 예장을 들이면은, 그 예장을 들이면은 그
신부 집이선 그 문전에서이 그 문전제 지내는 거광 마찬가지로 문전에서 그 저 뭐
인가 향 피우고 상 놔 가지고서 그 이디서 받아 가지고 그거 오케이 허면은 그 신
랑이 들어가는 것이고 빠꾸³⁴¹⁾ 허면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그 신랑하고 따라갈 그
뭐인가 혼서 싸개라고 한다, 것보고. 혼서 싸개가 아, 침 혼서 위요가 그 예장을 들
이면, 그 예장을 들이면 그 신부 집에선 그 문전에서 그 문전제 지내는 거와 마찬
가지로 문전에서 그 저 뭐인가 향 피우고 상 놔 가지고서 그 여기서 받아 가지고

341) ‘빠꾸’는 영어의 ‘back’의 일본어식 발음한 것이다. 여기서는 퇴짜의 의미로 쓰였다.

그거 오케이 하면 그 신랑이 들어가는 것이고 퇴짜 하면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112016 @1 으. 그 예장이라는 게 뭐과?(으. 그 예장이라는 게 뭘니까?)

112016 #1 예장이라는 것은이.(예장이라는 것은.)

112016 @1 예.(예.)

112016 #1 가령 우리 집이 몇 찌 아덜 누가, 누가 아무 디 장계를 갑니다.
(가령 우리 집이 몇 찌 아덜 누가, 누가 아무 데 장가를 갑니다.)

112016 @1 으.(으.)

112016 #1 계난 허가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편지주게. 편지고 그것이 계약서라.(그러니까 허가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편지지. 편지고 그것이 계약서야.)

112016 @1 아, 혼인.(아, 혼인.)

112016 #1 혼인 서약서나 마찬가지로.(혼인 서약서나 마찬가지로야.)

112016 @1 계난 신랑 집이서 쓰큰게예?(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쓰겠네요?)

112016 #1 으, 신랑 집이서 쓰는 거. 겐 잘못됐시민 신부 집이서 안 받았 빠꾸
혈 수도 있져.(으, 신랑 집에서 쓰는 거. 그래서 잘못됐으면 신부 집에서 안 받아서
퇴짜 할 수도 있어.)

112016 @1 빠꾸허면 돌아와야 돼?(퇴짜 하면 돌아와야 돼?)

112016 #1 돌아와야.(돌아와야.)

112016 @1 하하하.(하하하.)

112016 #1 거 돌아와야 돼주, 돌아와야 될 거 그디서 시비가 나면 그 뭐인가 그
결혼이 파탄이 난다. 결혼해도 파탄이 난다.(거 돌아와야 되지, 돌아와야 될 거 거
기서 시비가 나면 그 뭐인가 그 결혼이 파탄이 난다. 결혼해도 파탄이 난다.)

112016 @1 하하하. 예장 잘못됐다는 건 글자가 틀렸다는 것과?(하하하. 예장 잘못
됐다는 건 글자가 틀렸다는 겁니까?)

112016 #1 글자가 틀렸다고도 허고이 상대방이 그 처갓집을 존중 안 했다고 그
거.(글자가 틀렸다고도 하고 상대방이 그 처갓집을 존중 안 했다고 그거.)

112016 @1 아.(아.)

112016 #1 계난 우리, 우리 저 웃동네 부칩³⁴²이 태균이 있지 안허냐이?(그러니
까 우리, 우리 저 윗동네 부씨 집안에 태균이 있지 않니?)

112016 @1 예, 예.(예, 예.)

112016 #1 태균이 아덜 지금 그 큰아덜 그 이름이 뭇고? 그디가 어디 저 태흥
리 옛날 장계를 갖져.(태균이 아들 지금 그 큰아덜 그 이름이 뭇지? 거기가 어디 저
태흥리 옛날 장가를 갔어.)

112016 @1 으.(으.)

112016 #1 태흥리 장계를 갖는데 여기에서는 그 예장을, 그 예장을 쓸 때 사돈
은 웃지는 데서 처사엔도 허고 뭐인가 주사엔도 경허고 쓰주게.(태흥리 장가를 갔는

342) '부칩'은 성씨가 부씨인 집안을 가리킨다.

데 여기에서는 그 예장을, 그 예장을 쓸 때 사돈을 높이는 데서 처사라고도 하고 뤄인가 주사라고도 그러고 쓰지.)

112016 @1 어.(어.)

112016 #1 보통은 처사엔 처사엔 현다. 보통은 뭘 생원이엔도 허고 경허는디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그 정시질을 허곡 허니깐이. 아마 훈장, 훈장 헤난 모양이라이.(보통은 처사라고 처사라고 한다. 보통은 뭘 생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그 지관질을 하고 하니까. 아마 훈장, 훈장 했던 모양이야.)

112016 @1 아.(아.)

112016 #1 그때이 그 석용이 아방이, 안익이로구나. 안익이 장계갈 때이.(그때 그 석용이 아버지가, 안익이로구나. 안익이 장가갈 때.)

112016 @1 으.(으.)

112016 #1 석용이 아방이 흥세 우시 허레 갖는데 그 흥세를 아, 침 그 뤄인가.(석용이 아버지가 혼서 위요 하러 갔는데 그 혼서를 아, 침 그 뤄인가.)

112016 @1 예장.(예장.)

112016 #1 예장을 들이니까 그디서 봐 가지고서 아, 사람을, 우리 집을 무시했다고. 왜 생원이엔 썼느냐, 훈장인데. 경허난 이젠 안 받으면서 허니까, 석용이 아방도 보통이 아니주게. 겐 석용이 아방이 케민 당신네 훈장이민 훈장증 가져 오시오. 훈장은 어디서 훈장증 주는고 허니 성균관에서 준다.(예장을 들이니까 거기서 봐 가지고서 아, 사람을, 우리 집을 무시했다고. 왜 생원이라고 썼느냐, 훈장인데. 그러니까 이젠 안 받으면서 하니까, 석용이 아버지도 보통이 아니지. 그래서 석용이 아버지가 그럼 당신네 훈장이면 훈장증 가져 오시오. 훈장은 어디서 훈장증 주는고 하니 성균관에서 준다.)

112016 @1 아.(아.)

112016 #1 저 제주도 저 향교가 잇주. 계난 계난 훈장은 안 받았거든이. 석용이 아방도 훈장증 받았으면 훈장증 내노라고, 훈장 나가 고쳐 쓰겠다고. 게 가지고 경허니깐 그처럼 훈장증 엮이니까 이제는 저쪽이 오히려 당허는 거 아니? 계난 이제는 이 우시 온 사름이 보통 사름이 아니거든. 이 훈장증 내노라까지 허니까 지네가 잘못, 이 훈장증 엮는데.(저 제주도 저 향교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훈장은 안 받았거든. 석용이 아버지도 훈장증 받았으면 훈장증 내놓으라고, 훈장 내가 고쳐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것처럼 훈장증 없으니까 이제는 저쪽이 오히려 당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위요 온 사름이 보통 사름이 아니거든. 이 훈장증 내놓으라까지 하니까 자기네가 잘못, 이 훈장증 없는데.)

112016 @1 으.(으.)

112016 #1 계난 이젠 해 가니깐 그대로 들어오렌 헛는데 거 안 뤄엇저, 그거.(그러니까 이젠 해 가니까 그대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거 안 되었어, 그거.)

112016 @1 아, 결혼 안 뤄수과?(아, 결혼 안 뤄습니까?)

112016 #1 아, 결혼했는데 어떻 석 덜 만이 거 헤어져 불언.(아, 결혼했는데 어

땡게 석 달 만에 거 헤어져 버렸어.)

112016 @1 아이구.(아이구.)

112016 #1 그런 일이 종종 있나.(그런 일이 종종 있어.)

112016 @1 아.(아.)

112016 #1 거 텃세 해 가지고서 상대방을 신부 집에서 신랑 집을 제압하려고 허다가 그게 잘못해 가지고서.(거 텃세 해 가지고서 상대방을 신부 집에서 신랑 집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해 가지고.)

112016 @1 아.(아.)

112016 #1 그런 일 종종 있어라, 옛날은.(그런 일 종종 있었어, 옛날은.)

112016 @1 아. 계민 예상 쓰는 사람도 여기 신랑 집에서 아무나 못 쓰는 거다 예?(아. 그럼 예상 쓰는 사람도 여기 신랑 집에서 아무나 못 쓰는 거네요?)

112016 #1 으, 그 글씨도 잘 써야 뉘곡이, 글씨도 잘 써야 뉘곡. 그거 글씨를 잘 못 쓰면 거디서 비웃는다. 허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을 택해서 쓴다.(으, 그 글씨도 잘 써야 되고, 글씨도 잘 써야 되고. 그거 글씨를 잘못 쓰면 거기서 비웃는다. 허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을 택해서 쓴다.)

112016 @1 문구 들어가는 것도?(문구 들어가는 것도?)

112016 #1 문구 들어가는 건 공식이고, 건 공식이여.(문구 들어가는 건 공식이고, 건 공식이야.)

112016 @1 공식?(공식?)

112016 #1 으.(으.)

112016 @1 아, 정해져 잇는 거?(아, 정해져 잇는 거?)

112016 #1 으, 정해져 잇는 거.(으, 정해져 잇는 거.)

112013 @1 아, 문구가 잇는 거예. 거민 저기 아까 막펜지라는 거 나와신디?(아, 문구가 잇는 거요. 그럼 저기 아까 ‘막펜지’라는 거 나왔는데?)

112013 #1 막펜지³⁴³란 건 거 스주가 좋았젠 막펜지를 보낸다.(‘막펜지’란 건 거 사주가 좋았다고 ‘막펜지’를 보낸다.)

112013 @1 아, 중매할 때?(아, 중매할 때?)

112013 #1 으, 중매해근에가 그 뭐인가 중매해서 이제 그 서로가 허가할 거 아니가이?(으, 중매해서 그 뭐인가 중매해서 이제 그 서로가 허가할 거 아니냐?)

112013 @1 으.(으.)

112013 #1 허가해서 택일 허면은 막펜지를, 막펜지를 보낸다. 택일 행.(허가해서 택일 하면 ‘막펜지’를, ‘막펜지’를 보낸다. 택일 해서.)

112013 @1 아, 그럼 신랑 집이서가 신부집이 강, 신부 난 시를 받아 왕 스주를 보니까.(아, 그럼 신랑 집에서가 신부 집에 가서, 신부 난 시를 받아 와서 사주를 보니까.)

343)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 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말한다.

112013 #1 으, 그 스주가 뭐인가 좋덴, 좋덴 허면은이.(으, 그 사주가 뭐인가 좋다고, 좋다고 하면.)

112013 @1 예.(예.)

112013 #1 우선 이제 그 막펜지를 보내주, 그것ㄴ라 막펜지엔 한다. 아, 이제 스주가 좋으니까 잘 됐다. 결혼하게 됐다, 사돈 맺게 됐다 허는 펜지.(우선 이제 그 '막펜지'를 보내지, 그것보고 '막펜지'라고 한다. 아, 이제 사주가 좋으니까 잘 됐습니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돈 맺게 됐습니다 하는 편지.)

112013 @1 켄디 무사 막펜지과?(그런데 왜 '막펜지'입니까?)

112013 #1 막펜지란 것은이.(막펜지'란 것은.)

112013 @1 마지막 펜지? 그런 거 아니?(마지막 편지? 그런 거 아니?)

112013 #1 것은 사돈칩이 스정허는 것이 거 마지막이주게.(것은 사돈집에 사정하는 것이 거 마지막이지.)

112013 @1 신랑 집에서 사돈칩 쪽에?(신랑 집에서 사돈집 쪽에?)

112013 #1 으, 으.(으, 으.)

112013 @1 아.(아.)

112013 #1 그계 예의주게. 거 고맙습니다 혜영 펜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허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그계 예의지. 거 고맙습니다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허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2014 @1 예. 아까 이바지로 보내는 건 쌀 잇고.(예, 아까 이바지로 보내는 건 쌀 잇고.)

112014 #1 쌀도 잇고 고기 거 뭐, 물품 거, 흥세미녕이라고 해 가지고서이 미녕도 허고. 또 미녕도 허고 또 이거 저 비, 비단이 아니고 것ㄴ라 뭐렌 허느니? 저, 아이고.(쌀도 잇고 고기 거 뭐, 물품 거, '흥세미녕'이라고 해 가지고서 무명도 하고. 또 무명도 하고 또 이거 저 비, 비단이 아니고 것보고 뭐라고 하니? 저, 아이고.)

112014 @1 멩주?(명주?)

112014 #1 어, 멩주. 멩주 두어 필씩 보내야 된다.(어, 명주. 명주 두어 필씩 보내야 된다.)

112014 @1 어쨌든 이바지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이 보내는 거?(어쨌든 이바지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거?)

112014 #1 으, 그계 이바지.(으, 그계 이바지.)

112014 @1 예, 예. 흥세미녕도 신랑집에서 신부집이 보내는 거예, 이바지 날, 전달예?(예, 예. '흥세미녕'도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거요, 이바지 날, 전달요?)

112014 #1 으, 으. 그거 ㄴ짜 보내는 거.(으, 으. 그거 같이 보내는 거.)

112015 @1 ㄴ짜 보내는 거. 그럼, 결혼할 때 혼수는 여자가 해 오는 거잖아예?(같이 보내는 거. 그럼, 결혼할 때 혼수는 여자가 해 오는 거잖아요?)

112014 #1 계.(그래.)

112014 @1 뭐, 뭐 헤냏수과?(뭐, 뭐 했었습니까?)

112014 #1 여자는 그때 그 당시는 우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지만. 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불.(여자는 그때 그 당시는 우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지만. 주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불.)

112014 @1 이불.(이불.)

112014 #1 이불, 요.(이불, 요.)

112014 @1 으.(으.)

112014 #1 이불, 요. 자기 더끝 거. 가령 뭐 이불을 두 채 허는 디가 드물었저, 옛날은.(이불, 요. 자기 덮을 거. 가령 뭐 이불을 두 채 하는 데가 드물었어, 옛날은.)

112014 @1 예.(예.)

112014 #1 계난 시부모네 혼 채 해야 돼고 자기네 거세기 해야 돼고. 그때 그 자기 재산이라곤 퀘를 해야 돼고이. 퀘이.(그러니까 시부모네 한 채 해야 되고 자기네 거시기 해야 되고. 그때 그 자기 재산이라곤 퀘를 해야 되고. 퀘.)

112014 @1 아, 퀘.(아, 퀘.)

112014 #1 퀘 해야 돼고 또 다시 요강 단지란 거 꼭 필요한 거 그거 옛날에 뵈산디 그거 요강 단지. 그것이 신부가 허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가 또 이제 시집 식구덜안티 옷을 해야 돼. 그 이바지 간 돈으로이.(퀘 해야 되고 또 다시 요강 단지란 거 꼭 필요한 거 그거 옛날에 뵈인지 그거 요강 단지. 그것이 신부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가 또 이제 시집 식구들한테 옷을 해야 돼. 그 이바지 간 돈으로.)

112014 @1 으.(으.)

112014 #1 요새는 물품으로 안 허고 돈으로 천만 원이여, 얼마여 준다. 경허면은 천만 원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신부가 신랑 침에 시어멍 시아방 나시 옷도 해야 돼고.(요새는 물품으로 안 하고 돈으로 천만 원이여, 얼마여 준다. 그러면 천만 원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신부가 신랑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뭉 옷도 해야 되고.)

112014 @1 그건 요즘 아니고, 옛날에 삼촌네 결혼할 때도 경 헤냏수과?(그건 요즘 아니고, 옛날에 삼촌네 결혼할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112014 #1 으, 경 헤냏저.(으, 그렇게 했었어.)

112014 @1 옷 사 입을 정도까지?(옷 사 입을 정도까지?)

112014 #1 거 옷 사 입을 정도는 그 그 헤 왔주게. 가령 옷은 안 해도 보선 거 튼 거 그런 거이. 옷은 힘들고 그 당시에는 보선 거 튼 거, 양말 거 튼 거 그건 헤 왔저.(거 옷 사 입을 정도는 그 그 헤 왔지. 가령 옷은 안 해도 버선 같은 거 그런 거. 옷은 힘들고 그 당시에는 버선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그건 헤 왔어.)

112017 @1 그럼 이바지날 가문잔치³⁴⁴⁾ 허는 거?(그럼 이바지날 ‘가문잔치’ 하는 거?)

344)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잔치를 말한다.

112017 #1 으, 가문잔치.(으, ‘가문잔치’.)

112017 @1 가문잔치예. 가문잔치 허면은 동네 사름들.(‘가문잔치’요. ‘가문잔치’ 하면 동네 사름들.)

112017 #1 다 모여드느네.(다 모여들어.)

112017 @1 아, 예.(아, 예.)

112017 #1 다 모여들어근에 도야지고길 그날 아시날 다 썬다. 뒷날 썰젠 허민 바쁘난 아시날 다 썰어똥, 솥양 다 썰어똥 겐 도야지덜 썰어 나면은, 도야지 귀할 때, 고기가 귀해나세이. 겐 일가 사름이나 동네 사름 전부 다 그거 반 낱 다 도야지 배설 거튼 거 뭐 다 테와 주고.(다 모여들어서 돼지고길 그날 전날 다 썬다. 뒷날 썰려고 하면 바쁘니까 전날 다 썰어똥서, 삶아서 다 썰어똥서 그래서 돼지들 썰고 나면, 돼지 귀할 때, 고기 귀했었어. 그래서 일가 사름이나 동네 사름 전부 다 그거 반 낱서 다 돼지 배설 같은 거 뭐 다 나눠 주고.)

112017 @1 음.(음.)

112017 #1 그것 ㄹ라 가문잔치.(그것보고 ‘가문잔치’.)

112017 @1 가문잔치. 계민 가문잔치날 음식은 돼지고기?(‘가문잔치’. 그럼 ‘가문잔치날’ 음식은 돼지고기?)

112017 #1 허곡 반지기밥³⁴⁵ 해야 돼주게.(하고 ‘반지기밥’ 해야 되지.)

112017 @1 반지기밥 허고.(‘반지기밥’ 하고.)

112017 #1 게 가지고서 그 돛 국물 끌러 가지고 다 그거 잔치허는 식으로 다.(그래 가지고서 그 돼지 국물 끓여 가지고 다 그거 잔치하는 식으로 다.)

112017 @1 반찬은 뭐 잇어났수과?(반찬은 뭐 있었습니까?)

112017 #1 반찬은 그 당시는 반찬이 별 거 었다. 그자 그거 반찬이 그때는 뭐 배추 거튼 것도 아이 간 때고 허니까 그냥 주로 고기에 기자. 채소 거튼 거 뭐인가 콩나물 거튼 거 그거.(반찬은 그 당시는 반찬이 별 거 없다. 그저 그거 반찬이 그때는 뭐 배추 같은 것도 안 간 때고 하니까 그냥 주로 고기에 그저. 채소 같은 거 뭐인가 콩나물 같은 거 그거.)

112017 @1 콩지름?(콩나물?)

112017 #1 으, 콩지름 낱 그자 헛저.(으, 콩나물 낱서 그저 했어.)

112017 @1 콩지름허고 김, 김치?(콩나물하고 김, 김치?)

112017 #1 김치도 그 당신 었은 때.(김치도 그 당신 없을 때.)

112017 @1 었일 때. 지시, 마농지시라도 잇어났수과?(없을 때. 장아찌, 마늘장아찌라고 있었습니까?)

112017 #1 으, 마농지시 거튼 거 셔낱저. 마농지시 거튼 거. 옛날은 그 뭐인가 무수지시라고 해 가지고서, 생기리, 이제는 생기린데 옛날은 그 드룻나물 캐다가 물려 가지고서이.(으, 마늘장아찌 같은 거 있었어. 마늘장아찌 같은 거. 옛날은 그 뭐인가 무장아찌라고 해 가지고서, 무말랭이, 이제는 무말랭인데 옛날은 그 들나물 캐

345)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으로, 보통 다른 두 종류의 쌀을 섞어 지은 밥을 말한다.

다가 말려 가지고서.)

112017 @1 예.(예.)

112017 #1 그걸 장물에 켜. 그거 맛잇나, 깃닥깃닥 해 가지고. 그거, 주로 그런 거 낫주.(그걸 간장에 담가서. 그거 맛있어, 까닥까닥 해 가지고. 그거, 주로 그런 거 낫지.)

112018 @1 아, 드릇늬물 캐당. 그 우시, 아까 우시 가는 사람 얘기해 줘신디 우시는 어떤 역할 하는 것과?(아, 들나물 캐다가. 그 위요, 아까 위요 가는 사람 얘기해 줬는데 위요는 어떤 역할 하는 겁니까?)

112018 #1 그 우시는 어떤 역할을 허는고 허니 신랑을 대표해서 사돈집에서 처갓집에서 뭐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고이. 모든 것을 갖다가 신랑이 잘못되는 것을 잘못허면은 그 우시가 그 뭐인가. 우시도 그 수우시³⁴⁶가 잇저. 아까 말헌 우시가 총책이주게.(그 위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 신랑을 대표해서 사돈집에서 처갓집에서 뭐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신랑이 잘못되는 것을 잘못하면 그 위요가 그 뭐인가. 위요도 그 ‘수우시’가 있어. 아까 말한 위요가 총책이지.)

112018 @1 신부침이 갈 때 우시로 행 몇 사람 가는 거?(신부 집에 갈 때 위요로 해서 몇 사람 가는 거?)

112018 #1 우시가 서이 간다.(위요가 셋 간다.)

112018 @1 아, 서이.(아, 셋.)

112018 #1 보통 서이. 일가에서 유식헌 사람이 가야 되고이.(보통 셋. 일가에서 유식한 사람이 가야 되고.)

112018 @1 으.(으.)

112018 #1 계난 아버지 그 뭐인가 그 신랑 그 형제간, 아버지 형제간 중에 혼 사람 가야 되고이.(그러니까 아버지 그 뭐인가 그 신랑 그 형제간, 아버지 형제간 중에 한 사람 가야 되고.)

112018 @1 예.(예.)

112018 #1 또 웨가에서이, 신랑 어멍, 웨가에서도 혼 사람 헤영 세 사람은 꼭 가낫저.(또 외가에서, 신랑 어머니, 외가에서도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은 꼭 갔었어.)

112018 @1 세 사람이 갖던 거예. 아버지 쪽에서 한 사람, 어머니 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세 사람이 갖던 거요. 아버지 쪽에서 한 사람, 어머니 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112018 #1 한 사람은 그 일가 사람.(한 사람은 그 일가 사람.)

112019 @1 일가 사람. 저기 대반이랑 중방도 잇어낫수과?(일가 사람. 저기 대반이랑 중방도 있었습니까?)

112019 #1 으, 그 대반이란 뵈인고 허니 거 뭐인가 사돈이, 상객이 오면은 거

346) ‘우시’는 표준어 ‘위요’에 대응하는 말로 혼인 때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말한다. ‘수우시’는 ‘우시’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맞이하는 사름가 대반이엔 현다. 맞이하는 사름. 서로 대해서 ㄹ째 상 받아근에 말
굴으면서 음식 나누고 경허는 것이 대반이고.(으, 그 대반이란 뭐인가 하니 거 뭐인
가 사돈이, 상객이 오면 거 맞이하는 사람이 대반이라고 한다. 맞이하는 사름. 서로
대해서 같이 상 받아서 말 하면서 음식 나누고 그거는 것이 대반이고.)

112019 @ 으.(으.)

112019 #1 거 중방이엔 허는 것은 중방이엔 허는 것은 신랑, 신랑이 오면은 신
랑을 이제 그 모셔다가 이제 그 뭐인가 신부 쪽에 앓는 거주. 중방은 앓아 가지고
서 거기서 이제 다 인도, 인도허는 거.(거 중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랑이 오면 신랑을 이제 그 모셔다가 이제 그 뭐인가 신부 쪽에 앓는
거지. 중방은 앓아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다 인도, 인도하는 거.)

112019 @1 그니까 대반은 잔치집을 전부 총괄해 가지고 안내허고 허는 사름?
아니면 그 신랑 오는?(그러니까 대반은 잔치집을 전부 총괄해 가지고 안내하고 하
는 사름? 아니면 그 신랑 오는?)

112019 #1 신랑 오는 손님만 대허는 건디. 그 대반이.(신랑 오는 손님만 대하는
건데, 그 대반이.)

112019 @1 아. 중방?(아. 중방?)

112019 #1 중방은 신랑 거시기 허는 게 중방.(중방은 신랑 거시기 하는 게 중
방.)

112020 @1 그때 부조는 어떻 헤낫수과?(그때 부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20 #1 그때 부조는 대, 대충 쌀 헛저, 쌀. 돈이 그때 옛날은 엇엇주게. 가령
부제침 사름은 뭐 곤쌀 혼 말 행 가는 사름이 드물엇저. 거 사돈집이나 거 헛 때는
곤쌀 헛저만은. 대개 곤쌀 혼 관뉘. 곤쌀 엇은 사름은 조, 좁쌀 혼 관뉘. 그렇게 현
물로 그렇게 헛저.(그때 부조는 대, 대충 쌀 헛어, 쌀. 돈이 그때 옛날은 없엇지. 가
령 부жат집 사름은 뭐 흰쌀 한 말 해서 가는 사름이 드물엇어. 거 사돈집이나 거 할
때는 흰쌀 헛지만. 대개 흰쌀 한 관뉘. 흰쌀 엇은 사름은 조, 좁쌀 한 관뉘. 그렇게
현물로 그렇게 헛어.)

112020 @1 그민 구덕에, 구덕에 그걸 담양 갈 거 아니?(그럼 바구니에, 바구니
에 그걸 담아서 갈 거 아니?)

112020 #1 으, ㄹ는대구덕³⁴⁷)에, 옛날은 ㄹ는대구덕이엔 현 게 주로.(으, ‘ㄹ
대구덕’에, 옛날은 ‘ㄹ는대구덕’이라고 한 게 주로.)

112020 @1 ㄹ는대구덕에.(‘가는대구덕’요.)

112020 #1 그게 어디 덩길 때 웨출 덩길 때 사용헤난 ㄹ는대구덕.(그게 어디 다
닐 때 외출 다닐 때 사용헛던 ‘가는대구덕’.)

112020 @1 케민 그거에 담양 가민 거기에 뭐 고기라도 낱 보냅니까?(그럼 그거
에 담아서 가면 거기에 뭐 고기라도 놔서 보냅니까?)

112020 #1 으, 고기 반, 꼭 반 혼 반 낱 보낸다.(으, 고기 반, 꼭 반 한 반 놔서

347) ‘ㄹ는대구덕’은 아주 가늘고 긴 대오리로 엮어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보낸다.)

112020 @1 아, 반 혼 반.(아, 반 한 반.)

112020 #1 반 혼 반 낱 보내고 가령 그디 영혼이 잇으면이, 사름이 돌아강 삼년 상 안 허영 영 이시면은 꼭 그 반 영혼한테 보내주게. 술을 혼 잔허고 그 술 자그만헌 거 흐나허고 고기.(반 한 반 놔서 보내고 가령 거기 영혼이 있으면, 사람이 돌아가서 삼년 상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꼭 그 반 영혼한테 보내지. 술을 한 잔 하고 그 술 자그마한 거 하나하고 고기.)

112020 @1 아, 상에 싱글 거, 상에 올리렌예?(아, 상에 차릴 거, 상에 올리라고요?)

112020 #1 으, 상에 싱글 거.(으, 상에 차릴 거.)

112021 @1 혹시 암창개란 말 들어 보셨수과?(혹시 ‘암창개’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112021 #1 암창개³⁴⁸)는 그 스삼사건, 아니 그 육이오 때 암창개 만이 갖저.(‘암창개’는 그 사삼사건, 아니 그 육이오 때 ‘암창개’ 많이 갖어.)

112021 @1 어떤 걸 암창개렌 험니까?(어떤 걸 ‘암창개’라고 합니까?)

112021 #1 암창개엔 헌 것은 신랑 혼인 날짜를 받아 낯는데.(‘암창개’라고 하는 것은 신랑 혼인 날짜를 받아 낯는데.)

112021 @1 예.(예.)

112021 #1 부득헌 사고로, 부득헌 사정으로 신랑이 혼인 날짜에 여기 엇다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엇이 신랑이 엇는데 혼인허는 걸 암창개라고 한다. 신부만 데려오는 거.(부득헌 사라고, 부득헌 사정으로 신랑이 혼인 날짜에 여기 엇다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신랑이 엇는데 혼인하는 걸 ‘암창개’라고 한다. 신부만 데려오는 거.)

112021 @1 아, 하하. 신랑 육지 잇영 못 내려온 거마씨?(아, 하하. 신랑 육지 있어서 못 내려온 거요?)

112021 #1 으, 육이오 때 군인 가근에 휴가 못 받으민 그런 일이 잇주. 우리 한동도 만수 각시네, 근배 누이네 다 암창개 갖주게.(으, 육이오 때 군인 가서 휴가 못 받으면 그런 일이 잇지. 우리 한동도 만수 각시네, 근배 누이네 다 ‘암창개’ 갖지.)

112021 @1 아, 기과? 결혼할 날짜는 받아 뒤신디.(아, 그렇습니까? 결혼할 날짜는 받아 뒀는데.)

112021 #1 받아 낯는디 그 신랑이 사정에 의해서 그 날짜에 못 오게 뒀으면은 그 신부만 데령 오는 것이 암창개.(받아 낯는데 그 신랑이 사정에 의해서 그 날짜에 못 오게 되면 그 신부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암창개’.)

112022 @1 예. 사혼의 예도 여기 막 잇수과?(예. 사혼의 예도 여기 많이 잇습니

348) ‘암창개’는 혼례날 부득이하게 신랑이 타지에서 오지 못했을 때 신랑 집에서 신랑 없이 상객들만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며 치루는 혼례를 말한다.

까?)

112022 #1 으, 사혼의 예도 잊져. 요새는 뭐 안 헌텐 가령 총각으로 죽고이 저 디 처녀로 죽은 디가 이시네이?(으, 사혼의 예도 있어. 요새는 뭐 안 한다고 가령 총각으로 죽고 저기 처녀로 죽은 데가 있지?)

112022 @1 으.(으.)

112022 #1 경허민 그걸, 스혼을 허지 안헤근에, 처녀로 죽으면 처녀 귀신은 그 뭐인가 소위 구신 참례에 못 간다 그래서이.(그러면 그걸, 사혼을 하지 않아서, 처녀로 죽으면 처녀 귀신은 그 뭐인가 소위 귀신 참례에 못 간다 그래서.)

112022 @1 으.(으.)

112022 #1 제사 때도 못 올라오고. 총각도 마찬가지로. 경허면은 그 죽은 혼으로, 사람끼리 그 죽은 혼사라고 한다. 우리 표준말론 사혼인디이.(제사 때도 못 올라오고. 총각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죽은 혼으로, 사람끼리 그 죽은 혼사라고 한다. 우리 표준말론 사혼인데.)

112022 @1 으, 죽은 혼사.(으, 죽은 혼사.)

112022 #1 여기 제죽말론 죽은 혼사.(여기 제죽말론 죽은 혼사.)

112022 @1 여기 동네, 사혼도 이 동네에서 알양 해결허는 거?(여기 동네, 사혼도 이 동네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

112022 #1 으, 동네에서 허고 웨방, 타지에 사람도 영 소문 들영 허고.(으, 동네에서 하고 외방, 타지의 사람도 이렇게 소문 들어서 하고.)

112022 @1 소문 들영 허고?(소문 들어서 하고?)

112022 #1 으.(으.)

112022 @1 게문 어쨌든 이거 결혼이랑 마찬가지?(그럼 어쨌든 이거 결혼이랑 마찬가지?)

112022 #1 으, 결혼이랑 마찬가지.(으, 결혼이랑 마찬가지.)

112022 @1 남자침이서가 영 말 거는 것과?(남자 집에서가 이렇게 말 거는 겁니까?)

112022 #1 으, 남자침이서가.(으, 남자 집에서가.)

112022 @1 아.(아.)

112022 #1 남자침이서 알아봐 가지고서. 경허면은 그 상대방도 그걸 막 좇주. 그런 기회를.(남자 집에서 알아봐 가지고서.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걸 마구 찾지. 그런 기회를.)

112022 @1 으.(으.)

112022 #1 처녀 집이서도. 경헤 가면 전적으로 남자침에서 거 다 주동해서 한다.(처녀 집에서도. 그래 가면 전적으로 남자 침에서 거 다 주동해서 한다.)

112023 @1 잔치해 먹젠 허민 뭐 금기 사항 같은 것도 잇고마씨?(잔치해 먹으려고 하면 뭐 금기 사항 같은 것도 잇고요?)

112023 #1 거 금기 사항은 엇다. 잔치에 무신 금기 사항.(거 금기 사항은 없다.)

잔치에 무슨 금기 사항.)

112023 @1 으.(으.)

112023 #1 잔치해 먹젠 허민이 몸을 비리지³⁴⁹⁾ 말아야 돼주. 잔치하는 집 주인은.(잔치해서 먹으려고 하면 몸을 ‘비리지’ 말아야 되지. 잔치하는 집 주인은.)

112023 @1 으, 집 주인은. 왕 도와주는 친척들은 상관엇고?(으, 집 주인은. 와서 도와주는 친척들은 상관없고?)

112023 #1 으, 그건 상관엇고.(으, 그건 상관없고.)

112023 @1 상관엇고. 몸 비리지 않은 게 한 며칠 정도?(상관없고. 몸 ‘비리지’ 않은 게 한 며칠 정도?)

112023 #1 한 일주일 전부터.(한 일주일 전부터.)

112023 @1 일주일 전부터 어디 상집이 가는 건 안 되는 거라예. 제사집은 괜찮우과?(일주일 전부터 어디 상가에 가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제삿집은 괜찮습니까?)

112023 #1 으. 괜찮아.(으. 괜찮아.)

112023 @1 괜찮고.(괜찮고.)

112023 #1 계난이 이 잔치집이 거튼 던이 상주는 잘 안 간다. 상복 입영 안 가야 돼고.(그러니까 이 잔치집 같은 덴 상주는 잘 안 간다. 상복 입고 안 가야 되고.)

112023 @1 으.(으.)

112023 #1 건 자기가 잘 해야 해.(건 자기가 잘 해야 해.)

112023 @1 그지예. 뭐 할 일 잇어도 부주만 보내고예?(그렇지요. 뭐 할 일 잇어도 부조만 보내고요?)

112023 #1 으, 부주만 보내고.(으, 부조만 보내고.)

상례

112024 @1 사람 돌아가신 건 어떻 압니까.(사람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압니까?)

112024 #1 그 숨이 딱 멎는다. 돌아갈 때는 막 숨이 바빠근에가 막 거시기 허다가 숨이 딱 멎주게. 겐 돌아가면은 초수렴을 한다. 초수렴.(그 숨이 딱 멎는다. 돌아갈 때는 숨이 바빠서 마구 거시기 하다가 숨이 딱 멎지. 그래서 돌아가면 소렴을 한다. 소렴.)

112024 @1 초수렴?(소렴?)

112024 #1 으, 초수렴은 돌아가면은이. 사람이 뻗뻗해 불민이. 돌아강 뻗뻗해 불민 손 거튼 거 오그라정 퍼질 못 한다. 겐 초수렴이엔 현 거는 돌아강, 돌아가면은 일가 사름이 다 올 거 아니가?(으, 소렴은 돌아가면, 사람이 뻗뻗해 버리면. 돌아가서 뻗뻗해 버리면 손 같은 거 오그라져서 퍼질 못 한다. 그래서 소렴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서, 돌아가면 일가 사름이 다 올 거 아니냐?)

112024 @1 으.(으.)

112024 #1 왕 허민 이제 그 초수렴이엔 현 거는 이렇게 베로 손 거튼 거 영 발

349) ‘비리다’는 꺼림칙한 송장이나 마소 등 동물이 죽은 것을 보고 몸이 더러워진 것을 말한다.

이영 베 우이 놔 가지고서 발 거튼 거 오그라지지 못하게 이디 영 혼 세 군데로 무
끄는디 것³⁵⁰라 초수렴이엔 현다.(와서 하면 이제 그 소렴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베
로 손 같은 거 이렇게 발이랑 베 위에 놔 가지고서 발 같은 거 오그라지지 못하게
여기 이렇게 한 세 군데로 묶는데 것보고 소렴이라고 한다.)

112024 @1 그민 돌아가셔 가지고 영 지퍼 뺑 돌아가셨구나 하면 바로 초수렴을
허는 거마씨?(그럼 돌아가셔 가지고 이렇게 짚어 봐서 돌아가셨구나 하면 바로 소
렴을 하는 거요?)

112024 #1 으, 혼 몇 시간 잇다가.(으, 한 몇 시간 잇다가.)

112025 @1 아, 몇 시간 잇다가. 예, 예. 돌아가셨을 때 복 부르기라는 게 잇수
과?(아, 몇 시간 잇다가. 예, 예. 돌아가셨을 때 혼 부르기라는 게 있습니까?)

112025 #1 으?(으?)

112025 @1 복 부르기?(혼 부르기?)

112025 #1 아, 혼 부르기, 혼 부르기.(아, 혼 부르기, 혼 부르기.)

112025 @1 아, 이거 혼 부르기렌 헐 거예?(아, 이거 혼 부르기라고 할 거요?)

112025 #1 으, 혼 부르기, 혼 부르기. 혼 불르는 거여.(으, 혼 부르기, 혼 부르
기. 혼 부르는 거요.)

112025 @1 예. 이거 어떻 허여?(예. 이거 어떻게 해?)

112025 #1 게난 혼 부르기는이 그 죽으면 혼이 돌아난덴 허는 거주. 게난 혼을
불러와야 돼. 게난 그 집 우이 상마루에 올라강이, 집 우이. 안거리 집 우이 상마루
올라가 가지고서 그 이름을 하면서 누구 보오, 누구 보오, 누구 보오 세 번을 이렇
게 불른다.(그러니까 혼 부르기는 그 죽으면 혼이 달아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을 불러와야 돼. 그러니까 그 집 위에 용마루 올라가 가지고서, 집 위에. 안거리
집 위에 용마루 올라가 가지고서 그 이름을 하면서 누구 보오, 누구 보오, 누구 보
오 세 번을 이렇게 부른다.)

112025 @1 예.(예.)

112025 #1 세 번을 불령, 그 불를 때는이 그 돌아간 사람이 그 뭐인가 적삼인가
입어난 옷을, 옷을 그 앗양 올라강 이렇게 흔들면서 누구 보오 보오 이름 불르명.
이름 불러난 다음에 보 허는 건 혼이엔 현 말이주. 보 보 불러근에가 그걸 혼적
삼³⁵⁰을 이제 가정 내려올 거 아니가?(세 번을 불러서, 그 부를 때는 그 돌아간 사
람이 그 뭐인가 적삼인가 입었던 옷을, 옷을 그 가져 올라가서 이렇게 흔들면서 누
구 보오 보오 이름 부르면서. 이름 불렀던 다음에 보 하는 건 혼이라고 하는 말이
지. 보 보 불러서 그걸 ‘혼적삼’을 이제 가져서 내려올 거 아니냐?)

112025 @1 으.(으.)

112025 #1 이제 지붕에서 내려왕 허면은 그 혼적삼을 그 영, 그 스체 그 구들에
놓는다. 그 혼적삼을.(이제 지붕에서 내려와서 하면 그 ‘혼적삼’을 그 이렇게, 그 사
체 그 구들에 놓는다. 그 ‘혼적삼’을.)

350) ‘혼적삼’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혼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적삼을 가리킨다.

112025 @1 으.(으.)

112025 #1 경혜근에가 그 영장혈 때도 그 혼적삼을 큰 상제가 또 이제 거 영 지어 가지고서이 업어 가지고이 나가곡 경허는 거, 거 혼적삼.(그래서 그 장사할 때도 그 '혼적삼'을 큰 상제가 또 이제 거 이렇게 지어 가지고서 업어 가지고 나가고 그러는 거, 거 '혼적삼'.)

112025 @1 아, 영장, 관 우에 놓는 거?(아, 송장, 관 위에 놓는 거?)

112025 #1 으, 우에. 관 우에 낫당 그 영장허레 갈 때는 큰 상제가 혼적삼을 지어야 되는 거.(으, 위에. 관 위에 낫다가 그 장사하러 갈 때는 큰 상제가 '혼적삼'을 지어야 되는 거.)

112025 @1 지는 거, 걸치는 게 아니고.(지는 거, 걸치는 게 아니고.)

112025 #1 업영 간다.(업고 간다.)

112025 @1 업영 간텐 허는 거마씨. 그민 적삼이니까 우에 옷 잇는 거 이렇게 걸치는 거 아니?(업고 간다고 하는 거요. 그럼 적삼이니까 위에 옷 잇는 거 이렇게 걸치는 거 아니?)

112025 #1 아이, 그걸.(아니, 그걸.)

112025 @1 뭐에 넣어?(뭐에 넣어?)

112025 #1 뭐에 놔, 상, 그 뭐인가 그.(뭐에 놔, 상, 그 뭐인가?)

112025 @1 상자?(상자?)

112025 #1 상자 닳은 것에 영 거 낡 깨끗이 보관혜근에 그걸 큰 상제가 영.(상자 닳은 것에 이렇게 거 놔서 깨끗이 보관해서 그걸 큰 상제가 이렇게.)

112025 @1 그민, 그 혼 부르기 허젠 지봉에 올라간텐 헛잖아예?(그럼, 그 혼 부르기 하려고 지봉에 올라간다고 헛잖아요?)

112025 #1 으.(으.)

112025 @1 누게가 올라가는 것과?(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112025 #1 그 일가 사름에서 그 뭐인가 담대행 노래지 안허는 사름, 담대헌 사름이 올라간다. 아무나 올라가면 무서워 안 돼. 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그 일가 사람에서 그 뭐인가 담대해서 놀라지 않는 사람, 담대헌 사람이 올라간다. 아무나 올라가면 무서워서 안 돼. 밤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12025 @1 아. 경헨 세 번 불르는 거라예?(아. 그래서 세 번 부르는 거지요?)

112025 #1 으, 세 번. 세 번 불리.(으, 세 번. 세 번 불리.)

112026 @1 돌아가성 장지 허젠 허민 장지 마련은 어떻 허는 것과?(돌아가셔서 장지 하려고 하면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26 #1 장지는 우선 돌아가면은 택일을 해야 웬다이. 그 사람이 뭐 오일장도 될 수 있고 뭐 삼일장도 될 수 있고 칠일장도 될 수 있으니깐이. 경허난 자기네 그 집안에 날짜에 맞게끔 삼일장 할 수 있으면 삼일장 허고 삼일장이 급허민 오일장 허고. 계난 영장 날짜를 받을 거 아니가이? 영장 날짜를 받으면 그 터를 봐야 돼. (장지는 우선 돌아가면 택일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뭐 오일장도 될 수 있고 뭐 삼

일장도 될 수 있고 칠일장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 집안에 날짜에 맞게끔 삼일장 할 수 있으면 삼일장 하고 삼일장이 급하면 오일장 하고. 그러니까 장사 날짜를 받을 거 아니냐? 장사 날짜를 받으면 그 터를 봐야 돼.)

112026 @1 으.(으.)

112026 #1 그, 그 뭐인가 돌아간 사람 모실 터를. 건 정시, 지관이엔 한다. 여깃말론 정시엔 허는데 표준말은 지관. 그 정시를 초청해 가지고서 그 산 터를 봐야 돼주게. 그 모실 산 터를. 거 뺑 정해지면은, 정해지면은 이제 그 영장날은 게니까 산 터 보고 영장날이 정해지면은 영장날 삼 일 전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돼주. (그, 그 뭐인가 돌아간 사람 모실 터를. 건 지관, 지관이라고 한다. 여깃말론 ‘정시’라고 하는데 표준말은 지관. 그 지관을 초청해 가지고서 그 산 터를 봐야 되지. 그 모실 산 터를. 거 봐서 정해지면, 정해지면 이제 그 장삿날은 그러니까 산 터 보고 장삿날이 정해지면 장삿날 삼 일 전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지.)

112026 @1 으.(으.)

112036 #1 가령 그 뭐 맥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맥이라는 것은 흙을 날르는 거. 흙을 그 흙, 그것²라 흙 날르는 맥이엔 한다. 흙 날르민 그걸 거세기 해야 되고 그때는 옛날에는 사름이 돌아가면은 일가 사름만은 감당을 못허지게. 감당을 못허니깐이 그 동네를 빌언 했저. 동네.(가령 그 뭐 먹서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먹서리라는 것은 흙을 나르는 거. 흙을 그 흙, 그것보고 흙 나르는 맥이라고 한다. 흙 나르는 그걸 거시기 해야 되고 그때는 옛날에는 사름은 돌아가면 일가 사름만은 감당을 못하저. 감당을 못 하나까 그 동네를 빌려서 했어. 동네.)

112036 @1 으.(으.)

112036 #1 가령 가울목³⁵¹⁾이면은 우리 웃동네 가울목 첫동네³⁵²⁾꺼지 해 가지고서 거 이제 딱 규정이 돼엇저. 영장나면은 멧 개 반. 우리가 육 개 반인데 삼 개반을 동원시킨다.(가령 ‘가울목’이면 우리 웃동네 ‘가울목’ ‘첫동네’까지 해 가지고서 거 이제 딱 규정이 되었어. 초상나면 멧 개 반. 우리가 육 개 반인데 삼 개반을 동원시킨다.)

112036 @1 아.(아.)

112036 #1 흔 조합에 육 개반인데 삼 개반 동원시켜 가지고서, 동원시켜 가지고서 그 영장날은 영장을 허젠 허면은 인부, 그 동네 사름을 다 거시기 해야 되고. 아 시날은 그 동네 사름덜이 나와 가지고 영장 모셔 간 상여를 틀어야 된다. 상여.(한 조합에 육 개반인데 삼 개반 동원시켜 가지고서, 동원시켜 가지고서 그 장삿날은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인부, 그 동네 사름을 다 거시기 해야 되고. 전날은 그 동네 사름들이 나와 가지고 장사 모셔 간 상여를 틀어야 된다. 상여.)

112036 @1 으, 으.(으, 으.)

112036 #1 상여를 틀어 가지고 그 영장날은 멧 시에 나가는 거 시간 봐 가지고

351) ‘가울목’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352) ‘첫동네’는 마을에서 가운데 쪽 마을을 가리킨다.

서 그 저 뭐인가 상여를 모셔다가 그 관, 영장 틀에 놔 가지고 또 다시 동네 사람이 혼 쪽에 네 사람씩 으둑 사람이 영 모셔 가는데 상당히 것도 막 힘든다. 게 가지고서 걸 가면서 막 교대해 줘야 돼여.(상여를 틀어 가지고 그 장삿날은 몇 시에 나가는 거 시간 봐 가지고서 그 저 뭐인가 상여를 모셔다가 그 관, 송장 틀에 놔 가지고 또 다시 동네 사람이 한 쪽에 네 사람씩 여덟 사람이 이렇게 모셔 가는데 상당히 것도 아주 힘든다. 그래 가지고서 걸 가면서 교대해 줘야 돼.)

112036 @1 으.(으.)

112036 #1 교대해 교대해 줘 가지고 영장बाट다 가면은 몇 시에 하관된다고 허면은 그 시간 기다렸다가. 그 하관이란 것은 땅에 들어간 걸 하관인데. 게난 그 개관 목시란 게 있다. 그 하관허기 전에.(교대해 교대해 줘 가지고 장지에 가면 몇 시에 하관된다고 하면 그 시간 기다렸다가. 그 하관이란 것은 땅에 들어간 걸 하관인데. 그러니까 그 개관 목수라는 게 있다. 그 하관하기 전에.)

112036 @1 예. 개광?(예. 개광?)

112036 #1 으, 개관. 개관이란 것은 요 영장 들어갈 그 뭐인가 흙을 파는 거. (으, 개관. 개관이란 것은 요 송장 들어갈 그 뭐인가 흙을 파는 거.)

112036 @1 예.(예.)

112036 #1 그것이 개관, 관을 관을 놓게끔 거.(그것이 개관, 관을 관을 놓게끔 거.)

112036 @1 여는 거?(여는 거?)

112036 #1 게 가지고서 개관 목시가 사전에 가근에가 전부 다 그걸 다 그 정리 행 놔둔다.(그래 가지고서 개관 목수가 사전에 가서 전부 다 그걸 다 그 정리해서 놔둔다.)

112036 @1 아, 그니까 그 땅 파는 걸 개관 목쉬렌 부르는 거?(아, 그러니까 그 땅 파는 걸 개관 목수라고 부르는 거?)

112036 #1 으, 으.(으, 으.)

112036 @1 딱 틀에 맞게 맞춰.(딱 틀에 맞게 맞춰서.)

112036 #1 으, 틀에 맞게 맞추왕. 다 맞추고 또 그 그디 영 영 허기 전이 영장이 나면은 관을 해야 돼지이. 관을.(으, 틀에 맞게 맞춰서. 다 맞추고 또 그 거기 이렇게 이렇게 하기 전에 초상이 나면은 관을 해야 되지. 관을.)

112027 @1 예, 예. 관이랑 횡대는 어떻 마련할 것과?(예, 예. 관이랑 횡대는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112027 #1 관은 관은 그 뭐인가 자기 집이 미룻에 헤 논 사람은 그걸로 쓰곡 해 놓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강 사 와야 돼여. 관허고 개관이란 게 잊져, 개관. 그 저 뭐인가 관허고 개관을 그거를 마련해야 돼여.(관은 관은 그 뭐인가 자기 집에 미리 해 놓은 사람은 그걸로 쓰고 해 놓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사 와야 돼. 관하고 개관이란 게 있어, 개관. 그 저 뭐인가 관하고 개관을 그거를 마련해야 돼.)

112027 @1 으.(으.)

112027 #1 그 저 관허고 개관은 그걸 마련해야 돼여.(그 저 관하고 개관은 그걸 마련해야 돼.)

112027 @1 개관이 뭐마씨?(개관이 뭐요?)

112027 #1 개관은 그 우에, 흙을 파근에가 그 관을 이레 들이밀 거 아니가이?
(개관은 그 위에, 흙을 파서 그 관을 이리 들이밀 거 아니냐?)

112027 @1 예.(예.)

112027 #1 그 우터레 이제 그 개관은 나무가 두껍게 현 걸. 그 우에 썬다. 거 왜냐하면 흙 기냥 허면은 흙이 바로.(그 위로 이제 개관은 나무가 두껍게 한 걸. 그 위에 쌓는다. 거 왜냐하면 흙 그냥 하면 흙이 바로.)

112027 @1 아, 관에 들어가니까?(아, 관에 들어가니까?)

112027 #1 관에 들어가니까 그 나무 때문에 흙이 안 들어가주. 계난 그것 ㄹ라 개관이엔 허여. 그걸 장만했다가.(관에 들어가니까 그 나무 때문에 흙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것보고 개관이라고 해. 그걸 장만했다가.)

112027 @1 으.(으.)

112027 #1 전부 다 그 이제 시꺼 가 가지고서 그 하관 허면, 하관이라는 것은 그 영장이 땅에 들어가는 시간 있져. 하관 허면은 그 개관 더꺼 가지고서 그 봉분을 만드는 거주.(전부 다 그 이제 실어 가 가지고 그 하관 하면, 하관이라는 것은 그 송장이 땅에 들어가는 시간 있어. 하관 하면 그 개관 덮어 가지고서 그 봉분을 만드는 거지.)

112027 @1 그민 그 관은 집이서 나무를 해 놓면.(그럼 그 관은 집에서 나무를 해 놓으면.)

112027 #1 집이 거를 사용허고. 경 안허면 사당 허는데 관 짜는 목쉬를 또 빌어야 돼여.(집에 거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다가 하는데 관 짜는 목수를 또 빌려야 돼.)

112027 @1 아, 관 짜는 목시 불런에. 계민 그거랑 개관은 나무만 해당 놔두면 목수는 빌영 돌아가시고 나서 관을 짜는 거라예?(아, 관 짜는 목수 불려서. 그럼 그 거랑 개관은 나무만 해다가 놔두면 목수는 빌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관을 짜는 거지요?)

112027 #1 으, 관을 짜는 거. 계난 관을 짜면은 옛날은 그 목수를 그 품은 안 주니까, 공정³⁵³이란 것을 쫓져, 공정.(으, 관을 짜는 거. 그러니까 관을 짜면 옛날은 그 목수를 그 품은 안 주니까, ‘공정’이란 것을 쫓어, ‘공정’.)

112027 @1 으.(으.)

112027 #1 공정이라고. 수고했다고 해서 떡을 많이 거 준다.(‘공정’이라고. 수고했다고 해서 떡을 많이 거 준다.)

112027 @1 목수안테?(목수한테?)

112027 #1 으, 그 저 거세기 관 짠 목수안테.(으, 그 저 거시기 관 짠 목수한

353) ‘공정’은 장사를 지낼 때 역사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을 말한다.

테.)

112027 @1 관 짠 목수안테.(관 짠 목수한테.)

112027 #1 삼 년 동안을 그 공정을 보낸다. 부모의 공을 가꾼다고 그래서.(삼 년 동안을 그 ‘공정’을 보낸다. 부모의 공을 갚는다고 그래서.)

112027 @1 아, 삼 년 동안?(아, 삼 년 동안?)

112027 #1 삼 년 동안. 삼 년 동안이 그 소상, 대상을 그거, 그거.(삼 년 동안. 삼 년 동안이 그 소상, 대상을 그거, 그거.)

112027 @1 아, 그거 할 때?(아, 그거 할 때?)

112027 #1 으, 그거. 영장혈 때 보내고 소상 대상 허민 삼 년 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 공을 가꾼다고 그래서.(으, 그거. 장사할 때 보내고 소상 대상 하면 삼 년 되는 거 아니냐. 그걸로 공을 갚는다고 그래서.)

112027 @1 계민 동네마다 옛날에는 목수들이 다 있어났수과?(그럼 동네마다 옛날에는 목수들이 다 있었습니까?)

112027 #1 으, 다 있어났저.(으, 다 있었어.)

112027 @1 다 있어난. 계민 낭 허민 목수 불령 이거 관 짜 줘서, 허영.(다 있었어. 그럼 나무 하면 목수 불러서 이거 관 짜 주세요, 해서.)

112027 #1 으, 으. 관 짜 줘서 허민 으레 그건 강 해 준다.(으, 으. 관 짜 주세요 하면 으레 그건 가서 해 준다.)

112027 @1 아. 계민 관 짜젠 허민 관은 무신 낭으로 보통 해났수과?(아. 그럼 관 짜려고 하면 관은 무슨 나무로 보통 했었습니까?)

112027 #1 건 상관없다. 관이 비싼 건 비자, 비자목이 제일 비싸, 관이 비싸고.(건 상관없다. 관이 비싼 건 비자, 비자목이 제일 비싸, 관이 비싸고.)

112027 @1 으.(으.)

112027 #1 굴무기엔 현 나무가 잇저, 굴무기.(느티나무라고 한 나무가 있어, 느티나무.)

112027 @1 으, 굴무기.(으, 느티나무.)

112027 #1 그거 가장 비싼 거고. 굴무기, 그다음 비자남.(그거 가장 비싼 거고. 느티나무, 그다음 비자나무.)

112027 @1 아.(아.)

112027 #1 굴무기랑 비자남. 그다음에 보통 소나무로 주로 했주.(느티나무 비자나무. 그다음에 보통 소나무로 주로 했지.)

112027 @1 아, 소나무.(아, 소나무.)

112027 #1 보통 소나무.(보통 소나무.)

112027 @1 굴무기.(느티나무.)

112027 #1 돈 잇는 사름은 굴무기 비자나무를 그렇게.(돈 잇는 사름은 느티나무 비자나무를 그렇게.)

112027 @1 굴무기랑이 비싼 거?(느티나무가 비싼 거?)

112027 #1 어.(어.)

112028 @1 수의랑 상복은 어떻 마련했수과?(수의랑 상복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12028 #1 수의랑 상복은이 것도 이제 옛날 어른덜은 다 마련해놨저. 다 마련해 놔둔다. 집에서 다 그 호상이라고 해 가지고서 다 멩지 장옷이 다 마련해 놔두주게.(수의랑 상복은 것도 이제 옛날 어른들은 다 마련했었어. 다 마련해 놔둔다. 집에서 다 그 수의라고 해 가지고서 다 멩주 장옷이 다 마련해 놔두지.)

112028 @1 으.(으.)

112028 #1 겐 마련 못헌 사람은 거 전문으로 푸는 디가 있저, 그건. 그 저 뭐인가 옷 거튼 거 푸는 디 강 사다근에가 입형 거세기.(그래서 마련 못한 사람은 거 전문으로 파는 데가 있어, 그건. 그 저 뭐인가 옷 같은 거 파는 데 가서 사다가 입혀서 거시기.)

112028 @1 그 옛날에도 경 사단 입혔수과?(그 옛날에도 그렇게 사다가 입혔습니까?)

112028 #1 으, 사단. 거 전문으로 허는 사람덜이 있저. 수의를 만드는 사람.(으, 사다가.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수의를 만드는 사람.)

112028 @1 게도 여기는 없을 거 아니? 세화리 가야?(그래도 여기는 없을 거 아니? 세화리 가야?)

112028 #1 으, 세화리³⁵⁴ 가야.(으, ‘세화리’ 가야.)

112028 @1 여자 거랑 남저 거랑 트나게 준비해마씨?(여자 거랑 남자 거랑 다르게 준비해요?)

112028 #1 어, 거 트나. 뜯난다. 옷이 뜯나.(어, 거 달라. 다르다. 옷이 달라.)

112029 @1 옷이 트나예. 그 상장하고 집동은마씨? 상장이 뭐고 집동이 뭐과?(옷이 다르지요. 그 상장하고 짚동은요? 상장이 뭐고 짚동이 뭇니까?)

112029 #1 그 뭐, 뭐인가 그 아버지가 뭐인가 그 대나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갈 때는 대나무를 허고이.(그 뭐, 뭐인가 그 아버지가 뭐인가 그 대나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갈 때는 대나무를 하고.)

112029 @1 으.(으.)

112029 #1 그 또 아버지가 돌아간 때는 머귀냥 나무를 헛는데, 그 대나무 허는 것은 대나무 믈지 믈지가, 어머니 곱이곱이 상당히 거시기 헛다고 해 가지고 그 대나무를 어머니 돌아갈 때 대나무 방장대를 헛저, 방장대.(그 또 아버지가 돌아간 때는 머귀나무 나무를 헛는데, 그 대나무 하는 것은 대나무 마디 마디가, 어머니 곱이 곱이 상당히 거시기 헛다고 해 가지고 그 대나무를 어머니 돌아갈 때 대나무 상장을 헛어, 상장.)

112029 @1 방장대?(상장?)

112029 #1 으.(으.)

354) ‘세화리’는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이다.

112029 @1 방장대라고 불렀던 거?('방장대'라고 불렀던 거?)

112029 #1 방장대라고 불렀어.('방장대'라고 불렀어.)

112029 @1 집동은?(짚동은?)

112029 #1 짚동은 그건 뭐, 거 짚동은 꼭 그건 만들주, 짚동은 일곱 막작으로 행 만드는데, 그걸 돌아간 망인 보듯이 그걸 그렇게 낡 제사 지낼 때.(짚동은 그건 뭐, 거 짚동은 꼭 그건 만들지, 짚동은 일곱 마디로 해서 만드는데, 그걸 돌아간 망인 보듯이 그걸 그렇게 놔서 제사 지낼 때.)

112029 @1 으.(으.)

112029 #1 제사 지낼 때 그걸 꼭 낡 거시기 한다. 그걸 죽은 사람 보듯이 그걸 생각허라고 해 가지고.(제사 지낼 때 그걸 꼭 놔서 거시기 한다. 그걸 죽은 사람 보듯이 그걸 생각하라고 해 가지고.)

112029 @1 아, 집동이 돌아가신 분 역할을 허는 것과?(아, 짚동이 돌아가신 분 역할을 하는 겁니까?)

112029 #1 으, 짚동.(짚동.)

112029 @1 뭐 사진 대신이라고 생각해 가지고?(뭐 사진 대신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112029 #1 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주.(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지.)

112029 @1 아.(아.)

112029 #1 계난 어디 가근에. 가령 한동서 허다가 시에 강 허젠 허민 그 짚동을 우선 앗앙 가야.(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령 한동에서 하다가 시에 가서 하려고 하면 그 짚동을 우선 가지고 가야.)

112029 @1 가정 가는 거.(가지고 가는 거.)

112029 #1 그 짚동 안 앗앙 가민 그 제사가 안 되는 거.(그 짚동 안 가지고 가면 그 제사가 안 되는 거.)

112029 @1 아.(아.)

112029 #1 겐 꼭 짚동을 앗앙 가야.(그래서 꼭 짚동을 가지고 가야.)

112029 @1 계민 집동은 상례 치를 때 그 앞에 눕혀 놔두는 거잖아예. 그 상 앞에예?(그럼 짚동은 상례 치를 때 그 앞에 눕혀 놔두는 거잖아요. 그 상 앞에요?)

112029 #1 으, 상 앞에.(으 상 앞에.)

112029 @1 그민 아까 방장대렌 불렀수다예.(그럼 아까 상장이라고 불렀네요.)

112029 #1 방장대는 제사 지낼 때 제사 그 뭐인가 색일이고 대소상에 ㄱ만이 사면은 허리가 아프잖아게.(상장은 제사 지낼 때 제사 그 뭐인가 삭망이고 대소상에 가만히 서면 허리가 아프잖아.)

112029 @1 예.(예.)

112029 #1 거 지평 이렇게 사면.(거 짚어서 이렇게 서면.)

112029 @1 아.(아.)

112029 #1 거 걸 조상을 숭배허는 거고 또 자기, 상주가 편리허게끔. 그추록 안

허민 오래 사지 못해주게.(거 걸 조상을 숭배하는 거고 또 자기, 상주가 편리하게끔. 것처럼 안 하면 오래 서지 못하지.)

112029 @1 어머니 할 때는 머귀냥, 아버지 할 때 대나무 헛던 거예?(어머니 할 때는 머귀나무, 아버지 할 때 대나무 헛던 거요?)

112029 #1 으, 으.(으, 으.)

112030 @1 두건, 두건허고 복치마는 어떻 마련허는 것파?(두건, 두건하고 복치마는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112030 #1 두건은 보통, 옛날에는이 팔춘꺼지만 헤낫는데, 팔춘 허곡, 팔춘꺼지만 헤낫는데.(두건은 보통, 옛날에는 팔춘꺼지만 헛었는데, 팔춘 하고, 팔춘꺼지만 헛었는데.)

112030 @1 으.(으.)

112030 #1 팔춘꺼지만, 옛날은 곤란허니까 어려우니까 팔춘꺼지만 헛주게. 게난 이젠 보통으로 동네 사름도 다 주는데 옛날은 팔춘꺼지만 거시기 헤낫저.(팔춘꺼지만, 옛날은 곤란하니까 어려우니까 팔춘꺼지만 헛지. 그러니까 이젠 보통으로 동네 사름도 다 주는데 옛날은 팔춘꺼지만 거시기 헛었어.)

112030 @1 으, 팔춘까지 돌리고예?(으, 팔춘까지 돌리고요?)

112030 #1 으, 팔춘까지 돌리고 웨가에는 스춘꺼지 돌리고.(으, 팔춘까지 돌리고 외가에는 사춘까지 돌리고.)

112030 @1 요즘은 동네 사름도 다 줘?(요즘은 동네 사름도 다 줘?)

112030 #1 다 줘.(다 줘.)

112030 @1 복치마는? 복치메?(복치마는? 복치마?)

112030 #1 복치마도 그거 스춘, 저 팔춘까지는 복치메 다, 저 복치마는 스춘꺼지만 주는 거.(복치마도 그거 사춘, 저 팔춘까지는 복치마 다, 저 복치마는 사춘꺼지만 주는 거.)

112030 @1 스춘꺼지만예. 겐 여자만 아니파?(사춘꺼지만요. 그래서 여자만 아녘니까?)

112030 #1 으, 여자.(으, 여자.)

112030 @1 복치메는예. 풋죽?(복치마는요. 팔죽?)

112031 #1 그 풋죽은이.(그 팔죽은.)

112031 @1 예.(예.)

112031 #1 장서가 나면은 풋죽은 우선 사돈침이서 풋죽을 썬 와낫저.(장사가 나면 팔죽은 우선 사돈집에서 팔죽을 썬 왔었어.)

112031 @1 예.(예.)

112031 #1 사돈침이서 풋죽을 썬 오곡 또 사돈침이서 오기 전에 우선 저 상주에서도 풋죽을 썬야, 썬야 돼. 게난 옛날은 상 나면은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래서 거 상주를 위헌 거주.(사돈집에서 팔죽을 썬 오고 또 사돈집에서 오기 전에 우선 저 상주에서도 팔죽을 썬야, 썬야 돼. 그러니까 옛날은 상 나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

래서 거 상주를 위한 거지.)

112031 @1 아.(아.)

112031 #1 밥을 안 넘어간다고 해서 죽을 쑤 걸로 해 가지고 그때 팥죽을 쑤기 시작했주. 계남 상제, 그 상이 나면은 사돈집이는 으레 그 뭐인가 아이구 팥죽 썬야 돼는구나 해 가지고서.(밥을 안 넘어간다고 해서 죽을 쑤 걸로 해 가지고 그때 팥죽을 쑤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상제, 그 상이 나면 사돈집에는 으레 그 뭐인가 아이고 팥죽을 썬야 되는구나 해 가지고서.)

112031 @1 그민 그 팥죽 썬 언제 먹는 거마씨?(그럼 그 팥죽 썬서 언제 먹는 거요?)

112031 #1 그 뭐인가 그 영장 아시날 먹는 거.(그 뭐인가 그 장사 전날 먹는 거.)

112031 @1 아시날 먹는 거.(전날 먹는 거.)

112031 #1 아시날이 대충 일포날³⁵⁵이난에. 그 전이도 먹고.(전날이 대충 ‘일포날’이니까. 그 전에도 먹고.)

112031 @1 장지에 강도 나눠 줘니까?(장지에 가서도 나눠 줘니까?)

112031 #1 장지에 가기 전이만 먹는 거.(장지에 가기 전에만 먹는 거.)

112031 @1 아, 장지에 가기 전이 팥죽.(아, 장지에 가기 전에 팥죽.)

112031 #1 으.(으.)

112031 @1 그민 아무래도 상 나민 밥 잘 못 먹는덴 팥죽을 썬?(그럼 아무래도 상 나면 밥 잘 못 먹는다고 팥죽을 썬서?)

112031 #1 으. 옛날 전례가 그렇게 해나부난 그것이 하나의 예가 돼 가지고 쪽 이때까지 내려와, 내려와세.(으. 옛날 전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예가 돼 가지고 쪽 이때까지 내려와, 내려왔어.)

112032 @1 성복제는 어떤 걸 성복제렌 험니까?(성복제는 어떤 걸 성복제라고 험니까?)

112032 #1 성복제라는 것은 이제 그 사름이 돌아갈 거 아니냐. 그 돌아가면이 모든 예를 갖추어서이 예를 갖추어서 그 뭐인가 죽은 사름한테 예를 갖추어서 이제 그 조상으로 섬기기 위한 그게. 성복은 그 옷도 상제가 다 행 입을 거 아니냐?(성복제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갈 거 아니냐. 그 돌아가면 모든 예를 갖추서 예를 갖추서 그 뭐인가 죽은 사름한테 예를 갖추서 이제 그 조상으로 섬기기 위한 그게. 성복은 그 옷도 상제가 다 해서 입을 거 아니냐?)

112032 @1 으.(으.)

112032 #1 여자덜도 상복, 그 우이도 쓰고 그것이 성복, 그 복을 다 갖췄다 해 가지고 성복제를 지낸다.(여자들도 상복, 그 위에도 쓰고 그것이 성복, 그 복을 다 갖췄다 해 가지고 성복제를 지낸다.)

112032 @1 언제 지내는 거마씨?(언제 지내는 거요?)

355) ‘일포날’은 장사를 지내기 전에 문상객을 받는 날을 말한다.

112032 #1 성복, 성복제는이 그거 뭐인가 돌아간 뒷날 보통 한다. 뒷날. 성복 해 난 다음에 일포를 허는 거주.(성복, 성복제는 그거 뭐인가 돌아간 뒷날 보통 한다. 뒷날. 성복 한 다음에 ‘일포’를 하는 거지.)

112033 @1 아, 성복제 헌 다음에예. 일포제는?(아, 성복제 한 다음에요. ‘일포제’는?)

112033 #1 일포제는 영장 아시날 허는 거. 일포제는 여러 그 손님을 치루는 거주게. 성복제는 일가 사름덜 동네 사름만 모영 그자 성복허는 거고. 그 일포는 다 어디 통지를 해 가지고서이. 다 돌아갓덴 허면은 다 조문을 허는 거주.(‘일포제’는 장사 전날 하는 거. ‘일포제’는 여러 그 손님을 치루는 거지. 성복제는 일가 사름들 동네 사름만 모여서 그저 성복하는 거고. 그 ‘일포’는 다 어디 통지를 해 가지고서. 다 돌아갓다고 하면 다 조문을 하는 거지.)

112034 @1 조문 오면 부조들 험니까?(조문 오면 부조들 험니까?)

112034 #1 옛날도, 옛날은 부조를 안 해낫저. 옛날에 여자덜이 상 난 디 쫄로 허고 남저덜은 그냥 거세기 헛는데 요새는이 다 돈으로 허지 안 험시냐, 요새는.(옛날도, 옛날은 부조를 안 했었어. 옛날에 여자들이 상 난 데 쫄로 하고 남자들은 그냥 거시기 헛는데 요새는 다 돈으로 하지 않니, 요새는.)

112034 @1 그민 옛날에는 여자들은 쫄로 허고.(그럼 옛날에는 여자들은 쫄로 하고.)

112034 #1 으, 남자는 그냥 여자 허니까 안 허는 거.(으, 남자는 그냥 여자 하나 까 안 하는 거.)

112034 @1 아.(아.)

112034 #1 이중으로 안 해낫저.(이중으로 안 했었어.)

112034 @1 이중으로 안 허고예. 그민 이거는 조문은 동네 사름덜 다.(이중으로 안 하고요. 그럼 이거는 조문은 동네 사름들 다.)

112034 #1 동네 사름덜 다 상부상조로 다 돌아본다, 그건.(동네 사름들 다 상부상조로 다 돌아본다, 그건.)

112035 @1 다 돌아보고예. 예. 토신제 지내낫수과?(다 돌아보고요. 예. 토신제 지냈었습니까?)

112035 #1 토신제는, 토신제는이. 거 뭐인가 거 산 쓰젠 허민 토신제도 지낸다. 그리고 또이 집을 허젠, 집을 새로 짓젠 허민이 그 땅안테, 그 토지 지신 아니가 이?(토신제는, 토신제는. 거 뭐인가 거 산 쓰려고 하면 토신제도 지낸다. 그리고 또 집을 하려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그 땅한테, 그 토지 지신 아니냐?)

112035 @1 으.(으.)

112035 #1 땅안테 제를 지내는 게 토신제엔 한다.(땅한테 제를 지내는 게 토신제라고 한다.)

112035 @1 음.(음.)

112035 #1 거 지내는 거. 집 험 때도 토신제를 지내는 것이고 그 상, 그 뭐인

가.(거 지내는 거. 집 할 때도 토신제를 지내는 것이고 그 상, 그 뭐인가.)

112035 @1 무덤.(무덤.)

112035 #1 상 나근에가 산을 쓰젠 해도 아시날 강 토신제를 지낸다.(상 나서 산을 쓰려고 해도 전날 가서 토신제를 지낸다.)

112035 @1 산, 무덤, 산소 만드는 데도 토신제를 지내는 거예?(산, 무덤, 산소 만드는 데도 토신제를 지내는 거요?)

112035 #1 으, 으.(으, 으.)

112036 @1 상여꾼은?(상여꾼은?)

112036 #1 상여꾼은 그 상여를, 틀 상여 틀을 만든다. 그거 해근에가 혼 쪽에 네 사름씩 으둑 사름이 운반해영 가는 걸 상여꾼이라고 한다.(상여꾼은 그 상여를, 틀 상여 틀을 만든다. 그거 해서 한 쪽에 네 사름씩 여덟 사람이 운반해서 가는 걸 상여꾼이라고 한다.)

112036 @1 그거는 뭐 동네에서 허는 것과?(그거는 뭐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112036 #1 으, 동네에서 의무적으로 한다. 아까 곧지 안해냐. 삼 개 반을, 일 조합에는 삼 개 반을 동원해서.(으, 동네에서 의무적으로 한다. 아까 말하지 않았니. 삼 개 반을, 일 조합에는 삼 개 반을 동원해서.)

112036 @1 상여꾼도 막 먼 디 가면은 바꾸명 험니까?(상여꾼도 아주 먼 데 가면 바꾸면서 험니까?)

112036 #1 으, 거 교대해 줘야 돼. 가운데, 그 양 곳에는 괜찮은데 가운데가 굉장하.(으, 거 교대해 줘야 돼. 가운데, 그 양 끝에는 괜찮은데 가운데가 굉장하.)

112036 @1 으.(으.)

112036 #1 사람은 죽으면 하여튼 삼, 사배 무겁나, 거 이상케시리. 경허면 젊은 사름덜토 막 못 견디. 이디서 둔지봉³⁵⁶ 가젠 허면은 혼 세 번을 곱아 줘야 돼. (사람은 죽으면 하여튼 삼, 사배 무거워, 거 이상하게끔. 그러면 젊은 사름들도 아주 못 견디. 여기서 ‘둔지봉’ 가려고 하면 한 세 번을 곱아 줘야 돼.)

112036 @1 아, 세 번 곱아 줘야 돼? 그럼 그거 내려놓는 거라?(아, 세 번 곱아 줘야 돼? 그럼 그거 내려놓는 거야?)

112036 #1 아니, 가는 디서 그냥, 가는 디서 그냥 나오렌 해근에 나오자마자 들어가근에 해영 메곡 메곡.(아니, 가는 데서 그냥, 가는 데서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해서 메고 메고.)

112036 @1 아, 걸어가명?(아, 걸어가면서?)

112036 #1 으, 걸어가명.(으, 걸어가면서.)

112036 @1 계민 혼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그럼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112036 #1 아니고.(아니고.)

112036 @1 한 사람 바꾸고 또 다른 쪽에 한 사람 바꾸고.(한 사람 바꾸고 또 다른 쪽에 한 사람 바꾸고.)

356) ‘둔지봉’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둔지오름’이라고도 한다.

112036 #1 으, 중간 중간 그렇게 한다.(으, 중간 중간 그렇게 한다.)

112037 @1 아, 아. 운상, 그니까 상여꾼이 운반하는 거 아니예?(아, 아. 운상, 그러니까 상여꾼이 운반하는 거 아니요?)

112037 #1 으, 상여꾼이 장지까지 운반하고.(으, 상여꾼이 장지까지 운반하고.)

112037 @1 운상?(운상?)

112037 #1 으, 것ㄱ라 운상이엔 허고. 장지ㄱ지만 하고. 장지 가면은 또 이제 천막 쳐 가지고 거 하관하기 전에 임시 모실 거 아니가?(으, 것보고 운상이라고 하고. 장지까지만 하고. 장지 가면 또 이제 천막 쳐 가지고 거 하관하기 전에 임시 모실 거 아니냐?)

112037 @1 으.(으.)

112037 #1 거 임시, 임시 모셨다가. 또 그 그 뭐인가 산 터, 산으로 운반하는 것은 상주들이 한다.(거 임시, 임시 모셨다가. 또 그 그 뭐인가 산 터, 산으로 운반하는 것은 상주들이 한다.)

112037 @1 아.(아.)

112037 #1 상주덜과 스촌, 스촌이 운구를 해 가지고서 그디 모시는 거.(상주들과 사촌, 사촌이 운구를 해 가지고서 거기 모시는 거.)

112037 @1 으, 거기까지 장지까지는?(으, 거기까지 장지까지는?)

112037 #1 장지까진 동네 사람이 모시고.(장지까진 동네 사람이 모시고.)

112037 @1 으, 상여꾼이 가정 가면 그 근처에서 봉분까지?(으, 상여꾼이 가지고 가면 그 근처에서 봉분까지?)

112038 #1 으, 봉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봉분이 시간이 되면은 그 상주하고 스촌들이 모시는 거주.(으, 봉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봉분이 시간이 되면 그 상주하고 사촌들이 모시는 거지.)

112038 @1 그민 아까 장지까지 가기 전에 아침에 미리 개관 목시가 먼저?(그럼 아까 장지까지 가기 전에 아침에 미리 개관 목수가 먼저?)

112038 #1 으, 먼저. 밥 일찍 먹어야지. 개관 목시는 아침 인척 간다. 영장 가기 전에.(으, 먼저. 밥 일찍 먹어야지. 개관 목수는 아침 일찍 간다. 장사 가기 전에.)

112038 @1 겐 먼저 땅 다 팡 놔두면.(그래서 먼저 땅 다 파서 놔두면.)

112038 #1 다 팡 대기행 잇주, 건.(다 파서 대기해서 있지, 건.)

112038 @1 대기행 잇는 거예, 예. 경헨 하관 시간 맞춰서 내려놓고?(대기해서 잇는 거요, 예. 그래서 하관 시간 맞춰서 내려놓고?)

112038 #1 으, 내려놓고 개관, 개관 더퍼근에가이.(으, 내려놓고 개관, 개관 덮어서.)

112038 @1 예, 예.(예. 예.)

112038 #1 개관 더뜨는 것이 하관이엔 헨다이. 개관 더경 흙을 거기, 거기 뭐인가 흔 뽕뽕 심주게.(개관 덮는 것이 하관이라고 한다. 개관 덮어서 흙을 거기, 거기 뭐인가 한 뽕뽕 잡지.)

112038 @1 으.(으.)

112038 #1 흔 뽕쫂 심으민 이제 거기는 달구엔 한다. 천추 말년 다 살 집이 영혼이 왔으니까 잘 줌자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달구란 것은 땅을 다지는 거주.(한 뽕쫂 잡으면 이제 거기는 달구라고 한다. 천추 말년 다 살 집에 영혼이 왔으니까 잘 잡자라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달구란 것은 땅을 다지는 거지.)

112038 @1 뭐로 다져?(뭐로 다져?)

112038 #1 그 지팡이로, 쨩이나 무시거로 허영 흑 개관 우이 놔 가지고 다져근 에 천추 말년 다 살 집이 영혼이 왔다고 해서 잘 살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세 번을 부른다. 땅 다져 놔 그다음에 이제 봉분 일반 사름덜 이 왕 다 싸는 거. 흑 날르면서.(그 지팡이로, 쨩이나 무엇으로 해서 흑 개관 위에 놔 가지고 다져서 천추 말년 다 살 집에 영혼이 왔다고 해서 잘 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세 번을 부른다. 땅 다져 놔서 그다음에 이젠 봉분 일반 사람들이 와서 다 쌓는 거. 흑 나르면서.)

112038 @1 그럼 봉분도 동네 사름이 왕?(그럼 봉분도 동네 사름이 와서?)

112038 #1 으, 동네 사름이 싸는 거.(으, 동네 사름이 쌓는 거.)

112038 @1 아.(아.)

112038 #1 상주가, 동네 사름이 운반을 다 허고 봉분 쌓는 사름 기술자가 하나 빌영 그 봉분은 썩다. 그 흑 운반허는 건 전부 동네 사름덜이.(상주가, 동네 사름이 운반을 다 하고 봉분 쌓는 사름 기술자가 하나 빌려서 그 봉분을 쌓는다. 그 흑 운반하는 건 전부 동네 사름덜이.)

112038 @1 동네 사름덜이 날라 주고예?(동네 사름덜이 날라 주고요?)

112038 #1 으.(으.)

112039 @1 호충이렌 헛 건 뭐과?('호충'이라고 한 건 뭡니까?)

112039 #1 으?(으?)

112039 @1 호충?('호충'?)

112039 #1 거 가령 그 봉분을 다 헤 나면이 그 축을 다 익주게. 그 축 익는 사름을 아마 호충³⁵⁷이렌 헛 거여. 축 익는 사름.(거 가령 그 봉분을 다 하고 나면 그 축을 다 읽지. 그 축 읽는 사름을 아마 '호충'이라고 할 거야. 축 읽는 사름.)

112040 @1 예. 게민 장지에서도 이제 음식을 대접헤살 거 아니과예?(예. 그럼 장지에서도 이제 음식을 대접해야 할 거 아닙니까?)

112040 #1 으, 헤야 된다. 점심을, 그디 가면은 장지에 가면은 우선, 아침에 가면은 아침밥은 집에서 먹었으니까.(으, 헤야 된다. 점심을 거기 가면 장지에 가면 우선, 아침에 가면 아침밥은 집에서 먹었으니까.)

112040 @1 으.(으.)

112040 #1 그 뭐인가 떡을 행 간다. 일가에서 흔 순 또 다시 떨어면 딸, 손지민

357) '호충'은 사름이 죽었을 때, 입관(入棺)이나 하관(下棺)할 때에 보아서는 안 될 사름을 말한다. 여기서 제보자는 '호충'을 축을 읽는 사름이라고 했다

손지 게 가지고서 거 혼 순, 혼 순 허고. 또 다시 순은 보통 두 순을 혼다.(그 뭐인가 떡을 해서 간다. 일가에서 한 순, 한 순 하고. 또 다시 순은 보통 두 순을 한다.)

112040 @1 두 순이란 게 뭐?(두 순이라는 게 뭐?)

112040 #1 두 번 그 음식을 맥이는, 맥이는 거.(두 번 그 음식을 먹이는, 먹이는 거.)

112040 @1 아.(아.)

112040 #1 떡 해 오면은 그때는 밥은 그자 안 허고 밥은 점심은 따로 허고 점심 말고 간식으로 이제 그 순이엔 현 건 떡을 해 가지고 순이엔 현다. 그걸 아침 먹영 점심, 점심 사이에 혼 번 맥이곡이.(떡 해 오면 그때는 밥은 그저 안 하고 밥은 점심은 따로 하고 점심 말고 간식으로 이제 그 순이라고 한 건 떡을 해 가지고 순이라고 한다. 그걸 아침 먹고 점심, 점심 사이에 한 번 먹이고.)

112040 @1 예.(예.)

112040 #1 또 다시 일을 한창 헐 거 아니과? 허면 혼 시간쥼 일허면 지칠 거 아니가? 그거 혼 순 맥이곡 그다음엔 이제, 이제 또 점심 뭐인가 먹어 가지고 멍 내려오는 거.(또 다시 일을 한창 할 거 아닙니까? 하면 한 시간쥼 일하면 지칠 거 아니냐? 그거 한 순 먹이고 그다음엔 이제, 이제 또 점심 뭐인가 먹어 가지고 마쳐서 내려오는 거.)

112040 @1 아. 그럼 그 순은 일가친척에서 준비허는 거?(아. 그럼 그 순은 일가친척에서 준비하는 거?)

112040 #1 일가친척에서 혼 순 허는 집안도 있고. 건 어느 집안이고 일가친척에서 혼 순 현다.(일가친척에서 한 순 하는 집안도 있고. 건 어느 집안이고 일가친척에서 한 순 한다.)

112040 @1 혼 순이렌 해?(한 순이라고 해?)

112040 #1 혼 순이렌 현다. 혼 번 마탕 허는 걸 순 맥인다고, 혼 순.(한 순이라고 한다. 한 번 말아서 하는 걸 순 먹인다고, 한 순.)

112040 @1 예.(예.)

112040 #1 또 다시 또 이제 웨가침이서나이 상 난 웨가침이서나 딸이나 혼 순 허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두 순을 현다.(또 다시 또 이제 외갓집에서나 상 난 외갓집에서나 딸이나 한 순 하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두 순을 한다.)

112040 @1 그 옛날에 기억이 뭐냐 허면 어렸을 때 보면 장지에 올라갈 때 보면 알동네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웃동네에 친척집이나 이시민 친척집이서 뭐 만들영 뭐 냐던 거 같은디.(그 옛날에 기억이 뭐냐 하면 어렸을 때 보면 장지에 올라갈 때 보면 아랫동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윗동네에 친척집이나 있으면 친척집에서 뭐 만들어서 뭐 냐던 거 같은데.)

112040 #1 으, 거, 거 가령 이 동네에서 일가 사름이, 가령 가울목³⁵⁸에서 누게 영장이 나면은 우리 집 거튼 디 그튼 췌당이민 영장 올라갈 때 원미 췌 케우리현

358) '가울목'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다. 원미.(으, 거, 거 가령 이 동네에서 일가 사람이, 가령 ‘가울목’에서 누가 초상이
나면 우리 집 같은 데 같은 권당이면 송장 올라갈 때 원미 썬서 케우린다. 원미.)

112040 @1 으.(으.)

112040 #1 원미렌 흰 거 믰물축 썬 가지고서 거 가 가민 이걸 잘 먹영 갑서 행
이걸 케우리는 것그라.(원미라고 한 거 메밀죽 썬 가지고서 거 가 가면 이걸 잘 먹
고 가세요 해서 이걸 케우리는 것보고.)

112040 @1 아, 케우리는 거. 뿌리는 거?(아, 케우리는 거. 뿌리는 거?)

112040 #1 으.(으.)

112040 @1 믰물축을?(메밀죽을?)

112040 #1 믰물축을 숟가락으로 영. 마치 와 가민 영 넘어가지 안 현 때 영 뿌
린다. 게고 술도 영 그레 뿌리고.(메밀죽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마치 와 가면 이렇
게 넘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뿌린다. 그리고 술도 이렇게 그리 뿌리고.)

112040 @1 믰물축을 뿌렸던 거구나?(메밀죽을 뿌렸던 거구나?)

112040 #1 으, 주로 믰물축.(으, 주로 메밀죽.)

112041 @1 장사할 때, 상 치를 때 특별하게 수고헌 사름안테 뭐 허는 게 잇수
과?(장사할 때, 상 치를 때 특별하게 수고헌 사람한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112041 #1 그게 공정³⁵⁹이라는 게 잇저. 아까 나 말헌.(그게 ‘공정’이라는 게 있
어, 아까 내가 말한.)

112041 @1 아, 목쉬안테.(아, 목수한테.)

112041 #1 그 목쉬안테도 허고이 봉분 썬 사름이. 그 기술자고 허니까 봉분 썬
사름안테는 그 공정이란 걸 보낸다.(그 목수한테도 하고 봉분 썬은 사름이. 그 기술
자고 하니까 봉분 썬은 사람한테는 그 ‘공정’이란 걸 보낸다.)

112041 @1 공적?(공적?)

112041 #1 공정.(‘공정’.)

112041 @1 아, 공정. 공정을 보낸다.(아, ‘공정’. ‘공정’을 보낸다.)

112041 #1 으.(으.)

112041 @1 그민 그게 삼 년 동안 떡, 떡을 보내는 거예? 소장 대상 할 때.(그럼
그게 삼 년 동안 떡, 떡을 보내는 거요? 소장 대상 할 때.)

112041 #1 으. 대상 할 때.(으. 대상 할 때.)

112042 @1 그게 공정인 거라예. 상식은 어떻 헤낫수과, 상식?(그게 ‘공정’인 거
지요. 상식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상식?)

112042 #1 상식은, 상식은이 그 집이 돌아가면은 그 뭐인가 초제, 초제 이제 삼
우제 지낼 거 아니가이?(상식은, 상식은 그 집에 돌아가면 그 뭐인가 초제, 초제 이
제 삼우제 지낼 거 아니냐?)

112042 @1 으.(으.)

112042 #1 지내면 그 상을 뭐인가 뜯 방에 놔 가지고서 그 상식을 헛저. 경허면

359) ‘공정’은 장사를 지낼 때 역사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을 말한다.

은 아침 뒤편은 아침이 밥을 떠 놓고 또 저녁이 뒤편은 아침밥 내려 두고 저녁 또 놓고 경허영 그것ㄴ라 상식이엔 현다.(지내면 그 상을 뭐인가 다른 방에 놔 가지고서 그 상식을 했어. 그러면 아침 되면 아침에 밥을 떠 놓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밥 내려 두고 저녁 또 놓고 그러면 그것보고 상식이라고 한다.)

112042 @1 상식.(상식.)

112042 #1 게난 것도 안 허는 집이가 만았저. 것도. 정성 었으면 잘 못헤시네. (그러니까 것도 안 하는 집이 많았어. 것도. 정성 없으면 잘 못했어.)

112042 @1 그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허젠 허민. 건 뭐 대상 때까지?(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려고 하면. 건 뭐 대상 때까지?)

112042 #1 으, 대상 때까지 헤나세. 삼 년.(으, 대상 때까지 했었어. 삼 년.)

112043 @1 대상 때까지 삼 년예. 삭망제 지금도 합니까?(대상 때까지 삼 년요. 삭망제 지금도 합니까?)

112043 #1 지금 저, 지금 대개 안 허는데이.(지금 저, 지금 대개 안 하는데.)

112043 @1 예.(예.)

112043 #1 허는 사름은 초허루허고 보름 두 번 헛는데 이제는이 초허루 흔 번만. 흔 달에 흔 번만 허는 사름도 잇고이. 이젠 거의 안 험저.(하는 사름은 초하루 하고 보름 두 번 헛는데 이제는 초하루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사름도 잇고. 이젠 거의 안 해.)

112043 @1 예, 안 허고예. 게민 삭망제는 옛날에 우리 삼 년 행 소상 대상까지 헛었던 거잖아예?(예, 안 하고요. 그럼 삭망제는 옛날에 우리 삼 년 해서 소상 대상까지 헛었던 거잖아요?)

112043 #1 으. 대상까지 헛저.(으. 대상까지 했어.)

112043 @1 점점 일 년만 소상까지만 허당.(점점 일 년만 소상까지만 하다가.)

112043 #1 소상까지 허당 그다음엔 안 험세. 일 년 탈상으로 험저.(소상까지 하다가 그다음엔 안 하고 있어. 일 년 탈상으로 하고 있어.)

112043 @1 그니까 삭망제라는 게 소상할 때까지 일 년 동안 허는 거잖아예?(그러니까 삭망제라는 게 소상할 때까지 일 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112043 #1 현재는.(현재는.)

112043 @1 현재는. 옛날에는?(현재는. 옛날에는?)

112043 #1 대상까지. 삼 년.(대상까지. 삼 년.)

112044 @1 대상까지 삼 년. 소상 대상 때, 지금은 소상도 안 허고 제사만 허는 거주만. 옛날에랑 비교행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그 기간만 달라진 것파?(대상까지 삼 년. 소상 대상 때, 지금은 소상도 안 하고 제사만 하는 거지만. 옛날이랑 비교해서 지금이랑 달라진 거는 그 기간만 달라진 겁니까?)

112044 #1 그 기간이 달라지고 만이 간소화됐주. 그 뭐인가 소상 대상 때는 막 손님이 만이 와났는데, 이제는 일 년 탈상허기 때문에 이젠 웨방 손님은 하나도 오지 안허고 동네 일가만. 동네 사름허고 일가 사름만 헤 가지고서 야제로 지냄시네.

(그 기간이 달라지고 많이 간소화됐지. 그 뭐인가 소상 대상 때는 마구 손님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일 년 탈상하기 때문에 이제 외방 손님은 하나도 오지 않고 동네 일가만. 동네 사람하고 일가 사람만 해 가지고서 야제로 지내고 있어.)

112044 @1 제사로?(제사로?)

112044 #1 만이 간소화됐지.(많이 간소화됐어.)

112045 @1 간소화됐고예. 토롱이란 게 뭐과, 토롱?(간소화되고요. 토롱이란 게 뭘니까, 토롱?)

112045 #1 토롱이라는 건이 그 영장이 나면이 그 집안의 형편상 영장을 할 수 없으면은이 영장허젠 허민 상당히 돈이 만이 들주게. 돈이 만이 들민 영장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 토롱이라는 것은 영장을 임시이.(토롱이라는 건 그 초상이 나면 그 집안의 형편상 상을 할 수 없으면 상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지. 돈이 많이 들면 상을 할 수 없으면 그 토롱이라는 것은 송장을 임시.)

112045 @1 예.(예.)

112045 #1 임시 가매장을 허는 거야. 가매장.(임시 가매장을 하는 거야. 가매장.)

112045 @1 으.(으.)

112045 #1 현재 말로 가매장인데 우리 제죽말로 임시 토롱, 토롱. 영장을 안 해 가지고 그냥 그 저 어디 산에나 어디 영 모성 낫다근에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은 영장을, 영장을 허기 전이 임시 모셔 논 게 토롱이엔 한다.(현재 말로 가매장인데 우리 제죽말로 임시 토롱, 토롱. 장사를 안 해 가지고 그냥 그 저 어디 산에나 어디 이렇게 모셔서 낫다가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장사를, 장사를 하기 전에 임시 모셔 놓은 게 토롱이라고 한다.)

112045 @1 그민 토롱허젠 허면 제도 한 번 안 지낸?(그럼 토롱하려고 하면 제도 한 번 안 지내?)

112045 #1 으, 제도 안 지낸다.(으, 제도 안 지낸다.)

112045 @1 경헨 좀 여유 생기면?(그래서 좀 여유 생기면?)

112045 #1 으, 여유 생기면. 옛날은 그렇게 만이 헛주 요새는 다 이제, 요새는 상부상조가 잘 돼부난 요샌 토롱 허는 디가 언마 엇주게.(으, 여유 생기면. 옛날은 그렇게 많이 했지. 요새는 다 이제, 요새는 상부상조가 잘 되 버리니까 요샌 토롱 하는 데가 얼마 없지.)

112045 @1 그민 토롱 허젠 허민 관은 짱 묻는 거?(그럼 토롱 하려고 하면 관은 짜서 묻는 거?)

112045 #1 으, 관은 짜야 돼주.(으, 관은 짜야 되지.)

112045 @1 관은 짱 묻영 만약 영장 허게 돼민 장지도 다 마련행?(관은 짜서 묻어서 만약 장사 하게 되면 장지도 다 마련해서?)

112045 #1 으, 헨 후제 그거 다시 일러 가지고 그디 영장밧디 허는 거.(으, 해서 후에 그거 다시 일으켜 가지고 거기 장지에 하는 거.)

112046 @1 요즘 묘 옮기는 거 만이 허잖아예, 이묘 많이 허잖아예?(요즘 묘 옮기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묘 많이 하잖아요?)

112046 #1 으, 이묘덜 만이 험다. 요새는이 그 토지가 만이 침식된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막 강력히 그걸 일반 그 뭐인가 그 땅에 그 묘를 못 쓰게 하니까 가족 묘지로 다 옮겨져. 국가에선 가족 묘지로 행 다 옮기렌 허는 통에 다 그렇게. (으, 이묘들 많이 한다. 요새는 그 토지가 많이 침식된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아주 강력히 그걸 일반 그 뭐인가 그 땅에 그 묘를 못 쓰게 하니까 가족 묘지로 다 옮기고 있어. 국가에선 가족 묘지로 해서 다 옮기라고 하는 통에 다 그렇게.)

112046 @1 가족 묘지로예? 그럼 이묘허젠 허민 뭐 준비해야 됩니까?(가족 묘지로요? 그럼 이묘하려고 하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112046 #1 이묘가 그 전이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이 장의사헌티만 마껴 붙염저. 장의사안티만 맡기민 혼 기당 얼마 허면은 그 사름덜이 다 책임정 제물이고 뭐 술이고 뭐이고 다, 봉분꺼지 다 그 사름덜이 다.(이묘가 그 전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장의사한테만 맡겨 버리고 있어. 장의사한테만 맡기면 한 기당 얼마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져서 제물이고 뭐 술이고 뭐이고 다, 봉분까지 다 그 사람들이 다.)

112046 @1 하하하.(하하하.)

112046 #1 전문적으로 장의사가 생기고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장의사 과가 이제 잇는 모양이라. 경허난 아주 편리해졌저.(전문적으로 장의사가 생기고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장의사 과가 이제 잇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졌어.)

112046 @1 옛날에는 이묘허젠 허민 어떻 해놔수과?(옛날에는 이묘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46 #1 옛날에는 이묘허젠 상당히 골치가 아팠주게이.(옛날에는 이묘하려고 상당히 골치가 아팠었지.)

112046 @1 으.(으.)

112046 #1 골치가 아팠주게. 이묘허젠 허민 저디 강 정시안테 강 날도 받아야 돼고 터도 봐야 돼고 그거 뭐 이것저것 개판이니 뭐니 새로 그거 사야 돼고 막 복잡해놔저. 게난 이제는 딱 장의사안테 맡기면 일체 다 그거.(골치가 아팠었지. 이묘하려고 하면 저기 가서 지관한테 가서 날도 받아야 되고 터도 봐야 되고 그거 뭐 이것저것 개판이니 뭐니 새로 그거 사야 되고 아주 복잡했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딱 장의사한테 맡기면 일체 다 그거.)

112047 @1 아. 예. 이제 돌아가시면 복은 언제 벗는 것과?(아. 예. 이제 돌아가시면 복은 언제 벗는 겁니까?)

112047 #1 복은 옛날에 삼 년 대상에 벗어놔는데 이제는이 그 이제 그 장스허는 날 당일예 요즘 만이 벗어져. 산소에서.(복은 옛날에 삼 년 대상에 벗었었는데 이제는 그 이제 그 장사하는 날 당일예 요즘 많이 벗어. 산소에서.)

112047 @1 아, 산에서.(아, 산에서.)

112047 #1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소상 허는 사람은 소상날 밤에 제사 때 다.(그리고 또 다시 이제 소상 하는 사람은 소상날 밤에 제사 때 다.)

112047 @1 으. 게민 복 벗는다는 건 말로 고허기만 허민 뉘는 거마씨?(으. 그럼 복 벗는다는 건 말로 고허기만 하면 되는 거요?)

112047 #1 으, 말로 고허민 뉘다.(으, 말로 고하면 된다.)

112048 @1 으. 그민 장례 치를 때 뉘 하민 안 뉘다 하는 거, 금기 같은 거 잇수과?(으. 그럼 장례 치를 때 뉘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금기 같은 거 있습니까?)

112048 #1 뉘 금기 같은 거 엇고 만약에 그 뉘인가 그 하관할 적에 거기 보지 말렌 허는 그 헤치가 잇나. 그 정시가 영 봐 가지고서 만약에 나가 돌, 나가 돌헤치 일 경우에는 그날 그 상을 뉘은 그 해로운 사람은 보지 말렌 그것만 허고.(뉘 금기 같은 건 없고 만약에 그 뉘인가 그 하관할 적에 거기 보지 말라고 하는 그 띠가 잇어. 그 지관이 이렇게 봐 가지고서 만약에 내가 말, 내가 말띠일 경우에는 그날 그 상을 봐서는 그 해로운 사람은 보지 말라고 그것만 하고.)

112048 @1 아, 무슨 헤치인 사람은 보지 말렌 곶아마씨?(아, 무슨 띠인 사람은 보지 말라고 말해요?)

112048 #1 으, 경 끝나. 상제안티 거 걸린 사름 이시민 아무 상제는 보지 말라, 그렇게. 하관할 적에.(으, 그렇게 말해. 상제한테 거 걸린 사람 있으면 아무 상제는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관할 적에.)

112048 @1 하관할 적에 보지 말라. 예.(하관할 적에 보지 말라. 예.)

제례

112049 @1 이제 제사 물어보쿠다예. 제사 준비는 어떻 험니까?(이제 제사 물어 보겠습니다.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112049 #1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해. 우선 제, 제숙³⁶⁰을 마련해야 뉘고이.(제사 준비는 어떻게 해. 우선 제, '제숙'을 마련해야 되고.)

112049 @1 으. 미리 마련해야 뉘는 제숙이 뉘 잇어?(으. 미리 마련해야 되는 '제숙'이 뉘 잇어?)

112049 #1 미리 마른 제숙 뉘, 뉘 미리 마련해 가지고 갯갯고기도 준비해야 뉘고이. 또 쉼고기 뉘지고기도 준비해야 뉘고. 그 웨로 집안에 준비허는 건 뉘인가 그 고사리.(미리 마른 '제숙' 뉘, 뉘 미리 마련해 가지고 바닷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 외로 집안에 준비하는 건 뉘인가 그 고사리.)

112049 @1 으.(으.)

112049 #1 그 뉘인가 그 누물. 저 콩누물은 집이서 항상 놓는 거고.(그 뉘인가 그 나물. 저 콩나물은 집에서 항상 놓는 거고.)

112049 @1 으.(으.)

112049 #1 그거 준비허고 그 뉘 떡 거튼 거 험 걸로.(그거 준비하고 그 뉘 떡

360) '제숙'은 제상(祭床)에 올리는 고기나 생선류를 말한다.

같은 거 할 걸로.)

112049 @1 당일 날.(당일 날.)

112049 #1 으, 모자란 거 장에 강 사고 집이서 할 거는 집이서 다 제물 다 하고.(으, 모자란 거 장에 가서 사고 집에서 할 거는 집에서 다 제물 다 하고.)

112050 @1 제물로 허는 거 뭐 뭐? 다시 한 번 꼽아 봅서. 제물로 쓰는 거.(제물로 하는 거 뭐 뭐? 다시 한 번 꼽아 보세요. '제물'로 쓰는 거.)

112050 #1 제물로 허는 건 뭐인가 그디 친떡도 해야 돼고이.(‘제물’로 하는 건 뭐인가 거기 시루떡도 해야 되고.)

112050 @1 친떡.(시루떡.)

112050 #1 친떡, 상웨떡.(시루떡, 상화떡.)

112050 @1 상웨떡.(상화떡.)

112050 #1 또 다시 약케렌 헨 것이 잇저. 약케렌 헨 거. 약케 허곡이.(또 다시 약과라고 한 것이 있어. 약과라고 한 거. 약과 하고.)

112050 @1 약케는 뭐과?(약과는 뭐니까?)

112050 #1 약케는이 그 저 밀꺾루 헤 가지고서이.(약과는 그 저 밀가루 헤 가지고서.)

112050 @1 으.(으.)

112050 #1 상웨떡 납작납작 허는 거가 약케엔 헨다. 약케엔 허고. 그다음에 슬 변 절편 그거 허고.(상화떡 납작납작 하는 거가 약과라고 한다. 약과라고 하고. 그다음에 슬편 절편 그거 하고.)

112050 @1 으.(으.)

112050 #1 그다음에 지름떡 허고 경헨다.(그다음에 기름떡 하고 그런다.)

112050 @1 슬벤, 절벤?(슬편, 절편?)

112050 #1 절편.(절편.)

112050 @1 절편이렌 부를 거? 옛날말, 옛날말?(절편이라고 부를 거?)

112050 #1 절변.(절편.)

112050 @1 아, 절변.(아, 절편.)

112050 #1 슬변, 절변.(슬편, 절편.)

112050 @1 으, 슬변, 절변이렌 부를 거예?(으, 슬편, 절편이라고 부를 거요?)

112050 #1 으.(으.)

112050 @1 케기는? 고기적은?(고기? 고기적은?)

112050 #1 고기적은 소고기적, 옛날은 소고기적 안 헷는데, 돼지고기적만 주로 헨단디 요샌 소고기적. 옛날은 소고기적 힘들어났저.(고기적은 소고기적, 옛날은 소고기적 안 헷는데, 돼지고기적만 주로 헷었는데 요샌 소고기적. 옛날은 소고기적 힘들었어.)

112050 @1 예.(예.)

112050 #1 거 도야지고기허고 갯것고기 구헤 가지고.(거 돼지고기하고 바닷고기

구해 가지고.)

112050 @1 도야지고기랑 갯것고기. 갯것고기는 뭐 씻수과?(돼지고기랑 바닷고기. 바닷고기는 뭐 씻습니까?)

112050 #1 우럭을 주로 씻주, 우럭.(우럭을 주로 씻지, 우럭.)

112050 @1 여긴예, 우럭이지예.(여긴요, 우럭이지요.)

112050 #1 육지 근방엔 조기 헨디 여긴 조기가 안 나주.(육지 근방엔 조기 하는데 여긴 조기가 안 나지.)

112050 @1 으, 으. 우럭, 우럭. 우럭 직접 들렁?(으, 으. 우럭, 우럭. 우럭 직접 말려서?)

112050 #1 으.(으.)

112050 @1 늘 거 사당 들렁?(날 거 사다가 말려서?)

112050 #1 늘 거 사당 들렁. 장에 간도 사오고 또 여기선 옛날은 만이 나깟주. 계란 이녁으로 장만해영.(날 거 사다가 말려서. 장에 가서도 사오고 또 여기선 옛날은 많이 낚았지. 그러니까 자기대로 장만해서.)

112050 @1 우럭예. 여기는 뭐는 안 해나고마씨? 생선, 오토미는 안 해나고?(우럭요. 여기는 뭐는 안 했었고요? 생선, 옥돔은 안 했었고?)

112050 #1 오토민 이디 안 난다. 건 정의만 나부난. 가마리³⁶¹엔 헨 디만 난다.(옥돔은 여기 안 난다. 건 정의만 나니까. ‘가마리’라고 하는 데만 난다.)

112050 @1 오토미 안 나난 이딘 우럭 씻던 거라예?(옥돔 안 나니까 여긴 우럭 씻던 거지요?)

112050 #1 우럭, 주로 우럭 씻저.(우럭, 주로 우럭 씻어.)

112050 @1 예.(예.)

112050 #1 오토미도 해방 후에사 남저, 저거.(옥돔도 해방 후에야 나지, 저거.)

112050 @1 아. 해방 후에.(아. 해방 후에.)

112050 #1 으.(으.)

112050 @1 문어 같은 건 안 올렸수과?(문어 같은 건 안 올렸습니까?)

112050 #1 제주돈 문어 안 해. 육지 문어 올리는데. 우리 한동 근방은 문어 안 올린다. 아마 대정 쪽엔 몰라, 그 쪽엔 올리는지.(제주돈 문어 안 해. 육지 문어 올리는데. 우리 한동 근방은 문어 안 올린다. 아마 대정 쪽엔 몰라, 그 쪽엔 올리는지.)

112050 @1 남원 쪽엔 올립디다.(남원 쪽엔 올립디다.)

112050 #1 아, 올려, 이딘 문어를 안 올린다.(아, 올려, 여긴 문어를 안 올린다.)

112051 @1 콩지름은 어떻? 영 키워 헷던 거 아니?(콩나물은 어떻게? 이렇게 키워서 헷던 거 아니?)

112051 #1 으, 키워 헷저. 그 콩을이 우리가 뭐인가 콩을 다 재배해낫주.(으, 키워서 했어. 그 콩을 우리가 뭐인가 콩을 다 재배했었지.)

361) ‘가마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지명의 하나다.

112051 @1 으.(으.)

112051 #1 콩을 갈았다가 그 주름콩을 냄경 놔둔다, 항상. 계민 주름콩을 거 해 가지고서 그걸 물에 커근에가이 물에 커근에가 콩이 물 울르면은 물 빼 두곡이.(콩을 갈았다가 그 '주름콩'을 남겨서 놔둔다, 항상. 그럼 '주름콩'을 거 해 가지고서 그걸 물에 담가서 물에 담가서 콩이 물 불면 물 빼 두고.)

112051 @1 으.(으.)

112051 #1 무슨 저거 뭐인가 향아리 닮은 것에 영 담아 가지고서이. 그 겨울에는 거 구들에 논다. 따뜻해야 그거 많이 올라오니까. 경허면서 아침 즈낙으로 물 줘야 돼여.(무슨 저거 뭐인가 향아리 닮은 것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서. 그 겨울에는 거 구들에 놓는다. 따뜻해야 그거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물 줘야 돼.)

112051 @1 으, 으.(으, 으.)

112051 #1 물 주멍 경행 키와근에가 걸로 거 큰일 때 사용해서.(물 주면서 그렇게 키워서 걸로 거 큰일 때 사용했어.)

112051 @1 그럼 제사해 먹젠 허민 이 콩주름을.(그럼 제사해 먹으려고 하면 이 콩나물을.)

112051 #1 거 으당 놔야 돼지.(거 의당 놔야 되지.)

112051 @1 놔야 되는 건디 한 며칠 전에썸 놓으면?(놔야 되는 건데 한 며칠 전에썸 놓으면?)

112051 #1 한, 한 일주일 전엔. 일주일 내지 하여튼 십 일 전에 놔야 돼.(한, 한 일주일 전엔. 일주일 내지 하여튼 십 일 전에 놔야 돼.)

112051 @1 십 일 전에 놓으면.(십 일 전에 놓으면.)

112051 #1 여름에는 한 오 일이면 되는데 겨울에는 한 뭐 십 일 전에 놔야.(여름에는 한 오 일이면 되는데 겨울에는 한 뭐 십 일 전에 놔야.)

112051 @1 아, 경 놔야 식게날 식게 해 먹어질 거라예?(아, 그렇게 놔야 제삿날 제사 해 먹을 수 있을 거지요?)

112051 #1 으.(으.)

112052 @1 아까 제육은 소고긴 잘 안 했고 돼지고기랑.(아까 제육은 소고긴 잘 안 했고 돼지고기랑.)

112052 #1 그 당시엔, 옛날은 소고기가 막 어려웠주게.(그 당시엔, 옛날은 소고기가 아주 어려웠었지.)

112052 @1 으, 으. 어려웠고예.(으, 으. 어려웠고요.)

112052 #1 겐디 지금은 소고기 안 허는 집이 었저, 이젠.(그런데 지금은 소고기 안 하는 집이 없어, 이젠.)

112052 @1 으, 으. 그때 돼야지고기랑, 도야지고기랑.(으, 으. 그때 돼지고기랑, 돼지고기랑.)

112052 #1 으, 갯것고기.(으, 바닷고기.)

112052 @1 갯것고기는 우럭 썰던 거예. 돼야지고기가 적어잖아예?(바닷고기는 우럭 썰던 거요. 돼지고기가 적어잖아요?)

112052 #1 으, 그게 적어주.(으, 그게 적어지.)

112053 @1 케민 한 종류민 뵈던 거, 돼야지고기?(그럼 한 종류면 뵈던 거, 돼지고기?)

112053 #1 으, 고기는 거 그거 한 종류로 적을 허고 목적 그 목적은 의무적으로.(으, 고기는 거 그거 한 종류로 적을 하고 목적 그 목적은 의무적으로.)

112053 @1 목적하고.(목적하고.)

112053 #1 목적은 메밀가루로 썰.(목적은 메밀가루로 썬서.)

112053 @1 그민 적은 누게가 만듭니까?(그럼 적은 누가 만듭니까?)

112053 #1 대주가 만들주. 대주가 만드는데 이제는이.(대주가 만들지. 대주가 만드는데 이제는.)

112053 @1 대주?(대주?)

112053 #1 거 주인이 만드는 거주, 대주가.(거 주인이 만드는 거지, 대주가.)

112053 @1 으, 대주가.(으, 대주가.)

112053 #1 대주가 주인이난. 아버지가 자식이라 메끼지 안허영 아버지가 다 헛주. 경허난 요새는 시국이 다 변허난 이제는 다 이 메누리덜이 다 현다.(대주가 주인이니까. 아버지가 자식보고 말기지 앓고 아버지가 다 헛지. 그러니까 요새는 시국이 다 변하니까 이제는 다 이 며느리들이 다 한다.)

112053 @1 하하하.(하하하.)

112053 #1 남자가 헤낫는데 이젠 적을 여자가 다 허여.(남자가 헛었는데 이젠 적을 여자가 다 해.)

112053 @1 케난 예전에 삼방에서예?(그러니까 예전에 마루에서요?)

112053 #1 으.(으.)

112053 @1 아버지가 돼지고기 썰고 목 썰고 헤나신디.(아버지가 돼지고기 썰고 목 썰고 헛었는데.)

112053 #1 어, 큰 돛베 헤 가지고.(어, 큰 도마 헤 가지고.)

112053 @1 큰 돛베 가져 낱. 겐 옆에서 돌화로 피웁.(큰 도마 가져 놔서. 그래서 옆에서 돌화로 피워서.)

112053 #1 으, 돌화로 피웁, 솥 헤 낱 그디서 굽고 경 헤나세.(으, 돌화로 피워서, 솥 헤 놔서 거기서 굽고 그렇게 헛었어.)

112053 @1 예, 경헤나신디. 하하하.(예, 그랬었는데. 하하하.)

112053 #1 거 집집마다 돌화로 셔낫저.(거 집집마다 돌화로 있었어.)

112053 @1 예, 예. 돌화로는 시에 가져갔수다.(예, 예. 돌화로는 시에 가져갔습니다.)

112053 #1 으, 가져 가샤. 그 돌화로 멘드는 하르방이 요디 살아낫주게. 요 셋동네³⁶²에.(으, 가져 가야. 그 돌화로 만드는 할아버지가 요기 살았었지. 요 '셋동네'

에.)

112053 @1 아, 그민 한동은 뭐 여기 호미 거튼 것도 다 이디서 만들어났구나?
(아, 그럼 한동은 뭐 여기 호미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만들었었구나?)

112053 #1 다 불미가 다 잇어났저, 알동네.(대장간이 다 있었어, 아랫동네.)

112053 @1 돌화로도 만들고?(돌화로도 만들고?)

112053 #1 여기서 다 만들고.(여기서 다 만들고.)

112053 @1 다른 디 안 강 다 여기서 해결했구나예?(다른 데 안 가서 다 여기서 해결했군요?)

112053 #1 으.(으.)

112054 @1 떡은 아까 종류는?(떡은 아까 종류는?)

112054 #1 친떡.(시루떡.)

112054 @1 친떡.(시루떡.)

112054 #1 친떡 저 뭐인가 그 곳사 세미엔 헤져시냐?(시루떡 저 뭐인가 그 아까 세미라고 했니?)

112054 @1 세민 얘기 안 헛고, 약케.(세민 얘기 안 헛고, 약과.)

112054 #1 으, 약케. 약케허고 또 만뒤³⁶³. 거 만두가 빼졌구나. 만뒤허고.(으, 약과. 약과하고 또 ‘만뒤’. 거 ‘만두’가 빠졌구나. ‘만뒤’하고.)

112054 @1 만뒤도 잇어났수과?(‘만뒤’도 있었었습니까?)

112054 #1 으, 만뒤떡허고이. 그거 저 절편, 솔편. 절편, 솔편.(으, ‘만뒤떡’하고. 그거 저 절편, 솔편. 절편, 솔편.)

112054 @1 상웨떡허고예. 절편, 솔편.(상화떡하고요. 절편, 솔편.)

112054 #1 으, 거 지름떡 허고.(으, 거 기름떡 하고.)

112054 @1 다시 혼 번 곶아 줍서. 떡 올렸던 거.(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떡 올렸던 거.)

112054 #1 떡 올라간 건이 그 친떡이.(떡 올라간 건 그 시루떡.)

112054 @1 으.(으.)

112054 #1 친떡 곤친떡. 그 여유 잇는 사람은 곤쌀로 허영 곤친떡.(시루떡 백설기. 그 여유 잇는 사람은 흰쌀로 해서 백설기.)

112054 @1 예.(예.)

112054 #1 거 곤친떡 허고 줍쌀 친떡도 허영 두 가지 허는 사람도 잇고 혼 가지 허는 사람도 잇고.(거 백설기 하고 줍쌀 시루떡도 해서 두 가지 하는 사람도 잇고 한 가지 하는 사람도 잇고.)

112054 @1 으.(으.)

112054 #1 게 가지고서 약케허고 만뒤허고 또 솔편 절편.(그래 가지고서 약과하고 ‘만뒤’하고 또 솔편 절편.)

362) ‘첫동네’는 마을에서 가운데 쪽 마을을 가리킨다.

363) ‘만뒤’은 메밀가루를 익반죽 한 후에 안에 팔소 등을 넣어서 쪄낸 후에 다시 팔고물을 무친 떡을 말한다.

112054 @1 솔편, 절편, 지름떡.(솔편, 절편, 기름떡.)

112054 #1 으, 지름떡허고 그거.(으, 기름떡하고 그거.)

112054 @1 그민 약래는 어떤 거?(그림 약과는 어떤 거?)

112054 #1 약래는이 밀가루 해 가지고서 니귀반듯허게 영 니귀반듯 상웨떡 허
 듯 니귀반듯허게.(약과는 밀가루 해 가지고서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네모반듯 상화떡
 하듯 네모반듯하게.)

112054 @1 그럼 상웨떡 따로 잇고 약래 따로 잇고?(그럼 상화떡 따로 잇고 약
 과 따로 잇고?)

112054 #1 아니, 약래가 상웨떡이라 약래엔 험저.(아니, 약과가 상화떡보고 약과
 라고 한다.)

112054 @1 아, 그럼 혹시 우리 상웨떡 크게 만든 거 말고 친떡 대신 만들어진
 거 말고 네모나게.(아, 그럼 혹시 우리 상화떡 크게 만든 거 말고 시루떡 대신 만들
 었던 거 말고 네모나게.)

112054 #1 으, 네모나게 흐쌀 즈지롱허게 만들어근에 그걸 지름에 영 지저근에
 지름에 지정 그걸 약래렌 올려낫저.(으, 네모나게 조금 작게 만들어서 그걸 기름에
 이렇게 지저서 기름에 지저서 그걸 약과라고 올렸었어.)

112054 @1 아, 지름에 지정.(아, 기름에 지저서.)

112054 #1 느네 집이도 그거.(너희 집에도 그거.)

112054 @1 예, 예. 잘 해낫수다.(예, 예. 잘 했었습니다.)

112054 #1 게메 그건 지름에 지저낫저. 약래는.(글쎄 그건 기름에 지졌었어. 약
 과는.)

112054 @1 그걸 약래렌.(그걸 약과라고.)

112054 #1 제사에 상에 올리는 것만 지졌주. 그거 일반 사름이 먹을 건 안 지졌
 주게.(제사에 상에 올리는 것만 지졌지. 그거 일반 사람이 먹을 건 안 지졌지.)

112054 @1 만뒤는?('만뒤'는?)

112054 #1 으?(으?)

112054 @1 만뒤는 어떻 만들엇수과?('만뒤'는 어떻게 만들엇습니까?)

112054 #1 만뒤는 므물쌀로 해 가지고서 영 흰 반달 식으로 헤근에가 영 행 영
 풋쉬 낱 영 허는 거, 그것이라 만뒤엔 현다.('만뒤'는 메밀쌀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반달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소 넣어서 하는 거. 그것보고 '만뒤'
 라고 한다.)

112054 @1 므물가루로 행?(메밀가루로 해서?)

112054 #1 으, 므물가루로 주로 만이 현다.(으, 메밀가루로 주로 많이 한다.)

112054 @1 돌레떡이 므물 돌레떡이 잇잖아예?(도레떡이 메밀 도레떡이 잇잖아
 요?)

112054 #1 으.(으.)

112054 @1 그걸 반으로 접영?(그걸 반으로 접어서?)

112054 #1 으.(으.)

112054 @1 그디 쉬 논 거렌 생각허민 됩니까?(거기 소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112054 #1 으, 으.(으, 으.)

112054 @1 쉬는 뒤로 논 거라?(소는 뒤로 넣은 거야?)

112054 #1 쉬는 대개 풋으로 만이 낫저. 풋으로.(소는 대개 팔으로 많이 넣었어. 팔으로.)

112054 @1 풋쉬.(팔소.)

112054 #1 풋도 넣고 콩 보깡 콩 개역으로도 넣고.(팔도 넣고 콩 볶아서 콩 미숫가루로도 넣고.)

112054 @1 그럼 영 떡 다 만들어잖아예. 그럼 상에 퀘여 보게마씨. 올리젠. 퀘면 뭐부터 놔?(그럼 이렇게 떡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상에 괴어 보아요. 올리려고. 괴면 뭐부터 놔?)

112054 #1 질 밑에 그 뭐인가 친떡은 논다.(제일 밑에 그 뭐인가 시루떡은 놓는다.)

112054 @1 친떡예. 그리고 그 우에?(시루떡요. 그리고 그 위에?)

112054 #1 그다음에 그 우이 약케를 놓주.(그다음에 그 위에 약과를 놓지.)

112054 @1 약케.(약과.)

112054 #1 그다음에 만두.(그다음에 ‘만두’.)

112054 @1 만두.(‘만두’.)

112054 #1 으, 그다음에는 솔변.(으, 그다음에는 솔편.)

112054 @1 으, 솔변.(으, 솔편.)

112054 #1 그다음 절변.(그다음 절편.)

112054 @1 아.(아.)

112054 #1 그다음 또 이젠 가운데 영헌 지름떡.(그다음 또 이젠 가운데 이런 기름떡.)

112054 @1 지름떡.(기름떡.)

112054 #1 계난 그 과질도 영 들어간다. 과질은 따로 올려낫저. 과질이엔 헌 것이 셔낫저.(그러니까 그 과줄도 이렇게 들어간다. 과줄은 따로 올렸었어. 과줄이라고 한 것이 있었어.)

112054 @1 으.(으.)

112054 #1 과질은 따로 올리고.(과줄은 따로 올리고.)

112054 @1 솔변은 어떻 생긴 거마씨?(솔편은 어떻게 생긴 거요?)

112054 #1 솔변은 영 반달 식으로 췌 거 아니가?(솔편은 이렇게 반달 식으로 된 거 아니냐?)

112054 @1 으.(으.)

112054 #1 솔변은 이렇게 헤근에 영 췌 거 잇지 안허냐?(솔편은 이렇게 해서 이

렇게 된 거 있지 않니?)

112054 @1 예, 예.(예, 예.)

112054 #1 절편은 뱅 동글랑헌 거.(절편은 뱅 동그란 거.)

112054 @1 솔편 곤썰로 만드는 것과?(솔편 흰쌀로 만드는 겁니까?)

112054 #1 으, 곤썰로 만드는 거.(으, 흰쌀로 만드는 거.)

112054 @1 절편은?(절편은?)

112054 #1 절편도 곤썰로 만든다.(절편도 흰쌀로 만든다.)

112054 @1 절편은 어떤 모양.(절편은 어떤 모양.)

112054 #1 뱅 동글랑헌 거. 뱅 동글랑허영 그디 저 꽃무늬 거튼 거 영.(뱅 동그란 거. 뱅 동그라서 거기 저 꽃무늬 같은 거 이렇게.)

112054 @1 아, 짝는 거. 모양, 그 떡본으로 짝는 거.(아, 짝는 거. 모양, 그 떡살로 짝는 거.)

112054 #1 으, 떡본으로 짝는 거. 그것이라 절편이엔.(으, 떡살로 짝는 거. 그것 보고 절편이라고.)

112054 @1 절편이고.(절편이고.)

112054 #1 그냥, 그냥 이렇게 동글랑헌 걸로 동글랑헌 무시거 사발로 영 터근에 가 동글랑헌 거 가운데로 영 혜근에가 이거 양쪽에, 켜 솔편 된다.(그냥, 그냥 이렇게 동그란 걸로 동그란 무엇 사발로 이렇게 터서 동그란 거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이거 양쪽에, 그래서 솔편 된다.)

112054 @1 그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과, 떡 의미가?(그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떡 의미가?)

112054 #1 게메 그게 의미가 잇는 건데 건 자세히 잘 모르켜.(그래 그게 의미가 잇는 건데 건 자세히 잘 모르겠어.)

112055 @1 하하하, 예, 알았수다. 과일은, 과일은 뭐 혜신고예?(하하하. 예, 알겠습니다. 과일은, 과일은 뭐 했었나요?)

112055 #1 과일은 여기 사과가 엇어부니까 대충 뭐인가 이제 감 거튼 거 주로 올려놔주게.(과일은 여기 사과가 없으니까 대충 뭐인가 이제 감 같은 거 주로 올렸었지.)

112055 @1 감이랑?(감이랑?)

112055 #1 감이랑 대추 꽃감 밤 이런 거 올려놔져.(감이랑 대추 꽃감 밤 이런 거 올렸었어.)

112055 @1 아, 사과? 대추 꽃감 밤 같은 거. 배도 엇고?(아, 그렇습니까? 대추 꽃감 밤 같은 거. 배도 없고?)

112055 #1 그 당시 배는 여긴 제주돈 보급이 안 돼놔져.(그 당시 배는 여긴 제주돈 보급이 안 되었어.)

112055 @1 사과도 엇고 배도 엇고.(사과도 없고 배도 없고.)

112055 #1 이제는 막 햏주만은 우리 한 오륙십 년대에 배 거튼 건 잘 보급이

안 돼어났저.(이제는 마구 했지만 우리 한 오륙십 년대에 배 같은 건 잘 보급이 안 되었었어.)

112055 @1 어.(어.)

112055 #1 콧감 거튼 건 널어정 거시기 허니까.(콧감 같은 건 널려서 거시기 하니까.)

112055 @1 콧감은 집이서 탄 거 말린 거?(콧감은 집에서 탄 거 말린 거?)

112055 #1 아니, 사단.(아니, 사다가.)

112055 @1 아, 사단. 대추 밤도 사단?(아, 사다가. 대추 밤도 사다가?)

112055 #1 으, 사단.(으, 사다가.)

112055 @1 미짱도 엇어나고마씨?(꿀도 없었고요?)

112055 #1 그땐 미짱³⁶⁴ 엇어났저.(그땐 꿀도 없었어.)

112055 @1 엇어나고.(없었고.)

112055 #1 미짱은 오일육혁명 후에 저거 거세기 허난. 글후제 미짱 막 올렸저. 서귀포 나기 시작허니까. 그 나기 전에는 안 올려났저.(꿀은 오일육혁명 후에 저거 거시기 하니까. 그 후에 꿀 많이 올렸어. 서귀포 나기 시작하니까. 그 나기 전에는 안 올렸었어.)

112056 @1 채소는 아까 고사리허고.(채소는 아까 고사리하고.)

112056 #1 고사리허고.(고사리하고.)

112056 @1 콩지름허고.(콩나물하고.)

112056 #1 콩지름허고 또 이제 미나리허고.(콩나물하고 또 이제 미나리하고.)

112056 @1 미나리도 올려났수과?(미나리도 올렸었습니까?)

112056 #1 미나리도 올리고 따시 또 저 미역도 올려났저. 미역체.(미나리도 올리고 다시 또 저 미역도 올렸었어. 미역무침.)

112056 @1 아, 미역체?(아, 미역무침?)

112056 #1 으, 미역체 올려났저.(으, 미역무침 올렸었어.)

112057 @1 미역체에. 진설이, 진설이 뭐과?(미역무침요. 진설이, 진설이 뭘니까?)

112057 #1 진설이라는 것은 그 상에 제물을 영 올리는 걸 진설이엔 한다.(진설이라는 것은 그 상에 제물을 이렇게 올리는 걸 진설이라고 한다.)

112057 @1 그럼 그 진설을 누가 험니까?(그럼 그 진설은 누가 험니까?)

112057 #1 진설은 누가 누가 해, 대주가 허주.(진설은 누가 누가 해, 대주가 하지.)

112057 @1 대주가 허주.(대주가 하지.)

112057 #1 아버지가 주로 허주.(아버지가 주로 하지.)

112057 @1 과일은 어느 쪽 놓고 고기는 어느 쪽 놓고?(과일은 어느 쪽 놓고 고기는 어느 쪽 놓고?)

364) '미짱'은 일본어 'みかん'으로 감귤을 말한다.

112057 #1 흥동백서라고 그 흥동백서를 거 동쪽더레는 거세기 빨간 거 놓고 거세기 흰 거세기 왼쪽더레 놓고 그렇게.(흥동백서라고 그 흥동백서를 거 동쪽으로는 거시기 빨간 거 놓고 거시기 흰 거시기 왼쪽으로 놓고 그렇게.)

112058 @1 메나 갱은 누가 거립니까?(메나 갱은 누가 뜯니까?)

112058 #1 건 어머니가 거리주.(건 어머니가 뜨지.)

112058 @1 메뉴리 오민 메뉴리가 해?(며느리 오면 며느리가 해?)

112058 #1 아이, 거 메뉴리 잘 안 거린다.(아니, 거 며느리 잘 안 뜯다.)

112058 @1 어무니 계실 때 어무니가 허는 거라예?(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가 하는 거지요?)

112058 #1 으. 어머니가 시키면은, 어머니가 늙고 허면은 메뉴리가, 오래된 메뉴리는 메뉴리가 알양 거리긴 거리는데.(으. 어머니가 시키면, 어머니가 늙고 하면 며느리가, 오래된 며느리는 며느리가 알아서 뜨긴 뜨는데.)

112058 @1 진실은 아버지가 허는 거고 갱이랑 메는 어무니가 허는 거고.(진실은 아버지가 하는 거고 갱이랑 메는 어머니가 하는 거고.)

112058 #1 건 어무니가.(건 어머니가.)

112059 #1 현관? 제사 지낼 때 현관이렌 험니까?(현관? 제사 지낼 때 현관이라고 합니까?)

112059 #1 현관이엔 허지 안현다.(현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112059 @1 초현관.(초현관.)

112059 #1 초현관 그런 건 안 해 가지고서 삼현이엔 현다, 삼현.(초현관 그런 건 안 해 가지고서 삼현이라고 한다, 삼현.)

112059 @1 삼현.(삼현.)

112059 #1 제사 때 세 사람 들어강 제 지내는 건, 제 지내는 그 제관을 현관이엔 현다.(제사 때 세 사람 들어가서 제 지내는 건, 제 지내는 그 제관을 현관이라고 한다.)

112059 @1 아, 그럼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예?(아, 그럼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12059 #1 으.(으.)

112059 @1 세 사람이 다 또로 이름이 잇는 거 아니?(세 사람이 다 따로 이름이 잇는 거 아니?)

112059 #1 게. 초현, 아현, 종현 경허는 거주.(그래. 초현, 아현, 종현 그러는 거지.)

112059 @1 초현, 아현?(초현, 아현?)

112059 #1 종현.(종현.)

112059 @1 초현, 아현, 종현. 이렇게 해서 이게 삼현이 되는 거예?(초현, 아현, 종현. 이렇게 해서 이게 삼현이 되는 거요?)

112059 #1 으, 그렇지.(으, 그렇지.)

112059 @1 아, 아.(아, 아.)

112059 #1 제관은 꼭 서이가 돼야 제관이 되는 거.(제관은 꼭 셋이 돼야 제관이 되는 거.)

112059 @1 세 명이 제관이 돼야 허는 거예.(세 명이 제관이 돼야 하는 거요.)

112059 #1 제관이 돼야 허는 거.(제관이 돼야 하는 거.)

112060 @1 파제는, 파제는 몇 시에 해낫수과, 파제?(파제는, 파제는 몇 시에 했었습니까, 파제?)

112060 #1 파제는 주로 열두 시 혼 십오 분 전에 옛날은 경해낫주.(파제는 주로 열두 시 한 십오 분 전에 옛날은 그랬었지.)

112060 @1 으.(으.)

112060 #1 열두 시 십오 분 전에 경허면은 열두 시에 파지될 거 아니가이?(열두 시 십오 분 전에 그러면 열두 시에 파제될 거 아니냐?)

112060 @1 으.(으.)

112060 #1 웨 열두 시에 허는고 허니 열두 시에 아주 고요현 삼경이라 허거든. 그때는 고요허기 때문에 구신이 왔다 갔다 허는 그 시간이라부난 그 시간에 전후 허는데. 요새는 열한 시 전이 허는 건 위법이라.(왜 열두 시에 하는가 하니 열두 시에 아주 고요한 삼경이라 하거든. 그때는 고요하기 때문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전후 하는데. 요새는 열한 시 전에 하는 건 위법이야.)

112060 @1 하하하.(하하하.)

112060 #1 요새 열 시에도 허고 막 경허는데. 그때 제서허민 그 조상이 음복을 못 행 가. 그 시간에 이딜 오질 못해. 복잡해근에.(요새 열 시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사하면 그 조상이 음복을 못 해서 가. 그 시간에 여길 오질 못해. 복잡해서.)

112060 @1 그니까 영 바꿨수게. 전날 제사였는데 당일제로 행 날짜가 하루 앞당겨진 거 아니, 시간 바뀌명?(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지요. 전날 제사였는데 당일제로 해서 날짜가 하루 앞당겨진 거 아니, 시간 바꾸면서?)

112060 #1 계난 압텡겨져도 너무 일찍 허민 안 되는 거여. 압텡겨져도 그 시간은 하여튼 열한 시 쪼끔이라도 넘영 해야.(그러니까 앞당겨져도 너무 일찍 하면 안 되는 거야. 앞당겨져도 그 시간은 하여튼 열한 시 조금이라도 넘어서 해야.)

112060 @1 아직도 열한 시 넘영 햄수과?(아직도 열한 시 넘어서 하고 있습니까?)

112060 #1 나는 열한 시 넘영 허는데 다른 디덜은 열한 시 전이 허는 디들 만야. 열 시에 허는 데 부지기 만야.(나는 열한 시 넘어서 하는데 다른 데들은 열한 시 전에 하는 데들 많아. 열 시에 하는 데 부지기수 많아.)

112061 @1 문전제 지냅니까?(‘문전제’ 지냅니까?)

112061 #1 문전제³⁶⁵⁾ 지낸다. 저 뭐인가 제사허기 전이 문전제 지내 놔야 제를

365) ‘문전제’는 마루문 앞에서 문전신을 위해 지내는 제를 말한다.

본다.(‘문전제’ 지낸다. 저 뭐인가 제사하기 전에 ‘문전제’ 지내 놔야 제를 본다.)

112061 @1 예, 게문 문전제 지낼 때 어떻 허는 것과?(예, 그럼 ‘문전제’ 지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2061 #1 건 혼자 허는 겐데 혼자 세 번 절해근에가 처음에 이제 컷 잔에이.
(건 혼자 하는 건데 혼자 세 번 절해서 처음에 이제 컷 잔에.)

112061 @1 예.(예.)

112061 #1 컷 잔에 그거 컷 잔 보 올려 가지고이 절허여. 또 두 번에, 두 번째 또 다시 이제는이 이제 그 뭐인가 그 메에, 그 제에 잇잖아이. 채소에 걸고 메에 숯가락 꽂곡이, 꽂곡 절허영. 또시 이제 다음 세 번 할 적에는 메에 승냥을 올려 가지고이. 승냥은 처음에 잔 올린 것에 해도 되니까 그레 그 술잔더레 다 뭐인가 잡식해 놔 가지고서이.(컷 잔에 그거 컷 잔 보 올려 가지고 절해. 또 두 번에, 두 번째 또 다시 이제는 이제 그 뭐인가 그 메에, 그 제에 잇잖아. 채소에 걸고 메에 숯가락 꽂고, 꽂고 절해. 또 이제 다음 세 번 할 적에는 메에 승냥을 올려 가지고. 승냥은 처음에 잔 올린 것에 해도 되니까 그리 그 술잔으로 다 뭐인가 제반해 놔 가지고서.)

112061 @1 으. 음식 올린 것덜 조금씩 툇양?(으. 음식 올린 것들 조금씩 뜯어서?)

112061 #1 으. 세 번 절허영.(으. 세 번 절해서.)

112061 @1 예, 그다음에.(예, 그다음에.)

112061 #1 세 번 절할 때에 그거 해 놔 가지고서 잡식해 놔 절해근에 거 끝나면은 승냥은 지붕 우터레 올리는 이도 잇고 어떤 집이는 올레³⁶⁶러레 던지는 집이도 잇고.(세 번 절할 때에 그거 해 놔 가지고서 제반해 놔서 절해서 거 끝나면 승냥은 지붕 위로 올리는 이도 잇고 어떤 집에는 ‘올레’에 던지는 집도 잇고.)

112061 @1 그거 승냥에 허는 거, 술에 허는 거.(그거 승냥에 하는 거, 술에 하는 거.)

112061 #1 승냥에.(승냥에.)

112061 @1 승냥에 허는 거?(승냥에 하는 거?)

112061 #1 게난 문전제는 술에 현다. 보통.(그러니까 ‘문전제’는 술에 한다. 보통.)

112061 @1 보통 술예. 게니까 세 번 절할 때 올린 술에.(보통 술요. 그러니까 세 번 절할 때 올린 술에.)

112061 #1 으, 으.(으, 으.)

112062 @1 영 코시헌덴 험니까? 그걸 걷는 걸 제반이렌 곱읍니까?(이렇게 고사한다고 합니까? 그걸 걷는 걸 제반이라고 말합니까?)

112062 #1 그걸 제반이엔 현다. 거 여러 가지 그 해다가 그레 술잔더레 모뎡 경허는 거.(그걸 제반이라고 한다. 거 여러 가지 그 해다가 그리 술잔에 모아서 그리

366)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는 거.)

112062 @1 제반이렌 험니까, 아까 잡식이렌 허던데.(제반이라고 합니까, 아까 ‘잡식’이라고 하던데.)

112062 #1 여긴 잡식이렌 한다.(여긴 ‘잡식’이라고 한다.)

112062 @1 예, 잡식이렌 굳는 거예. 그럼 잡식 걷기렌 허는 말은 안 허고?(예, ‘잡식’이라고 말하는 거요. 그럼 제반 걷기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112062 #1 보통 잡식이렌 한다.(보통 ‘잡식’이라고 한다.)

112062 @1 잡식. 잡식은 어떻, 걷은 술잔은 어떻게?(‘잡식’. 제반은 어떻게, 걷은 술잔은 어떻게?)

112062 #1 잡식은 그 저 떡이민 떡 적이민 적 다 하나씩 해 가지고 술잔더레 놀 거 아니가?(제반은 그 저 떡이면 떡 적이면 적 다 하나씩 해 가지고 술잔에 넣을 거 아니냐?)

112062 @1 으, 으.(으, 으.)

112062 #1 눈 다음에 절해난 다음에 그 술잔에 잡식헌 걸 갖다가 지붕 위에 올리던가 아니면 올레러려 영 거세기.(넣은 다음에 절했던 다음에 그 술잔에 제반헌 걸 갖다가 지붕 위에 올리던가 아니면 ‘올레’에 이렇게 거시기.)

112062 @1 으, 비와 불던가. 지붕 위이 올리던가.(으, 비위 버리던지. 지붕 위에 올리던지.)

112062 #1 보통 지붕 위로 올리는데 어떤 디는 올레 질에 허는 디도 잇는 모양이라.(보통 지붕 위로 올리는데 어떤 데는 ‘올레’ 길에 하는 데도 잇는 모양이야.)

112063 @1 요즘은 제사 지제, 몇 대에 지제 험니까?(요즘은 제사 지제, 몇 대에 지제 합니까?)

112063 #1 옛날은 오대에 지제 해났는데이.(옛날은 오대에 지제 했었는데.)

112063 @1 으.(으.)

112063 #1 이젠 다 삼대에 다 지제 험저, 보통.(이젠 다 삼대에 다 지제 하고 있어, 보통.)

112063 @1 삼대에 지제 해 불엄서예?(삼대에 지제 해 버리고 있지요?)

112063 #1 으.(으.)

112063 @1 오대까지, 옛날에는 오대까지?(오대까지, 옛날에는 오대까지?)

112063 #1 아니, 첩 오대 아니고 스대.(아니, 첩 오대 아니고 사대.)

112063 @1 사대지예.(사대지요.)

112063 #1 스대 지젠데 요새는 삼대에 보통 다 지제 해 뵈저.(사대 지젠데 요새는 삼대에 다 지제 해 버리고 있어.)

112064 @1 예, 그지예. 묘제 허젠 허민? 묘제는 언제 허는 거라?(예, 그렇죠. 묘제 하려고 하면? 묘제는 언제 하는 거야?)

112064 #1 묘제는 그 일가에서이 대개 가을에 만이 허고 또 봄허고 가을에 허는데이. 그 묘제란 것은 제사 안 허는 산 잇잔허이. 그 옛날 조상덜. 그 일가에서

일가에서 공동으로 허는 걸 묘제엔 한다. 산에 강 지내는 걸 묘제엔 해.(묘제는 그 일가에서 대개 가을에 많이 하고 또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그 묘제란 것은 제사 안 하는 산 있잖아. 그 옛날 조상들. 그 일가에서 일가에서 공동으로 허는 걸 묘제라고 한다. 산에 가서 지내는 걸 묘제라고 해.)

112064 @1 아. 그럼 묘제 할 때는 지제 해 분 묘들이 대상이 되는 거?(아. 그럼 묘제 할 때는 지제 해 버린 묘들이 대상이 되는 거?)

112064 #1 어. 거 대상이 되는 거여. 거 제사 못 오는 오래된 조상을 그 묘에서 묘에 가근에가 그 팔월이나 그 봄에 강 허는 것을 묘제엔 한다. 그럼 일가에서 네 광김 칩이민 느네 가지는 다 가근에가 하루에 가근에 강 거 허는 거.(어. 거 대상이 되는 거야. 거 제사 못 오는 오래된 조상을 그 묘에서 묘에 가서 그 팔월이나 그 봄에 가서 하는 것을 묘제라고 한다. 그럼 일가에서 너희 광김 칩이민 너희 가지는 다 가서 하루에 가서 가서 거 하는 거.)

112064 @1 그럼 묘제허젠 허민 날은 어떻 받으니까?(그럼 묘제하려고 하면 날은 어떻게 받으니까?)

112064 #1 거 날은 일가에서 알양 아무 적당한 날 받아근에가. 겐 묘제는 또 다시 이제는 일가 종손이 허는 데도 있고이.(거 날은 일가에서 알아서 아무 적당한 날 받아서. 그래서 묘제는 또 다시 이제는 일가 종손이 하는 데도 있고.)

112064 @1 예.(예.)

112064 #1 아니면은 일가 묘제를 허는 बात 잊저. 그거 벌어먹는 사름이.(아니면 일가 묘제를 하는 बात 있어. 그거 벌어먹는 사름이.)

112064 @1 예.(예.)

112064 #1 일가에서 बात 때 봐 가지고서 이 बात 벌어먹는 사름이 묘제를 담당허는 디도 있고.(일가에서 बात 때 봐 가지고서 이 बात 벌어먹는 사름이 묘제를 담당하는 데도 있고.)

112064 @1 케민 그거 묘제 बात과?(그럼 그거 묘제 받으니까?)

112064 #1 그것ㄴ라 묘제 बात엔 한다.(그것보고 묘제 받으라고 한다.)

112065 @1 제사할 때, 제사해 먹젠 허민 뭐 금기 사항 같은 거? 몸 비리면 안 되고.(제사할 때, 제사해 먹으려고 하면 뭐 금기 사항 같은 거? 몸 '비리면' 안 되고.)

112065 #1 몸 비리민³⁶⁷⁾ 안 돼지. 몸 비리민 안 돼고 몸 비린 사름은 적도 허지 안허고 경허야 돼.(몸 '비리면' 안 되지. 몸 '비리면' 안 되고 몸 '비린' 사름은 적도 하지 않고 그래야 돼.)

112065 @1 며칠 몸 비리지 말아야 돼?(며칠 몸 '비리지' 말아야 돼?)

112065 #1 제사는 삼 일만, 삼 일 전이만 허민 어떻 안한다.(제사는 삼 일만, 삼 일 전에만 하면 어떠하지 않아.)

112065 @1 아, 삼 일 전이만 몸 비리지 안으민예.(아, 삼 일 전에만 몸 '비리지'

367) '비리다'는 꺼림칙한 송장이나 마소 등 동물이 죽은 것을 보고 몸이 더러워진 것을 말한다.

않으면요.)

13. 민간요법

113001 @1 그럼예, 민간요법에, 그 이발총 잊지예, 이발총?(그럼요, 민간요법요, 그 기계총 있지요, 기계총?)

113001 #1 으.(으.)

113001 @1 머리?(머리?)

113001 #1 으, 머리 이발총. 이발총도 옛날엔 많이 있어났저.(으, 머리 기계총. 기계총도 옛날엔 많이 있었어.)

113001 @1 예, 그럼 이발총 걸리민?(예, 그럼 기계총 걸리면?)

113001 #1 이발총 걸리민 이디선 복쟁이를 그 구해다가이, 나까다가이 복쟁이 기름으로 이디 영 불르민 그거 좋아났저. 그 웨로는 잘 안 들어.(기계총 걸리면 여기선 복어를 구해다가, 낚아다가 복어 기름으로 여기 이렇게 바르면 그거 좋았었어. 그 외로는 잘 안 들어.)

113001 @1 복쟁이가 뭐?(복어가 뭐?)

113001 #1 바당에 복, 복 잊저.(바다에 복, 복 있어.)

113001 @1 아, 복 생선 이름, 물고기 이름?(아, 복 생선 이름, 물고기 이름?)

113001 #1 으, 으. 그 복쟁이라고 한다, 제춧말론.(으, 으. 그 ‘복쟁이’라고 한다, 제춧말론.)

113001 @1 으.(으.)

113001 #1 표준말론 복이고.(표준말론 복이고.)

113001 @1 복예?(복요?)

113001 #1 으. 그거 기름을 불르는, 그거 독 잇는 거주게.(으. 그거 기름을 바르는, 그거 독 잇는 거지.)

113001 @1 으, 그 기름을 부르는 거. 이발총 말고 머리에 생기는 이발총이랑 비슷한 독짓?(으, 그 기름을 바르는 거. 기계총 말고 머리에 생기는 기계총이랑 비슷한 독창?)

113002 #1 독짓 거튼 거 그것이 상당히 거 뭐, 옛날엔 뿔이 엇어 노니까이 솟검뎡이 행 막 불르고 해났저. 솟검뎡이 잇잖아이, 솟에 영 그스레기 닳은 거 그거 행 불르곡이.(독창 같은 거 그것이 상당히 거 뭐, 옛날엔 뿔이 없어 놓으니까 솟검정 해서 마구 바르고 했었어. 솟검정이 잇잖아, 솟에 이렇게 그을음 같은 거 그거 해서 바르고.)

113002 @1 아.(아.)

113002 #1 그런 거 허고 뭐 다른 건 별로. 그것 허고이, 아이구 거. 보섭빨리³⁶⁸)엔 현 게 잇저, 보섭빨리.(그런 거 하고 뭐 다른 건 별로. 그것 하고, 아이고

거. ‘보섭빨리’라고 한 게 있어, ‘보섭빨리’.)

113002 @1 예.(예.)

113002 #1 드르에 가근에가 파다근에가 그거를 삶아, 그거를 영 시치면이 그 놈이 충이 삭 죽어. 그 보섭빨리.(들에 가서 파다가 그거를 삶아. 그거를 이렇게 씻으면 그 놈의 충이 삭 죽어. 그 ‘보섭빨리’.)

113002 @1 보?(보?)

113002 #1 보섭빨리, 여기로 제주말론 보섭빨리.(‘보섭빨리’, 여기로 제주말론 ‘보섭빨리’.)

113002 @1 거 식물 이름이과?(거 식물 이름입니까?(거 식물 이름입니까?)

113002 #1 으, 식물 이름.(으, 식물 이름.)

113002 @1 풀이름?(풀이름?)

113002 #1 으, 풀이름.(으, 풀이름.)

113002 @1 아, 보섭빨리. 검질 종류나 그런 건, 약초과?(아, ‘보섭빨리’. 김 종류나 그런 건, 약초입니까?)

113002 #1 그제 약초여.(그제 약초야.)

113002 @1 아.(아.)

113002 #1 약촌데 상당히, 그 아무 테나 잘 안 나근에가 그거 좀 희귀한 거여, 거 보섭빨리.(약촌데 상당히, 그 아무 테나 잘 안 나서 그거 좀 희귀한 거야, 거 ‘보섭빨리’.

113002 @1 아.(아.)

113002 #1 보섭빨리란 거 해다근에가.(‘보섭빨리’란 거 해다가.)

113002 @1 예.(예.)

113002 #1 그 물에 딸렁 그 물에 허면은 이디 막 허물들 옛날엔 만이 나뉠주게.(그 물에 달여서 그 물에 하면 여기 아주 허물들 옛날엔 많이 났었어.)

113002 @1 예.(예.)

113002 #1 이발충은 그걸로도 안 죽고.(기계충은 그걸로도 안 죽고.)

113002 @1 아.(아.)

113002 #1 건 북쟁이 지름 해야 돼고 이디 열 피여근에 막 허물 막 나지 않니?(건 북어 기름 해야 되고 여기 열 피어서 마구 허물 나지 안 하느냐?)

113002 @1 예.(예.)

113002 #1 그건 저 보섭빨리로.(그건 저 ‘보섭빨리’.)

113003 @1 예, 보섭빨리 허고예. 비듬 같은 건마씨?(예, ‘보섭빨리’ 하고요. 비듬 같은 건요?)

113003 #1 옛날엔 뭐 비듬 약은 엇어부난 기냥 그, 그거 고치는 건 엇어났저.(옛날엔 뭐 비듬 약은 없으니까 그냥 그, 그거 고치는 건 없었어.)

113003 @1 비듬을 비듬이엔 헤낫수과, 비듬이엔 헤낫수과?(비듬을 ‘비듬’이라고

368) ‘보섭빨리’는 풀 종류의 하나다.

했었습니까, ‘비둠’이라고 했었습니까?)

113003 #1 비둠.(‘비둠’.)

113003 @1 비둠이렌 곶아난예, 버즘도 막 하영 나낫잖아예, 옛날에예?(비둠이라고 말했었지요, 버짐도 아주 많아 낫었잖아요, 옛날에요?)

113004 #1 으. 버즘도 만이 낫저. 겐 옛날은 버즘이 도리버즘³⁶⁹)이란 게 있고이, 동글랑헌 걸 도리버즘이엔 허고이, 기자 버즘도 잇는데이.(으. 버짐도 많이 낫어. 그래서 옛날은 버짐이 ‘도리버짐’이란 게 있고, 동그란 걸 ‘도리버짐’이라고 하고, 그냥 버짐도 잇는데.)

113004 @1 예.(예.)

113004 #1 뱅 도는 버즘은이, 이것을 실로 영, 바농질허는 실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이.(뱅 도는 버짐은, 이것을 실로 이렇게 바느질하는 실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113004 @1 예.(예.)

113004 #1 요걸 영 뱅허게 영, 맞창이 거 나무에 강 돌라 불면이 거 신기허게 좋아낫저, 거.(요걸 이렇게 뱅 하게 이렇게, 맞춰서 거 나무에 가서 도려 버리면 거 신기하게 좋았었어, 거.)

113004 @1 어땡, 어땡 다시. 여기를?(어떻게, 어떻게 다시. 여기를?)

113004 #1 이디 뱅 돌르게 혜영 양지에 거 만이 나주. 뱅 돌르는 거, 거 도리버즘이엔 한다.(여기 뱅 돌게 해서 얼굴에 거 많이 나지. 뱅 도는 거. 거 ‘도리버짐’이라고 한다.)

113004 @1 도리버즘?(‘도리버짐’?)

113004 #1 으, 도리버즘은 실로 이 버즘 주위를 이렇게 영 뱅 돌르게 맞춰 가지고이.(으, ‘도리버짐’은 실로 이 버짐 주위를 이렇게 이렇게 뱅 돌게 맞춰 가지고.)

113004 @1 으.(으.)

113004 #1 나무에, 산 나무, 살아 잇는 나무에 가근에 그 실로 그대로 뱅 허게 돌라 불면이 자연히 없어져 불어낫저.(나무에, 산 나무, 살아 잇는 나무에 가서 그 실로 그대로 뱅 하게 도려 버리면 자연히 없어져 버렸어.)

113004 @1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13004 #1 신기허게 없어져.(신기하게 없어져.)

113004 @1 아. 게민 아까 버즘 종류가 도리버즘이 있고?(아. 그럼 아까 버짐 종류가 ‘도리버짐’이 있고?)

113004 #1 기자 그 군버즘이엔 헌 게.(그저 그 마른버짐이라고 한 게.)

113004 @1 군버즘이 있고예. 아, 군버즘. 그럼 진버즘, 마른버즘 허는 건 안 써예. 도리버즘이랑 군버즘이 잇는 거예?(마른버짐이 있고요. 아, 마른버짐. 그럼 진버짐, 마른버짐 하는 건 안 써요?)

113004 #1 으, 으.(으, 으.)

113005 @1 백선은마씨, 백선 하양허게?(백선은요, 백선 하양게?)

369) ‘도리버즘’은 버짐의 한 종류로, 타원형의 반점이 생기는 버짐을 말한다.

113005 #1 백선은 하양현 거 그거 머리에 거세기 허는 건데. 그것도 하여튼 다른 약은 없어 가지고서 주로 아까 그 보섭빨리로 그걸로 만이덜 고안했저.(백선은 하얀 거 그거 머리에 거시기 하는 건데. 그것도 하여튼 다른 약은 없어 가지고서 주로 아까 ‘보섭빨리’로 그걸로 많이들 고안했어.)

113005 @1 케민 아까 이발총이나 독짓이나 백선 다 머리에 해당하는 것과?(그럼 아까 기계총이나 독창이나 백선 다 머리에 해당하는 겁니까?)

113005 #1 으, 으. 머리에 해당하는 거.(으, 으. 머리에 해당하는 거.)

113006 @1 뭐 얼굴에 그 나는 거 잊지예, 학생 때 나는 거?(뭐 얼굴에 그 나는 거 잊지요, 학생 때 나는 거?)

113006 #1 아, 그거. 그거 니끼비³⁷⁰⁾엔 현 거.(아, 그거. 그거 여드름이라고 한 거.)

113006 @1 니끼비엔 험니까? 하하 건 일본말인 거 답은디?(여드름이라고 합니까? 하하 건 일본말인 거 같은데?)

113006 #1 케메, 니끼비 일본말인디 우리말로 거 잘 몰르켜만은.(글쎄, ‘니끼비’ 일본말인데 우리말로 거 잘 모르겠지만.)

113006 @1 뇷싸움이엔 안 험니까?(여드름이라고 안 합니까?)

113006 #1 으?(으?)

113006 @1 뇷싸움?(여드름?)

113006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3006 @1 안 허여. 니끼비예?(안 해. 여드름요?)

113006 #1 으, 니끼비. 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 건 약이 없다, 거.(으, 여드름. 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 건 약이 없어, 거.)

113006 @1 어쨌든 젊었을 때만 나는 거잖아예?(어쨌든 젊었을 때만 나는 거잖아요?)

113006 #1 으. 젊었을 때 나는 사람은 심하게 나고, 건 호르몬 관계주. 호르몬 과다 배출허면은 그것이 바깥더레 부까 가지고서 호르몬 작용으로 이렇게 허는 거 주게.(으. 젊었을 때 나는 사람은 심하게 나고, 건 호르몬 관계지. 호르몬 과다 배출하면 그것이 밖으로 부풀어 가지고서 호르몬 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113006 @1 으.(으.)

113006 #1 거 사춘기 거시기만 나주, 경 안 현 사람은 안 나는 거.(거 사춘기 거시기만 나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안 나는 거.)

113006 @1 예. 여긴 뇷싸움이엔 안 허는구나예?(예. 여긴 여드름이라고 안 하는군요?)

113006 #1 아니, 뇷싸움이엔 안 현다.(아니, 여드름이라고 안 한다.)

113007 @1 지미는마씨, 기미? 막 시켜멍허게?(기미는요, 기미? 아주 시켜멍게?)

113007 #1 그 시켜멍현 거 기미는 원래 기미는 벳 맞앙 기미가 끼기야 허주만

370) ‘니끼비’는 일본어 ‘にびき’로 여드름을 말한다.

은.(그 시커먼 거 기미는 원래 기미는 별 맞아서 기미가 끼기야 하지만.)

113007 @1 으.(으.)

113007 #1 건 뭐 어릴 때부터 거 뭐 선천적으로 기미 끼는 사람도 있고.(건 뭐 어릴 때부터 거 뭐 선천적으로 기미 끼는 사람도 있고.)

113007 @1 으.(으.)

113007 #1 그 뱃 만이 맞으면 기미 끼고.(그 별 많이 맞으면 기미 끼고.)

113007 @1 기미 끼고예.(기미 끼고요.)

113007 #1 으, 뱃에 뭐 얼굴이 만이 노출 돼영 허면은. 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건, 보통으로 경허는 게 아니라.(으, 별에 뭐 얼굴이 많이 노출 돼서 하면. 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건, 보통으로 그러는 게 아니야.)

113007 @1 예, 예. 게민 기미 끼민 어떻 허민 낮고 그런 건 엇수과?(예, 예. 그럼 기미 끼면 어떻게 하면 낮고 그런 건 없습니까?)

113007 #1 그런 거 엇어. 약 써 본 건 엇저.(그런 거 없어. 약 써 본 건 없어.)

113007 @1 약 써 본 거 엇어예.(약 써 본 거 없어요.)

113007 #1 자연적으로 거 벗어정 거세기 허는 거.(자연적으로 거 벗겨져서 거시기 하는 거.)

113007 @1 예.(예.)

113007 #1 것도 사람이 슬져 가민 기미가 벗어지고 헤났저.(것도 사람이 살져 가면 기미가 벗겨지고 했었어.)

113007 @1 아, 하하하.(아, 하하하.)

113007 #1 으, 사람이 좀이 그 뭐인가 기, 기가 없으면 그런 균버즘이영 버즘이영 일어나고, 나났주.(으, 사람이 좀 그 뭐인가 기, 기가 없으면 그런 마른버즘이랑 버짐이랑 일어나고, 났었어.)

113008 @1 으. 프리퐁, 프리춤?(으. 파리퐁, 주근깨?)

113008 #1 프리퐁은 거 자연적인 거. 거는 원래 어린아이, 저 어머니 뱃속으로 날 때부터. 프리퐁이엔 현 거 찼 찼 찼 여기 거세기 허는 거난.(파리퐁은 거 자연적인 거. 거는 원래 어린아이, 저 어머니 뱃속으로 날 때부터. 파리퐁이라고 한 거 점 점 점 여기 거시기 하는 거니까.)

113008 @1 예. 것도 뭐 약 엇어?(예. 것도 뭐 약 없어?)

113008 #1 것도 약 엇다.(것도 약 없다.)

113009 @1 사막 나민 어떻 험니까?(사마귀 나면 어떻게 합니까?)

113009 #1 사막은 여기선 거 그 뭐인가 거 백반이란 게 잇저, 백반이라고 건 약 이주. 그거 영 낡 쫄르는 사람도 잇고이 경 안헌 사람은이 그 사막도 복 사막이라고 해서 안 쫄르는 사람도 경헌다.(사마귀는 여기선 거 그 뭐인가 거 백반이란 게 잇어, 백반이라고 건 약이지. 그거 이렇게 놔서 자르는 사람도 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마귀도 복 사마귀라고 해서 안 자르는 사람도 그런다.)

113009 @1 아.(아.)

113009 #1 복 이신 건 그냥 내분다. 복 사막이라고 해서.(복 있는 건 그냥 내버린다. 복 사마귀라고 해서.)

113009 @1 어떤 게 복 사막인고예?(어떤 게 복 사마귀인가요?)

113009 #1 계란이 대개 이런 이 영 주위에 영 좀 뭐인가 그렇게 나는 걸 복 사막이라고. 느도 사막 하나 신게. 그건 점인데 사막은 이렇게 튀어나주. 흠뿌 튀어난다. 것ㄴ라 사막이엔 현다.(그러니까 대개 이런 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좀 뭐인가 그렇게 나는 걸 복 사마귀라고. 너도 사마귀 하나 있네. 그건 점인데 사마귀는 이렇게 튀어나지. 조금 튀어난다. 것보고 사마귀라고 한다.)

113009 @1 그럼 얼굴 눈 밑에 잇는 거는 복 사막이렌 허여?(그럼 얼굴 눈 밑에 잇는 거는 복 사마귀라고 해?)

113009 #1 아니 계란 그건 사름마다 그건 해석이 다른데 보기 싫은 건 쫄라 붓도 허고 복 사막이렌 헨 그냥 내부는 수도 잇고.(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그건 해석이 다른데 보기 싫은 건 잘라 버리기도 하고 복 사마귀라고 해서 그냥 내버리는 수도 잇고.)

113010 @1 예. 눈에 영 나는 건 들렛이엔 험니까?(예. 눈에 이렇게 나는 건 다래끼라고 험니까?)

113010 #1 들렛이엔도 허고 개썸이라고도 현다. 보통 말론 아, 개썸 낫져, 그렇게 허주.(‘들렛’이라고도 하고 ‘개썸’이라고도 한다. 보통 말론 아, 다래끼 낫어, 그렇게 하지.)

113010 @1 개썸예?(다래끼요?)

113010 #1 어. 그건, 그거 난 뎨이, 옛날에는이 그 뭐인가 디들팡 잇지 안허냐이. 통세 가 가지고서.(어. 그건, 그거 난 뎨, 옛날에는 그 뭐인가 부출돌 잇지 않니. 변소 가 가지고서.)

113010 @1 예.(예.)

113010 #1 그 통세 가 가지고 통세 담을 영 뒤집어 놓면은 그 자연히 낮고 그래낫져.(그 변소 가 가지고 변소 담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 자연히 낮고 그랬었어.)

113010 @1 아, 하하. 그거 뭐 불르고 헛던 게 아니고.(아, 하하. 그거 뭐 바르고 헛던 게 아니고.)

113010 #1 으. 불르지 안허고 그거 난 때는이 그 천평 지평을 한자로이, 천 하늘 천 허고 평할 평자, 또 그 양쪽에 천평 지평 쓴다.(으. 바르지 않고 그거 낫을 때는 그 천평 지평을 한자로, 천 하늘 천 하고 평할 평자, 또 그 양쪽에 천평 지평 쓴다.)

113010 @1 으.(으.)

113010 #1 경허면은 거 자연적으로 낮고, 그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아낫져.(그러면 거 자연적으로 낮고, 그 약을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아

었어.)

113010 @1 아, 그걸 쓰는 거라?(아, 그걸 쓰는 거야?)

113010 #1 으.(으.)

113010 @1 또 디들광?(또 부출돌?)

113010 #1 으, 디들광에 가서 아니, 디들광이 아니고 그 통세에 가 가지고서 통세에 담, 그 디들광 앞이 돌이, 뒤집어 놓면 자연히 낮고 또 경 안 허면 천평 지평 경 쓰면 낮고 경해낮주.(으, 부출돌에 가서 아니, 부출돌이 아니고 그 변소에 가 가지고서 변소에 담, 그 부출돌 앞에 돌이, 뒤집어 놓으면 자연히 낮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천평 지평 그렇게 쓰면 낮고 그랬었지.)

113011 @1 아. 눈이 별경허게 충혈됐을 때는 어떻 헤여?(아. 눈이 별경게 충혈됐을 때는 어떻게 해?)

113011 #1 그 눈은 뭐 충혈되면 뭐인가 냉수로, 냉수로 자꾸 시침베끼 별 약이 없었저.(그 눈은 뭐 충혈되면 뭐인가 냉수로, 냉수로 자꾸 씻기밖에 별 약이 없었어.)

113011 @1 아, 눈 냉수로예?(아, 눈 냉수로요?)

113011 #1 으.(으.)

113012 @1 이빨 아플 때는?(이빨 아플 때는?)

113012 #1 이빨 아플 때는이 그거 막 소주도 물꼭이 이빨 뺏을 때는이, 그땐 진통제가 었었거든이.(이빨 아플 때는 그거 마구 소주도 물고 이빨 쭈실 때는, 그땐 진통제가 없었거든.)

113012 @1 으.(으.)

113012 #1 소주도 이렇게 물고, 옛날엔 그 뇌선³⁷¹⁾이라고 잇어났저.(소주도 이렇게 물고, 옛날엔 그 뇌선이라고 있었어.)

113012 @1 약?(약?)

113012 #1 으, 뇌선 약을 이디 영 불름도 허꼭이 먹으면 조금 누기고 헤났저. 제일 고통이 거 치통이여.(으, 뇌선 약을 여기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먹으면 조금 누그러지고 했었어. 제일 고통이 거 치통이야.)

113012 @1 이빨 아픈 거예?(이빨 아픈 거요?)

113012 #1 으.(으.)

113012 @1 그 뇌선이라는 약은 언제서부터 잇어나신고예?(그 뇌선이라는 약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113012 #1 그거 상당히 오래됐저. 해방 뉘난 그게 나오기 시작했저.(그거 상당히 오래됐어. 해방되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했어.)

113012 @1 아, 해방뉘난. 우리 어무니도 막 물질할 때 그런 거 먹어난 거 기억 남수다.(아, 해방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한창 물질할 때 그런 거 먹었던 거 기억 남니다.)

371) '뇌선'은 진통제 한 종류로, 수압 때문에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헤녀들이 많이 복용했던 약 이름이다.

113012 #1 으. 머리 아픈 것도 좋고 거 진통도 되고 머리 어지런 것도 낫고 그냥 이런 거 뺏는 것도 누기고.(으. 머리 아픈 것도 좋고 거 진통도 되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낫고 그냥 이런 거 쭈시는 것도 누그러지고.)

113012 @1 아, 누기고예?(아, 누그러지고요?)

113012 #1 으.(으.)

113013 @1 셋바농 나민 어떻 험니까?(헛바늘 나면 어떻게 합니까?)

113013 #1 으?(으?)

113013 @1 셋바농?(헛바늘?)

113013 #1 아, 이거 나면은이 그 부추 잊지 안허느냐이?(아, 이거 나면 그 부추 잊지 않나?)

113013 @1 예, 부추.(예. 부추.)

113013 #1 부추를 뜯어다가.(부추 뜯어다가.)

113013 @1 부추를 제주도 말로, 여기 말로 뭐렌 곶을 거?(부추를 제주도 말로, 여기 말로 뭐라고 말할 거?)

113013 #1 세우리.(‘세우리’.)

113013 @1 어, 세우리.(어, 부추.)

113013 #1 세우리 영 흔 대여섯 겹 잘라다가이.(부추 이렇게 한 대여섯 겹 잘라다가.)

113013 @1 예.(예.)

113013 #1 그걸 뭐인가 그 소금에 독독독독 그거 뭐인가 영 다질 거 아니가이?(그걸 뭐인가 그 소금에 독독독독 그거 뭐인가 이렇게 다질 거 아니냐?)

113013 @1 예, 예.(예, 예.)

113013 #1 겐 그 부추와 소금이 혼합 뻬거든이. 그걸로 영 다끄면은.(그래서 그 부추와 소금이 혼합되었거든. 그걸로 이렇게 닦으면.)

113013 @1 으.(으.)

113013 #1 그거 안 허면은 안 돼여.(그거 안 하면 안 돼.)

113013 @1 아.(아.)

113013 #1 부추가.(부추가.)

113013 @1 부추에 소금.(부추에 소금.)

113013 #1 으, 다져서이.(으, 다져서.)

113014 @1 천연두에 뭐 약이 있어났수과?(천연두에 뭐 약이 있었습니까?)

113014 #1 천연두 헐 때 뭐 약이 었고, 그것이 심허면은이 무당을 데려다가 거에 대해서 뭐인가 빌고 경허면은 나아났저.(천연두 할 때 뭐 약이 없고, 그것이 심하면 무당을 데려다가 거에 대해서 뭐인가 빌고 그러면 나왔었어.)

113014 @1 음.(음.)

113014 #1 거 다른 약은 었다, 천연두엔.(거 다른 약은 없다, 천연두엔.)

113015 @1 홍역은마씨?(홍역은요?)

113015 #1 홍역이 천연두여.(홍역이 천연두야.)

113015 @1 홍역이 천연두예?(홍역이 천연두요?)

113015 #1 으.(으.)

113015 @1 그 큰 홍역을 여기서 제주도 말로, 다른 말로 뭐렌 골아나신고예?(그럼 홍역을 여기서 제주도 말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었나요?)

113015 #1 거, 거 죽은한집 들었다 경허주, 죽은한집.(거, 거 ‘죽은한집’ 들었다, 그러지, 홍역.)

113015 @1 아, 죽은한집예?(아, ‘죽은한집’요?)

113015 #1 으. 죽은한집이라고 그러고 그자 홍역이엔 곧고.(으. ‘죽은한집’이라고 그러고 그자 홍역이라고 말하고.)

113015 @1 예. 그거 막 얼굴에 불긋불긋 나?(예. 그거 마구 얼굴에 불긋불긋 나?)

113015 #1 으. 좁쌀 거치 불긋불긋 이거 막 열이 스십도 이상 나기 때문에 열독으로 이거 나는 거주.(으, 좁쌀 같이 불긋불긋 이거 아주 열이 사십도 이상 나기 때문에 열독으로 이거 나는 거지.)

113015 @1 예.(예.)

113015 #1 경헨 잘못 그거, 그 브름을 잘 가냥헤야 돼. 브름 맞으면은이 이것이 곰보 질 수도 있고이.(그래서 잘못 그거, 그 바람을 잘 챙겨야 돼. 바람 맞으면 이것이 곰보 질 수도 있고.)

113015 @1 예.(예.)

113015 #1 이디 영 텅기당 보민 이디 영 막 곰보 진 사름 잊지 안허느냐이?(여기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여기 이렇게 마구 곰보 진 사람 있지 않니?)

113015 @1 예.(예.)

113015 #1 그건이, 그건 그 저 대천연두가 있고 죽은 천연두가 있주. 그 큰 천연두는 이것이 막 니끼비 거치 나온다. 그거 잘못 거시기 허면은 그것이 그자 잘 아물지 안허여 경 곰보 지는 거.(그건, 그건 그 저 대천연두가 있고 작은 천연두가 있지. 그 큰 천연두는 이것이 아주 여드름 같이 나온다. 그거 잘못 거시기 하면 그것이 그자 잘 아물지 않아. 그렇게 곰보 지는 거.)

113015 @1 곰보 지는 거?(곰보 지는 거?)

113015 #1 으. 그런 마누라, 그것^ㄴ라 큰 마누라엔 헨다.(으. 그런 천연두, 그것 보고 큰 천연두라고 한다.)

113015 @1 아, 큰 마누라?(아, 큰 천연두?)

113015 #1 으. 아까 거세긴 죽은마누라.(으, 아까 거시기 작은마마.)

113015 @1 곰보 지는 거는?(곰보 지는 거는?)

113015 #1 큰 마누라.(큰 천연두.)

113015 @1 큰 마누라렌 곶을 거고?(큰 천연두라고 말할 거고?)

113015 #1 으.(으.)

113015 @1 아까 족은마누라, 족은한집이엔 곱아신디?(아까 작은마마, ‘족은한집’이라고 말했는데?)

113015 #1 으, 족은한집도 그거 족은마누라여.(‘족은한집’도 그거 작은마마야.)

113015 @1 족은마누라엔도 곱고?(작은마마라고도 말하고?)

113015 #1 으, 족은한집이엔도 허고.(으, 작은마마라고도 하고.)

113015 @1 족은한집이엔도 곱고.(작은마마라고도 말하고.)

113015 #1 으.(으.)

113016 @1 그 학질, 풋터는병이렌 험니까?(그 학질, ‘풋터는병’이라고 험니까?)

113016 #1 어, 어. 풋터는병. 그건 약이 뭐 없어났저. 그건 약이 없어 가지고서 건 갑자기 건 추우면서 말야, 으름에도 막 추우면서 막 더뻐다가 그렇게. 것도이 혼멧 분, 오 분, 오 분 내지 십 분 허면은 것도 좀 그 지나간다 것도.(어, 어. 학질. 그건 약이 뭐 없었어. 그건 약이 없어 가지고서 건 갑자기 건 추우면 말이야, 여름에도 아주 추우면서 아주 더웠다가 그렇게. 것도 한 몇 분, 오 분, 오 분 내지 십 분 하면 것도 좀 그 지나간다 것도.)

113016 @1 으. 무사 풋터는병이렌 헤신고예?(으. 왜 ‘풋터는병’이라고 했을까요?)

113016 #1 막 터니까, 아주 막 들어서 막 털어.(마구 떠니까, 아주 아주 추워서 마구 떨어.)

113016 @1 아.(아.)

113016 #1 막 이불을 만이 더퍼 줘야 된다. 케니까 막 이렇게 달달달달 튄다, 그거.(아주 이불을 많이 덮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달달달달 튄다, 그거.)

113016 @1 아. 그민 그거를 여기서 털러귀렌도 곱니까?(아. 그럼 그거를 여기서 ‘털러귀’라고도 말합니까?)

113016 #1 풋터는병이렌 허주.(‘풋터는병’이라고 하지.)

113016 @1 풋터는병, 예.(학질, 예.)

113016 #1 그것 ㄹ라 표준말로 학질.(그것보고 표준말로 학질.)

113016 @1 학질예.(학질요.)

113016 #1 우리말로 풋터는병.(우리말로 ‘풋터는병’.)

113017 @1 예. 컷둥치기?(예. 볼거리?)

113017 #1 컷둥치기는 여기 영 나는 거 있저. 이디 영 컷둥치 영 나면은이 이디 무시거 무시거 뭐 거세기 콤데사니 거튼 거 헤 가지고 영 불르고 헤났저.(볼거리는 여기 이렇게 나는 거 있어. 여기 이렇게 귀통이 이렇게 나면 여기 무엇 무엇 뭐 거시기 마늘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했었어.)

113017 @1 아, 컷둥치기. 콤데사니?(아, 볼거리. 마늘?)

113017 #1 으, 콤데사니 ㅼ아근예가 이렇게.(으, 마늘 빵아서 이렇게.)

113017 @1 여기 아픈 건 컷둥치기렌 허잖아예?(여기 아픈 건 볼거리라고 하잖

아요?)

113017 #1 으, 으.(으, 으.)

113018 @1 목 아픈 거는 뭐렌, 목거리렌 헤낫수과?(목 아픈 거는 뭐라고, 목거리라고 했었습니까?)

113018 #1 건 목거리렌 허지 안허고 그.(건 목거리라고 하지 않고 그.)

113018 @1 목 안에 아픈 거?(목 안에 아픈 거?)

113018 #1 아, 목 안에 아픈 거?(아, 목 안에 아픈 거?)

113018 @1 으.(으.)

113018 #1 목 안에 아픈 거, 그 목젓 그 뭐인가 이 감기가 들면 이 막 목 아팠이, 그 뭐인가 숨도 잘 못 쉬고 할 때 목젓 아팠젠 헐다. 목젓이 아팠다고.(목 안에 아픈 거, 그 목젓 그 뭐인가 이 감기가 들면 이 아주 목 아파서, 그 뭐인가 숨도 잘 못 쉬고 할 때 목젓 아팠다고 한다. 목젓이 아팠다고.)

113018 @1 아, 목젓이 아팠다고예?(아, 목젓이 아팠다고요?)

113018 #1 그거 벨 약이 없어. 어떻 어떻 기냥 며칠 동안 쉬면 것도 자연으로 그냥 좋곡 허엇저.(그거 벨 약이 없어. 어떻게 어떻게 그냥 며칠 동안 쉬면 것도 자연으로 그냥 좋고 했었어.)

113019 @1 아. 땀띠 나는 건마씨?(아. 땀띠 나는 건요?)

113019 #1 땀띠 나는 건, 건 약이 엇고.(땀띠 나는 건, 건 약이 없고.)

113019 @1 예.(예.)

113019 #1 땀띠 나민이 이제 여름에 한걸헐 때니까 물 맞으면 그거 싹 들어간다.(땀띠 나면 이제 여름에 한가할 때니까 물 맞으면 그거 싹 들어간다.)

113019 @1 아.(아.)

113019 #1 이제 갯것이 가민 막 물이 찬물이 잇지 안허느냐?(이제 갯가 가면 아주 물이 찬물이 잇지 않니?)

113019 @1 예, 예.(예, 예.)

113019 #1 그디서 그디 들어얏앙 이렇게 헤 나민 그거 없어지고. 그건 더웁, 더운 때는 이렇게 솟아나는 거. 땀띠가.(거기서 거기 들어얏아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 없어지고. 그건 더워서, 더운 때는 이렇게 솟아나는 거. 땀띠가.)

113019 @1 예. 거 우리 물 맞는 날 말고, 백중날이렌 험니까?(예. 거 우리 물 맞는 날 말고, 백중날이라고 험니까?)

113019 #1 주로, 백중 물이엔 헐다. 백중은 칠월, 양력, 음력 칠월달에 허는 거를, 칠월달에 백중이 들거든.(주로 백중 물이라고 한다. 백중은 칠월, 양력, 음력 칠월에 하는 거를. 칠월에 백중이 들거든.)

113019 @1 예.(예.)

113019 #1 계난 백중 물맞이, 백중 물맞이 경 해근에 일부러 물 맞으레 어디고 저 어승생³⁷²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헤낫저.(그러니까 백중 물맞이, 백중 물맞이

372) '어승생'은 제주도 해안동에 위치한 어승생오름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물 맞으러 어디니 저 어승생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마구 했었어.)

113019 @1 아, 그민 땀띠 날 때 그런 날 아니여도, 그냥 일반 날이여도 강 물 맞는 거예?(아, 그럼 땀띠 날 때 그런 날 아니여도, 그냥 일반 날이여도 가서 물 맞는 거요?)

113019 #1 으.(으.)

113019 @1 찬물예?(찬물요?)

113019 #1 으, 경 안 허민 날이 썰렁허민 자연히 거 없어지고. 겐 물 맞으민 빨리 없어지고 한다.(으, 그렇게 안 하면 날이 썰렁하면 자연히 거 없어지고. 그래서 물 맞으면 빨리 없어지고 한다.)

113020 @1 음. 부스레미?(음. 부스럼?)

113020 #1 부스레미가 그거 허물이주게.(부스럼이 그거 허물이지.)

113020 @1 몸에 나는 거. 머리에 말고 몸에 부스레미 낫을 때는?(몸에 나는 거. 머리에 말고 몸에 부스럼 낫을 때는?)

113020 #1 몸에, 몸에는 주로 부스레미가, 옛날엔 이가 만헌디 몸에 나는 건이 저 쟁베름이엔 현 게 있어났저. 쟁베름.(몸에, 몸에는 주로 부스럼이, 옛날엔 이가 많은데 몸에 나는 건 저 애기삿갓조개라고 한 게 있었어. 애기삿갓조개.)

113020 @1 쟁베름?(애기삿갓조개?)

113020 #1 으, 쟁베름이는 건이, 그것이 이디 막 뽕글락허게 허물이 커 그것이.(으, 애기삿갓조개는 건, 그것이 여기 아주 봉긋하게 허물이 커 그것이.)

113020 @1 으.(으.)

113020 #1 그거 허민 바다에 강 쟁베름 캐다가 그디 부찌야, 부찌민 그거 좋아 낫저.(그거 하면 바다에 가서 애기삿갓조개 캐다가 거기 붙여야, 붙이면 그거 좋았었어.)

113020 @1 바다에 강 뭐 뜰어당?(바다에 가서 뭐 뜰어다가?)

113020 #1 쟁베름이란 게 있저. 그 쟁베름. 바당에 그.(애기삿갓조개란 게 있어. 그 애기삿갓조개. 바다에 그.)

113020 @1 아, 쟁베름.(아, 애기삿갓조개.)

113020 #1 으, 쟁베름. 표준말로 나 거 뭇지 몰르켜.(으, 애기삿갓조개. 표준말로 나 거 뭇지 모르겠어.)

113020 @1 쟁베름. 이건 바당에서 나는?(애기삿갓조개. 이건 바다에서 나는?)

113020 #1 으, 으.(으, 으.)

113020 @1 뭐 해초?(뭐 해초?)

113020 #1 아니, 해초가 아니라 해산물이라.(아니, 해초가 아니라 해산물이야.)

113020 @1 해산물. 게민 아까 몸에 나는 것도 쟁베름이엔 허고?(해산물. 그럼 아까 몸에 나는 것도 '쟁베름'이라고 하고?)

113020 #1 으, 쟁베름 낫젠 경헌다. 몸에 주로 앞, 이 배에 주로 만이 나는디이 배에 나는 건 쟁베름, 쟁베름 허는 디 다른 디 크게 부스럼 안 낫저. 이 머리에만

막 만았주.(으, ‘쟁베름’ 났다고 그런다. 몸에 주로 앞, 이 배에 주로 많이 나는데 배에 나는 건 ‘쟁베름’, ‘쟁베름’ 하는 데 다른 덴 크게 부스럼 안 났어. 이 머리에만 아주 많았지.)

113020 @1 아, 몸에.(아, 몸에.)

113020 #1 머리에만.(머리에만.)

113020 @1 머리에만 만이 나고예.(머리에만 많이 나고요.)

113020 #1 계란 이것도 하나에 쟁베름인디, 열독인디 으름에만 이거 나는 거 주.(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쟁베름’인데, 열독인데 여름에만 이거 나는 거지.)

113020 @ 예.(예.)

113020 #1 열독이니깐이 그거 부찌면은 그 쟁베름을 부찌면은 그것이 막, 거 군벳 닳은 건데, 그 막 돌아댕기면 할른다. 그 저 뭐인가 전복 새끼 닳은 건데.(열독이니까 그거 붙이면 그 애기삿갓조개를 붙이면 그것이 마구, 거 ‘군벳’ 닳은 건데, 그 마구 돌아다니면 활는다. 그 저 뭐인가 전복 새끼 닳은 건데.)

113020 @1 음.(음.)

113020 #1 겐 걸로 할라 버리면 좋넨. 그거 부짱 혼 삼사일 뎅기민 싹 들어가고 경 헤낫져.(그래서 걸로 활아 버리면 좋는다고. 그거 붙여서 한 삼사일 다니면 싹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어.)

113021 @1 아. 헐리, 헐리. 막 살이 현 거, 현데렌 험니까?(아. 현데, 현데, 아주 살이 현 거, 현데라고 합니까?)

113021 #1 그런 말은 엇고이.(그런 말은 없고.)

113021 @1 지나가당 쓰러지민 자빠지민 이디 혈잖아예, 밀어 먹어 가지고?(지나가다가 쓰러지면 자빠지면 여기 혈잖아요, 밀어 먹어 가지고?)

113021 #1 아, 그런 뎨이. 주로 똥장을 불랐져.(아, 그런 뎨. 주로 똥장을 발랐어.)

113021 @1 아, 똥장?(아, 똥장?)

113021 #1 으, 똥장이 저 굉장히 약이야.(으, 똥장이 저 굉장히 약이야.)

113022 @1 아. 종기 났을 때는?(아. 종기 났을 때는?)

113022 #1 종기가 아까 나 얘기헌 거, 거 쟁베름이 종기.(종기가 아까 나 얘기한 거, 거 ‘쟁베름’이 종기.)

113022 @1 아, 쟁베름이 종기라. 게민 종기렌도 곤고 허물이엔도 곶아?(아, ‘쟁베름’이 종기야. 그럼 종기라고도 하고 허물이라고도 말해?)

113022 #1 으, 허물이엔도 곤고.(으, 허물이라고도 말해?)

113022 @1 쟁베름이엔도 곤고예, 허물이엔도 곤고?('쟁베름'이라고도 말하고요, 허물이라고도 말하고?)

113022 #1 허물은 작은 거고 종기 쪼끔 큰 거고.(허물은 작은 거고 종기 쪼끔 큰 거고.)

113023 @1 아, 큰 게 종기라예. 십중?(아, 큰 게 종기지요. 습중?)

113023 #1 십종이엔 현 거?(습종이라고 한 거?)

113023 @1 다리에 십종, 습종?(다리에 습종, 습종?)

113023 #1 아, 십종.(아, 습종.)

113023 @1 다시 한 번? 십종?(다시 한 번? 습종?)

113023 #1 으.(으.)

113023 @1 으.(으.)

113023 #1 다리에 거 발바닥에 어디 먼 디 걸어 가민 물집이 생기는 걸 거 십종이엔도 허는디이.(다리에 거 발바닥에 어디 먼 데 걸어 가면 물집이 생기는 걸 거 습종이라고도 하는데.)

113023 @1 예.(예.)

113023 #1 그런 건 어디 오래 걸어 나면은 발바닥이 그 물집이 생기는 것이라 거 십종이엔 현다.(그런 건 어디 오래 걷고 나면 발바닥이 그 물집이 생기는 것보고 거 습종이라고 한다.)

113023 @1 아,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거? 아니 막 다리가 붓어 가지고 꼭 눌렀을 때 막 자국 나고 그러는 건 십종이엔 안 허고?(아,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거? 아주 마구 다리가 부어 가지고 꼭 눌렀을 때 마구 자국 나고 그거는 건 습종이라고 안 하고?)

113023 #1 그건 부종이라고 현다, 부종.(그건 부종이라고 한다, 부종.)

113023 @1 아, 그건 부종이엔 허는 거고예?(아, 그건 부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113023 #1 다리가 막 붓는 것은 부종.(다리가 마구 붓는 것은 부종.)

113023 @1 예, 예.(예, 예.)

113023 #1 건 약이 엇고 그냥.(건 약이 없고 그냥.)

113023 @1 예.(예.)

113023 #1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경허여.(자연적으로 내려가고 그래.)

113023 @1 아까 십종도 자연적으로 내려가야 돼는 거예?(아까 습종도 자연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요?)

113023 #1 으.(으.)

113024 @1 생손얹이렌 험니까?(생손얹이라고 합니까?)

113024 #1 으, 그런 거 있져. 생손이 갑자기 험리가 안 낫는데도 생손이 알리는 디 지독히 아픈 거여, 이거.(으, 그런 거 있어. 생손이 갑자기 험데가 안 낫는데도 생손이 알리는데 지독히 아픈 거야, 이거.)

113024 @1 예.(예.)

113024 #1 겨민 이것이 알령 터지젠 허민 혼 일주일 걸려. 죽어지게 아픈다, 최고 아픈는 거.(그럼 이것이 알려져 터지려고 하면 한 일주일 걸려. 죽게 아픈다, 최고 아픈 거.)

113024 @1 음.(음.)

113024 #1 생손 아픈는 건. 건 약이 없어 가지고 그냥 굼앙 터져야 돼.(생손 아

픈 건. 건 약이 없어 가지고 그냥 굶아서 터져야 돼.)

113024 @1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113024 #1 으, 기다려 굶양 터지면은 뭐인가 웬장을 싸매든가.(으, 기다려서 굶아 터지면 뭐인가 된장을 싸매든가.)

113024 @1 아.(아.)

113024 #1 그 소독, 소독약 대신 허는 거가 웬장이여.(그 소독, 소독약 대신 하는 거가 된장이야.)

113024 @1 어쨌든 터져야.(어쨌든 터져야.)

113024 #1 으, 터져야 허는 거. 생손 알리면 지독히 아픈다.(으, 터져야 하는 거. 생손 알리면 지독히 아픈다.)

113025 @1 두드레기?(두드러기?)

113025 #1 그 두드레기는 가끔 드르에 갔다가이 뭐, 뭐 그 뭐에 물리면은이 그 두드레기가 막 불긋불긋. 그건 뭐 약이, 약이 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덜 영 해 가민 손바닥으로 쓸어 영 해 불민 자연히 좋은 거.(그 두드러기는 가끔 들에 갔다가 뭐, 뭐 그 뭐에 물리면 그 두드러기가 아주 불긋불긋. 그건 뭐 약이, 약이 없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 이렇게 해 가민 손바닥으로 쓸어 이렇게 해 버리면 자연히 좋아지는 거.)

113025 @1 음.(음.)

113025 #1 거 두드레기도 막 심하게 헛다근에가 것도 하루 이상 안 간다. 그냥 다 사라져 불영.(거 두드러기도 아주 심하게 헛다가 것도 하루 이상 안 간다. 그냥 다 사라져 버려서.)

113027 @1 음, 사라져볼 거예. 화상 아니, 애기 키울 때 경기 나민 어떻 험니까, 경기 나면?(음, 사라져 버릴 거요. 화상 아니, 아기 키울 때 경기 나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 나면?)

113027 #1 경기 나면, 경기 나면은 그 의원들, 이원이라고 헛저. 그 침 놓는 사람.(경기 나면, 경기 나면 그 의원들, 의원이라고 헛어. 그 침 놓는 사람.)

113027 @1 예.(예.)

113027 #1 여기서 그 뭐인가 촌에선 의원, 의원 허는디, 그런 의원을 좇아 가지고서이 그 침을 쥐야 그 경기가 나아났저.(여기서 그 뭐인가 촌에선 의원, 의원 하는데, 그런 의원을 좇아 가지고서 그 침을 쥐야 그 경기가 나아났어.)

113027 @1 예.(예.)

113027 #1 그 경기는 어린, 막 어린 때 갑자기 놀레여근에 놀레영 어린아이가 기절해영 숨 안 돌아올 때가 잇저.(그 경기는 어린, 아주 어린 때 갑자기 놀래서 놀래서 어린아이가 기절해서 숨 안 돌아올 때가 있어.)

113027 @1 음.(음.)

113027 #1 경험 죽는 거주. 거 경징이라고 해서.(그래서 죽는 거주. 거 경징이라고 해서.)

113027 @1 예.(예.)

113027 #1 경헌 때 거 전문으로 이디 의사덜이 의원이 잇어낫주게. 거 침으로 다.(그런 때 거 전문으로 여기 의사들이 의원이 있었지. 거 침으로 다.)

113027 @1 각 부락마다 그런 의원덜이 하나씩 잇어낫수과?(각 부락마다 그런 의원들이 하나씩 있었습니까?)

113027 #1 아니, 부락마다는 엇고, 우리 한동도 쟁대³⁷³)에 그 의원이 하나 잇어 가지고서 주로 전문으로 허는 사람, 나도 아이덜 키울 때이 그 사람 데려다가 허면서 헛는데.(아니, 부락마다는 없고, 우리 한동도 평대에 그 의원이 하나 잇어 가지고서 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 나도 아이들 키울 때 그 사람 데려다가 하면서 했는데.)

113027 @1 아, 쟁대?(아, 평대?)

113027 #1 으. 그건 보통 의원이 아니라.(으. 그건 보통 의원이 아니야.)

113028 @1 화상을 이덧말로?(화상을 여깃말로?)

113028 #1 화상은 거 데엿텐, 불에 텐 것³⁷⁴라 화상이주.(화상은 거 데었다고, 불에 텐 것보고 화상이지.)

113028 @1 예, 그거 제주도 말로 굳는 거 따로 엇어난?(예, 그거 제주도 말로 말하는 거 따로 없었어?)

113028 #1 거 불에 데엿젠도 허고 그자, 우리가 표준말로 화상이주.(거 불에 데었다고 하고 그저, 우리가 표준말로 화상이지.)

113028 @1 예.(예.)

113028 #1 데었다고 해. 데면 그 텐 것은이 건, 것도 약이 물지름이엔 현 것이 잇저. 옛날은 돌 만이 잡아낫주. 쟈 물지름베끼 약이 없어. 물지름을 불러 쥐야 속히 낫는 거라.(데었다고 해. 데면 텐 것은 건, 것도 약이 말기름이라고 한 것이 있어. 옛날은 말 많이 잡았었지. 그래서 말기름밖에 약이 없어. 말기름을 발라 쥐야 속히 낫는 거야.)

113028 @1 음.(음.)

113028 #1 말기름.(말기름.)

113028 @1 예, 물지름예?(예, 말기름요?)

113028 #1 으.(으.)

113028 @1 동상 걸렸을 땐 어떻 험니까?(동상 걸렸을 땐 어떻게 험니까?)

113028 #1 동상 걸렸을 땐 거기 약이, 약이 뭐 없다. 그냥 동상 걸렸을 때는 싯뿌³⁷⁴)나 험베끼 뭐 벨 수가 엇고. 여기 동상을 그렇게 하영 안 걸러낫저.(동상 걸렸을 땐 거기 약이, 약이 뭐 없다. 그냥 동상 걸렸을 때는 찜질이나 하기밖에 뭐 벨 수가 없고. 여기 동상을 그렇게 많이 안 걸렸었어.)

113028 @1 아까 시, 뭐 한다고? 동상 걸렸을 때?(아까 시, 뭐 한다고? 동상 걸

373) '쟁대'는 '평대'로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인 평대리를 말한다.

374) '싯뿌'는 일본어 'しっぶ'로 찜질을 말한다.

렸을 때?)

113029 #1 동상 걸린 적엔이, 거 저 싯뿌 해 준다.(동상 걸린 적엔, 거 저 찜질 해 준다.)

113029 @1 싯뿌가 뭐과?(‘싯뿌’가 뭡니까?)

113029 #1 그 물, 물을 따뜻하게 해 가지고 풀린다고 수건에 물 적지명 이거 영 풀리게끔.(그 물, 물을 따뜻하게 해 가지고 풀린다고 수건에 물 적시면서 이거 이렇게 풀리게끔.)

113029 @1 아. 찜질해 주는 거, 그거 싯뿌렌 해마씨?(아. 찜질해 주는 거, 그거 ‘싯뿌’라고 해요?)

113029 #1 거 일본말로 싯뿌주.(거 일본말로 ‘싯뿌’지.)

113029 @1 아, 일본말.(아, 일본말.)

113029 #1 여기서 거, 것ㄴ라 뭡엔 허나? 물찜, 물찜을 해 준다.(여기선 거, 것 보고 뭡라고 하나? 물찜질, 물찜질을 해 준다.)

113029 @1 아, 물찜?(아, 물찜질?)

113029 #1 으.(으.)

113029 @1 온찜 행 따뜻하게.(온찜질 해서 따뜻하게.)

113029 #1 으, 온찜도 허곡 냉찜도 허곡 거 허는 거에 따라서.(으, 온찜질도 하고 냉찜질도 하고 거 하는 거에 따라서.)

113029 @1 아.(아.)

113029 #1 일본말로 거 싯뿌라고 허는 거.(일본말로 거 ‘싯뿌’라고 하는 거.)

113030 @1 예, 예. 감기 걸렸을 때는 뭡 먹엇낫수과? 약은 엇을 거고?(예, 예. 감기 걸렸을 때는 뭡 먹엇었습니까? 약은 엇을 거고?)

113030 #1 감기, 감기 헐 적에는 여기 옛날 재래 약이 잇저. 승마, 갈근 그걸 딸려근에가 먹어야 돼여.(감기, 감기 할 적에는 여기 옛날 재래 약이 있어. 승마, 갈근 그걸 달여서 먹어야 돼.)

113030 @1 뭡 딸려?(뭡 달여?)

113030 #1 승마, 승마, 갈근.(승마, 승마, 갈근.)

113030 @1 갈근.(갈근.)

113030 #1 갈근, 소엽.(갈근, 소엽.)

113030 @1 소엽.(소엽.)

113030 #1 으, 그 세 가질 뇌근에가 달여서 그 물을 이제 그 감기 걸린 사람이 먹어야 좋나.(으, 그 세 가질 뇌서 달여서 그 물을 이제 그 감기 걸린 사람이 먹어야 좋아.)

113030 @1 승마가 뭡라?(승마가 뭡야?)

113030 #1 그, 거 약초여, 약초.(그, 거 약초야, 약초.)

113030 @1 갈근도?(갈근도?)

113030 #1 갈근도, 갈근도 그거, 갈근은 칩빨리를 말허는 것이고.(갈근도, 갈근

도 그거, 갈근은 칩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113030 @1 예.(예.)

113030 #1 소엽이라는 것은 지금 저, 소엽이라는 것은 우리가 뺏고, 거 유입, 유입 닳은 건데.(소엽이라는 것은 지금 저, 소엽이라는 것은 우리가 뺏인가, 거 깻잎, 깻잎 닳은 건데.)

113030 @1 예.(예.)

113030 #1 유입 거치 생긴 건데 그런 식물이 있져.(깻잎 같이 생긴 건데 그런 식물이 있어.)

113030 @1 아.(아.)

113030 #1 그런 세 가지 낱 딸령 먹고.(그런 세 가지를 놔서 달여서 먹고.)

113030 @1 음.(음.)

113030 #1 또 다시 이제는 처음에 거 약간 걸릴 적에는 그 식물체에 그거 저 뺏인가 꽤마농 놔서.(또 다시 이제는 처음에 거 약간 걸릴 적에는 메밀 죽에 그거 저 뺏인가 꽤 넣어서.)

113030 @1 하하.(하하.)

113030 #1 그거 행 먹고.(그거 해서 먹고.)

113030 @1 예.(예.)

113030 #1 그렇게 헤영 뜯 내우민 좋았져. 그거 주로 그거 허고 승마가 보통으로 많이 사용했져.(그렇게 해서 팍 내면 좋았어. 그거 주로 그거 하고 승마가 보통으로 많이 사용했지.)

113031 @1 승마예. 지침, 기침 나올 때?(승마요. 기침, 기침 나올 때?)

113031 #1 기침 나올 때 옛날은이 땡유자³⁷⁵⁾ 있지 안허냐이?(기침 나올 때 옛날은 ‘땡유자’ 있지 않니?)

113031 @1 예.(예.)

113031 #1 땡유자를 딸령 먹어났져. 요새는 사과가 막 나오고 허니까 사과니 뭐이니 딸령 먹어도. 옛날은 땡유자가 있져. 땡유자.(‘땡유자’를 달여서 먹었었어. 요새는 사과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과니 뭐이니 달여서 먹어도. 옛날은 ‘땡유자’가 있어. ‘땡유자’.)

113031 @1 땡유자예.(‘땡유자’요.)

113031 #1 그거 딸령 주로 먹어났져.(그거 달여서 주로 먹었었어.)

113032 @1 툄곡지 나올 땐 어떻 험니까?(딸꾹질 나올 땐 어떻게 험니까?)

113032 #1 툄곡지 나올 때 갑자기 놀리와, 놀레와 불민 거 들어간덴 현다.(딸꾹질 나올 때 갑자기 놀라게, 놀라게 해 버리면 거 들어간다고 한다.)

113032 @1 하하.(하하.)

113032 #1 갑자기 놀리, 놀레게끔.(갑자기 놀라, 놀라게끔.)

375) ‘땡유자’는 글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의 한 종류다. 제주말로 ‘당유지’, ‘땡유지’라고 한다.

113032 @1 예, 놀라게, 깜짝 놀라게.(예, 놀라게, 깜짝 놀라게.)

113032 #1 으, 깜짝 할 때 툭꼭지가 쑥 들어간덴.(으, 깜짝 할 때 딸꾹질이 쑥 들어간다고.)

113033 @1 으. 코피 날 때는 뭐 방법이 있어났수과?(으. 코피 날 때는 뭐 방법이 있었습니까?)

113033 #1 거 코피 날 때 뭐 방법이 었다. 코피 날 때 뭐 방법이 었이난 뒷대가 리를 이렇게 헤 가지고서 여기를 좀 툭툭툭툭 두드려근에 멧 분 잇이민 그것이 멧 고 경 헤났저.(거 코피 날 때 뭐 방법이 었다. 코피 날 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뒷대 가리를 이렇게 헤 가지고서 여기를 좀 툭툭툭툭 두드려서 멧 분 있으면 그것이 멧 고 그렇게 했었어.)

113033 @1 이디 뒷모가지를?(여기 뒷모가지를?)

113033 #1 으, 고개를 영 뒤로 돌려 가지고 뒷모가지를 툭툭툭툭 헤면은 이 쏘 아지는 피가 이디 영 역류웨영 그디 들어간다고 헤영 영 영.(으, 고개를 이렇게 뒤 로 돌려 가지고 뒷모가지를 툭툭툭툭 하면 이 쏘아지는 피가 여기 이렇게 역류되어 서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113034 @1 음. 개춤?(음. 가래?)

113034 #1 개춤이 기침인데 건 감기 들려야 개춤 나오는 거고.(가래가 기침인데 건 감기 들어야 가래 나오는 거고.)

113034 @1 가래를 개춤이엔 허지 안헤?(가래를 ‘개춤’이라고 하지 않아?)

113034 #1 으, 거 개춤이엔 한다.(으, 거 ‘개춤’이라고 한다.)

113034 @1 예, 기지예.(예, 그렇죠.)

113034 #1 거 감기 들려야 개춤이 나오주. 기침이 나오니까.(거 감기 들어야 가 래가 나오지. 기침이 나오니까.)

113035 @1 예. 늦인돌?(예. ‘늦인돌’?)

113035 #1 거 늦인돌이엔 현 것은 여기 나는 거여.(거 ‘늦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는 거야.)

113035 @1 예, 예.(예, 예.)

113035 #1 늦인돌도이 천지 췁신이, 천지 췁신 지천 췁신 그렇게 췁났저. 거기 도.(‘늦인돌’도 천지 췁신, 천지 췁신 지천 췁신 그렇게 췁었어. 거기도.)

113035 @1 어디에?(어디에?)

113035 #1 거 발에. 아까이 개췁 난 디 천평 지평인디 이딘 천지 췁신 지천 췁 신 그렇게.(거 발에. 아까 다래끼 난 데 천평 지평인데 여긴 천지 췁신 지천 췁신 그렇게.)

113035 @1 하하하.(하하하.)

113035 #1 한자, 한자도 조화가 잇어 가지고 그렇게.(한자, 한자도 조화가 잇어 가지고 그렇게.)

113035 @1 예.(예.)

113035 #1 거 다른 약은 없다.(거 다른 약은 없다.)

113035 @1 발바닥에 경 쓰면 낫는 거?(발바닥에 그렇게 쓰면 낫는 거?)

113035 #1 경헨 안 나면 그 못이란 게 잊져, 옛날 못. 못 곁아근에 이디 하도 거세기 해 가민 것도이 열독이 좀, 열이 나 가지고 수왕³⁷⁶) 허면은 거 못 곁앙 이디 영 부찌고.(그래서 안 나오면 그 무릇이란 게 잊어, 옛날 무릇. 무릇 갈아서 여기 하도 거시기 해 가면 것도 열독이 좀, 열이 나 가지고 ‘수왕’ 하면 거 무릇 갈아서 여기 이렇게 붙이고.)

113035 @1 음.(음.)

113035 #1 또 고구마 곁앙 이디 영 부찌고.(또 고구마 갈아서 여기 이렇게 붙이고.)

113035 @1 그 못이렌 허는 거는 못 밥해 먹을 때 그거?(그 무릇이라고 하는 거는 무릇 밥해 먹을 때 그거?)

113035 #1 으, 옛날 못 솥앙.(으, 옛날 무릇 삶아서.)

113035 @1 솥앙 놔 뒷당예?(삶아서 놔뒀다가요?)

113035 #1 으.(으.)

113035 @1 못. 그거 곁앙 부치고.(무릇. 그거 갈아서 붙이고.)

113035 #1 그거 부찌고.(그거 붙이고.)

113036 @1 설사 나면은?(설사 나면?)

113036 #1 설세엔, 여긴 보통 설세, 설세 경 허주게.(설사엔, 여긴 보통 ‘설세’, ‘설세’ 그렇게 하지.)

113036 @1 설사 나면 어떻 해?(설사 나면 어떻게 해?)

113036 #1 설사 나도 그땐 므물죽, 그건 므물죽만 썩 먹고 경 해났져. 설사 난 때엔 다른 약이 뭐 엇주. 건 무시거.(설사 나도 그땐 메밀죽, 그건 메밀죽만 썩서 먹고 그렇게 했었어. 설사 난 때엔 다른 약이 뭐 없지. 건 무엇.)

113037 @1 이질 병이렌 험니까?(이질 병이라고 합니까?)

113037 #1 으, 이질 병. 거 일본말론 세끼리³⁷⁷)고, 거 이질 병은이.(으, 이질 병. 거 일본말론 ‘세끼리’고, 이질 병은.)

113037 @1 으.(으.)

113037 #1 똥은 마려와도 똥은 안 나오고 코 닳은 것만 거 피영 서꺼정 막 나온다. 그거 허면은 그때 뭐 대축 뭇 해 가지고. 그 기름에 뭇 대축 무신 기름에 헹 먹어났는디이.(똥은 마려워도 똥은 안 나오고 코 닳은 것만 거 피랑 섞여서 많이 나온다. 그거 하면 그때 뭐 수수 해 가지고. 그 기름에 뭇 대축 무슨 기름에 해서 먹었었는데.)

113037 @1 예, 예.(예, 예.)

113037 #1 기름, 하여튼 기름에 떡 거튼 거 영 지저근에 거 먹으멍 해났져. 경

376) ‘수왕’은 몸에 열이 나면서 지끈거리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377) ‘세끼리’는 일본어 ‘せ끼り’로 이질을 말한다.

허난 웨 경헌고 허니 그건 터지라고 그거이. 이질 병 걸리면은 똥은 마려와도 안 나오주게, 안 나와.(기름, 하여튼 기름에 떡 같은 거 이렇게 지져서 거 먹으면서 했었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니 그건 터지라고 그거. 이질 병 걸리면 똥은 마려워도 안 나오지, 안 나와.)

113037 @1 으.(으.)

113037 #1 코 닦은 거 허고 피 섞인 거 그것만 똑똑 혼 점씩, 혼 점씩 떨어지니까 답답허니까.(코 닦은 거 하고 피 섞인 거 그것만 똑똑 한 점씩, 한 점씩 떨어지니까 답답하니까.)

113037 @1 으.(으.)

113037 #1 경허민 기름에 튀.(그러면 기름에 튀.)

113037 @1 먹어난 거예?(먹었던 거요?)

113037 #1 으, 으.(으, 으.)

113038 @1 저기 광란이란 것도 있어났수과?(저기 광란이란 것도 있었습니까?)

113038 #1 으, 광란이 잊져. 갑자기이, 갑자기 배가 아광 옛날은이 갑자기 배 아광 막 돌아댕긴다. 경허민이 배꼽에 손 이렇게 그 배꼽에 탄 사람이 손 영 해 가지고서 일곱 번이 영 영 돌리면이 신기하게 것도 좋아났져.(으, 광란이 있어. 갑자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옛날은 갑자기 배 아파서 마구 돌아다닌다. 그러면 배꼽에 손 이렇게 그 배꼽에 탄 사람이 손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번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신기하게 것도 좋았었어.)

113038 @1 예.(예.)

113038 #1 손으로 영 돌려근에가.(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113038 @1 아.(아.)

113038 #1 이젠 그런 병이 잇는디 옛날엔 광란이가 많이 셔났져.(이젠 그런 병이 없는데 옛날엔 광란이 많이 있었어.)

113038 @1 옛날에예?(옛날에요?)

113038 #1 으.(으.)

113039 @1 체 했을 때는 어떻 험니까?(체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13039 #1 체 했을 적에는 동네 사름덜이 강, 느리는 사름이 두드려 주고 안마해 주고 영 느리는 사름이 셔났져. 이제는 느리는 사름이 잇는데, 옛날에 저 임권이 어명이 체 잘 내려났주.(체 했을 적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서, 내리는 사람이 두드려 주고 안마해 이렇게 주고 내리는 사람이 있었어. 이제는 내리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저 임권이 어머니가 체 잘 내렸었어.)

113039 @1 예.(예.)

113039 #1 경허난디 이젠 그런 사름이 잇으난 우리도 시에 강 급체 내리는데.(그랬었는데 이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시에 가서 급체 내리는데.)

113039 @1 그때 쟁대 의원안티 가진 앓고 체 했을 때는?(그때 쟁대 의원한테 가진 앓고 체 했을 때는?)

113039 #1 그, 그 평대 의원안턴 안 가고 체 난 때는 이 동네에 체 내리는 할망덜이 셔낫주.(그, 그 평대 의원한테 안 가고 체 난 때는 이 동네에 체 내리는 할머니들이 있었지.)

113039 @1 으.(으.)

113039 #1 그 사름이 손보민 내려가고 경 해낫저.(그 사람이 손보면 내려가고 그렇게 했었어.)

113039 @1 예. 저기 막 문지르고 손도 따고 험니까?(예. 저기 마구 문지르고 손도 따고 험니까?)

113039 #1 으, 문지르고, 등맹이로 등맹이로이 바놓으로 이거 체짚이 잇젠 험영 따곡 험다.(으, 문지르고, 등으로 등으로 바늘로 이거 체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따고 한다.)

113039 @1 아.(아.)

113039 #1 그거 딸 때에는 탕탕 바놓 소리가 막 난다. 이 실 거치 험 것이 이 등맹이에 사려져서 게난 그걸 두드려야 그걸 좋는다고 그래서.(그거 딸 때에는 탕탕 바늘 소리가 마구 난다. 이 실 같이 한 것이 이 등에 사려서 그러니까 그걸 두드려야 그걸 좋아진다고 그래서.)

113040 @1 아, 게민 낫는 거구나예. 베인 데, 베였을 때는 어떻 치료험니까?(아, 그럼 낫는 거군요. 베인 데, 베였을 때는 어떻게 치료험니까?)

113040 #1 베였을 때는 주로이 들에 강 베면은 속 잇잖아이, 속 이렇게 부벼근에 속이 약이야.(베였을 때는 주로 들에 가서 베면 속 잇잖아, 속 이렇게 비벼서 속이 약이야.)

113040 @1 음.(음.)

113040 #1 호미로 베나 무시거 칼로 베나 벨 때는 속, 속풀을 이렇게 손바닥에서 부벼서 그 물 나는 거 해근에 딱 허게 무끄민 그거 아몰어 분다.(낫으로 베거나 무엇 칼로 베거나 벨 때는 속, 속풀을 이렇게 손바닥에서 비벼서 그 물 나는 거 해서 딱 하게 묶으면 그거 아몰어 버린다.)

113040 @1 예.(예.)

113040 #1 그 속, 속으로.(그 속, 속으로.)

113041 @1 속으로예. 모기 물렸을 때는?(속으로요. 모기 물렸을 때는?)

113041 #1 모기 물렸을 때는 뭐 방법이 엇주. 모기를 방지허기 위해서 모깃불을 살좌낫저.(모기 물렸을 때는 뭐 방법이 없지. 모기를 방지허기 위해서 모깃불을 살렸어.)

113041 @1 아, 뭐로 모깃불을 살렸수과?(아, 뭐로 모깃불을 살렸험니까?)

113041 #1 그 ㄱ시락, ㄱ시락으로 헤 가지고서 그 마당에 모깃불 막 살좌낫저. 옛날엔 무지허게 모기가 만나나낫주.(그 까끄라기, 까끄라기로 헤 가지고 그 마당에 모깃불 마구 살좌엇어. 옛날엔 무지허게 모기가 많앗엇지.)

113041 @1 음.(음.)

113041 #1 모깃불 살르당 버치니까이 해방 후에는 조금 외국 문화가 들어오니까 모기장이 생기기 시작했주. 그래서 모기장이 집집마다 셔났는데 이제는 모기장이 엇주만은, 옛날은 다 모기장 청 살아났저.(모깃불 사르다가 힘에 부치니까 해방 후에는 조금 외국 문화가 들어오니까 모기장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래서 모기장이 집집마다 있었는데 이제는 모기장이 없지만, 옛날은 다 모기장 쳐서 살았었지.)

113041 @1 아.(아.)

113041 #1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113041 @1 모깃불 피운덴 해 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낭을 써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마시락?(모깃불 피운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무슨 나무를 써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까끄라기?)

113041 #1 옛날 제충국을 갈아났주. 제충국 그 나무를 해다가이 그 뭐인가 불 살르주. 연기 내우며은 모기가 제충국은 아주 당약이여 모기에는.(옛날 제충국을 갈았었어. 제충국 그 나무를 해다가 그 뭐인가 불사르지. 연기 나게 하면 모기가 제충국은 아주 당약이야 모기에는.)

113041 @1 아, 제충국 나무?(아, 제충국 나무?)

113041 #1 으, 지금 이 지금 모기향은 만든 건디 제충국 그걸로 만든다.(으, 지금 이 지금 모기향은 만든 건데 제충국 그걸로 만든다.)

113041 @1 아.(아.)

113041 #1 그니까 그거 태우면은 막 냄새가 나는 거지예?(그니까 그거 태우면 마구 냄새가 나는 거지요?)

113041 @1 으.(으.)

113041 #1 냄새가 나고 모기에는 제충국, 그것이 아주 적이라.(냄새가 나고 모기에는 제충국, 그것이 아주 적이야.)

113041 @1 아, 제충국 낭예?(아, 제충국 나무요?)

113041 #1 으, 여기 제충국은 만이 갈아났저. 계난 그거 해영. 계고 마스락 그 보리 마스락도 피우고 그렇게.(으, 여기 제충국은 많이 갈았었어. 그러니까 그거 해서. 그리고 까끄라기 그 보리 까끄라기도 피우고 그렇게.)

113041 @1 보리 마스락이랑 제충국 낭이랑예?(보리 까끄라기랑 제충국 나무랑요?)

113041 #1 으, 제충국 낭.(으, 제충국 나무.)

113042 @1 뱀 물렸을 때?(뱀 물렸을 때?)

113042 #1 뱀 물렸을 적에는 거 약이 엇어났저. 뱀 물렸을 적에 거 침으로이 이 주위를 침 빠지게끔 막 이렇게 그렇게 해근에 약을, 그뎨 엇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똥장 킬르고 그렇게 허면서 독을. 건 침 의원이 잇어났저. 베염안티 물리면은 이렇게 똥장 베염안티 물리면은 우선 이디 결박을 한다. 이 독이 올라오지 못허게.(뱀 물렸을 적에는 거 약이 없었어. 뱀 물렸을 적에 거 침으로 이 주위를 침 빠지게끔 마구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약을, 그뎨 없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똥장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독을. 건 침 의원이 있었어. 뱀한테 물리면 이렇게 돼서 뱀한테 물리면 우선 여기 결박을 한다. 이 독이 올라오지 못하게.)

113042 @1 음.(음.)

113042 #1 딱 양쪽에 즐라메여서 의원안티 가서이 침으로 똑꼭 쥐면 피 날 거 아니냐?(딱 양쪽에 잘라매서 의원한테 가서 침으로 똑꼭 쥐면 피 날 거 아니냐?)

113042 @1 그 피, 독을 뽑아 베야 속히 낮고 경 안 허민 막 오래가고 경 헤낫저. 약은 엇고.(그 피, 독을 뽑아 버려야 속히 낮고 그렇게 안 하면 아주 오래가고 그렇게 했었어. 약은 없고.)

113042 #1 약은 엇고예?(약은 없고요?)

113043 @1 으. 벌 쏘이민?(으. 벌 쏘이면?)

113043 #1 거 벌 쏘인 것은 그냥 저절로 좋아났저.(거 벌 쏘인 것은 그냥 저절로 좋았었어.)

113043 @1 뭐 오줌 누거나 그렇진 안허고?(뭐 오줌 누거나 그렇진 앓고?)

113043 #1 계난 그 뭐인가 그 어린아이 오줌을 영 행 헤낫저만은 건. 경 벌 쏘이는 건 자연히 건 그냥.(그러니까 그 뭐인가 그 어린아이 오줌을 이렇게 해서 했었지만 건. 그렇게 벌 쏘이는 건 자연히 건 그냥.)

113044 @1 하하. 옷오르텐 허지에, 옷오른텐?(하하. 옷오른다고 하지요, 옷오른다고?)

113044 #1 으. 옷오르는 건이, 건 것도 약이 엇다. 하여튼 옷올르민 뭐 방법이 엇어. 막 알르다가 메칠 알르다가 좋긴 좋아났저.(으. 옷오르는 건, 건 것도 약이 없다. 하여튼 옷오르면 뭐 방법이 없어. 마구 앓다가 며칠 앓다가 좋긴 좋았었어.)

113044 @1 아.(아.)

113044 #1 건 드르에 강 옷나무 건드려 불민 옷오른다.(건 들에 가서 옷나무 건드려 버리면 옷오른다.)

113044 @1 기지에, 옷나무 건드리민.(그렇죠, 옷나무 건드리면.)

113044 #1 몰랑 건드려 불민.(몰라서 건드려 버리면.)

113045 @1 명들었을 땐 어떻 험니까?(명들었을 땐 어떻게 합니까?)

113045 #1 아, 명든 거야 그냥 내불민 돼주. 자꾸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고 경해주민 즈연이, 흔 삼사일 돼민 원상 복귀웁다.(아, 명든 거야 그냥 내버리면 되지. 자꾸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고 그러면 자연히, 한 삼사일 되면 원상 복구된다.)

113047 @1 허리 빠였을 때?(허리 빠였을 때?)

113047 #1 허리 빠였을 때는이 주로이 뭐인가 쌀밥에 찰기름 놔서이 거 밥행 먹으면, 밥행 먹어근에 흐룻밤 자나민.(허리 빠였을 때는 주로 뭐인가 쌀밥에 찰기름 놔서 거 밥해서 먹으면, 밥해서 먹어서 하룻밤 자고 나면.)

113047 @1 하하.(하하.)

113047 #1 그 웨에는 약이 엇엇저.(그 웨에는 약이 없었어.)

113047 @1 하하.(하하.)

113047 #1 그게 아주 좋은 거.(그게 아주 좋은 거.)

113047 @1 하하, 쌀밥 찹기름 낱 먹는 거?(하하, 쌀밥 찹기름 넣어서 먹는 거?)

113047 #1 으.(으.)

113048 @1 발목 빠민?(발목 빠면?)

113048 #1 손으로 영 썬베끼 다른 거 방법 엇주.(손으로 이렇게 쥐기밖에 다른 거 방법 없지.)

113048 @1 방법 엇어?(방법 없어?)

113048 #1 으.(으.)

113049 @1 귀에 물 들어가민 어떻습니까?(귀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113049 #1 귀에 물 들어간 건 귀에 따시 물 놔근에가이, 귀에 물 들어가민 물이 안 빠정 잇주. 게민 새로 물 질어근에이 이렇게 비우민 그 물 나올 때 다 나온다. (귀에 물 들어간 건 귀에 다시 물 넣어서, 귀에 물 들어가면 물이 안 빠져서 있지. 그럼 새로 물 길어서 이렇게 부으면 그 물 나올 때 다 나온다.)

113049 @1 예. 하하.(예. 하하.)

113049 #1 갱 귀 알령도 허주께.(그래서 귀 아려도 하지.)

113049 @1 물?(물?)

113049 #1 으, 물 들엉 막 귀 알려근에.(으, 물 들어서 아주 귀 아려서.)

113050 @1 무좀 이시민?(무좀 있으면?)

113050 #1 옛날에 무좀은, 이 중간에 생겼주, 옛날에 무좀은 엇어났저.(옛날에 무좀은, 이 중간에 생겼지, 옛날에 무좀은 없었어.)

113050 @1 엇어나서.(없었어.)

113050 #1 초신 신영 텡길 적에는 이디 벳 맞앙 무좀 엇었는데 요새에, 근래야 무좀이 잇저, 옛날엔 무좀이 엇어. 맨발에 막 텡기곡 허난.(초신 신고 다닐 적에는 여기 별 맞아서 무좀 없었는데 요새에, 근래야 무좀이 잇어, 옛날에 무좀이 없어. 맨발에 마구 다니고 하니까.)

113051 @1 예. 습진은?(예. 습진은?)

113051 #1 게 습진도 옛날엔 엇어나고.(게 습진도 옛날엔 없었고.)

113052 @1 엇어나고예. 가메, 가메기눈이엔 현 거 잇어났수과, 가메기눈?(없었고요. 가메, 까치눈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까, 까치눈?)

113052 #1 가메기눈 그거 뭐라?(까치눈 그거 뭐야?)

113052 @1 까치눈?(까치눈?)

113052 #1 까친 원래 이디 엇어, 이제야 생긴 거 저 까치엔 현 건.(까친 원래 여기 없어, 이제야 생긴 거 저 까치라고 한 건.)

113052 @1 그거 가메기눈이엔 불릅디다. 여기 빨록하게 튀어 나온 거.(그거 까치눈이라고 부릅디다. 여기 빨록하게 튀어 나온 거.)

113052 #1 아, 가메기눈, 아.(아, 까치눈, 아.)

113052 @1 예.(예.)

113052 #1 가메기눈 거치 튀어나는 거?(까치눈 같이 튀어나는 거?)

113052 @1 예.(예.)

113052 #1 어, 그거 가메기눈이엔 현다. 그건 멀리 걸음이나 허민 튀어나오민 가메기눈 헛저, 경허긴 현다.(어, 그거 까치눈이라고 한다. 그건 멀리 걸음이나 하면 튀어나오면 까치눈 했어, 그러긴 한다.)

113052 @1 예. 뭐 벨 수 엇고, 약은 엇고예?(예. 뭐 벨 수 없고, 약은 없고요?)

113052 #1 으, 약은 엇고 자연이 치료되는 거, 그런 건.(으, 약은 없고 자연히 치료되는 거, 그런 건.)

113053 @1 그 밖에 뭐 민간요법으로 해난 거 엇수과, 어디 아프민 뭐 뭐 해야 웬다 헛던 거?(그 밖에 뭐 민간요법으로 헛던 거 없습니까, 어디 아프면 뭐 뭐 해야 된다 헛던 거?)

113053 #1 아, 게메 여기는 주로 허리 아프고 기자 뒤인가 감기베끼 옛날은 뭇이 엇어났주게. 어린아이는 경질이고 거 풋터는 거 그거 허고, 풋터는 것이 만이 생겨났주. 천연두 그거 허고. 말고는 뭐 별 약이 엇주게.(아, 글썸 여기는 주로 허리 아프고 그거 뒤인가 감기밖에 옛날은 뭇이 없었지. 어린아이는 경질이고 거 학질 그거 하고, 학질 것이 많이 생겼었지. 천연두 그거 하고. 말로는 뭐 별 약이 없지.)

113053 @1 으.(으.)

113053 #1 게난 소소허게 아픈 건이, 아픈 건 전부 다 여기선이 의원안티 침 맞으민 낫아났저.(그러니까 소소허게 아픈 건, 아픈 건 전부 다 여기선 의원한테 침 맞으면 나왔었어.)

113053 @1 아, 침 맞으민?(아, 침 맞으면?)

113053 #1 으, 침 맞앙, 침 뒤인가 머리가 막 아프민이 머리에 침 맞앙 이딘 피가 막 나민 시원허덴 해근에, 그 침 맞으민 그렇게 좋고 옛날엔 침바치가 우리 한동에도이 한동에도 둘이나 서이가 셔났저.(으, 침 맞아서, 침 뒤인가 머리가 아주 아프면 머리에 침 맞아서 여긴 피가 마구 나면 시원한다고 해서, 그 침 맞으면 그렇게 좋고 옛날엔 침바치가 우리 한동에도 한동에도 둘이나 서이가 있었어.)

113053 @1 침놓는 사름이?(침놓는 사름이?)

113053 #1 으.(으.)

113053 @1 아.(아.)

113053 #1 그디 가울목³⁷⁸에도 임택이 아방이 아주 침 침 좋아근에 그 사름 혼 번 낫다 허민 완전히 좋고 헛저.(거기 ‘가울목’에도 임택이 아버지가 아주 침 침 좋아서 그 사름 한 번 낫다 하면 완전히 좋고 헛저.)

378) ‘가울목’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지명의 하나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돌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2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